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제 11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일시_ 2020.09.25(금) 13:00~18:00

장소_ 대한상공회의소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제 11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입니다.

일 년 중 가장 풍요로운 시절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연구소의 연중 큰 행사라 할 수 있는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가정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초등교육학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해주셔서 무엇보다 의미가 크고 가치 있는 학술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유난히 자연재해도 많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힘든 시기입니다만, 어느 해보다 수준 높은 많은 연구 논문을 제출해 주셔서 학술대회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모든 연구 참여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5년간 육아정책연구소는 패널 연구 예산 지원이 중단될 뻔한 현실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올해처럼 외부환경으로 인해 가구방문조사 진행이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 모두를 극복하고 한 해도 빠짐없이 패널 조사를 진행해왔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2008년 확보한 2,000여명의 신생아 패널은 이제 1,500명 정도로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유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급격한 성장의 시기를 그들 모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20세가 될 때까지 육아정책연구소는 그들의 끊임없는 성숙과 성장에 대한 기록들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아동패널은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아동기 전 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연구로서, 아이의 성장과 발달, 양육환경, 정책의 영향 등 관련 분야 종단 자료를 전국에서 축적하는 국내 유일의 패널입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부터 향후 10년 간 새로운 신생아 코호트를 구성하여 또 하나의 역사가 될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그간 아동패널 연구를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데이터 구축 역량을 인정받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널 확보를 위한 예산을 정부에서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 정책 연구의 기틀이 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동패널 연구에 수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주셨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또 하나의 아동패널 자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학문적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부터는 우리 연구소뿐 아니라 관련 분야 주요 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방식으로 개최하여 데이터 활용의 다양성을 키우고 국가 연구 자료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뜻을 함께 해주신 대한가정학회 조성연 회장님, 한국교육심리학회 김종백 회장님, 한국아동복지학회 정선욱 회장

님, 한국아동학회 박혜원 회장님, 한국초등교육학회 이환기 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열정을 다해 연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연구자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토론 및 좌장을 맡아 주신 여러 교수님과 박사님들, 온라인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미있고 활발한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육아정책연구소장 백 선 희

축사

대한가정학회

안녕하세요?

대한가정학회 회장 호서대 조성연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의 개최를 대한가정학회 전회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아동과 가족의 종단적 자료 조사를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한 삶을 위한 적합한 육아환경을 모색하고자 2006년 아동패널의 모형 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아동패널 데이터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년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국내, 국제 학술대회를 활발히 개최해오고 있어 우리나라 아동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진 연구자 뿐만 아니라 기성 연구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나라 아동과 가족 연구 발전에 그 기여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모든 연구진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수고하여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위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아동패널 연구진들께서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패널 자료를 공유해줌으로서 매년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족분야 및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의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2020년 제11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COVID-19 라는 초유의 사태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직접 학술 논문 발표 현장에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접할 수는 없지만 모든 참여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활발한 토론의 장을 이어갈 수 있는 멋진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덧 11번째를 맞이한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육아정책연구소의 모든 연구진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육아정책연구소의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0년 9월 25일
대한가정학회 회장 조성연

축사

한국교육심리학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육심리학회 회장 김종백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육아정책 연구소 백선희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자와 본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육아정책 연구소와 한국교육심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 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를 한국교육심리학회 전회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의 발전은 자라나는 세대에 그 국가가 얼마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들에 대한 종단 자료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구축 사업은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 자신 유학할 당시에 NICHD Early Child Care 연구에 참여하고 자료를 구축하며 여러 연구에 참여하며 느낀 점은 국가의 노력을 통해서 사회는 앞서 나가며 강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이러한 종단자료 구축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기뻐했습니다. 육아 정책연구소에서는 종단자료를 구축해나감에 매년 학술대회를 열어 여러 분야의 학자들로 부터 관심을 유도하고 활발한 토론과 논의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제 자신도 이러한 기회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 자신 처음 종단 자료가 구축될 때 동료연구자와 함께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 자리에 다시 와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축사를 준비하면서 금번 학술대회 발표되는 연구의 주제와 발표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는데, 전국에 걸쳐서 다양한 기관들의 연구자들이 여러 분야의 주제들을 가지고 발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겐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애석한 점은 이번 행사가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치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이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공간이 되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오늘 학술 행사가 온라인 공간에서 활발한 토론과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에 확신을 가집니다. 부디 금번 학술대회가 우리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하며 제 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2020년 9월 25일
한국 교육심리학회 회장 김종백

축사

한국아동복지학회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단어가 참 고맙고 반가운 말이라는 것을 매일 깨닫는, 코로나 19와 함께 하는 일상입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이 힘들고 지친 시기에,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의 개최는 다른 어느 때보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누군가의 노력으로 대중교통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니고 마트도 계속 열리는 상황이 또 누군가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는 것처럼, 이번 학술대회는 매년 열리는 의례적인 학술대회가 아니라, 중단없이 개최되는 학술대회로서 그 “지속성”이 주는 안정감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분들, 그리고 귀한 원고를 제출하고 발표해주시는 분들, 우리에게 소중한 자료를 만들어주신 학생, 학부모 여러분, 모두들 감사합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가 아동 분야 연구자 및 실천가들에게 풍부한 논의와 소통의 장으로, 그 기능을 다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25일
한국아동복지학회장 정선욱

축사

한국아동학회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문턱에서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육아정책연구소 및 관련 학회들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COVID-19사태로 대부분의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학술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육아정책연구소의 백선희 소장님이하 관계자분들과 공동주최 학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설립된 이후 육아정책연구소는 많은 연구와 정책 이슈 발굴 등을 통해 아동의 발달과 가족의 복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2019년 합계출산율 0.92라는 세계적 초저출산율을 보이고, 아동학대, 발달장애와 부적응 그리고 집단간 갈등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COVID-19사태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만이 곧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뭇 아이러니한 사실을 절감시켜 주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意識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노멀시대의 육아문제는 아동정책수립의 최전선에 있는 육아정책연구소와 여러 국가기관, 학계, 그리고 각 가정의 부모가 함께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본 한국아동패널 공동학술대회는 한국 사회의 많은 어려움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아동과 가족의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일에 기여하는 초석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한데 한국아동패널은 귀중한 10년 이상의 종단 자료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판데믹 사태로 인해 자료수집과 연구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아동패널 자료로 인해 알찬 연구들이 수행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국아동패널연구가 지속되어 패널의 아이들이 학령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될 때까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25일
한국아동학회 회장 박혜원

축사

한국초등교육학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초등교육학회 회장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이환기입니다.

오늘,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로 분야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아동교육과 관련한 학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는 다섯 학회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학술대회에 우리 초등교육학회도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육아정책 연구소는 그동안 효과적인 육아정책 지원 및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2006년 아동패널 모형 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패널데이터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구축에만 그치지 않고 2010년 제1회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구축한 데이터에 기반한 활발한 학술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오으로써 올해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학술대회는 아동교육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함께 하며 참여한 다양한 분야의 학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다른 관점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학술대회에 다양하고도 의미 있는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해주신 여러 연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진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 대면을 통한 소통을 못하게 되어 아쉬움을 금할 길 없으나 온라인 방식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학술 논의를 진행하는 오늘의 새로운 시도 자체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학술대회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들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25일
한국초등교육학회 회장 이환기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3:00 - 13:20	등록
개회식	
13:20 - 13:40	개회사: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 축사: 대한가정학회 조성연 회장 한국교육심리학회 김종백 회장 한국아동복지학회 정선욱 회장 한국아동학회 박혜원 회장 한국초등교육학회 이환기 회장
13:40 - 13:50	대학원생 논문 시상
13:50 - 14:00	한국아동패널 소개
논문발표	
세션 1 학교적응	
14:00 - 14:30	1.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부모 - 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학습준비도 및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4:30 - 15:00	2. 학습준비도, 부모, 교사 요인이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과 학업 수행 변화에 미치는 영향
15:00 - 15:30	3.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휴식(15:30-15:50)	
15:50 - 16:20	1.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예측하는 학령초기 집행기능 곤란과 학교적응 간의 평행잠재성장모형 분석
16:20 - 16:50	2. 생애초기 누적위험요인이 유아기 문제행동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16:50 - 17:20	3.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적용한 1~4학년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
세션 2 아동발달	
14:00 - 14:30	1.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과 또래애착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
14:30 - 15:00	2.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 존중감 변화양상과 관련 변인 탐색
15:00 - 15:30	3.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과 아동기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의 연령에 따른 다집단분석
휴식(15:30-15:50)	

논문발표	
15:50 - 16:20	1.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의 미디어 사용 유형화와 유형별 인지 발달 특성
16:20 - 16:50	2.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16:50 - 17:20	3. 소득양극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 예측에 관한 머신러닝분석
세션 3 양육	
14:00 - 14:30	1. 아동 물질주의에 대한 중단연구: 행복과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부모 요인
14:30 - 15:00	2.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반영한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집단 간 차이
15:00 - 15:30	3.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그릇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휴식(15:30-15:50)	
15:50 - 16:20	1. 잠재전이모형을 적용한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 및 영향요인 검증
16:20 - 16:50	2. 맞벌이 가구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와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16:50 - 17:20	3.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의 전이와 부모, 교사의 예측요인 검증
세션 4 인지 및 적응	
14:00 - 14:30	1. 잠재 궤적 추적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예측 및 분별모델 개발
14:30 - 15:00	2. 유아기 사회적 지지와 모의 양육이 아동의 집행기능과 불안을 통해 아동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적용한 중단연구
15:00 - 15:30	3.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효과 검증
휴식(15:30-15:50)	
15:50 - 16:20	1.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과 가족공동체 활동 간의 관계: 우울, 부부 공동양육,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16:20 - 16:50	2. PC, 스마트폰 중독 위험 아동 예측: 생태체계 관점의 적용
16:50 - 17:20	3.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의 역할
17:20 - 17:50	4. 아동의 창의성 변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잠재계층성장분석의 적용
17:50 - 18:00	폐회

목 차

세션1 학교적응

Ⅰ 학교적응 1 | 좌장: 장명림(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학습준비도 및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5
 - 연구진: 이경선(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김주후(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토론자: 최지영(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학습준비도, 부모, 교사 요인이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과 학업 수행 변화에 미치는 영향 23
 - 연구진: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곽나람(서울잠원초등학교 교사)
윤예린(서울강덕초등학교 교사)
 - 토론자: 장혜진(대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3.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46
 - 연구진: 문명화(강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
 - 토론자: 박원순(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Ⅰ 학교적응 2 | 좌장: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1.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예측하는 학령초기 집행기능 곤란과 학교적응 간의 평행잠재성장모형 분석 67
 - 연구진: 김희숙(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객원교수)
 - 토론자: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생애초기 누적위험요인이 유아기 문제행동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101
 - 연구진: 안재진(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세원(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자: 이승하(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3.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적용한 1~4학년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 124
- 연구진: 허은하(인천대학교 대학원 유아·숲·자연교육 전공 박사과정)
 김상림(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토론자: 김근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세션2 아동발달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 좌장: 진미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1.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과 또래애착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 157
- 연구진: 오인수(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반지윤(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 수료)
 - 토론자: 이선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 존중감 변화양상과 관련 변인 탐색 184
- 연구진: 박혜숙(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 교수,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 토론자: 정연아(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3.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과 아동기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의 연령에 따른 다집단분석 208
- 연구진: 이순배(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정혜옥(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토론자: 강은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미디어사용과 문제행동 | 좌장: 이영환(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1.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의 미디어 사용 유형화와 유형별 인지발달 특성 .. 243
- 연구진: 김경민(고려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송지은(고려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최정원(고려대학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 토론자: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 262
- 연구진: 박정현(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
 - 토론자: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3. 소득양극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 예측에 관한 머신러닝분석 279
- 연구진: 박정하(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현옥(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자: 오미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세션3 양육

Ⅰ 양육 1 Ⅰ 좌장: 이희선(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1. 아동 물질주의에 대한 종단연구: 행복과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부모 요인 .. 305
- 연구진: 임낭연(경성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토론자: 상경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2.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반영한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집단 간 차이 334
- 연구진: 이지원(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최지은(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 토론자: 김지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3.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그림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366
- 연구진: 임민영(서울대학교 유아교육협동과정 박사과정)
김민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 토론자: 신유림(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Ⅰ 양육 2 Ⅰ 좌장: 박주희(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1. 잠재전이모형을 적용한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 및 영향요인 검증 .. 389
- 연구진: 홍예지(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
 - 토론자: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2. 맞벌이 가구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와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416
- 연구진: 강미선(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정인혜(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송시영(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 토론자: 배윤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3.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의 전이와 부모, 교사의 예측요인 검증 ... 450

- 연구진: 장희선(해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토론자: 도미향(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세션4 인지 및 적응

Ⅰ 아동집행기능 | 좌장: 조성연(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 잠재 궤적 추적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예측 및 분별모델 개발 ... 483

- 연구진: 전효정(동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고은경(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조교수)
김동진(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엄성혜(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이근애(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이난희(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 토론자: 박진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 유아기 사회적 지지와 모의 양육이 아동의 집행기능과 불안을 통해 아동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적용한 종단연구 513

- 연구진: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교수)
위현아(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이정희(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졸업)
- 토론자: 김정숙(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3.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효과 검증 545

- 연구진: 김동진(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 토론자: 박경호(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Ⅱ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환경, 양육환경

좌장: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교수)

1.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과 가족공동체 활동 간의 관계: 우울, 부부 공동양육,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573

- 연구진: 이운경(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
윤기봉(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
- 토론자: 문영경(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2. PC, 스마트폰 중독 위험 아동 예측: 생태체계 관점의 적용	596
• 연구진: 김대웅(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 토론자: 장영은(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3.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의 역할	615
• 연구진: 이설아(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윤희진(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정 박사과정)	
김혜영(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정 박사과정)	
• 토론자: 김호현(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4. 아동의 창의성 변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잠재계층성장분석의 적용	638
• 연구진: 이근애(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 토론자: 도남희(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제 11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세션1 학교적응

세션1 학교적응

학교적응 1

좌장: 장명림(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학습준비도 및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진: 이경선(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김주후(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토론자: 최지영(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학습준비도, 부모, 교사 요인이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과 학업 수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진: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곽나람(서울잠원초등학교 교사)

윤예린(서울강덕초등학교 교사)

토론자: 장혜진(대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3.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진: 문명화(강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

토론자: 박원순(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학습준비도 및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경선¹⁾ 김주후²⁾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초등학교 입학 후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인과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개년에 걸쳐 수집된 한국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그동안 횡단 연구들을 통해 논란이 되어 왔던 부모양육 및 유아발달의 장기효과를 검증하고, 나아가 두 가지 매개 변인이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연구에서 설정된 변인들 간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업수행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학습준비도로 나타났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사회적 유능감, 학습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학업수행능력에 직접효과로 설정된 사회적 유능감의 경로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학습준비도의 영향은 유의미한 계수로 나타났다. 본 구조모형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두 변수 중, 유의미한 경로를 보인 것은 학습준비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인과모형은 최종 종속변인인 학업수행능력의 변량을 6.1% 설명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 주제어: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상호작용, 학업수행능력, 학습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1. 서론

유아기와 아동기는 발달적으로는 연속선상에 있지만, 유치원 입학과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거치면서 가족의 기대는 발달적으로 다른 측면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즉, 유치원 교육에 대해 부모는 ‘사회성 발달 도모’(서영숙, 2003; 신귀순, 2005)를

1) 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2)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가장 우선시 하는 반면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인지적 발달’ 측면인 학업수행능력(김미나, 이완정, 2019)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적인 차이는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행동과 신념은 유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상호작용은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Bronfenbrenner, 1979; Maccoby & Martin, 1983; McGillicuddy-De Lisi, 1982; Papousek, 1987). 유아에게 전달되는 부모의 가치관과 인식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형태로 나타난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Demo와 Cox는 1990년대 가족관련 논문의 분석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즉, 권위적(authoritative)이거나 민주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업성취, 사회적 유능감, 문제 행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제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경선, 2011, 재인용). 이종욱, 최한희, 박병기(2012)는 2,000년에서 2,010년 동안 부모양육과 자녀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메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양육방식과 인지발달과는 합리적, 애정적, 성취적, 자율적, 통제적 양육의 순으로 정적인 관련이 있고, 사회성발달과는 합리적, 애정적, 성취적, 자율적 양육의 순으로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부모-자녀 상호작용도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졌다. 부모-유아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정애, 2018; 박성덕, 장연주, 2016; 최은정, 2020)를 통해, 아동의 학습준비도와와의 관련성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유아의 학습준비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권소정, 이강이, 2018)와 영향력이 없다(최은정, 2020)는 상이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변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밝힌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민미희, 2017).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1학년의 학업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도 알려졌다. 임선아(2014)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고, 한정희(2019)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부모-유아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이 있으며,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부모의 특징과 유아기 발달과의 관계, 부모의 특징 혹은

유아기 발달과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과의 관계 등 맥락에 따라 나누어 세분화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1학년의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발달 변인과 부모변인을 종단적으로 탐색하는데 있다.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과 관련한 종단적 연구는 유아기발달 특징(김미나, 이완정, 2019; 박희숙, 2015), 양육스트레스(김윤희, 구자연, 김현경, 2019) 유아교육기관 경험(김기현, 신인철, 2012)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어, 부모변인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초등학교 입학 후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인과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전국단위로 표집된 한국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그동안 횡단 연구들을 통해 논란이 되어 왔던 부모양육 및 유아발달의 장기효과를 검증하고, 나아가 두 가지 매개 변인이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학습준비도 및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준과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 사이의 구조적 관계 모델은 타당한가?

연구문제 2. 설정된 구조적 관계 모델에서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사회적 유능감이 초등학교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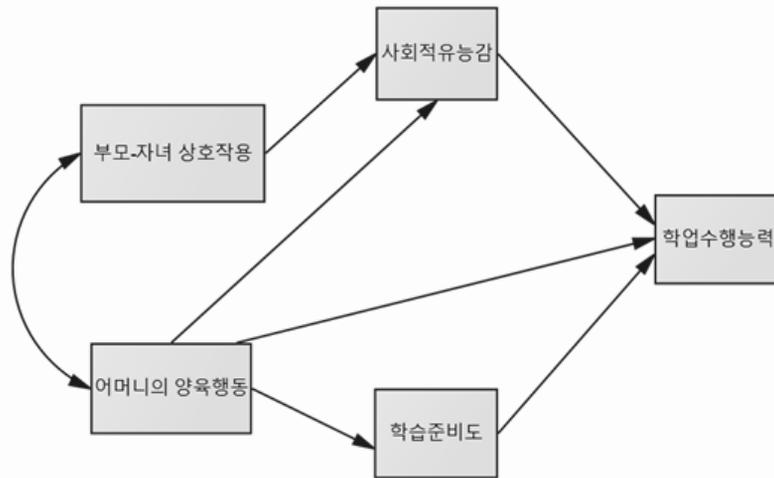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종단데이터인 한국아동패널 6, 7,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6차년도(2013년) 5세 유아의 부모자료인 양육행동(온정적)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7차년도(2014년) 6세 유아의 학습준비도(인지 및 언어)와 사회적 유능감 자료를,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 측정한 8차년도(2015년) 학업수행능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설정한 5개 변인을 활용한 모형 검증을 위해 최종적으로 866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총 3년에 걸친 종단자료에서 유아 및 어머니의 자료 중 탈락자 및 무응답 등이 있는 사례를 배제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채택된 유아들은 남아와 여아가 각각 455명(51.4%), 431명(48.6%)이었다. 유아의 평균 월령은 62.6개월이었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1.6세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탐색을 위하여 그림1과 같은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1학년의 학업성취도가 최종 종속변인으로 설정되었고, 이를 예측하는 독립변인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설정되었다.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사회적 유능감과 학습준비도가 설정되었다. 즉, 부모-자녀의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2년 후 학업수행능력을 예측해 주는데, 그 사이에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학습준비도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모형이다.



[그림 1] 연구모형

3. 조사도구

가. 학업수행능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수행능력 측정도구는 이은해, 김명순, 전해정 외 5인(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국어 4문항, 수학 5문항, 전반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어는 읽기, 말하기, 쓰기, 듣고 이해하기, 수학은 수세기, 덧셈, 뺄셈, 비교, 분류, 전반은 학업수행 전반을 측정한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아동의 담임교사가 '하위 20% 이내(1점)~'상위 20% 이내(5점)'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수행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77로 나타났다.

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행동 측정도구는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외 1인(1999) 문항

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것이다. 본 척도는 통제적 양육행동과 온정적 양육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온정적 양육행동만을 사용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은 ‘나는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등을 포함하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부모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42로 나타났다.

다. 부모-자녀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측정 도구는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 중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질문하는 일부 문항을 사용한 것이다. 본 척도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 등을 포함하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가 각 문항에 대하여 지난 일주일동안 4점 범위 안에서 전혀 하지 않음(1점), 1-2번(2점), 3-6번(3점), 매일함(4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39로 나타났다.

라. 학습준비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준비도 측정도구는 Murphey & Burns(2002)가 사용한 학교준비도 (school readiness)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한 것이다. 본 척도는 사회정서발달(6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8문항), 의사소통(3문항),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5문항)의 4개 하위영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육아지원기관 담임교사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학습준비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30로 나타났다.

마. 사회적 유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유능감 측정 도구는 서미옥(2004)이 Gresham과 Elliott의 도구를 타당화 한 것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것이다. 본 척도는 주장성(11문항), 협력성(6문항), 자기통제(7문항), 책임성(8문항)의 4개 하위영역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3점 Likert 척도로 부모가 ‘전혀 아니다(1점) ‘가끔 그렇다(2점), ‘매우 자주 그렇다(3점)’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하위 영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유아 및 어머니의 배경변인(예: 성별, 연령)에 대한 빈도 및 기술 통계(평균, 표준편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5개 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24.0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은 AMOS 21.0을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초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5개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어머니를 통해 5점 척도로 측정된 양육행동은 평균 3.69를 보여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각각 4점 척도로 측정된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학습준비도는 평균 2.30과 3.55를 보고 하였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학습준비도 수준은 높게 측정되었다. 사회적 유능감(3점 척도)과 학업수행능력(5점 척도)은 각각 평균 2.32와 4.24를 보여 높은 수준을 보고 하였다.

<표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인	최소값	최대값	M	SD
어머니의 양육행동	1.00	5.00	3.69	0.53
부모-자녀 상호작용	1.00	4.00	2.30	0.50
사회적 유능감	1.00	3.00	2.32	0.29
학습준비도	2.00	4.00	3.55	0.35
학업수행능력	1.00	5.00	4.24	0.88

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5개 변인들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13년에 측정된 독립변인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553, $p < .01$)이 나타났다. 이 두 변인은 매개변인인 사회적 유능감과 학습준비도와도 정적인 상관관계(.174 - .393)를 보고했다. 매개변인인 사회적 유능감과 학습준비도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718, $p < .01$)를 보였다. 그러나 4개의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인 학업수행능력 사이의 상관관계(.101 - .235)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업수행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235, $p < .01$)를 보인 변인은 학습준비도였다.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어머니의 양육행동	1				
부모-자녀 상호작용	.553**	1			
사회적 유능감	.373**	.292**	1		
학습 준비도	.247**	.174**	.718**	1	
학업수행능력	.129**	.101**	.173**	.235**	1

**p<.01

3.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가. 구조모형 적합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5개 변인을 활용한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수집된 자료와 적절한 일치도를 보여주었다($\chi^2 = 2.645, df=2, p > .05$). 또한, NFI, TLI, CFI, RMSEA 적합도 지수들 역시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한 기준치를 만족하였다(〈표 3〉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은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여 자료를 잘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p)$	NFI	TLI	CFI	RMSEA
수용기준치	$df=2, p) .05$.9 이상	.9 이상	.9 이상	.10 이하
연구모형	2.645	.998	.997	.999	.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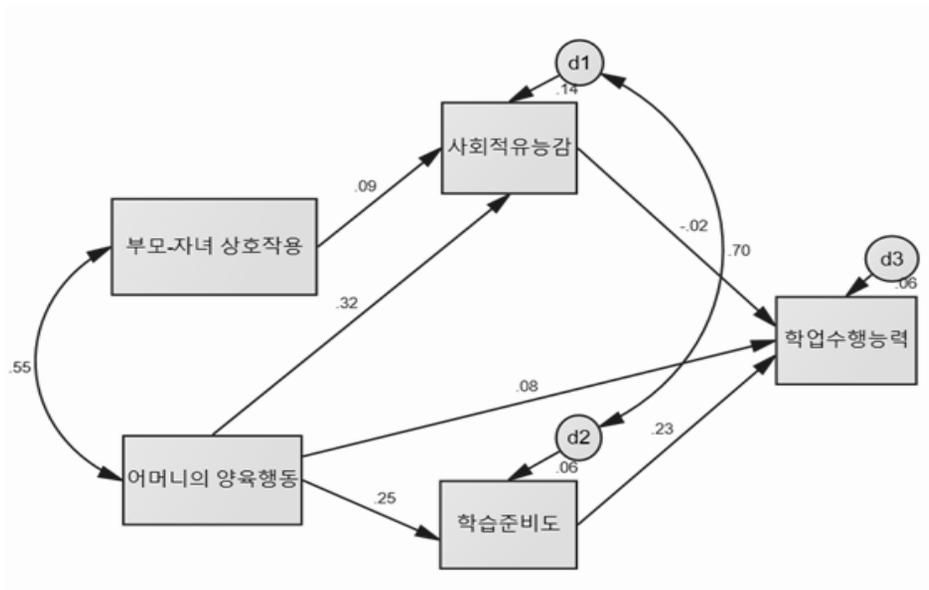
나. 경로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상호작용, 사회적 유능감, 학습 준비도, 학업수행능력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가 추정되었다(〈표 4〉 참조). 먼저, 독립변인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beta = .088, p < .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사회적 유능감($\beta = .32, p < .01$), 학습준비도($\beta = .25, p < .01$)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beta = .08, p > .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업수행능력에 직접효과로 설정된 사회적 유능감의 경로계수($\beta = -.02,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학습준비도의 영향은 유의미한 계수($\beta = .23, p < .01$)로 나타났다. 본 구조모형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두 변수 중, 유의미한 경로를 보인 것은 학습준비도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본 연구의 인과모형은 최종 종속변인인 학업수행능력의 변량을 6.1% 설명하였다.

〈표 4〉 최종 구조모델 경로분석 결과

경로	경로계수(Estimate)		표준오차 (S.E.)	검정통계량 (C.R.)
	B(비표준화 계수)	β (표준화 계수)		
부모-자녀 상호작용 → 사회적 유능감	.051	.088	.016	3.294***
어머니의 양육행동 → 사회적 유능감	.179	.325	.019	9.433***
어머니의 양육행동 → 학습준비도	.165	.247	.022	7.584***
사회적유능감 → 학업수행능력	-.069	-.023	.147	-0.471
학습준비도 → 학업수행능력	.578	.232	.117	4.957***
어머니의 양육행동 → 학업수행능력	.135	.081	.059	2.300

*** $p < .001$



[그림 2] 변인 간 구조관계 모형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유능감, 학습 준비도, 학업수행능력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3개년에 걸쳐 수집된 한국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설정된 구조모형은 수집된 자료와 적절한 수준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3년에 수

집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2014년에 수집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학습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2015년 초등학생이 된 해당 유아의 학업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조모델의 경로계수를 보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학업수행능력에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습준비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 유능감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 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부모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발달(문연심, 2004; 손순옥, 2017; 이정애, 2018; 장세라, 2013; 홍종원, 최영희, 2015)과 인지적 발달(현정희, 2019)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없었으나, 학습준비도의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민주적, 온정적 양육태도가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임신아(2014)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3년 뒤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학교준비도의 매개효과로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윤희, 구자연, 김현경(2019)의 연구, 온정적 양육태도가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없었으나 학교적응 매개변수에 의해 간접 효과를 보고한 현정희(2019)의 연구, 입학 전 학습준비도가 초등학교 입학 첫 해의 학업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민정(2019)연구, 그리고 취학 전 유아의 기초학업 능력이 장기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학업능력 수준을 예측하는 연구(Duncan, Claessens, Huston et al., 2007)의 결과를 지지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하면 부모의 경우 학업수행능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나(김미나, 이완정, 2019), 갑자기 어려워지는 학습내용에 대한 부담(장명림, 김선미, 2018)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송복순, 2014; 한수희, 2002)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의 학업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연계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과도한 유아 사교육에 대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유능감과 학업수행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송수희(2012)는 5세의 사회적 유능감이 학령기 학업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민정(2019)도 초등학교 1학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학업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초등저학년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을 위해서 입학 전, 친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준

비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다. 김미나, 이완정(2019)은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초등학교 1학년 학업수행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김미나, 이완정은 5세의 또래놀이 행동이 학업수행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또래놀이가 사회적 기술뿐 아니라 문해력과 수학적 사고력도 촉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초등학생의 학업수행능력은 유아기 인지적 발달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는 김미나, 이완정(201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어, 학교생활 안에서 교우관계, 또래 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아동일수록 학업수행 능력에서 차이가 나거나 우수하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한편, 곽아정(2006)은 McClelland(2002)가 개발한 유아의 학습과 관련된 사회 기술(Learning-Related Social Skill; LRSS) 척도를 타당화 하는 연구를 통해 숙달, 자기주장, 자기조절, 순응 등을 유아의 학습과 관련된 사회기술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유아의 언어능력 및 수학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단순한 인간관계형성 기술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학습과 관련된 사회기술은 유아의 학습태도와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유능감 척도 또한 하위 구성요소(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가 학습과 관련된 사회기술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의 학업수행능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기 사회발달이 아동기 인지발달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더 많은 후속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는 비록 통계적으로는 성립되거나 경로계수를 볼 때는 유의미하지 않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긍정적일 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킨다는 이정애(2018)와 박성덕, 장연주(2016)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와의 상반된 결과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문항내용에 기인할 수 있다. 본 척도의 문항은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상호작용과는 구별되는, 책읽기, 노래, 미술, 만들기, 퍼즐, 게임, 과학놀이, 스포츠, 읽기, 쓰기 및 숫자에 대한 상호작용 횟수에 따른 응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상호작용의 내용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 결과, 초등학생의 학업수행능력은 부모관련 변수들에 의해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변인 중에서 학습준비도가 부모관련 변수들과 학업수행능력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및 부모 관련 변인들을 활용한 초등학생의 성취도 예측력이 높지 않다는 점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즉, 분석모형 결과에서 종속변인의 변량이 약 6%정도만 설명되었는데, 이는 유아 및 부모관련 변인만으로 아동의 성장 특히 학업성취도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음을 말해 준다. 유아기 관련 변인 중에서 아동기 인지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곽아정(2006). 유아의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 척도의 타당화 및 학습능력과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권소정, 이강이(2018).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모의 근로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2(2), 57-81.
- 김기현, 신인철(2012). 유아교육 및 보육 경험의 장기효과. *한국사회학*, 46(5), 259-288.
- 김미나, 이완정(2019).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초등학교 1학년의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아동과 권리*, 23(1), 111-129.
- 김민정(2019).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준비도 및 학업수행 관련 변인들이 초등저학년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변화 추이. *한국가족복지학*, 24(4), 501-518.
- 김숙이, 전정민, 이선미(2017).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에 따른 유아의 인지능력 차이 및 부모역할의 상관관계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2), 75-100.
- 김윤희, 구자연, 김현경(201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초등학교 전이시기 학업수행능력의 종단적 발달경로: 가정환경자극과 학교준비도의 이중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9(3), 191-212.
- 김인경(2017). 모의 이른 경제활동 및 부모역할과 유아 발달의 관련성 분석. *사회복지정책*, 44(1), 5-46.
- 민미희(2019).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유능감이 유아의 학습비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간 다집단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3), 1-22.
- 문연심(2004). 부모-자녀 관계 유형이 유아의 공감과 조망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1), 5-144.
- 박희숙(2015). 유아기 정서능력이 취학 후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기 종단적 접근. *유아교육학논집*, 19(3), 53-70.
- 손순옥(2017).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8(3), 493-509.
- 송복순(2014).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이해. *초등교육학연구*, 21(2), 39-55.
-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 서영숙(2003).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인식 비교.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신귀순(2005). 유치원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과 기대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생활과학회지*, 14(6), 899-913.
- 이경선(201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관련 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27-145.
- 이은해, 김명순, 전해정 외 5인(2008).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 서비스에 대한 종단적 효과연구. 미발간.
- 이정애(2018).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유아 친사회적 행동 및 공감능력과의 관계 연구: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8(4), 5-23.
- 이종욱, 최한희, 박병기(2012). 부모양육방식과 자녀발달특성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교육*, 21(4), 275-296.
- 임선아(2014). (구조관계모형 검증을 통한) 부모의 민주적, 비민주적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적응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등교육연구*, 27(2), 73-93.
- 장명림, 김선미(2018).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실태 및 지원 방안. *유아교육연구*, 38(3), 263-287.
- 장세라(2013).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유형과 유아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 한국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최은정(2020).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187-207.
- 한국아동패널(2016). 한국아동패널(PSKC) 제1~7차 조사 데이터 사용지침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한수희(2004).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간의 교육 연계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천안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현정희(2019).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인식이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3(3), 125-146.
- 홍종원, 최영희(2015).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의 관계 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2(2), 81-94.
- Bro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uncan, G. J., Claessens, A., Huston, A. C., Pagani, L. S., Engel, Ml, Sexton, H., & Japel, C.*2007).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3, 1428-1446.
- McGillicuddy-De Lisi(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beliefs about development and family constella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s teaching strategies. In L. M. Laosa & I. E. Sigea(Eds.), *Family as learning*

- environment for child*(pp. 261-300). NY: P;rm, Press.
- McClelland, M. M. (2002). The emergence of work-related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yola University
- Murphey, D. A., & Burns, C. E.(2002).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4(2), 1-8.
- Santrock, J.(2010). *Children*(11th Ed). McGraw-Hill Education.

- 교신저자: 이경선 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sunlee31@tu.ac.kr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child Interaction on Academic abilities at Primary School: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Readiness and Social Skills

Gyeong Seon Lee and Juhu Kim

Although there is a consistency between early childhood and primary school period, parents may have different expectations about their children's development. For instance, regarding the goal of kindergarten, parents' primary needs many focus on social development. In contrast, for the first year of primary school, they may pay attention to cognitive developmen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se contextual differences, many different types of variables have been utilized to predict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using early assessment scores. These variables are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school readiness, parent-child interaction, parenting behaviors, and so forth. Although the impact of these variables on later achievement has been reported positive, the results appear to be inconsistent. There are on-going efforts to find out the reasons for the inconsistent results.

Along with the limitations of predicting children's' achievement, one important issue in the research design and analysis was the type of collected data. Since many studies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related variables and children's development/achievement used cross-sectional data, there were limitations in interpreting the results of studies. In particular, in terms of long-term prediction of young children'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n later achievement, utilization of longitudinal data has been sugges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behaviors on academic abilities at primary school after considering two mediators (school readiness and social skills).

For this purpose, a longitudinal data (2013, 2014, 2015) of 866 children from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analyses were as follows. First, the proposed model showed a good model fit showing a valid relationship among the selected variables. Specifically, the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 on social skills found to be positive. Also, parenting behavior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skills and school readiness. However, parent-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behaviors did not show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academic abilities. Besides, school readiness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predictor of academic ab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e importance of the indirect effects of parent-related variables. In other words, although parents' contribution to young children's development is significant, that does not mean that parents' behaviors and interactions with young children directly impact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t primary school. It is also should be noted that the explained total variance of academic abilities by using the proposed model was only 6.1%. So, other alternative solutions including the selection of new variables(e.g., young children's experience in learning at early childhood centers) should be considered.

- Key words: Parenting Behaviors, Parent-Child Interaction, Academic abilities, School Rediness, Social Skills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준이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학습준비도 및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최지영(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는 어린 시절에 비해 초등학생 자녀의 학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추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학습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떠한 양육태도를 보이는지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자녀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과 유능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해서 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사회적 기술 등을 배우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부모 및 자녀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부모교육과 학령기 전 유아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육적 방안들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자녀가 학업능력을 포함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돕기 위해서 ‘부모-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기회를 갖게 해주신 연구진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몇 가지 궁금증과 이 연구의 결과가 부모-자녀관계 형성이나 부모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아버지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에서 특히 온정적 양육행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구자가 특별히 온정적 양육행동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자녀와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점과 많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

의 온정적 양육보다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한영숙, 2020)도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동 대상이 아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주영, 서경현, 2015)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 중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행복감을 가장 강력하게 예언하는 변인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자녀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보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이 자녀의 학업적 측면에서의 발달에도 더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부모교육을 진행할 때,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대상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둘째,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학업수행능력과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그림1] 연구모형에서는 이들 변인간의 경로가 직접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이 인지적 발달을 촉진한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모형에서 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학업수행능력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학업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요구되는 학업에 대한 준비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의미에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온정성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자양분을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연구자가 논문에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부모는 자녀의 학습내용에 대해 부담을 갖게 되고,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과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을 연계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을 초등학교에서 잘 연계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기에 적절한 전환기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유능감 척도의 하위 구성요소는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과 유사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유능감 척도의 하위 구성요소는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을 포함합니다. 연구자는 이러한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은 단순한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과는 구분된다고 하셨는데,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책임성이라는 요소들이 특별히 학습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필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연구에서 사회적 유능감이 자녀의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

출된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만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이 연구에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은 주로 인지적 상호작용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인지적으로'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면 자녀의 사회적 기술이나 사회적 유능감 보다는 학업효능감과 같은 학업에 대한 자신감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구자가 제안하신 것처럼 향후 유아기 관련 변인 중에서 아동기 인지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하실 때 이러한 점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상황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특히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다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잦은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정서적인 유대감이 깊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의사소통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아 갈등이 증폭되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예전에 비해 더욱 활발해지고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빈도를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상호작용의 실제 내용이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자녀의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며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고문헌

- 최주영, 서경현(2015). 수용-거부 부모양육과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정서표현 갈등 및 대인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175-191.
- 한영숙(2020).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간의 종단적 관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 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41(3), 13-23.

학습준비도, 부모, 교사 요인이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과 학업 수행 변화에 미치는 영향

김성식³⁾ 곽나람⁴⁾ 윤예린⁵⁾

요약

본 연구에서는 2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사용해 학령전환기 아동의 학습준비도, 부모 양육 변인과 아동-교사 관계 변인이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만 6세 아동의 학습준비도, 기관 생활 관심, 양육효능감 등의 부모 양육 변인, 아동-교사 관계, 교사 선호 등의 교사 관계 변인이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 양육 스트레스_r, 학습태도는 학교적응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 의사소통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대로 학교적응 변화율에는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 학습태도는 부정적인 영향, 양육 스트레스, 의사소통은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아동-교사 관계 변인은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학습준비도 중 학습태도와 인지발달, 아동-교사 관계가 초등학교 1학년 학업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초등학교 1-4학년 시기의 학업수행 변화율에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교사 관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중에서 아동-교사 관계가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영향력이 다른 변인들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아동의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교사가 아동과 원만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끔 전문적인 학습을 지원하고,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 지원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학령전환기, 학습준비도, 부모 양육, 교사 관계, 초등학교 적응

1. 서론

아동이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전이 시기는 아동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 과정이다. 특히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

- 3)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4) 서울잠원초등학교 교사
- 5) 서울강덕초등학교 교사

저감에 따라, 아동 발달과 학습이 기관별로 분절되지 않고 연결 유지되도록 하는 지원과 노력의 필요성도 날로 커져가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초기의 아동은 물리적 환경, 교사와의 관계 등 학교 적응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김민진, 2008). 이를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초기적응활동을 운영하는 등, 교사와 학생 간 원만한 관계 형성과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입학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초등학교로의 전이가 잘 이루어지면, 이후의 아동의 학교 적응, 학업 성취, 사회성 발달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전환되는 시점의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전이 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 아동의 특성, 가정환경, 교사와의 관계 등의 요인이 초등학교 적응과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들에 주목하였다.

먼저 학습준비도는 유아-초등교육의 전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으로서, 발달과 학습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허혜경, 2007). 전현희 외(2019) 등 다수의 연구(안수빈 외, 2018; 김충일 외, 2018, 박성희 외, 2019)에서는 학령 전 아동의 학습준비도가 실제로 초등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학습준비도가 높은 집단, 보통인 집단, 낮은 집단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시기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연아 외, 2019). 학습준비도의 개념은 다차원적이고, 유아가 학습하는 개인적 경험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Carlton & Winsler, 1999; 박희숙(2012)에서 재인용).

특히 유아기에서는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영향과 유아교육 수행자인 교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된다. 그 중 부모의 특성과 양육 행동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의 학교 적응, 학업 수행 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기의 양육 환경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배한진 외, 2018), 환경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 부모-자녀 상호작용, 자녀기관생활관심도 등의 양육 관련 변인이 유아의 인지발달, 학업능력, 또래 상호작용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운주 외, 2013; 임선아 외, 2014; 김지현 외, 2014; 송요현, 2016; 길혜지 외, 2016; 김은실, 2008; 최은아, 2019; 이주아 외, 2017).

한편 가정환경자극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교사효능감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등(김수정 외, 2014), 교사 특성 또한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업 수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 김미래 외(2020)의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이 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아동 관계, 교사-아동 상호작용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적으로 교사에 대한 선호도, 교사와 학생의 친밀감, 교수효능감 등이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실, 2008; 김민규, 2018; 김진미 외, 2019; 김진성, 2020).

이처럼 부모 양육 요인과 교사 관계 요인이 전반적인 유아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령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부모와 교사 요인이 초등학교 진학 후 아동 발달에 지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환기 아동의 학습준비도, 부모와 교사 변인이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성장 모형을 사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4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아동의 학습준비도, 부모 양육 변인과 교사 관계 변인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아동의 학습준비도, 부모 양육 변인과 교사 관계 변인은 초등학교 1~4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 변화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 Children: PSKC)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의 초기 표본은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 2,150명으로, 현재 11차년도(2018년)까지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7차년도부터 11차년도까지 총 5개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학습준비도, 부모 양육, 교사 관계 변인 등과 종속 변인인 학교적응과 학업수행 변인에서 두 시점 이상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모형에 포함된 변인에서 결측치가 있는 사례는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는 총 859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또는 M(SD)
아동	성별	남아	451(52.50)
		여아	408(47.50)
부모	평균 학력 연한	0년 이상 12년 이하	160(18.63)
		12년 초과 14년 이하	278(32.36)
		14년 초과 16년 이하	346(40.28)
		16년 초과	75(8.73)
월평균 가구소득(로그)			6.03(.72)

2. 변인 구성

가. 학교적응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아동의 학교적응은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타당화한 초등학교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다. 학교적응척도(35문항)는 학교 생활적응(11문항), 학업수행적응(11문항), 또래적응(8문항), 교사적응(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에 따라 평정하였다. 각 조사년도의 학교적응 Cronbach's α 값을 살펴본 결과 .96~.97로 양호하였다.

나. 학업수행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아동의 학업수행 정도는 이은해 등(2008)이 타당화한 학업수행 능력 평정 척도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학업수행 정도는 아동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응답되었으며, 하위 20% 이내(1점)~상위 20% 이내(5점)로 구성된 5점 척도에 따라 점수화되었다. 문항 구성의 경우 조사 시점별로 다소 달랐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 간 비교를 위해서 이전 연도의 문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측정 문항이 증가하는 형태로 사용하였다. 학업수행 전반, 국어, 수학은 4개 시점에서 모두 포함된 공통 문항이다. 초 2학년(9차)에서는 여기에 예체능이 추가된 것이고, 초 3학년과 4학년에서는 초 2학년 문항에 영어, 사회, 과학이 추가된 것이다. 학업수행 정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문항은 <표 2>와 같다.

〈표 2〉 학업수행 문항 선정

조사시점	문항 수	하위 영역	Cronbach's α
8차 (초등학교 1학년)	5	전반 (1문항: 학업수행 전반) 국어 (3문항: 읽기, 말하기, 쓰기) 수학 (1문항: 덧셈·뺄셈)	.95
9차 (초등학교 2학년)	8	전반 (1문항: 학업수행 전반) 국어 (3문항: 읽기, 말하기, 쓰기) 수학 (1문항: 덧셈·뺄셈) 예체능(3문항: 신체활동, 미술, 음악)	.93
10차 (초등학교 3학년)	13	전반 (1문항: 학업수행 전반) 국어 (3문항: 읽기, 말하기, 쓰기) 수학 (3문항: 덧·뺄셈, 세자리 덧·뺄셈, 곱·나눗셈) 예체능(3문항: 신체활동, 미술, 음악)	.97
11차 (초등학교 4학년)	13	영어(1문항: 들말·알파벳 인식) 사회(1문항: 사회현상 이해 탐구) 과학(1문항: 과학현상 이해 탐구)	.96

다. 학습준비도

학습준비도는 초등학교 취학 전 학습준비도로서 7차년도(초등학교 취학 직전 연도)에 조사된 것을 사용하였다. 학습준비도는 Murphey와 Burns(2002)이 개발한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정서 발달(6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8문항), 의사소통(3문항),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5문항)과 같이 총 4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아동 소속 육아지원기관의 담임교사에 의해 평정되었으며,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화되었다. 각 하위 영역별 Cronbach's α 값을 살펴본 결과 .77~.88로 양호하였다.

라. 부모 양육 변인 및 교사 관계 변인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 변인 및 교사 관계 변인이 초등학교 1~4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 변화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아래 <표 3>과 같이 변인을 구성하였다. 이때 부모 양육 변인의 경우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교사 관계 변인의 경우 8차~1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부모의 관심, 교사-아동 관계 변인은 아동 소속 기관 교사를 통해 평정되었으며, 교사 선호도는 아동과의 면담을 통해, 부모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 양육 방식,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아동의 부모를 통해 평정되었다.

<표 3> 부모 양육 변인 및 교사 관계 변인 구성

변인	하위 변인	문항 수	척도	Cronbach's α	참고 문헌
	부모 기관 관심	1	5점	-	-
	부모 양육 효능감	32 (각 16)	5점	.88	신숙재(1997), Gibaud-Wallston & Wandersman(1978), 오미연(2005)
	부모 양육 스트레스	22 (각 11)	5점	.89	김기현, 강희경(1997)
부모 양육 변인	온정적 양육방식	12 (각 6)	5점	.86	조복희 외(1999).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
	통제적 양육방식	12 (각 6)	5점	.78	
	부모-자녀 상호작용	9	4점	.83	
교사 관계 변인	교사-아동 관계	15	5점	.88~.91	Pianta(2001)
	교사 선호도	1	4점	-	-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 학습준비도 및 부모 양육, 초등학교 이후 교사 변인이 아동의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수준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을 구성하고 stata 15.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한 데에는 종단 데이터의 성격 상 결측치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다층성장모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결측치를 포함한 자료로도 개인별 성장률을 추정하고 개인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강상진, 2016; MacCullum et al, 1997).

분석 모형은 투입되는 변인의 성격을 기준으로 4개의 하위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I은 배경과 부모 양육 변인들을 투입한 모형이고, 모형II는 유아기 학습준비도를 투입하는 모형이며, 모형III은 초등학교 시기 교사 변인을 투입하는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모형IV는 모든 변인들을 투입한 모형이다. 분석 모형의 수식을 모형IV를 기준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수준: 개인 내 모형]

$$Y_{it} = \pi_{0i} + \pi_{1i}(year_{it}) + \epsilon_{it} \quad (\text{식 1})$$

[2수준: 개인 간 모형]

$$\begin{aligned} \pi_{0i} = & \beta_{00} + \beta_{013} \text{성별} + \beta_{014} \text{부모학력} + \beta_{015} \text{가구소득} + \beta_{05} \text{부모기관관심} + \beta_{06} \text{부모효능감} + \beta_{07} \text{부모스트레스} \\ & + \beta_{08} \text{온정양육} + \beta_{09} \text{통제양육} + \beta_{010} \text{자녀상호작용} + \beta_{01} \text{사회정서} + \beta_{02} \text{학습태도} \\ & + \beta_{03} \text{의사소통} + \beta_{04} \text{인지발달} + \beta_{011} \text{아동교사관계} + \beta_{012} \text{아동교사선호} + \gamma_{0i} \end{aligned} \quad (\text{식 2})$$

$$\begin{aligned} \pi_{1i} = & \beta_{01} + \beta_{113} \text{성별} + \beta_{114} \text{부모학력} + \beta_{115} \text{가구소득} + \beta_{15} \text{부모기관관심} + \beta_{16} \text{부모효능감} + \beta_{17} \text{부모스트레스} \\ & + \beta_{18} \text{온정양육} + \beta_{19} \text{통제양육} + \beta_{110} \text{자녀상호작용} + \beta_{11} \text{사회정서} + \beta_{12} \text{학습태도} \\ & + \beta_{13} \text{의사소통} + \beta_{14} \text{인지발달} + \beta_{111} \text{아동교사관계} + \beta_{112} \text{아동교사선호} + \gamma_{1i} \end{aligned} \quad (\text{식 3})$$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료의 정규성 확인을 위하여 각 조사시점 별 변인들의 왜도(Skeweness) 및 첨도(Kurtosis)를 살펴본 결과 왜도 절댓값 .68~1.74, 첨도 절댓값 3.02~4.7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종속 변인들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West et al, 1995).

<표 4>에 따르면 8차년도(초등학교 1학년)부터 11차년도(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학교적응 평균은 139.01(SD=24.75), 138.97(SD=24.13), 144.46(SD=24.04), 144.65(SD=24.39)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학교적응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사이에 다소 감소하다가 2학년부턴 4학년 사이에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8차년도부터 11차년도까지의 학업수행 평균은 20.94(SD=4.77), 32.61(SD=6.67), 56.22(SD=10.60), 54.63(SD=10.09)으로 나타났다. 학업수행의 경우 조사시점별 문항 수에 차이가 있어 평균값을 통해 경향성을 찾긴 어려우나, 조사 문항이 같은 초등학교 3학년 시점과 4학년 시점을 비교한 결과,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4> 학교적응과 학업수행 조사시점 별 기술통계

변수	N	M	SD	Skeweness	Kurtosis
8차년도 학교적응	759	139.01	24.75	-.70	3.19
9차년도 학교적응	723	138.97	24.13	-.68	3.02
10차년도 학교적응	495	144.46	24.04	-1.02	3.97
11차년도 학교적응	535	144.65	24.39	-1.18	4.77
8차년도 학업수행	759	20.94	4.77	-1.25	4.01
9차년도 학업수행	723	32.61	6.67	-.94	3.51
10차년도 학업수행	495	56.22	10.60	-1.74	5.98
11차년도 학업수행	535	54.63	10.09	-1.08	3.70

2.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 변화 분석

가. 기초 모형

먼저 아동의 초등학교 1-4학년 시기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 변화 정도와 개인 간 차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초모형으로서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모형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아동들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 수준의 변화율은 각각 2.093과 12.75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효과를 보면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은 1학년 시점의 수준과 4년 동안의 성장률에서 모두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의 변화 양상

무조건모형	학교적응		학업수행	
	계수	SE	계수	SE
고정효과(평균)				
초기치(π_{0i})				
β_{00}	138.3 ***	.815	21.538 ***	.239
변화율(π_{1i})				
β_{10}	2.093 ***	.355	12.759 ***	.355
무선효과(분산)				
	계수	SE	계수	SE
	95% CI		95% CI	
초기치편차, $Var(\gamma_{0i})$	289.701	29.777	5.367	1.204
	236.842~354.356		3.457~8.331	
변화율편차, $Var(\gamma_{1i})$	9.731	6.002	5.629	.794
	2.905~32.598		4.270~7.421	
1수준오차, $Var(\epsilon_{ii})$	325.912	14.640	51.683	1.793
	298.446~335.906		48.285~55.320	

나. 학습준비도, 부모 양육 변인, 교사 변인의 영향

1)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

유아기 학습준비도 및 부모 양육 변인, 교사 관계 변인이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모형 I ~모형IV을 설정한 뒤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 I의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 수준에 대해서 성별, 부모 학력, 소득 수준,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 등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적응 수준이 낮았고, 부모학력과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다. 부모 양육태도 변인 중에서는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4학년 학교적응 변화율에는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과 양육 스트레스(역코딩)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 등은 1학년 시점의 학교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후

의 성장세, 즉 격차의 지속적 확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가정 배경에 따른 학교적응 격차는 초등학교 입학 직후 거의 결정되고 이후에는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모형II의 결과에서는 학습준비도 중 학습태도와 의사소통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습태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의사소통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 하는 반면, 의사소통 준비도가 높다고 평가된 아동의 학교적응 점수가 더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모형III은 초등학교 이후 교사-아동 관계 변인을 투입한 분석의 결과이다. 아동-교사 관계는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면서, 1-4학년 학교적응 변화율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교사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모형IV은 모든 변인들을 함께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I~모형III의 결과와 비교할 때 변화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1학년(초기치)에 대해서 부모 양육 스트레스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별과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 변인의 계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이나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 수준의 영향이 학습준비도나 초등학교 입학이후 교사-아동 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표 6〉 학습준비도, 부모양육, 교사 변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응 고정효과(평균)	모형 I (배경변수)		모형 II (학습준비도)		모형 III (입학후교사관계)		모형 IV (전체모형)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초기치(π_{0i})								
β_{00}	75.139 ***	12.903	75.606 ***	7.688	21.447 **	7.855	-36.572 *	14.137
성별(남), β_{013}	-13.932 ***	1.518					-7.393 ***	1.398
부모학력, β_{014}	1.329 **	.459					1.256 **	.406
가구소득, β_{015}	2.225 *	1.030					2.305 *	.902
부모기관관심, β_{05}	4.023 ***	.924					1.970 *	.840
부모효능감, β_{06}	.808	3.023					-1.647	2.692
부모스트레스, β_{07}	3.060	2.043					3.980 *	1.794
양육방식(온정), β_{08}	4.186	2.496					3.719	2.208
양육방식(통제), β_{09}	-.708	1.803					-.918	1.586
자녀상호작용, β_{010}	-.881	1.622					-.900	1.423
사회정서, β_{01}			.310	.418			.150	.369
학습태도, β_{02}			1.939 ***	.313			1.450 ***	.280
의사소통, β_{03}			-2.271 *	1.075			-2.001 *	.943

인지발달, β_{04}			.916	.500			.421	.444
아동교사관계, β_{011}					26.772 ***	1.788	20.089 ***	1.780
아동교사선호, β_{012}					.000	.000	.000	.000
변화율(π_{1i})								
β_{10}	12.722 *	5.868	3.802	3.630	-22.625 ***	3.993	-9.946	7.219
성별(남), β_{113}	1.108	.708					1.926 **	.715
부모학력, β_{114}	-.007	.212					-.109	.206
가구소득, β_{115}	-.747	.440					-.749	.437
부모기관심, β_{15}	-1.115 *	.434					-.855 *	.432
부모효능감, β_{16}	.913	1.389					.878	1.359
부모스트레스, β_{17}	-2.348 *	.920					-2.208 *	.893
양육방식(온정), β_{18}	-.839	1.153					-1.407	1.121
양육방식(통제), β_{19}	.401	.829					.444	.804
자녀상호작용, β_{110}	1.375	.750					1.343	.724
사회정서, β_{11}			.145	.194			.048	.189
학습태도, β_{12}			-.262	.146			-.334 *	.143
의사소통, β_{13}			1.096 *	.511			1.207 *	.492
인지발달, β_{14}			-.255	.238			-.298	.232
아동교사관계, β_{111}					5.594 ***	.097	6.852 ***	.958
아동교사선호, β_{112}					.000	.000	.000	.000
무선희과(분산)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95% CI		95% CI		95% CI		95% CI	
초기치편차, $Var(\gamma_{0i})$	211.958	26.003	213.573	26.497	175.830	23.800	111.844	20.830
	166.658~269.572		167.472~272.365		134.857~229.251		77.640~161.118	
변화율편차, $Var(\gamma_{1i})$	8.505	5.905	8.541	5.953	13.988	5.911	10.310	5.693
	2.181~33.166		2.179~33.479		6.111~32.021		3.493~30.428	
1수준오차, $Var(\epsilon_{1i})$	323.920	14.530	327.202	14.724	314.149	13.862	312.488	13.757
	296.658~353.687		299.58~357.370		288.122~342.527		286.656~340.649	
$Cov(\pi_{0i}, \pi_{1i})$	-10.581	10.282	-12.530	10.444	-46.346	10.430	-32.015	9.590
	-30.733~9.571		-33.001~7.941		-66.788~-25.903		-50.810~-13.219	

* $p < .05$, ** $p < .01$, *** $p < .001$

2) 학업수행에 대한 영향

유아기 학습준비도 및 부모 양육 변인, 교사 관계 변인이 아동의 학업수행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변수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모형 I ~ 모형 IV을 설정한 뒤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모형 I의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업수행 수준에 대해서는 성별과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수행 수준이 높았고, 유아기 부모의 기관생활 관심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1학년 학업수행 수준이 높았다. 초등학교 1-4학년 학업수행 변화율에는 부모의 학력수준과 부모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수준과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1학년 이후 학업수행

수준의 성장률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가정 배경에 따른 격차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부모의 학력수준과 효능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모형II의 결과에서는 학습준비도 중 학습태도와 인지발달이 초등학교 1학년 학업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태도와 인지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에서 학업수행을 더 잘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유아기에 형성된 학습준비도의 영향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만 나타나고, 그 이후의 성장세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유아기 아동의 초등학교 학습 준비 정도는 입학 직후 일정 기간 동안만 작용하는 제한적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모형III은 초등학교 이후 교사-아동 관계 변인을 투입한 분석의 결과이다. 아동-교사 관계는 초등학교 1학년 학업수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면서, 1-4학년 학교적응 변화율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에서 학교적응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함께 고려할 때, 아동-교사 간 관계 수준은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모형IV은 모든 변인들을 함께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I~모형III의 결과와 비교할 때 변화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1학년(초기치)에 대해서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 변인의 계수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 수준이 학습준비도나 초등학교 입학이후 교사-아동 관계를 매개하여 학업수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또한 교사-아동 관계 변인의 계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중요한 측면인 교사-아동관계가 학습준비도, 즉 학습태도나 인지발달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유아기 학습태도나 인지발달이 잘 형성된 아동에게 교사들이 좀 더 친화적인 태도를 갖는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1학년 이후 학업수행의 변화율에 대해서는 분석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전 모형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모학력, 부모효능감, 교사아동관계 변인들이 그대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며, 회귀계수의 크기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학습준비도, 부모양육, 교사 변인이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학업수행	모형 I (배경변수)		모형 II (학습준비도)		모형 III (입학후교사관계)		모형 IV (전체모형)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초기치(π_{0i})								
β_{00}	7.656	3.985	6.658 **	2.353	7.959 **	2.597	-8.195	4.883
성별(남), β_{013}	-2.130 ***	.470					-1.178 *	.141

부모학력, β_{014}	.267	.142					.213	.308
가구소득, β_{015}	.507	.313					.453	.309
부모기관관심, β_{05}	.890 **	.286					.507	.290
부모효능감, β_{06}	.135	.937					-.455	.931
부모스트레스 _r , β_{07}	-.095	.629					.004	.617
양육방식(온정), β_{08}	.458	.774					.616	.764
양육방식(통제), β_{09}	.829	.557					.760	.547
부모아동소통, β_{010}	.009	.502					-.025	.491
사회정서, β_{01}			-.158	.128			-.166	.128
학습태도, β_{02}			.275 **	.096			.227 *	.097
의사소통, β_{03}			-.514	.329			-.519	.326
인지발달, β_{04}			.662 ***	.153			.578 ***	.154
아동교사관계, β_{011}					3.122 ***	.591	1.818 **	.622
아동교사선호, β_{012}					.000	.000	.000	.000
변화율(π_{1i})								
β_{10}	6.141 *	2.652	9.493 ***	1.644	.814	1.797	-5.124	3.257
성별(남), β_{113}	-.360	.320					.168	.323
부모학력, β_{114}	.303 **	.096					.276 **	.093
가구소득, β_{115}	-.131	.201					-.117	.195
부모기관관심, β_{15}	-0.157	.196					-.219	.196
부모효능감, β_{16}	1.543 *	.627					1.490 *	.611
부모스트레스 _r , β_{17}	-.073	.417					-.043	.402
양육방식(온정), β_{18}	-.583	.521					-.794	.506
양육방식(통제), β_{19}	.231	.375					.248	.362
부모아동소통, β_{110}	.033	.339					.030	.328
사회정서, β_{11}			-.033	.088			-.069	.085
학습태도, β_{12}			.061	.066			.011	.065
의사소통, β_{13}			.144	.233			.200	.225
인지발달, β_{14}			.058	.108			.022	.106
아동교사관계, β_{111}					2.713 ***	.408	2.623 ***	.436
아동교사선호, β_{112}					.000	.000	0.000	.000
무선효과(분산)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95% CI		95% CI		95% CI		95% CI	
초기치편차, $Var(\gamma_{0i})$	3.951	1.028	3.358	.942	3.983	1.047	2.346	0.791
	2.373~6.579		1.938~5.819		2.379~6.667		1.211~5.736	
변화율편차, $Var(\gamma_{1i})$	5.261	.773	5.594	.798	4.259	.700	4.126	.694
	3.944~7.017		4.230~7.398		3.087~5.877		2.967~5.736	
1수준오차, $Var(\epsilon_{1i})$	51.164	1.780	50.982	1.768	51.858	1.807	50.798	1.772
	47.792~54.773		47.631~54.568		48.435~55.523		47.441~54.393	
$Cov(\pi_{0i}, \pi_{1i})$	4.559	.475	4.334	.488	4.119	.430	3.111	.417
	3.629~5.490		3.378~5.291		3.276~4.961		2.293~3.929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사용해 부모 양육 변인, 아동의 학습준비도, 교사 관계 변인 등이 학령전환기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아동의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의 초등학교 1학년 시점 수준과 1-4학년 시기 동안의 성장률을 추정하였고, 배경과 부모 변인, 아동의 학습준비도,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관계 변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하위 모형을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시점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탐색한 결과,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과 양육 스트레스, 학습준비도 중 학습태도와 의사소통, 아동-교사 관계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보고했던 아동 발달 과정에서의 부모의 기관 참여를 강조하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주목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김기현 외, 1997; 신숙재, 1997; 배한친 외, 2018; 김충일, 2019).

한편 학습준비도 중 학습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점수가 낮을수록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습준비도 중 학습태도 문항을 살펴보면 '간단한 규칙과 지시를 잘 따른다', '수업 활동에 열정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다', '교사가 주도하는 집단 활동에 집중한다' 등 교실 수업 상황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태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학교적응을 평가하는 문항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입학 초기에는 학교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 문항을 살펴보면 '욕구, 필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다', '간단한 지시, 요청, 정보를 이해한다', '대화에 참여한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적응을 잘 한다고 평가하는 문항 내용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발표'하거나 '의사표현이 확실'하다 등 학습준비도의 의사소통 수준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수준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태도와 다르게 유아기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들은 학교적응 수준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1-4학년 시기의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궤적을 탐색한 결과, 초기치와는 다르게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이 높고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변화율이 좀 더 낮게 나타났다. 학교적응 향상도는 학령전환기의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오히려 크다는 것이다. 이는 입학 초기까지는 만 6세 학령전환기 아동의 부모 양육 특성의 영향력이 적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 관심이 저조하고 양육 스트레스가 많을 때 나타나는 학교적응에

서의 어려움은 입학 직후에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 학교를 다니면서 점차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학 초기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의 부모의 적극적인 학교 참여와 관심도의 중요성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김은실, 2008).

학습준비도 중에서는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1-4학년 학교적응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학교적응 수준에 대해서는 부적 관련성을 보이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유아기 형성된 아동의 의사소통 수준은 초등학교 입학직후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후에는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전환기 아동의 의사표현 특성의 영향은 초등학교 이후에 동일한 방식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교육 활동이나 교사 지도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교사 관계가 가지는 영향력은 학교적응 변화율에서도 강하게 나타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교 적응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김진미 외, 2019; 김미래, 2020). 이를 통해 아동과 교사의 원만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초등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부모 양육변인, 아동의 학습준비도, 아동교사 관계 변인 등이 초등학교 1학년 시점 아동의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습준비도 중 학습태도와 인지발달, 아동-교사 관계가 1학년 때의 학업수행(초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유아기 양육 환경의 영향력이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학업수행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에 대해 학교 요인보다는 가정환경을 포함한 학생 개인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는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성별, 부모 학력, 가구 소득 등을 통제했을 때, 부모의 양육 행동, 효능감 등의 양육 환경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분석 결과(김성식, 2012; 김진미 외, 2019)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은 학업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학습준비도나 아동교사 관계 변인을 고려할 때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 수준이 학습준비도나 초등학교 입학이후 교사-아동 관계를 매개하여 학업수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학습준비도 중 학습태도와 인지발달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업수행 점수가 높았다. 이는 입학 초기 아동의 학업 성취가 학습준비도 중 학습태도, 인지발달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인지발달은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 '인쇄된 자신의 이름을 알아본다', '상상놀이를 한다' 등 해당 연령 아동의 발달 과업에 맞는 인지

수준인지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발달이 학업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한 유아가 초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인지 수준에 맞게 적절히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유아기에 형성된 학습준비도의 영향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만 나타나고, 그 이후의 성장세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유아기 아동의 초등학교 학습 준비 정도는 입학 직후 일정 기간 동안만 작용하는 제한적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동-교사 관계는 초등학교 1학년 학업수행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아동이 교사와 맺는 관계의 질이 단순히 학교에서 잘 적응해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과 교사가 서로 간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한다는 김진성(202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넷째, 초등학교 1-4학년 시기의 아동의 학업수행 변화 궤적을 탐색한 결과, 학업수행 변화율에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교사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수행 변화율이 높았다. 이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며, 아동이 학교 교육을 받으며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학부모의 역할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동-교사 관계는 학업수행 초기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1-4학년 학업수행 변화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교사 관계가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아동의 학습 지원을 위해서 아동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교사가 아동과 원만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끔 전문적인 학습을 지원하고,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 지원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컨대, 가정 배경, 유아기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학습준비도 등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입학 직후인 초등학교 1학년 때와 그 이후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방향이 달라진다. 유아기 아동들의 배경 특성이나 부모 양육 요인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양상을 달리하면서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를테면, 학업수행에 대해서 입학 시점에는 부모 관심이 작용하지만 그 이후에는 부모 학력이 작용하면서 가정 배경이나 부모 요인에 의한 격차를 발생하고 유지한다. 반면, 아동이 유아기 육아 및 교육경험을 통해서 형성한 학습준비도는 초등학교 입학 직후에는 대체로 의미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대신에 초등학교 교육활동 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아동과 교사의 관계가 주 영향 요인으로 전환된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이전 경험에 해당되는 부모의 육아, 유아

교육 경험 등이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교육활동이나 교사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민진(2008).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39(1), 181-210.
- 김은실(2018).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연구. 발달지원연구, 7(1), 19-34.
- 정승아(2017). 초등학교생들의 취학 전 사교육 경험 실태 및 취학 후의 학업관련 요인들과의 관련성. 교과교육연구, 38(2), 47-65.
- 민미희(2018).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및 통제적 양육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보육행정연구, 22(3), 91-121.
- 정연아, 김수정(2019).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유형과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8), 875-895.
- 김성식(2012). 학생 배경과 방과후 활동에 따른 초등학교생의 학교 적응도 차이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3), 27-47.
- 김진미, 홍세영(2019). 초등학교생의 학교적응 영향요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699-719.
- 김미래, 이영진, 이은형(2020). 초등학교 1학년 교사의 교사효능감, 아동의 학업수행능력 및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613-630.
- 박희숙(2012). 조손가정 유아의 학습준비도 관련 변인 탐색. 아동교육연구, 32(2), 333-350.
- 오미연(2005). 아버지과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 연구-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주아 외(2017).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행동, 유아의 학습준비도 및 학업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자기-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연구, 37(4), 453-477.
- 안수빈, 은선민, 이강이(2018). 초등학교 전이과정에 나타나는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 취학 전 아동 및 부모 특성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2(1), 151-173.
- 김충일, 권윤정(2018).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변화궤적이 학령전기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7(3), 207-221.
- 박성희, 신여울, 조우리(2019). 유아기 또래상호작용 궤적요인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잠재계층 간의 전이관계. 제10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81-197.
- 전현희, 김성화(2019).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도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제10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57-177.

- 배한진, 허청아(2018). 유아기의 가족환경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35-154.
- 조운주, 김은영(2013). 유아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제4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63-83.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지성애, 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임선아, 임효진(2014).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관련변인 연구 :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차이, 제5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49-167.
- 김지현, 김정민(2014). 만4세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제5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68-193.
- 송요현(2016).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미디어 이용정도에 따른 군집유형별 유아 문제행동 차이. 제7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22-144.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길혜지, 황정원(2016).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분석. 제7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416-439.
- 김수정, 정익중(2014). 가정환경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효능감의 조절효과. 제5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335-360.
- 이예진, 전은옥(2019).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어머니의 취업, 가정환경,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3(1), 101-121.
- 이은해, 김명순, 전해정, 이정림, 이운선, 김주혜, 조수영, 정주희(2008).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 서비스에 대한 종단적 효과 연구. 미발간.
- 권소정, 이강이(2018).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모의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2(2), 57-81.
- 한지현(2018).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부모공동양육 유형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육아정책연구, 12(2), 83-105.
- 김충일(2019).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아동, 부모, 교사의 특성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28(4), 171-187.
- 김진성(2020). 교사-아동 관계가 학업수행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을 매개변수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1), 1-17.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August).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 <http://nces.ed.gov/ecls/kindergarten.asp>에서 2013년 4월 1일에 인출.

- Pianta, R. C. (2001). The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Odessa, FL: Personality Assessment Research.
- Bryk, A. S., & Raudenbush, S. W. (1987). Application of Hierarchical Linear Models to Assising Change. *Psychological Bulletin*, 101, 147 - 158.
- Goldstein, H. (1986). Multilevel mixed linear model analysis using iterative generalized least squares. *Biometrika*, 73, 43 - 56.
- MacCallum, R. C., Kim, C., Malarkey, W. B., Kiecolt-Glaser, J. K. (1997). Studying Multivariate Change Using Multilevel Models and Latent Curve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2, 215 - 253.
- Murphey, D. A., & Burns, C. E. (2002).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4(2), 1-8.

Abstract

The Effects of School Readiness, Parenting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Variables on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of Children

Naram Gwak, Yerin Yoon, and Sung sik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longitudinally the effects of school readiness, parenting variables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variables on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of children using a Multi-level Growth Model. Through this, the effects of parenting variables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variables on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were investigate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institutional interest, parenting stress, and learning attitud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itial value of school adjustment, but communication had a negative effect. Conversely, parents' institutional interest, parenting stress, learning attitude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slope in school adjustment, but communication had a positive effect. The child-teacher relation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both the initial value and the slope. Second, learning attitude, cognitive development, and child-teacher relation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first graders' academic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the parenting efficacy and the child-teacher relation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hange in academic performance during 4 years since the entrance to elementary school.

Among the variables, the child-teacher relation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both the initial value and the slope, and the influence is stronger than other variables. Therefore, for children's effective learning in school, it is required to provide enough time and space for children and teachers to interact actively, and support professional training to help teachers run smooth an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children and provide appropriate feedback. Also, it is fundamental to increase teachers' interest and effort in support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 Key words: transition to school, school readiness, parenting, teacher-child relationships,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부록 1.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1																						
2	.471***	1																					
3	.393***	.415***	1																				
4	.364***	.471***	.324***	1																			
5	.592***	.432***	.350***	.267***	1																		
6	.396***	.673***	.322***	.385***	.598***	1																	
7	.286***	.273***	.555***	.190***	.376***	.393***	1																
8	.464***	.486***	.351***	.587***	.593***	.571***	.355***	1															
9	.271***	.249***	.239***	.269***	.182***	.209***	.118**	.202***	1														
10	.341***	.339***	.289***	.291***	.308***	.309***	.163***	.304***	.699***	1													
11	.197***	.211***	.178***	.234***	.219***	.204***	.146**	.255***	.577***	.667***	1												
12	.254***	.266***	.205***	.229***	.350***	.322***	.182***	.283***	.560***	.699***	.704***	1											
13	.149***	.130***	.124**	.048	.156***	.166***	.077	.114**	.247***	.272***	.224***	.219***	1										
14	.136***	.047***	.121**	.130**	.130***	.095*	.086	.202***	.097**	.153***	.122***	.102**	.186***	1									
15	.046	.001	.002	-.03	.005	-.012	-.025	.029	-.023	-.003	-.017	-.006	-.039	.066	1								
16	.121***	.087*	.079	.128**	.115**	.108**	.062	.150***	.028	.064	.042	.048	.133***	.710***	.051	1							
17	-.001	.005	-.062	.025	.085*	.063	.002	.059	.035	-.001	.055	.039	.007	.035	-.016	.142***	1						
18	.082*	.023	.024	.153***	.078*	.058	.020	.134**	.050	.070*	.084*	.076*	.125***	.303***	.139***	.389***	.041	1					
19	.385***	.629***	.647***	.597***	.234***	.345***	.318***	.461***	.215***	.248***	.178***	.190***	.059	.078*	-.032	.090**	.002	.027	1				
20	-.026	.023	.018	.022	-.043	-.006	.007	.040	.036	.024	.031	.022	.011	-.046	.063	.002	.000	.012	.030	1			
21	-.273***	-.306***	-.220***	-.215***	-.197***	-.255***	-.099*	-.198***	-.112**	-.143***	-.081*	-.149***	-.084	-.003	.002	.015	.044	-.012	-.281***	.056	1		
22	.101**	.178***	.151***	.085	.164***	.149***	.164***	.224***	-.037	.023	.023	.065	.074*	.179***	.019	.194***	.083*	.118***	.057	.042	-.0227	1	
23	.123***	.071	-.014	.049	.113**	.088*	.025	.056	-.008	-.0188	.008	.061	.048	.083*	.024	.064	-.004	.109**	.027	-.006	-.0281	.202***	1

* p < .05, ** p < .01, *** p < .001

1~4: 8차~11차 학교적응, 5~8: 8차~11차 학습수행, 9: 사회정서, 10: 학습태도, 11: 의사소통, 12: 인자발달, 13: 부모/교관신, 14: 부모효능감, 15: 부모스트레스, 16: 양육방식(온정), 17: 양육방식(통제), 18: 자녀성취동, 19: 이혼교사관계, 20: 이혼교사선호, 21: 성별, 22: 가구소득(로그)

학습준비도, 부모, 교사 요인이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과 학업 수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장혜진(대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과 학업 수행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학 전·후 연계에 대한 관심이 문서상의 교육과정 연계 이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연결하여 본 연구로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과 학업을 지지해줄 수 있는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여러 변인을 성격에 따라 4개의 하위모형으로 설정하고 초등학교 적응과 학업 수행의 변화까지 관찰할 수 있는 다층성장모형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부분이 연구방법 측면에서 흥미로운 부분이다.

먼저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을 보면 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에 따른 적응의 차이나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고, 기관 생활 관심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모형 1의 결과에서 가정 배경에 따른 학교적응 격차가 초등학교 입학 직후 거의 결정되고 난 후 지속적인 확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적응의 격차가 지속된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아보다 여아의 적응점수가 높는데 학교적응에서 말하는 적응의 개념이 지나치게 순응이나 조화, 배려 등 기능주의적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교적응 초기치와 변화를 모두에서 보여주는 아동-교사 관계 변인에 주목하게 된다.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해 아동의 학습준비도, 학교준비도와 같은 개념으로 아동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학교적응 변화율에 관해 부모 양육 특성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변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학업수행에 대한 영향과 연결하면 학습태도, 인지 발달과 같은 아동의 개인적 변인인 자율적인 학습태도나 사고, 동기 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 특성이 아동의 개인적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아동의 학업수행을 위해 아동이 스스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업수행에 대한 영향을 보면 모형 I 결과에서 1학년 학업수행에는 성별과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 학업수행 변화율에는 부모의 학력과 효능감이 영향을 미쳤고, 모형 II

결과에서 1학년에는 학습태도와 인지발달이 관련 있었으나 학습준비도가 이 후의 성장세와는 큰 관련이 없었다. 초기치 학업수행 결과에 대해서 유아기 양육환경의 영향력이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학업수행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기를 제안한다. 연구결과에서 아동의 학업수행 변화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여전히 유의미한 변인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한편 유아기에 형성된 학습준비도의 영향이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보완되어 취학 전 유아의 학습준비도라는 관점에서 유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학업수행의 변화 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동-교사 관계가 여전히 강력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1학년 학업수행에서는 부모 양육효능감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학업수행의 변화에 관해서 양육효능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양육효능감이 보다 지속적으로 아동의 학업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부모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학교적응이나 학업수행을 측정된 결과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이 이상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학교적응이나 학업수행의 의미, 측정하는 도구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과도 관련이 있지만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을 측정하거나 아동의 개인 내 발달 간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학교적응이나 유초연계에 대한 관점이 초등학교에서의 성공을 위한 유아의 준비에서 학교의 준비로까지 확대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시각을 담아내는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학교의 준비 중에서 초등교사가 인식해야 하는 아동-교사 관계의 중요성이나 더 나아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돌봄에 대한 철학의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변인을 여러 모형으로 나누어 변인을 살펴보고, 단순히 초등학교 적응이나 학업수행 결과에 그치지 않고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부분에서 차별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문명화⁶⁾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Mplus 6.0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로분석이 이루어졌고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상호작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유능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상호작용은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사회적 유능감 관계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상호작용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을 촉진하여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상호작용의 발현이 극대화되기 위한 교육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 사회적 유능감

1. 서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치원 교실의 풍경은 매일 등원할 수 있는 맞벌이 가정의 유아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며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고 가족구조의 사회적 변화로, 코로나 상황에도 교육기관으로 매일 등원할 수밖에 없는 유아들은 오랜 시간 기관에 머물고 있다. 교육기관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유아와 유아 간의 또래상호작용, 교사와 상호작용 등이 빈번히 이루어져 그 대인관계의 질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요즘이다.

교육기관에서 또래와 선생님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유아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게 된다. 기술적 측면에서 사회적 유능감은 유아가 친구들과 관계 형성 시 또래집단이나 그들이 처한 환경이 요구하는 다양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이진숙,

6) 강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

2004)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부정적 행동 특성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감정 등을 표현하는 사회적 행동 또는 능력의 개념이기에 하위요인으로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력이 포함된다. 사회·정서 발달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유아는 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잘 내며 위축되어 있으며 자기조절능력이 낮아 교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표출하여(Blair, 2002) 사회적 기술 즉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이 중요하다.

인지적·사회적 측면에서 대인관계 및 기관에 적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발달이 잘 이루어져 또래와 함께 생활하며 협동이나 갈등해결의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고립적이거나 비사회적인 행동은 줄어들게 되고 또한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가 유아기이므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연구가 지속강조되어야 한다(정옥분, 2006; 양은호, 2012).

유아의 사회적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변인의 하나로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주목받아왔으며 이는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redenkamp, 1987).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교사가 유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체계를 의미하는데(최소영, 신혜영, 2015),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이 높을수록 유아는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많아지고 상호작용의 질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음(Hesten, Kontoser, & Bryan, 1993)을 밝히고 있다. 성공적인 교사와 유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교사는 유아를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로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적·비언어적인 방법을 활용한 상호작용의 역할이 크다. 질 높은 상호작용을 위해 교사는 유아의 정서표현이나 요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갖추고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박은혜, 2010). 유아는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교사에게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므로(Einsenberg & Fabes, 1999)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유아의 정서조절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재확인한 연구(김경화, 2020)가 있어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밀접한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은 놀이의 시작과 지속, 새로운 놀이로의 전이와 확장, 마무리 등 놀이의 흐름을 관찰하고 유아의 흥미와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에 기반하므로 놀이와 관련되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실에서 매일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면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되는데 또래들의 놀이를 방해, 거부하거나 잘 어울리는 행동, 친사회적 행동, 갈등, 단절 등 유아 간의 놀이상호작용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유아기에 효과적인 또래상호작용은 놀이를 하며 일어나며, 놀이는 유아의 생활세계를 만드는 외현화된 실천적 행동이다. 즉, 유아의 놀이는 일상생활이고 주변을 탐색하고 학습하는 수단이자 의사

소통 매체이다(Coplan & Arbeau, 2009).

또래놀이상호작용은 사회적 맥락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두 명 이상의 유아가 주고받는 상호호혜적인 사회적 교류(Rubin, Bukowski & Parker, 2006)이며, 유아가 교실의 놀이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 중에 보여주는 행동특성의 개인차라고 하였다(권연희, 2012). Fantuzzo, LeBoeuf, Rouse, Chen(2012)의 또래 놀이행동 척도는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을 할 때 보이는 행동을 긍정적, 부정적 행동으로 구분해서 보았다. 두 행동으로 구분하는 이유를 또래놀이행동 속에서 유아의 긍정적 행동은 증가시키고 부정적 행동은 감소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장효은, 김춘경, 2018).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보이는 유아보다 긍정적으로 또래와 놀이상호작용을 보인 유아들이 초등학교 이후 학습활동에 적극적이고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Mathieson & Banerjee, 2010; Howes, 1987). Howes와 Smith(1995)는 또래놀이상호작용에 대한 종단연구에서 4세에 또래와의 관계형성이 친밀했던 유아는 9세가 되었을 때도 또래에게서 친밀감과 안정성을 느낀다고 하였다. 유아기에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한 유아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유아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후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이나 따돌림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황영미, 2009) 사회적유능감,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놀이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또래와의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한편, 유아를 둘러싼 환경은 가정, 유아교육기관, 지역공동체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나 가정의 대체제로서 역할이 커진 교육기관의 환경이 유아에게 주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기관에서 교사는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에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적환경이다.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변인으로 교사 내적신념인 교수효능감을 들 수 있다. 교수효능감은 교사 자신의 수업상황에서 상호작용의 질로 이어져 유아의 발달을 최적의 상태로 성장시키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심숙영, 임선아, 2017).

교수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기초로 교사 자신의 평가에 기초한 일종의 신념체계이다. 교육기관에서의 의사결정능력, 교사능력, 교재·교구의 확보 및 활용 능력, 훈육능력, 부모참여를 이끄는 능력, 지역사회와의 연계능력,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구성하는 능력이 교사효능감이다(Bandura, 2006).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영유아에게 자신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채진영, 2016). 교수효능감이 높으면 유아의 정서능력, 인성특성,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고(임현주, 최항준, 김현정, 2015),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또래 놀이상호작용에도 긍정적임을 보고하였다(김명선, 황선

영, 오재영, 2014).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유아의 기관 및 교사선호는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심미영, 이문옥, 2018),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높으면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높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높으면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숙영, 임선아, 2017). 또한, 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매개로 또래놀이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영경, 최선녀, 2015).

또래 간의 놀이상호작용은 교실에서 활발히 일어나며 유아와 유아의 상호작용,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 등 대인 간 관계가 함께 어루어져(문명화, 문은식, 2020) 교사의 심리적 변인인 교수효능감과 더불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서석원, 박지선, 2016; 이형민, 2015)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된 변인들이 어떤 구조적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관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교사 심리적변인으로 교수효능감, 대인관계변인으로 교사-유아 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연구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교수효능감, 놀이상호작용, 사회적유능감의 관계 연구는 아직 드물어 그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자료 중 7차년도(2014)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치원 교사(359명), 유아(남아 169명, 여아 190명)이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359)

배경변인	구분	N	%
유아 성별	남아	169	47.1
	여아	190	52.9
교사 학력	전문대 재학	12	3.3
	전문대 졸업	125	34.8
	대학교 재학	10	2.8
	대학교 졸업	148	41.2
	대학원 재학	14	3.9
	대학원 졸업	50	13.9
구분	M(SD)	최소값	최대값
유아 월령	74.93(1.48)	72	79
교사 연령	31.28(7.77)	21	55

2. 연구도구

가. 교수효능감

본 연구의 교수효능감은 김연하와 김양은(2008)이 Bandura(2006)의 교사 자기효능감(Teacher Self-Efficacy Scale: TSES) 요인구조를 분석한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일부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평정용으로 총 7문항이다. 웹 설문지로서 문항의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경우 그 활동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가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교수효능감 전체 .856으로 나타났다.

나. 교사와 유아 상호작용

교사와 유아 상호작용 척도는 Bredekamp(1985)의 유아관찰도구(Early Childhood Observation Instrument: ECOI)를 Holloway와 Reichhart-Erickson(1988)이 일부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한국 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사용한 것이다. ECOI는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유아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의 세 가지 하위요인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사용하였고 교사 평정용으로 총 6문항이다.

문항의 예를 들면 ‘아이와 다정하고 자상한 태도로서 대화를 나눈다.’, ‘아이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등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작용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교사와 유아 상호작용 전체 .915로 나타났다.

다.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또래 놀이행동 척도(Acadamic Skills) 척도는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mott, & Sutton-Smith(1998)가 개발한 PIPPS를 최혜영·신혜영(2008)이 타당화한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검토·수정한 것이다. 총 30문항이며 3개 하위영역인 놀이상호작용(Play Interaction, 9문항), 놀이방해(Disruption, 13문항), 놀이 단절(Disconnection, 8문항)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성향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성향을 측정하는 놀이상호작용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놀이상호작용 전체 .808로 나타났다.

라. 사회적 유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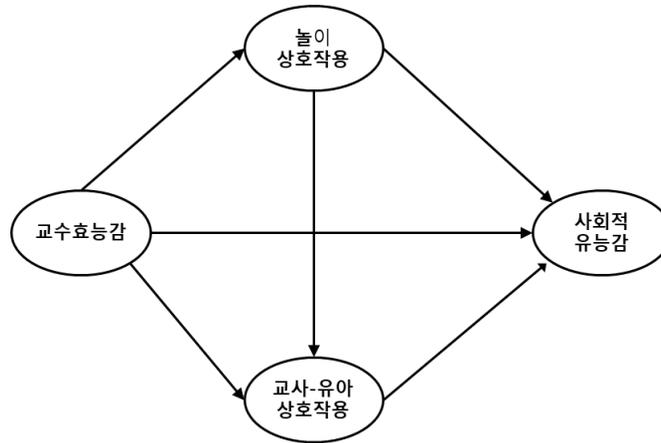
사회적 기술평정척도는 Gresham과 Elliott(1990)의 도구를 서미옥(2004)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검토수정을 거쳐 문항을 확정하여 사용하였다(Social Skill Rating System for Preschool Level, SSRS). 본 연구에서는 교사 평정용을 사용하였으며 주장성(5문항), 협력성(9문항), 자기통제(7문항) 3개 하위영역이며 총 21문항이다. 웹 기반질문지로서 문항의 예를 들면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또래를 칭찬한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등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로 평정되는 Likert 3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하위영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유능감 전체 신뢰도는 .923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아동패널조사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 및 유아의 사회적유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선행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SPSS 18.0 프로그램으로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모형분석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최대우도법으로 모수추정을 하였다. 잠재변수 중 교수효능감과 놀이상호작용은 문항목록을 사용하여, 모두 10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 검증은 Mplus 6.0을 이용하여 직·간접효과를 구하였고 유의확률을 추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평가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하고 최종모형이 선정되었다. 이후 각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및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4. 연구모형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다. 연구모형을 통해 교수효능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상호작용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려한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결과

1. 기초분석자료

가.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 및 유아의 사회적유능감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표 2과 같다. 표 2에서 보면,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는 $r=.09\sim.73$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하위요인 간에는 $r=.19\sim.67$ 로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상호작용과 교수효능감 하위요인 간에는 $r=.10\sim.17$ 로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놀이상호작용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은 $r=.13\sim.17$ 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놀이상호작용1과 유아와 유아 상호작용 하위요인간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유능감의 하위요인인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는 교수효능감 하위요인과 $r=.14\sim.24$ 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사회적유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하위요인 간의 상관은 $r=.10\sim.26$ 으로 유의하였으며 사회적유능감과 놀이 상호작용 하위요인 간의 상관도 $r=.38\sim.50$ 으로 유의하였다. 측정변인들의 왜도의 절대값은 $.01\sim1.28$ 이고 첨도의 절대값은 $.01\sim1.62$ 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아 다변량정규성 가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이에 구조방정식모형의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표 2〉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 (n=359)

잠재변인	측정변인	x1	x2	x3	y1	y2	y3	y4	y5	y6	y7
교수	x1										
효능	x2	.695**									
감	x3	.716**	.726**								
교사-유아	y1	.665**	.603**	.568**							
상호작용	y2	.196**	.217**	.187**	.255**						
놀이상호작용	y3	.161**	.176**	.098*	.128**	.056					
사회적유능감	y4	.170**	.140**	.112**	.171**	.126**	.609**				
적유능감	y5	.228**	.216**	.159**	.264**	.102*	.457**	.455**			
	y6	.149**	.135**	.139**	.129**	.041	.383**	.418**	.434**		
	y7	.229**	.198**	.240**	.213**	.068	.495**	.422**	.661**	.629**	
Mean		4.01	3.80	3.78	4.22	4.34	2.97	3.22	2.65	2.48	2.39
SD		.539	.615	.611	.544	.517	.472	.538	.392	.426	.434
왜도		-.010	-.149	-.032	-.499	-.398	-.493	-.884	-1.280	-.671	-.496
첨도		.103	-.009	-.073	.226	-.414	1.169	1.623	1.205	-.079	-.290
x1 교수효능감1	x2 교수효능감2										
x3 교수효능감3	y1 교사-유아 상호작용										
y2 유아-유아 상호작용	y3 놀이상호작용1										
y4 놀이상호작용2	y5 주장성										
y6 협력성	y7 자기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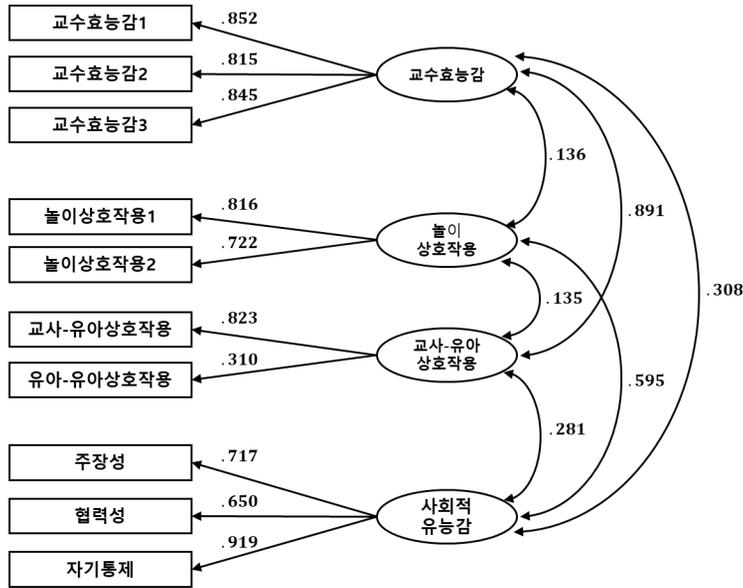
* p<.05 **p<.01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유능감에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수효능감과 놀이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나.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기 위해 유아의 사회적유능감과 관련변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χ^2 은 86.638, 자유도 29, 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형은 기각되었으나 χ^2 의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고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Kline, 2011). 표 3을 보면 CFI .96, TLI .94, SRMR .04, RMSEA .07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인다. RMSEA 값이 .10 이하이면 연구모형이 자료에 잘 적합하고, .05 이하이면 매우 잘 적합하다고 Steiger(1990)가 제시하였기 때문이다(Steiger,

1990). 한편, 그림 2를 보면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이 교수효능감 0.81~0.85, 놀이상호작용 0.72~0.82, 교사-유아 상호작용 0.31~0.82, 사회적유능감 0.65~0.92로 모두 유의한 것($p < .001$)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유아와 유아 상호작용 ($\beta = .31$)의 요인부하량은 낮은 값이지만 유의하게 나타나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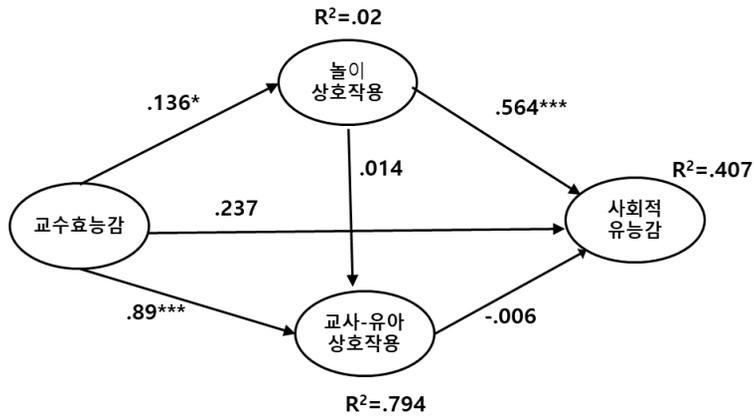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분석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구분	χ^2/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SRMR
연구모형	86.6	.96	.94	.07(.056~.092)	.04
충족기준	$\chi^2/df < 5$	$> .90$	$> .90$	$< .10$	$< .08$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 및 사회적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의 가설적인 연구모형이 실제적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의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와 같다.



[그림 3] 연구모형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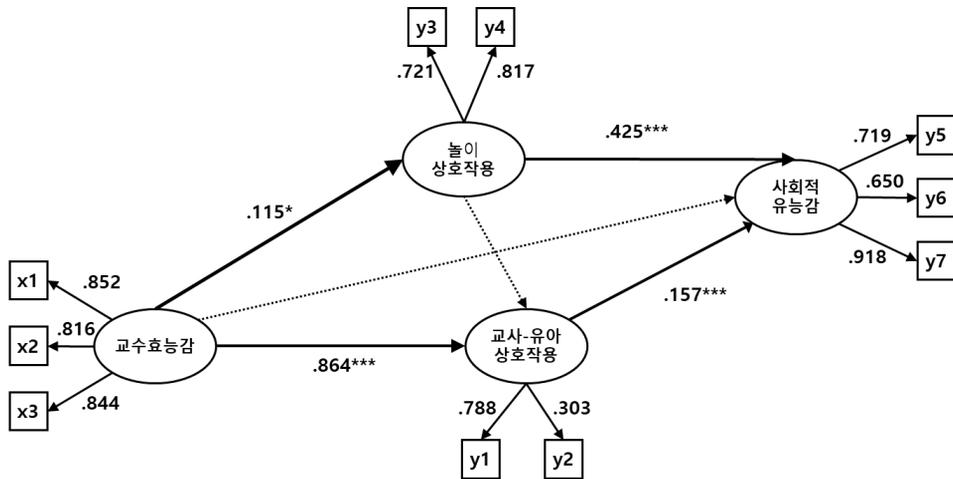
그림 3은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이며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놀이상호작용 → 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수효능감 → 사회적유능감 등의 두 개 경로가 유의하지 않아 이 경로들을 해제하고, 연구모형의 내재된 모형으로서 수정모형을 설정하고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였다. 수정모형은 연구모형과 내재된 모형(nested model)이므로 χ^2 차이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p > .05$) 두 모형은 적합도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_{(df)}=1.0(2)$, $p=.607$). 선행연구에 의하면 χ^2 검증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 자유도가 큰 모형을 선택한다(홍세희, 2000). 따라서 수정모형이 모형의 간명성(parsimony)을 확보하게 되어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판정하였다.

<표 4>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구분	χ^2/df	TLI	CFI	RMSEA(90% CI)	SRMR
연구모형	86.6/29	.941	.962	.074(.056~.092)	.036
수정모형	87.6/31	.946	.963	.071(.054~.089)	.037
총족기준	$\chi^2/df < 5$	$> .90$	$> .90$	$< .10$	$< .08$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적 관계의 최종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보면 교수효능감은 놀이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12$, $p < .05$)을 미치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beta = .86$, $p < .001$)을 미친다. 교수효능감은 놀이상호작용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각각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08$, $p < .05$; $\beta = .22$, $p < .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효능감은 사회적유능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놀이상호작용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 표 5에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4] 최종모형 경로계수

<표 5>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경로	표준화계수(β)		
	직접효과	간접효과(S.E)	총효과
교수효능감 → 사회적유능감	.	.299(.055)	
교수효능감 → 놀이상호작용 → 사회적유능감	.	.079*(.037)	.299***
교수효능감 → 교사유아상호작용 → 사회적유능감	.	.220***(.052)	

* p<.05 *** p<.001

3. 매개효과 검증

표 6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교수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두 경로 모두 표 6에서와 같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효능감은 사회적 유능감에 놀이상호작용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매개로 간접효과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 내적 신념이 외적 행동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추정 95% C.I.	
	B	S.E	β	하한값	상한값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사회적유능감			.220***	.121	.318
교수효능감→놀이상호작용→사회적유능감			.079*	.003	.155

* p<.05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의 사회적유능감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고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서 나타난 유아의 사회적유능감과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행복감, 교수창의성, 교수효능감은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백영숙, 강병재, 2014; 심숙영, 임선아, 2018; 이은주, 김상림, 2019). 즉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적, 양적 수준도 좋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교수효능감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에 의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일 수 있다(심숙영, 임선아, 2018).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형은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백지숙, 권은주, 2017), 교사-유아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집단이 낮은 수준 집단에 비해 유아의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 수준이 높았다는 연구(김수정, 2019), 교사변인 중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교수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연구(정연아, 유준호, 2020)에서 교수효능감보다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협력성에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나, 교사-유아 상호작용 변인이 교수효능감보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더 밀접한 관계로 보인다. 이는 교수효능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거쳐 유아의 사회적유능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교사와 유아의 관계에서 높은 교수효능감은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유아들을 동기 유발시키는 상호작용 능력을 보

여(Gibson & Dembo, 1984; Denham, Burton, 2003)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즉, 교사는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합한 교수실제를 통해 유아와 따뜻한 상호작용을 하여 훌륭한 관계맺음을 이루면 유아의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력 등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로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은 유아의 또래 간 놀이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놀이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또래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백지숙, 권은주, 2017; 김수정, 2019). 유아들은 또래와 관계에서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며 자신의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데(Kostelnik et al., 2009; McCay & Keyes, 2001) 주로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놀이를 하며 유아는 교사, 또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움을 공유하며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경험도 하기에 유아학습공동체인 유치원 교실에서 일어나는 놀이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임현주, 2018; 민미희, 2019; Kostelnik et al., 2009). 또한 유아는 교사와 관계에서 놀이의 즐거움을 더 만끽할 수 있으므로 높은 교수효능감에서 나오는 질 높은 교사의 지지와 지원으로 유아의 정서발달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부트스트래핑을 10000회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사회적 유능감 관계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상호작용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효능감이 향상되면 사회적 유능감도 함께 상승되고 이 두 변인 간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다. 따라서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유아 상호작용도 많아지며 사회적 유능감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변인들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유아 개인변인, 가구변인, 교사변인으로 나누어 그 유의성을 확인한 연구가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정연아, 유준호, 2020). 또한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사회적 유능감 관계에서 놀이상호작용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교수효능감과 놀이상호작용을 함께 향상시킨다면 유아의 사회적유능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규명되어진다. 이에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지닌 유아일수록 또래와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있어 갈등 발생이 줄어들고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염혜선, 이은주, 2015; Lindsey & Mize, 2001), 교사의 행복감과 교수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또래 상호작용이 언어 인지능력을 매개로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 등을 지지한다(심숙영, 임선아, 2018; 장유진, 홍예지, 이강이, 2018)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적인 기술적 연구로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 유아의 사회적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지만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세부적으로 검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기관별, 성별, 기질 등에 따른 다집단분석, 잠재 프로파일분석 등으로 잠재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다양한 분석방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 등 유아를 둘러싼 인적변인만을 고려하였으나 유아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실의 물리적환경, 실내외 환경, 바깥놀이터 등 물적변인을 포함하여 유아의 사회적유능감을 탐색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미성, 문혁준 (2013).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전문성 수준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4), 277-296.
- 권연희 (2012). 남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 시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교사-유아 간 갈등적 관계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2(2), 29-48.
- 김경화 (2020).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교사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 (2013). 교사가 지각한 교사-유아의 관계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연구*, 15(1), 137-163.
- 김수영(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학지사.
- 김연하, 김양은 (2008). Bandura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 요인구조 분석. *유아교육연구*, 28(2), 169-191.
- 김은설, 도남희, 왕영희, 송요현, 이예진, 정영혜, 김영원 (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향, 최은정 (2019). 교사의 행복감,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 특성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9(4), 645~667.
- 문명화, 문은식 (2020).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교실환경,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학습 준비도 간의 구조적 관계. *생태유아교육연구*, 19(2), 23-45.
- 문영경, 최선녀 (2015).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5(2), 1~20.
- 배병렬 (2016). Mplus 7.0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청람.
- 백승희, 정혜원 (2017).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 요인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2(4), 1~19.
- 백지숙, 권은주 (2017). 부모-유아 상호작용, 또래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 유능감과 언어 및 문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7(2), 99-114.
- 서석원, 박지선 (2016).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교실환경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4(3), 293-305.
- 심미영, 이문옥 (2018).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행복감, 유아의 기관 및 교사 선호, 또래놀이상호작용 간의 구조적 관계. *교사교육연구*, 57(4), 469-480.
- 심숙영, 임선아 (2017).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관계: 유아기질에 따른 차이 검증. *유아교육연구*, 37(4), 353-369.
- _____ (2018).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교수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상호작용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38(1), 319-340.
- 안상미 (2004).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따른 교사-유아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구종, 심우경 (2014). 유치원 물리적 환경 변인이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1), 177-201.
- 이형민 (2015).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실환경,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유아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간의 구조적 관계. *육아정책연구*, 9(2), 89-112.
- 이영석, 이은주 (2007). 유아의 사회적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부모 교사 관련 변인 탐색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1), 255-277.
- 이은주, 김상림 (2019). 유아교사의 교사행복감과 교수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8(5), 437-447.
- 임현주, 최항준, 김현정 (2015).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 어머니 변인 및 가정환경, 교사효능감이 유아의 인지·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0(6), 247-264.
- 정연아, 유준호 (2020). 유아 개인변인, 가구변인, 교사변인에 따른 취학 전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연구. *교육문화연구*, 26(3), 757-777.
- 정옥분 (2006).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최소영, 신혜영 (2015).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311-329.
- 최혜영, 신혜영 (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황연숙, 이연숙 (2003). 아동실의 물리적인 환경이 아동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4(2), 51-61.
- 황영미 (2009). 유아의 또래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및 어머니 변인 연구.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W. H. Freeman and Company, 1-161.
- Bredenkamp, S. (1987).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serving children from birth through age 8. Washington, D.C.: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Chou, C. P., & Bentler, P. M. (1995). Estimates and tes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 37-55). Sage Publications, Inc.
- Coplan, R. J., & Arbeau, K. A. (2009). Peer Interactions and play in early childhood. In K. J. Rubin, W. M. Bukowski, & B. Laursen(Eds.), *Handbook of peer interaction, relationships, and groups*(pp.143-161). New York: Guilford Press.
- Denham, S. A., & Burton, R.(2003). *Social and emotional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ming for preschoolers*.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 Enders, C. K., & Bandalos, D. L. (2001). The relative performance of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missing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8(3), 430-457.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mott,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 105-120.
- Howes, C., & Smith, E. W. (1995). Relations among child care quality, teacher behavior, children's play activities, emotional security, and cognitive activity in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4), 381-404.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2009).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Learning*. (6th Edition). NY: Delmar.
- Mathieson, K., & Banerjee, R. (2010). Pre-school peer play: The beginnings of social competence. *Educational and Child Psychology*, 27(1), 9.
- McCay, L. O., & Keyes, D. W.(2001). Developing social competence in the inclusive primary classroom. *Childhood Education*, 78(2), 70-78.
- Rubin, K. H., Bukowski, W. M., & Parker, J. G.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N. Eisenberg,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 571-645). John Wiley & Sons, Inc..

• 교신저자: 문명화, 강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 남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사, mmh@daum.net

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kindergarten teachers' teaching efficacy, teacher-children interaction, peer play interaction,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yung-Hwa M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kindergarten teachers' teaching efficacy, teacher-children interaction, peer play interaction,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For this, data from the 7th year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were use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Mplus 6.0 program, an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kindergarten teacher's teaching efficacy has a direct effect on the teacher-children interaction and peer play interaction, and indirectly on the social competence. Teacher-children interaction and peer play interaction directly affect social competence.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using bootstrapping, it was found that teacher-children interaction and peer play interaction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icacy and social competence of kindergarten teachers.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educational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maximize the expression of teacher-children interaction and peer play interaction by promoting the teaching efficacy of kindergarten teac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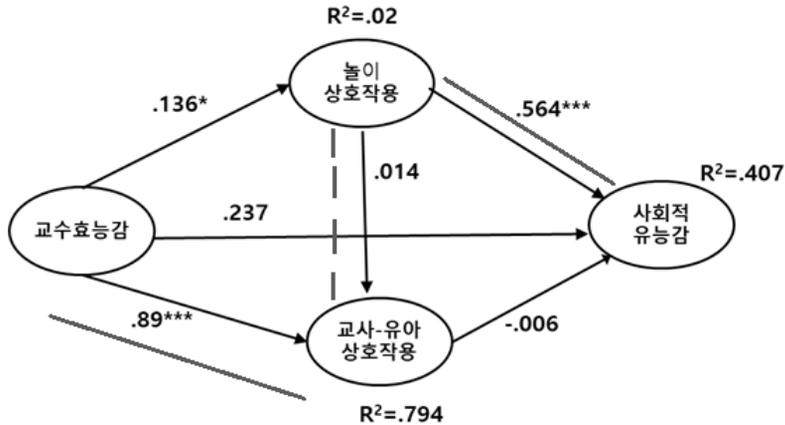
- Keyword: kindergarten teachers' teaching efficacy, teacher-children interaction, peer play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교사-유아 간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와 놀이상호작용 간의 관계에 관하여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토론문)

박원순(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연구자께서 연구한 네 가지 변인 중에서 유아의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떠올려 볼 때, 연구자께서는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셨으나 얼핏 보기에는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은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를 다른 두 변인과의 관계와 확장지어 생각해보면 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사-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유아의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림 3에 드러난 연구자의 경로계수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교수효능감은 교사-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아의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숫자로 보더라도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사-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토하시지는 않았는지 검토하시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림 1] 연구모형 경로계수

출처: 문명화(2020) 그림3 연구모형 경로계수, “유치원 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아동패널학술대회 발표자료, 55p

토론자가 이와 같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 두 변인 간의 관계에 집중하는 이유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함의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입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역할은 유아가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얻게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교사가 어떻게 유아의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교사는 효율적으로 유아의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수효능감과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높이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션1 학교적응

학교적응 2

좌장: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1.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예측하는 학령초기 집행기능 곤란과 학교적응 간의 평행잠재성장모형 분석
연구진: 김희숙(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객원교수)
토론자: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생애초기 누적위험요인이 유아기 문제행동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진: 안재진(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세원(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이승해(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3.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적용한 1~4학년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
연구진: 허은하(인천대학교 대학원 유아·숲·자연교육 전공 박사과정)
김상림(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토론자: 김근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예측하는 학령초기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 간의 평행잠재성장모형 분석

김희숙⁷⁾

요약

본 연구는 평행과정 잠재성장모형을 토대로 유아 또래놀이행동과 초등 1~4학년집행기능 곤란 및 학교적응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 패널 연구의 5~11차 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의 성장궤적이 서로에게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세 가지 유아또래놀이행동 모두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의 성장추이를 예측하였고 특히 놀이단절과 놀이방해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연구결과 활용의 향후 방향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유아 또래놀이행동, 집행기능곤란, 학교적응, 평행과정 잠재성장모형 분석

1. 서론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또래와의 관계 경험은 아동의 성격과 행동 특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Rubin, Bukowski, & Parker, 2006). 또한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험을 통해 유아는 개인의 능력에 맞는 성취 동기를 지향하게 된다. 유아기 동안 또래와의 관계 경험은 이후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적응 정도에도 영향을 미쳐 이후 청소년기의 학교생활과 학업성취까지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Duncan, Dowsett, Claessens et al., 2007; Gutman, Sameroff, & Cole, 2003).

유아의 또래놀이가 초등학교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주목받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는 2014년부터 유아들의 활발한 놀이 중에서도 특히 신체활동을 하루 3시간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이효진, 2019, 재인용). 한국 교육부도 학교적응에 밀거름이 되도록「2019 개정누리과정」을 유아 놀이 중심의 3~5세 공통 교육과정으로 확장·개편하였고, 이를 통해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 속에서 자율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객원교수

유아기의 놀이는 유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자신과 주변세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수단이자(Van Hoorn, Nourot, Scales et al., 2003) 유아가 또래와의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놀이는 종종 아동이 사회적 협력 기술을 형성하고 다원적 관점을 조정할 수 있는 매개체의 기능을 한다(Piaget, 1962). 구체적으로, 유아는 자유놀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아동과 의견 및 태도의 충돌을 겪을 기회가 많아진다.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아동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이탈하고 자신의 사고세계와 다른 관점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된다.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유아기에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유아기에 이루어져야 할 핵심적인 발달 과업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적응의 지표가 된다(Guralnick, 1993; Cicchetti, 1990). 반대로 소속된 집단에서 암시하는 사회적 규칙을 협상하거나 또래 놀이 상황에서 상호작용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아동들은 또래로부터 거부 받게 된다(Coi, Dodge, & Kupersmidt, 1990). 이러한 또래 거부는 이후 발달에 정서적 불안정, 학교 중퇴, 비행 행동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Denham & Holt, 1993; DeRosier, Kupersmidt, & Patterson, 1994).

여러 놀이 연구에서 이런 놀이의 사회적 발달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놀이 연구들은 놀이의 사회적 기능에 접근하여 아동이 처해 있는 환경 맥락과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경험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한다(Cavell, 1990). 이것은 또래 간의 놀이를 효율적인 또래관계를 개발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Gallagher, 1993). Piaget와 다른 학자들은 아동의 또래 놀이가 아동이 사회적 유능감을 습득하는 데 있어 일차적인 맥락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Bronfenbrenner와 Ceci (1994)에 의하면 놀이는 촉진될 수 있는 동시에 구조화되지 않는 간접적인 교육 매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유아기의 발달에서 놀이는 통합된 기술을 습득하고 탐색하며 숙달하기 위한 선택적인 모델링이자, 행동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시도이며, 성장을 목표로 사회적 기술 발달을 위한 행동의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이상적인 생태학적인 맥락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또래와의 놀이라는 이상적인 생태학적 맥락에서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이후의 인지, 정서, 사회성을 발달시키고(Fisher, Hirsh-Pasek, Golinkoff et al., 2011), 더 나아가 이러한 전인적인 발달이 전 생애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아기의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이 내포하는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Fantuzzo, Sutton-Smith, Coolahan와 동료들은(1995) 유아가 또래와 놀이할 때 나타나는 행동 특성을 근거로 또래와의 놀이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는 놀이행동을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유아가 또래와 긍정적으로 놀이상호작용

을 잘 할수록 또래 집단에 쉽게 수용되었고(Fantuzzo et al., 1995) 보다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정서 조절을 잘 하고(Cohen & Mendez, 2009), 어린이집에서도 능동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박유영·홍지명, 2010)으로 밝혀졌다. 반면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놀이방해 행동을 빈번하게 할수록 또래를 괴롭히는 공격적인 행동을 더 빈번하게 하였다(Bulotsky-Shearer, Bell, Romero et al., 2012). 또한 유아가 놀이단절 행동을 자주 할수록 부끄러움을 많이 타며 놀이집단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적게 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Rubin, Bukowski, & Parker, 2006). 이러한 또래놀이상호작용의 양상은 유아기의 어린이집 적응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Ladd, Kochenderger, & Coleman, 1996). Coie와 Dodge (1998)에 의하면 유아기에 또래와의 단절된 상호작용은 유아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또래들로부터 인기가 없을 수 있고 거절 받을 확률을 높인다고 한다. 따라서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아동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놀이의 효과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기 놀이에서의 또래관계가 초등학교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Pellegrini, Kato, Blatchfor et al., 2002). 한 예로, Pellegrini와 동료들은(2002)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슬래잡기, 축구, 줄넘기 등 규칙이 있는 게임을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진학한 뒤 종일제 수업에 적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형태의 놀이가 유아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고 리더십을 향상시켜 학교적응에 보다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놀이 문헌(literature) 연구결과는 유아기의 놀이가 초등학교에서의 문헌성취도와 연계된 주요 요소(구두 언어, 음운 인식, 인쇄지식, 배경 지식)를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Byrne & Field-Barnsley, 1993). 또한 유아기의 가상 놀이(pretend play)는 이 시기에 유아들이 이루어야 할 결정적인 발달과업인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킨다. Bronson 과 Bundy(2001)는 자기 조절력은 충동 및 감정 조절, 사고와 행동의 자기지도, 계획, 자립,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포함하는 일련의 복잡한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가상 놀이에서의 사회적 경험은 아동의 학교환경에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과 마음이론을 발달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유아기의 놀이행동은 이후 집행기능의 기반이 되는 인지기능, 곧 언어 발달과 자기 조절력도 예측하고, 이는 다시 아동기의 집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Carlson & Wang, 2007; Berk & Meyers, 2013). 집행기능은 사고, 정서, 그리고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의식적인 고등 인지기능을 의미하며(Zelazo & Muller, 2002), 소속된 집단에 적합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아동이 주의를 기울여 정보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정보에 대한 반응은 억제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사고를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Zelazo, Muller, Frye et al., 2003). 또 유아가 놀이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놀이 중재는 집행기능의 기본이 되는 작업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이은희·김주홍·오명화, 2019). 가상놀이는 만 3~7세 아동의 상상능력을 촉진시켰고 상상능력이 뛰어난 아동은 자연실험에서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의도적 통제능력은 이후 수년 동안 지속되었다(Berk 외, 2013). 하지만 고하나(2009)의 연구에서는 놀이치료를 통해 자기조절력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능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유아기 놀이가 이후 집행기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영향이 지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아 또래놀이와 집행기능발달에 대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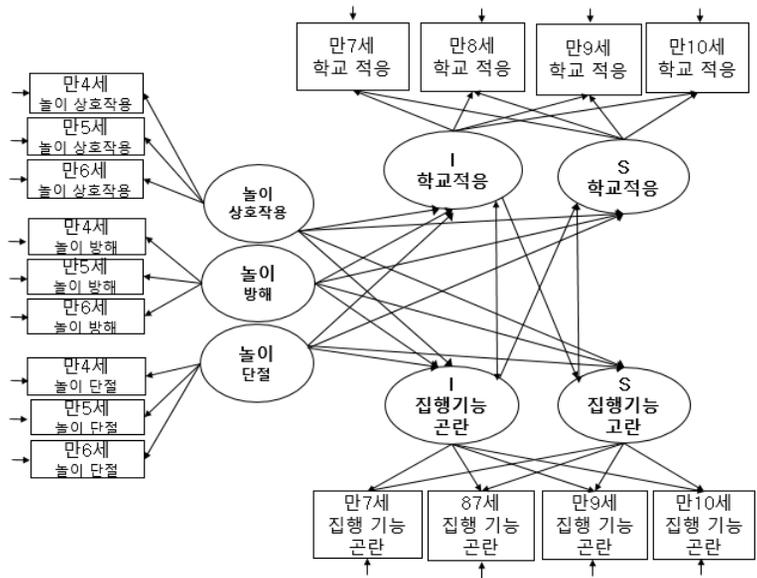
위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집행기능과 학교적응력의 발달 간 밀접한 관계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바 있다. 집행기능은 학령기에 진입하면서 학교라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며 자신이 수립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 타인과의 원만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송현주, 2011). 다시 말해 개념적으로 집행기능은 개념 이해, 복잡한, 추론, 추상적인 문제해결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인지 발달을 촉진하여 아동의 학업성취를 도울 뿐만 아니라 감정조절, 개인관의 협력, 공격성 통제를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성공리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다.

반대로 학교적응력 중 학업성취와 직결된 인지적 능력은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송찬원(2009)은 학습과정에서 주의집중 강화 전략, 언어 활성화 전략, 시공간 능력 자극 전략, 기억 활성화 전략을 통해 집행기능 발달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예로, 집행기능이 결여된 학습장애아들에게 정보의 반복 암기하기, 반복연습하기, 시연하기, 조작활동하기 등을 제시하고 주요활동을 수업에 도입할 시 이들에게 이러한 활동 도입 이전보다 작업기억력이 향상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했다(김윤옥, 2005). 또한 주의력결핍-과잉장애(ADHD) 아동에게 자기교시 훈련 혹은 문제해결 훈련과 같은 인지적 행동주의 기법을 사용하여 집행기능 문제가 완화될 수 있었다(이초용, 2011). 다른 효과성 연구에서는 주의집중력과 환경과의 원활한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계슈탈트 치료 프로그램을 ADHD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집행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알아차림 및 신체 접촉을 증가시켰다(고하나, 2009, 재인용). 따라서 학교적응능력의 기저가 되는 인지발달의 개입이 집행기능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적응능력과 집행기능 발달 간의 매우 밀접한 양방향적 변화과정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집행기능이 활발히 발달되는 3~5세 유아나 ADHD와 같은 지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하여도 대부분 일회기·횡단적 측정치를 사용하였기에 유아기 또래놀이행동, 아동초기의 학교적응과 집

행기능 발달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을 평행과정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변화궤적을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교적응과 집행기능곤란이 각각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변화의 추이를 추적토록 할 것이다. 또한 Fantuzzo와 동료들이(1995) 제시한 놀이행동 유형에 따라 유아기 내내 유아가 취해온 놀이행동 형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 4~6세까지의 또래와의 유아놀이행동을 놀이 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3가지 잠재요인으로 구분한다. 그 후, 각각의 또래 놀이행동 형태가 학령초기 기간에 해당하는 입학 후 4년 동안의 학교적응력과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즉, 2019년 개정누리과정에서 중시하는 유아 또래놀이 행동이 초등학교 아동의 집행기능(상위인지)와 학교적응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모형을 확인하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의 변화궤적의 추이는 각각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 변인간의 평행 잠재성장 모형의 성장궤적의 요인들은 어떠한가?
 - (1) 학교적응의 잠재성장궤적의 초기값과 집행기능곤란의 잠재성 장궤적의 기울기를 유의하게 설명하는가?
 - (2) 집행기능곤란의 잠재성장궤적의 초기값과 학교적응의 잠재성 장궤적의 기울기를 유의하게 설명하는가?
- 연구문제 3. 유아기 또래놀이 행동(놀이 상호작용, 방해, 단절)이 집행 기능 곤란과 학교적응의 잠재성 장궤적의 초기치와 기울기를 유의하게 예측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의 5차년~11차 년도 한국아동패널연구(PSKC)에서 수집된 2150명 아동의 종단 자료를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5차 년도 연구에서 만4세 유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의 총 7개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제5~11차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자료 분석에서 사용된 아동 수의 범위는 11차 년도에 총 1434명에서 5차 년도에 2150명이며, 연구에 참여한 남아가 730명(50.7%)~1091명(51.3%)이고 여아가 704명(49.1%)~1059명(49.3%)이었다. 매차 년도에 따라 아동의 평균 월령은 5차시 51.03개월($SD = 1.22$), 6차시 62.68($SD = 1.34$), 7차시 75.14($SD = 1.46$), 8차시 87.98($SD = 1.58$), 9차시 99.24($SD = 1.41$), 10차시 112.64($SD = 1.43$), 11차시 129.16($SD = 0.90$)이었다. 5~7차 년도에 유아들이 이용한 공공 육아지원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매 차시 설문에 참여한 유아들 2015명 중 74.41%에서 81.35% 공공기관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아동 성별 (%)	(남) 1091(50.7)	1091(50.7)	880(50.7)	817(51.1)	783(51.3)	757(51.0)	730(50.91)
	(여) 1059(49.3)	1059(49.3)	855(49.3)	781(48.9)	742(48.7)	727(49.0)	704(49.09)
아동의 평균월령(SD)	51.03 (1.22)	62.68 (1.34)	75.14 (1.46)	87.98 (1.58)	99.24 (1.41)	112.64 (1.43)	129.16 (.901)
범위	48-54	60-66	72-79	84-92	96-103	110-117	126-131
육아지원기관 이용 유형(%)							
미이용(개인대리 양육자 포함)	306(14.23)						
어린이집	1,340(62.32)	636(29.58)	498(23.16)				
유치원	29(1.35)	960(44.65)	1,091(50.74)				
반일제이상학원	21(1.00)	153(7.12)	11(0.51)				
기타	5(0.23)		20(0.93)				
결측	447(20.79)	496(23.07)	530(24.65)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제5~7차 년도의 유아기 또래 놀이행동 자료를 하위요소별로 구별하여 3년간의 유아의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행동 평균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세 개의 잠재변인으로 추정하였다. 이들 세 개의 잠재변인은 예측변인으로서 유아기 3

년 간 유아가 보여준 세 가지의 놀이행동 패턴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초기 실행기능 곤란과 학교적응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8~11차 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각 연도에 따른 총 평균점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1~4학년까지의 실행기능 곤란과 학교적응력의 변화추이와 두변인의 변화추이를 평행 잠재성장모형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또래 놀이행동에 대한 세 개의 잠재변인이 실행기능 곤란과 학교적응력의 평행 변화추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가.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Fantuzzo, Coolahan, Mendez와 동료들이(1998)이 개발하고,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타당화한 ‘아동 또래놀이 척도를(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 사용하였다. 패널 아동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담임교사가 웹설문지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항상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해당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지 않은 문항과 모호한 문항을 삭제하였다. 삭제된 문항은 “친구의 행동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한다,” “친구와 놀잇감을 나눈다,” “친구들이 놀이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생님에게 이른다,” “친구들에게 싸우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한다,” “놀자고 할 때 거절한다.” 이다. 본 연구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척도는 놀이상호작용 8문항, 놀이방해 8문항, 놀이단절 8문항으로 3개 하위요인과 총24문항으로 구성되어 활용되었다. 제 5, 6, 7차 년도 또래 놀이행동 점수는 각 하위요인 별로 평균점수가 산출되었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에서 상호작용 행동, 놀이방해 행동, 그리고 놀이단절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5~7차시 또래 놀이행동의 하위요소별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1~.90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초등학교 1~4학년의 집행기능곤란을 확인하기 위해 송현주(2014)의 집행기능곤란 척도를 활용한 한국아동패널 8차 년도(2015)에서 11차 년도(2018)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집행기능곤란 척도는 계획-조직화 곤란 11문항, 행동통제 곤란 11문항, 정서통제 곤란 8문항, 부주의 10문항으로 4개 요인과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패널 아동의 어머니가 지필식 설문지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였으며, ‘전혀 아니다(1점)’~‘자주 그렇다(3점)’의 3점 Likert척도로 자녀의 집행기능곤란에 대해 평정하였다. 문항은 계획-조직화 곤란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를 힘들어 한다.’, 행동통제 곤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서통제 곤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부주의 ‘잘 잊어버린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머니의 응답이 ‘모른다/무응답’의 경우 결측 처리하여 총 평

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총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집행기능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8~11차시 집행기능곤란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4~.95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아동의 학교적응력

초등학교 1~4학년의 학교적응력을 확인하기 위해 지성애와 정대현(2006)의 학교적응 척도를 활용한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11차년도(2016)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 척도는 학교생활적응 11문항, 학업수행적응 11문항, 또래적응 8문항, 교사적응 5문항으로 4개 요인과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또래적응 문항은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척도와의 중첩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적응 척도에서 제외되어 총 평균 점수가 산출되었다. 패널 아동이 소속된 학급 담임교사가 웹설문지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학교생활적응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학업수행적응 '과제를 잘해오며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또래적응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다.', 교사적응 '선생님과 언제든 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8~11차시 학교적응력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모두 .97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가. 자료분석 절차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각 측정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를 살펴본 뒤,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둘째,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력이 각각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 분석(LGM; Stenling, Ivarsson, & Lindwall, 2016)을 통하여 각 변인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셋째, 이들 변인의 종단적 발달과정에서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행과정 잠재성장분석(Parallel Process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PP LGM))을 통해 두 개의 잠재성장모형인 집행기능-학교적응 모델(집행기능곤란이 학교적응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과 학교적응-집행기능 모델(학교적응의 변화가 집행기능곤란에 영향을 미침)을 비교하여, 두 변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넷째, 예측변인인 또래 놀이행동의 세 개 하위요인들을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여 각 형태가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력의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위의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25.0과 Mplus 6.11이다.

나. 분석방법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은 종단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연구 변수를 반복 측정하여 그 변화를 시간 변수 또는 공변량의 함수로 표현하는 분석방법이다(김수영, 2016).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화를 검정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표집의 평균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초기치와 변화율로 이루어진 함수를 산출해 낸다(홍세희, 2000). 잠재성장모형에서는 각 성장요인(절편, 기울기)의 평균과 각 요인 간 경로계수를 추정하는 데, 절편은 주로 시작점에서 평균점수가 얼마였는지, 기울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적으로 각 점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차시 반복 측정한 집행기능 곤란과 학교적응력의 성장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변화 모형, 선형적 잠재성장모형(Laten Growth Linear Model),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Spline Laten Growth Curve Model)을 분석·비교하였다. Meredith와 Tisak(1984)는 정해진 성장궤적의 형태에 따라 요인부하 값을 고정하는 모형뿐만 아니라 자료의 형태에 따라 성장궤적을 자유롭게 추정하는 방식도 제안하였다(김수영, 석혜은, 2015, 재인용). 본 연구 모형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인 부하 값을 각각 0, 1, 2로 고정하여 기울기 성장요인의 단위를 설정하고 나머지 네 번째 요인 부하 값을 자료가 함축하고 있는 성장 궤적에 따라 추정하도록 하였다.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에서 기울기의 평균값은 연구자가 부여한 고정 값에 대한 변화량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 나가서 Stenling 외(2016)가 설명한 평행과정 잠재성장분석(Parallel Process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PP-LGMA)을 적용하여 본 연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 방법은 반복 측정된 두 변수의 시간이 경과에 따른 성장뿐만 아니라 두 변수 사이의 구조적인 관계를 추정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집행 기능 곤란과 학교적응력 간에 성장궤도가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기에 평행과정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여 두 변수의 성장궤도를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였다. 두 변수들의 성장궤도의 초기치들(절편) 간의 공분산/상관은 두 변수들의 초기 측정값들 간의 관계를 알려준다. 또한 이들의 기울기 값 간의 공분산/상관은 각 변수의 변화 속도가 다른 변수의 변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측정된 자료의 첫 차시로 구성하였기에 이 시점의 점수를 각 변수의 절편 값으로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측변인인 유아 또래 놀이행동변인을 하위요인인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로 구분하여 5~7차 년도 곧 만4~6세까지의 또래와의 놀이행동점수를 각 년도마다 합산하여 세 개의 잠재변인으로 추정하였고, 이들이 각각 집행기능 곤란과 학교적응력의 성장궤도를 예측하는 정도를 추정하였다. 즉 아동들의 유

아기 놀이상호작용행동, 놀이방해행동, 놀이단절행동이 초등학교 1~4학년의 집행기능 곤란과 학교적응력의 변화추이를 설명하는 절편과 기울기를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 유아기 때 나타냈던 특정 놀이행동유형이 이후 초등학교에서의 자기 주도적이고 적응적인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각 실행기능 곤란과 학교적응력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패널 자료의 결측 값은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 변인의 기초 통계 분석 결과

가. 기술 통계치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유아 또래 놀이상호작용 행동, 놀이방해 행동, 놀이단절 행동, 아동 초기의 실행기능 곤란과 학교적응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2와 같다. 유아 또래놀이 행동은 4점 척도로서 각각의 또래 놀이행동에서 만 4세와 만 6세 간의 전체 평균점수를 비교할 때 놀이 상호작용행동에서는 3.148($SD = 0.399$)에서 3.136($SD = 0.466$)으로, 놀이 방해 행동에서는 1.931 ($SD = 0.586$)에서 1.800($SD = 0.649$)로 미비한 감소를 보였지만 놀이 단절 행동에서는 1.560($SD = 0.449$)에서 1.645($SD = 0.585$)로 약간의 증가를 나타냈다. 아동 초기의 집행기능곤란은 3 점 척도로서 초등 1학년에 1.435($SD = 0.308$)에서, 초등 3학년에 1.475($SD = 0.367$)까지 점차적으로 약간의 증가가 있다가 초등 4학년에 1.436($SD = 0.323$)으로 감소를 보였다. 학교 적응력은 5점 척도로서 초등 1학년에 3.966($SD = 0.719$)에서 초등 4학년에 4.134($SD = 0.698$)로 작지만 점차적인 증가를 보였다.

위 세 개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모든 차시와 학년에서 부적, 정적 편포를 보였다. 모든 왜도 점수들은 -2와 +2사이에 위치하였기에 모든 변인의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첨도 점수는 2보다 낮았기에 본 연구의 자료는 표집자료로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잠재성장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변인_차시	년도(연령/학년)	총인원 (n)	(M)	(SD)	최소	최대	왜도	첨도
또래 놀이행동:								
상호작용	5차년도(4세)	2150	3.148	0.399	1.00	4.00	-0.791	1.801
	6차년도(5세)	2150	3.135	0.407	1.13	4.00	-0.680	1.382
	7차년도(6세)	1203	3.136	0.466	1.25	4.00	-0.712	1.169
방해	5차년도(4세)	1018	1.931	0.586	1.00	3.88	0.364	-0.573
	6차년도(5세)	1215	1.775	0.577	1.00	3.63	0.528	-0.545
	7차년도(6세)	1203	1.800	0.649	1.00	4.00	0.746	-0.037
단절	5차년도(4세)	1018	1.560	0.449	1.00	3.25	0.811	0.217
	6차년도(5세)	1215	1.572	0.467	1.00	3.13	0.778	-0.008
	7차년도(6세)	1203	1.645	0.585	1.00	4.00	1.119	1.141
집행기능곤란:								
	8차년도(초1)	1556	1.435	0.308	1.00	3.00	0.848	0.756
	9차년도(초2)	1465	1.468	0.314	1.00	2.83	0.763	0.387
	10차년도(초3)	1394	1.475	0.367	1.00	2.98	0.941	0.916
	11차년도(초4)	1401	1.436	0.323	1.00	2.90	0.918	0.609
학교적응력:								
	8차년도(초1)	1031	3.966	0.719	1.44	5.00	-0.710	0.068
	9차년도(초2)	930	3.987	0.707	1.30	5.00	-0.699	-0.012
	10차년도(초3)	633	4.103	0.699	1.56	5.00	-0.946	0.610
	11차년도(초4)	709	4.134	0.698	1.26	5.00	-1.152	1.443

* 본 표에서는 작은 점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각 점수를 소수점 3자리까지 제시하였음.

나. 변인 간 상관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유아기 또래 놀이행동의 하위 요인 상호작용 행동, 놀이방해 행동, 놀이단절 행동과 아동 초기의 집행기능 곤란 그리고 학교적응력의 상관 분석 결과는 표3과 같다. 유아기에 측정된 또래 놀이상호작용행동은 놀이방해 행동 및 놀이단절 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또 놀이방해와 놀이단절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만4~6세의 놀이상호작용 행동은 초등 1~4학년까지의 집행기능곤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놀이 방해와 단절 행동은 동일한 시기에 집행기능곤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단, 만6세의 놀이단절 행동이 초등 3년의 집행기능곤란과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만4~6세의 놀이 상호작용 행동은 초등 1~4학년의 학교적응

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놀이 방해 및 단절 행동은 동일한 시기에 학교적응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초등 1~4학년의 실행기능 곤란과 학교적응력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3〉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놀이행동:																	
상호작용																	
1. 4세	1																
2. 5세	.33***	1															
3. 6세	.22***	.32***	1														
방해																	
4. 4세	-.33***	-.16***	-.16***	1													
5. 5세	-.17***	-.37***	-.23***	.48***	1												
6. 6세	-.14***	-.16***	-.29***	.44***	.45***	1											
단절																	
7. 4세	-.53***	-.21***	-.21***	.38***	.15***	.12***	1										
8. 5세	-.23***	-.52***	-.22***	.11***	.40***	.12***	.23***	1									
9. 6세	-.13***	-.24***	-.41***	.11***	.14***	.55***	.23***	.26***	1								
집행기능곤란:																	
10. 초1	-.13***	-.12***	-.16***	.15***	.19***	.15***	.13***	.08**	.10**	1							
11. 초2	-.14***	-.11***	-.15***	.20***	.20***	.19***	.15***	.07***	.09**	.70***	1						
12. 초3	-.14***	-.08***	-.14***	.13***	.17***	.13***	.14***	.09**	.06***	.70***	.74***	1					
13. 초4	-.16***	-.12***	-.16***	.16***	.19***	.14***	.17***	.13***	.10**	.62***	.68***	.75***	1				
학교적응력:																	
14. 초1	.22***	.24***	.28***	-.23***	-.29***	-.24***	-.17***	-.16***	-.21***	-.26***	-.23***	-.23***	-.24***	1			
15. 초2	.24***	.25***	.25***	-.26***	-.32***	-.24***	-.16***	-.23***	-.18***	-.29***	-.30***	-.27***	-.27***	.46***	1		
16. 초3	.20**	.14***	.21***	-.20***	-.24***	-.22***	-.18***	-.14***	-.22***	-.19***	-.22***	-.26***	-.24***	.35***	.42***	1	
17. 초4	.25***	.17***	.19***	-.17***	-.20***	-.20***	-.12***	-.16***	-.15***	-.20***	-.23***	-.25***	-.27***	.31***	.48***	.32***	1

P < .05* P < .01** P < .001***

다. 선형 성장모형과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 분석 결과

우선 초등 1~4학년까지, 4년간의 집행기능 곤란과 학교적응력의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 점수와 학교적응력 점수에 대한 변화함수를 추정하였다. 이에 초기치만 포함한 무변화 모형(Unconditional Model)과 초기치와 변화율을 잠재변인으로 모형화한 잠재선형 성장모형(Laten Growth Linear Model)을 가정하고, 두 모형을 분석·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4년간의 집행기능 곤란 평균치를 살펴보면, 초등 1~3학년까지는 1.435~1.475로 약소하게 증가하다가 초등 4학년에서는 1.436으로 아주 미비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본 연구의 자료에는 무변화 모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Spline Latent Growth Curve Model)을 추가 검증하였다. 잠재 선형성장모형과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표4와 같다.

〈표 4〉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df)$	<i>P</i>	RMSEA (90% 신뢰구간)	SRMR	CFI	TLI
선형 성장모형:						
집행기능곤란	98.839(5)	.000	.106 (.088~.125)	.0400	.972	.967
학교적응력	16.338(5)	.006	.041 (.020~.064)	.073	.976	.971
요인부하추정 성장 모형:						
집행기능곤란	24.214(4)	.000	0.055 (.04~.08)	.045	.994	.991
학교적응력	16.332(4)	.003	.048 (.025~.074)	.074	.974	.960

선형 성장모형과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8~11년 차시의 집행기능곤란 변인의 경우, $\chi^2(df = 1)$ 값의 변화량이 74.63으로써 유의도 .05일 때의 임계치 3.84 보다 큰 수치를 나타냈고, 요인부하추정 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 .99, TLI .99, RMSEA .06으로써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하지만 학교적응력 변인의 경우, $\chi^2(df = 1)$ 값의 변화량이 0.006으로써 유의도 .05일 때의 임계치 3.84 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냈고,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 .97, TLI .97, RMSEA .04으로써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최종 모형을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으로, 또 학교적응력에 대한 최종 모형을 선형 성장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모형으로 선택된 집행기능곤란변인의 요인부하추정 성장모형과 학교적응력변인의 선형변화모형에 관한 초기치, 변화율 평균과 초기치, 변화율 분산, 초기치와 변화율

의 공분산 추정값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요인부하추정 성장모형에 의해 추정된 초기치의 평균치는 1.443으로 초등 1학년 실제 평균치인 1.43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초기치 요인의 추정된 분산은 0.063으로 실제 초등 1학년의 분산인 0.093보다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초기치의 개인 간 변동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추정된 모수가 실제 값과 차이를 나타낸 것은 추정된 초기치 요인의 평균과 분산이 요인부하추정 성장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모집단의 초기 상태와 개인 간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형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오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율 평균은 0.019로써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즉 추정된 평균 초기치 1.443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0.019점씩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요인부하추정 성장모형에서 이러한 변화율 평균은 초등 1~3학년까지로 연구자가 고정 값을 부과한 시점까지만 선행모형에 따른 해석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모형에 의해 부과된 초등 4학년의 기울기 혹은 변화율에 대한 평균 추정치는 -0.564로써 부적인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집행기능곤란 변화율 평균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모형의 변화율 요인의 분산은 -0.003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개인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초기치 요인과 기울기 요인 간 공분산은 -0.006으로써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초등 1학년에 아동이 경험하는 집행기능곤란이 높을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초등 3학년까지 그 집행기능곤란의 정도가 증가하지만 그 변화폭은 낮음을 의미한다. 이후 초등 4학년에는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율이 감소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표 5〉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력에 대한 변화 추정치

변인	평균	분산	초기치-변화율의 공분산
집행기능곤란:			
초기치	1.443 ^{***}	0.063 ^{***}	-0.006 ^{***}
기울기	0.019 ^{***}	-0.003 ^{***}	
학교적응력:			
초기치	3.946 ^{***}	0.248 ^{***}	-0.021 ⁺
기울기	0.061 ^{***}	0.012 ⁺	

P < .1+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선형 잠재성장모형에 의해 추정된 학교적응력의 초기치의 평균값은 3.946으로 초등 1학년의 실제 평균치인 3.966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초기치 요인의 추정된 분산은 -0.012로 실제 초등 1학년 학교적응력의 분산인 0.518보다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초기 값의 개인 간 평균값에 작은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제 값과 추정된 모수의 차이는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선형 잠재모형에 의해 발생하는 모집단의 초기 상태와 개인 간 변동성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학교적응력에서 변화율의 평균은 0.061로써 유의한 값을 보였다. 즉 추정된 평균 초기치 3.946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0.061점씩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변화율 요인의 분산은 0.012이며, 통계적으로 약하게($p = .053$) 유의하였다. 즉 개인 간에 차이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치 요인과 기율기 요인간의 공분산은 -0.021 로써 부적의 관계를 가졌고 작은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라.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유아 또래놀이행동이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력으로 구성된 평행과정 잠재성장모형에 미치는 중단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행과정 잠재성장모형(PP-LGM)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초등 1~4학년의 집행기능 곤란의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과 학교적응력의 선형 잠재성장모형을 함께 평행과정으로 분석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두 변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두 변인 사이의 구조적인 관계를 추정하였다. PP-LGM 분석 결과 모형적합도는 $\chi^2(df) = 40.234(21)$, $p = 0.007$, CFI = 0.995, TLI = 0.994, SRMR = 0.053, 그리고 RMSEA = 0.023 이고, RMSEA의 90%의 신뢰구간은 (0.012, 0.034)로 나타나서, PP-LGM 모형은 본 연구 자료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더나가 최종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세 가지 유형의 또래놀이 행동(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이 각각의 두변인의 성장궤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 행동 별로 5~7차 년도의 자료를 취합하여 좀 더 안정적인 하위 놀이행동 잠재변인(예측변인)을 형성하였고 이들이 평행과정 잠재성장모형에서 두 변인의 성장궤도의 초기치와 기율기 요인(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형적합도는 $\chi^2(df) = 121.181(95)$, $p = 0.0363$, CFI = 0.996, TLI = 0.995, SRMR = 0.029, 그리고 RMSEA = 0.012 이고, RMSEA의 90%의 신뢰구간은 (0.003, 0.019)로 나타났다. 본 모형의 적합도 χ^2 값이 다소 높을지라도 다른 높은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때 최종 구조방정식 모형은 본 연구 자료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Kelloway, 2015). 본 연구의 최종 구조방정식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평행과정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결과 중 유의한 추정치만을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선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력의 성장 잠재변인 요인들(초기치와 변화율)의 추정치는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유아기 또래 놀이행동의 하위 잠재변인인 놀이상호작용(0.010), 놀이방해(0.041), 놀이단절(0.143)은 모두 유의한 분산 값이 산출되어 각 잠재변인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표 6〉 평행과정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 결과

추정치/경로	B	S.E.	β
놀이 상호작용 행동			
만 4세 놀이상호작용	1.000	0.000	0.254***
만 5세 놀이상호작용	5.473	3.552	1.362
만 6세 놀이상호작용	1.623***	0.375	0.354***
놀이 방해 행동			
만 4세 방해	1.000	0.000	0.449***
만 5세 방해	1.156***	0.150	0.498***
만 6세 방해	1.388***	0.175	0.479***
또래놀이 단절 행동			
만 4세 단절	1.000	0.000	0.651***
만 5세 단절	1.060***	0.078	0.695***
만 6세 단절	1.103***	0.079	0.641***
집행기능곤란의 초기치(I1)		0.032	0.186***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율(S1)		0.076	0.126 ⁺
학교적응력의 초기치(I2)		0.080	0.807***
학교적응력의 변화율(S2)		0.103	0.216 ⁺
집행기능곤란의 초기치 ↔ 학교적응력의 초기치	-0.019**	0.005	-0.285**
집행기능곤란의 초기치 → 학교적응력의 변화율	-0.083 ⁺	0.037	-0.214 ⁺
학교적응력 초기치 →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율	-0.101 ⁺	0.031	-0.757**
놀이방해 → 집행기능곤란의 초기치	0.235 ⁺	0.110	0.183 ⁺
놀이단절 → 집행기능곤란의 초기치	0.168***	0.041	0.245***
놀이상호작용 → 학교적응력의 초기치	2.740 ⁺	1.154	0.563**
놀이방해 → 학교적응력의 초기치	-0.618 ⁺	0.312	-0.252 ⁺
놀이단절 → 학교적응력의 초기치	-0.321 ⁺	0.143	-0.246 ⁺
놀이단절 → 학교적응력의 변화율	0.085 ⁺	0.041	0.321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적응력 초기치가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율에 부적 영향력($B = -0.101$, $p < .05$)을 그리고 집행기능곤란의 초기치가 학교적응력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력($B = -0.083$,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학년 때 학교적응력이 높았던 아동이 초등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집행기능곤란의 변화폭이 감소하였음을 그리고 1학년 때 집행기능곤란이 높았던 아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교적응력의 변화폭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초등 1학년 때에 유아 또래 놀이 상호작용행동, 방해행동, 단절행동은 아동기 집행

기능곤란과 학교적응력의 잠재성장모형의 초기치,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기의 또래 놀이방해 행동($B = 0.235, p < .05$)과 놀이단절 행동($B = 0.168, p < .001$)은 초등 저학년 집행기능곤란의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는 유아기에 아동이 놀이방해와 단절행동을 많이 하였을수록 초등 1학년 때 아동이 집행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떤 놀이행동도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기 때의 또래 놀이상호작용 행동은 초등 저학년 시기에 학교적응력의 초기치에 정적으로 영향력을($B = 2.740, p < .05$), 그리고 각각 놀이방해($B = -0.618, p < .05$)와 놀이단절 행동은($B = -0.321, p < .05$) 학교적응력의 초기치에 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기에 아동이 또래와 상호작용 놀이를 많이 할수록 초등 1학년의 학교적응력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아동이 또래와의 놀이에서 방해 혹은 단절 놀이행동을 많이 할수록 초등 1학년의 학교적응력이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유아기의 놀이단절행동($B = 0.085, p < .05$)이 초등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력의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유아기 때 또래와 단절놀이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동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교적응의 변화폭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초등 1~4학년까지, 4년간의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력의 변화정도, 즉 성장궤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은 집행기능곤란 변인의 경우 요인부하추정 성장모형이었고, 학교적응력 변인의 경우, 선형 성장모형이었다. 초등 저학년 기간 동안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점수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으며 1~3학년 까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4학년 때는 약간의 감소를 보였다. 그리고 이와 평행되게 학교적응력 점수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1~4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따라 초등 저학년기간에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집행기능에 어려움이 적은 반면에 학교적응은 잘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의 자료는 평행과정 잠재성장모형에 적합했기에 유아기의 또래놀이행동의 하위 잠재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한 최종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다.

평행과정 잠재성장모형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 1학년 아동이 집행기능에 곤란을 많이 보일수록 초등 1학년의 학교적응이 감소했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교적응 변화폭도 감소하였다. 반대로 1학년 때의 학교적응력이 높을수록 1~4학년까지의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의 폭이 감소했다.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관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기에 놀이방해와 단절행동을 많이 할수록 초등 1학년 때의 집행기능곤란이 높았을 뿐 아니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교적응의 변화 폭도 증가하였다. 또한 놀이 상호작

용 행동을 많이 할수록 초등 1학년의 학교적응이 높았다. 유아기의 또래놀이행동의 형태에 따라 초등 저학년의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을 달리 예측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 동안 반복 측정된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의 변화궤적을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두 변화궤적이 각각 어떻게 변화했는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한 평행과정 잠재성장모형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후 만4세부터 만6세까지 3년 동안 반복 측정된 유아또래놀이행동 자료에서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잠재변인을 예측변인으로 재구성하여 이들이 두 종속변인의 변화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모델로 검증하였다.

초등 1~4학년 동안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의 발달 추이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1~4학년까지 대체로 그 평균점수를 유지하였다. 평균점수는 1~3학년까지 미비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이후 4학년 때 약간의 감소를 보임으로써, 이러한 결과는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설문에 응답한 만 4세 유아의 부모 81.62%는 본인의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의 공공 육아지원기관에 보냈다고 답했다. 이는 유아가 공공 육아지원기관에서 가상놀이, 퍼즐과 분류활동, 요리활동, 스토리텔링, 은율 활동 등과 같은 주요 흥미영역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유아기에 가장 신속히 발달하는 집행기능 기술의 하나인 자기조절을 개발할 수 있었다(Dias, Trevisan, León et al., 2017)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초등 1학년의 집행기능곤란이 낮은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전전두피질의 느린 성장으로 인해 아동이 집행기능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등 1~3학년까지 점차 집행기능곤란을 나타낸다. 이후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 말기인 초등 4학년에 들어 확고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가역성의 원리를 터득해서 보전개념을 획득하고 여러 형태의 조작에 의해 과학적인 사고와 문제해결이 가능한 인지 발달 특성을 보유하게 되며 더 높은 수준의 구현 언어능력으로 인해 집행기능곤란이 미비하게 낮아졌다고 설명가능하다(Piaget, 1962). 이러한 감소 추세가 이후에도 지속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4학년 이후의 집행기능곤란 점수를 분석에 추가하여 집행기능곤란의 성장궤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 1~4학년 동안 아동의 학교적응력 평균점수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적응능력 점수는 매 학년마다 점차 증가하는 선형성장모형을 나타냈다. 김귀옥(2020)은 1~3학년 동안 아동들의 학교적응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질 놀이로 인한 즐거움, 지적 욕구충족 및 지적 성장에 대한 기대, 친구

및 교사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 꿈에 다가가는 기쁨, 지적 성장에 대한 기대는 초등학교생들의 높은 학교적응능력과 낮은 집행기능곤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설명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생들이 학교 혹은 학급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는 학교환경 또는 체제에 대한 적응을 의미하며, 이는 과제 성공 및 과제 참여에 대한 기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Pekrun, Elliot, & Maier, 2009).

반면 1~4학년의 학교적응 증가 현상을 분석한 본 연구 결과와 4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학교생활 적응이 점차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이정민·강수정·이강이 외, 2015). 이러한 불일치는 두 연구의 평정자 집단이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아동의 학교적응을 평정하여 실제로 다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이정민과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4학년부터 자기보고식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학업 및 교우관계에 대한 부담이나 사춘기의 시작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본인의 학교생활 적응을 실제 적응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유아기의 또래놀이행동의 하위 잠재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한 최종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은 성장궤적에서 초기치 간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유아 중심 교육과 교사 중심 교육의 비율이 균형적인 유아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교과 중심의 획일적 수업과 교사 중심 교육을 중시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지성애·정대현, 2006), 이들은 학습수행에 대한 부담감, 낮은 교실에 대한 불안, 공격적 또래와의 만남에 대한 걱정, 학교 규칙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최은정, 2012). Zelazo와 Muller(2002)는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정서 조절을 어렵게 하여 정서적 집행기능의 어려움을 높인다고 밝혔다.

아동이 1학년 때 집행기능의 곤란을 많이 경험할수록 학년의 진학에 따른 학교적응의 변화 폭이 감소하였다. 1학년부터 집행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는 억제능력에도 어려움이 있다. 집행기능의 하위 요인 중 억제 능력은 영·유아기부터 전 생애 동안 안정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Putnam & Stifter, 2002). 초등 1학년 시기의 집행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지속적으로 집행기능의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으로 성장하면서 학교 적응력이 향상되는 변화도 적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여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행동 범위와 특성을 고착되게 하고, 그 결과로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학교적응력의 변화 폭을 낮출 수 있다.

더 나아가서 1학년 때 학교적응력이 높을수록 1~4학년까지 집행기능곤란의 변화 폭이 감소했다. 학교적응력과 집행기능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 발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력은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교사적응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가 경험하는 계획-조직화, 행동통제, 정서통제, 부주의에서의 어려움인 집행기능곤란

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Sasser, Bierman, Heinrichs와 동료들(2016)은 성장곡선모형을 사용하여 만4세부터 초등 3학년까지의 집행기능 기술, 학교적응 능력(학업수행 능력과 학교에서의 사회정서 적응)과 교실 내에서의 학습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아의 집행기능은 이후의 수학능력, 학업수행기능 및 사회적 유능성을 유의하게 예측했고, 유아의 학습행동은 집행기능과 이후의 읽기, 쓰기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하였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실행기능과 학교적응은 유아기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Sass와 동료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학교적응 중에서도 학업수행능력만 양방향으로 집행기능과 연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수행능력에 해당하는 읽기, 쓰기, 연산 능력은 학교적응의 요인이면서도 집행기능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년 진학에 따라 학업성취 위주의 교육과정이 더욱 부각되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때 학교적응력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 이미 상위인지적 기능인 집행기능이 높을 수 있고, 이후 집행기능 발달의 변화 폭이 적을 수 있다.

위에 언급한대로 발달 연령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기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유아기의 경험이 중요하다. 특히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유아가 어떤 놀이행동을 했는지는 유아의 집행기능의 정도를 보여주고, 이후의 학교적응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유아기에 또래와의 놀이에서 방해와 단절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초등 1학년 때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유아기에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자신의 충동적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기 힘든 유아는 놀이방해 행동을 하게 되고(Hughes & Ensor, 2008),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어 놀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유아는 놀이단절 행동을 하게 된다(Rubin et al., 2006). 이러한 유아들은 공격적인 성향과 자기통제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나 또래로부터 소외되는 경험을 내면화하여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또래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행기능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유아기에 놀이단절 행동을 많이 할수록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년의 증가에 따라 학교적응의 변화 폭이 증가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들로부터 놀이상황에서 또래와 매우 단절된 것으로 평가받는 아이는 학습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수동적이라고 보고했다. 이전 연구자들은 위축된 아이들은 교실에서 눈에 띄지 않는 아이(Rubin et al., 1995), 또래에게 인기 없는 아이(Fantuzzo et al, 1998)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고학년이 되어서는 높은 학업 동기부여수준을 유지하며 매우 자율적이고 순응적인 아이들이라는 교사의 평가를 받는다. 교사들은 이들을 다른 학생보다 더 좋아한다고 보고했다(Coolahan, Fantuzzo, Mendez et al., 2000). 이러한 아동은 자발적으로 또래와 놀이단절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조작놀이나 구성놀이를 하는 아동이거나

또래들과 놀고 싶지만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거나 수줍음이 많은 아동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발적 단독놀이를 하는 아동이 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주의집중력과 학업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Brock, Rimm-Aufman, Nathanson et al., 2009).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놀이 단절행동을 많이 보이는 아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세분화된 특성에 따라 학교 적응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기에 아동이 또래와 상호작용 놀이를 많이 할수록 초등 1학년의 학교적응이 높았다. 육아지원기관에서는 유아들이 자유롭게 생산적이고 활발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놀이 활동은 유아가 성공적인 놀이 상호작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협동심을 키우고, 학습에 대한 높은 수준의 역량, 동기부여, 주의력, 기억력, 지속성 및 긍정적인 태도 등 집행기능의 주요 요인들을 형성하도록 한다(Coolahan et al., 2000). 따라서 반복되는 유아기의 놀이상호작용 행동은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촉진시키고 이후 아동이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유아들의 자율적 놀이를 권장하고 이들이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는 초등 저학년 아동들의 필수 요소인 사회인지적 역량과 사회정서적 유능감을 발달시키고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4년간의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연계되는 효율적인 집행기능과 학교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아의 놀이방해와 놀이단절 행동이 초등학교 1학년의 집행기능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의 정도가 놀이상호작용이 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보다 더 크다는 점과 놀이행동 중 놀이단절 행동만이 1~4학년의 집행기능과 학교적응의 변화율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도 밝혀졌다. 따라서 유아기 놀이가 공공 육아지원기관에서 중시되는 현 시점에 놀이단절 행동의 긍정적인 면모와 이것이 초등학교 첫 4년의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력을 파악하여 유아의 또래놀이 행동 경향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오직 또래와의 상호작용적인 놀이만이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유능한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것이 아니라, 혼자놀이와 평행놀이와 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혼자만의 놀이시간도 자기조절력과 주의력 등을 강화시키는 효율적인 기회가 되어 미래 초등학교 생활에 더 큰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 1~4학년생들의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의 성장궤적이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1학년 때의 학교적응력이 초등학교 첫 4년간의 집행기능곤란의 변화 폭을 예측하는 동시에 1학년 때의 집행기능곤란이 첫 4년간의 학교적응력의 변화 폭을 예측하였다. 이는 발달 특성이며 신경학적 요소에 해당하

집행기능(Putnam et al., 2002)이 사회적, 학습적 행동 특성으로 간주되는 학교적응을 설명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Brock et al, 2009)와 일치하면서도 초등학교 초기의 학교적응이 이후의 집행기능을 설명하기에 초등학교로의 준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놀이행동척도의 하위요인 중 단절행동에 포함된 문항들은 이미 부정적인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Coolahan과 동료들(2000)의 연구에서 유아기에 놀이단절행동을 보였던 아동들이 이후 높은 학교적응을 나타냈다는 결과를 보면 또래관계에서의 놀이단절행동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후 관련 연구에서는 놀이단절 행동측정 시 해당 문항들이 중립적인 입장으로 서술되고 놀이에서 단절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특징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원 또래놀이행동척도는 하위문항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원 도구의 제작자의 의도와 본 연구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후 관련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모형분석을 사용하여 변인 중심의 분석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세 개의 놀이행동이 어떻게 부합되었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의 집행기능과 학교적응의 성장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아동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집행기능곤란의 성장궤적이 잠재선형모형이 아닌 요인부하 추정성장모형으로 나타났다. 즉, 4학년 시기를 새로운 변화궤적의 시작 시기라고 본다면 차후 학년의 자료를 포함하여 재분석해 봄으로써 좀 더 명확한 집행기능곤란 성장궤적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집행기능곤란 혹은 집행기능과 학교적응력의 변화궤적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교차지연패널모형분석(Cross-lagged Panel Model Analysis)을 실시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변인들 간의 안정성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발견한 초등 1~3학년까지의 집행기능곤란의 미비한 증가를 초래한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Lillard, Drell, Richey와 동료들(2015)은 10-20분간의 TV시청이 유아의 집행기능에 곤란을 초래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아동이 활용하는 스마트폰 혹은 TV와 같은 미디어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이귀옥, 2020) 이들이 집행기능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계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세 가지 또래놀이행동을 잠재 변인으로 구성하여 이들 각각이 초등학교 저학년 기간에 필수적인 집행기능과 학교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또한 초등학교의 집행기능과 학교적응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아 이들의 변화하는 추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차후 진행될 연구에 기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수영(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수영·석혜은(2015). 잠재성장모형의 사용을 위한 표본크기 결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599-617.
- 김윤옥(2005). 정보기억전략 교수가 초등학교 학습부진/학습장애 학생의 사회과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7(2), 167-185.
- 고하나(2009).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이 ADHD 성향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찬원(2009). 학습장애와 ADHD아동 및 일반아의 집행기능 특성.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0(4), 565-590.
- 송현주(2011).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과 학교 적응. 한국심리치료학회, 3(2), 31-39.
- 송현주(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 33(1), 121-137.
- 이귀옥(2020).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 궤적과 학교적응 궤적간의 인과적 중단관계 분석. 열린부모교육회, 12(1), 105-124.
- 이은희·김주홍·오명화(2019). 발달지연 유아의 놀이성과 집행기능의 관계. 대한신경치료학회, 23(3), 53-60.
- 이정민·강수정·이강이·이순형(2015). 부모의 양육방식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4), 91-110.
- 이초용(2011). 인지행동적 게임놀이치료가 ADHD성향 유아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효진(2019).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터에서 만5세 남녀 유아의 놀이행동과 신체활동수준 및 유아의 기본운동기술 간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 지성애·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최은정(2012) 초등학교 전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만 5세 유아의 정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혜영·신혜영(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 (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

- 학회지, 29(3). 303-318.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19(1), 161-177.
- Berk, L.E., & Meyers, A.B. (2013). The role of make-believe play in the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 status of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American Journal of Play*, 6(1), 98-110.
- Brock, L.L., Rimm-Aufman, S.E., Nathanson, L., & Grimm, K.(2009). The contribution of 'hot'and 'cool' executive function to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related behaviors, and engagement in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4(3), 337-349.
- Bronfenbrenner, U., & Ceci, S.J. (1994). Nature-nuture reconceptualized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A bioecological model. *Psychological Review*, 101(4), 568-586.
- Bronson, M.R., & Bundy, A.C. (2001). A correlational study of a test of playfulness and a test of environmental supportiveness for play. *The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Research*, 21(4), 241-259.
- Bulotsky-Shearer, R.J., Bell, E.R., Romero, S.L., & Carter, T.M. (2012). Preschool interactive peer play mediates problem behavior and learning for low-income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53-65.
- Byrne, B., & Field-Barnsley, R. (1993). Evaluation of a program to teach phonemic awareness to young children: A 1-year follow-up.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1), 104-111.
- Carlson, S.M., & Wang, T.S. (2007). Inhibitory control and emotion regulation in preschool children. *Cognitive Development*, 22(4), 489-510.
- Cavell, T. A. (1990). Social adjustment, social performance, and social skills: A tri-component model of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2), 111-122.
- Cicchetti, D. (1990).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discipline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J. E.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 2-2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hen, J.S., & Mendez, J.L. (2009). Emotion regulation, language ability, and the stability of preschool children's peer play behavior.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0(6), 1016-1037.
- Coie, J.D., & Dodge, K.A. (1998). Multiple sources of data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A cross-age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9(3), 815-829.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Asher, S. R. & Coie, J. D.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olahan, K., Fantuzzo, J., Mendez, J., & McDermott, P. (2000). Preschool peer interactions and readiness to learn: Relationships between classroom peer play and learning behaviors and conduc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3), 458-465.
- Denham, S.A., & Holt, R.W. (1993). Preschoolers' likability as cause or consequence of their 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271-275.
- DeRosier, M.E., Kupersmidt, J.B., & Patterson, C.J. (1994). Children's academic and behavioral adjustment as a function of the chronicity and proximity of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5*(6), 1799-1813.
- Duncan, G. J., Dowsett, C. J., Claessens, A., Magnuson, K., Huston, A. C., Klebanov, P., Pagani, L. S., Feinstein, L., Engel, M., Brooks-Gunn, J., Sexton, H., Duckworth, K., & Japel, C. (2007).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428-1446.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411-431.
- Fantuzzo, J., Sutton-Smith, B., Coolahan, K. C., Manz, P.H., Canning, S., & Debnam, D. (1995). Assessment of preschool play interaction behaviors in young low-income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1), 105-120.
- Fisher, K., Hirsh-Pasek, K., Golinkoff, R.M., Singer, D.G., & Berk, L. (2011). Playing around in school: Implications for learning and educational policy. In A.D. Pellegrini (Ed.), *Oxford library of psychology. The Oxford handbook of the development of play* (pp.341-360). Oxford University Press.
- Gallagher, W. (1993). *The power of place: How our surroundings shapes our thoughts, emotions, and actions*. Poseidon Press.
- Guralnick, M. J. (1993).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th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of children's peer relation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3*(3), 344-371.
- Gutman, L. M., Sameroff, A. J., & Cole, R. (2003). Academic growth curve trajectories from 1st grade to 12th grade: Effects of multiple social risk

- factors and preschool child fact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9(4), 777-790.
- Hughes, C., & Ensor, R. (2008). Does executive function matter for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1-14.
- Kelloway, E.K.(2015). *Using Mplu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researcher's guide*. Sage.
- Ladd, G.W., Kochenderfer, B.J., & Coleman, C.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illard, A.S., Drell, M.B., Richey, E.M., Boguszewski, K., & Smith, E.D. (2015). Further examination of the immediate impact of television o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51(6), 792-805.
- Meredith, W., & Tisak, J. (1984). Statistical considerations in Tuckerizing curves with emphasis on growth curves and cohort sequential analysis. *Annual Meeting of the Psychometric Society*.
- Pekrun, R., Elliot, A.J., & Maier, M.A. (2009). Achievement goals and achievement emotions: Testing a model of their joint relations with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1), 115-135.
- Pellegrini, A.K., Kato, K., Blatchford, P., & Baines, E. (2002).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s playground games across the first year of school: implications for social competence and adjustment to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9(4), 991-1015.
- Piaget, J. (1962). The stages of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the child.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26(3), 120-128.
- Putnam, S.P., & Stifter, C.A. (2002). Development of approach and inhibition in the first year: parallel findings from motor behavior, temperament ratings and directional cardiac response. *Developmental Science*, 5(4), 441-451.
- Rubin, K. H., Bukowski, W. M., & Parker, J. G.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Damon, W., Lerner, R. M., & Eisenberg, 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N.J.: John Wiley & Sons.
- Rubin, K. H., Coplan, R. J., Fox, N. A., & Calkins, S. D. (1995).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preschoolers' social adapt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1), 49-62.
- Sasser, T.R., Bierman, K.L., Heinrichs, B., & Nix, R.L. (2017). Preschool intervention can promote sustained growth in the executive-function skills of children exhibiting early deficits. *Psychological Science*, 28(12), 1719-1730.

- Stenling, A., Ivarsson, A., & Lindwall, M. (2016). Cross-lagg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latent growth modeling, *Sport Health and Physical activity*, 1, 131-154.
- Van Hoorn, J., Nourot, P.M., Scales, B., & Alward, K.R. (1999). Play at the center of the curriculum. *New Jersey: Upper Saddle River* .
- Zelazo, P.K., & Muller, U. (2002). The balance beam in the balance: reflections on rules, relational complexity, and developmental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1(4), 458-465.
- Zelazo, P.D., Muller, U., Frye, D., Marcovitch, S., Argitis, G., Boseovski, J., Chiang, J.K., Hongwanishkul, K., Schuster, B.V., Sutherland, A., & Carlson, S.M. (2003). The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 in early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5(3).

- 교신저자: 김희숙.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hesooknancy@gmail.com

Abstract

A Parallel LGM Analysis betwee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School Adjustment at School-age Predicted by Peer Play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He Sook Nancy Kim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the difficulties of executive function(EF) and school adaptation at school age over time. I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peer play behaviors, EF difficulty, and school adjustment in the application of SEM. For young children's peer play behaviors, we created three latent variables: Interaction, disturbance, and disconnection play behaviors. We analyzed the data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from the fifth to the eleventh waves to test the fit of the Parallel Process Latent Growth Model to the data, using SPSS 25.0 and Mplus 6.12.

The total subjects ranged from 2,150 to 1,434 in 7 waves. We found that: (1) the adaptation to school yearly increased over four years from wave 8 to wave 11. However, the difficulty in EF yearly increased over three years from wave 8 to wave 10 and decreased in the wave 11. Both trajectories were proven to be suitable for the Parallel Process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2) each of the two trajectories bi-directionally affected the other's trajectory. The higher the EF difficulty in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was, the lower the starting point and the lower the change rate in the trajectory of school adaption were. On the contrary, the higher the school adaptation in the first grade was, the lower the change rate in the trajectory of EF difficulty; (3) play behavior with peers in early childhood significantly predicted the change trends of both dependent variables. The higher the play behaviors of disturbance and disconnection in early childhood was, the higher the starting point of EF

difficulty in the first grade, and the higher the change rate in the trajectory of school adaptation were. The higher the play behaviors of interactions with peers in the first grade was, the higher the school adaptation of the first-grader in elementary school was.

In conclusion, helping children to play well with peers in early childhood is an effective way to enhance their EF as well as school adjustment. Children playing with peers in a way to disturb or disconnect the play seems to have greater negative impact on the EF and school adjustment than their interactive playing has positive impact on them.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find ways to encourage them to harmoniously utilize their disturbing and disconnected play behaviors along with interactive play behaviors. By doing so, their EF and school adaptation would be improved in a bidirectional manner, subsequently, challenging each other for betterment in elementary school years.

- Key word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hool adaptation, peer play behaviors, a Parallel Process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예측하는 학령초기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 간의 평행잠재성장모형 분석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본 연구는 초등 1~4학년 사이에서 아동의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력의 개인별 변화가 어떠한지 알아보고,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력의 개인별 변화 간의 관계 및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력의 개인별 변화에 대한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아기의 세 가지 또래놀이행동이 초등학교 저학년 기간에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유아기의 교육적 처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문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교육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반적으로 본다면, 연구 필요성, 연구방법,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 몇 가지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 제목이 비문이라고 오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아기 또래놀이행동과 학령초기 집행기능곤란, 학교적응의 개인별 변화 간의 관계’ 또는 ‘학령초기 집행기능곤란, 학교적응의 개인별 변화에 대한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의 효과’ 등으로 수정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 상관이 있고,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고 인과적인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컨대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적응과 고등학교에서의 부모지지는 상관성이 있으면서 시간적인 순서가 있지만, 이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적응이 부모지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강한 이론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모지지가 학교적응의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 등으로 정의된 유아기에서의 또래놀이행동이 행동통제 곤란 등으로 정의된 초등학교에서의 집행기능곤란의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정한 가설은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 집행기능곤란의 연구대상은 초1(1596명)에서 초3(1394명)까지 202명 줄어들다가 초4(1401명)에서 다시 7명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적응력의 연구대상도 초1(1031명)에서 초3(633명)까지 398명 줄어들다가 초4(709)에서 다시 76명 증가하였습니다.

-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력의 연구대상 수 차이가 매우 심해 보입니다. 논문에 제시된 결과 중에서, 집행기능곤란의 변화궤적과 학교적응력의 변화궤적 결과는 위 연구대상으로 각각 분석한 것이고, 다변인성장모형 분석 결과는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에 공통적으로 답한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렇게 하셨다면, 개인별 변화궤적 결과를 토대로 다변인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신 것으로 구성하신 논문의 흐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집행기능곤란, 학교적응력 중 한 변수에 대해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피험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개인별 변화궤적 분석과 다변인성장모형을 차례대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종단자료에서 중도탈락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중도탈락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없는지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탈락은 문제성향이 많은 쪽에서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기능곤란의 평균이 초1에서 초3까지 미미하게 상승하다가 초4에서는 다소 크게 감소한 것, 그리고 학교적응력의 평균이 초2에서 초3 사이(중도탈락이 매우 높은 구간)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 등의 결과가 결측값이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은 아닌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집행기능곤란의 평균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초1에서 초3까지는 중도탈락자가 많아서 오히려 미미하지만 상승하였고, 중도탈락이 거의 없는 초3에서 초4 사이에는 그 평균이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 ‘패널 자료의 결측 값은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였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연구자께서 결측값에 대해 고심을 많이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 집행기능곤란과 학교적응력의 변화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변화 모형, 선형적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Linear Model),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Spline Latent Growth Curve Model)을 분석·비교하였고, 그 결과 집행기능곤란은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을, 학교적응력은 선형적 잠재성장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신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 분석을 위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인 부하 값을 각각 0, 1, 2로 고정하여 기울기 성장요인의 단위를 설정하고 나머지 네 번째 요

인 부하 값을 자료가 함축하고 있는 성장궤적에 따라 추정'하셨고, 그 근거로 '4년 간의 집행기능곤란 평균치를 살펴보면, 초등 1~3학년까지는 1.435~1.475로 약소하게 증가하다가 초등 4학년에서는 1.436으로 아주 미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들고 계십니다. 같은 논리라면 학교적응력의 평균은 초2에서 초3 사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네 번째 요인 부하 값을 각각 0, 3으로 고정하여 기울기 성장요인의 단위를 설정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요인 부하 값을 자료가 함축하고 있는 성장궤적에 따라 추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학교적응력에서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이 아니라 선형적 잠재성장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것이 추정하도록 한 요인 부하 값을 잘못 선정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닌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 18쪽에서 제시된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율 평균은 0.019로써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즉 추정된 평균 초기치 1.443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0.019점씩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요인부하추정 성장모형에서 이러한 변화율 평균은 초등 1~3학년까지로 연구자가 고정 값을 부하한 시점까지만 선행모형에 따른 해석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모형에 의해 부하된 초등 4학년의 기울기 혹은 변화율에 대한 평균 추정치는 -0.564로써 부적인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집행기능곤란 변화율 평균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에서 -.564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더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집행기능곤란의 평균값은 초1에서 1.435이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초4에서 1.436으로 감소합니다. 그렇지만 초1에 비해 초4의 평균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행기능곤란 변화율 평균이 감소했다'는 해석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독자들을 위해서 집행기능곤란의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에서 추정한 네 번째 요인 부하 값이 얼마인지 제시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적응력 초기치가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율에 부적 영향력($B=-0.101,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학년 때 학교적응력이 높았던 아동이 초등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집행기능곤란의 변화폭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 분석에서 집행기능곤란의 기울기는 선형성잠모형에서의 기울기와는 달라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 분석에서 집행기능곤란의 기울기가 .019라는 것은 초기값이 1.443이므로 초1에서 1.443, 초2에서 $1.443+1 \times 0.019$, 초3에서 $1.443+2 \times 0.019$ 로써 매년 .009만큼 증가하다가 초4에서는 $1.443+(\text{집행기능곤란의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에서 추정한 네 번째 요인 부하 값}) \times 0.019$ 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적응력 초기치가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율에 부적 영향력($B=-0.101, p < .05$)을 가진다는 것은 학교적응력

초기치가 높은 학생일수록 집행기능곤란의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것인데, 이 말은 학교적응력 초기값이 높은 학생일수록 1.443 , $1.443+1\times k$, $1.443+2\times k$, $1.443+(집행기능곤란의\ 요인부하\ 추정\ 성장모형에서\ 추정한\ 네\ 번째\ 요인\ 부하\ 값)\times k$ 라는 개인별 변화에서 k 값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적응력 초기치가 높은 학생일수록 집행기능곤란은 초3까지는 더 작게 증가하다가 초3과 초4 사이에서는 더 작게 감소한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 <표 6>에서 집행기능곤란의 초기치(I1)~학교적응력의 변화율(S2)은 비표준화값이 더 중요하지 않은지요? SE와 표준화값만 제공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 18쪽에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율 요인의 결과로 ‘전체 모형의 변화율 요인의 분산은 -0.003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개인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분산이 음수인 것은 헤이우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옳은 해석에 해당하는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헤이우드 케이스는 흔히 아주 작은 특정 값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추정하게 됩니다. 기울기 분산을 특정 값으로 고정하게 되면, ‘초기치 요인과 기울기 요인 간 공분산은 -0.006 으로써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초등 1학년에 아동이 경험하는 집행기능곤란이 높을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초등 3학년까지 그 집행기능곤란의 정도가 증가하지만 그 변화폭은 낮음을 의미한다. 이후 초등 4학년에는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율이 감소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 부분도 수정 또는 삭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분량을 조금 줄이는 것은 어떨까요?
- ‘실행기능’, ‘실행기능곤란’, ‘실행기능 곤란’은 ‘집행기능곤란’으로 용어를 통일하시고, ‘학교적응’과 ‘학교적응력’도 통일해서 제시하셨으면 합니다.
 - ‘Laten’는 ‘Latent’로 일괄 수정해 주십시오.
 - ‘학교적응력에 대한 최종 모형을 선행 성장모형’은 ‘학교적응력에 대한 선형성장모형’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 좋은 논문 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

생애초기 누적위험요인이 유아기 문제행동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안재진⁸⁾ 김세원⁹⁾

요약

본 연구는 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생애초기 다양한 위험요인에의 노출경험이 이후 유아기의 문제행동을 통해 아동기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중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아기 누적위험요인의 수는 유아기 문제행동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이 영아기에 경험한 누적위험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유아기에 높은 문제행동 수준의 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누적위험요인의 영향력은 영아기 육아지원기관 이용집단에 비해 미이용집단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아기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이 가정 내에서 영아가 경험하는 누적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일부 완화시켜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유아기의 문제행동 수준에 따른 아동기 학교적응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5차년도에 조사한 유아기의 문제행동과 11차년도에 조사한 아동기 학교적응 간의 시간 차이로 인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개입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누적위험요인에 노출된 영아들을 조기발견하여 개입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이 제시되었다.

▮ 주제어: 누적위험요인, 유아기 문제행동, 아동기 학교적응, 생애초기 경험

1. 서론

위험요인이란 부정적인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적 또는 환경적 요인을 일컫는다(Kraemer, Lowe, & Kupfer, 2005). 생애 초기의 위험요인은 이후 아동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러한 위험요인에 노출된 아동은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동을 둘러싼 위험요인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 누적된 형태로 여러 위험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아동의 삶에 존재할 가능성 또한 크다.

8)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9)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아정신과 의사인 Rutter는 단일한 신체적 또는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을 경험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지속적인 피해를 겪지 않는 반면, 다중의 위험요인들을 동시에 경험하는 아동들은 심리적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관찰에 기반하여 다중위험요인의 개념을 소개했다(Rutter 1979, 1981). 이러한 다중 위험요인들에 노출된 아동들은 단일 위험요인에 노출된 아동들에 비해 더 나쁜 발달적 결과를 보이게 되며, 위험요인의 수가 많을수록 발달결과는 더 부정적이다(Evans, Li, & Whipple, 2013).

특히 생애 초기는 아동이 매우 취약한 시기이자 급격한 신경학적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로, 미래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성장의 시기이다(Cooper et al., 2009; Shonkoff, 2010). 그러므로 영유아기 역경의 경험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아동의 뇌에 신경학적 손상을 가져오고, 이것은 아동의 일생에 걸쳐 행동, 인지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oper et al., 2009; Phillips & Shonkoff, 2000).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생애초기 아동이 경험하는 위험요인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시도해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별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Edwards et al., 2003). 단일한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또한 지속적인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단일 위험요인만을 살펴본 연구들은 다른 위험요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개별 위험요인이 다른 위험요인들과 상관관계가 높다면, 이들 연구에서 개별요인의 영향력은 과대추정될 우려가 있다. 또한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인(인종, 사회계층 등)의 영향력은 부분적으로 다중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을 초래하여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발견할 수 있다(Felner, Brand, Dubois, Adan, Mulhall, & Evans, 1995; Evans & English, 2002). 이에 개별위험요인의 영향요인을 제각각 밝히기보다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에 대한 노출 여부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영유아기 다중의 역경(Multiple Adverse Experience)을 경험한 아동들의 발달결과에 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Liming과 Grube의 연구(2018)에 따르면, 어린 시절 다중의 위험요인을 경험한 것은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행동 및 인지발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동이 경험한 위험요인의 수와 부정적 발달결과 간에 용량-반응(dose-response) 관계를 보여준다.

영유아기(0-5세)에 다중위험요인을 경험한 아동들은 높은 수준의 외현화 및 내현화 문제행동을 보였으며(Freeman, 2014; Jimenez et al., 2016; Grasso et al., 2016; Kerker et al., 2015),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신체적 건강수준을 보고했고(Flaherty et al., 2006), 만성질환이 있는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또래집단에 비해 더 많은 위험요

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Kerker et al., 2015). 한편,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Jimenez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기에 경험한 위협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이 평균 이하의 언어 및 문해기술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용량-반응 효과는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Kerker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다중위험요인의 노출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과도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유아기의 이러한 행동문제와 사회, 정서적 발달 지연은 아동기의 낮은 학업수행과 연관되어 미래의 취업기회를 감소시킨다(Bisko et al., 2016). 따라서 생애초기 다양한 위험요인의 노출은 아동의 전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 생애 초기 누적위험요인의 종단적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으나, 장영은과 권윤정(2014)이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의 누적위험요인이 영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 있다. 이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생애초기 누적위험요인이 영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과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1-3차년도 자료만을 분석에 포함하여, 누적위험요인이 유아기, 아동기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1-3차년도 자료 및 5차년도와 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그동안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생애초기 누적위험요인의 유아기, 아동기에 이르는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영아기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이 아동이 영아기에 노출된 누적위험요인의 효과를 완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 생애 초기에 경험한 누적위험요인이 이후 유아기의 문제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유아기의 문제행동 수준에 따라 아동기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 3) 영아기 누적위험요인의 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영아기 육아지원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아동기 학교적응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때 유아기 문제행동 유형은 영아기 누적위험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들 변인 간 관계는 영아기 육아지원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1-11차년도 자료 가운데, 영아기 누적위험요인 및 육아지원기관 이용 여부는 1-3차년도, 유아기 문제행동 유형은 5차년도, 아동기 학교적응은 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조사에서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한 아동 1,694명이 최종 연구대상자이며, 5차년도 조사 당시 응답 아동의 연령은 5세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가. 유아기 문제행동

유아기 문제행동은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조사자료 가운데, 만 18개월부터 만 5세까지 유아들의 행동문제를 평가하는 척도인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1.5-5, 오경자·김영아, 2009)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표준화된 검사지 중 ‘행동평가척도’ 부분만을 이용하였으며, 총 100문항으로 8개의 하위 척도(증후군 척도 7개, 기타 척도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화증상, 위축,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및 기타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문항은 아동의 보호자가 지필식 설문지 기입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 정도에 대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하위유형별 문항 내용과 측정 문항의 수는 <표 1>과 같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로 응답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의 합산 점수를 토대로 문제행동 수준을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의 문제가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한국아동패널, 2016).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에서 제공한 8개 하위 척도의 T 점수를 이용하여 유아기 문제행동을 유형화하였다.

<표 1> 유아기 문제행동 하위 척도별 내용 및 문항 수

구분	문항 내용	문항 수	점수 범위
정서적 반응성	낮선 상황에 대한 불안,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저항, 짜증, 걱정 등 정서적 안정성과 관련된 문항	9	0~18
불안/우울	날카롭게 곤두선 기분, 긴장, 스스로의 행동이나 감정 표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며 불안해하고 전반적으로 슬퍼 보이는 등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문항	8	0~16
신체증상	분명한 의학적 원인 없이 나타나는 배변곤란, 설사, 두통, 메스꺼움, 배앓이, 구토와 같은 신체적 불편감,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등의 불분명한 예민함과 관련된 문항	11	0~22
위축	연령대에 기대되는 것보다 위축되고 어린 행동, 애정 표현이나 주변의 즐거운 놀이에 대한 무관심과 관련된 문항	8	0~16

주의집중 문제	안절부절하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과잉행동, 운동신경이 둔한 것 등과 관련된 문항	5	0~10
공격행동	타인에 대한 신체적인 공격과 기물 파괴 등의 행동적인 측면과 자신의 요구를 이기적으로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쉽게 좌절하고 반항적이 되거나 분노발작을 하는 등의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문항	19	0~38
수면문제	혼자 자러하지 않고 연속적인 수면을 이루지 못하며 악몽, 잠꼬대 등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과 관련된 문항	7	0~14
기타문제	다른 요인들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의미한 수준의 빈도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으로 새로운 것을 겁낸다든가, 끊임없이 도움을 요구하기, 애어른처럼 행동하기, 샘내기, 이유없이 잘 다침, 과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문항	33	0~66

출처 : 유아행동평가척도. 한국아동패널(2016).

나. 영아기 누적위험요인

누적위험요인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정도를 이분변수로 구분하여 합산하는 총합 변수(composite metric)를 만들어 활용하는 부가적 모형(additive model) 방식이다(Evans, Li, & Whipple, 2013).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부가적 모형을 활용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이분척도(1, 0), 점수기준점 있는 경우 점수기준 적용(1, 0), 점수기준 없는 연속변수의 경우, 사분위수(25%)에 1, 나머지 0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누적위험요인 변수를 생성하였다.

영아기 누적위험요인은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아동이 1-3세일 때 어머니의 교육 수준, 어머니의 우울, 가구크기, 가계소득 수준, 생활스트레스,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로 측정하였으며, 이들 문항은 모두 아동의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첫째, 어머니 교육 수준은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우울은 Kessler 우울 척도(K6)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30일 동안의 우울감을 총 6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6점에서 30점이며, 합산점수가 6점~13점은 정상수준, 14점~18점은 경도/중등도 우울, 19점~30점은 중도 우울 수준을 나타낸다(한국아동패널, 2014).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경도 이상인 경우 1, 정상 수준은 0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가구 크기는 가족구성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그 외는 0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가계소득 수준은 월평균 가구 소득이 전체 응답가구의 하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외는 0으로 구분하였다. 다섯째, 생활스트레스는 지난 1년간 가족이 경험해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가족생활사건을 규범적 사건 17개 문항과 비규범적 사건 12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문항별로 사건을 경험했을 경우 1로 코딩하여 전체 문항 합산 점수를 계산하였다. 총점이 전체 응답가구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외는 0으로 구분하였다. 여섯째, 부부갈등은 어머니가 인식한 부부 간 갈등수준을

의미한다. 총 8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가 지각하는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점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외는 0으로 구분하였다. 일곱째,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며, 정서적 지지 2개 문항, 도구적 지지 3개 문항, 도구적 지지 3개 문항, 정보적 지지 3개 문항, 사회적 지지 4개 문항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개별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응답 가구 가운데 사회적 지지 총점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외는 0으로 코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자료별로 위와 같은 위험요인을 계산하여 모두 총합하여 영아기 누적위험요인을 계산하였다. 단 어머니의 학력 수준은 고정된 요인으로 간주하여 1차년도 자료에서만 누적위험요인 계산 시 합산하였으며, 2차와 3차년도 자료에서는 어머니의 학력 수준을 제외한 총 6개 요인별 점수를 계산하였다.

다. 영아기 육아지원 기관 이용 여부

영아기 육아지원기관 이용여부는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3차년도 기간 중 1개년도 이상 어린이집, 어린이집 및 대리양육, 반일제 이상 학원, 선교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영아기 육아지원 기관 이용 1, 그 외는 0으로 구분하였다.

라. 아동기 학교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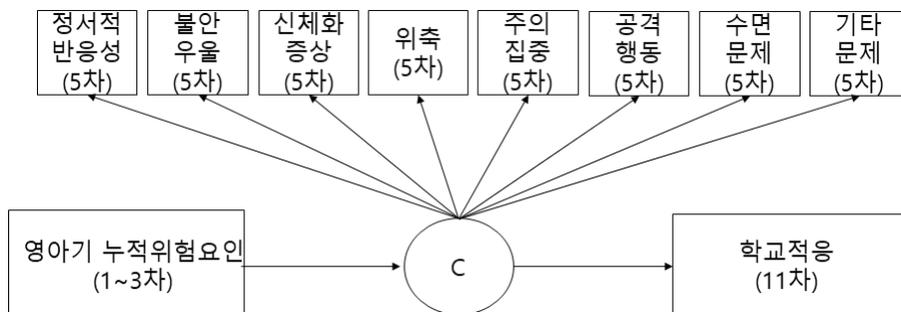
아동기 학교적응은 한국아동패널 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 당시 아동은 4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아동이 소속한 학급 담임교사가 아동의 학교 적응을 묻는 문항에 응답을 하였다. 학교적응은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지성애, 정대현, 2006)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5개 문항으로, 학교생활적응 11개 문항, 학업수행적응 11개 문항, 또래적응 8개 문항, 교사적응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를 계산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화증상, 위축,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및 기타문제 T점수에 따라 문제행동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잠재계층분석의 일종으로 전체 집단 내에 알려지지 않은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료를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Lo-Mendell-Rubin (LMR) test 값, 엔트로피 값 등을 이용할 수 있다. AIC와 BIC는 값이 작을수록 해당 하위집단 수가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LMRT 값이 유의할 경우 k개의 모형이 k-1개의 모형보다 자료에 더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김세원 외, 2019). 엔트로피 값은 절대적인 기준값은 없으나 1.0에 가까울수록 집단 수의 결정이 잘 된 것을 의미한다. 엔트로피 값은 잠재계층 수가 늘어날수록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 모형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므로(Collins & Lanza, 2010; 김세원 외, 2019에서 재인용) 이는 참고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 변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로 영아기 누적위험 요인과 종속변수로 아동기 학교적응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잠재계층의 정의와 다른 변수들 사이의 관계분석을 통한 타당화가 가능하다(홍세희, 2019).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분석할 시 잠재계층 분석 이후 개인을 특정 하위집단으로 분류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들 집단을 관찰변수로 취급하여 결과변수를 예측하거나 다른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실제 분류된 집단이 잠재계층이라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김세원 외, 201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Vermunt(2010)가 제안한 3단계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없이 기본 혼합모형(Mixture Model)을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각 개인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잠재계층을 추정하며, 3단계에서는 분류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홍세희, 2019). 이 연구에서는 3단계를 각각 시행하는 Manual 3단계 방법을 이용하여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과 영아기 누적위험요인 및 아동기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이와 같은 분석과정을 5차년도 응답 아동 전체 집단, 영아기 육아지원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미이용 집단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과정으로 분석 후 결과를 설명하였다. Manual 3단계 분석은 Mplus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유아기 문제행동에 응답한 아동의 수는 총 1,694명이었고, 이 가운데 남아가 51.1%, 여아가 48.9%였다. 아동의 부모의 학력 수준은 어머니의 경우 고졸 이하가 30.3%, 전문대졸 이상이 69.7%였고, 아버지는 고졸 이하가 28.2%, 전문대졸 이상이 71.8%였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1.30(표준편차=3.67),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3.82(표준편차=3.97)이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월평균 가구소득은 318.06만원(표준편차=146.75)이었고, 평균 가구원 수는 3.88명(표준편차=0.94)이었다. 영아기 육아지원 기간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이 43.4%, 이용 경험이 없는 아동은 56.6%로 이용 경험이 없는 아동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영아기 누적위험요인의 수가 0인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8.7%였고, 1~3개는 32.1%, 4~6개는 31.2%, 7~9개는 16.3%, 10개 이상은 11.7%였다.

5차년도에 응답한 유아기 문제행동의 정도는 정서적 반응성 평균 53.54(표준편차=5.32), 불안/우울 평균은 53.98(표준편차=5.60), 신체증상 평균은 53.75(표준편차=5.60), 위축 평균은 53.94(표준편차=5.61), 주의집중 문제 평균은 53.17(표준편차=4.71), 공격행동 평균은 53.63(표준편차=5.49), 수면문제 평균은 53.05(표준편차=5.29), 기타문제 평균은 53.58(표준편차=5.42)이었다. 11차년도 아동기 학교적응 평균은 16.46(표준편차=5.60)이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694)

구분	빈도/평균	퍼센트/표준편차
아동 성별	남자	865 / 51.1
	여자	829 / 48.9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496 / 30.3
	전문대졸 이상	1,142 / 69.7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445 / 28.2
	대졸 이상	1,135 / 71.8
영아기 육아지원 기관 이용(1~3차)	이용 안 함	958 / 56.6
	이용함	736 / 43.4

	0개	148	8.7
	1~3개	543	32.1
누적위험요인 수(1~3차)	4~6개	528	31.2
	7~9개	276	16.3
	10개 이상	199	11.7
어머니 연령		31.30	3.67
아버지 연령		33.82	3.97
월평균 가구소득(1차)		318.06	146.75
가구원 수(1차)		3.88	0.94
유아기 문제행동(5차)	정서적 반응성	53.54	5.32
	불안/우울	53.98	5.60
	신체증상	53.75	5.67
	위축	53.94	5.61
	주의집중문제	53.17	4.71
	공격행동	53.63	5.49
	수면문제	53.05	5.29
	기타문제	53.58	5.42
아동기 학교적응(11차)		16.46	2.69

2. 유아기 문제행동 유형화와 변수 간 관계

가. 전체 아동 대상 유아기 문제행동 유형화와 변수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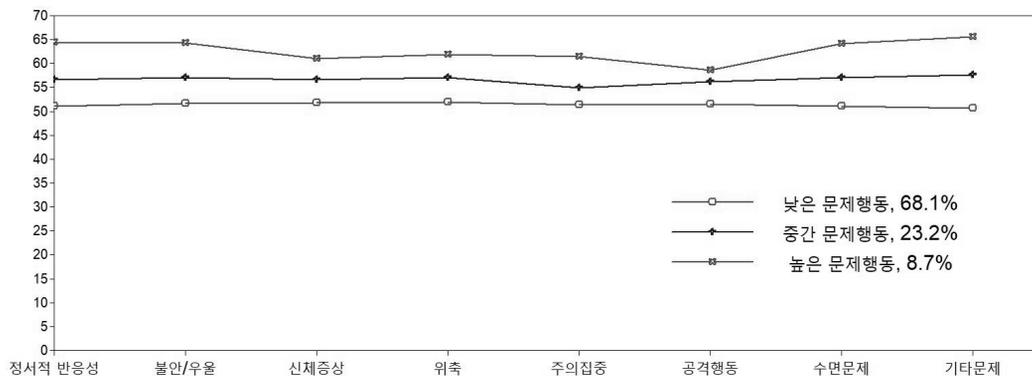
유아기의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화증상, 위축,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 수면 문제 및 기타문제 T점수를 이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을 하나씩 증가시킬 때마다 AIC와 BIC값은 점점 감소하나 LMR 값은 4개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아기 문제행동은 3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개 집단 모형에서 엔트로피 값은 0.93으로 1에 가깝게 나타나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전체 아동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 분석결과

집단의 수	AIC	BIC	LMR	엔트로피
1	84107.130	84194.088	-	1.000
2	79071.438	79207.309	4979.279**	0.943
3	77732.838	77917.622	1336.625**	0.929
4	77220.734	77454.432	522.298	0.931

*p<.05, **p<.01

3개 집단으로 유형화된 유아기 문제행동 집단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모든 하위 행동문제에 대한 점수가 3개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전체 아동의 68.1%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이 집단은 '낮은 문제행동'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모든 하위 행동문제에 대한 점수가 3개 집단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으며, 전체 아동의 23.2%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이 집단은 '중간 문제행동'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집단은 모든 하위 행동문제에 대한 점수가 3개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고, 특히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수면문제와 기타 문제 점수가 높았다. 전체 아동 가운데 8.7%가 이 집단에 속하여 집단의 크기는 가장 작았다. 이 집단은 '높은 문제행동'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그림 2] 전체 아동 유아기 문제행동 유형화

다음으로는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 변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로 영아기 누적위험 요인과 종속변수로 아동기 학교적응을 투입하였다. 이때 분류오류를 고려하기 위해 로짓으로 제약을 하게 된다(홍세희, 2019). 먼저 영아기 누적위험요인이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성별과 영아기 육아지원 기관 이용 여부를 통제된 상태에서 누적위험요인이 많을수록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비해 보통 문제행동 집단과 높은 문제행동 집단에 속할 승산이 증가하였다. 특히 누적위험요인은 높은 문제행동 집단에 속할 승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비해 높은 문제행동 집단에 속할 승산은 남자 아동이 더 높았고, 육아지원 기관 이용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4〉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과 영아기 누적위험요인(기준집단=낮은 문제행동 집단) (N=1,694)

구분	중간 문제행동 집단 (23.2%)		높은 문제행동 집단 (8.7%)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성별(남=1)	0.235	0.131	0.378*	0.187
누적위험요인	0.098**	0.019	0.136**	0.025
육아지원기관(이용=1)	0.076	0.132	-0.112	0.187
상수항	-1.720**	0.145	-2.913**	0.217

* $p < .05$, ** $p < .01$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별로 아동기 학교적응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기 낮은 문제행동 집단의 아동기 학교적응 평균은 16.567, 중간 문제행동 집단의 아동기 학교적응 평균은 16.159, 높은 문제행동 집단의 아동기 학교적응 평균은 16.443이었다. 그러나 이들 문제행동 잠재계층별로 아동기 학교적응 평균은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별 아동기 학교적응

		계수	표준오차	Wald test
낮은 문제행동	평균	16.567**	0.126	2.196
	분산	7.201**	0.533	
중간 문제행동	평균	16.159**	0.236	
	분산	7.201**	0.533	
높은 문제행동	평균	16.443**	0.381	
	분산	7.201**	0.533	

* $p < .05$, ** $p < .01$

나. 육아지원 기관 이용 아동 유아기 문제행동 유형화와 변수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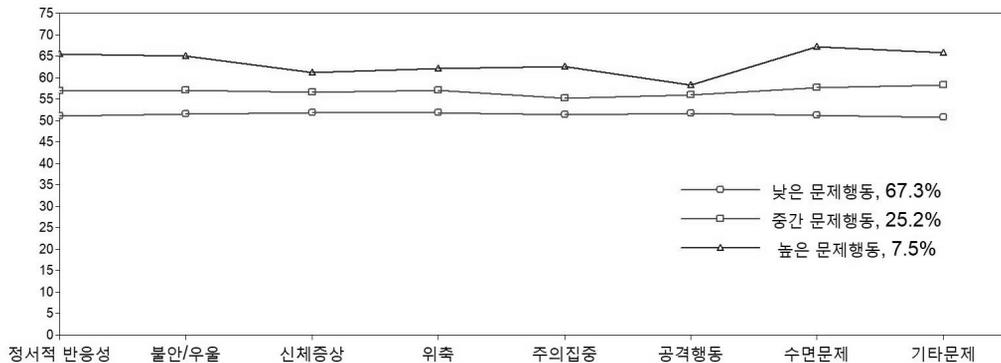
다음에서는 전체 연구대상 중 영아기에 육아지원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기 문제행동을 유형화하였다. 전체 아동 1,694명 중 영아기 육아지원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은 736명(43.4%)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유아기의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화증상, 위축,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및 기타문제 T점수를 이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을 하나씩 증가시킬 때마다 AIC와 BIC값은 점점 감소하나 LMR 값은 4개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아기에 육아지원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의 유아기 문제행동은 3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개 집단 모형에서 엔트로피 값은 0.94로 1에 가까웠다.

〈표 6〉 육아지원 기관 이용 아동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 분석결과

집단의 수	AIC	BIC	LMR	엔트로피
1	36694.914	36768.534	-	1.000
2	34554.541	34669.572	2122.645**	0.941
3	33891.589	34048.031	669.680*	0.938
4	33651.599	33849.452	253.719	0.945

*p<.05, **p<.01

3개 집단으로 유형화된 유아기 문제행동 집단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모든 하위 행동문제에 대한 점수가 3개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전체 아동의 67.3%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이 집단은 ‘낮은 문제행동’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모든 하위 행동문제에 대한 점수가 3개 집단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으며, 전체 아동의 25.2%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이 집단은 ‘중간 문제행동’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집단은 모든 하위 행동문제에 대한 점수가 3개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체 아동 가운데 7.5%가 이 집단에 속하여 집단의 크기는 가장 작았다. 이 집단은 ‘높은 문제행동’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영아기 육아지원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의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했으며, 다만 중간 문제행동 집단이 전체 아동 대상(23.2%)에 비해 약간 더 많고, 높은 문제행동 집단이 전체 아동 대상(8.7%)에 비해 약간 더 적었다.



[그림 3] 육아지원기관 이용 아동 유아기 문제행동 유형화

다음으로는 영아기 육아지원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의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 변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로 영아기 누적위험요인과 종속변수로 아동기 학교적응을 투입하였다. 아동의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누적위험요인이 많을수록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비해 높은 문제행동 집단에 속할 승산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남아의 경우 낮은 문제행

동 집단에 비해 높은 문제행동 집단에 속할 승산이 더 높았다. 그러나 중간 문제행동에 포함될 승산에는 성별과 누적위험요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7〉 기관 이용 아동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과 영아기 누적위험요인(기준집단=낮은 문제행동 집단)

구분	중간 문제행동 집단 (25.2%)		높은 문제행동 집단 (7.5%)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성별(남=1)	0.350	0.186	0.645*	0.313
누적위험요인	0.046	0.026	0.179**	0.040
상수항	-1.408**	0.193	-3.663	0.400

* $p < .05$, ** $p < .01$

육아지원 기관 이용 아동의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별로 아동기 학교적응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기 낮은 문제행동 집단의 아동기 학교적응 평균은 16.351, 중간 문제행동 집단의 아동기 학교적응 평균은 17.003, 높은 문제행동 집단의 아동기 학교적응 평균은 16.523이었다. 그러나 이들 문제행동 잠재계층별로 아동기 학교적응 평균은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육아지원 기관 이용 아동의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별 아동기 학교적응

		계수	표준오차	Wald test
낮은 문제행동	평균	16.351**	0.185	0.238
	분산	6.972**	0.728	
중간 문제행동	평균	17.003**	0.642	
	분산	6.972**	0.728	
높은 문제행동	평균	16.523**	0.290	
	분산	6.972**	0.728	

* $p < .05$, ** $p < .01$

다. 육아지원 기관 미이용 유아기 문제행동 유형화와 변수 간 관계

다음에서는 전체 연구대상 중 영아기에 육아지원 기관 이용 경험이 없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기 문제행동을 유형화하였다. 전체 아동 1,694명 중 영아기 육아지원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은 958명(56.6%)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유아기의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화증상, 위축,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및 기타문제 T점수를 이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을 하나씩 증가시킬 때마다 AIC와 BIC값은 점점 감소하나 LMR 값은 5개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아기에 육아지원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의 유아기 문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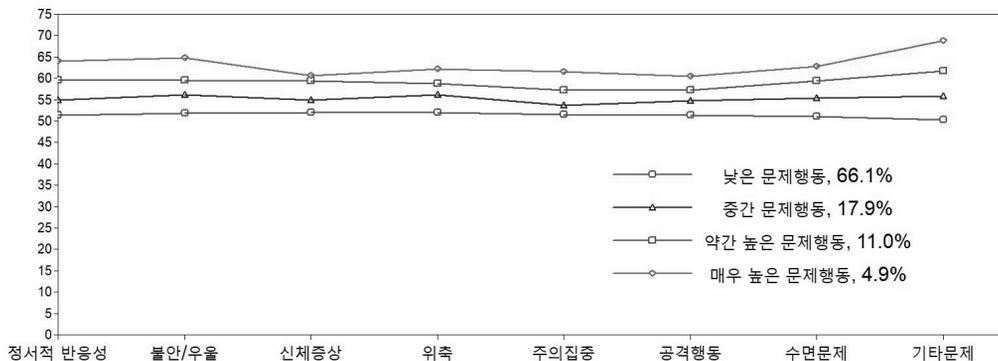
동은 4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개 집단 모형에서 엔트로피 값은 0.97로 1에 가깝게 나타났다.

〈표 9〉 육아지원 기관 미이용 아동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 분석결과

집단의 수	AIC	BIC	aLMR	엔트로피
1	47407.389	47485.227	-	1.000
2	44501.603	44623.225	2877.217**	0.949
3	43813.426	43978.831	694.929**	0.930
4	43506.388	43715.577	319.861*	0.966
5	43360.199	43613.171	203.957	0.923

* $p < .05$, ** $p < .01$

4개 집단으로 유형화된 영아기 육아지원 기관 이용 경험이 없는 유아기 문제행동 집단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모든 하위 행동문제에 대한 점수가 4개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전체 아동의 66.1%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이 집단은 ‘낮은 문제행동’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모든 하위 행동문제에 대한 점수가 4개 집단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으며, 전체 아동의 17.9%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이 집단은 ‘중간 문제행동’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집단은 모든 하위 행동문제에 대한 점수가 4개 집단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전체 아동 가운데 11.0%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이 집단은 ‘약간 높은 문제행동’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네 번째 집단은 행동문제에 대한 점수가 4개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체 아동 가운데 4.9%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이 집단은 ‘매우 높은 문제행동’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영아기 육아지원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의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67.3%)과 전체 아동 대상(68.1%)에 비해 기관 이용 경험이 없는 아동은 낮은 문제행동 집단의 약간 더 적었고, 문제행동이 중간 이상인 집단의 비율이 좀 더 높았다.



〈그림 4〉 육아지원 기관 미이용 아동 유아기 문제행동 유형화

다음으로는 영아기 육아지원 기관 이용 경험이 없는 아동의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 변수 검증에 대해 독립변수로 영아기 누적위험요인과 종속변수로 아동기 학교적응을 투입하였다. 아동의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누적위험요인이 많을수록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비해 중간 문제행동, 약간 높은 문제행동, 매우 높은 문제행동 집단에 속할 승산이 증가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기관 미이용 아동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과 영아기 누적위험요인(기준집단=낮은 문제행동 집단)

구분	중간 문제행동 집단 (17.9%)		약간 높은 문제행동 집단(11.0%)		매우 높은 문제행동 집단(4.9%)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성별(남=1)	0.261	0.184	0.261	0.221	0.135	0.311
누적위험요인	0.082**	0.028	0.129**	0.031	0.162**	0.039
상수항	-1.803**	0.189	-2.538**	0.244	-3.456**	0.310

* $p < .05$, ** $p < .01$

육아지원 기관 미이용 아동의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별로 아동기 학교적응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기 낮은 문제행동 집단의 아동기 학교적응 평균은 16.736, 중간 문제행동 집단의 아동기 학교적응 평균은 16.282, 약간 높은 문제행동 집단의 아동기 학교적응 평균은 15.324였다. 매우 높은 문제행동 집단의 아동기 학교적응 평균은 16.078이었다. Wald test 결과 이들 문제행동 잠재계층별로 아동기 학교적응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비해 약간 높은 문제행동 집단은 아동기 학교적응 정도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다른 집단들 간에는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1〉 육아지원 기관 미이용 아동의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별 아동기 학교적응

		계수	표준오차	Wald test
낮은 문제행동a	평균	16.736**	0.171	8.926* a>c
	분산	7.228**	0.762	
중간 문제행동b	평균	16.282**	0.360	
	분산	7.228**	0.762	
약간 높은 문제행동c	평균	15.324**	0.484	
	분산	7.228**	0.762	
매우 높은 문제행동d	평균	16.078**	0.550	
	분산	7.228**	0.762	

* $p < .05$,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생애초기 누적위험요인의 경험이 유아기의 문제행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유아기의 문제행동 수준에 따라 아동기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영아기 육아지원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이들 변수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고 시도하였다.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은 수준별로 3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아동의 성별과 영아기 육아지원 기관 이용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누적위험요인이 많을수록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비해 보통 문제행동 집단과 높은 문제행동 집단에 속할 승산이 증가하였다. 특히 누적위험요인은 높은 문제행동 집단에 속할 승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비해 높은 문제행동 집단에 속할 승산은 남자 아동이 더 높았고, 육아지원 기관 이용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유아기 문제행동 수준에 따라 11차년도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 즉, 생애초기 누적위험요인을 많이 경험한 아동들이 높은 문제행동수준에 속한 확률이 높았으나, 이러한 문제행동의 수준 차이가 아동이 11세 때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한 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아기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한 집단에서는 누적위험요인이 많을수록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비해 높은 문제행동 집단에 속할 승산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남아의 경우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비해 높은 문제행동 집단에 속할 승산이 더 높았다. 그러나 중간 문제행동에 포함될 승산에는 성별과 누적위험요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누적위험요인이 유아기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영아기의 기관이용이 일부 완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유아기의 문제행동 수준에 따라 아동기 학교적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영아기 육아지원 기관 이용 경험이 없는 아동의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 변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로 영아기 누적위험요인과 종속변수로 아동기 학교적응을 투입하였다. 육아지원 기관 미이용 집단은 문제행동의 수준이 4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는데, 아동의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누적위험요인이 많을수록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비해 중간 문제행동, 약간 높은 문제행동, 매우 높은 문제행동 집단에 속할 승산이 증가하였다. 집단이 세분화되었음에도 누적위험요인의 수가 많을수록 낮은 수준의 문제행동 집단에 비해 각각의 집단에 속할 승산비를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육아지원 기관 미이용 아동의 유아기 문제행동 잠재계층별로 아동기 학교적응의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들 문제행동 잠재계층별로 아동기 학교적응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비해 약간 높은 문제행동 집단은 아동기 학교적응 정도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다른 집단들 간에는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영아기 누적위험요인의 수는 유아기 문제행동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영아기에 경험한 누적위험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높은 문제행동 수준의 집단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누적위험요인의 영향력은 영아기 육아지원기관 이용집단에 비해 미이용집단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아기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이 가정 내에서 영아가 경험하는 누적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일부 완화시켜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아기의 문제행동 수준에 따른 아동기 학교적응의 차이 역시 영아기 육아지원기관 이용집단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육아지원기관 미이용 집단에서만 잠재계층별로 일부 차이를 보였는데, 낮은 문제행동 집단에 비해 약간 높은 문제행동 집단 아동의 학교적응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아기에 기관을 이용한 집단의 경우, 영아기 누적위험요인의 노출이 유아기 문제행동 수준을 거쳐, 아동기에까지 장기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기관 미이용 집단의 경우, 일부 집단에서 그 영향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5차년도에 조사한 유아기의 문제행동과 11차년도에 조사한 아동기 학교적응 간의 시간 차이로 인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학교생활을 시작한 이후의 다양한 경험들(학교체계의 특성 및 또래관계 등)이 두 변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 문제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매개변인들을 찾아내어 그 영향력을 밝히는 것이 후속연구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아기 누적위험요인이 유아기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생애초기, 아동이 노출된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영아기의 아동들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그 상황을 피하거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위험요인의 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Liming & Grube, 2018). 영아기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이러한 영향력을 일부 완충시켜줄 수 있으나,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결정마저도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을 제공하는 주체인 양육자(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 중 누적위험요인에 노출된 아동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서는 임신부가 산전, 산후에 겪는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고 부모가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편방문, 지속방문, 엄마모임,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

며, 아동에게 최선의 건강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ttp://ourbaby.seoul.kr/project/introduction/01>). 보편방문을 통해 누적위험요인을 경험하는 취약가정을 발견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조기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사업모형이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핵심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보건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누적 위험요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위험들을 고려했을 때,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학제적 팀이 협력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취약한 가족들을 지원하고 역량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세원, 이봉주, 김현수, 유조안, 이상균, 장화정 (2019). 아동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 유형화 및 관계에 대한 연구- 잠재계층분석을 적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66, 115-146.
- 오경자·김영아 (2009). CBCL 1.5-5 매뉴얼 (개정판). 서울: 휴노컨설팅.
- 장영은·권윤정(2014). 가족의 누적위험요인이 영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국아동학회지*, 35(2), 43-61.
- 지성애, 정대현 (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7(1), 1-15.
- 한국아동패널 (2014). 어머니의 우울정도.
- 한국아동패널 (2016). 유아행동평가척도.
- 홍세희 (2019). 잠재계층, 잠재전이, 성장혼합모형. 서울: 박영사.
- Bisko, R. H., Holbrook, J. R., Kaminski, J. W., Ghandour, R., Smith, C., & Peacock, G. (2016). Health care, family, and community factors associated with mental,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disorders in early childhood - United States, 2011-2012. *MMWR.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https://doi.org/10.15585/mmwr.mm6509a1>.
- Burchinal, M. R., Roberts, J. E., Zeisel, S. A., Hennon, E. A., & Hooper, S. (2006). Social risk and protective child, parenting, and child care factors in early elementary school year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s*, 6(1), 79-113.
- Cooper, J. L., Masi, R., & Vick, J. (2009). Social-emotional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What every policymaker should know.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Columbia University*. Retrieved from <https://academiccommons.columbia.edu/catalog/ac:126269>.
- Edwards, V. J., Holden, G. W., Felitti, V. J., & Anda, R. F. (2003).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forms of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ult mental health in

- community respondents: Results from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 1453-1460
- Evans, G. W., & English, K.(2002). The environment of poverty: Multiple stressor exposure, psychophysiological stres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3, 1238-1248.
- Evans, G. W., Li, D. & Whipple, S. S. (2013). Cumulative risk and child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39(6), 1342-1396.
- Felner, R. D., Brand, S., Dubois, D. L., Adan, A. M., Mulhall, P.F., & Evans, E. G. (1995). Socioeconomic disadvantage, proximal environmental experiences, and socioemotion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Investigation of a mediated effects model. *Child Development*, 66, 774-792.
- Flaherty, E. G., Thompson, R., Litrownik, A. J., Theodore, A., English, D. J., Black, M. M., ... Dubowitz, H. (2006). Effect of early childhood adversity on child health.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0, 1232-1238. <https://doi.org/10.1001/archpedi.160.12.1232>.
- Freeman, P. A. C. (2014). Prevalence and relationship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child behavior among young childre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5, 544-554. <https://doi.org/10.1002/imhj.21460>.
- Grasso, D. J., Dierkhising, C. B., Branson, C. E., Ford, J. D., & Lee, R. (2016). Developmental pattern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current symptoms and impairment in youth referred for trauma-specific servic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5), 871-886. <https://doi.org/10.1007/s10802-015-0086-8>.
- Greenberg, M. T., Lengua, L. J., Coie, J. D., & Pinderhughes, E. E. (1999). Predicting developmental outcomes at school entry using a multiple-risk model: Four American commun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403-417.
- Jimenez, M. E., Wade, R. Jr., Lin, Y., Morrow, L. M., & Reichman, N. E. (2016). Adverse experiences in early childhood and kindergarten outcomes. *Pediatrics*, 137, e20151839. <https://doi.org/10.1542/peds.2015-1839>.
- Kerker, B. D., Zhang, J., Nadeem, E., Stein, R. E. K., Hurlburt, M. S., Heneghan, A., ... Horwitz, S. M. (2015).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chronic medical conditions, and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Academic Pediatrics*, 15, 510-517.
- Kraemer, H. C., Lowe, K. K., & Kupfer, D. J. (2005). *To your health*.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iming, K.W., & Grube, W.A. (2018). Wellbeing Outcomes for Children Exposed to Multiple Adverse Experiences in Early Childhood: A Systematic Review. *Chil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35, 317-335. <https://doi.org/10.1007/s10560-018-0532-x>.

- Mistry, R. S., Benner, A. D., Biesanz, J. C., Clake, S., & Howes, C. (2010). Family and social risk, and parental investments during the early childhood years as predictors of low income children's school readiness outcom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5, 432-449.
- Phillips, D. A., & Shonkoff, J. P. (2000). *From neurons to neighborhoods: The scien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National Academies Press.
-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Annals of the Academy of Medicine*, 8, 324-338.
- Rutter, M. (1981).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Some issues and some ques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 323-356.
- Ryan, R. M., Fauth, R. C., & Brooks-Gunn, J. (2006). Childhood poverty: Implications for school readines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O. Sarachoc, & B. Spodek (Eds.) *Handbook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nd ed., pp.323-346). Mahwah, NJ: Erlbaum.
- Shonkoff, J. P. (2010). Building a new biodevelopmental framework to guide the future of early childhood policy. *Child Development*, 81(1), 357-367.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9.01399.x>
- Vermunt, Jeroen.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sycho-oncology - PSYCHO-ONCOL*. 18. 10.2307/25792024.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http://ourbaby.seoul.kr/project/introduction/01>)

- 교신저자: 안재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jjahn@gachon.ac.kr

Abstract

The Effects of Early Cumulative Risk Factor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Jaejin Ahn and Sewon Kim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early cumulative risk exposures on children's later problem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using the longitudinal data of 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early cumulative risks significantly affects the problem behavior level of children at age 5 and dose-respons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m. The relationships between early cumulative risks and later problem behavior level were, however, less prominent among children who attended child care institution during first two years of life, indicating the possibility of buffering role of child care service for high risk families. Children's problem behavior level at age 5 do not seem to specifically affect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t age 11. This may be due to a large time gap between two time points, intertwined with diverse intervening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need for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for young children exposed to cumulative risks were highlighted.

- Key words: Cumulative risk factors, Problem behavior, School adjustment, Early experience of children

‘생애초기 누적위험요인이 유아기 문제행동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문

이승하(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영아기의 긍정적인 양육환경이 추후 유·아동의 심리 사회적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분의 노력으로 수집되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좋은 연구를 수행해주시고, 이러한 연구를 먼저 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영유아보육 및 교육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의미 있는 연구였습니다. 제가 느꼈던 인상적인 점을 정리하며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연구는 각 가정의 취약한 부분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영아기 누적위험요인은 대체로 상관성을 가질 것이라 예측됩니다. 우울감의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부부갈등이나 생활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고, 낮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가구크기, 가구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객관적 지표와 어머니가 느끼는 우울감, 스트레스,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등의 주관적 지표가 혹시 유·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현재와 같거나 다른 결과를 도출할지도 궁금합니다. 더구나,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양육기술, 양육 태도는 시간이 흘러도 꽤 지속적인 특징이 있으며, 어머니의 우울감이나 부부갈등은 자녀 양육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처한 영유아들의 복합적인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맞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5차연도에 조사한 유아기 문제행동과 11차연도에 조사한 아동기 학교적응 간의 시차로 인해, 이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아를 둘러싼 가정, 사회적 환경이 변했을 수 있고, 유아기에 문제행동이 있었지만, 안정적 또래 관계나 높은 학업 성취도로 인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아기에 육아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유아기에 도 지속해서 기관을 이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부족한 양육환경이 보완되어 기관 미이용 영아들과는 장기적으로 다른 차이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매개 변인을 파악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아기에 육아 지원기관을 이용한 유아들의 경우, 유아기 문제행동이 추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혹은 여타 보육기관을 이용하며 접했던 또래 및 교사와의 경험,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연습, 가정 외의 사회 집단 내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 등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험이 전혀 없이 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 유아기 문제행동이 높은 집단은 영아기에 겪은 위험요소들이 누적되어 학교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영아들이 보육기관에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영아들에게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 내 복합적, 동시적인 위험요소를 지녔을 때는 보육기관에 머무름으로써, 가정에서 부족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 미이용 가정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가 최초로 기관을 이용한 시기는 평균적으로 대략 25개월이지만, 빈곤 가구의 경우 평균 28개월이며, 36개월 이후에 기관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비율(36%)도 전체 가구(26%)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았습니다(유해미 외, 2019). 또한, 누적위험요인이 기관이용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기관 미이용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영유아들이 가정 내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바깥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내에서 24시간 아이들과 부대껴야 하는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매일 마주쳤던 수십 명의 친구와 부대끼며 살아갈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더구나, 온라인 학습에서도 가정환경에 따른 격차가 일어나고 있어 가정의 양육환경 및 부모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시점에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연구를 접하게 되어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유해미, 박은정, 정은희, 엄지원 (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9-22.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적용한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

허은하¹⁰⁾ 김상림¹¹⁾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학교적응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KICCE)의 한국아동패널연구(PSKC) 자료 중 연구대상이 만 6세가 되는 7차년도(2014년)부터 만 10세가 되는 11차년도(2018년)까지 아동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도출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MM: Growth Mixture Model)을 적용했으며, 관련 변인이 학교적응의 잠재계층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잠재계층은 네 가지 유형(저수준-유지, 고수준-유지, 최저수준-증가, 최고수준-감소)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학교적응 잠재계층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였으며, 놀이단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화궤적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적절한 지원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학교적응,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 성장혼합모형, 한국 아동패널연구

1. 서론

학교는 학습자의 지식 습득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목표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하는 사회적 조직이다. 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은 학교적응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발달과제에 직면하며, 초등학교에 대한 적응은 이후 성공적인 발달과 효과적인 학교교육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10) 인천대학교 대학원 유아·숲·자연교육 전공 박사과정

11)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다(김수정, 광금주, 2012; 오새니, 이상희, 2019; 장혜진, 김은설, 송신영, 2014; 최옥희, 김용미, 김영호, 2009; 최지영, 양현주, 2012; Richman, Bowen, & Woolley, 2004; Woolley & Grogan-Kaylor, 2006).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전반적인 학교생활 영역에서 성공을 이루는 정도로 정의된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즉, 학교적응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학교수업과 규칙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적극적인 발달과정이다.

초등학교 적응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횡단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되었으며(강민서, 유미숙, 2010; 권혜진, 정혜옥, 2015; 기재희, 이숙, 2017; 김수정, 정윤경, 박현식, 2018; 김충일, 2019; 이순아, 임선아, 2019; 이신숙, 이영선, 2017; 이예진, 전은옥, 2019), 소수의 선행연구에서 종단적 연구방법을 통해 학교적응의 변화궤적이 연구되었다(김은정, 2009; 이정민, 강수정, 이강이, 이순형, 2015; 전현희, 김성화, 2019). 예컨대,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실행된 종단연구 결과,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교적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김은정, 2009), 초등학교 4~6학년까지의 학교적응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이정민 외, 2015). 추가적으로 일부 선행연구는 중학생을 포함하여 학교 적응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까지의 학교적응(이은수, 이수용, 홍세희, 2016; 최수빈, 유미숙, 2019)과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교적응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지영, 김재철, 2017; 이영애, 정현희, 2016; 이희정, 조운주, 2010).

앞서 살펴본 학교적응에 대한 종단적 분석 연구는 대부분 잠재 계층 성장 모형(LGM: Latent class Growth Model)을 사용하고 있다. 잠재 계층 성장 모형은 종단자료가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초기치의 평균 및 변화율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여 변화 추이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즉, 다양한 시점에 따른 변화를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동일한 추이로 변화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 아동이 적응에 있어서 어떠한 궤적으로 서로 다르게 변화하는지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점을 가진다(Hedeker, 2004).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접근으로 성장혼합모형(GMM: Growth Mixture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예컨대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의 학교적응을 분석한 소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 유형으로 감소, 증가, 저수준유지, 고수준유지 총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된 바 있다(전현희, 김성화, 2019). 또한, 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들의 학교적응 변화양상에 따른 계층 유형화를 분석한 결과(남지영, 김재철, 2017), 점진적 적응감소군, 점진적 적응증가군, 고적응 유지군, 저적응 유지군, 점진적 미세 감소군의 총 5개의 집단으로 구분 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고학년으로 진행됨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이 어떠한 추이로 변화하는지를 탐색하는 경우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을 성장혼합모형(GMM: Growth Mixture Model)을 사용하여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에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학교준비도는 취학 전 유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준비된 상태를 의미한다(Kagan, Moore, & Bredekamp, 1995). 학교준비도는 인지발달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바른 태도나 올바른 정서 및 사회능력의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한다(허은하, 김상립, 2020). 취학 전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생애초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는 초등학교 전반의 적응을 위해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박은영, 이순아, 2018; 박정미, 홍순옥 2019; 이순아, 임선아, 2019; 허은하, 김상립, 2020). 즉, 유아들의 안정된 전이(Ramey & Ramey, 2004)를 위한 학교준비도는 아동이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련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가 얼마만큼 완성되느냐에 따라 초등학교의 적응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는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태은, 2011; 안영혜, 2014; Heck, 1983), 이후의 발달 및 학업성취 등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미, 2019; 김희수, 2013; 이완정, 김미나, 2019; Duncan et al., 2007; Romano, Babchishin, Pagani, & Korehn, 2010; Rouse & Fantuzzo, 2009).

학교준비도와 함께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사회적 유능감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유능감은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이 속한 사회의 규범을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사회적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자원을 통합하는 능력이다(Raver & Zigler, 1997). 즉, 사회적 유능감은 타인과 잘 어울리며 다양한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회적 상황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능력이다(허은하, 김상립, 2020). 사회적 유능감과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아동이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강수령, 이경님, 2001; 김수정, 박금주, 2010; 이보경, 김지은, 2019; 이상희, 오새니, 2019; 이순아, 임선아, 2019, 이지영, 이상희, 2019). 이와 함께,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아동이 학교활동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교사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경향을 보였으며(Gresham & Elliott, 1990),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염미애,

문혁준, 2008). 이강훈(2018)은 사회적 유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높은 사회적 유능감이 아동기의 초등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했다. 반면, 사회적 유능감이 낮은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부정적인 경험은 이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resham, 2002). 이와 같이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일관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능감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유아기 또래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검증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 또래 상호작용은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을 포함한다. 놀이상호작용은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고 다른 유아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의미한다(박화윤, 마지순, 천은영, 2004). 놀이상호작용과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적극적인 놀이상호작용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영, 이상희, 2019; 최은정, 김금주, 2020). Ladd(2005)는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유아는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유아의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된다. 유아기에 또래와의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을 형성한 유아는 이후의 학교에 진학하여 더 높은 성취를 보이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oolahan, Fantuzzo, Mendez, & McDermott, 2000). 이와 같은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의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 상호작용의 또 다른 범주인 놀이방해는 공격적 행동과 자아통제의 결여와 관련된 부정적 차원을 의미한다(박화윤 외, 2004). 놀이방해는 또래와의 놀이를 지속하기보다는 갈등을 유발하는 공격적으로 부정적인 행동 특성을 포함한다(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 1998). 놀이방해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놀이방해가 초등학생의 학업수행, 교사 또래 관계 형성 등 학교적응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정대현, 지성애, 2006), 놀이방해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임을 유추 할 수 있다.

놀이단절은 또래와의 놀이를 시작하기 어려워하거나 놀이를 시작하더라도 또래 상호작용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서로 놀이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최혜영, 신혜영, 2008). 놀이단절과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Fantuzzo 외(1998)는 유아가 놀이단절을 통해 심적으로 위축되어 놀이를 시작하기 어려워하거나, 놀이를 시작하더라도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등 또래로부터 무시와 거부 상황에 놓이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했다. 또한

놀이단절은 우울, 외로움, 사회적 불안을 동반하여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예지, 안혜령, 이강이, 최나야, 2018). 선행연구를 통해 놀이단절 또한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1~4학년의 학교적응의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 중 잠재계층 구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밝혀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유형에 있어 잠재계층의 수와 형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에 있어서의 영향 요인인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 중 유의한 변수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의 한국아동패널(PSCK) 자료 중 연구대상이 만 6세가 되는 7차년도(2014년) 자료부터 만 10세가 되는 11차년도(2018년) 자료를 사용했다(육아정책연구소, 2018a). 한국아동패널의 모집단은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가구이며, 1차년도 데이터의 대상은 2008년에 출생한 2,078명이다. 종단 패널 자료의 특성상 연구대상의 탈락이 발생하며 7차~11차년도 조사 참여 대상은 각각 1,203명, 1,031명, 930명, 633명, 709명으로, 이는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2,078명 중에서 57.89%, 49.62%, 44.75%, 31.46%, 34.12%에 해당한다(표 1 참고). 7차년도(2014년)에서 11차년도(2018년) 각각의 아동의 평균 월령은 75개월, 87개월, 99개월, 112개월, 124개월이었다. 7차년도(2014년)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1> 7차년도~11차년도 연구대상의 평균월령

(N = 1,468^{*})

구분	7차/2014년 (n = 1,203)	8차/2015년 (n = 1,031)	9차/2016년 (n = 930)	10차/2017년 (n = 633)	11차/2018년 (n = 709)
평균월령	75개월	87개월	99개월	112개월	124개월

* 7차~12차 중 한 번 이상 응답한 연구대상 수

〈표 2〉 7차년도(2014년)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N = 1,203)

구분		빈도(n)	백분율(%)	
유아	성별	남	622	51.7
		여	581	48.3
연령		만 25세 이하	240	20.0
		만 25세~30세	411	34.2
		만 31세~35세	205	17.0
		만 36세~40세	142	11.8
		만 40세 이상	205	17.0
		고등학교 졸업	20	1.7
		사이버 대학·평생교육원 졸업	38	3.2
최종 학력		2~3 전문대학 졸업	478	39.7
		4년제 대학교 졸업	487	40.5
		대학원 졸업	149	12.4
		국공립	75	6.2
교사		법인	60	5.0
		민간	246	20.4
어린이집		직장	18	1.5
		가정	2	.2
육아 지원 기관 설립 유형		부모협동	2	.2
		국립	3	.2
유치원		공립(병설)	181	15.0
		공립(단설)	33	2.7
		사립(법인)	74	6.2
		사립(개인)	453	37.7
학원	학원(기타)	56	4.6	
합 계		1,203	100.0	

2. 연구도구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 시점 이상의 종단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8차년도(2015년) 조사부터 11차년도(2018년) 조사 중 응답을 한 번이라도 한 2,150명의 네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영향요인을 위한 자료로 같은 대상의 학령기 이전 7차년도(2014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의 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인으로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또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을 활용하였다.

초등학령기 이전의 7차년도(2014년) 자료에서 변수를 설정하였다.

가. 학교적응

연구대상의 학교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개발한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했다(육아정책연구소, 2018b). 본 척도는 총 35문항, 4가지 하위요인(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11문항)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다 심해진 질서 및 규칙에 대한 적응,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적응, 정해진 일과에 대한 적응, 교사의 지시나 요구에 대한 적응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등교시간, 수업시간, 쉬는 시간 등을 지켜서 행동한다.”가 있다. 학업수행적응(11문항)은 의사표현이나 활동의 의욕성, 수업시간에서의 활동과 모둠별 활동,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과제나 준비물의 준비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자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발표한다.”가 있다. 또래적응(8문항)은 친구들과의 놀이에 관한 문항, 갈등 해결의 형태, 또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가 있다. 교사적응(5문항)은 선생님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고,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잘 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연구대상 아동의 담임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8차년도(2015년)~11차년도(2018년)의 학교적응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적응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는 8차년도 .97, 9차년도 .97, 10차년도 .97, 11차년도 .97이었다.

나. 학교준비도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알아보기 위해 Murphey와 Burns(2002)의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 척도를 사용했다(육아정책연구소, 2018b). 본 척도는 총 22문항, 4가지 하위요인(사회 정서 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 정서 발달(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6문항)은 다른 아이들과 놀 수 있고, 학습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가 있다. 학습에 대한 태도(approach to learning, 8문항)는 열정, 호기심, 끈기와 같은 성향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가 있다. 의사소통(communication, 3문항)은 수용 및 표현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간단한 지시, 요청, 정보를 이해한다.”가 있다.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cognitive development and general knowledge, 5문항)은 학습자료의 내용과 목표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활동을 기

억하고 사건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해당 아동의 담임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는 4점 Likert 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학 전 유아의 학교 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준비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전체는 .93이었다.

다. 사회적 유능감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Gresham과 Elliott(1990)가 개발한 Social Skills Rating System(SSRS)를 서미옥(2004)이 번역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취학 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예비조사 실시 후 문항을 확정했다(육아정책연구소, 2018b). 본 척도는 총 21문항, 3가지 하위요인(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주장성(assertiveness, 5문항)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친구 칭찬하기, 놀이를 할 때 다른 아이에게도 같이 하자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가 있다. 협력성(cooperation, 9문항)은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 수업 중에 학업을 잘 수행하기, 다른 아이들과 집단 활동에 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가 있다. 자기통제(self-control, 7문항)는 동료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기, 자신의 의견 양보하기와 같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또래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육아지원기관의 담임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자주 그렇다(3점)’로 응답하는 3점 Likert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유능감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전체는 .9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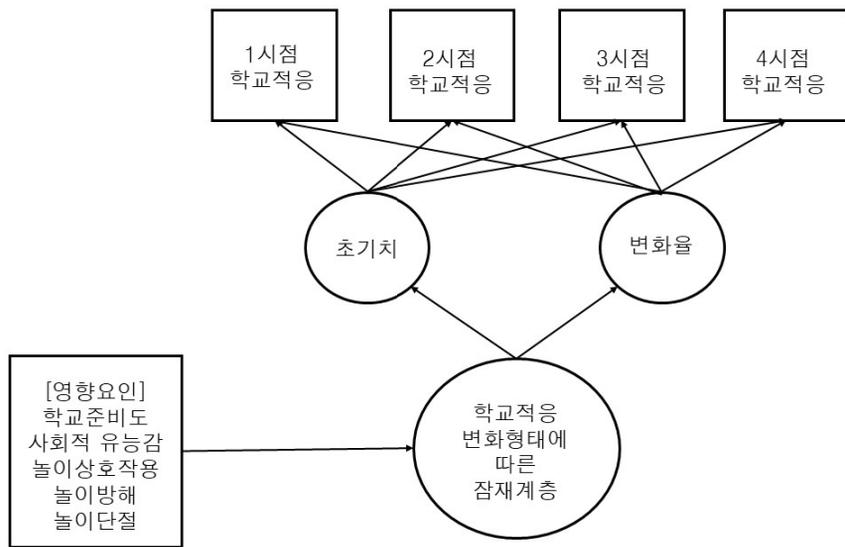
라. 또래 상호작용(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

또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Fantuzzo 외(1998)가 개발하고,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번역하고 타당화한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예비조사 실시 후 문항을 확정했다(육아정책연구소, 2018b). 본 척도는 총 30문항, 3가지 하위요인(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놀이상호작용(play interaction, 9문항)은 친사회적인 특성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가 있다. 놀이방해(play disruption, 13문항)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표현등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가 있다. 놀이단절(play disconnection, 8문항)은 위축되거나 타인에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징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육아지원기관의 담임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로 응답하는 4점 Likert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는 놀이상호작용 .81, 놀이방해 .88, 놀이단절 .89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2.0 WIN, AMOS 21.0 WIN, Mplus 7.4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과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를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했다. 둘째, 주요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했다. 셋째, 연구문제 1인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 계층 성장 모형(LGM: Latent class Growth Model) 분석을 실시하여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 간 모형적합도를 비교 후, 전체 집단 내 서로 다른 변화양상을 보이는 하위 잠재 계층 성장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성장혼합모형(GMM: Growth Mixture Model) 분석을 실시했다. 학교적응 변화 궤적에 몇 개의 하위계층이 존재하는지 잠재계층 수 결정하기 위해 통계적 적합도와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였다(Wickrama, Lee, O’Neal, & Lorenz, 2016). 적합도는 정보준거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SABIC(Sample-size Adjusted BIC), 계층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Entropy 지수, 경쟁모형과 적합의 통계검증을 나타내는 LMR(Lo-Mendell-Rubin), BLRT(LRT Bootstrap) 검증 등을 근거로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MM: Growth Mixture Model) 분석에서 도출한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어떠한 영향요인에 따라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교적응을 예측한다고 밝혀진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을 선택하여 이들 예측변인을 활용한 조건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나의 잠재 계층 안에서도 개인차 분산을 추정하고, 개인차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이론적 전제(Muthén, 2004) 하에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1차 시기를 기준점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측치 처리를 위해서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다. 최종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최종연구모형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유아의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과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의 전반적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를 산출하여 자료 분포의 적절성을 확인했다(표 3 참고). 평균(표준편차)을 살펴보면, 유아의 학교준비도 $M = 3.49(SD = .41)$, 사회적 유능감 $M = 2.53(SD = .36)$, 놀이상호작용 $M = 3.08(SD = .45)$, 놀이방해 $M = 1.94(SD = .52)$, 놀이단절 $M = 1.64(SD = .58)$ 이다. 아동의 학교적응은 8차 $M = 3.96(SD = .71)$, 9차 $M = 3.96(SD = .70)$, 10차 $M = 4.10(SD = .70)$, 11차 $M = 4.12(SD = .69)$ 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인의 왜도(-.63 ~ 1.17)는 절대 값 3미만, 첨도(-.06 ~ 1.69)는 10미만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에 필요한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으며(표 4 참고), 아동의 학교적응을 기준으로 타변인과의 상관관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학교적응(8차)은 유아의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29 ~ .80, $p < .01$)를 보였으며,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55 ~ -.21, $p <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교적응(9차)은 유아의 학교준비

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25 ~ .80, $p < .01$)를 보였으며,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55 ~ -.19, $p <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교적응(10차)은 유아의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21 ~ .80, $p < .01$)를 보였으며,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과 유의한 부적 상관(-.55 ~ -.19, $p <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교적응(11차)은 유아의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18 ~ .80, $p < .01$)를 보였으며,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55 ~ -.15, $p <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결하면, 아동의 학교적응(8차~11차)은 아동의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측정변인	연령	<i>n</i>	<i>M</i>	<i>SD</i>	<i>Skewness</i>	<i>Kurtosis</i>
학교준비도(7차)	7	1,203	3.49	.41	-1.04	1.21
사회적 유능감(7차)	7	1,203	2.53	.36	-.84	.26
놀이상호작용(7차)	7	1,203	3.08	.45	-.65	1.24
놀이방해(7차)	7	1,203	1.94	.52	.63	-.06
놀이단절(7차)	7	1,203	1.64	.58	1.12	1.14
학교적응(8차)	8	1,031	3.96	.71	-.71	.19
학교적응(9차)	9	930	3.96	.70	-.65	-.11
학교적응(10차)	10	633	4.10	.70	-.95	.66
학교적응(11차)	11	709	4.12	.69	-1.17	1.69

〈표 4〉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 학교준비도	1								
2. 사회적 유능감	.80**	1							
3. 놀이상호작용	.60**	.60**	1						
4. 놀이방해	-.41**	-.49**	-.34**	1					
5. 놀이단절	-.55**	-.52**	-.38**	.59**	1				
6. 학교적응(8차)	.33**	.37**	.29**	-.27**	-.21**	1			
7. 학교적응(9차)	.34**	.34**	.25**	-.26**	-.19**	.46**	1		
8. 학교적응(10차)	.28**	.34**	.21**	-.24**	-.23**	.37**	.43**	1	
9. 학교적응(11차)	.30**	.30**	.18**	-.22**	-.15**	.34**	.47**	.33**	1

** $p < .01$

2. 학교적응의 변화궤적 분석(잠재 계층 성장 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1~4학년의 4개 시점에서 측정한 변화궤적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 계층 성장 모형(LGM: Latent class Growth Model)으로 무변화모형과 선형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표 5 참고). 무변화 모형은 학교적응 수준이 일정할 것으로 가정하고, 선형모형은 일정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먼저 선형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예측평균이 모두 유의하였는데 초기치의 예측평균은 3.94($p < .001$), 변화율의 예측평균은 .06($p < .001$)으로 학교적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통계의 추이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초기치의 분산(.24, $p < .001$)은 유의하였으나, 변화율의 분산(.01, *n.s.*)은 유의하지 않아 학교적응 변화궤적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 간 공분산(-.02, *n.s.*)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두 모형의 모형적합도 비교 결과 선형모형이 무변화모형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χ^2 보다 표본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증분적합지수 *TLI*, *CFI*와 절대적합지수 *RMSEA*지수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평가했다. *TLI*, *CFI*는 .90 이상이면 양호,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음, .08 이하이면 양호, .10 이하이면 보통 수준으로 해석했다(홍세희, 2000). 선형모형은 *CFI* = .97, *TLI* = .94, *RMSEA* = .03(90%, *CI*: .02 ~ .05)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였다.

〈표 5〉 전체 집단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검증 결과

모형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평균 성장	초기치	4.01 ^{***}	3.94 ^{***}
	변화율		.06 ^{***}
분산 및 공분산	초기치	.21 ^{***}	.24 ^{***}
	변화율		.01
	초기치 ↔ 변화율		-.02
	χ^2	68.88	18.49
	<i>df</i>	8	5
모형 적합도	<i>CFI</i>	.88	.97
	<i>TLI</i>	.85	.94
	<i>RMSEA</i>	.05	.03
	(90% 신뢰구간)	(.04 ~ .06)	(.02 ~ .05)

^{***} $p < .001$

3. 학교적응 변화의 잠재계층 분석(성장혼합모형 분석)

가. 학교적응 변화의 잠재계층 수 결정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으로 분석된 선형모형을 바탕으로, 전체 집단 내 서로 다른 변화양상을 보이는 하위 잠재성장계층을 추정하기 위하여 성장혼합모형(GMM: Growth Mixture Model) 분석을 실시했다. 아동의 학교적응의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2계층부터 5계층까지 계층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며 모형을 비교했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성장혼합모형의 계층 수별 적합도 지수와 집단원 정보

분류	2계층 모형	3계층 모형	4계층 모형	5계층 모형	
Log Likelihood	-4,329.467	-4,214.917	-4,122.242	-3,766.856	
<i>AIC</i>	8,682.934	8,459.834	8,280.483	7,575.712	
<i>BIC</i>	8,751.013	8,544.933	8,382.601	7,694.850	
<i>SABIC</i>	8,712.887	8,497.276	8,325.413	7,628.130	
<i>Entropy</i>	.981	.948	.955	.960	
<i>LMR</i> (<i>p-value</i>)	.000	.029	.000	.033	
<i>BLRT</i> (<i>p-value</i>)	.000	.000	.000	.000	
계층 (%)	1	79(3.7%)	70(3.2%)	78(3.6%)	76(3.5%)
	2	2,071(96.3%)	1,971(91.7%)	11(0.5%)	115(5.3%)
	3		109(5.0%)	113(5.3%)	14(0.06%)
	4			1,948(90.6%)	245(11.39%)
	5				1,700(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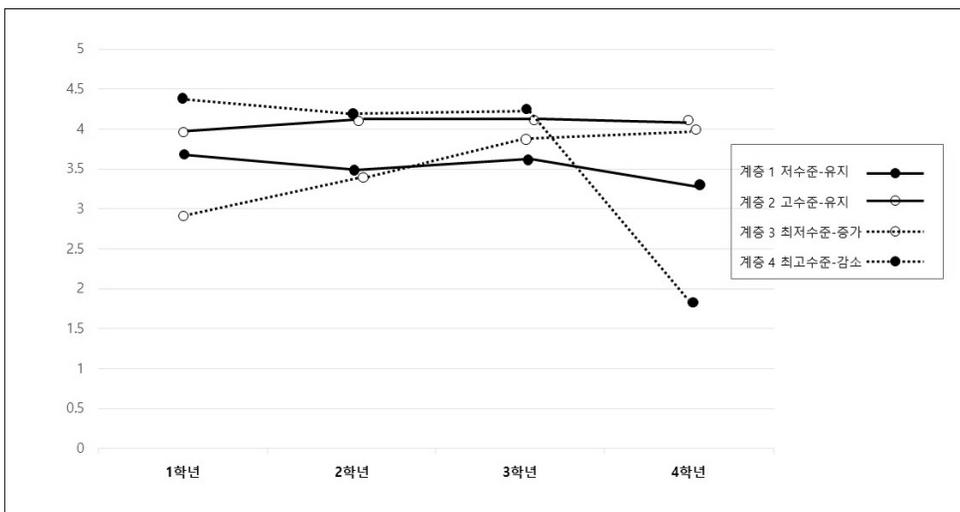
잠재계층의 수는 통계적 적합성과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정보준거지수인 *AIC*, *BIC*, 그리고 *SABIC*는 낮은 값을 나타낼수록 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계층의 수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Entropy* 지수는 하나의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고 다른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값이 증가한다. 범위는 0~1 사이이며, 대략 0.8 이상이면 좋은 분류라고 할 수 있다 (Muthén, 2004). 제시된 4개의 모형 모두 비교적 좋은 분류율을 보였으며, 2계층 모형과 5계층 모형의 *Entropy* 지수가 높았다. 또한 모형의 비교검증을 의미하는 *LMR*, *BLRT*의 경우 현재 계층(*k*)과 하나 적은 계층(*k*-1) 비교의 유의수준을 제공하며, 5계층 모형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대비 계층의 최소비율은 모두 2~5계층 모형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때 5계층 모형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할 때 5계층 모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5계층 모형을 제외 하였을 때 2, 3, 4계층 모형의 정보 준거지수, *Entropy* 지수, *LRT*, *BLRT* 결과는 일정 하지 않아 집단 수 판단에 근거로 미약하며 계층의 최소비율 역시 기준 미만으로 나타나 분류가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통계적 수치와 기존 연구에서 산출된 집단수에 근거하여, 모두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모형으로 4계층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나. 학교적응 잠재계층별 특성

성장혼합모형 분석에 의해 분류된 4개의 잠재계층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계층 별 학교적응 변화에 따른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값과 사례수를 <표 7>에 제시하였으며, 계층의 변화궤적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잠재계층을 분석한 결과, 유아기 학교적응 변화궤적에 따른 각 계층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계층 1은 1~3학년까지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4학년에 감소추세를 보이는 아동들로 78명(3.6%)을 차지하며 저수준-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2는 1,948명(90.6%)으로 가장 많은 아동비율을 차지하며, 1~4학년까지 높은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집단으로 고수준-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3은 1~4학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체 113명(5.3%)을 차지하며 최저수준-증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4는 계층 1과 마찬가지로 1~3학년까지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4학년에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집단으로 11명(0.5%)을 차지하며 최고수준-감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2] 학교적응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의 형태

〈표 7〉 잠재계층별 평균 성장요인의 모수 추정치

모수	구분	n(%)	초기치		변화율	
			M	SE	M	SE
계층 1	저수준-유지	78(3.6%)	3.679	0.094	-0.188	0.030
계층 2	고수준-유지	1,948(90.6%)	4.015	0.008	0.053	0.003
계층 3	최저수준-증가	113(5.3%)	2.9	0.066	0.433	0.024
계층 4	최고수준-감소	11(0.5%)	4.851	0.196	-0.006	0.002

다. 학교적응의 잠재계층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아의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을 선별하였다. 예측요인들의 영향력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한 집단을 기준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한 후에 승산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홍세희, 2005). 계수가 유의한 경우 독립변수가 기준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승산비(OR: Odds Ratio)를 제공한다. 승산비는 승산(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 간의 비율)의 증가배수이다(홍세희, 2005).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3가지 이상이므로 승산을 알기 위해 기준집단을 설정하고, 기준집단과 나머지 집단을 각각 대비시킨다.

승산비가 1보다 작을 경우 기준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에 속할 승산이 감소하고 기준집단에 속할 승산이 증가함을 의미하고, 승산비가 1보다 큰 경우 기준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에 속할 승산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승산비가 1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속할 승산에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승산비(OR)가 1보다 작으면 기준집단보다 비교집단이 될 가능성이 감소하고, 1보다 크면 가능성이 증가하고, 1이면 독립변수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학교적응 유형의 예측변인

기준집단	1집단: 저수준-유지								
	2집단 고수준-유지			3집단 최저수준-증가			4집단 최고수준-감소		
	β	S.E.	OR	β	S.E.	OR	β	S.E.	OR
학교준비도	1.48	.60	4.41*	1.42	.74	4.14	2.14	1.86	8.48
사회적 유능감	1.29	.71	3.63	-.45	.87	.64	-2.86	1.86	.06
놀이상호작용	-.46	.48	.63	-.68	.58	.51	2.05	1.37	7.80
놀이방해	-.79	.34	.45*	.66	.42	1.94	-.77	1.02	.46
놀이단절	.65	.33	1.92	.37	.40	1.44	-.19	1.039	.83

비교집단	2집단: 고수준-유지						3집단: 최저수준-증가		
	3집단 최저수준-증가			4집단 최고수준-감소			4집단 최고수준-감소		
	β	S.E.	OR	β	S.E.	OR	β	S.E.	OR
학교준비도	-.06	.50	.94	.65	1.77	1.92*	.72	1.83	2.06
사회적 유능감	-1.74	.59	.18**	-4.15	1.74	.02*	-2.41	1.82	.10
놀이상호작용	-.22	.39	.80	2.51	1.29	12.33	2.73	1.34	15.38*
놀이방해	1.45	.29	4.28***	.03	.96	1.03	-1.43	.99	.24
놀이단절	-.28	.25	.75	-.84	.98	.43	-.55	1.01	.58

* $p < .05$, ** $p < .01$, *** $p < .001$

저수준-유지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준비도가 증가할 때 저수준-유지 집단에 비해서 고수준-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승산)이 4.41배 증가하나, 놀이방해가 증가할 때는 저수준-유지 집단에 비해서 고수준-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승산)이 .45배 감소한다. 저수준-유지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할 때 저수준-유지 집단과 고수준-유지 집단을 구분해주는 것은 학교준비도와 놀이방해로 학교준비도가 증가할 때는 고수준-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은 증가하나, 놀이방해가 증가할 때는 고수준-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은 감소한다.

고수준-유지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유능감이 증가할 때는 고수준-유지 집단에 비해서 최저수준-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승산)은 .18배 감소하나, 놀이방해가 증가할 때는 고수준-유지 집단에 비해서 최저수준-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승산)이 4.28배 증가한다. 이는 고수준-유지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할 때 고수준-유지 집단과 최저수준-증가 집단을 구분해주는 것은 사회적 유능감과 놀이방해로 사회적 유능감이 증가할 때는 최저수준-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은 감소하나, 놀이방해가 증가할 때는 최저수준-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은 증가한다. 또한 고수준-유지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준비도가 증가할 때는 고수준-유지 집단에 비해서 최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승산)이 1.92배 증가하나, 사회적 유능감이 증가할 때는 고수준-유지 집단에 비해 최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승산)이 .02배 감소한다. 이는 고수준-유지 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고수준-유지 집단과 최고수준-감소 집단을 구분해주는 요인은 학교준비도와 사회적 유능감으로 학교준비도가 증가할 때는 최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확률은 증가하나, 사회적 유능감이 증가할 때는 최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수준-증가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놀이상호작용이 증가할 때는 최저수준-증가 집단에 비해서 최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승산)은 15.38배 증

가한다. 이는 최저수준-증가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할 때 최저수준-증가 집단과 최고수준-감소 집단을 구분해 주는 요인은 놀이상호작용으로, 놀이상호작용이 증가할 때는 최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시간 경과에 따른 학교적응의 발달궤적을 파악하여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잠재계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유형에 있어 잠재계층의 수와 형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초등학교 1~4학년의 학교적응 변화유형에 있어 4개의 집단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은 잠재계층의 형태에 따라 저수준-유지, 고수준-유지, 최저수준-증가, 최고수준-감소 집단으로 명명되었다. 계층 1은 초등학교 학교적응이 1~3학년까지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4학년에서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저수준-유지로 전체 사례수의 3.6%가 이 계층에 속한다. 계층 2는 초등학교 학교적응이 1~4학년까지 높은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성을 가진 고수준-유지로 전체 사례수의 90.6%가 이 계층에 속했다. 계층 3은 초등학교 학교적응이 1~4학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 최저수준-증가로 전체 사례수의 5.3%가 여기에 속했다. 마지막으로 계층 4는 첫 번째 계층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학교적응이 1~3학년까지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4학년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특성을 가진 최고수준-감소로 전체 사례수의 0.5%가 여기에 속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적응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할 것이라는 점과 같은 학년이라도 학교적응 변화궤적이 상이할 것이라는 선행연구(남지영, 김재철, 2017; 이희정, 조윤주, 2010; 전현희, 김성화, 2019)를 지지한다. 남지영과 김재철(2017)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들의 학교적응 발달궤적이 점진적 적응감소군(47.5%), 점진적 적응 증가군(2.9%), 고적응 유지군(13.7%), 저적응 유지군(2.2%), 점진적 미세 감소군(33.6%)의 총 5개의 집단으로 구분됨을 밝혔다. 전현희, 김성화(2019)는 초등학교 1~3학년까지의 아동들의 학교적응 발달궤적이 감소(19.5%), 증가(16.1%), 저수준유지(5.0%), 고수준유지(56.3%) 총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4개의 잠재계층을 토대로 변화형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저수준-유지 집단은 초기에 최저수준-증가 집단보다 높은 학교적응을 보였으나, 점차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수준-유지 집단은 가장 많은 아동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1~4학년까지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일정하게 학교적

응을 하고 있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에 잘 적응하는 아동은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원만한 대인관계와 높은 학업성취를 나타내어 꾸준히 학교적응을 잘 할 것 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수정, 곽금주, 2010; 이예진, 전은옥, 2019; 최옥희 외, 2009)와 맥락을 같이하며,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적응 수준이 이후 중학교 시기의 적응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정현희, 2003), 초등학교 적응이 아동의 사회, 인지, 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보고한 선행연구(Glenwick & Jason, 1993)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셋째 최저수준-증가 집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교적응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최저수준-증가 집단에 속한 아동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적응에 전혀 어려움이 없던 고수준-유지 집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저수준-증가 집단에게 미치는 긍정적 요인을 찾고 최고수준-감소 집단, 저수준-유지 집단에게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찾는다면 아동에게 미치는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넷째 최고수준-감소 집단은 전체 측정 시점에서 다른 세 집단에 비해 학교적응이 가장 높았으나 초등학교 4학년 이후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수준-증가 집단과 저수준-유지 집단과 비교하여 학교적응이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이며,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의 학교적응 변화에 대해 파악한 선행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4~6학년 시기까지의 학교생활 적응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선행연구(이정민 외, 2015)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교적응 수준이 감소했다는 선행연구(이은수 외, 2016; 최수빈, 유미숙, 2019),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까지의 학교적응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선행연구(남지영 김재철, 2017; 이영애, 정현희, 2016; 이희정, 조윤주, 2010)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 시점으로 학교적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에 있어서의 영향 요인인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 중 유의한 변수가 무엇인지 검증한 결과 놀이단절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유아기의 학교준비도가 높을수록 저수준-유지 집단보다는 고수준-유지 집단, 고수준-유지 집단보다는 최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고수준-유지 집단과 최고수준-감소 집단 모두 저수준-유지 집단보다 학교적응의 초기값이 큰 집단으로 학교준비도가 높을수록 초기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의 취학 전 학교준비도는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김태은, 2011; 안영혜, 2014; Heck, 1983)와 맥락을 같이한다.

유아기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을수록 최저수준-증가 집단과 최고수준-감소 집단보다는 고수준-유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사회적 유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아동의 성공적인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유능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사회적 유능감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강수령, 이경남, 2001; 김수정, 박금주, 2010; 이강훈, 2018; 이보경, 김지은, 2019; 이상희, 오새니, 2019; 이순아, 임선아, 2019, 이지영, 이상희, 2019)와 맥락을 같이한다.

유아기의 놀이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최저수준-증가 집단보다는 최고수준-감소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최고수준-감소 집단은 고수준-유지 집단보다 학교적응의 초기값이 큰 집단으로 놀이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초기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이 긍정적인수록 초기 초등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지영, 이상희, 2019; 이희정, 2018)와 맥락을 같이한 결과이다. 이는 학령기 초기의 높은 놀이상호작용은 높은 학교적응을 갖게 한다. 하지만 놀이상호작용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집단의 형태보다는 감소하는 집단의 형태에 속할 가능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의 놀이상호작용은 초기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적응 변화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는 유아기에서 초등학교학령기로 이동하는 시점에서 아동은 학교환경의 큰 변화로 인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학년이 올라가면서 비슷한 환경에 머무르고 점차 학교적응을 하면서 놀이상호작용 외의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유아기의 놀이방해는 잠재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아의 놀이방해가 높을수록 고수준-유지 집단보다는 저수준-유지 집단 또는 최저수준-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유아의 놀이방해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의 성장이 부정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고수준-유지 집단은 학교적응의 초기값이 큰 집단으로 놀이방해가 높을수록 초기에 학교적응의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놀이방해가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정대현, 지성애, 2006; 최은정, 김금주, 2020)와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의 학교적응의 발달 양상에 따른 이질적 계층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정도가 학교적응 발달궤적에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초등학교 아동들의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교적

응의 변화궤적에 따라 서로 다른 잠재계층이 확인되었으며, 관련된 변인들이 각 잠재계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적응은 개인의 전생애에 따른 과정적 발달임을 이해하고, 잠재유형별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차별화된 학교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학교적응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아동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적응의 변화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함께, 학교적응에는 학령기 직전의 영향 요인인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적응을 위해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의 모든 변인은 패널 연구에서 조사된 담임교사의 설문보고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후속 연구에서 아동의 직접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아동 면담 또는 관찰 등의 질적 자료를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변인 간의 구조 및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사용했으므로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연구대상을 활용했다는 장점과 함께, 기존의 측정도구를 활용한 자료에 국한된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에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잠재계층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규모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1~4학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을 탐색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민서, 유미숙(2010). 초등학생의 놀이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4), 93-107.
- 강수령, 이경님(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 **동아교육논총**, 27, 161-179.
- 권혜진, 정혜옥(2015).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지원연구**, 10(4), 79-96. doi:10.16978/ecec.2015.10.4.004
- 기재희, 이숙(2017). 초등학생의 놀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모놀이학회지**, 8, 5-24.
- 김수정, 박금주(2010). 초등 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단기·중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9-37.
- 김수정, 박금주(2012).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인 간 관

- 런성에서 차이: 양육효능감, 자아개념 그리고 친사회성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3), 85-105.
- 김수정, 정윤경, 박현식(2018). 부모갈등 지각이 초등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 사회불안을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4), 21-41.
- 김은정(2009). 저학년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인지적·정의적 학습양식 구성요소의 영향 연구. **초등교육연구**, 22(1), 439-457.
- 김진미(2019). 학교준비도가 취학 이후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1111-1130. doi:10.22251/jlcci.2019.19.8.1111
- 김충일(2019).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아동, 부모, 교사의 특성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28(4), 171-187. doi:10.17643/KJCE.2019.28.4.10
- 김태은(2011). 초등학교 준비도 향상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학교생활 적응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68, 125-146.
- 김희수(2013). 교사용 유아 학습태도 척도 개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3(3), 1-17.
- 남지영, 김재철(2017). 방과 후 부모부재 유형과 학교적응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4(6), 281-306. doi:10.21509/KJYS.2017.06.24.6.281
- 박은영, 이순아(2018).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연계 연구의 동향 분석: 1998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6(4), 27-47. doi:10.22327/kei.2018.36.4.027
- 박정미, 홍순옥(2019).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유아의 학업능력, 가족 상호작용의 유형,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15, 83-108.
- 박화윤, 마지순, 천은영(2004). 유아의 놀이성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4), 285-298.
-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 안영혜(2014).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생활적응 프로그램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7, 51-82.
- 염미애, 문혁준(2008). 유아기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에 따른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관한 중단 연구. **유아교육연구**, 28(6), 91-119.
- 오새니, 이상희(2019). 성별에 따른 유아기 발달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8(3), 135-149. doi:10.17643/KJCE.2019.28.3.07
- 육아정책연구소(2018a).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와 코드북]**. <http://panel.kicce.re.kr/>에서 2020년 5월 18일 인출
- 육아정책연구소(2018b). **한국아동패널 도구 프로파일**. <http://panel.kicce.re.kr/>에서 2020년 5월 18일 인출
- 이강훈(2018).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중단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3(6), 399-425. doi:10.20437/KOAECE23-6-17

- 이보경, 김지은(2019). 유초 연계 교육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4(1), 5-33. doi:10.16978/ecec.2019.14.1.001
- 이상희, 오새니(2019). 유아기 미디어 이용이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8(2), 89-108. doi:10.21183/kjcm.2019.6.18.2.89
- 이순아, 임선아(2019).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학교준비도와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30(1), 221-233. doi:10.20972/Kjee.30.1.201903.221
- 이신숙, 이영선(2017).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7), 627-634. doi:10.5762/KAIS.2017.18.7.627
- 이영애, 정현희(2016).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7(2), 187-214. doi:10.14816/sky.2016.27.2.187
- 이예진, 전은옥(2019).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탐색: 어머니의 취업, 가정환경,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3(1), 101-121. doi:10.5718/kcep.2019.13.1.101
- 이완정, 김미나(2019). 유초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초등 1학년 교사의 인식이 학습자중심 수업활동을 매개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4), 21-36. doi:10.14698/jkce.2019.15.04.021
- 이은수, 이수용, 홍세희(2016).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만족도가 이용아동의 학교적응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0, 59-85. doi:10.17997/SWRY.50.1.3
- 이정민, 강수정, 이강이, 이순형(2015). 부모의 양육방식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4), 91-110. doi:10.5723/KJCS.2015.36.4.91
- 이지영, 이상희(2019). 유아개인변인, 또래놀이행동, 사회적유능감, 문제행동이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3(3), 171-199.
- 이희정(2018). 유아의 또래 놀이상호작용 종단적 변화궤적이 초등학교 1학년생의 또래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4(3), 387-407. doi:10.24159/joec.2018.24.3.387
- 이희정, 조윤주(2010).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2), 253-278.
- 장혜진, 김은철, 송신영(2014). 아동 개인 및 가정환경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 차이 연구. **초등교육연구**, 27(2), 95-122.
- 전현희, 김성화(2019).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적용한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도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제10회 한국아동패널 국제 학술대회**, 157-177.
- 정대현, 지성애(2006). 유아의 또래 상호 작용·유아-교사관계·다중지능과 초등학교 적응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6(3), 201-221.
- 정현희(2003). 중학교 진학 후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1(2), 36-46.
- 지성애, 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최수빈, 유미숙(2019). 후기 아동기 학교적응 변화에 대한 부모 방임과 학대 경향성의 동시 및 지

- 연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1), 1-15. doi:10.16983/kjisp.2019.16.1.1
- 최옥희, 김용미, 김영호(2009). 생태학적 변인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2(4), 133-160.
- 최은정, 김금주(2020).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초등 1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7(2), 215-234. doi:10.22155/JFECE.27.2.215.234
- 최지영, 양현주(2012). 취학 전 교육기관 유형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초기 적응 비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2), 265-286.
- 최혜영, 신혜영(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허은하, 김상림(2020).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능력과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20(1), 1-16. doi:10.21213/kjceec.2020.20.1.1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홍예지, 안혜령, 이강이, 최나야(2018).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 단절과 학교준비도의 관계: 사회적 유능감의 조절효과. **인간발달연구**, 25(3), 133-152. doi:10.15284/kjhd.2018.25.3.133
- Coolahan, K., Fantuzzo, J., Mendez, J., & McDermott, P. (2000). Preschool peer interactions and readiness to learn: Relationships between classroom peer play and learning behaviors and conduc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3), 458-465. doi:10.1037/0022-0663.92.3.458
- Duncan, G. J., Dowsett, C. J., Claessens, A., Magnuson, K., Huston, A. C., Klebanov, P., Pagani, L. S., Feinstein, L., Engel, M., Brooks-Gunn, J., Sexton, H., Duckworth, K., & Japel, C. (2007).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428-1446. doi:10.1037/0012-1649.43.6.1428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105-120.
- Glenwick, D. S., & Jason, L. A. (1993). Behavioral approaches to prevention in the community: a historical and theoretical overview. In D. S. Glenwick & L. A. Jason (Eds.), *Promoting health and mental health i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pp. 3-13). New York: Springer
- Gresham, F. M. (2002). Best practices in social skills training. In A. Thomas & J. Grimes (Eds.), *Best practices in school psychology* (4th ed.) (pp. 1041-1056). Maryland: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

-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Heck, A. O. (1983) *The education of exceptional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Book.
- Hedeker, D. (2004). An introduction to growth modeling. In D. Kaplan (Ed.),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 215-234).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Kagan, S. L., Moore, E., & Bredekamp, S. (1995). *Reconsidering children's early learning and development: Toward shared beliefs and vocabulary*. Washington, DC: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 Ladd, G. W. (2005). *Children's peer relations and social competence: A century of progress*.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doi:10.1111/j.1467-8624.1996.tb01785.x
- Murphey, D. A., & Burns, C. E. (2002).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4(2), 1-8.
-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In D. Kaplan (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 (pp. 345-368), Thousand Oaks, CA: Sage. Roorda, D. L., Koomen.
- Ramey, C. T., & Ramey, S. L. (2004). Early learning and school readiness: Can early intervention make a difference?. *Merrill-Palmer Quarterly*, 50(4), 471-491. doi:10.1353/mpq.2004.0034
- Raver, C. C., &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4), 363-385. doi:10.1016/S0885-2006(97)90017-X
- Richman, J. M., Bowen, G. L., & Woolley, M. E. (2004). School failure: an eco-interactive development perspective. In M. W. Fraser (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133-160). Washington, DC: NASW Press.
- Romano, E., Babchishin, L., Pagani, L. S., & Korehn, D. (2010). School readiness and alter achievement: Replication and extension using a nationwide Canadian survey. *Developmental Psychology*, 46(5), 995-1007. doi:10.1037/a0018880
- Rouse, H. L., & Fantuzzo, J. W. (2009). Multiple risks and educational well being: A population-based investigation of threats to early school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4(1), 1-14.
- Woolley, M. E. & Grogan-Kaylor, A. (2006) Perspective family factors in the context

of neighborhood: Promoting positive school outcomes. *Family Relations*, 55(1), 93-104. doi:10.1111/j.1741-3729.2006.00359.x

Wickrama, K. A. S., Lee, T. K., O'Neal, C. W., & Lorenz, F. O. (2016). *Higher-order growth curves and mixture modeling with Mplus: A practical guid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교신저자: 김상림,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slkim@inu.ac.kr

Abstract

Classification of the Potential Class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Influencing Factors: Applying Growth Mixture Model

Eun Ha Her

Doctoral Student, Dept. of Early Childhood Nature-Friendly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ang Lim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latent class according to the trajectory of changes in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 first and fourth grades and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For this purpose, the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of the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KICCE) were analyzed from the 7th year (2014) when the subject is 6 years old to the 11th year (2018) when the subject is 10 years old. The growth mixture model (GMM) was applied to derive the latent class according to the trajectory of changes in school adjustment of the first to four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whether school readiness, social competence, play interaction, play interference, and play interruption affect the latent class classification of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otential class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from the first to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was identified as four types (low-level-maintaining, high-level-maintaining, low-level-increase, and high-level-decrease). The group of low-level-maintaining, which showed a declining trend in the fourth grade after maintaining constant until the first and third grade, the group of high-level-maintaining, which maintained a constant high school adjustment, the group of low-level-increase, which

gradually increased, and the group of high-level-decrease, which kept constant from the first to the third grade and showed a sharp decline in the fourth grade, were classified into four latent classes. Second, the main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atent class type of school adjustment were school readiness, social competence, play interaction, and play interruption, and play interrup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revealed various changes and factors affecting them through a longitudinal study on changes i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suggests the necessity of appropriate measures for children's adaptation to elementary school.

- Key words: School Adjustment, School Readiness, Social Competence, Play Interaction, Play Interference, Play Interruption, Growth Mixture Model,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적용한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잠재계층 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토론문

김근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궤적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학교적응과 관련된 주요 요인인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PSKC) 7차(2014년)부터 11차(2018년)까지의 5개년도 데이터를 성장혼합모형(GMM) 및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잠재계층은 4가지 유형(저수준-유지, 고수준-유지, 최저수준-증가, 최고수준 감소)으로 분류하였고, 학교적응 잠재계층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 상호작용, 놀이방해로 나타났고, 놀이중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가 다양한 궤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냈다는 점에 있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분석에서 성장혼합모형 분석 이전에 잠재계층성장모형(Latent Class Growth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고 기술하였는데, 실제 사용한 모형은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입니다. 잠재계층성장모형(LCGM)은 성장혼합모형 중 집단 내 분산을 허용하지 않는 제약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적응의 변화궤적 분석에서는 잠재계층을 분류하지 않았으므로 잠재성장모형(LGM)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에서 “종단패널 자료의 특성상 연구대상의 탈락이 발생하며 7차~11차년도 조사 참여 대상은 각각 1,203명, 1,031명, 930명, 633명, 709명으로, 이는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2,078명 중에서 58.89%, 49.62%, 44.75%, 31.46%, 34.12%에 해당한다(표 1 참조)”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술한 조사 참여 대상 수는, 연구의 제한점에서 모든 변인은 담임교사의 설문보고 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고 기술한 바와 같이, 아동의 담임교사 수입니다. 조사 참여 아동은 7차~11차까지

각각 1620명, 1560명, 1525명, 1484명, 1434명입니다. 아동의 담임교사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독자로 하여금 아동패널의 조사 참여 아동 수와 혼동하게 할 수 있으므로 <표 1>의 연구대상 수는 아동의 담임교사 수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의 및 결론에서 학교적응 변화에 대한 4개의 잠재계층 및 잠재계층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준비도, 사회적 유능감,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연구진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선택한 놀이단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놀이단절이 분석에서 학교적응의 잠재계층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11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세션2 아동발달

세션2 아동발달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좌장: 진미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1.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과 또래애착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구진: 오인수(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반지윤(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 수료)

토론자: 이선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 존중감 변화양상과 관련 변인 탐색

연구진: 박혜숙(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 교수,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토론자: 정연아(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3.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과 아동기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의 연령에 따른 다집단 분석

연구진: 이순배(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정혜옥(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토론자: 강은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과 또래애착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

오인수¹²⁾ 반지윤¹³⁾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을 살펴보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폭력에 영향 미치는 경로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9차년도(초등학교 2학년, 2016년) ~ 11차년도(초등학교 4학년, 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총 1,317명을 대상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은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한 개인차를 보였다.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 자아존중감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조기 중재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주제어: 초등학교 저학년,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학교폭력 피해경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한국아동패널, 육아정책연구소

1. 서론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었던 학교폭력은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동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20년 7월 기준 총 20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청소년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 9회의 타법개정 이외에도 전부개정 1회, 일부개정 10회에 걸쳐 변화되었다. 2008년 3월 전부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성폭력을 포함하기로(제2조, 제5조제2항) 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신설하고(제16조제5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규정(제17조제8항) 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

12)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3)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 수료

하여왔다. 더불어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제1차(’05~’09), 제2차(’10~’14), 제3차(’15~’19)에 이어 현재 제4차(’20~’24)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절되기 보다는 그 양상이 점점 자연영화, 집단화, 흉포화, 조직화, 사이버폭력으로서의 확장 등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보도자료(2019.08.27.)의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6%로 지난해에 비해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정부 주도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였던 201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피해경험율이 12.3%로 나타나 그 실태가 매우 높았으나, 2013년 2.2%, 2014년 1.4%, 2015년 1.0%, 2016년 0.9%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된바 있으며 2017년 0.9%, 2018년 1.3%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로 그 흐름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응답율에 대한 동향이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은 학교폭력의 형태가 기존 전통적 괴롭힘에서 사이버 괴롭힘으로 확장되고 섹스팅과 집단 폭력, 피·가해 중복경험의 증가 등 새로운 측면이 학교현장에서 만연되고 있기 때문이다(양상, 오인수, 손지향, 2017; 오인수, 2014; 오인수, 이승연, 엄수정, 반지윤, 2019; 이수경, 오인수, 2012; 조윤오, 2013; Englander, 2013).

2020년 3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제2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2019년 4월 기준 학교폭력 피해경험 응답률이 초등학교 3.6%(45.5천명), 중학교 0.8%(10.1천명), 고등학교 0.4%(4.5천명)로 조사되어 7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이 가장 높게 파악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지난해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중학생이 0.1% 증가한 것에 비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9)의 2018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미취학 8%, 초등학교 76%, 중학교 15%, 고등학교 1%로 집계되는 등 학교폭력의 자연영화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은 이처럼 그 강도나 빈도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아동기에 경험한 괴롭힘이 내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한 선제적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차원적인데 개인수준과 맥락수준으로 그 범주를 나누어 볼 수 있다(김동민, 이미경, 심용출, 이창호, 2014).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에서 자기관련 인지인 자아존중감을, 맥락 수준에서 또래

환경인 또래애착에 주목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학교폭력의 개입을 위한 개별 접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인수준의 특성이다(최윤희, 박나리, 2018; 최춘자, 이수영, 2016).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에 확립해야하는 주요한 발달과업으로 괴롭힘과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오인수, 2008; 배미희, 최종진, 김청송, 2016).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이며, 개인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일컫는 개념(Neff, 2011)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잘 수용한다(Harter, 1990). Mussen과 Coner, Kagan(1974)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행동과 적응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건강한 발달은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적응 및 인성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나아가 긍정적인 자아실현을 돕는다. 남인숙(2008)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므로 쉽게 따돌림 피해자가 된다고 하였고, Austin과 Joseph(1996)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적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비평이나 자신의 실패에 대해 실망하거나 위축되는 등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유사하게 이덕남(2013)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자아가 건전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안정성이 결여되어 현실 세계의 고통을 회피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민선과 손병덕(2018)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였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홍주(2019)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에 영향을 주는 개인심리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고려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춘재 외(2000)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이 학교폭력에 더 취약하며,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은 다시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Slee(1995)의 연구에서는 괴롭힘 피해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특성이 나타났다. 이처럼 자아존중감과 괴롭힘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지만, 서로 상관이 높은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맺는 또래관계와 관련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으나, 또래관계는 자아존중감의 결과일 수 있다(이형실, 2014).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으나, 학령기 아동은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할 경우 또래애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권혜진, 성미영, 2014; 최자은, 문대근, 문수백, 2013)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보다 불안에 강하며 또래관계가 좋지 않고 자신감과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혀졌다(Rosenberg, 1965). 또한, 아동은 연령이 증가에 따라 성격 혹은 신념과

같은 심리사회적 준거로 자신을 묘사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어휘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 내용 또한 풍성해지고 추상적으로 발달한다(연진영, 김선애, 1991). 즉, 타인의 의견나 객관적 수행능력에 맞추어 자신에 대한 판단이 조정되기 때문에 대인관계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보다 중요해진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이들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래관계의 질 또한 높다는 연구결과와(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Leary & McDonald, 2003)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함에 따라 긍정적 자기개념을 내면화함으로써 친구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결과와도(Gomez, 1997)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며 평가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상황이나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 및 행동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 또래지지, 또래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또래애착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관계에서 부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했는데(박애선, 2016; Charalampous, et al., 2018; Murphy, Laible, & Augustine, 2017), 이러한 상관관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서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예측변인을 탐색한 안태용(2018)의 연구에서는 또래지지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김순혜(2012)의 연구에서는 친구지지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승산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보호요인으로 탐색되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관련 학교차원 보호요인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는 교사, 또래, 학교 범주 중 또래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전체 변인 중 또래지지가 가장 큰 부적 효과크기를 나타냈다(이숙정, 박소연, 이희현, 유지현, 2015) 종합해보면, 아동이 또래애착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상황에 따른 적응력이 떨어져 괴롭힘의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또래관계에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폭력은 선행적인 부적응 문제와 개인의 외현화, 내재화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윤소영, 유미숙, 2011; 조주영, 오인수, 2014),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모두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김민선, 손병덕, 2018; 김순혜, 2012; 이숙정, 박소연, 이희현, 유지현, 2015; 임재연, 이선숙, 박종효, 2015). 즉, 학교폭력 피해경험 자체는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지만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가치관 및 자기개념, 또래지지, 또래관계의 질, 또래애착 등 보호요인에 따라 그 부정적 결과는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교폭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인권피의식 등 개인내적변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있을뿐(염동문, 임채영, 정현태, 2015; 이창식, 박지영, 장하영, 2016),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

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심각성과 그 경로에서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이는 다양한 매개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진주와 김정민, 문대근, 이종각, 문수백(2012)의 집단따돌림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횡단 자료를 통해 직접적인 경로만을 확인했을뿐 중단적인 변화와 그에 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학년별 하위 표본 구분에 있어서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저학년) 및 3~4학년(중학년), 5~6학년(고학년)으로 구분한 연구(권경덕, 지삼엽, 이재빈, 정영주, 2009; 이희란, 2015; 최신영, 안이환, 2013)와 초등학교 1~3학년(저학년) 및 4~6학년(고학년)으로 구분한 연구(노소영, 김계하, 2012; 배성진, 김경숙, 2020; 이윤정, 이정임, 유희, 정재은, 2012) 등 연구 방법에 따라 적절한 학년별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을 확인함에 있어 초등학교 2~4학년을 저학년으로 보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은 고학년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임과 동시에 발달단계상 2차 성장에 뚜렷한 개인차가 나타나는 5학년과는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1~7차년 데이터에서 몽정 시작 시기의 평균은 13.2세, 초경 시작 시기의 평균은 12.3세인 것으로 파악되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신체적 변화가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장민선, 최환용, 김기현, 하형석, 유민상, 조성호, 2017). 또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저학년의 자아존중감을 탐색한 연구(정미순, 방기혁, 2008), 초등학교의 인성 특성을 고려하여 2~4학년을 저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이영성, 유관희, 2006), 초등학교의 연령별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1~4학년(저학년)과 5~6학년(고학년)을 구분하여 성교육 교재를 개발한 연구(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9.11.05.),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본 수학부진아 연구(김수미, 2010) 등 연구 방법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을 살펴보는데 있어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까지를 저학년으로 개념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을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이 또래애착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분석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조기 중재를 위한 교육학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교 저학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초등학교 저학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 초기치와 변화율은 또래애착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9차년도(2016년) ~ 11차년도(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PSKC는 한국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정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2008년 4~7월 중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으며, 성인기를 진입하는 2027년까지 매해 일반조사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발달과업이 일어나는 민감적 시기에 심층조사가 실시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3년간 표본 유지된 초등학교 저학년 1,317명으로 남자 667명(50.6%), 여자 650명(49.4%)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5.0과 AMOS 25.0을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성을 확인하였다(Kline, 2016). 셋째,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넷째, 9차년도(초등학교 2학년, 2016년) ~ 11차년도(초등학교 4학년, 2018년)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양상과 변화 궤적의 개인차를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으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초등학교 저학년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과 또래앓이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조모형에서 확인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95% 신뢰구간에서 양측 검증으로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χ^2 , RMSEA와 증분적합지수 NFI, CFI 등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NFI나 CFI는 .90 이상이면 수용할 만하고(Kline, 2016; 배병렬, 2017) RMSEA는 .10이하일 때 적합하며 .06이하이면 매우 잘 적합시킨다고 본다(Hu & Bentler, 1999).

3. 측정도구

가. 독립변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분석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이 되는 9차년도(2016년) ~ 11차년도(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Millennium Cohort

Study(2008)에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아동의 연령에 맞게 5 문항으로 축소하여 조사한 것을 PSKC 연구진이 응답자의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나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를 좋아한다' 등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하는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5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가 .40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α 는 초등학교 2학년 .726, 초등학교 3학년 .772, 초등학교 4학년 .832이었다.

나. 종속변수: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분석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인 11차년도(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PSKC 연구진이 구성한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7문항 이루어져 있다. 문항 내용은 '다른 학생(친구)에게 뺨, 얼굴, 머리 등을 주먹이나 발로 맞은 적이 있다', '다른 학생(친구)에게 왕따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다른 학생(친구)에게 험담, 심한(상스러운) 욕설 등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니', '다른 학생(친구)이 OO(이)를 고의적으로 툭툭 치고, 심부름을 시키고, 숙제를 해 오라는 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다른 학생(친구)에게 돈이나 물건(학용품, 가방, 시계 등)을 빼앗긴 적이 있다.', '다른 학생(친구)에게 "시키는데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등의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다른 학생(친구)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적이 있다.'로 구성되며, 각 문항 응답 범주는 '일주일에 여러번' 1점, '1주일에 1~2번' 2점, '한달에 2~3번' 3점, '한달에 1번' 4점, '1년에 1~2번' 5점, '없다' 6점으로 하는 6점 Likert 척도이다. 모든 응답 범주는 역코딩하되 '없다'는 0점으로 리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경험 7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가 .40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문항묶음(item parceling)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추출 요인 수를 1개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다음, 공통성(communality)의 크기를 기준으로 피해경험1, 피해경험2 차례대로 문항을 배치하여 2개의 측정변수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극단적으로 정적인 편포를 이루고 있어서 정규성의 가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공된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다. 매개변수: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분석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인 11차년도(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 & Greenberg(1987)의 애착 척도(IPPA: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중 일부만을 사용한 척도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또래애착의 하위 영역은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 소외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내용은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의사소통)’,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신뢰)’,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소외)’ 등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하는 4점 Likert 척도이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들은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또래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또래애착 9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중상관관계(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가 .40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의사소통 2문항, 신뢰 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초등학교 4학년 또래애착의 Cronbach's α 는 .803이었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정규성 확인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분석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먼저, 주요 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 값을 확인한 결과, 주요 변수의 왜도 절대값은 .24에서 2.01 사이였으며, 첨도 절대값은 .01에서 4.34 사이로 나타나 모든 변수가 검증 기준(Kline, 2016; West, Finch & Curran, 1995)을 따르고 있어 본 자료가 정규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또래애착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또래애착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부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주요 변수 간 모든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는 절대값 .06~.47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	A	B	C	D	E
자아존중감 (초2) A	1				
자아존중감 (초3) B	.38***	1			
자아존중감 (초4) C	.30***	.47***	1		
또래애착 (초4) D	.19***	.30***	.45***	1	
학교폭력 피해경험 (초4) E	-.06*	-.14***	-.20***	-.27***	1
평균	3.45	3.48	3.50	3.17	.15
표준편차	.44	.43	.46	.54	.41
왜도	-.93	-1.33	-1.28	-.35	2.01
첨도	.98	2.81	2.44	-.01	4.34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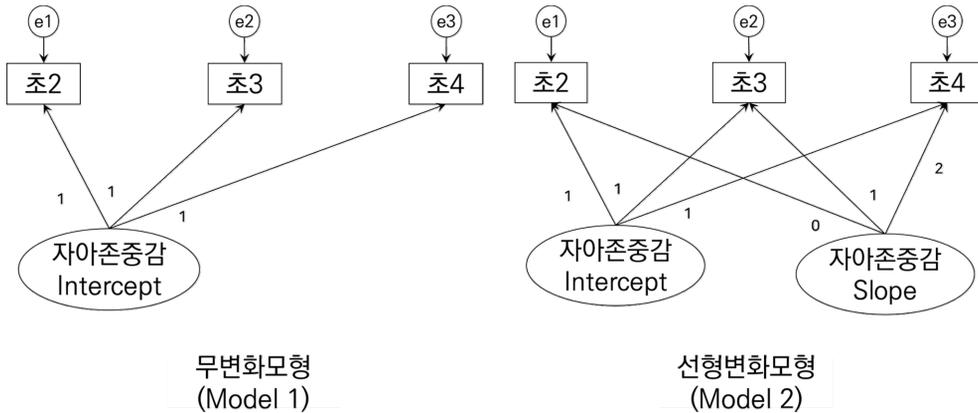
2. 초등학교 저학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 무조건모형

초등학교 저학년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무조건모형으로 변화를 추정해 보았다. [그림 1]과 같이 초기치와 변화율을 잠재변수로 설정하고, 초기치(Intercept)에서 측정변수로 가는 경로계수는 1로 하였고, 변화율(Slope)은 0, 1, 2로 하여 선형변화모형을 설정하였다. 〈표 2〉와 같이, 무변화모형(Model 1)과 선형변화모형(Model 2) 두 개의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무변화모형(no-growth model)은 3년간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모델이며, 선형변화모형(linear growth model)은 3년간 자아존중감이 선형적으로 변화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모델이다. 선형변화모형과 무변화모형에 대한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3)=59.715$ 로 유의수준 $p < .05$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좋음을 확인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표 2〉 무조건모형의 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TLI	CFI	NFI	RMSEA
Model 1. 무변화모형	60.919**	4	.917	.889	.882	.082
Model 2. 선형변화모형	1.204***	1	.998	.997	.994	.012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1]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무조건모형

다음으로 <표 3>에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의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아존중감 초기치의 평균은 3.543 ($p < .001$)이었으며, 분산은 .083 ($p < .001$)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에 유의미한 개인차가 나타났다. 이것은 최초 측정시점인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이 개인 사이에서 유의하게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율을 살펴보면 평균은 .026 ($p < .001$)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변화율의 분산은 .028 ($p < .001$)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이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3년간 자아존중감이 변화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하게 변화율의 정도가 개인 사이에서 유의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9차년도(초등학교 2학년)부터 11차년도(초등학교 4학년)까지 자아존중감은 평균 0.26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공분산은 -.012 ($p < .05$)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시간에 따른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에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 학생일수록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존중감 수준이 느리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9차년도에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초등학교 2학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증가 속도가 더디게 진행된 반면, 9차년도에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았던 초등학교 2학년은 자아존중감의 증가 속도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9차년도에 측정된 자아존중감 값이 높을수록 해마다 증가하는 폭이 더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이 다른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통계적 단계인 조건모형으로 넘어 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3〉 선형변화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 분산, 공분산

구분		평균 (S.E.)	분산 (S.E.)	공분산
자아존중감	초기치	3.543*** (.012)	.083*** (.010)	
	변화율	.026*** (.007)	.028*** (.005)	-.012*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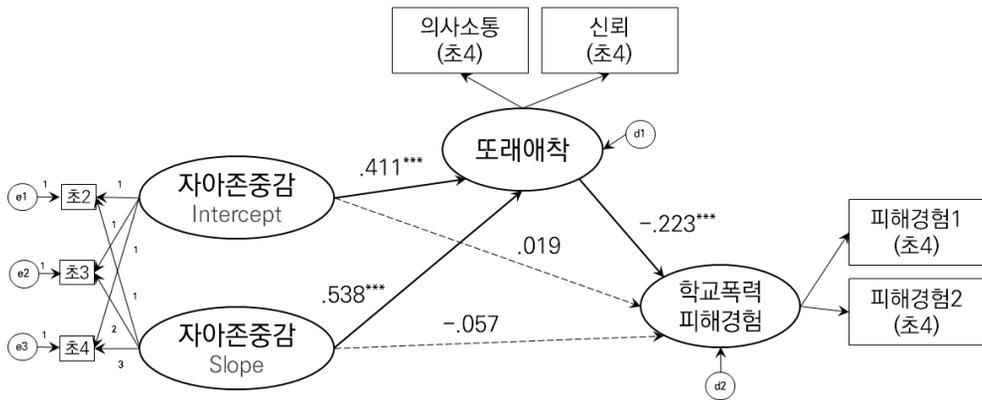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조건모형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또래애착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표 4〉, [그림 2]와 같이 분석결과, $\chi^2=11.996(df=10, p=.001)$, TLI=.998, CFI=.997, NFI=.994, RMSEA=.012로 조건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건모형의 분석결과

Path	B	β	S.E.	C.R.
자아존중감 초기치 → 또래애착	.699	.411***	.068	10.214
자아존중감 변화율 → 또래애착	1.560	.538***	.188	8.289
자아존중감 초기치 → 학교폭력 피해경험	.013	.019	.035	.367
자아존중감 변화율 → 학교폭력 피해경험	-.064	-.057	.076	-.842
또래애착 → 학교폭력 피해경험	-.085	-.223***	.023	-3.753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2] 초등학교 저학년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조건모형

초등학교 저학년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초기치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beta=.019, p=n.s$)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또래애착($\beta=.411, p=.001$)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변화율도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beta=-.057, p=n.s$)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또래애착($\beta=.538, p=.001$)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또래애착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23, p=.001$).

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MLGM)에 대한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ping을 통해 확인하였고, 매개변수의 간접효과를 추정된 결과는 <표 5>에 요약하였다. ‘자아존중감 초기치 → 또래애착 →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 변화율 → 또래애착 →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완전매개 경로는 $p<.05$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에서 자아존중감 초기치와 변화율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으므로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 초기치, 변화율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알 수 있다.

<표 5> 조건모형의 직·간접 효과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간접 신뢰구간
	B	β	B	β	B	β	
자아존중감 초기치 → 또래애착 → 학교폭력 피해경험	-.047	-.072	.013	.019	-.060*	-.091*	-.172~-0.030
자아존중감 변화율 → 또래애착 → 학교폭력 피해경험	-.196	-.177	-.064	-.057	-.133*	-.120*	-.217~-0.039

* $p<.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또래애착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 동안 자아존중감 관련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횡단적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종단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또래애착,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어려웠고, 특히 자아존중감 발달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의 개인 간 차이를 추정하고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 초기치와 변화율은 아동마다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화율에 개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3년간 자아존중감을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이 주변 환경이나 개인적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심리적 변수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탐색된 부모양육태도, 부모의 학대, 교사의 민주적 지도행동, 학교환경 등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김도희, 2020; 남석희, 2019; 우수정, 2018; 연은모, 최효식, 2019),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과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은 물론 성장과 전반적 발달에도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가정 및 환경 등 여러 환경적 요인에 따른 개인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 수업체제(Campbell, 2008)와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에 따른 생활지도(강은영, 박윤정, 서효정, 박경옥, 2018), 학습자 중심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수업(이지연, 김영환, 김영배, 2014), 종합 학교상담 프로그램(오인수, 2003) 등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 초기치와 변화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완만하게 증가하며,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높았던 아동은 3학년, 4학년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느리게 증가하였으나, 2학년 시기에 자아존중감이 낮았던 아동은 3학년, 4학년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2학년의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3년간 자아존중감이 완만하게 증가한 정익중(2007)의 연구결과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대상으로한 정수정과 김소은, 정익중(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발달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의 경향은 자아존중감의 천장효과(ceiling effect)로 설명할 수 있는데(Bingham, 1983; Brody et al., 2006; Park & Park, 2019),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최대값 5점 중 3.543점)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울기의 증가 수준에 제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최대값이 정해진 상황에서 무한정으로 높아지기 어려운 한계(우측 절단)가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의 증가율이 완만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는 자아존중감의 공분산이 부적으로

유의함이 뒷받침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높으면 기울기 변화량은 줄어들며 반면에 초기치가 낮으면 그만큼 기울기가 변화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변화량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관찰변수중심적 접근인 잠재성장모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 초기치와 변화율은 각각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또래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초등학교 2학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또래애착이 높고 연령 증가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또래애착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또래애착 중 의사소통, 신뢰, 소외에 각각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박윤조, 김영미, 송하나, 2019)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소중함을 느끼는 등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한 아동일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타인을 잘 수용하고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고, 믿음을 형성하여 신뢰로운 또래관계를 유지하게되며, 또래와의 협력이나 조정에서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서 소외되는 등 실패해본 경험이 있을 경우 또래애착을 낮게 인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아동에게는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김선희, 강문희, 2018) 제공하기에 앞서 아동의 개인 내적 강점인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심리사회적 역량으로 구성한 또래관계 향상시키는 집단 프로그램(송영화, 최준섭, 2018;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3), 무너진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밀보장과 상담자와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한 자아존중감 회복 중심의 개인상담(김미혜, 2016)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분석학적 개인상담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본능이나 초아자의 기능을 조절하고 자아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심층적 탐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백상빈, 김호찬, 2009). 이처럼 자아존중감의 초기치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결과는 횡단 연구결과로서 해석되는데 국내외 연구결과는 비교했을 때 그 결과가 일관되고 있기에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또래애착의 예측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 초기치와 변화율은 각각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은 또래애착을 통해 완전매개하여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또래애착과 같은 또래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또래관계에 대한 패배 의식, 열등감, 높은 자기비하 수준,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학교유대감과 낮은 친구지지 등 경향을 보인다(양상, 오인수, 손지향, 2017; 오승환, 2007; 이승

연, 오인수, 이주연, 2014).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학생은 자기주장이 약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서 쉽게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최수미, 김동일, 2012; Postigo & González, 2012).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교폭력 피해경험 아동의 사회정서 역량을 향상시키고 원만하게 또래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상담 교사의 전학교 접근(whole-school approach)을 구조화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오인수, 2010). 특히, 사회정서 역량(social-emotional competency)은 자기인식(self-awareness), 자기관리(self-management),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 대인관계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책임 있는 의사결정(responsible decision making)의 5개 하위 역량으로 구성되며(Greenberg et al., 2003; Zins, Weissberg, Wang, & Walberg, 2004), 국내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 또한 입증되고 있다(김안나, 오인수, 반지윤, 곽상경, 허은주, 정한솔, 2019; 박효정, 김현진, 한미영, 2016; 성윤숙, 구본호, 김현수, 2020; 이지혜, 2016; 정제영, 이승연, 오인수, 강태훈, 류성창, 2013; Olweus, Solberg, & Breivik, 2018; Zych, Beltrán-Catalán, Ortega-Ruiz, & Llorent, 2018).

본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또래애착이 완전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피해경험 예방 및 증재에 대한 개입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집중함과 동시에 또래애착 향상을 통한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개인수준과 함께 맥락수준에서의 사회적 인식 역량과 대인관계 관리 역량에도 중점을 두어야 함을 제안한다. 사회적 인식 역량은 타인의 관점이나 문화, 감정을 수용하고 공감하는 등 다양성 이해와 타인 존중을 도모할 수 있고, 대인관계 관리 역량은 경청과 같은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해결 기술, 또래관계 세우기, 또래에게 도움 제공 등 또래관계의 원활한 소통과 긍정적 유지를 도모하기 때문에 또래애착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 전문상담 교사의 전학교적 접근을 통해, 다층수준 접근(multilevel Approach)으로 개인수준인 자아존중감과 맥락수준인 또래애착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김동민, 이미경, 심용출, 이창호, 2014; 오인수, 2003, 2010). 구체적으로 개인상담과 심리검사를 통한 개인수준의 자아존중감 수준 스크리닝을 바탕으로 또래애착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또래관계 질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재량활동, 학급구직 시행을 통한 학급원 간 약속 지키기, 또래도우미를 통한 괴롭힘 위험 모니터링, 담임교사 또는 교과 담당교사에게 협동학습 교수법을 제공하여 또래 간 협력적 분위기 조성 등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생, 교사, 학교 다층수준에서 또래애착 증진을 위한 상담목표를 구조화하는 선제적 개입(proactive approach)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 시기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 이르는 3년간의 단기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전체 혹은 청소년 전체의 발달단계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한정하여 해석해야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단일차원으로 보았다. 자아존중감의 다차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개인적 차원(개인적 평가 바탕), 관계적차원, 집합적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Du, King, & Chi, 2017; Sedikides et al., 2013). 각 하위영역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관찰변수중심적 접근임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있음을 확인했으나(Duncan, Duncan, Sedikides, Gaertner, Luke, O'Mara, & Gebauer, 2013), 이러한 개인차에 따른 상이한 영향력을 면밀히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의 실재를 개인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관찰대상중심적 접근의 필요성이 있다(Nagin, 1999).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횡단적 접근에서 벗어나 종단적 접근법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구조모형을 통해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이 매개하는 경로를 구조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 변화를 보이며, 자아존중감의 개인 내적 속성은 또래애착을 완전매개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 추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받는 변수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개인수준 뿐만 아니라 맥락수준인 또래애착에 중점을 둔 학교폭력 예방의 교육학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강은영·박윤정·서효정·박경옥(2018).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 및 실행의 질적 향상 방안: IEP 유형 제안 및 질적 지표 활용 필요성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53(1), 137-163.
- 권경덕·지삼업·이재빈·정영주(2009).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을 통한 사회성 발달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4(2), 14-29.

- 권혜진·성미영(2014).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4), 395-403.
- 교육부 보도자료(2019.08.27.)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Retrieved 5 July, 2020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opType=N&boardSeq=78346>
- 김도희(202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의 직렬다중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8(5), 485-495.
- 김동민·이미경·심용출·이창호(2014). 학교폭력 영향 요인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2(2), 441-458.
- 김미혜(2016). **한부모 가정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인상담의 효과**.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손병덕(2018).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12(2), 139-157.
- 김선희·강문희(2018). 또래관계증진 융합프로그램이 농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6(4), 167-173.
- 김수미(2010).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부진아의 수세기 능력 연구. *수학교육학연구*, 12(2), 137-150.
- 김순혜(2012).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아동교육*, 21(3), 5-17.
- 김안나·오인수·반지윤·곽상경·허은주·정한솔(2019). **더불어 행복한 학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중심 사회·정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대한적십자사.
- 김현령·김혜숙(2017). 초등학생의 자기가치 판단근거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초등상담연구*, 16(4), 411-436.
- 남석희(2019). 초등학생들이 지각한 학교스포츠클럽 교사의 지도행동과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4(3), 217-227.
- 남인숙(2008). 따돌림예방을 위한 자아존중감의 유용성. *사회이론*, 33, 135-165.
- 노소영·김계하(2012).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의 성 성숙과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3(4), 405-414.
- 박애선(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1(1), 97-106.
- 박윤조·김영미·송하나(2019).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8(2), 1-24.
- 박효정·김현진·한미영(2016).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른 어울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효과 분석. *교육학연구*, 54(4), 101-126.

- 배미희·최중진·김청송(2016).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예측모형 연구. **청소년학연구**, 23(8), 385-413.
- 배병렬(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배성진·김경숙(2020). 음악극 창작활동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력,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7(1), 51-70.
- 백상빈·김호찬(2009). 정신분석과 자아심리학적 치료.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11(1), 25-4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9.11.05.). **보고, 느끼고, 이야기하는 건강한 성교육! E-book 형태의 성교육 교재 'Let's talk 건강한 우리들의 성' 제작·보급**. Retrieved 13 August, 2020 from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388686>
- 서봉언(2017). 청소년 사이버 비행 영향요인 분석: 학교급별 차이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5(1), 77-99.
- 성윤숙·구본호·김현수(2020).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적 적용방안 탐색. **청소년학연구**, 27(2), 363-383.
- 송영화·최준섭(2018). 심리사회적 역량 증진을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용 또래관계 프로그램 개발: 어울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초등상담연구**, 17(4), 537-557.
- 안태용(2018). 학교폭력 피해경험 잠재계층, 예측 및 결과변인 탐색 : 성장혼합 모형 검증. **초등상담연구**, 17(1), 81-101.
- 양상·오인수·손지향(2017). 한국과 중국 중학생 괴롭힘의 가해, 피해 및 가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비교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8(3), 413-440.
- 연은모·최효식(2019).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교환경,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 관계: 집행기능론, 성별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7), 121-140.
- 연진영·김선애(1991). 아동의 자기-지식의 발달. **아동학회지**, 12(2), 18-36.
- 염동문·임채영·정현태(2015).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31(4), 401-423.
- 오승환(2007).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분석. **정신보건과사회사업**, 25, 74-98.
- 오인수(2003). 종합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초등학교 적용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28, 55-155.
- 오인수(2008). 초등학생의 학교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에 따른 심리적 요인. **초등교육연구**, 21(3), 91-110.
- 오인수(2010). 학교상담: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한 전문상담교사의 전학교 접근. **상담학연구**, 11(1), 303-316.

- 오인수(2014). 성별에 따른 유형별 공격성과전통적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가해의 관계. **상담학연구**, 15(5), 1871-1885.
- 오인수·이승연·엄수정·반지윤(2019). **학교폭력 유형별 실태 및 영향 요인 탐색(I):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영향요인 탐색**.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우수정(2018). 부모의 아동학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인터넷 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771-786.
- 유안진·한유진·김진경(2003). 시설 보호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역량 프로그램의 효과.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2), 109-121.
- 윤소영·유미숙(2011).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정서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4), 59-75.
- 윤홍주(2019).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영향요인. **교육논총**, 29(4), 1-20.
- 이덕남(2013).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를 통한 교정정책연구: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9(1), 169-179.
- 이수경·오인수(2012). 사이버 괴롭힘과 오프라인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3(2), 137-161.
- 이숙정·박소연·이희현·유지현(2015). 학교폭력 피해경험 관련 학교차원 보호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29(3), 633-652.
- 이승연·오인수·이주연(2014).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 피해, 가해-피해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 **청소년학연구**, 21(5), 391-416.
- 이영선·유관희(2006).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한 컴퓨터게임과 인성특성과의 관계 분석.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 9(9), 84-92.
- 이윤정·이정임·유희·정재은(2012).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5(4), 149-167.
- 이지연·김영환·김영배(2014). 학습자 중심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수업의 적용 사례. **교육공학연구**, 30(2), 163-191.
- 이지혜(2016). 국가수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서의 모듈 간 관계 검증: 어울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4(2), 187-212.
- 이진주·김정민·문대근·이종각·문수백(2012).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인간발달연구**, 19(3), 167-188.
- 이창식·박지영·장하영(2016).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권피해 인식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4(1), 37-44.
- 이춘재·곽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이형실(2014).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간 관련성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4), 75-83.
- 이희란(2015). 초등학교 1-4학년 한 학생의 일기문 분석 중단연구: 구문복잡성과 담화 형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5), 503-518.
- 임재연·이선숙·박종효(2015). 학교폭력 피해유형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6(2), 5-34.
- 장민선·최환용·김기현·하형석·유민상·조성호(2017).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세종한국법제연구원.
- 정미순·방기혁(2008). 식물 가꾸기 활동이 초등학교생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 실과교육학회지**, 21(1), 37-61.
- 정수정·김소은·정익중(201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초등학교 시기 자아존중감 발달 궤적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9(6), 15-25.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47, 127-166.
- 정제영·이승연·오인수·강태훈·류성창(2013). 주변인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과학연구**, 44(2), 119-143.
- 조운오(2013).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실태 및 유발요인 차이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1), 155-179.
- 조주영·오인수(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유형변화 및 정서문제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75, 301-323.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9). **2018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서울: 푸른나무재단
- 최수미·김동일(2012). 사회적 기술, 따돌림 피해경험, 내면화 문제행동간의 인과적 모형 탐색. **상담학연구**, 13(1), 135-148.
- 최신영·안이환(2013).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초등상담연구**, 12(1), 13-32.
- 최윤희·박나리(2018).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집단놀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24(4), 193-220.
- 최자은·문대근·문수백(2013).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1), 99-111.
- 최춘자·이수영(2016). 어울림프로그램의 실재를 통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급응집력 등이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경영연구**, 3(2), 107-131.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 Austin, S., & Joseph. S. (1996). Assessment of bully/ victim problems in 8 to

- 12 years 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4), 447-456.
- Armsden, G C., & Greeh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L.,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 Bingham, W. C. (1983). Problems in the assessment of self-esteem.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6, 17-22.
- Brody, G. H., Chen, Y. f., Murry, V. M., Ge, X., Simons, R. L., Gibbons, F. X., Cutrona, C. E. (2006).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the adjustment of African American youths: a five-year longitudinal analysis with contextual moderation effects. *Child Development*, 77(5), 1170-1189.
- Campbell, B. (2008). *Handbook of differentiated instruction using the multiple intelligences: lesson plans and more*. Boston: Pearson Allyn & Bacon.
- Charalampous, K., Demetriou, C., Tricha, L., Ioannou, M., Georgiou, S., Nikiforou, M., & Stavrinides, P. (2018). The effect of parental style on bullying and cyber bullying behaviors and the mediating role of peer attachment relationship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64, 109-123.
- Du, H., King, R. B., & Chi, P. (2017).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revisited: The roles of personal, relational, and collective self-esteem. *PLoS ONE*, 12(8), 1-17.
- Duncan, T. E., Duncan, S. C., Strycker, A. L., Li, F., & Alpert, A. (1999).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nglander, E. K. (2013). *Bullying and Cyberbullying: What Every Educator Needs to Know*. 오인수 (역) (2020). 사이버 괴롭힘의 이해와 대처. 서울: 박영스토리.
- Gomez, L. (1997). *An Introduction to Object Relatio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Greenberg, M. T., Weissberg, R. P., O'Brien, M. U., Zins, J. E., Fredericks, L., Resnik, H., & Elias, M. J. (2003). Enhancing school-based prevention and youth development through coordinated social, emotional, and academic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58*(6-7), 466-474.
- Harter, S. (1990). *Processes underlying adolescent self-concept formation*.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 (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transitional period?* (pp. 205-239). Newbury Park, CA: Sage.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Kaplin, H. B.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Y.: Academic Press.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eary, M. R. & McDonald, G.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steem: A Review and Theoretical Integration*. In M. R. Leary &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illennium Cohort Study (2008).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Retrieved 3 July, 2020 from <http://www.cls.ioe.ac.uk/page.aspx?&sitesectionid=957&sitesectiontitle=Surveys+and+documentation>
- Murphy, T. P., Laible, D., & Augustine, M. (2017). The Influence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on Bully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 1388-1397.
- Mussen, P. H., Coner, J. H., & Kagan, J. (197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3d Ed.) by Paul Henry Mussen, John Janeway Conger, and Jerome Kagan. New York: Harper & Row.
- Nagin, D. S. (1999).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4*, 139-157.
- Neff, K. D. (2011). Self-compassion, self-esteem, and wellbe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Compass*, *5*(1), 1-12.
- Olweus, D., Solberg, M. E., & Breivik, K. (2018). Long-term school-level effects of the 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 (OBPP).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61*(1), 108-116.

- Park, J. Y., & Park, E. Y. (2019). The Rasch Analysis of Rosenberg Self-Esteem Scale in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rontiers in Psychology, 10*(1992), 1-10.
- Postigo, S., & González, R. (2012). Predicting bullying: maladjustment, social skills and popularity. *Educational Psychology, 32*(5), 627-63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Psychological Review, 60*(1), 141-156.
- Sedikides, C., Gaertner, L., Luke, M. A., O'Mara, E. M., & Gebauer, J. E. (2013). A three-tier hierarchy of self-potency: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collective self.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 235-295.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Sage Publications, Inc.
- Zins, J., Weissberg, R., Wang, M., & Walberg, H. J. (2004). *Building academic success on social-emotional learning: What does the research sa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Zych, I., Beltrán-Catalán, M., Ortega-Ruiz, R., & Llorent, V. J. (2018).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 in Adolescents Involved in Different Bullying and Cyberbullying Roles. *Revista de Psicodidáctica (English ed.)*. 23(2), 86-93.

- 교신저자: 반지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aimervan@naver.com

Abstract

Developmental Trajectory of Self-esteem to Peer Attachment and Bullying Victimization among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Insoo Oh and Jiyeon Ban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self-esteem i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between self-esteem and their bullying victimization. To that end, using the data from the 9th year (for 2nd grades of elementary school, 2016) to 11th year (for 4rd grades, 2018)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implemented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KICCE),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MLGM)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ubject of totally 1,317 persons with the following results. First, self-esteem i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was found to increase significantly as they grow older, with significant individual variations in intercept and slope. Second, it was found that peer attachment completely mediates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bullying victimization i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ducation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on early intervention of bullying victimization i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 Key words: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Self-esteem, Bullying Victimization, Peer Attachment,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PSKC, KICCE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궤적과 또래애착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

이선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본 논문(오인수, 반지윤, 2020)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또래애착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분석된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 9차년도부터(2016년) 11차년도(2018년)까지의 것으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이전 연구들의 대부분이 횡단연구자료를 주로 사용한 것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들(예: 변화양상 추적 불가, 일회성 자료 분석에서 비롯된 결과의 신뢰성 문제)을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학교 폭력의 문제가 더 이상 10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닌 초등학교, 더 어리게는 미취학 아동에게서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개인내 변인과 개인간 변인(또래애착)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탐색한 본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이다. 전반적으로 연구 목적과 이론적 리뷰, 결과 및 논의 등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 독자들이 연구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본 토론을 통해서 연구에 대한 아쉬운 부분과 제안 사항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2학년부부터 4학년 학생들이다. 연구 문제의 하나인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을 탐색하기 위해서 참여 학생들의 연령이나 학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저자가 기술한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을 어떠한 시점으로 구분할 것인지는 연구자와 학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라는 종속 변인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포함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초등학교 2학년부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4학년의 경우, 아동 발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및 교수법 등 전반적인 교육활동에서 이전 학년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학년부부터 4학년까지를 저학년의 범주로 함께 포함한 것이 적절했는지 생각해볼 만하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안정적이면서도 불안정적인 개인 특성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을 추적하는 것을 주된 연구의 하나로 포함했을 것

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진단과 2년간의 변화 추이가 중장기적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감소시키며 나아가 또래관계와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예측하고 교육적으로 효과적으로 개입하는데 어떠한 정보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그 판단과 관련된 감정으로 정의된다(Berk, 2013). 전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이 교육학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이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고 인지적, 학문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린 시기에도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이것이 또래관계(애착)을 매개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설은 흥미로우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라는 요인이 다른 개인 변인들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유의미한 변인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보다 확고하게 자아정체성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적합한 변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발달궤적의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변화추이를 살펴보았으면 종속변수를 보다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했는지, 검사도구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한다. 가령, 자아존중감 검사도구가 오늘날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형성 및 발달과 관련된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궁금하다. 저자가 논의 부분에서 기술했듯이 자아존중감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총체(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도 제한점이다. 총체적인 자아개념이 또래라는 특정한 대상과 관련된 또래애착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자아존중감척도 대신 또래친구나 대인관계 형성과 관련된 자아개념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본다. 또래애착을 측정하는 문항들도 상당히 오래된 것(1987년 개발)이었고, 실제로 관련 내용을 측정하는 문항인지 궁금하다. 아동의 발달단계와 발달과업을 충분히 반영한 문항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종속변수인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각각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 6점 척도(예: 1주일에 여러번, 1주일에 1~2번, 1달에 2~3번, 1달에 1번, 1년에 1~2번, 없다)에 기반한 범주형 변수로 물어본 것과 범주 자체의 적합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내용의 적합성과 보고의 신뢰성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최근 들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신중호 외., 2015).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을 어떻게 유형화했고, 문항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궁금하다. 더불어 자기보고식 응답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라는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직한 응답을 도출하는데 최선의 방식이었는지도 생

각해볼 필요가 있다.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예: 부모나 교사 인식과의 비교)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몇 가지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저연령화되고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 주제는 시의적절하고 결과는 흥미로웠다. 향후 후속 과제를 통해서 청소년기 이전 학교폭력의 실태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아동기 학교폭력의 발생 경로와 유형, 발달 단계별 학교폭력의 발생요인과 억제요인, 그리고 부모와 교사 및 또래 친구의 영향 등을 탐색해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아동패널자료를 꾸준히 활용하여 발달연령과 발달과업에 적합한 개인내, 개인간 및 환경 변인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 및 교육에 유용한 후속 연구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해본다.[지면 관계상 참고문헌은 생략합니다.]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 존중감 변화양상과 관련 변인 탐색

박혜숙¹⁴⁾

요약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 9, 10, 11차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이 초1에서 초4까지의 자아존중감 변화양상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행복도, 부모양육태도(온정적 태도 및 통제, 감독), 학교에서의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를 2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4년 동안 자아존중감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4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그러나 모형에 사용된 관련 변수를 통제할 경우, 초기 값의 성차는 사라졌으나 변화율에 있어서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에 비하여 증가율이 높았다. 아동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행복감, 부모의 감독(양육), 어머니의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중 아동의 학교공부, 외모, 가족관계, 친구, 학교 및 일상의 생활과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진 삶에 대한 만족도/행복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다. 자아존중감 제고를 위하여 아동의 삶과 관련한 만족도를 제고함이 필요하다.

■ 주제어: 자아존중감, 다층성장모형, 아동만족도/행복도, 부모양육(지지), 부모감독

1. 도입

1. 연구목적

자아존중감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만병치료약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즉, 경제적 성공, 사회적 관계, 건강, 행복감(wellbeing), 개인적 성취 및 약물, 범죄에 대한 해독제로 간주되어지고도 있어(Brown, 1998), 미국의 경우(Orth & Robins, 2014)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목표가 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행동과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음이 밝혀지고 있다(Baumeister et al., 2003; 정익

14)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 교수,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중, 2007 재인용). 그 이유를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자아존중감의 예측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변화여부 및 변화 양상, 그리고 이에 미치는 여러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정익중, 2007).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종단자료가 구축됨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에 대한 종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년기에 막 들어선 저 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료구축이 늦게 됨으로 인하여 저 연령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본 연구는 드물다. 대체적으로 정신연령이 8세 쯤 되는 시기에 전반적인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이 나타난다는 주장(Harter, 1986, Brown, 1998 재인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자아존중감의 변화여부 및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다음 질문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자아존중감에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간주한다.

2. 연구문제

- 1) 초등 1학년생의 자아존중감은 4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가?
- 2) 자아존중감 초기값과 변화율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가?
- 3) 부모감독, 아동의 삶의 만족도(변화하는 변인) 및 초1 때의 부,모의 양육태도(온정적 태도/지지, 통제, 감독), 그리고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관련 연구

1. 자아존중감

정의적 측면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감정이며, 인지적 측면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에 대한 평가에 근거를 한다(Brown, 1988).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타인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믿음에서 싹트고 칭찬이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이숙정, 2006).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과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인지, 정서, 성격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정익중, 2007). 자기수용과 자기존경을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도, 청소년 비행, 학교적응,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인간관계, 일과 건강의 영역에서도 성공과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이기도 하다(박혜숙, 양상희, 2017:임선아,

2013; 윤희주, 2017; 정익중, 2007). 최근에는 국내에 여러 종류의 종단자료가 구축됨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을 살펴 본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박혜숙, 2019).

미국에서 진행된 다양한 연령(9세~90세)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 Robins, Trzesniewski, Tracy, Gosling, & Potter, 2002)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는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다. 반면, 아동기 중기에 자아존중감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종단연구에 의해서 항상 지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Cole et al., 2001; Huang, 2010; Kuzucu et al., 2013; Orth & Robins, 2014 재인용; McCarthy, & Hoge, 1982).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에 대하여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전기에서 중년기까지 증가하며, 이후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다(Orth & Robins, 2014).

국내에서 종단자료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자아존중감은 다른 변인들을 설명하는 변수로 자주 사용되었지만, 아동청소년 패널을 이용하여 중2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고1이 되었을 때까지의 자아존중감 변화양상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연구(정익중, 2007)에서는 자아존중감은 3년 동안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익중(2007)은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고 발달양태에 따른 세 그룹(저, 중, 고 그룹)으로 확인하고, 해당 그룹에 속할 확률을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매력, 학업성취도, 부모학대가 없고, 부모-자녀 간애착, 부모감독, 학교 애착이 높을수록 하위그룹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상위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수정, 김소은, 정익중(2018)의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비선형모형이 나올 수 없는 세 시점 자료를 사용하여 여러 모형(비선형모형 포함)을 비교하였다. 위 두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문항 중 부정문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정적 선형변화율을 보였다. 특히 초기값이 높고 변화율이 증가할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최희철(2019)도 아동청소년 패널의 초5에서 중1 세 시점 자료를 사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하였다. 자아존중감 문항 중 전체 총점과 상관이 낮은 1개 문항을 제거하고, 9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동일성 검정도 실시하였다. 선형변화 모형이 무변화모형보다 적합하며, 해석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네 개의 변화유형이 있음을 보였다. 최희철, 박강호(2018)는 경기도교육종단연구의 초4에서 중1자료를 사용하였고, 부정문항을 포함한 자아존중감 7개 문항을 이용하여 역시 잠재계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비선형모형이 적절함을 보였으며, 변화양상에 따른 네 개의 변화유형과 우울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한편 박혜숙(2019)은 아동청소년패널 초등 5학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초5, 중1, 중3, 고1) 즉 두 차례의 전환기를 겪는 동안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을 HLM 성장모형(Raudenbush & Bryk, 2002)을 사용하여 전체 아동의 평균 변화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은 비선형발달양상을 보였다. 박혜숙의 연구는 정의중(2007), 최희철, 박강호(2018), 최희철(2019)과는 달리 자아존중감의 10개 문항이 긍정 및 부정 문항들이 각각 별개의 요인으로 구성됨을 밝히고, 부정문항이 성에 따른 편파가 있다는 이유(Gitchel, Roessler, & Turner, 2011) 및 단일차원으로만 이루어진 긍정문항의 사용가능성(Halama, 2008) 때문에, 5개의 긍정문항만을 4회 자료에 대한 측정동일성을 점검한 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은 비선형변화양상을 보였고, 학업성취도에 대한 만족도,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는 Wylie(1979; Robins, et al., 2002 재인용)가 자아존중감은 나이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는 달리, 연구시점, 연구문항, 그리고 특히 사용된 자료의 차수(waves/ time points)에 따라 변화양상이 다를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동이 성장해감에 따라 아동, 청소년이 생활하는 가정 및 학교에서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그 효과 또한 아동의 다른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2. 아동의 삶의 만족도/행복도

삶의 만족은 자신의 삶에 대해 현재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주관적 평가(Diener, 1984)로서 스스로 설정한 기준과 삶의 여건이 일치하는 경우에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Pavor & Diener, 1993), 또는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행복감(김신영, 백해정, 2008)이며, 주관적 안녕감, 삶의 질, 행복감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스러운, 행복의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김용희, 한창근, 2017).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서 만족도는 부모, 친구, 교사, 외모, 그리고 성적과 관련된 학교 생활에 관한 것이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하여 학업성취도를 지나치게 강조해 왔고, 그 결과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OECD, 2010)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의적인 측면 즉 학습에 대한 동기나 학교생활 만족도는 여전히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역시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염유식 외, 2016; OECD, 2017). 아동,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이 인지적 및 정의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만족도/행복감은 연속성을 띄고 있어서 현재의 삶의

만족/행복은 추후 미래의 삶의 만족을 예측한다. 삶의 만족도는 문제행동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기에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갖는다고 연구자들이 제기하고 있다(Henry & Slater, 2007; 박혜숙, 2016 재인용).

아동기와 청소년기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은 사회적 변인(부모, 또래, 교사관계 등)과 심리적 변인(자아존중감, 심리적안녕감, 등)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예, 박성희·최은영, 2016). 특히 아동기를 비롯해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 학업성취 같은 학교관련 요인과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과의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혜영, 2012, 성은모 2013 재인용; 박혜숙, 2016, 2019; 최희철, 황매향, 20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에서 조사한 다문화아동청소년 패널을 이용하여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5년(초등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동안 삶에 대한 만족도 추이를 2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이용한 박혜숙, 양상희(2017)는 만족도는 비선형적인 변화 특성을 보여주었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로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또래관계, 성적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는 나열한 순서대로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은 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박상현(2019)은 아동청소년패널을 이용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을 사용한 결과 초등학교 5에서 중1 기간 동안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렇듯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 자아존중감이 상호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을 양육하는데 나타나는 부모의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며, 아동의 성격과 행동 형성은 물론 도덕성, 사회성, 인지, 언어, 정서 등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숙이, 전정민, 이선미, 2017; 박성혜, 이희선, 2020; Bierman & Welsh, 2015).

부모감독은 양육행동의 한 형태로 아동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과 관련하여 긍정적 측면을 증진시키며 부정적 측면은 완화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윤주, 2014). 부모의 감독(parental monitoring)이란 “자녀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친구와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모의 지식”을 의미한다(Fletcher et al., 1995; 박진경·도현심, 2001재인용). 문제가정의 경우, 적절한 부모감독이 결여되어 있다(Patterson, 1982; 박진경·도현심, 2001 재인용).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학령기에

접어들에 따라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와 학원 등 집밖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할수록 집 밖에 있는 자녀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절하며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는 감독자로서의 부모역할이 중요하다(윤연정, 이미숙, 전춘애, 2011). 부모 감독은 청소년의 비행, 문제행동, 음주, 인터넷 중독 등의 다양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보고되어 왔다(Cho & Yoon, 2010; Kim, 2009; Park & H., 2001; Dishion, Nelson, & Kavanagh, 2003; 정윤주 2014 재인용). 윤연정 외(2011)는 부모감독, 특히 어머니의 감독과 자아존중감과 실제적으로도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감독은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Maja & Wim, 1997; 이미리, 2005 재인용), 부모가 감독을 많이 할수록 긍정적 자아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리, 2005). 또한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지지할수록, 자녀의 행동을 관리 감독할수록, 심리적으로 억압하지 않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고 이것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김수희, 2009; 윤연정 외, 2011 재인용).

4. 성차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사회화 과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성별의 효과를 볼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자아존중감 평균에 있어서 성차가 발견되지만(Chubb et al., 1997; Eccles et al., 1989; Labouvie et al., 1990; McMullin & Cairney, 2004; Moksnes, Moljord, Espnes, & Byrne, 2010; Robins et al., 2002; Roeser & Eccles, 1998; Twenge & Campbell, 2001; Young & Mroczek, 2003; Erol & Orth 2011 재인용), 그 변화양상은 남녀 유사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지만, 그 변화양상은 남녀 차가 없이 장년기까지 증가하다가 증가폭은 이후 낮아지는 패턴을 보인다고 한다(Erol & Orth, 2011). 자아존중감의 안정성 계수도 중년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후 낮아진다는 연구(Trzesniewski et al, 2003)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인다(Kuster & Orth, 2013).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양한 나이 대상 29년 간의 장기연구를 통해서 자아존중감이 성격과 같은 하나의 기질적인 특성(trait)을 보인다는 점도 보이지만 (실제 자아(self)는 성격으로 간주됨), 조사 기간/간격에 따라 안정성 계수가 변화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Kuster & Orth, 2013. 안정성 계수가 나이가 어릴수록 낮아진다는 점(Roberts & Delvecchio, 2000; Kuster & Orth, 2013 재인용)에서 저연령 초등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10대 이후의 청소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고 한다(Emler, 2001, 정익중, 2007 재인용). 그 이유는 10대 여학생들은 외모에 대한 낮은 만

족도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한다(정익중, 2007). 박혜숙(2019)도 초5-고1 청소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종단연구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삶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의 효과크기보다 오히려 친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아동패널 8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상자는 2015년에 84개월 이상 90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되었고 2015년 8차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501명이며, 이 중 남자 아동은 764명(50.9.4%)이고 여자 아동은 737명(49.1%)이다. 8차에서 선택된 동일 아동의 9차, 10차, 11차의 자료를 추적하여 사용하였다.

2. 측정 변수

가.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존중감 변수는 원래 Rosenberg(1965)의 척도로 5개의 긍정진술 문항과 5개의 부정진술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육아패널의 부모대상 설문과는 달리, 아동용 설문지에는 긍정문항으로 구성된 문항들만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4시점에서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다. 해당문항의 4차(four waves)에 대하여 측정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즉, “자신에 대한 만족, 좋은 면이 많다.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좋아한다.”로 구성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매년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0.75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표1> 참고).

나.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행복도

아동의 전반적인 삶에 관한 것으로 학교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일상적인 하루 생활에 대한 행복 정도를 나타내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척도(전혀 행복하지 않다, 별로 행복하지 않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한 편이다.)를 사용하였고 1차년도는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0.67이었으나 2차, 3, 4차년도는 0.7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표1> 참고).

다.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을 양육하는데 나타나는 부모의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며, 아동패널에서 사용된 문항은 조복희 외(1999)가 개발한 한국형 양육행동 척도로 그 유형을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구성되었다(9차아동패널학술대회자료집,재인용).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애정 및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자녀와 적극적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녀를 즐겁게 양육하는 것을 뜻한다(조복희 외, 1999). 1차년도 자료의 자아존중감의 독립변인으로 부와 모의 온정적 양육척도는 0.85이상이었고, 부와 모의 통제적 양육척도는 0.75이상으로 양호하였다(〈표1〉참고). 이미리(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감독,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정적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지도감독은 다른 국내 다른 패널 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 동일한 척도로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지도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의 4가지 문항 (5점 척도)의 점수를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청소년 생활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철저한 것으로 해석되며 해당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해서 1요인으로 나타났다으며,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표1〉과 같다.

〈표1〉 모형에 사용된 변수와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

연도	수준	문항수	2015	2016	2017	2018
아동자아존중	1	5	0.763	0.751	0.760	0.856
부_자아존중	2	5	0.885	0.878	0.892	0.874
모_자아존중	2	5	0.881	0.892	0.878	0.879
부모감독	1	4	0.801	0.821	0.805	0.804
부_행복감	2	4	0.878	0.882	0.887	0.903
모_행복감	2	4	0.897	0.894	0.917	0.910
아동전반적 삶의만족도	1	6	0.674	0.720	0.742	0.775
친구와의관계	1	8	0.943	0.934	0.944	0.939
교사와의 관계	1	4	0.870	0.820	0.813	0.840
모_온정적	2	6	0.872			
모_통제적	2	6	0.762			
부_온정적	2	6	0.886			
부_통제적	2	6	0.795			

라. 학교적응(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학교적응 측정도구는 8차년도에 처음 조사되어 11차년도까지 진행하였다. 지성에 정대현(2006)의 초등학교 학교 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총 35문항의 문항으로 구성된 학교생활관련 4개의 영역 중 또래 적응(8문항), 교사 적응(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문항은 담임교사에 의해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적응 문항 중 긍정적인 측면과 관련되는 4개 문항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이 높다. 아동의 친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학교 적응척도의 신뢰도는(α)는 0.9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과 교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는 0.8이상으로 양호하였다(〈표1〉 참고).

3. 연구모형 및 분석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2수준 다층성장모형(hierarchical growth model)을 사용하였다. 1수준은 시간 변화를 보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아동의 전반적 만족도, 부모감독, 학교적응과 관련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변수를 1수준으로 사용하였다. 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을 보기위하여 시간선형 기울기는 0, 1, 2, 3 그리고 비선형(Quadratic) 변수는 0, 1, 4, 9로 코딩하였다.

2수준에서는 절편의 예측변수로 모형 변화하지 않은 개인 특성인 성별과 아동의 1차년도 변수인 부와 모의 양육태도(온정적, 통제적 양육 변수)를 사용하였다.

Level-1 Model

$$\text{아동_자아존중감}_{ti} = \pi_{0i} + \pi_{1i} * (\text{LIN}_{ti}) + \pi_{2i} * (\text{아동 만족도}_{ti}) + \pi_{3i} * (\text{부모감독}_{ti}) + \pi_{4i} * (\text{친구와의 관계}_{ti}) + \pi_{5i} * (\text{교사와의관계}_{ti}) + \text{eti}$$

Level-2 Model

$$\pi_{0i} = \beta_{00} + \beta_{01} * (\text{초1모통제}) + \beta_{02} * (\text{초1모지원}) + \beta_{03} * (\text{초1부의지원}) + \beta_{04} * (\text{초부의 통제}_{1i}) + \beta_{05} * (\text{성별}_{i}) + r_{0i}$$

$$\pi_{1i} = \beta_{10} + \beta_{11} * (\text{성별}_{i}) + r_{1i}$$

$$\pi_{2i} = \beta_{20}$$

$$\pi_{3i} = \beta_{30}$$

$$\pi_{4i} = \beta_{40}$$

$$\pi_{5i} = \beta_{50}$$

β_{00} : 다른 변수가 전체평균과 같을 때, 여아의 초1 때의 평균자아존중감

β_{10} : (여)시간 선형효과(변화율)

β_{20i} :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만족도의 효과

$\text{eti} \sim N(0, \sigma^2)$

$r_{0j} \sim r_{1j} \sim N(0, \Gamma)$

$u_{0j} \sim u_{2j}$: 시간선형, 비선형기울기와 관련된 아동의 독특한 특성 효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전체중심화를 함

[그림1] 연구모형

III. 연구결과

1. 자아존중감 특성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여 그 변화양상을 보기 위한 성장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이루는 5개의 문항이 단일 요인을 이루는 것을 살펴보았고, 문항이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문항4(자신은 소중한 사람)와 문항5(자신을 좋아하다)가 유사하게 해석 될 수 있어서 1요인 모형(모형2)에서는 문항4와 문항5의 오차 간 공분산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3은 문항 1, 2, 3을 한 요인으로 그리고 문항4와 문항5를 다른 요인으로 구축한 후 모형2와 모형3을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형태동일성의 적합도는 유사하였으나, 측정동일성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형 2(1요인 모형, 오차 상관 허용)이 더 적합도가 양호하였다(표2 참고). 이런 이유로 해당 요인을 구성하는 모든 문항의 평균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2수준 성장모형을 구축하였다. 오차상관이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한 모형의 측정동일성 가정을 확인하였다. 2요인 모형은 문항4와 문항5를 한 요인으로 보는 경우이다. 1요인이면서 두 문항의 오차의 상관관이 있다는 모형이 더 나은 모형으로 나타나, 해당 요인을 구성하는 모든 문항의 평균을

종속변인으로 생성하였다.

〈표 2〉 종속변인의 측정동일성 점검

	χ^2	df	p/	TLI	CFI	RMSEA	90%CI
1요인	565.690	20	0.001	0.789	0.930	0.067	.063~.072
측정동일	618.312	32	0.001	0.858	0.924	0.055	.052~.059
*1요인-오차	304.180	16	0.001	0.861	0.963	0.055	.050~.060
측정동일	348.935	28	0.001	0.911	0.959	0.044	.040~.048
2요인모형	304.180	16	0.001	0.861	0.963	0.055	.050~.060
측정동일	343.121	25	0.001	0.902	0.959	0.046	.042~.050

주) *문항4와 문항5의 오차 상관을 허용한 경우가 단일차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게 보였다.

2. 2수준 성장모형

2준 HLM 기초모형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선형이나 비선형 변수를 넣지 않은 채, 각 수준의 분산을 살펴보았다. 2수준 분산이 25.5%이며, 1수준 분산/변량은 약 74%로 나타나 시간에 따른 분산이 크지만, 자아존중감은 변화하지 않은 개인특성에 의한 분산이 약 25.5%가 있다는 것과 다층모형 사용의 적절성도 보여주고 있다. 1수준 변수는 시간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하였고, 2수준 변수로는 개인특성 변수를 사용하였다(〈표 1〉 기술통계참고).

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여부와 그 양상을 보기 위하여 시간 선형기울기를 모형에 넣어 초기값과 변화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해당 선형변수가 단독으로 사용된 모형에서는 전체중심화를 하지 않았다. 선형효과만을 사용한 모형에서 초기값과 기울기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r=-.525$). 즉 초기 상태인 초1인 8세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증가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초기값이 높은 경우, 더 증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초기값이 낮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변화율(증가폭)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선형모형만을 사용한 해석이 타당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개의 모형을 비교하였다(표 5~7 참고). 즉, 선형과 비선형 변수를 별도로 사용한 경우와 두 변수 모두 사용한 모형들 중 어느 모형이 더 나은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피하고자 두 변수를 전체중심화(grandmean centering)하였다. 그 결과 선형기울기만을 사용한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deviance 통계치가 선형모형만을 넣었을 때, 가장 적었다. 〈표3〉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술통계에서 평균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과 유사하게 매년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는 HLM 프로그램에서 실제 사용된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표 3〉 자아존중감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초1	1480	1.00	4.00	3.44	0.50	-1.078	1.661
초2	1388	1.40	4.00	3.46	0.45	-.925	.877
초3	1358	1.00	4.00	3.48	0.44	-1.310	2.653
초4	1312	1.00	4.00	3.49	0.46	-1.272	2.332

주) 원자료 기술통계임

〈표 4〉 기술통계

변수	N	Mean	SD	Min	Max
Lin	5560	1.50	1.12	0.00	3.00
Quad	5560	3.50	3.50	0.00	9.00
아동_자존감	5417	3.52	0.57	1.00	4.00
아동삶만족도	5417	3.39	0.57	1.00	4.00
부모감독	5136	3.70	0.40	2.00	5.00
모_통제	1390	3.58	0.52	1.00	5.00
모_지원	1046	3.70	0.57	1.00	5.00
부_지원	1046	3.60	0.62	1.00	5.00
부_통제	1046	3.42	0.58	1.00	5.00
성별	1046	0.51	0.50	0.00	1.00

주) 최종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이다. 해당 변수는 원자료에서도 정규성 가정에 벗어나지 않았다.

〈표 5〉 선형모형

Fixed Effect	<i>b</i>	<i>SE</i>	<i>t</i>	<i>df</i>	<i>p</i>
INTRCPT2, β_{00}	3.469	0.014	243.614	1378	<0.001
INTRCPT2, β_{10}	0.034	0.006	5.214	1378	<0.001
Random Effect	Variance	<i>df</i>	χ^2	<i>p</i>	Deviance(df=4)
INTRCPT1, <i>r₀</i>	0.123	1335	2382.421	<0.001	8373.264
LIN slope, <i>r₁</i>	0.014	1335	1745.436	<0.001	
level-1, <i>e</i>	0.217				

〈표 6〉 비선형기울기 모형

Fixed Effect	<i>b</i>	<i>SE</i>	<i>t</i>	<i>df</i>	<i>p</i>
INTRCPT2, β_{00}	3.483	0.012	274.955	1378	<0.001
INTRCPT2, β_{10}	0.011	0.002	5.12	1378	<0.001
Random Effect	Variance	<i>df</i>	χ^2	<i>p</i>	Deviance(df=4)
INTRCPT1, r_0	0.104	1335	2514.969	<0.001	8394.079
QUAD slope, r_1	0.001	1335	1614.012	<0.001	
level-1, <i>e</i>	0.224				

〈표 7〉 변화양상: 선형 vs. 비선형

Fixed Effect	<i>b</i>	<i>SE</i>	<i>t</i>	<i>df</i>	<i>p</i>
INTRCPT2, β_{00}	3.522	0.010	338.056	1378	<0.001
INTRCPT2, β_{10}	0.034	0.021	1.614	1378	0.107
QUAD slope, β_{20}	0.000	0.007	0.028	1378	0.978
Random Effect	Variance	<i>df</i>	χ^2	<i>p</i>	Deviance(df=7)
INTRCPT1, r_0	0.092	1271	3358.69	<0.001	8373.212
LIN slope, r_1	0.084	1271	1446.627	<0.001	
QUAD slope, r_2	0.005	1271	1366.901	0.031	
level-1, <i>e</i>	0.206				

2. 성차에 따른 자아존중감

초등 1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모형의 1, 2 수준에 성별을 제외한 다른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1학년 자아존중감 평균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낮았으며($b=-0.125$), 변화율($b=0.013$)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8〉 참고).

〈표 8〉 시간에 따른 성별의 효과

Fixed Effect	<i>b</i>	<i>SE</i>	<i>t</i>	<i>df</i>	<i>p</i>
INTRCPT2, β_{00}	3.533	0.020	174.517	1377	<0.001
성별, β_{01}	-0.125	0.028	-4.428	1377	<0.001
LIN slope, β_{10}	0.013	0.010	1.386	1377	0.166
성별 β_{11}	0.042	0.013	3.174	1377	0.002
Random Effect	Variance	<i>df</i>	χ^2	<i>p</i>	
INTRCPT1, r_0	0.119	1334.000	2349.24175	<0.001	
LIN slope, r_1	0.013	1334.000	1732.298	<0.001	
level-1, <i>e</i>	0.217				

다음은 원래 의도한 부모의 초1 때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교사평정에 의한 아동의 학교에서의 친구와의 관계(적응), 및 교사와의 관계(적응) 변수를 사용한 결과이다. listwise deletion을 한 이유로 표본수가 약 1/4로 줄어들었다. 완전무선(MCAR)적인 결측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으나, 적어도 아동의 만족도 변수의 효과는 여전히 가장 컸고, 남자 아동의 증가율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완전 무선적이지 않기에 참고로만 보고하고자 한다(〈표 9〉 참고).

〈표 9〉 부, 모의 초1 때의 자아존중감,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의 효과

Fixed Effect	<i>b</i>	<i>SE</i>	<i>t</i>	<i>df</i>	<i>p</i>
모_자아존중, β_{01}	0.026	0.018	1.433	1142	0.152
부자아존중, β_{02}	0.014	0.018	0.777	1142	0.437
모_통제, β_{03}	0.001	0.022	0.029	1142	0.977
모_지지, β_{04}	0.034	0.021	1.584	1142	0.113
부_지지, β_{05}	0.030	0.021	1.453	1142	0.147
부_통제, β_{06}	-0.026	0.020	-1.328	1142	0.184
성별, β_{07}	-0.044	0.032	-1.379	1142	0.168
선형기울기, β_{10}	0.027	0.008	3.21	1148	0.001
성별, β_{11}	0.025	0.016	1.54	1148	0.124
아동만족도, β_{20}	0.410	0.017	24.38	594	<0.001
부모감독, β_{30}	0.028	0.024	1.171	594	0.242
친구관계, β_{40}	0.014	0.013	1.067	594	0.286
교사와의관계, β_{50}	0.012	0.013	0.937	594	0.349
Variance	<i>df</i>	χ^2	<i>p</i>		
INTRCPT1, <i>r</i> ₀	0.084	922	1368.12852	<0.001	
LIN slope, <i>r</i> ₁	0.010	928	1089.01481	<0.001	
level-1, <i>e</i>	0.197				

3. 최종모형

선형기울기 변수, 아동의 전반적인 만족도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지원적 및 통제적) 변수, 그리고 교사가 평가에 의한 아동의 학교적응을 나타내는 아동의 친구와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 변수를 시도하였으나, 변화하는 친구와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 변수는 결측치가 많았고, listwise방법으로 결측치를 제거한 경우, 50%이상 표본이 줄어들었다. 학교적응을 나타내는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표본이 줄어들어서 본 최종 연구모형의 1수준 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 초기값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어머니의 지원($b_{02} = 0.058$)이었다. 그런데 효과크기($\beta_{02} = 0.026$)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 중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동의 전체 삶의만족도(행복도)이며 그 효과크기 또한 가장 컸다. 부모감독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b_{30}=0.058$), 효과도 크기 β (beta)는 크지 않았다($\beta_{30}=0.041$).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변수 중 어머니의 양육지원 행동($b_{02}=0.058$, $\beta_{02}=0.058$)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지원 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에 들어간 변수를 통제한 후, 평균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성차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증가율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b_{22}=0.026$). 성별을 선형효과를 예측하는 변수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선형기울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이 선형기울기를 예측하는 변수로 사용된 최종모형에서는 선형기울기($\ln b_{2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변화율에 미치는 성차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 자아존중감 증가율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

최종모형에 들어간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절편과 선형기울기 무선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0〉 참고). 이것은 자아존중감 평균과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또한 절편을 예측하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변수를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표 10〉 최종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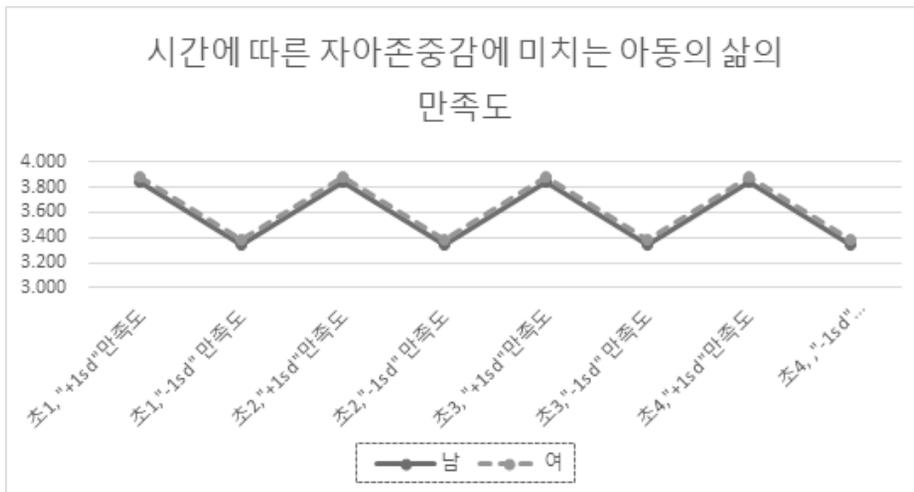
Fixed Effect	<i>b</i>	<i>SE</i>	<i>t</i>	<i>df</i>	<i>p</i>	<i>beta</i> (β)
INTRCPT2, β_{00}	3.506	0.018	190.731	1373	<0.001	
모 통제, β_{01}	-0.011	0.017	-0.663	1373	0.507	-0.010
모 지원, β_{02}	0.058	0.016	3.704	1373	<0.001	0.058
부 지원, β_{03}	0.024	0.015	1.61	1373	0.108	0.026
부 통제, β_{04}	-0.003	0.015	-0.211	1373	0.833	-0.003
성별, β_{05}	-0.045	0.026	-1.77	1373	0.077	-0.040
선형기울기, β_{10}	0.013	0.009	1.529	1377	0.127	0.035
성별, β_{11}	0.026	0.012	2.133	1377	0.033	0.023
아동삶만족도, β_{20}	0.435	0.013	34.371	2330	<0.001	0.435
부모감독 slope, β_{30}	0.058	0.018	3.266	2330	0.001	0.041
Random Effect		Variance	<i>df</i>	χ^2	<i>p</i>	
INTRCPT1, <i>r</i> ₀		0.07527	1329	2013.426	<0.001	
LIN slope, <i>r</i> ₁		0.00715	1333	1574.859	<0.001	
level-1, <i>e</i>		0.2009				

주) HLM 7.0 outcome 파일 기호를 β_{30} 라는 기호를 사용하였으나 실제 표준화계수 아님

〈표 11〉과 [그림 2]는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 본 것이다. 아동의 평균 삶의 만족도 1표준편차 위와 및 1표준편차 아래인 값을 넣어서 살펴보았다. 모형에 들어간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의 효과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만족도가 높은 경우 지속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11〉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삶의만족도와의 관계

학년	남	여
초1, "+1sd"만족도	3.835	3.879
초1, "-1sd" 만족도	3.339	3.384
초2, "+1sd"만족도	3.835	3.879
초2, "-1sd" 만족도	3.339	3.384
초3, "+1sd"만족도	3.836	3.880
초3, "-1sd" 만족도	3.340	3.384
초4, "+1sd"만족도	3.836	3.880
초4, "-1sd" 만족도	3.340	3.384



[그림 2] 시간에 따른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IV. 논의 및 결론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 변수로 많은 연구자 및 현장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변수이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인 동시에 사회적 행동으로 영향을 받는다”(정익중, 2007, p.129 재인용).

초등학교 시기는 자아중심성에서 탈피하여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적 평가이기 때문에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적 특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으며, 긍정적 자아개념은 한 개인의 현재생활뿐 아니라 미래의 삶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중요 발달 특성이다(양귀순, 2017).

어릴 적에 형성된 자아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은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자료가 구축되지 못한 이유로 자아존중감 변화양상을 본 종단 연구가 없다.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자아존중감 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는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자아존중감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어떻게 변화하며,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자아존중감 제고에 기여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은 초1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값에 있어서 성차가 있었다. 초1에는 남학생 평균이 여학생보다 낮았으나 변화율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 이상) 및 중학생 대상 패널에서도 3회(waves) 자료만을 사용한 경우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선형변화율을 보였다.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기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스스로 지각하는 학교공부, 외모, 가족, 학교만족감, 일상에서의 행복감으로 구성된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매우 유의하고 큰 관계가 있기에 아동의 행복을 제고하는 일은 자아존중감 제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어머니의 지지적인 행동과 아동에 대한 감독/관심도 자아존중감 제고에 작지만 영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것도 양육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교사가 평가하는 학교에서의 친구와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성 변인의 효과는 최종모형에 넣지 않았지만, 사회적 관계에 관한 변수는 추후 연구에서 고려해 볼직하다.

연구자는 원래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변화가 부와 모의 자아존중감 변화양상과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으나, 아동의 초3 시기의 (10차)의 자료에는 부모의 자아존중감 문항이 없었다. 우선적으로 1차년도 평균값(절편)에 미치는 부모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교사평가에 의한 아동의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변수를 2수준 변수로 사용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표본 수가 50%이상 줄어들어서 해당 변수를 최종모형에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1 수준에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즉, 아동의 학교공부관련 문항,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일상적인 하루생활에 대한 생각에 대한 행복수준을 묻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변화하는 변수로 부모의 감독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었고, 어머니의 지원도 아동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효과크기는 작았다.

그러나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행복도는 자아존중감과 매우 큰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제고를 위하여는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행복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해당 변수를 이루는 문항들의 전반적인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대체적으로 1차년도를 제외하고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해당 척도에 대한 구인타당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심 독립변인으로만 사용하였기에 타당화 작업은 하지 않았으나 6개 문항이 매년 아동의 만족도/행복도에 기여하는 것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된다.

이를 통해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삶의만족도/행복도의 구인을 파악함으로써 실제적인 아동의 행복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더 타당하게 살펴볼 수 있으리라 본다.

실제 아동청소년패널 중2학생에서 고1시기까지 자아존중감 변화양상을 본 정익중(2007)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즉 부모의 지원, 외모, 학업성취도는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삶의만족도를 구성하는 문항들과 매우 유사하다. 아동의 삶의만족도/행복도가 통계적 및 실제적으로 가장 그 효과가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 분석이기에 결측치가 많지 않은 변수를 선택하였다. 종단 연구에서는 결측치 발생이 흔히 발견되기에 다중대체를 할 수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였다. 자아존중감 1차년도의 경우에는 성차는 없었으나 모의 학력이 높은 경우, 자아존중감 문항 결측치가 더 많았다. 추후 분석 시 자료를 MAR (missing at random)로 간주하고 다중대체한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종모형에 사용된 변수를 통제 후에도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개인 특성 및 여러 환경 변수를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잠재계층분석이나 혼합잠재계층 분석을 시도해볼직하다.

참고문헌

강수현(2019).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 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 초등학교 1학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3(2), 165-194.

- 김숙이, 전정민, 이선미(2017).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에 따른 유아의 인지능력 차이 및 부모역할의 상관관계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2), 75-100.
- 김신영, 백해정(2008). 한국청소년 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 김용희, 한찬근 (2017). 부모 삶의 만족도와 아동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기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연구*, 48(3) : 29-55
- 박상현.(2019). 초기 청소년기의 자존감과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 간의 종단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1319-1337.
- 박상현 (2019). 초등학생 자존감의 단기 종단적 안정성: 자존감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초등교육연구*, 32(3), 271-296.
- 박선영, 도현심, 김민정(2010). 어머니의 감독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39-15.
- 박성혜,이희선(2020). 부·모의 가족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학습준비도 및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5), 703-723.
- 박진경,도현심(2001). 어머니의 감독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29-140.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 박성희, 최은영(2016).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5(0) : 53-83
- 박혜숙(2016). “학교 만족도” 타당화와 관련변인 탐색: 서울교육종단자료.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101-124.
- 박혜숙(2019).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양상에 관한 종단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4): 907-928
- 박혜숙, 양상희(2017).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 변화 양상.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95-121.
- 성은모, 김균희.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4), 177-202.
- 양귀순 (2017). 초등학교 시기 가정배경이 자존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343-362.
- 윤연정, 이미숙, 전춘애(2011). 가족건강성과 부모감독,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113-126.
- 이미리 (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 이숙정 (2006). 중고생의 교사신뢰와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업성취 및 학급풍토간의 관계모형 검증. *교육심리연구*, 20(1), 197-218.
- 임효진, 황태향, 최희철 (2020). 다문화 가정 자녀의 아동·청소년기 자기존중감의 다중 발달궤적 과 예측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1221-1251.

- 장혜진, 이정림, 윤은주, 김해인(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정수정, 김소은, 정익중(201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초등학교 시기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9(6), 15-25. DOI: <https://doi.org/10.5723/kjcs.2018.39.6.15>
- 정윤주. (2014). 청소년기의 부모감독 변화에 대한 부모애착의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12.
- 지성애, 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척도 타당화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최윤경, 민정원, 김기환, 이세원(2013).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 전망 요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 조혜주(2012).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희철 (2019). 초기 청소년기 자존감의 변화와 안정성. *학습자중심교육연구*, 19(16), 741-764.
- 최희철, 박강호(2018). 아동-청소년기 자존감 다중 변화궤적과 우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 571-594.
- Bierman, K. L., & Welsh, J. A. (2015). Helping head start parents promote their children's kindergarten adjustment: The research-based developmentally informed parent program. *Child Development*, 86(6), 1877-1891.
- Brown, J. D. (1998). *The Self*. New York: Routledge Talyor & Francis Group.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3.), 542-575. DOI:10.1037/0033-2909.95.3.542
- Gitchel, W.D., Roessler, R. T., & Turner, R.C. (2011). Gender effect according to item directionality on the perceived stress scale for adults with multiple sclerosi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55(1), 20-28.
- Halama, P. (2008).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Rosenberg self-esteem scale in a sample of Slovak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Studia Psychologica*, 50(3), 255-266.
- Henry, K. L., & Slater, M. D. (2007). The contextual effect of school attachment on young adolescents' alcohol use. *Journal of School Health*, 77(2), 67-74.
- OECD (2017), PISA 2015 Results (Volume III): Students'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www.oecd.org/pisa/PISA-2015-Results-Students-Well-being-Volume-III-Overview.pdf>
- Kuster, F. & Orth, U. (2013). The Long-Term Stability of Self-Esteem: Its Time-Dependent Decay and Nonzero Asymptot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5), 677-690. <http://doi.org.ssl.access.yonsei.ac.kr:8080/10.1177/0146167213480189>
- McCarthy, J. D., & Hoge, D. R. (1982). Analysis of age effects in longitudinal studies of adolescent self-esteem.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72-379. doi:<http://dx.doi.org.access.yonsei.ac.kr:8080/10.1037/0012-1649.18.3.372>
- Orth, U., & Robins, R. W. (2014).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 381-387.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64-172.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Robins, R. W., Trzesniewski, K. H., Tracy, J. L., Gosling, S. D., & Potter, J. (2002). Global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17(3), 423-434. doi:<http://dx.doi.org.access.yonsei.ac.kr:8080/10.1037/0882-7974.17.3.423>.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lf-esteem

Hye-Sook Park, Honam University

Using Korean children panel data of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lf-esteem over four time points (1st grade to 4th grade). The effect of children's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parental child rearing practice (parents' support and control, monitoring),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teachers were investigated a two level growth model. Children's self-esteem increased linearly (at a consistent rate) over four time points. At grade 1, female children's self-esteem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children. However, when controlling for the above variables in the model, the mean difference in self-esteem between male and female childre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in the rate of growth of self-esteem, males' self-esteem increased more than females'. Among the variables, children's overall life satisfaction, parental monitoring, mother's support for childre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e effect of children's overall life satisfaction, which was a composite score of children's satisfaction with study, appearance, family, peers, school, and everyday life, was highest and practically significant. In order to enhance children's self-esteem, enhancing children's overall life satisfaction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 Key words: self-esteem, growth model, children's satisfaction with life, parental support, parent monitoring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 존중감 변화양상과 관련 변인 탐색

정연아(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2015년)부터 11차(2018)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고, 관련 변인 중 아동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 부모양육태도, 학교에서의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성에 대한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외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종단연구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종단적 추이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나 실증을 위한 연구모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부모 및 양육자 그리고 교사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중요성과 그 영향력에 비해, 국내에서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단적으로 변화양상을 추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탐색을 시도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단위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학령기 초기부터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관련변인을 검증하여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 연구 내용에 대한 몇 가지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행연구 고찰에 관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자아존중감의 변화추이와 관련변인 탐색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논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학령기 자아존중감의 중요성과 아동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거시적 수준의 논의와 더불어, 본 연구의 대상인 학령초기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한 이론이나 선행연구를 좀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관련변인 탐색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아존중감 변화양상에 따른 관련변인들은 그 간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이나 체계와도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관련있는 변인들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자아존중감의 변화추이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추이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가 마련될 것이라 봅니다.

셋째, 연구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단연구를 위한 패널 자료의 분석에 있어 연구방법의 적절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층성장모형의 시간 흐름에 따른 발달적 변화양상과 종단자료의 결측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강점등을 다른 연구방법론들과 비교 분석하여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추가한다면, 본 연구의 연구설계 및 분석에 대한 이해 및 타당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 제시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변화하며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토대로, 부모 및 양육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실천가능한 정책적 제언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과 아동기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의 연령에 따른 다집단분석

이순배¹⁵⁾ 정혜옥¹⁶⁾

요약

본 연구는 유아기 놀이시간이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을 매개하여 아동기 행복감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7~1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평균 월령 75.14개월의 아동 1,620명이다. 변인들 간의 구조분석, 아동 연령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행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놀이시간과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은 아동기 행복감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7세 유아의 놀이시간은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을 매개로 8~11세 아동기 행복감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매개변인의 효과가 달랐는데, 아동이 8, 9세 때는 유아기 행복감의 영향이 더 컸으나, 10, 11세에는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영향이 더 컸다. 셋째, 8~11세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아기 놀이시간이 아동기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다집단분석 결과, 네 집단의 구조적 관계에 있어 유아기 놀이시간이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을 매개하여 아동기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유아기 놀이시간이 8~11세 아동의 행복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유아기 놀이시간이 아동기 행복감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유아 및 아동의 행복 증진에 있어, 유아기 놀이시간의 중요성,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유아기 행복감의 긍정적인 영향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 주제어: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행복감, 구조적 관계, 다집단분석, 종단연구, 한국아동패널

1. 서론

행복은 인간이 삶을 지속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모든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한다(김균희·송요현, 2017; 이현지·정혜옥, 2016; Jain, Sharma & Mahendru,

15)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16)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2019). 개인의 성향과 역량에 따라 인간은 건강, 가족, 직업, 목표 성취 등 다양한 행복을 추구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행복, 기쁨, 만족감, 즐거움 등을 느낀다(전미경·장재숙, 2009; Chaplin, Lowrey & Ruvio et al., 2020; Kell, 2020). 이렇게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고려대한국어대사전)’를 행복감이라고 한다. 행복은 중요한 목표추구를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 결합에 기여하며 새로운 생각과 자극으로 인간의 관심범위를 넓힌다(Valencia & Valencia, 2020). 이정화(2005)는 사회가 지향하는 올바른 가치특성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만족감, 일상에서 여러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정서반응 등의 외적, 내적, 정서적 측면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은 사회의 행복과 연계되므로, 사회 전반의 행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개인, 가족, 사회, 환경 등 여러 수준의 행복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Jain et al., 2019).

Kell(2020)은 행복이 긍정적인 정서로 표현되지만, 연령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상황과 감정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유아가 인식하는 행복을 알아본 연구들(김성숙, 2013; 백지혜·윤유진, 2016; 이효숙·조준수, 2015; 홍용희·김혜전·전우용, 2014; 황해익·김미진·탁정화, 2013)은 유아들이 놀이하는 것, 좋음, 사랑, 목표 성취, 만족, 보람 등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 부모 등 친밀한 사람과 상호작용 하는 것 등을 행복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했다. 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은 물질, 놀이, 행사 등 즐겁고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것, 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 착한 행동 및 선한 것으로 타인에게 행복을 주는 것 등이었다(박희경·강인설, 2014; Başaran & Öğretir Özçelik, 2020). 이처럼 유아기와 아동기의 행복에 대한 인식은 놀이, 부모 등 친밀한 사람과의 상호작용, 긍정적인 정서 등으로 유사한 편이지만, 연령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상황, 감정은 조금씩 차이를 알 수 있다.

유아의 행복과 놀이의 관계에 대해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놀이가 유아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필수요소임을 강조한다. 놀이는 인간의 발달을 지원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김균희·송요현, 2017; 채혜경·박리나, 2016; Goldstein, 2012). 유아들은 놀이하며 행복, 슬픔, 자부심 등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Tyagi, 2019). 또 놀이는 다양한 대상과 상호작용 할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형성의 기쁨을 준다(김남희, 2019; 최지은, 2019). 최근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Jasem, Darlington과 Lambrick 외(2020)는 유아의 놀이박탈경험을 살펴보고 놀이가 모든 유아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미치는 영향력을 재차 강조하고 공평한 놀이환경 마련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놀이환경 중 놀이시간은 유아의 행복과 매우 관련이 높다. 이에 유아기 놀이시간과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유아가 놀이에 몰입하고 즐기며 만족감을 경험하기 위해 충분한

놀이시간이 요구된다고 했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선행연구 결과, 가정에서의 놀이 시간과 유아의 연령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놀이시간이 길어지고, 부모와 유아 간 상호작용이 더 활발했다(김명순·조향린·박영림 외, 2013; 이현주, 2019). 그러나 학령기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사교육 및 학업준비로 인해 놀이시간이 줄어들었다(김균희·송요현, 2017; 김정화, 2019; 김희정, 2010; 이승숙·남기창, 2016; Goldstein, 2012). 이러한 놀이시간의 부족은 유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김미숙 외, 2018). 이에 김균희·송요현(2017)은 유아에게 충분한 놀이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때 유아들은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를 하며 행복감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유아기 놀이시간은 부모-유아 상호작용과도 관련이 있다. 유아교육에서는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오래전부터 연구됐는데 양영주(1984)는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교류이며, 유아의 질문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말과 감정, 태도를 교류하는 왕성한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이를 기초로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놀이시간과 공간, 상호작용 방법을 분석하며 놀이를 중요한 부모-유아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놀이와 부모-유아 상호작용 및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놀이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유아의 행복감이 높다고 했다(박영애·김리진, 2011; 박혜진, 2019; 이승미·김희진, 2018; 최유석, 2018). 이영석·성영화(2006)는 부모와 자녀가 갖는 질적으로 만족스러운 놀이시간은 놀이시간의 부족을 상쇄한다고도 했다. 또한, 놀이와 부모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아는 부모는 더 많은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유아의 놀이 전반에 대해 정보가 풍부해진다고 했다(이현주, 2019; Rathunde & Isabella, 2020). 그러므로 유아기 놀이시간의 양과 질은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방법과 빈도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부모-유아 상호작용은 유아의 행복감 형성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유아는 타인과 관계적 경험을 통해 놀이할 때 더 행복하다고 인식한다(정계숙, 최은아, 강인설, 2008). 특히 놀이를 통한 부모-유아 상호작용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 및 유아의 행복감과 연관된 여러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권정운·정미라·이방실, 2015; 김명순·조향린·박영림 외, 2013; 이정애, 2018; 최은정·김은향, 2019). 이러한 유아기 부모와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적극적인 활동 경험은 유아의 행복 증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황옥경·한유미·김정화 외, 2015; Anand & Roope, 2016; Chaplin et al., 2020). 유아의 내재적 역량과 실제적인 태도를 이어주는 부모와의 경험은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제공하여 유아가 자신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느끼도록 돕기 때문이다.

부모-유아 상호작용은 유아기 뿐 아니라 아동기에 이르러서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행복감에 관한 종단연구는 유아기 경험한 부모의 긍정적인 상호작

용과 양육행동 및 부모의 행복감이 취학 이후 아동기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기쁘다, 2018; 김충일·권윤정, 2017; 안수빈·은선민·이강이, 2018; 이재경·조혜정, 2012; 전미경·장재숙, 2009). 특히 행복감이 높은 부모가 유아기부터 일관되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취학 후 아동의 행복감이 높았다. 유아기 일관되고 따뜻한 부모의 상호작용이 아동기 행복감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아동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유아기 행복감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행복감은 개인적 성향으로서, 어릴 때 행복감을 느끼는 성향적인 특성을 가장 크게 반영하기 때문에, 유아기 행복감이 아동의 행복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안수빈·은선민·이강이, 2018; 이재경·조혜정, 2012; 전미경·장재숙, 2009). 전미경·장재숙(2009)의 연구는 아동기 행복감에 있어 유아기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가정환경 변인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장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변인인 유아기 행복감이라고 했다. 유아기 행복감의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행복감에 지속적인 영향이 있음(Bhoskar, 2020)을 근거로 하여 Mertoğlu(2020)는 행복한 개인을 기르는데 부모와 교사 등 성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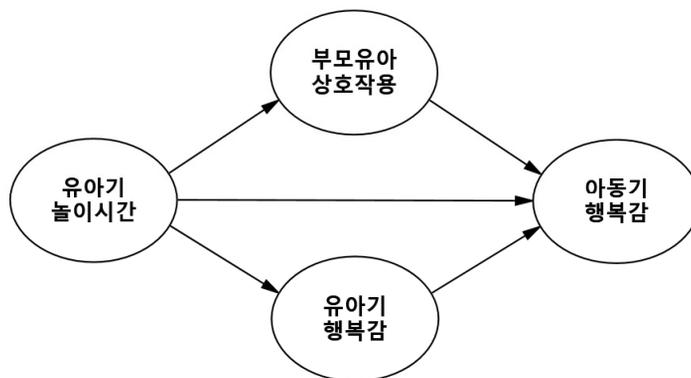
이처럼 유아기에 행복감을 경험하고, 행복의 성향을 기르는 것은 아동기를 거쳐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이승미·김희진, 2018). Batcho(2020)는 어린 시절의 행복이 미래 성인기의 성공과 행복을 예측할 만큼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Blanchard-McGehee(2020)는 긍정적인 감정과 함께 실패를 이겨내고, 새롭게 도전하는 성향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것이 유아가 평생 행복감을 느끼는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한 어린 유아일수록 물질적인 것을 통해 행복을 얻지만, 부모와 주변 사람에게 영향받은 다양한 경험은 일생 유아가 느낄 행복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Chaplin, Lowrey, & Ruvio et al., 2020). 여러 연구를 통해, 개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 행복감 형성에 있어 주변 성인의 다양한 경험 제공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국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종단연구로 진행되는 한국아동패널(PSKC)도 행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행복감 조사를 하고 있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는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변인 연구(이경선, 2017), 교사 변인과 행복감 연구(이강훈·서원석, 2018), 부, 모 관련 변인과 행복감 연구(기쁘다, 2018; 김근혜, 2020; 김은숙, 2020; 박보경·노지운, 2019; 박혜진, 2019; 연은모·최효식, 2020; 이은지, 2020; 한영숙, 2020)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놀이하는 것을 행복으로 인식하는 유아 및 아동의 특성(박희경·강인설, 2014; 백지혜·윤유진, 2016; 홍용희·김혜전·전우용, 2014; Başaran & Öğretir Özçelik, 2020)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김은숙(2020)의 놀이만족도 매개효과 연구를 제외하면 한국아동패널을 사용하여 행복

과 놀이의 관계에 대해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부모, 기관, 지역사회 등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유아의 발달환경이나 행복감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한 연구 외에 행복감을 연구한 다른 종단연구(이재경·조혜정, 2012; 전미경·장재숙, 2009)에서도 주로 유아기와 아동기의 행복감 관계를 살펴보거나 아동이나 부모의 특성에 따른 행복감을 연구하여, 행복과 놀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반면, 유아기 놀이와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유아기의 행복감이 이후 아동기나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해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이 아동기 행복감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아기 놀이시간이 아동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아기 놀이시간이 아동기 행복감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이 있는지 다집단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다집단분석은 집단 간에 일반성이 성립하거나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내용을 해석하는 연구로, 아동의 연령과 같이 시간적인 특성으로 집단이 구분되는 경우 종단연구로 활용할 수 있다(이순목·김한조, 2011). 따라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집단의 종단적인 변화를 알아보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과 아동기 행복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유아기 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의 관계에서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3.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는 연령 간 차이를 보이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에서 경험한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이 이후 아동기에 느끼는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또한 8세부터 11세까지 아동 연령별로 구성된 집단 내 동일한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가 연령에 따라 종단적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7차년도(2014년)부터 11차년도(2018년) 한국 아동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아동으로, 전체 2,150명 중 미응답자를 제외한 1,620명의 아동이며, 해당 아동의 8-11차년도 종단적 데이터를 분석했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이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어머니의 응답 일부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아동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아동은 7차년도를 기준으로 평균 월령 75.14개월($SD=1.46$)의 아동 1,620명(남아 832명, 여아 788명)이다. 최종 분석에 활용한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7차년도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N=1,620)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월령(M/SD)
아동			
남아	832	51.4	75.13(1.47)
성별			
여아	788	48.6	75.16(1.44)
전 체	1,620	100.0	75.14(1.46)

연구대상 아동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7차년도를 기준으로 36.83세($SD=3.69$)이며 최소 25세부터 최대 53세 연령의 어머니가 연구에 참여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자가 1,046명(65.0%)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전업주부가 851명(53.6%), 취업자가 725명(45.7%)으로 많았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7차년도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n=1609)	25세-30세	56	3.5
	31세-35세	541	33.6
	36세-40세	774	48.1
	41세 이상	238	14.8
최종학력 (n=1609)	무학-고등학교졸업	473	29.4
	전문대-대학교졸업	1,046	65.0
	대학원졸업	90	5.6
직장 (n=1587)	취업중(휴직, 학업병행)	725	45.7
	학업중(휴학포함)	11	0.7
	전업주부	851	53.6

2. 연구도구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일반, 심층조사로 구분되며, 일반조사는 조사업체 (주)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가 2007년 예비 표본 구축단계부터 담당하여 진행했다(육아정책연구소, 2016).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11차년도 데이터 중 보호자용, 어머니용, 아동용 질문지 일부를 활용해, 연구 변인과 관련되어 추출한 문항을 자료 분석에 이용했다. 각 변인에 해당되는 문항출처 질문지와 문항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변인 관련 문항

변인	질문지	문항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Cronbach α)
유아기 놀이시간	7차 보호자용	·일별 실내놀이시간	1	7.6	.36
		·주별 실내놀이일수	1	7-3	
부모-유아 상호작용	7차 어머니용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8가지 놀이)	8	9-1, 9-2, 9-3, 9-4, 9-6, 9-7, 9-8, 9-9	.82
유아기 행복감	7차 아동용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4	5-1, 5-2, 5-3, 5-4	.55
아동기 행복감	8-11차 아동용	·아동기 행복감 (8차, 8번/ 9차, J02번/ 10-11차, J03번 변경)	6	8-1, 8-2, 8-3, 8-4, 8-5, 8-6	8차: .68
					9차: .72
					10차: .74
					11차: .77

*주) 놀이시간은 아동의 일상생활 시간 중 일부 추출한 시간

가. 유아기 놀이시간

유아기 놀이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장명림·신나리·박수연(2006)의 아동패널조사 모형 개발 연구에 기초하여 5차년도(2013)부터 적용된 아동특성의 일과 활동시간 일부 문항을 사용했다(도남희·민정원·왕영희 외, 2013). 해당 도구는 5세부터 7세 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하였으며, 자녀의 일별 장난감놀이, 책보기 등 실내놀이시간 및 주별 실내놀이일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개년 자료 중 7차년도에 수집된 '일별놀이시간'과 '주별놀이일수'를 분석했다.

'일별놀이시간'은 보호자의 관찰을 토대로 하여, 가장 일상적인 평일 기준으로 아동이 하루 동안 장난감, 책보기 등의 실내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을 응답하도록 했다. 놀이시간은 '시'단위로 조사하여 30분을 '.5'로 표시했고, 0시간부터 작성 가능했다. 또 실내놀이시간을 포함한 전체 일과시간의 합이 24시간을 넘지 않게 했다. '주별놀이일수'는 직전 일주일 기준으로 아동이 실내놀이를 며칠 했는지 조사했으며, 작성 범위는 1일에서 7일까지다. 일별놀이시간과 주별놀이일수는 개별 유아의 가정환경, 부모와 유아 성향, 건강상태, 소속 기관의 유형 등에 따라 작성되는 답변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수집된 자료의 문항 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 α)는 .36으로 낮은 편이다. 본 연구는 일별놀이시간과 일별놀이시간, 주별놀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주별놀이시간을 유아기 놀이시간 변인으로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별놀이시간, 주별놀이시간이 길어짐을 의미한다.

나. 부모-유아 상호작용

가정에서의 부모-유아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 중 부모와 유아 상호작용에 관한 일부 문항을 사용했다. 본 연구는 7차년도에 수집된 부모-유아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본 도구는 총 9개의 검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내용은 '아이에게 책을 읽어 준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 준다.',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아이와 함께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과학 놀이를 한다.' 등이다. '책읽기, 이야기하기, 노래, 미술-만들기, 퍼즐이나 게임, 자연 및 과학놀이, 조립용 완구놀이, 스포츠나 운동' 등 대부분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5번째 문항은 '요리, 청소, 상차리기, 애완동물 돌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아이와 함께 한다.'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모-유아의 놀이 상호작용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제외한 8문항의 결과만 분석했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 척도로 '전혀 하지 않음'은 1점, '1~2번'은 2점, '3~6번'은 3점, '매일 함'은 4점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유아 간 놀이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유아 상호작용(7차년도)의 문항내

적일관성신뢰도(Cronbach α)는 .82였다.

다. 유아기 행복감

유아기 행복감 측정을 위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도구를 사용했다. 해당 도구는 한국 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고 예비 조사하여 문항을 확정한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감’ 도구이며, 본 연구는 7차년도에 수집된 유아의 주관적 행복감 데이터를 분석했다.

본 도구는 4문항으로 구성되며 내용은 ‘보통 나는...’, ‘내 친구들에 비해 나는...’,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산대. 00(이)도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슬픈 일이 없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00(이)도 그러니?’ 등 ‘자아, 또래비교, 긍정성향, 부정성향’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 척도로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1점부터 ‘매우 행복해요’ 4점으로 평정하며, 표정 그림을 제시해 유아의 응답을 도왔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7차년도 유아기 행복감의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 α)는 .55였다. 어린 아동의 경우 측정상황과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황해익 외, 2013) 신뢰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라. 아동기 행복감

8세부터 11세의 아동기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구성한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도구를 사용했다. 원 도구는 Millennium Cohort Study(MCS, 2008)가 제시한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이다. 본 연구는 8~11차년도에 수집된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데이터를 분석했다.

본 도구는 6문항으로 구성되며, ‘○○는 학교공부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어떠니?’ 등 학교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삶 관련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 척도로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1점,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2점, ‘행복한 편이에요’ 3점, ‘매우 행복해요’ 4점으로 평정하며, 표정 그림을 제시해 아동의 응답을 도왔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 α)는 8차 .68, 9차 .72, 10차 .74, 11차 .77이었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과 아동기 행복감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의 데이터는 대상 아동이 7세 유아에 해당되는 7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했다. 아동기 행복감 데이터는 초등학교 진학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까지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고자 8~11

차년도의 4개년 데이터를 사용했다. 분석한 연구모형의 데이터 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분석 연구모형

구 분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성
모형1 (7차+8차)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7차)+아동기 행복감(8차)
모형2 (7차+9차)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7차)+아동기 행복감(9차)
모형3 (7차+10차)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7차)+아동기 행복감(10차)
모형4 (7차+11차)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7차)+아동기 행복감(11차)

4.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과 아동기 행복감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의 연령에 따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의 차이가 종단적으로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패널 7-11차년도 데이터를 SPSS 26.0, AMOS 26.0 프로그램으로 분석했다.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Cronbach α)를 산출했다. 셋째, 각 변인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로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 왜도와 첨도를 산출했다. 넷째,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다섯째, 유아기 놀이시간이 아동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유아 상호작용 및 유아기 행복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로를 검증하였다. 우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검증을 했다. 그리고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각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로 알아보는 데, χ^2 값은 모형 오류와 함께 표본 크기의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도 고려해야 한다(홍세희, 2000). 따라서 χ^2 값과 함께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GFI와 RMSEA를 통해 적합도를 평가했다. 이어서 매개변인인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한 간접효과를 검증했다. 마지막으로 8-11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된 아동기 행복감 변인의 특성을 반영해 연령별 모집단을 구성한 후 아동의 연령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에 종단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했다. 집단별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 값은 통계적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단순비교가 어렵다. 둘 이상 집단의 경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는 다집단분석 방법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성정혜·김춘경, 2019). 따라서 8세부터 11세까지의 아동의 연령에 따른 네 개 집단의 변인들 간 유의한 종단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다집단분석을 활용했다.

III. 연구결과

1.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의 경향성과 정규성 검증

가.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의 경향

유아기 놀이시간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별놀이시간과 주별놀이일수, 주별놀이시간의 빈도와 백분율,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알아보았고 결과는 <표 5>와 같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에 따르면, 7세 유아의 일별놀이시간은 평균 1.85시간($SD=.98$)이며 주별놀이시간은 평균 12.14시간($SD=7.15$)이었다. 일별로 하루 1시간(552명, 34.1%)과 2시간(517명, 31.9%) 놀이하는 아동이 많았고, 주별로 매일 놀이하는 아동이 1,206명(74.4%)로 가장 많았다. 주중에는 총 14시간(387명, 23.9%)과 7시간(363명, 22.4%) 놀이하는 아동이 많았다. 가정에서 전혀 놀이를 안 하는 아동은 7명(4%)이었으며, 하루 최대 6시간 이상 놀이하는 아동도 7명(4%)이고, 주중 최대 35시간 이상 놀이하는 아동은 27명(17%)이었다. 일별놀이시간의 왜도와 첨도는 1.22, 2.12이며, 주별놀이시간의 왜도와 첨도는 1.16, 1.85로 나타났다. 변인의 왜도가 절대값 2, 첨도가 절대값 4를 넘지 않으므로 정규분포에서 벗어난 변인은 없어 구조방정식 모형의 조건을 충족했다.

<표 5>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의 일반적인 경향

구분	(N=1620)		평균 (M)	표준편차 (SD)	왜도	첨도
	유효한 n	결측값				
일별놀이시간 (7차)	1620	0	1.85	.98	1.22	2.12
주별놀이일수 (7차)	1613	7	6.42	1.19	-2.21	4.44
주별놀이시간 (7차)	1620	0	12.14	7.15	1.16	1.85
부모-유아 상호작용 (7차)	1565	55	2.26	.52	.51	.54
유아기 행복감 (7차)	1557	63	3.59	.50	-1.28	1.34
아동기 행복감 (8차)	1535	85	3.25	.48	-.61	.29
아동기 행복감 (9차)	1458	162	3.33	.44	-.68	.64
아동기 행복감(10차)	1434	186	3.32	.45	-.85	1.00
아동기 행복감(11차)	1376	244	3.31	.46	-.69	.60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과 아동기 행복감의 기술통계 결과 부모-유아 상호작용은 평균 2.26($SD=.52$)이며, 4점 척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정에서 부모와 유아의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은 주 1~2회 정도 진행된 편이다. 유아기 행복감은 평균 3.59($SD=.50$)이며, 4점 척도 기준으로 봤을 때, 7세 유아들은 많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편이다. 아동기 행복감은 8차 3.25($SD=.48$), 9차 3.33($SD=.44$), 10차 3.32($SD=.45$), 11차 3.31($SD=.46$)로 4점 척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동들은 많이 행복한 편이며, 연령이 많아지더라도 영아기 행복감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변인의 왜도는 -1.28에서 1.22이며, 첨도는 .29에서 2.12로 나타났다. 왜도가 절대값 2, 첨도가 절대값 4를 넘지 않으므로 정규분포에서 벗어나는 변인은 없어 구조방정식 모형의 조건을 충족했다.

나.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 간의 관계

구조분석에 앞서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른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 관계는 <표 6>과 같다.

<표 6>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 관계

구분	①	②	③	④
①	1			
②	.97**	1		
③	.04*	.07**	1	
④	.06**	.04*	.06**	1
⑤	.05*	.05*	.08**	.11**
⑥	.04*	.03**	.05*	.12**
⑦	.07**	.08**	.07**	.09**
⑧	.04	.04*	.08**	.08**

유효한 $N=1,503$, * $p<.05$, ** $p<.01$

① 유아기 놀이시간-일별놀이시간(7차)

② 유아기 놀이시간-주별놀이시간(7차)

③ 부모-유아 상호작용(7차)

④ 유아기 행복감(7차)

⑤ 아동기 행복감(8차)

⑥ 아동기 행복감(9차)

⑦ 아동기 행복감(10차)

⑧ 아동기 행복감(11차)

먼저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기 놀이시간과 부모-유아 상호작용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기 놀이시간은 부모-유아 상호작용(일별, $r=.04$, $p<.05$ / 주별, $r=.07$,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것은 유아기 놀이시간이 길수록 부모와 유아 간 놀이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유아기 놀이시간과 유아기 행복감 간의 분석 결과, 유아기 놀이시간은 유아기 행복감(일별, $r=.06$, $p<.01$ / 주별, $r=.04$,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가정에서의 놀이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아기 행복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r=.06, p<.05$)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유아 간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을수록 유아기 행복감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유아기 놀이시간과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하면, 가정에서의 유아기 놀이시간이 길수록 부모와 유아 간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아지고 유아기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적 상관관계는 쌍방향적 관계로 부모-유아 상호작용 빈도가 높고, 유아기 행복감이 높은 유아는 가정에서 경험한 유아기 놀이시간이 더 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7차)과 아동기 행복감(8, 9, 10, 11차)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아기 일별 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8차, $r=.05, p<.05$ / 9차, $r=.04, p<.05$ / 10차, $r=.07, p<.01$), 주별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8차, $r=.05, p<.05$ / 10차, $r=.08, p<.01$ / 11차, $r=.04, p<.05$)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일별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11차), 주별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9차) 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유아기 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의 세부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별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11차) 세부 변인(삶, $r=.05, p<.05$), 주별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9차) 세부 변인(삶, $r=.07, p<.01$)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일별, 주별 놀이시간이 길수록 아동기 행복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아기 놀이시간은 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아동기 행복감(8차, $r=.08, p<.01$ / 9차, $r=.05, p<.05$ / 10차, $r=.07, p<.01$ / 11차, $r=.08, p<.01$)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놀이를 통한 부모-유아 상호작용 빈도가 높을수록 아동기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부모-유아 상호작용은 아동의 연령과 상관없이 아동기 행복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유아기 행복감과 아동기 행복감(8차, $r=.11, p<.01$ / 9차, $r=.12, p<.01$ / 10차, $r=.09, p<.01$ / 11차, $r=.08, p<.01$)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행복감이 높을수록 아동기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기 행복감은 아동기 행복감에 계속 영향을 미치지만, 대체로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의 유아기 놀이시간이 길수록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아지며, 유아기 행복감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기 놀이를 통한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은 아동과 유아기 행복감이 높은

아동은 아동기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만으로 각 변인들 간의 직접·간접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 없으므로 구조모형의 경로분석과 다집단분석을 실시해 변인 간 복합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이지영·장원호·김민진, 2018).

2.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의 구조모형 분석

가.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는 유아기 놀이시간이 아동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살펴보았다.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는지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 등 측정 변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했다.

〈표 7〉부모-유아 상호작용(7차년도)의 요인분석 결과

구 분	작용요인1	작용요인2	작용요인3	작용요인4	공통분
함께 퍼즐게임놀이	.65	.21	.17	.16	.52
함께 조립용 완구놀이	.64	.21	.10	.20	.50
함께 자연이야기, 과학놀이	.58	.20	.21	.16	.45
함께 스포츠, 운동놀이	.54	.16	.21	.04	.37
이야기해주기	.19	.64	.37	.06	.59
책읽어주기	.22	.60	.05	.13	.43
함께 노래부르기	.37	.26	.55	.20	.55
미술, 만들기등기	.39	.22	.25	.43	.45
고유값	1.84	1.05	.64	.34	
설명분산	22.96	13.09	7.95	4.20	
누적분산	22.96	36.05	44.00	48.20	
문항 수	4	2	1	1	8

*주) 반복주축분해법과 직교회전에 의한 분석 결과

여러 변인 중 부모-유아 상호작용은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기 행복감 4문항, 아동기 행복감 6문항에 비해 문항이 많은 부모-유아 상호작용 변인의 차원 축소를 위해 부모-유아 상호작용 7차년도 자료의 요인분석을 진행했다. 그리고 동일 하위요인으로 차원 축소가 가능한 4개 항목 묶기를 했다. 요인분석 결과, 표본 적합도인

KMO값이 .88로서 1에 가깝고 변인들 간의 상관인 0인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통계값(성태제, 2016)이 3455.89($df=28$, $p<.001$)로 유의하므로 상관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했다. 표본 검사에 포함된 문항들이 이론에서 가정한 요인구조를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했으며,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네 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표본은 전체 분산의 48.48%를 설명했다. .4이상 요인부하량 값을 가진 문항이 구성된 4개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요인별로 포함된 하위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은 퍼즐게임, 조립용 완구, 과학, 스포츠·운동 등에 해당된다. 둘째 요인은 이야기해주기, 책 읽어주기이다. 셋째, 요인은 노래부르기, 넷째 요인은 미술, 만들기 돕기였다. 이를 통해 총 8개 문항의 부모-유아 상호작용 하위요인은 4개 요인으로 축소되었다.

<표 8>측정모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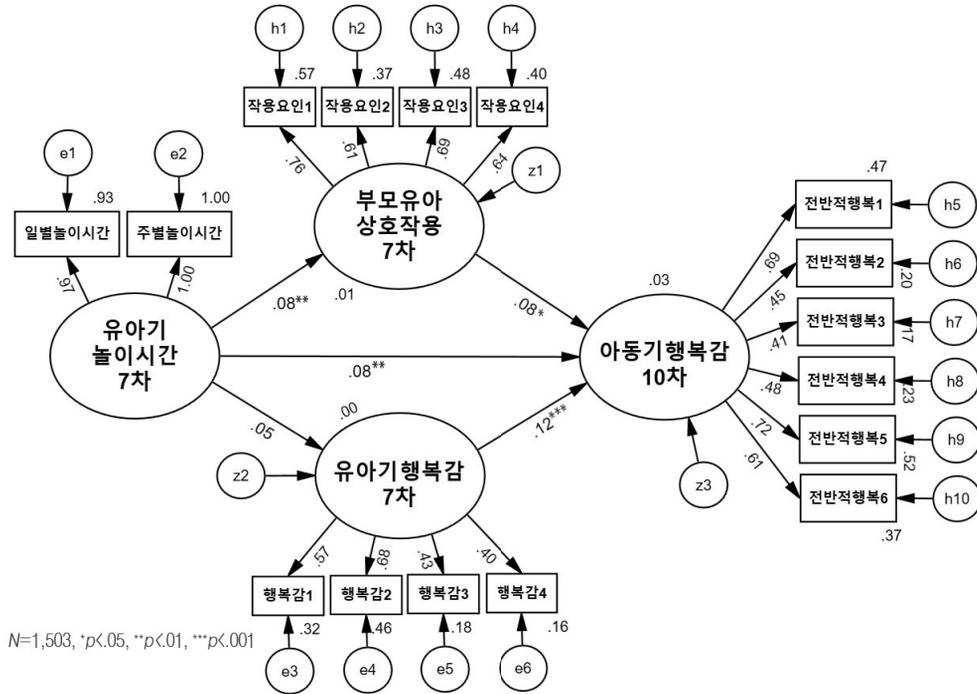
구분	χ^2	p	df	χ^2/df	GFI	TLI	CFI	RMSEA
수용기준	-	$p<.001$	-	5 이하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05 이하
모형1 (7차+8차)	213.08	$p=.000$	98	2.17	.98	.98	.98	.03
모형2 (7차+9차)	246.31	$p=.000$	98	2.51	.98	.98	.98	.03
모형3 (7차+10차)	281.69	$p=.000$	98	2.87	.98	.97	.98	.04
모형4 (7차+11차)	362.70	$p=.000$	98	3.70	.97	.96	.97	.04

부모-유아 상호작용 하위요인의 4개 항목 묶기를 통해 구성된 측정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7차)과 아동기 행복감(8-11차) 측정모형의 구성된 적합도는 <표 8>과 같다. 적합도 검증 시, χ^2 는 표본 크기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χ^2 값과 더불어 다른 적합도 지수도 고려해야 한다(홍세희, 2000). Schumacker와 Lomax(2004)는 적합한 χ^2/df 값을 5미만으로 제시했고, 홍세희(2001)는 TLI, CFI, GFI의 값을 .90이상, RMSEA의 값은 .05이하로 적합도 기준을 제시했다(성태제, 2016).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연구자들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여 적합도가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나.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이 유아기 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7차년도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과 8, 9, 10, 11차년도 아동기 행복감 데이터를 결합한 총 4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차별로 집단을 나누는 이유는 한국아동패널의 데이터 수집이 연차별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종단연구 특성상 동일 아동일지라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수집된 연차별 데이터는 별개로 취급된다.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이 아동기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변인들 간 연구모형의 경로에 따른 적합도 지수 [$\chi^2=217.82\sim367.45(df=99, p<.001)$, $\chi^2/df=2.20\sim3.71$, GFI=.97~.98, TLI=.96~.98, CFI=.97~.98, RMSEA=.03~.04]는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표 9〉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결과

모형	경로	B	β	SE	C.R.
모형1 (7차+8차)	유아기 놀이시간 → 아동기 행복감	.03	.05	.02	1.50
	부모-유아 상호작용 → 아동기 행복감	.16	.10	.06	2.92**
	유아기 행복감 → 아동기 행복감	.37	.15	.10	3.87***
	유아기 놀이시간 → 부모-유아 상호작용	.03	.07	.02	2.19*
	유아기 놀이시간 → 유아기 행복감	.02	.06	.01	1.58
모형2 (7차+9차)	유아기 놀이시간 → 아동기 행복감	.02	.04	.02	1.37
	부모-유아 상호작용 → 아동기 행복감	.10	.07	.04	2.22*
	유아기 행복감 → 아동기 행복감	.35	.18	.08	4.64***
	유아기 놀이시간 → 부모-유아 상호작용	.02	.05	.02	1.26
	유아기 놀이시간 → 유아기 행복감	.02	.07	.01	2.21*
모형3 (7차+10차)	유아기 놀이시간 → 아동기 행복감	.04	.08	.02	2.68**
	부모-유아 상호작용 → 아동기 행복감	.10	.08	.04	2.32*
	유아기 행복감 → 아동기 행복감	.23	.12	.07	3.24***
	유아기 놀이시간 → 부모-유아 상호작용	.03	.08	.01	2.57**
	유아기 놀이시간 → 유아기 행복감	.01	.05	.01	1.34
모형4 (7차+11차)	유아기 놀이시간 → 아동기 행복감	.02	.04	.02	1.17
	부모-유아 상호작용 → 아동기 행복감	.11	.10	.04	2.99**
	유아기 행복감 → 아동기 행복감	.19	.11	.06	2.98**
	유아기 놀이시간 → 부모-유아 상호작용	.03	.08	.01	2.35*
	유아기 놀이시간 → 유아기 행복감	.02	.05	.01	1.38

$N=1,503$, * $p<.05$, ** $p<.01$, *** $p<.001$

각 집단의 모형 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각 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유아기 놀이시간은 아동기 행복감(10차, $\beta=.08$, $p<.01$)과 부모-유아 상호작용(8차, $\beta=.07$, $p<.05$ / 10차, $\beta=.08$, $p<.01$ / 11차, $\beta=.08$, $p<.05$), 유아기 행복감(9차, $\beta=.07$, $p<.05$)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다. 이는 유아기 놀이시간이 길수록 아동기 행복감이 높아지고, 놀이를 통한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아지며, 유아기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모-유아 상호작용은 아동기 행복감(8차, $\beta=.10$, $p<.01$ / 9차, $\beta=.07$, $p<.05$ / 10차, $\beta=.08$, $p<.05$ / 11차, $\beta=.10$, $p<.01$)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다. 이는 놀이를 통한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을수록 아동기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차별로 부모-유아 상호작용이 아동기 행복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8차부

터 11차까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영향력이 작아지다가 다시 커졌다.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영향력은 아동의 행복감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유아기 행복감은 아동기 행복감(8차, $\beta=.15, p<.001$ / 9차, $\beta=.18, p<.001$ / 10차, $\beta=.12, p<.001$ / 11차, $\beta=.11, p<.01$)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다. 이는 유아기 행복감이 높을수록 아동기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차별로 유아기 행복감이 아동기 행복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8차부터 11차까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만 8, 9차에 미치는 영향력이 10, 11차로 갈수록 조금씩 줄었다.

종합하면, 가정에서의 유아기 놀이시간이 길수록 아동기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친다. 매년 아동기 행복감에 연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불규칙하게 아동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유아기 놀이시간 동안 경험하는 부모-유아의 상호작용 및 유아기 행복감은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아동기 행복감 인식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기 놀이시간이 아동기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변인 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했다. 연구모형의 각 변인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 첫째, 유아기 놀이시간은 아동기 행복감에 직접적(10차, $\beta=.08, p<.01$), 간접적(8차, $\beta=.02, p<.05$ / 9차, $\beta=.02, p<.05$ / 11차, $\beta=.01, p<.05$)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유아 상호작용은 아동기 행복감에 직접적(8차, $\beta=.10, p<.01$ / 9차, $\beta=.07, p<.05$ / 10차, $\beta=.08, p<.05$ / 11차, $\beta=.10, p<.01$)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다. 유아기 행복감도 아동기 행복감에 직접적(8차, $\beta=.15, p<.001$ / 9차, $\beta=.18, p<.001$ / 10차, $\beta=.12, p<.01$ / 11차, $\beta=.11, p<.01$)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유아기 놀이시간은 아동기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있으나 대개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또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은 아동기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개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유아기 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의 관계에서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이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기 놀이시간을 길게 지속하며 놀이를 통한 부모-유아의 상호작용의 빈도를 높이고, 유아기 행복감이 높아질 때 아동기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다.

(표 10) 아동기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의 직접·간접효과 및 매개효과 검증

모형	경로	Bootstrapping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모형1 (7차+8차)	유아기 놀이시간 → 아동기 행복감	.05	.02*	.06*
	부모-유아 상호작용 → 아동기 행복감	.10**		.10**
	유아기 행복감 → 아동기 행복감	.15***		.15***
	유아기 놀이시간 → 부모-유아 상호작용	.07		.07
	유아기 놀이시간 → 유아기 행복감	.06		.06
모형2 (7차+9차)	유아기 놀이시간 → 아동기 행복감	.04	.02*	.05
	부모-유아 상호작용 → 아동기 행복감	.07*		.07*
	유아기 행복감 → 아동기 행복감	.18***		.18***
	유아기 놀이시간 → 부모-유아 상호작용	.05		.05
	유아기 놀이시간 → 유아기 행복감	.07		.07
모형3 (7차+10차)	유아기 놀이시간 → 아동기 행복감	.08**	.01	.09**
	부모-유아 상호작용 → 아동기 행복감	.08*		.08*
	유아기 행복감 → 아동기 행복감	.12**		.12**
	유아기 놀이시간 → 부모-유아 상호작용	.08*		.08*
	유아기 놀이시간 → 유아기 행복감	.05		.05
모형4 (7차+11차)	유아기 놀이시간 → 아동기 행복감	.04	.01*	.05
	부모-유아 상호작용 → 아동기 행복감	.10**		.10**
	유아기 행복감 → 아동기 행복감	.11**		.11**
	유아기 놀이시간 → 부모-유아 상호작용	.08*		.08*
	유아기 놀이시간 → 유아기 행복감	.05		.05

N=1,503, * $p < .05$, ** $p < .01$, *** $p < .001$

유아기 놀이시간이 아동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본 결과, 유아기 놀이시간이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을 매개로 하여 아동기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했다(8차, $\beta = .016$, $p < .05$ / 10차, $\beta = .016$, $p < .05$ / 11차, $\beta = .014$, $p < .05$). 또한 유의한 간접효과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8차, 10차, 11차에 나타난 결과의 아동의 연령에 따른 변화는 크게 없었다.

다음으로, 유아기 놀이시간이 아동기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 각각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유아기 놀이시간이 아동기 행복감(8차)에 영향을 미칠 때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의 매개효과(상호작용, $\beta = .009$, $p < .05$ / 행복감, $\beta = .011$,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정적효과를 나타냈으며 부모-유아 상호작용보다 유아기 행복감의 매개효과가 조금 더 컸다. 유아기 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9차) 간에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의 매개효과(상호작용, $\beta=.006$, $p<.05$ / 행복감, $\beta=.010$,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정적효과를 나타냈으며 부모-유아의 상호작용보다 유아기 행복감의 매개효과가 더 컸다. 유아기 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10차) 간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의 매개효과($\beta=.007$,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유아기 행복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유아기 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11차) 간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의 매개효과(상호작용, $\beta=.008$, $p<.01$ / 행복감, $\beta=.008$,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정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유아기 행복감보다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가 더 유의했다. 매개변인별 간접효과를 정리하면, 유아기 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유아기에 가까운 어린 연령의 아동은 부모-유아 상호작용보다 유아기 행복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영향이 더 커지고, 유아기 행복감의 영향은 줄어들었다.

〈표 11〉 매개 변인별 효과 검증

경로	B	β
유아기 놀이시간 → 부모-유아 상호작용 → 아동기 행복감(8차)	.006*	.009*
유아기 놀이시간 → 유아기 행복감 → 아동기 행복감(8차)	.007*	.011*
유아기 놀이시간 → 부모-유아 상호작용 → 아동기 행복감(9차)	.006*	.006*
유아기 놀이시간 → 유아기 행복감 → 아동기 행복감(9차)	.005*	.010*
유아기 놀이시간 → 부모-유아 상호작용 → 아동기 행복감(10차)	.007*	.007*
유아기 놀이시간 → 유아기 행복감 → 아동기 행복감(10차)	.004	.008
유아기 놀이시간 → 부모-유아 상호작용 → 아동기 행복감(11차)	.008**	.008**
유아기 놀이시간 → 유아기 행복감 → 아동기 행복감(11차)	.003*	.008*

* $p<.05$, ** $p<.01$

3. 아동의 연령에 따른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의 다집단분석

본 연구는 8세부터 11세까지 아동의 연령에 따라 구성된 네 개의 집단의 변인들 간 구조모형의 경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순목·김한조(2011)는 하나의 집단이 시점에 따라 변화할 때 구체적인 변인 파악을 위해서 요인동일성 검증을 통한 다집단분석이 요구된다고 했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1,620명의 아동이 8세부터 11세까지 느끼는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비교해 보고자 했다. 따라서 다집단분석에 앞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요인분산동일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이미라·박세정,

2020), 이에 대한 검증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
형태동일성	1096.18	392	.97	.98	.02
측정동일성	1174.28	428	.97	.98	.02
절편동일성	1551.00	476	.96	.97	.02
측정, 척도 및 요인분산 동일성	1523.51	472	.96	.97	.02

아동의 연령에 따른 네 개의 집단으로 구성된 연구모형이 동일 측정모형을 갖는지 평가하고자 모든 잠재변수를 상관관계로 연결하여 형태동일성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 적합도 지수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켜 네 집단 간의 형태동일성이 확인되었다 [$\chi^2(df=392, N=1,620)=1096.18, p<.001, TLI=.97, CFI=.98, RMSEA=.02$]. 다음 단계인 집단 간 구조모형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변수의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고정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χ^2 값 차이가 유의하므로 [$\Delta\chi^2(df=36)=78.1, p<.001$], χ^2 적합도 검증에 따른 측정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적합도는 [$\chi^2(df=428, N=1,620)=1174.28, p<.001, TLI=.97, CFI=.98, RMSEA=.02$]로 만족할 수준이었고, 형태동일성 모형에 비해 적합도 지수가 나빠지지 않아 측정동일성 모형은 성립되었다. 따라서 네 개의 집단에서 측정도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각 집단별 측정변수의 절편에 동일성 제약을 가하여 절편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값 차이가 유의하므로 [$\Delta\chi^2(df=48)=376.72, p<.001$], χ^2 적합도 검증에 따른 절편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적합도는 [$\chi^2(df=476, N=1,620)=1551.00, p<.001, TLI=.96, CFI=.97, RMSEA=.02$]이고, 지수가 나빠지지 않아 절편동일성 모형도 성립되었다. 이로써 연구모형이 집단에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절편동일성 검증으로 아동의 연령에 따른 네 집단에서 측정도구와 절편이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집단에서 관찰된 평균 차는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실제적인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이 성립되어 요인분산동일성 가정 검증이 가능하므로, 잠재변수의 분산에 동일성 제약을 가하여 절편동일성 결과와 비교하였다. 검증 결과, χ^2 값의 차이는 유의하므로 [$\Delta\chi^2(df=4)=-27.49, p<.001$], χ^2 적합도 검증에 따른 요인분산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TLI=.96, CFI=.97, RMSEA=.02]로 지수가 나빠지지 않아 요인분산동일성 모형도 성립되었다. 동일성 검증을 통해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가 가능해졌으므로 다집단의 주요 변인이 해마다 달라지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아동의 연령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 차이 분석

아동의 연령에 따른 다집단분석을 통해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의 네 개 집단의 변인 간 영향력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했다. 구조동일성 검증을 통한 집단별 경로계수 비교에 앞서, 각 집단의 결과값을 표준화하여 집단 간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는 Cohen의 효과크기(d)를 알아보았다. 요인분산동일성을 검증하여 유아기 놀이시간($\sigma=2.26$), 부모-유아 상호작용($\sigma=.17$), 유아기 행복감($\sigma=.08$), 아동기 행복감($\sigma=.27$) 등 네 집단 공통표준편차(σ)와 집단간 잠재평균 차이를 계산하여 효과크기(d)를 산출했다. 효과크기(d)는 '.2이하 효과가 작은 것, .5는 중간, .8이상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의 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아동기 행복감도 부분적으로 중간(9세 $d=.58$)의 정적효과와 작은(10세 $d=-.16$) 부적효과가 나타났다. 8, 11세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 Cohen 효과크기(d)에서 각 변인들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아동의 연령에 따른 변인들 간 영향력 검증은 집단 간 경로계수를 통해 비교하였다.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 간의 경로에 대한 아동의 연령별 네 집단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5개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하여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했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네 개 집단을 비교하여 5개 경로계수 각각 동일성제약을 가한 모형의 $df=3$ 으로 같았다.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성제약을 가해도 적합도지수는 만족스럽고, 나빠지지 않아 [$\chi^2(df=15)=9.26, p<0.001, TLI=.97, CFI=.98, RMSEA=.02$] 구조동일성은 성립되었다. 또한 각 경로계수별로 동일성제약을 가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네 집단의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 간 구조적 관계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에 근거해, 8, 9, 10, 11세 네 개 집단의 경로계수, C.R. 값, 유의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최종 모형에서의 아동 연령에 따른 집단별 경로계수

경로	8세				-	9세			9세-8세
	B	β	C.R.	Δ C.R.	B	β	C.R.	Δ C.R.	
유아기 놀이시간 → 아동기 행복감	.00	.01	.52	-	.01	.02	.94	.43	
유아기 행복감 → 아동기 행복감	.35	.14	3.73***	-	.35	.18	4.72***	.99	
부모-유아 상호작용 → 아동기 행복감	.17	.10	3.04**	-	.08	.06	1.92	-1.13	
유아기 놀이시간 → 유아기 행복감	.01	.03	.77	-	.01	.03	.95	.18	
유아기 놀이시간 → 부모-유아 상호작용	-.01	-.03	-.78	-	-.01	-.03	-.96	-.18	

경로	10세				10세-9세	11세			11세-10세
	B	β	C.R.	Δ C.R.	B	β	C.R.	Δ C.R.	
유아기 놀이시간 → 아동기 행복감	.00	.00	.42	-.52	.00	.00	.24	-.18	
유아기 행복감 → 아동기 행복감	.22	.12	3.29***	-1.43	.19	.11	3.04**	-.24	
부모-유아 상호작용 → 아동기 행복감	.10	.08	2.56**	.64	.12	.10	3.16**	.60	
유아기 놀이시간 → 유아기 행복감	.01	.03	.91	-.04	.01	.03	.83	-.08	
유아기 놀이시간 → 부모-유아 상호작용	-.01	-.03	-.91	.05	-.01	-.03	-.83	.08	

** $p < .01$, *** $p < .001$

*주) Δ C.R. $\geq \pm 1.96$, $p \leq 0.05$ 경우 유의수준 만족

아동의 연령별 변인들의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8세~9세, 9세~10세, 10세~11세 등 한 살 간격으로 나타난 C.R.값을 비교했다. 그 결과 네 집단의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 경로의 Δ C.R.값을 살펴보면, 유아기 행복감,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이 아동기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진다. 9세에는 유아기 놀이시간이 직접적으로 아동기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고, 부모-유아 상호작용을 통한 아동기 행복감 경로는 영향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10세에는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영향이 커졌으며, 유아기 행복감 및 유아기 놀이시간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11세에는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영향이 커졌으며, 유아기 행복감 및 유아기 놀이시간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종모형에서 구조동일성 검증을 보인 경로계수만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유아기 놀이시간이 아동기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는 유아기 놀이시간이 아동의 연령과 상관없이 아동기 행복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종단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 종단적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유아기 가정에서 경험한 놀이시간이 이후 아동기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변인들 간 관계 변화를 아동의 연령에 따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7세 아동 1,620명이며, 7차년도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데이터와 8차년도(2015년)에서 11차년도(2018년) 아동기 행복감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 간에는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정에서의 유아기 놀이시간이 길수록 부모-유아 상호작용 빈도가 높아지고, 유아기 행복감도 높아졌다. 그리고 유아기 일별, 주별 놀이시간이 길수록 아동기 행복감도 높았는데 이를 통해 유아기 놀이시간은 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유아기 놀이를 통한 부모-유아 상호작용 빈도가 높을수록 아동기 행복감이 높아졌는데 부모와 유아 상호작용은 아동의 연령과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아동기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아기 행복감이 높을수록 아동기 행복감도 높았다. 유아기 행복감은 아동기 행복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대체로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영향력이 감소했다. 상관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기 놀이시간이 길수록 놀이를 통한 부모-유아 상호작용 빈도가 높고, 유아기 행복감도 높으며, 아동기 행복감이 높았다. 또 부모-유아 상호작용 빈도가 높고, 유아기 행복감이 높을수록 아동기 행복감도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린 시기에 충분히 놀이를 누린 아동이 행복을 더 많이 느끼며, 부모 등 성인과 가정에서 충분한 상호작용을 경험할수록 더 많은 행복을 느낀다고 한 김균희·송요현(2017), 박영애·김리진(2011), 박혜진(2019), 최유석(2018), 황옥경·한유미·김정화 외(2015), Anand와 Roope(2016) 등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또 행복감은 어린 연령에서 부모 등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모델링을 통해 이해하고 성향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며, 어린 시기 형성된 성향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승미·김희진(2018), Batcho(2020), Kell(2020), Valencia와 Valencia(2020)의 결과의 맥락을 같이 한다. 이현지·정혜옥(2016)도 유아기 행복이 이후 발달과 사회적 관계와 연관되며, 행복한 유아는 놀이에 몰입하고 만족한다고 했는데 연구결과의 상관성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유아기 놀이시간, 놀이를 통한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와 아동기의 행복감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7세 유아기 놀이시간은 부모-유아 상호작용 및 유아기 행복감을 매개하여 8~11세 아동기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유아기 놀이시간은 아동기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있으나 대개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은 아동기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두 변인의 매개경로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유아기 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의 관계에서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이 매개변인으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기 놀이시간을 풍부하게 경험하며 놀이를 통한 부모-유아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고, 유아기 행복감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할 때 아동기 행복감을 높게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아기 놀이시간이 아동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가 되는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의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했다. 유아기 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은 지속적으로 매개효과를 보였다. 8, 9세 때 유아기 행복감의 매개영향이 더 컸으며,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매개영향은 커지고, 유아기 행복감의 매개영향은 줄어들었다. 전미경·장재숙(2009)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아동기 행복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유아기 행복감이 아동기 행복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유아기 행복감과 영향요인이 감소하는 것도 유사하다. Bhoskar(2020)의 연구에서도 부모관계만족감과 어린 시기 행복감이 청소년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김충일·권윤정(2017), 안수빈·은선민·이강이(2018), 이재경·조혜정(2012)은 유아기 부모의 일관되고 온정적인 양육태도와 적극적 상호작용이 아동기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영향이 지속해서 나타나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기의 놀이경험과 긍정적인 성향을 형성하는 것이 인생 전반을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유아기 놀이경험과 활발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 행복감 등의 성향마련에 있어 부모의 역할수행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부모는 유아와 놀이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갖고, 유아기 풍부한 놀이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는 놀이를 통해 어린 자녀와 다양하고 질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유아에게 관계를 통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도록 돕고, 민감하고 적극적인 반응으로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성향 및 행복감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성향과 행복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놀이상황 및 일상생활의 경험을 유아기 자녀와 함께 공유하며 다양한 모델링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연령에 따른 다집단분석을 통해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 아동기 행복감의 네 개 집단의 영향력 차이를 종단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8세부터 11세까지 아동의 연령에 따른 네 집단의 구조적 관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아동의 연령과 상관없이 유아기 놀이시간이 아동기 행복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기 놀이시간이 아동기 행복감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미경·장재숙(2009)의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행복감의 인식의 변화가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유아기 형성한 행복감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이승미·김희진(2018), Blanchard-McGehee (2020), Chaplin, et al.(2020), Batcho(2020), Valencia와 Valencia(2020)의 주장과 유사하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행복은 한 개인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지 불행하게 살지를 결정짓는 척도가 된다(Batcho, 2020). 그리고 유아기 행복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족과 사회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Jain et al., 2019). 따라서 행복한 개인을 기르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 등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상호작용하며 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과 아동기 행복감의 구조적 관계를 객관화된 수치를 통해 분석하고 유아기 놀이시간이 아동기 행복감에 종단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유의한 상관관계를 밝힌 데 의의가 있다. 행복은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의되므로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목표가 되는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 역시 사회의 산물로서 학습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유아기 자녀에게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아이가 태어나서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어 자유롭고 즐거운 놀이를 경험하고, 행복의 태도와 성향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 및 아동의 행복 증진에 있어 가정에서 유아기 누리야 할 놀이의 권리 및 놀이를 통한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원시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부모-유아 관계를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지 못 했고, 연구결과에 따른 심도있는 분석이 불가능한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7세 유아의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행복감과 아동기 행복감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승숙·남기창(2016), 이현주(2019) 등 선행연구에서 학령기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놀이시간이 줄어들고, 부모-유아 상호작용도 줄어든다고 했다. 따라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놀이시간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더 어린 영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행복감 등이 이후 아동기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영유아기 행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 개발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므로 영유아기 행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도 필요하다. 셋째, 놀이 및 부모의 상호작용을 통한 어린 아동의 행복감 형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아동의 권리이자 아동의 행복 추구에 있어 기본이 되는 놀이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유아중심, 놀이중심 개념이 유아의 행복한 삶을 더 폭넓게 확장하는 가치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교육부·보건복지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 기쁘다(2018).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효능감, 아동 문제 행동과 행복 간 관계에 대한 중단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10(1), 67-94.
- 김균희·송요현(2017). 놀이환경이 유아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정 및 육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1(3), 283-308.
- 김남희(2019). 놀이의 특징과 교육적 가치. **윤리교육연구**, 52, 253-276.
- 김명순·조항린·박영림·신혜영(2013). 부모와 유아 자녀의 놀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5(1), 37-54.
- 김미숙·김효진·김안나(2019). 아동의 삶의 질 수준 국제비교와 놀이와 여가활동의 영향 연구. **유라시아연구**, 15(3), 29-59.
- 김성숙(2013). 유아가 인식하는 행복의 의미 탐색. **유아교육연구**, 33(3), 377-400.
- 김정화(2019). 농촌지역 아동의 놀이충분성과 놀이만족도가 삶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9), 625-633.
- 김충일·권윤정(2018). 어머니의 행동적통제 변화궤적이 학령전기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학습수행능력, 주관적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7(3), 207-221.
- 박보경·노지운(2019).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0(3), 87-103.
- 박영애·김리진(2011). 유아기 및 아동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관련 인식 기초조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2), 37-56.
- 박혜진(2019).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희경·강인설(2014). 아동의 행복에 대한 개념 연구. **아동과 권리**, 18(3), 367-385.
- 백지혜·윤유진(2016). 행복에 대한 유아의 인식 탐구. **유아교육학논집**, 20(1), 311-332.
- 성정혜·김춘경(2019).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 적응 간 구조적 관계: 아동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육아정책연구**, 13(2), 47-71.
- 성태제(2016). **SPSS/AMOS를 이용한 알기쉬운 통계분석(2판): 기술통계에서 구조방정식모형까지**. 서울: 학지사.
- 안수빈·은선민·이강이(2018). 초등학교 전이과정에서 나타난 아동의 행복감 변화 유형. **육아정책연구**, 12(1), 151-173.
- 양영주(1984). **어머니와 유아기 자녀의 상호작용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선(2017).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1), 305-324.
- 이미라·박세정(2020).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강요, 자율성지지, 스마트폰 과의존 및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분석. **청소년학연구**, 27(5), 169-191.
- 이순묵·김한조(2011). 구조방정식 모형의 일반화 또는 집단차 연구를 위한 다집단분석의 관행과

- 문제점. **사회과학**, 43(1), 63-112.
- 이승미·김희진(2018). 부모-자녀 놀이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행복과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6), 89-105.
- 이승숙·남기창(2016). 권리로서의 유아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담론분석. **아동교육**, 25(4), 293-316.
- 이정화(2005). **초등학생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경·조혜정(2012).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0, 41-71.
- 이지영·장원호·김민진(2018).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 부모의 우울과 유아의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연구논총**, 39(1), 255-277.
- 이현주(2019). **놀이와 학습에 대한 부모의 태도, 교육열, 가정에서의 놀이와 학습 관련 유아 일상 생활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지·정혜욱(2016). 부모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유아의 행복감 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11(4), 77-95.
- 이호숙·조준수(2015). 유아 행복에 대한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680-685..
- 장명림·신나리·박수연(2006).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연구(연구보고 2006-06)**.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전미경·장재숙(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3), 103-118.
- 채혜경·박리나(2016). 부모가 인식하는 유아 행복에 대한 이미지 탐색. **생태유아교육연구**, 15(3), 107-126.
- 최유석(2018). **부모의 놀이참여 및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영유아 놀이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605-626.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용희·김혜전·전우용(2014). 유아들의 그림에 나타난 행복한 경험에 대한 인식. **육아지원연구**, 9(4), 131-158.
- 황옥경·한유미·김정화·양효현(2015). 권리로서의 놀이와 여가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행복감의 관계. **아동과 권리**, 19(4), 755-774.
- 황해익·김미진·탁정화(2013). 만5세 유아가 인식한 행복한 상황과 행복의 조건에 관한 연구. **생태 유아교육연구**, 12(4), 93-122.
- Anand, P., & Roope, L. (2016). The development and happiness of very young children. *IZA Discussion Paper*, 10218, 1-39.
- Batcho, K. I. (2020) When nostalgia tilts to sad: Anticipatory and personal nostalgia. *Frontiers in Psychology*, 11(1186), 1-8. doi: 10.3389/fpsyg.2020.01186
- Başaran, M., & Öğretir Özçelik, A. D. (2020). Rural children's perceptions of

- happiness: What is happiness? How do they make you happy? How can they be happy?. *Cukurova University Faculty of Education Journal*, 49(1), 400-430.
- Bhoskar, S. N. (2020). A systematic review: Satisfaction in parental relationship & subjective happiness on adolescent's self-seteem. *Indian Journal of Applied Research*, 10(1), 60-65.
- Blanchard-McGehee, V. L. (2020). Grit, goal setting, and social support as it pertains to family dynamics and romantic. In N. R. Sifton (Ed.), *Exploring best child development practices in contemporary society* (pp. 66-87). Hershey, PA: IGI Global.
- Chaplin, L. N., Lowrey, T. M., Ruvio, A. A., Shrum, L. J., & Vohs, K. D. (2020). Age differences in children's happiness from material goods and experiences: The role of memory and theory of mind.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1-15.
- Goldstein, J. (2012). *Play in children's development, helath and well-being*. Brussels: TIE.
- Jain, M., Sharma, G. D., & Mahendru, M. (2019). Can I sustain my happiness? A review, critique and research agenda for economics of happiness. *Sustainability*, 6375, 1-36.
- Jasem, Z. A., Darlington, A. S., Lambrick, D., Grisbrooke, J., & Randall, D. C. (2020). Play in children with life-threatening and life-limiting conditions: a scoping review.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4(1), 12.
- Kell, J. T. (2020). In the Pursuit of Happiness: Developing and Sustaining Happiness in Children. In N. R. Sifton (Ed.), *Exploring best child development practices in contemporary society* (pp. 28-44). Hershey, PA: IGI Global.
- Mertoğlu, M. (2020). Factors affecting happiness of school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 and Training Studies*, 8(3), 10-20.
- Rathunde, K., & Isabella, R. (2020). Engaging parents about the importance of play: The impact of a brief, arts informed community presentation. *Family Relations*, 69(2), 351-364.
- Tyagi, P. (2019).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play in child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 6(10), 2316-2318.
- Valencia, T. C., & Valencia, S. J. (2020). Cultivating flow and happiness in children. In N. R. Sifton (Ed.), *Exploring best child development practices in contemporary society* (pp. 1-27). Hershey, PA: IGI Global.

• 교신저자: 이순배, 이화여자대학교 박사수료, prjoys@naver.com

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arly Childhood Playtime, Parent-Child Interaction, Early Childhood Happiness and Childhood Happiness : Multi-Group Analysis by Age of School Children

Soonbae Yi & Hoewook Ch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arly childhood playtime, parent-child interaction, early childhood happiness and childhood happiness, and to see if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the variables by age of school childre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620 children with an average age of 75.14 months, collected from the 7th year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2014). Correlation, structural analysis, and multi-group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arly childhood playtime, parent-child interaction, and early childhood happines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hildhood happiness. Second, early childhood playtim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hood happiness by mediating parent-child interaction and early childhood happiness. In particular, the younger the child, the more mediating effect of childhood happiness was, and the older the child, the more mediating effect of parent-child interaction was. Third, multi-group analysis by age of school children show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by age. These results imply that early childhood the playtime continuously affects childhood happiness regardless of the age of the child. This study is meaningful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playtime at home and to recognize the positive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 through play in promoting the happiness of children.

- Key words: Early childhood playtime, Parent-child interaction, Happiness, Structural relationship, Multi-group analysis, Longitudinal study, PKSC

유아기 놀이시간, 부모-유아 상호작용, 유아기 행복감과 아동기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의 연령에 따른 다집단 분석

강은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0-2세 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의 개정과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중요해 진 현 상황에서 유아기의 놀이시간과 부모가 유아와 함께 놀이하는 상호작용이 유아기뿐만 아니라 아동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7~11차년도)를 활용한 연구 중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으며,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검토도 충실히 이루어진 연구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 머무는 유아들이 많은 상황에서 가정 내 놀이시간과 이 시기에 어머니와 하는 놀이 활동이 향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어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하겠다.

다만, 몇 가지 지점에서 의문이 제기되어 이를 중심으로 토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패널 7차 자료에서 유아의 놀이시간에 대한 문항에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놀이시간과 바깥놀이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실내놀이시간만을 변인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울러 표 6에서 유아기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기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에도 이를 모형의 경로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둘째, 부모-유아 상호작용 측정 문항들을 보면 주로 '어머니 설문지 중 문항 9번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에 해당된다. 엄밀히 말하면 가족과의 놀이 활동으로 부모-유아 상호작용 중 일부라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변인을 부모-유아 상호작용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 문항의 경우 선택지가 4개로 구분된 것을 점수화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하지 않은 경우도 1점을 받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

셋째, 유아기의 놀이시간과 부모-유아 상호작용이 4년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매번 차시별로 측정된 놀이시간과 해당 가족의 놀이 활동의 영향이 해당 해의 아동기 행복감에도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아기 행복감의 성향이 아동기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과 놀이활동이 급작스럽게 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누적적 변인이 아동기 행복감에 영향을 미쳐왔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표 13에서 9세 아동의 행복감에는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영향이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표11의 유아기 놀이시간과 아동기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유아기에 가까운 어린 연령의 아동은 유아기 행복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아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영향이 더 커진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과 함의도 필요할 것이다.

세션2 아동발달

미디어사용과 문제행동

좌장: 이영환(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1.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의 미디어 사용 유형화와 유형별 인지발달 특성

연구진: 김경민(고려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송지은(고려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최정원(고려대학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토론자: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연구진: 박정현(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

토론자: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3. 소득양극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 예측에 관한 머신러닝분석

연구진: 박정하(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현옥(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오미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의 미디어 사용 유형화와 유형별 인지발달 특성

김경민¹⁷⁾ 송지은¹⁸⁾ 최정원¹⁹⁾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미디어 사용 유형을 알아보고 각 유형별 인지발달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아동 1,367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목적별 미디어 사용 정도(학습, 정보 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를 지표로 삼아 아동의 미디어 사용 유형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사용유형', '오락위주유형', '학업위주유형', '고사용유형' 등 4개 잠재프로파일을 확인하였다. 각 유형에 따라 아동의 인지발달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락위주형과 고사용유형은 학업위주형이나 저사용유형보다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학업위주형은 다른 유형들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락위주형과 고사용유형은 학업위주형보다 집행기능에서 어려움을 더 경험하였고, 오락위주형은 다른 유형들보다 학업수행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의 미디어 사용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에 따른 인지발달 특성을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미디어 사용 유형, 아동, 인지발달, 잠재프로파일

1. 서론

현대사회는 디지털 시대로 불릴 만큼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가 보급되고 있으며 보급 주기도 빨라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매체들의 매력과 몰입적 요소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며 아동들이 미디어를 접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사용하는 시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관련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미디어 과몰입과 미디어의 유해한 영향력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

17) 고려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18) 고려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19) 고려대학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기도 하고(Byrne, Linz, & Potter, 2009), 반대로 미디어가 아동의 유해한 행동을 억제 하고 해결하는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Comer, Furr, Beidas, Weiner, & Kendall, 2008). 이렇듯 상반되는 경험적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이제 아동에게 생활문화양식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주된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미디어 사용과 발달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미디어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이란, 현은자, 2014), 미디어를 환경으로 바라보고 진행된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폭력이나 몰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앞으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현 세대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양상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미디어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단순히 미디어의 사용 시간 및 정도 혹은 중독 등을 지표로 연구하여 미디어의 특정 측면만이 부각되기 쉬웠다. 미디어의 내용을 제외하고 사용시간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줄 수 없으며(Anderson, & Kirkorian, 2015), 미디어가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미디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연구설계는 요즈음 시대의 미디어 매체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Foerster & Roosli, 2017),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기준으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유형화가 우선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특성에 대해 유형화하는 연구들 중에는 변인 중심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을 사용하여 집단의 특성을 분류하는 연구도 있으나, 이는 분류된 집단에서 개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반면, 사람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을 활용할 경우 측정 문항에 응답한 패턴으로 동질적인 집단을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된 각 계층에 소속될 확률을 계산하여 계층 간의 차이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성은모, 2017; Geiser,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목적을 기준으로 이들의 미디어 사용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유형화 결과 도출된 미디어 사용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어떠한 요인들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권소영, 박제인, 이재림, 2019). 미디어를 이용할 때 아동은 주의, 기억, 이해, 공간지각과 같은 다양한 인지적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게 되며 아동이 속한 환경의 자극은 인지발달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Van Hulle, Goldsmith, & Lemery, 2004), 새로운 환경인 미디어의 개입은 아동의 인지발달에도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손희정의 연구(2012)에서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그림책 읽기가 아동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고,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흥미와 자극을 제시해주어 집중시간을 연장시켜 효과적인 교육매체로 작용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권성민, 2010). 반면, 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인지발달 능력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권장희, 2012; 성지현, 변혜원, 남지해, 2015; Chonchaiya & Pruksananonda, 2008; Christakis, Zimmerman, DiGiuseppe, & McCarty, 2004; Cohen, 2011). 아동의 인지발달은 경험과 직접 관련되며 앞으로의 삶에서 필요한 중요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학습하도록 돕는다(Mussen et al., 1990). 특히, 아동의 인지발달은 모든 발달의 매개체가 된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박성덕, 장연주, 2016), 미디어 사용과 인지발달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다. 미디어는 사용 시간 및 활용방법에 따라 아동의 발달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저하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디어 사용을 기준으로 나눈 집단별 인지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올바른 미디어 활용 교육에도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따른 유형별 인지발달 특성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언어능력, 집행기능 그리고 학업역량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언어 능력에는 비속어 사용과 의사소통능력이 포함된다. 아동기는 의사소통 기술과 읽기, 쓰기, 어휘 등 전반적인 언어적 유능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며, 또래집단과 어울리며 비속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기도 한다. 또한 미디어 사용은 아동의 비속어 사용 및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김수정, 구은미, 2019),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언어능력으로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집행기능은 사고,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조절에 있어 중요한 인지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Anderson, 2008), 유연하게 사고하도록 하고, 정신적으로 정보를 갱신 또는 조작하며, 목표와 관련 없는 행동은 억제하고, 스스로를 모니터링하며,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계획하고 적용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Jurado & Rosselli, 2007).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능은 인지발달과 관련이 있는데(Moffit et al., 2011), 구체적으로는 빠른 시각·청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미디어는 아동으로 하여금 학교와 같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의 환경에서 지루함과 집중력 저하를 느끼도록 할 수 있다(Christakis et al., 2004).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과 실행기능 수준이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에는 증가하지만, 순수하게 오락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시청한 후에는 낮아지는 것(Anderson, & Kirkorian, 2015)을 볼 때, 아동의 인지발달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집행기능을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학업역량에는 객관적 지표인 학업수행능력과 주관적 지표인 학업스트레스가 포함된다. 학업수행능력은 교사가 보고한 학업적 수행능력을 나타내며, 학업스트레스는 아동이 학업 과정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로, 두 가지 모두 인지적 성취와 관련되므로 아동의 인지발달 양상을 측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이다. 미디어는 흥미 유발 및 동기, 시간사용과 같은 부분을 통해 학업적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사용 유형에 따른 아동의 학업역량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목적을 분류 지표로 하여 미디어 사용 유형군을 나누어본 뒤, 각 유형별 인지발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는 미디어의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미디어 사용을 기준으로 아동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인지발달에서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미디어 활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을 위한 적절한 개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미디어 사용은 미디어 사용 시간과 목적을 분류지표로 했을 때, 몇 개의 잠재적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미디어 사용 유형에 따라 인지발달(언어능력, 집행기능, 학업역량)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11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11차년도 자료는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어머니가 모두 조사에 참여한 136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중 남학생이 695명(50.8%), 여학생이 672명(49.2%)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4.07세($SD=3.60$),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6.51세($SD=3.88$)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 이상(아버지 72.6%, 어머니 73.1%)인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의 부모가 현재 결혼한 상태(97.5%)라고 응답하였다. 어머니가 현재 취업 혹은 학업 중인 경우(57%)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367)

변인		<i>n</i>	%
성별	남아	695	50.8
	여아	672	49.2
부(모) 학력	고졸이하	366(364)	26.8(26.7)
	2~3년제 대학 졸업	279(392)	20.4(28.7)
	4년제 대학 졸업	557(518)	40.7(37.9)
	대학원 졸업	157(89)	11.5(6.5)

부모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333	97.5
	배우자 없음 (별거, 사별, 이혼 등)	31	2.3
모 취업 및 학업상태	취업 및 학업중	779	57.0
	미취업 및 미학업	564	41.3
가구 월평균소득	200만원이하	39	2.9
	201만원~300만원	138	10.1
	301만원~400만원	245	17.9
	401만원~500만원	314	23.0
	501만원~600만원	194	14.2
	601만원~700만원	138	10.1
	700만원 초과	261	19.1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 중 미디어 사용 시간, 목적별 미디어 사용 정도, 비속어 사용, 의사소통, 집행기능 곤란, 학업수행 평가, 학업 스트레스를 사용하였다.

가. 미디어 사용 시간 및 목적별 미디어 사용 정도

미디어 사용 시간은 스마트폰, PC(인터넷) 등을 평균적으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목적별 미디어 사용 정도는 학습, 정보 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음악 감상, 동영상 감상 등),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다섯 가지 항목을 각각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4점 척도(1점=전혀 사용 안함, 4점=매일 사용함)로 측정하였다.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 및 목적별 미디어 사용 정도는 모두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나. 언어능력

아동의 언어능력은 비속어 사용과 의사소통 능력으로 살펴보았다. 비속어 사용은 비속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한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아동이 4점 척도(1점=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점=매일 사용한다)로 응답하였다.

의사소통은 오소정과 이은주, 김영태(2012)가 개발한 화용언어 체크리스트를 수정한 후 원저자의 검수를 받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44문항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항상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값은 .98로 나타났다.

다. 집행기능 곤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송현주(2014)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질문지를 성인용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계획 및 조직화 곤란(11문항), 행동통제 곤란(11문항), 정서통제 곤란(8문항), 부주의(10문항)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가 3점 척도(1=전혀 아니다, 3=자주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값은 계획 및 조직화 곤란 .88, 행동통제 곤란 .85, 정서통제 곤란 .88, 부주의 .91, 전체 .95로 나타났다.

라. 학업역량

아동의 학업역량은 학업수행능력과 학업 스트레스로 살펴보았다. 학업수행능력은 이은혜와 동료들(2008)의 척도를 참고하여 수정한 문항 중 전반적 학업수행 평가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의 학업 수행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교사가 5점 척도(1=하위 20%이내, 5점=상위 20% 이내)로 응답하였다.

학업 스트레스는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숙제나 시험 때문에”, “공부가 지겨워서”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한 총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아동이 5점 척도(1점=그런적 없다, 5점=항상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값은 .7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아동의 미디어 사용을 유형화하기 위해 Mplus 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지수, Entropy 값, 모형비교검증 결과, 집단 내 분류비율,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 최종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한 후에는 개별 프로파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을 명명하고 각 집단별로 프로파일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의 미디어 사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인지발달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PSS 25.0을 사용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F 값이 유의한 경우,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LSD 중다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미디어 사용 유형 잠재프로파일

아동의 미디어 사용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미디어 사용 시간과 다양한 목적별 미디

어 사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절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재프로파일을 하나씩 늘려나가며 적합도지수를 비교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 AIC, BIC, ABIC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형을 의미하는데,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2개인 모형부터 6개인 모형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통계적 기준인 모형비교검증 결과를 보면 LMR-LRT, BLRT값이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1개 집단과 k개 집단의 모형을 비교한 것으로, 그 값이 유의하면 k-1개 집단모형보다 k개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모형적합도 지수와 모형비교검증 결과는 집단의 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Entropy 값은 점점 증가하다가 잠재프로파일이 4개일 때 우수한 모형을 의미하는 .80 이상이 되었고, 잠재프로파일이 6개일 때는 오히려 감소하여 분류의 질 측면에서는 집단의 수가 많을수록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잠재프로파일의 수는 통계적으로나 이론 및 해석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세부적으로 나뉜 잠재프로파일은 집단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집단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그에 따른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프로파일 분류비율 및 잠재프로파일 유형 해석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4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4개 프로파일 모형의 Entropy지수는 .823이었으며 잠재프로파일 할당 확률은 .862에서 .916 사이로 나타나 적절한 분류를 의미하는 .7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표 2〉 잠재프로파일 모형별 적합도 지수 및 4집단 프로파일 모형 정보 (N=1,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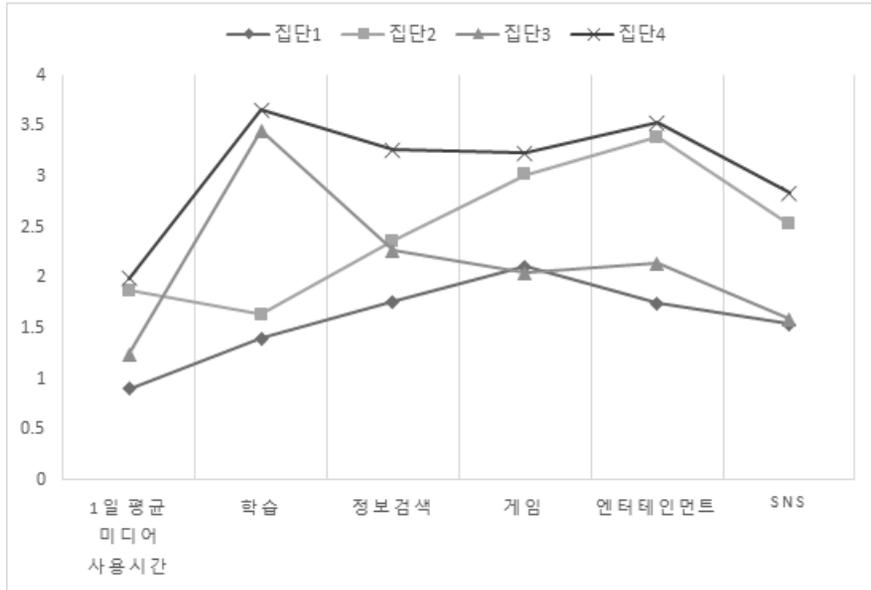
<i>k</i>	<i>df</i>	AIC	BIC	ABCI	Entropy	LMR-LRT <i>p</i>	BLRT <i>p</i>
2	19	21989.617	22088.804	22028.449	.749	<.001	<.001
3	26	21684.249	21819.979	21737.388	.759	<.001	<.001
4	33	21434.985	21607.257	21502.430	.823	<.01	<.001
5	40	21210.236	21419.051	21291.988	.843	<.001	<.001
6	47	21066.139	21311.496	21162.196	.801	<.05	<.001
잠재프로파일 할당확률							
		1	2	3	4	<i>n</i>	%
잠재프로파일1		0.902	0.085	0.012	0.000	369	27.0
잠재프로파일2		0.072	0.916	0.005	0.007	620	45.3
잠재프로파일3		0.010	0.036	0.900	0.054	240	17.6
잠재프로파일4		0.000	0.053	0.084	0.862	138	10.1

주) *k*= 잠재프로파일 수,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s compared with a (k-1) class model.

최종 결정된 4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의 집단별 미디어 사용 시간과 목적별 사용 정도 점수는 <표 3> 및 <그림 1>과 같다. 집단 1은 하루 평균 미디어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이며 미디어 사용 목적별로도 다른 집단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용정도를 보이고 있어 '저사용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27%의 아동($n=369$)이 저사용 유형에 해당하였다. 집단 2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n=620$, 45.3%)의 아동이 속하는 유형으로 하루 평균 미디어 사용 시간은 1.87시간이었고 미디어 사용 목적별로는 학습과 정보검색보다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집단 2를 '오락위주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의 경우 하루 평균 미디어 사용 시간은 1.24시간으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학습을 위한 용도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어 '학업위주유형'으로 명명하였다. 학업위주유형에는 전체의 17.6%의 아동($n=240$)이 해당되었다. 마지막으로 집단 4는 하루 평균 미디어 사용 시간이 1.99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학습, 정보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 목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다른 집단들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집단 4를 '고사용유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집단에는 가장 소수인 10.1%($n=138$)가 해당되었다.

<표 3> 집단별 미디어 사용 지표 추정평균 (N=1,367)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i>M(SE)</i>	<i>M(SE)</i>	<i>M(SE)</i>	<i>M(SE)</i>
1일 평균 미디어 사용시간	.90(.06)	1.87(.06)	1.24(.06)	1.99(.13)
미디어 사용정도				
학습	1.40(.04)	1.64(.03)	3.45(.04)	3.66(.07)
정보검색	1.76(.05)	2.36(.04)	2.27(.07)	3.26(.17)
게임	2.11(.09)	3.02(.06)	2.05(.09)	3.23(.15)
엔터테인먼트	1.75(.11)	3.39(.06)	2.14(.16)	3.53(.09)
SNS	1.54(.05)	2.53(.07)	1.59(.07)	2.84(.20)



[그림 1] 아동의 미디어사용 유형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2. 아동의 미디어 사용 유형별 인지발달 특성

분류된 4개의 미디어사용유형 간에 아동의 인지발달 특성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속어 사용, 의사소통, 집행기능곤란 전체 및 일부 하위요인(계획 및 조직화, 부주의), 학업수행평가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집단 간 평균차이는 주로 오락위주유형-고사용유형과 저사용유형-학업위주형 간에 나타났다. 인지발달 특성 중에 긍정적 측면인 의사소통이나 학업수행 능력 부분에서는 저사용유형과 학업위주형이 더 나은 수행을 보여주었고, 비속어사용이나 집행기능곤란과 같은 부정적 측면에서는 오락위주형과 고사용유형의 점수가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락위주유형($m=1.44$, $sd=.57$)이 학업위주형($m=1.33$, $sd=.53$)과 저사용유형($m=1.33$, $sd=.52$)보다 비속어를 더 자주 사용하였고, 고사용유형($m=1.43$, $sd=.57$)이 저사용유형보다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경우 학업위주유형($m=4.18$, $sd=.49$)이 오락위주유형($m=4.07$, $sd=.46$)이나 고사용유형($m=4.07$, $sd=.53$)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담화를 관리하고 의사소통 맥락에 맞게 이야기하며 다양하고 성숙한 의사소통법을 사용하는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집행기능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고사용유형($m=1.47$, $sd=.35$)과 오락위주유형($m=1.46$, $sd=.34$)이 학업위주유형($m=1.39$, $sd=.28$)보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계획 및 조직화와 부주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고사용유형($m=1.66$, $sd=.45$)과 오락위주유형($m=1.62$, $sd=.44$)이 학업위주유형($m=1.52$, $sd=.40$)보다 계획 및 조직화 곤란 정도가 높아 일을 계획하거나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사용유형($m=1.59$, $sd=.51$)이 저사용유형($m=1.48$, $sd=.46$)이나 학업위주유형($m=1.47$, $sd=.41$)보다 부주의하여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정돈하지 못하고 할 일을 잘 잊어버리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역량에서는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저사용유형($m=4.29$, $sd=1.01$), 학업위주유형($m=4.44$, $sd=.77$)과 고사용유형($m=4.37$, $sd=.83$)이 오락위주유형($m=4.08$, $sd=1.00$)보다 학업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들의 학업스트레스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미디어 사용 유형별 인지발달 특성 평균비교 (N=1,367)

		저사용유형	오락위주유형	학업위주유형	고사용유형	F
		<i>m(sd)</i>	<i>m(sd)</i>	<i>m(sd)</i>	<i>m(sd)</i>	
언어 능력	비속어 사용	1.33(.52)b	1.44(.57)a	1.33(.53)bc	1.43(.57)ac	4.37**
	의사소통	4.12(.54)ab	4.07(.46)b	4.18(.49)a	4.07(.53)b	3.19*
집행 기능	전체	1.41(.34)ac	1.46(.32)a	1.39(.28)bc	1.47(.35)a	3.72*
	계획및조직화	1.58(.45)ab	1.62(.44)a	1.52(.40)b	1.66(.45)a	4.42**
곤란	행동통제	1.24(.32)	1.27(.32)	1.22(.27)	1.26(.33)	2.08
	정서통제	1.36(.39)	1.40(.38)	1.34(.32)	1.38(.39)	2.03
	부주의	1.48(.46)b	1.52(.44)ab	1.47(.41)b	1.59(.51)a	2.68*
학업 역량	학업수행평가	4.29(1.01)a	4.08(1.00)b	4.44(.77)a	4.37(.83)a	5.42**
	학업스트레스	1.98(.90)	2.08(.86)	1.98(.83)	2.16(.87)	2.31

* $p < .05$, ** $p < .01$, *** $p < .001$.

주. 알파벳은 LSD 검증을 이용한 사후검증 결과를 의미함.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자,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하여 미디어 사용 시간 및 목적을 분류지표로 하여 아동의 미디어 사용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인지발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미디어 사용 유형을 도출한 결과, 저사용유형(27%), 오락위주형(45.3%), 학업위주형(17.6%), 고사용유형(10.1%), 총

네 개의 잠재계층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저사용유형은 하루 평균 미디어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이며 미디어 사용 목적별로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위주형은 게임이나 음악 및 동영상 감상, SNS 등을 많이 사용하여 미디어 사용에 있어 흥미와 놀이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업위주형은 하루 평균 미디어 사용 시간이 1.24시간으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 비교적 적으면서도 주로 학습을 위한 용도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사용유형은 하루 평균 미디어 사용 시간이 1.99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미디어 사용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전반적으로 모든 용도에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나 음악 및 동영상 감상, SNS 등을 주로 사용하는 오락위주형이 과반수에 가깝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2)에 의하면,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에 속한 아동들은 일반사용자군과 비교했을 때 SNS 사용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으며, 스마트폰 활용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콘텐츠로 게임, SNS, 동영상 시청 등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볼 때 오락기능을 위주로 사용하는 집단인 오락위주형의 경우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개입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오락위주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미디어 활용 능력을 유형화한 연구결과(성은모, 2017)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마트미디어 활용 능력을 유형화한 결과 ‘소극적 저활용형’, ‘정보활용형’, ‘학습 및 관리 도구 활용형’, ‘다기능 고활용형’의 유형이 나타났는데(성은모, 2017), 이상의 연구결과는 아동과 성인의 미디어 사용 유형에는 일부 유사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동기부터 미디어 기기를 건강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미디어 활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미디어 사용 유형별로 인지발달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언어능력, 집행기능, 학업역량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언어능력을 살펴보자면 오락위주형과 고사용유형은 학업위주형이나 저사용유형보다 비속어를 더 많이 사용하지만, 의사소통능력은 학업위주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흥미위주의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성숙한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언어표현을 습득하고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집행기능의 경우에는 오락위주형과 고사용유형이 학업위주형보다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학업역량 중 학업수행에 있어서는 오락위주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폰 사용목적별로 청소년의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학업성취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성은모, 진성희, 2012)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디어의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주의집중이나 기억력, 어휘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이영신, 김지연, 이지현, 2018; Chassiakos, Radesky,

Christakis, Moreno, & Cross, 2016), 놀이 목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때 학교적응 및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연구(김수정, 2016; 이상희, 오새니, 2019)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미디어 사용의 영향력은 미디어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 시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업위주유형과 고사용유형이 오락위주유형보다 더 나은 학업수행을 보인 결과를 통해 미디어를 학습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가벼운 오락이나 또래친구들과의 친교 도구로만 활용하는 것을 더 주의해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상호작용성이 높은 미디어의 경우 일반적 지식을 제공하거나 두뇌발달을 자극하며 유연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에(김도현, 2012; Anderson, Kirkorian, 2015), 아동의 긍정적인 인지발달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미디어 사용 시간과 목적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미디어 사용 유형에 네 가지 하위집단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는 측면에 의의가 있다. 미디어의 특정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미디어 사용 시간이 많으면 아동의 발달이 부정적이고, 미디어 사용 시간이 적으면 아동의 발달이 긍정적이라는 논의만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사용 시간과 더불어 미디어 사용 목적을 두 축으로 하여 사람 중심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미디어 사용 유형에 따라 아동의 발달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디어 사용이 우리나라 아동의 다양한 발달적 측면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예측하기에도 타당한 개념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향후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개입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들은 미디어를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미디어 사용을 억제할 수 없는 시대이므로 올바른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업위주 유형의 경우 긍정적인 인지발달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나은 콘텐츠 개발로 아동의 미디어 활용 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고사용유형과 오락위주유형의 경우 적절한 통제의 개입을 적용하여 보다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권장하는 교육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인지발달적 측면에서의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아동의 미디어 사용을 유형화하고 인지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고 다른 발달 영역에서의 차이를 파악한다면, 미디어 사용 유형에 따라 아동의 발달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후의 발달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미디어 연구에서 미디어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 미디어의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아동의 미디어 사용을 유형화하였고, 이러한 유형에 따른 인지발달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2).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 권성민 (2010).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동화 들려주기 방법이 유아의 언어 및 사고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9(3), 31-49.
- 권소영, 박제인, 이재림 (2019). 청년의 자아분화 유형 및 유형별 특성: 잠재프로파일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3), 19-36.
- 권장희 (2012). 스마트 기기 등 영상미디어가 영유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33-55.
- 김도현 (2012). 소셜 미디어 활용의 두가지 얼굴: 교육적 도구로서의 확장성과 마비성에 대한 고찰. **평생학습사회**, 8(2), 85-110.
- 김수정 (2016). 부모의 양육행동, 미디어 사용 유형,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의 구조 관계. **육아정책연구**, 10(1), 73-93.
- 김수정, 구은미 (2019). 양육 실제, 아동의 미디어 중독, 언어 발달의 구조 관계. **아동과 권리**, 23(4), 663-682.
- 박성덕, 장연주 (2016). 부모,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2(2), 229-251.
- 성은모 (2017). 대학생의 스마트미디어 활용, 유형분류에 따른 스마트미디어 유용성, 학습민첩성, 학업성취도의 차이 분석: 잠재계층분석(Laten class analysis)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3(3), 631-655.
- 성은모, 진성희 (201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휴대폰 활용이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8(4), 441-467.
- 성지현, 변혜원, 남지해 (2015). 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과 발달 수준 및 공감 능력과의 관계 탐색. **유아교육연구**, 35(2), 369-394.
- 손희정 (2012). **태블릿PC 전자그림책 읽기와 종이그림책 읽기에서 유아의 이야기 이해 및 어휘 습득 비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주 (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121-137.
- 오소정, 이은주, 김영태 (2012). 화용능력 체크리스트 문항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언어치료연구**

- 구, 21(2), 111-135.
- 이란, 현은자 (2014). 디지털 시대의 아동 미디어 관련 연구동향 분석. *아동학회지*, 35(4), 17-40.
- 이상희, 오새니 (2019). 유아기 미디어 이용이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8(2), 89-108.
- 이영신, 김지연, 이지현 (2018). 미디어 이용시간 및 부모의 상호작용에 따른 아동의 어휘력 차이 -군집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10(1), 95-113.
- 이은혜, 김명순, 전해정, 이정림, 이운선, 김주혜, 조수영, 정주희 (2008).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종단적 효과 연구**. 미발간.
- Anderson, P. J. (2008). Towards a developmental model of executive function. In V. A. Anderson, R. Jacobs, & P. J. Anderson (Eds.), *Executive functions and the frontal lobes: A lifespan perspective* (pp. 3-21). New York: Psychology Press.
- Anderson, D. R., & Kirkorian, H. L. (2015). Media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R. M. Lerner, L. S. Liben, & U. Muell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and developmental science* (pp. 1-46). John Wiley & Sons.
- Byrne, S., Linz, D., & Potter, W. J. (2009). A test of competing cognitive explanations for the boomerang effect in response to the deliberate disruption of media-induced aggression. *Media Psychology*, 12(3), 227-248.
- Chassiakos, Y. L. R., Radesky, J., Christakis, D., Moreno, M. A., & Cross, C. (2016).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digital media. *Pediatrics*, 138(5), e20162593.
- Chonchaiya, W., & Pruksananonda, C. (2008). Television viewing associates with delayed language development. *Acta Paediatrica*, 97(7), 977-982.
- Christakis, D. A., Zimmerman, F. J., DiGiuseppe, D. L., & McCarty, C. A. (2004). Early television exposure and subsequent attentional problems in children. *Pediatrics*, 113(4), 708-713.
- Cohen, E. (2011, Jun 23). Does life online give you popcorn brain. <http://www.cnn.com/2011/HEALTH/06/23/tech.popcorn.brain.ep/index.html>
- Comer, J. S., Furr, J. M., Beidas, R. S., Weiner, C. L., & Kendall, P. C. (2008). Children and terrorism-related news: Training parents in coping and media liter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4), 568-578.
- Foerster, M., & Rössli, M. (2017). A latent class analysis on adolescents media use and associations with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1, 266-274.
- Geiser, C. (2013).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Data analysis with Mplus*. Guilford Press.
- Jurado, M. B., & Rosselli, M. (2007). The elusive nature of executive functions: A review of our current understanding. *Neuropsychology Review*, 17(3), 213-233.

- Moffitt, T. E., Arseneault, L., Belsky, D., Dickson, N., Hancox, R. J., Harrington, H., ... Caspi, A. (2011). A gradient of childhood self-control predicts health, wealth, and public safet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8(7), 2693-2698.
-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 Huston, A. C. (1990). Intelligence and achievement. In P. Mussen, J. Conger, J. Kagan, & A. Huston (Eds.),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7th ed., pp. 325-378).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Van Hulle, C. A., Goldsmith, H. H., & Lemery, K. S. (2004). Genetic, environmental, and gender effect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oddler expressive languag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4), 904-912.
- 교신저자: 송지은, 고려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naivety1@korea.ac.kr

Abstract

Latent Profiles of Children's Media Use and their Characteristics of Cognitive Development

Kyungmin Kim, Jieun Song, Jungwon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hildren's media use profiles and their characteristics of cognitive development.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11th wave). The sample consisted of 1,367 children in the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Latent profiles analyses on the media use among children identified four profiles: 'low use', 'entertainment-oriented', 'academic-oriented', and 'high use.' One-way variance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cognitive development according to each type. The 'entertainment-oriented' and 'high-use' types used more slang than the 'academic-oriented' or 'low use' types. The 'academic-oriented' showed higher communication ability than the other types. Also, 'entertainment-oriented' and 'high use' types experienced more difficulties in executive functions than 'academic-oriented,' and 'entertainment-oriented' showed lower academic performance than the other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tasks were discussed.

• Key words: Media Use, Children, Cognitive Development, Latent Profile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의 미디어 사용 유형화와 유형별 인지발달 특성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늘날 아동·청소년 미디어이용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로 ‘저연령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노출이 본격화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과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경민, 송지은, 최정원 선생님의 논문 주제는 시의성과 중요성면에서 우수합니다.

이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변인중심의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의 상당수 아동·청소년 미디어 이용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원주민이라 불리는 오늘날의 아동·청소년은 미디어이용에 있어서도 멀티태스킹 능력이 탁월하며 이에 따라 이전 세대의 아동·청소년기에 비해 미디어 이용/소비 행태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미디어 이용/소비 시간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단일 미디어 이용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다 미디어 사용의 유형화에 따른 미디어 레퍼토리(media repertoires)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본 연구는 정책의 활용도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논문과 후속 연구를 위해 토론자로서 다음의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에게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의 방식과 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미디어학계에서는 20세기부터 미디어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쟁과 연구가 있어왔습니다. 탄환이론으로 대표되는 강효과와 소효과 주창파가 시대흐름에 따라 각각 대두되었고 최근까지 미디어학계는 강효과와 제한효과의 중간 지점이라 할 수 있는 중효과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 이론에서도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중 미디어는 외체계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써 작동합니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아동의 인지발달 특성에 미디어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가 진행될 필요

가 있습니다. 연구자는 가정, 사회, 학교 환경, 아동의 유전적 요인 등과 비교했을 때 미디어가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개념화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후속연구에서 각 미디어 사용 유형별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사용 유형>과 <학업위주 유형>은 언어능력, 집행기능곤란, 학업역량 면에서 사실상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은 미디어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1시간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다른 두 개의 그룹에 비해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 이용이 상대적으로 현격히 낮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디어의 노출이 최소화된(특히,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에 있어서) 초등학교 4학년생의 배경변인을 추측컨대 다른 두 그룹(특히 <오락위주유형>)의 그것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결국 아동을 둘러싼 가정환경 등 다른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작동하여 미디어 이용 유형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언어능력, 집행기능, 학업역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앞서 지적한 사안의 연장선상에서 아동·청소년의 인지발달의 수준에 따라 미디어의 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디어의 이용유형이 아동·청소년의 인지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속연구에서는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미디어가 아동의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예: “흥미위주의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성숙한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언어표현 습득하고 활용할 가능성 높기 때문”) 보다 명확히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패널조사 문항 내용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입니다. 설문 문항 구성에 있어 제한된 지면과 시간을 고려해야하는 애로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학습, 정보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의 사용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빈도)와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지(시간)를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널조사 문항의 선택지로 ‘(2번)가끔 사용함’과 ‘(3번)자주 사용함’의 구분 기준도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듯싶습니다. SNS를 3분 내외로 매일하는 아동과 일주일에 사나흘 두세 시간씩 SNS를 하는 아이가 있다면 전자는 4번 ‘매일 사용함’에, 후자는 2번 ‘가끔 사용함’ 또는 3번 ‘자주 사용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가 추측컨대) 전자의 아동보다는 후자의 아동이 SNS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SNS의 범주에 카카오톡을 제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신저서비스인 카카오톡을 SNS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의 특성상 상당수가 일상 소통수단으로 매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SNS 이용에 대한 단일문항의 조사결과에 있어 착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검색도 학습용과 비학습용으로의 구분이 이루어지면 관련 연구에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정보검색은 유튜브를 통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엔터테인먼트 항목의 동영상 감상과도 겹칠 수 있어 응답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NS 사용도 정보, 소통, 오락 등 이용목적이 다양합니다. 매체나 서비스의 분류가 아닌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 중 하나로 SNS를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어색해보입니다.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박정현²⁰⁾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11차년도 자료 중 만 10세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을 묻는 문항에 응답한 1401명의 어머니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권위적,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의 부분매개효과가 각각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의 개선 및 권위적 양육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부부갈등, 양육행동, 미디어기기 중독, 매개효과

1. 서론

현대인의 삶에서 PC나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기기 사용은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오고 가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제각각 손바닥 크기의 바보상자를 응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새로운 세대를 뜻하는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끼는 증세인 ‘노모포비아(nomophobia)’, 스마트폰에만 몰입하여 좀비처럼 걷는 사람을 뜻하는 ‘스몐비(smombie)’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사실 스마트폰 기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가족, 친구, 지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TV를 보거나 사진 촬영, 음악감상, 게임 등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점들 때문에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할애하게 된다.

특히, 우리 사회는 PC나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기기의 높은 보급률로 인해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역시 미디어 환경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어린이

20)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

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초등학교 고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하여 81.2%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이용시간 역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2.5배 가량으로 크게 증가하여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이 가장 증가하는 시기로 보고됨에 따라 이 시기의 아동이 미디어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과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발표한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2020)'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아동의 경우, 30.2%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약 3명당 1명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빠져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과위험상태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이나 중독 수준이 아동의 내재화 및 외재화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안수빈, 강보람, 이강이, 2017; 최윤희, 하은혜, 2019)는 점에서 아동의 PC나 스마트폰 등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하고 증재할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관련 연구들은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우울(김경호, 최용호, 2018), 공격성(백원대, 서경현, 2019), 자아존중감(김종민, 최은아, 2019; 우수정, 2018), 스트레스(이신숙, 이영선, 2017) 등의 개인 내적 요인, 부모의 부부갈등(안경희, 2007; 양명숙, 조은주, 2011), 부모자녀 의사소통(김미현, 곽현석, 2019), 양육행동(이운경, 이선희, 김민정, 김수지, 2020), 양육태도(어주영, 김형빈, 이난희, 2019) 등의 가정 환경 요인을 보고하고 있다. 아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가정에서 보내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학교생활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의존은 주로 가정에서 이뤄진다고 볼 수 있으며(이미라, 박세정, 2020), 특히 부부갈등과 양육행동은 아동의 주요 가정환경요인으로 미디어기기 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인터넷 게임 중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안경희, 2007), 아동의 적응에 다른 가족 요인보다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양명숙, 조은주, 2011)는 점에서 더 잘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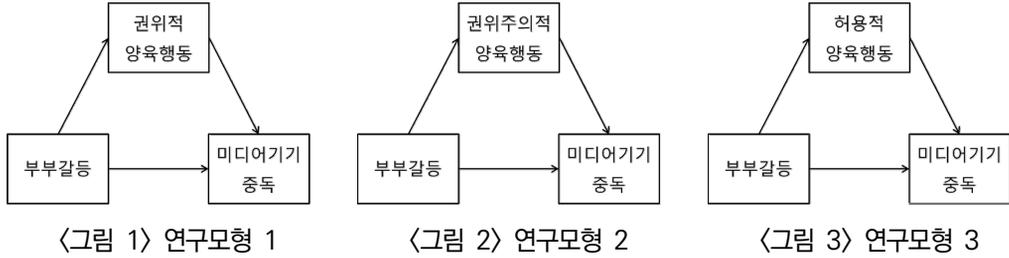
부부갈등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 역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관련해서 양육행동은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일수록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이 덜 나타났으며(백소진, 오홍석, 2017), 부모가 과잉간섭을 할수록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의존은 높아졌고(유계환, 2019; 최태산, 김자경, 2016), 부모가 학대 및 방임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진다(우수정, 2013)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유숙경, 김진숙,

박영진(2018)의 연구에서는 애정 및 적대, 자율 및 통제, 성취 및 비성취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복자, 박은아(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정-적대, 자율-통제 양육태도는 휴대폰 의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침을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부부갈등은 온정적이고 지지적 양육행동을 낮추고, 통제적이며 체벌적 양육행동을 촉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민하영, 2010; 민하영, 이영미, 2009)을 고려할 때, 양육행동은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해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인식한 부부갈등과 양육행동 수준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아동의 주요한 적응으로 볼 수 있는 미디어 기기 환경에서의 과의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부모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근거할 때,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권위적 양육행동,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허용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권위적 양육행동,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권위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허용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SKC) 11차년도 자료 중 만 10세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을 묻는 문항에 응답한 1401명의 어머니 설문데이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만 40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이 896명(6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40세 미만이 477명(34.1%), 만 50세 이상이 20명(1.4%)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23명(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교 졸업이 403명(28.8%), 고등학교 졸업이 367명(26.2%), 대학원 졸업이 90명(6.4%)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및 학업상태는 취업/학업이 790명(56.4%), 미취업/미학업이 570명(40.7%)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212명(50.8%), 여아가 687명(49.0%)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401)

변인	범주	n(%)
어머니의 연령	만 40세 미만	477(34.1%)
	만 40세 이상 - 만 50세 미만	896(64.0%)
	만 50세 이상	20(1.4%)
	무응답	8(.6%)
어머니의 학력	고등학교 졸업	367(26.2%)
	전문대 졸업	403(28.8%)
	대학교 졸업	523(37.3%)
	대학원 졸업	90(6.4%)
	무응답	18(1.3%)
어머니의 취업 및 학업상태	취업/학업	790(56.4%)
	미취업/미학업	570(40.7%)
	무응답	41(2.9%)

아동의 성별	남아	712(50.8%)
	여아	687(49.0%)
	무응답	2(.1%)

2. 측정도구

가. 독립변인: 부부갈등

어머니의 부부갈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 2001)의 부부갈등 척도를 정현숙(2004)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등의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나. 매개변인: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Robinson, Mandelco, Olsen, & Hart(1995)의 양육행동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이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등의 권위적 양육행동 27개 문항, '아이가 잘못했을 때 소리를 지르곤 한다' 등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20개 문항, '아이의 응석을 잘 받아준다' 등의 허용적 양육행동 15개 문항, 총 6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적 양육행동,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허용적 양육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권위적 양육행동이 .91,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88, 허용적 양육행동이 .68으로 나타났다.

다. 종속변인: 미디어기기 중독

아동의 미디어 중독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K-척도(인터넷중독 진단척도) 청소년 관찰자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PC·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등의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범위에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변수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부부갈등은 권위적 양육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r = -.263, p < .001$), 미디어기기 중독과는 정적 상관관계($r = .294, p < .001$)가 나타났으며, 권위적 양육행동은 미디어기기 중독과 부적 상관($r = -.330, p < .001$)이 있었다. 그리고 부부갈등은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및 허용적 양육행동과는 각각 정적 상관관계($r = .298, p < .001$; $r = .299, p < .001$), 미디어기기 중독과는 정적 상관관계($r = .294, p < .001$)가 나타났으며,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및 허용적 양육행동은 미디어기기 중독과 각각 정적상관($r = .363, p < .001$; $r = .404, p < .001$)이 있었다.

<표 2>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1401)

	1	2	3	4	5
1 부부갈등	1				
2 권위적 양육행동	-.263 ^{***}	1			
3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298 ^{***}	-.473 ^{***}	1		
4 허용적 양육행동	.299 ^{***}	-.478 ^{***}	.580 ^{***}	1	
5 미디어기기 중독	.294 ^{**}	-.330 ^{***}	.363 ^{***}	.404 ^{**}	1
<i>M(SD)</i>	2.045(.810)	3.848(.391)	2.346(.474)	2.399(.366)	1.645(.422)

^{***} $p < .001$

2.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10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방법을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는지(Shrout & Bolger, 2002)를 확인하였다. SPSS Process Macro의 모든 효과는 비표준화 계수(B)가 표준화계수(β)보다 자료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제안(Hayes, 2013)에 따라 비표준화 계수(B)로 제시하였다.

가.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권위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먼저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권위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부갈등은 권위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 = -.127, t = -10.190, p < .001$),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B = .116, t = 8.736, p < .0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권위적 양육행동은 미디어기기 중독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B = -.293, t = -10.647, p < .001$)으로 나타났다.

<표 3>.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권위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N = 1401)

Path	B	se	t	95%CI		R	R^2	F
				LLCI	ULCI			
부부갈등 → 권위적 양육행동	-.127	.013	-10.190***	-.151	-.103	.263	.069	103.829***
부부갈등 → 미디어기기 중독	.116	.013	8.736***	.090	.142	.394	.155	128.143***
권위적 양육행동 → 미디어기기 중독	-.293	.028	-10.647***	-.347	-.239			

*** $p < .001$

부부갈등, 권위적 양육행동,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 대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부트스트래핑 검정 결과, 총효과($B = .153, CI [.127, .179]$), 직접효과($B = .116, CI [.090, .142]$), 간접효과($B = .037, CI [.027, .048]$)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모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권위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 매

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부부갈등, 미디어기기 중독, 권위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N = 1401)

	<i>B</i>	<i>se</i>	<i>t</i>	95%CI	
				LLCI	ULCI
Total effect	.153	.013	11.502***	.127	.179
Direct effect	.116	.013	8.736***	.090	.142
Indirect effect	.037	.005	-	.027	.048

*** $p < .001$

나.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서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부부갈등은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 = .175, t = 11.678, p < .001$),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B = .106, t = 7.986, p < .0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미디어기기 중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B = .269, t = 11.830, p < .001$)으로 나타났다.

〈표 5〉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N = 1401)

Path	<i>B</i>	<i>se</i>	<i>t</i>	95%CI		<i>R</i>	<i>R</i> ²	<i>F</i>
				LLCI	ULCI			
부부갈등 →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175	.015	11.678***	.145	.204	.298	0.089	136.368***
부부갈등 → 미디어기기 중독	.106	.013	7.986***	.080	.132	.412	0.170	142.686***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 미디어기기 중독	.269	.023	11.830***	.224	.313			

*** $p < .001$

부부갈등,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 대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부트스트래핑 검정 결과, 총효과($B = .153, CI(.127, .179)$), 직접효과($B = .106, CI(.080, .132)$), 간접효과($B = .047, CI(.036,$

.059))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모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부부갈등, 미디어기기 중독,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N = 1401)

	<i>B</i>	<i>se</i>	<i>t</i>	95%CI	
				<i>LLCI</i>	<i>ULCI</i>
Total effect	.153	.013	11.502***	.127	.179
Direct effect	.106	.013	7.986***	.080	.132
Indirect effect	.047	.006	-	.036	.059

*** $p < .001$

다.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서 허용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허용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부부갈등은 허용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 = .135, t = 11.698, p < .001$),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B = .099, t = 7.569, p < .0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허용적 양육행동은 미디어기기 중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B = .401, t = 13.843, p < .001$)으로 나타났다.

〈표 7〉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허용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N = 1401)

Path	<i>B</i>	<i>se</i>	<i>t</i>	95%CI		<i>R</i>	<i>R</i> ²	<i>F</i>
				<i>LLCI</i>	<i>ULCI</i>			
부부갈등 → 허용적 양육행동	.135	.012	11.698***	.112	.158	.299	.089	136.848***
부부갈등 → 미디어기기 중독	.099	.013	7.569***	.073	.125			
허용적 양육행동 → 미디어기기 중독	.401	.029	13.843***	.344	.457	.443	.197	170.978***

*** $p < .001$

부부갈등, 허용적 양육행동,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 대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부트스트래핑 검정 결과, 총효과($B = .153$, $CI(.127, .179)$), 직접효과($B = .099$, $CI(.073, .125)$), 간접효과($B = .054$, $CI(.043, .066)$)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모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허용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8> 부부갈등, 미디어기기 중독, 허용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N = 1401)

	<i>B</i>	<i>se</i>	<i>t</i>	95%CI	
				<i>LLCI</i>	<i>ULCI</i>
Total effect	.153	.013	11.502***	.127	.179
Direct effect	.099	.013	7.569***	.073	.125
Indirect effect	.054	.006	-	.043	.066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SKC) 11차년도 자료 중 미디어기기 중독 문항에 응답한 어머니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권위적 양육행동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권위적 양육행동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권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어머니가 부부갈등을 더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이 미디어기기에 노출될 확률이 낮았으며(김인숙, 2016), 부부의 애정표현이 많을수록 양육행동이 애정적이었고, 자녀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 및 명확한 규칙의 설정 등의 권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낮춰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형연, 김민주, 2020; 박보경, 노지운, 2019)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게임 등의 미디어기기 과몰입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수용적이고, 자율적이며 성취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이진향(2015)의 연구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의 불화나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격려와 칭찬, 규칙에 대

한 이유 설명, 자유로운 의사표현, 편안함 등의 권위적 양육행동 방법 등 부모맞춤형 정보제공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

둘째,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미비하나, 부부갈등의 빈도나 강도를 많이 지각할수록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양명숙, 조은주, 2011),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거부나 제재 등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고(민하영, 이영미, 2009; 이어리, 이강이, 2012),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고위험사용자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변인임(김종민, 최은아, 2019)을 종합해볼 때, 부부갈등은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아동의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위해서는 긍정적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체벌, 통제, 화, 무조건적 복종 등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의 미디어사용을 제한하는 데 있어 통제적,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문경임, 2017)를 고려할 때,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규명한 본 연구결과는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디어기기 중독을 야기함을 보여준다. 이는 아동의 미디어사용의 조절이나 중독예방에 있어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줄이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긍정적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실질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셋째,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해 허용적 양육행동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허용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규명하였으며, 허용적 양육행동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확인하였다. 즉, 부부갈등이 아동의 미디어중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허용적 양육행동을 거쳐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간접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는 부모의 갈등으로 아동이 두려움을 느낄수록 미디어기기 중독이 증가하며(안경희, 2007), 부부갈등이 방임 등의 허용적 양육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이어리, 이강이,

2012), 방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우수정, 2013)와 유사하며, 부부갈등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사용을 방치하고, 아동의 문제에 무관심하는 등의 허용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져 미디어중독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볼 때, 방임 및 무관심 등은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격려를 할 수 있도록 부모역할을 지원하거나, 한편으로는 자녀의 뜻을 무조건 받아주고 허용해주는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공, 자기조절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부부갈등은 직접적으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애정적, 이성적, 민주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권위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며, 화를 내거나, 통제하거나, 벌을 주고 억압하는 등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더 하게 하고, 비일관적으로 훈육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등의 허용적 양육행동을 더 증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차원으로 접근하여 부부갈등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원만한 부부관계가 효과적이고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밝힘으로써 부부관계의 개선 및 권위적 양육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양육행동을 규명하는데 있어 어머니가 인식한 자료에만 기초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식한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설계에 의해 연구결과를 도출해냈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추후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서 변인들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예방적 접근에 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Guilford.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Robinson, C. C., Mandleco, B., Olsen, S. F., & Hart, C. H. (1995). Authorita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77*(3), 819-830.
- 김경호·최용호(2018). 초등학생의 우울이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3*(11), 211-218.
- 김미현·곽현석(2019). 초등학생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주관적 행복감, 게임중독 간의 구조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5), 371-389.
- 김인숙(2016).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과 어머니 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용문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종민·최은아(2019).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미디어 이용시간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8*(4), 197-225.
- 김형연·김민주(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및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1), 105-121.
- 문경임(2017).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다사용과 부모 관련 변인.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민하영(2010). 어머니가 보고한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조절 및 정서조절 관계에서 애정-거부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5), 1-12.
- 민하영·이영미(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및 애정-거부적 양육행동간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03-213.
- 박보경·노지운(2019).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0*(3), 87-103.
- 백소진·오홍석,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관계: 대인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5), 31-54.
- 백원대·서경현(2019). 초기 청소년기의 대인관계와 온라인 게임중독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3), 225-244.
- 안경희(2007). 초등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부모갈등 변인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수빈·강보람·이강이(2017).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38*(2), 191-204.
- 양명숙·조은주(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감독과 통제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2), 1-13.
- 어주영·김형빈·이난희(2019).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매개효과-초등학생 고학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4), 211-228.

- 우수정(2013).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1(6), 583-590.
- 우수정(2018). 부모의 아동학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인터넷 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771-786.
- 유계환(2019).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부모의 과잉간섭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학습무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1), 383-391.
- 유숙경·김진숙·박영진(2018). 부모양육태도,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7(2), 145-161.
- 이미라·박세정(2020).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강요, 자율성지지, 스마트폰 과의존 및 문제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27(5), 169-191.
- 이신숙·이영선(2017).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7), 627-634.
- 이어리·이강이(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이 초등학생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1(2), 27-39.
- 이운경·이선화·김민정·김수지(2020).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이 학령 초기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양육행동의 순차적 매개효과. Korean J Child Stud, 41(2), 147-161.
- 이진향(2015). 중학생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자녀 게임과몰입과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2(1), 169-182.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9).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 정복자·박은아(2016).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의 질과 휴대폰 사용행동의 관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연구 1(-), 53-73.
- 정현숙(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최윤희·하은혜(2019). 아동의 가족상호작용 및 부모-자녀상호작용과 문제행동 간 구조적 관계: 미디어기기중독의 매개효과.
- 최태산·김자경(2016). 부모의 과잉간섭이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23(3), 393-414.
- 한국정보화진흥원(2020).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교신저자: 박정현,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jhpark.jamie@gmail.com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Media Devices 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Jung-Hyun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ed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media devices addiction. 1,401 mothers who answered questionnaires on the research about media devices addiction among 11th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were used for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marital conflict and the children's media devices addiction has been confirmed. Secon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marital conflict and the children's media devices addiction was confirmed. Thir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was confirm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media devices addic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prevent children's media devices addic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ctively implement programs that can improve marital relationships and strengthen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 Key words: marital conflict, parenting behavior, media devices addiction, mediating effects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계 -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 연구는 비등하는 미디어기기 이용의 중요성, 즉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되는 미디어 이용 습관의 형성과 이것이 미치는 생애 영향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변인(예: 우울, 공격성, 자아존중감)과 가정환경변인(예: 양육행동, 양육태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개별 요인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가정환경의 주요 변인이 미치는 매개효과의 경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을 지적하고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부갈등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유의하게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부부관계와 양육행동이라는 근원적인 가정환경 요인에 의해 유의한 예방과 중재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만10세 이상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의존 위험군이 30.2%(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한국아동패널 10세 아동의 31.7%(잠재적위험군 5.9%, 고위험군 25.8%)(김은설 외, 2019)라는 점은 미디어기기 사용이 갖는 중요성과 함께 아동에 미치는 생애효과로서 명확히 드러나는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주 양육자 모의 인식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임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중독(또는 과몰입)을 판단하는 척도와 관련하여 모의 응답 외에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측정으로서 보강될 부분이 없는지, 있다면 후속작업을 통해 한국의 아동·청소년이 보여주는 미디어기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가능하겠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교육과 같은 비대면 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아동패널 자료를 통해 드러난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의 위험성은 바로 예방과 중재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2019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의하면, 휴대폰 이용시간이 아동의 출생순위(둘째아이상), 모 취업,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미디어기기 중독 위험군의 경우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아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아동의 컴퓨터 사용 능력을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설치/인터넷연결/웹브라우저설정/외장기기연결/악성코드치료능력 등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사이버상의 비행에 대한 인식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양호한 인식을 보이는 가운데) 남아에 비해 여아의 문제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의 대면-비대면이 결합된 상호작용과 교육과정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미디어기기 이용의 긍-부정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디어기기 중독 문항을 통해 드러난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에 대한 집단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디어기기 사용과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가구소득 및 맞벌이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정환경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함의를 갖는지, 어떠한 사회적 자원과 경험의 차이가 이러한 변인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로 나타나는지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재와 예방의 세부 요인과 개입의 시점/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난 가정환경요인, 특히 '부부관계'와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부모를 통해 아동이 경험하는 양육환경의 안정감과 신뢰,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애정과 신뢰에 기반한 상호작용이 아동의 삶의 질과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환경이 급변하고 새로운 삶의 기준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담보하는 생애 요소는 부모와 가정환경, 학교, 친구와 같은 기본적인 환경 요소로 변함이 없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였듯이 어머니가 응답한 부부갈등과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응답한 부부갈등/양육행동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가정환경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사용에 미치는 경로의 다층적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미디어기기에 대한 과몰입과 중독이 사이버상의 비행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으므로, 아동기의 건강한 사회문화적 경험과 애정과 신뢰에 기반한 양육환경과 사회적기반을 통해 미디어사용의 긍정적 기제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중재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소득양극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 예측에 관한 머신러닝분석

박정하²¹⁾ 김현옥²²⁾

요약

본 연구는 소득양극집단 주의력집행기능의 추이과정을 분석하고 아동의 주요 발달적 요소 중 하나인 주의력 집행기능의 예측변수와 예측모형을 소득양극집단을 비교분석하였다. 추이과정분석은 한국아동패널 제 8차 ~제 11차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였고 예측변수와 예측모형은 한국아동패널 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jamovi 및 R×64 3.6.1/ R-studio를 분석도구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득양극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의 추이과정은 상이한 발달과정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저소득 집단 아동의 주의력집행기능 예측변수는 학업성적, 또래적응, 학업수행적응, 학교생활 적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 예측변수는 지역시설만족도, 지역기관접근성, 학업수행적응, 학교생활 적응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 발달에는 아동변인과 학교변인으로 주의력 집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 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 발달에는 지역변인인 지역시설만족도, 지역기관 접근성 등 지역 환경에 의해 주의력 집행기능이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양극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에 대한 예측모형 값을 타당한 값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소득양극집단, 주의력 집행기능, 동시이환, 랜덤포레스트, 서포트벡터머신

1. 서론

소득양극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을 예측하는 변수는 상이할까? 상이하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송현주(2014)는 집행기능 4개의 하위요인으로 계획-조직화곤란, 행동통제곤란, 정서통제곤란과 부주의로 명명하였다. 집행기능은 다양한 인지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고, 학업과 일상생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주요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일부반응을 억제하며 규칙에 따르

2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2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는 능력이 집행기능의 지표가 되며 아동 학습 및 전반적인 학교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Espy et al, 2004; Gathercole, Brown, & Pickering, 2003).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집행기능이 학교준비도, 학업성취, 문제행동, 사회성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연은모·최효식, 2019).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기본적 학습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때 집행기능은 학생들의 학업을 조절하고, 통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Cirino, 2006).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특성이 있는 아동의 부모는 아동이 산만하고 부정적인 행동 때문에 대인관계를 맺는 사회적 상황에서 갈등이 야기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민섭·오경자·홍강의, 1995). Barkley(1997)는 부주의 아동이 정서적 자기조절이라는 도전과 작업수행을 기억해야 하는 긴장상황에서 주의력이 부족한 양상으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집행기능은 사고, 정서, 행동에 대한 인지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연은모·최효식, 2019, 재인용), 자기조절 과정의 중요 요인이다(Blatt, 2012). 이로 인하여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거나 역기능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높고 양육효능감이 낮으며, 이는 아동을 강압적인 양육태도로 대하게 되어 아동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최윤영 외, 2002). 아동은 부모와 주변예측 변수에 따라 자아감을 규정하는 의미 있는 타자로 평가되며, 이은수(2019)는 아동은 부주의로 인하여 주위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반복해서 받으면서 자기개념이 손상되고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부주의한 아동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학업,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Barkley, 2003),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반항적인 행동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권석만, 2003). 또한 아동의 주의력과 관련 문제는 사회적 민감성과 자극추구성향, 자율성 등과 관련되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일치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장원석·홍성도·정유숙(2006)과 Salgado 외(2009)는 부주의한 아동은 사회적 민감성과 자율성 및 연대감이 낮으며 자극추구성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학부모대상으로 조사한 이수진·오경자(2012)의 역시 일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직접 조사한 이수진·오경자(2014)에 의하면, 사회적 민감성은 부주의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주의력과 그 관련변인들을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파악하기 보다는 동시이환(comorbidity)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되는 변인들의 관계로 분류하여 예측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Salgado et al., 2009).

지역사회 또한 아동의 일상생활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동기 생활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ellström & Bremberg, 2006). 이처럼 빈곤이 특정한 공간에 집중되어 동네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형성함으로써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별개로

개인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때 ‘동네효과’(neighborhood effect)가 존재한다고 말한다(곽현근, 2008).

주의력 문제를 호소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K-WISC-IV와 ATA를 실시한 결과 언어이해 지표를 제외한 지각추론 작업 기억, 처리속도 및 전체지능 결과는 주의력에 집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애란·홍창희, 2015). 주의력 집행기능은 다른 집행기능에 비해 평가자와 예측변수에 따라 구성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에 대한 예측변수의 연구는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주의력 문제를 가진 아동의 집행기능이 미숙하다는 보고를 감안할 때, 주의력에 대한 부모 평가와 주변 환경의 변인을 통하여 이후 주의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아동이 교사 및 평가자와 불편한 관계일 경우에도 아동은 부주의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아동의 주의력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성의 정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생애 출발의 공평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Honneth나 Butler 등이 제기한 인정이론에 의하면, 가난함과 부유함은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1차), 규정된 정체성에 기반한 관계를 확장해 가며(2차), 구축된 관계에 의해 정체성은 재형성된다(3차 이후 연속)고 지적하였다. 빈곤아동은 학업성적이 낮고, 교우관계나 교사관계가 나쁘며, 학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주의력을 둘러싼 이러한 발달불리가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가는 매우 중요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빈곤은 물질의 결핍을 넘어서는 인간 내부 요소의 결함으로 받아들여지며, 당사자에게 그 부정적 평가가 귀속되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형성해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주의력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에 대해 의미하는 바와 그 예측변인과 빈곤과의 관련성은 연구된 바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아동의 주의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환경이나 관찰자와 아동의 관계를 배제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김현옥·박정하·김경호(2019)는 고소득 가족의 아동은 저소득 가족의 아동보다 스트레스가 적은 어머니와 본인의 성장과 발달에 보다 유리한 공간과 장소를 접하고 있었고, 저소득 가족 아동은 그 반대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점에서 저소득 가족의 지역사회 여건이 전반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원의 결핍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빈곤 그 자체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김현옥·박해선, 2018). 간호옥·박완재(2005)는 빈곤가정의 경우 불량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아동에게 학습 및 시야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게 호기심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환경은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이예진·전은옥,

2019), 집행기능의 발현에는 적절한 환경적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Glaser, 2000).

소극양극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의 차이는 중요하며, 이로 인하여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혼란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역시, 취약 아동의 발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주요 발달적 요소 중 하나인 주의력의 예측변인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의력 집행기능의 소극양극집단 아동의 예측변인과 예측모형이 무엇인지와 두 집단의 주의력 집행기능의 추이과정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의 추이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두 집단의 주의력 집행기능의 예측변수는 무엇인가?

셋째, 두 집단의 주의력 집행기능에 대한 예측모형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제 8차, 제 9차, 제 10차, 제 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2. 측정도구

가. 주의력 집행기능(Attention execution function)

아동의 집행기능 중 주의력 집행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송현주(2014)가 개발한 아동 집행기능 척도중 부주의 집행기능 10문항을 역산하여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주의력 집행기능 어려움을 평가하기 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력 집행기능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평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산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주의력 집행기능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신뢰도는 $\alpha=.90$ 로 나타났다.

나. 강점/난점(SDQ)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의 강점 난점을 평가하기 위하여 Goodman, R. (1997).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a research note. Journal of Child Psychiatry, 38(5), 581-586. 한국어 번역판 교사용을 활용하였다. 강점 난점을 평가하기 위하여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ur) 5문항으로 신뢰도 $\alpha=.57$, 정서증상(Emotional symptoms) 5문항으로 신뢰도 $\alpha=.64$, 또래문제(Peer problems) 5문항으로

로 신뢰도 $\alpha=.64$, 행동문제(conduct problems) 5문항으로 신뢰도 $\alpha=.65$, 과잉행동/부주의(Hyperactivity/Inattention) 5문항으로 신뢰도 $\alpha=.68$ 로 나타났다. 5개 하위영역 각 5문항 총 25개 문항으로 3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 학업성적(Scholastic ability)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아동 패널 11차년도 학업수행 척도를 사용하였다. 국어(3문항), 영어(1문항), 수학(5문항), 과학(1문항), 사회(1문항), 예체능(3문항), 학업수행전반(1문항) 총 15문항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국어 $\alpha=.94$, 영어 $\alpha=.95$, 수학 $\alpha=.94$, 과학 $\alpha=.94$, 사회 $\alpha=.94$, 예체능 $\alpha=.96$, 학업수행전반 $\alpha=.94$ 로 나타났다.

라.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inventory)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성애·정대현.(2006). 초등학교 1학년용 학교적응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를 활용하여 학교생활적응(School life) 11문항으로 신뢰도 $\alpha=.86$, 학업수행적응(academic performance) 11문항으로 신뢰도 $\alpha=.80$, 또래적응(Peer adaptation) 8문항으로 신뢰도 $\alpha=.80$, 교사적응(Teacher adaptation) 5문항으로 신뢰도 $\alpha=.88$ 로 나타났다. 4개의 하위영역 총 35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마. 교사-아동관계(STRS)

교사-아동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Pianta, R. C. (2001). The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Odessa, FL: Personality Assessment Research. 저자의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교사-아동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친밀(Closeness) 7문항으로 신뢰도 $\alpha=.87$, 갈등(Conflict) 8문항으로 신뢰도 $\alpha=.84$ 로 나타났다. 교사-아동관계 평가하기 위하여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바. 지역사회 안전성(safety)

한국아동패널은 지역사회의 치안 및 질서, 안전사고 및 양육환경의 적절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안전성 5점 척도, 8개 문항을 개발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alpha=.81$ 로 나타났다.

사. 지역시설 접근성(accessibility)

한국아동패널은 지역사회기관과 문화시설 등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된 지역시설 접근성 5점 척도, 13개 문항을 개발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접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alpha=.91$ 로 나타났다.

아. 지역기관 이용만족도(satisfaction)

한국아동패널은 지역사회기관과 문화시설 등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주된 내용으로 구성된 지역사회기관 이용만족도 5점 척도, 13개 문항을 개발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alpha=.92$ 로 나타났다.

자. 근로소득(income)

가계에서 발생하는 월평균 근로소득.

차. 금융자산(asset)

예금, 보험, 주식, 채권, 타지 않은 계, 빌려준 돈, 전월세 임대료의 당 해년 총계.

카. 부동산(estate)

주택, 건물, 임야, 토지 등에 대한 현 시가.

3. 분석방법과 분석도구

첫째,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는 배깅(bagging, bootstrap aggregating)에 랜덤 과정을 추가한 방법이며(나중화, 2017), 각 붓스트랩 샘플에 대해 트리를 형성해 나가면서 예측변수들을 임의로 추출하고, 추출된 변수 내에서의 최적의 분할을 실시함으로써, 투입된 변수들의 중요도를 분석하는데 활용되는 machine learning 방법 중 하나이다.

수식의 경우, $I = H(S) - \sum_{i \in L, R} \frac{|S^i|}{|S|} H(S^i)$, S는 한 노드에 도달하는 데이터 집합을, Sⁱ는 이 노드의 왼쪽 혹은 오른쪽 방향 자식 노드로 들어가는 데이터 집합을 나타낸다. 각 노드의 정보 획득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확률 변수의 조합으로 정보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섀넌(S) 엔트로피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 $H(S) = - \sum p \log(p(c))$ 이며, c는 분류 군집(class)을, p(c)는 각 군집에 대한 질량함수를 의미한다.

둘째, 서포트벡터머신(Support Vector Machine, 이하 SVM)은 고차원 또는 무한 차원의 공간에서 초평면을 찾아 분류와 회귀를 수행하여 예측값을 제시하는 machine learning 중 하나이다(나중화, 2017). 또한, SVM은 분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 데이터 간에 분류를 수행할 때 선형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초평면(hyperplane)을 최대화하여 객체를 분류하는 기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Park & Bae., 2019). 직관적으로 자료를 군집별로 가장 잘 분리하는 초평면은 가장 가까운 자료까지의

거리(margin)가 가장 큰 경우이며, 마진이 가장 큰 초평면을 분류기(classifier)로 사용할 때, 오분류가 가장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분리 초평면 $h(x) = 0$, 각 자료점 X_i 와 초평면 간의 거리는 $\delta_i = \frac{y_i h(x_i)}{\|\omega\|}$ 이며, 이때의 목적함수는 $\min \frac{\|\omega\|^2}{2}$, 선형제약은 $Y_i h(X_i) \geq 1, X_i \in D$ 이다. 이 경우의 최적화 문제는 라그랑지 승수법(Lagrange multiplier method)으로 혹은 여유변수(slack variables, ϵ)를 도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SVM의 최종 내적 함수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Phi(p) \cdot \Phi(q) &= (p_1^2, \sqrt{2} p_1 p_2, p_2^2)(q_1^2, \sqrt{2} q_1 q_2, q_2^2) \\ &= p_1^2 q_1^2 + 2p_1 q_1 p_2 q_2 + p_2^2 q_2^2 \\ &= (p_1 q_1 + p_2 q_2)^2 \\ &= (p \cdot q)^2 \end{aligned}$$

셋째, 본 연구는 jamovi 및 R x64 3.6.1/ R-studio를 분석도구(설현수, 2019)로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변수분류기준 및 기술통계량

가. 소득양극집단 분류기준

본 연구는 제 11차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하여 소득양극집단 아동을 분류하기 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3가지 소요(금융자산, 부동산, 근로소득)를 표준화하였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및 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의 발생 시점 구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화를 하여 3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발생하는 금액의 차이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Z + 금융자산Z + 근로소득)/4'를 분석한 결과, 낮은 집단의 누적백분율 25%이하 - 0.083값 이하인 응답자로서 결측값을 제외한 146명을 저소득으로 기준하고, 75%이상 0.281값 이상인 응답자로서 결측값을 제외한 119명을 고소득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소득양극집단 아동 분류기준

	전체소득	근로소득z	근로소득	부동산z	부동산	금융자산z	금융자산
N	1097	1293	1293	1290	1290	1211	1211
Mean	-0.008	-2.32e-12	565	7.83e-11	33570	1.02e-10	7665
Median	-0.475	-0.124	500	-0.089	25000	-0.328	4000
Min.	-2.10	-1.08	0	-0.347	0	-0.686	0
Max.	32.7	14.2	8000	33.8	3300000	8.26	100000
25 th percentile	-0.883	-0.315	400	-0.202	14000	-0.520	1850
75 th percentile	0.281	0.0669	600	0.0458	38000	0.209	10000

나. 연구변수 기술통계량

소득양극집단 아동에 대한 연구변수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2〉 과 같다

〈표 2〉 소득양극집단 연구변수 기술통계량

연구변수				구분	소득		
					저소득	고소득	
아 동 변 인	강 점 난 점	총체적 어려움	내재화난점	N	146	119	
				Mean	1.26	1.22	
				정서증상 (Emotional symptoms)	Minimum	1.00	1.00
				Maximum	2.60	2.40	
				t	0.9335		
				N	146	119	
				Mean	1.33	1.30	
				또래문제 (Peer problems)	Minimum	1.00	1.00
			Maximum	2.40	2.40		
			t	0.8651			
			외현화난점	N	146	119	
				Mean	1.30	1.22	
				행동문제 (Conduct problems)	Minimum	1.00	1.00
				Maximum	2.40	2.20	
t	2.5822**						
N	146	119					
Mean	1.48	1.30					
과잉행동/부주의 (Hyperactivity/Inattention)	Minimum	1.00	1.00				
Maximum	3.00	3.00					
t	3.1357**						

	친사회적행동 (Prosocial behaviour)	N	146	119		
		Mean	2.41	2.52		
		Minimum	1.20	1.00		
		Maximum	3.00	3.00		
		t	-1.8718*			
	학업성적(Scholastic ability)	N	146	119		
		Mean	4.02	4.40		
		Minimum	1.10	1.90		
		Maximum	5.00	5.00		
		t	-3.8520***			
학 교 변 인	학교적응	학교생활적응 (School life)	N	146	119	
			Mean	4.10	4.37	
			Minimum	1.50	1.70	
			Maximum	5.00	5.00	
			t	-2.5595**		
			학업수행적응 (Academic performance)	N	146	119
		Mean		3.92	4.04	
		Minimum		1.50	1.00	
		Maximum		5.00	5.00	
		t		-1.1506		
		또래적응(Peer adaptation)	N	146	119	
			Mean	3.98	4.13	
			Minimum	1.00	1.00	
			Maximum	5.00	5.00	
			t	-1.5950		
		교사적응 (Teacher adaptation)	N	146	119	
			Mean	4.04	4.04	
			Minimum	1.80	1.60	
			Maximum	5.00	5.00	
			t	0.0357		
교사- 아동관계	교사-아동 친밀(Closeness)	N	146	119		
		Mean	4.08	4.10		
		Minimum	2.70	2.10		
		Maximum	5.00	5.00		
		t	-0.2893			
			교사-아동 갈등(Conflict)	N	146	119
	Mean	1.44		1.31		
	Minimum	1.00		1.00		

지역 변 인	지역사회안전성(Safety)	Maximum	3.50	3.10
		t	2.0075**	
		N	274	274
		Mean	3.43	3.53
		Minimum	1.80	1.00
		Maximum	4.90	4.90
	지역시설접근성(Accessibility)	t	-2.0207**	
		N	274	274
		Mean	3.01	3.61
		Minimum	1.00	1.00
		Maximum	4.90	5.00
		t	-9.4541***	
	지역기관이용만족도(Satisfaction)	N	274	274
		Mean	3.76	4.41
		Minimum	1.00	1.00
Maximum		6.00	6.00	
t		-8.3263***		

* $p < .01$, ** $p < .05$, *** $p < .001$

〈표 3〉 소득양극집단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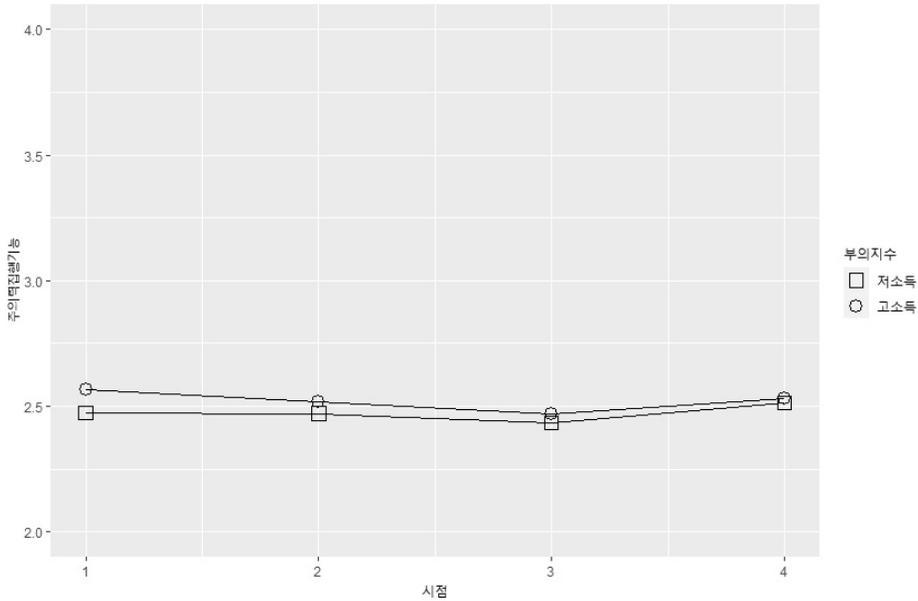
주의력 집행기능을 분류하기 위하여 부주의 집행기능을 역산한 평균값을 양분(median)하여 2.53이상을 주의력 집행기능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고, 2.53이하는 주의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구분	주의력집행기능	
	low	high
N	271	269
median	2.53이상	2.53이하
Minimum	1.00	1.00
Maximum	3.00	3.00
t	-1.6330	

* $p < .01$, ** $p < .05$, *** $p < .001$

2. 소득양극집단 아동 주의력 집행기능 추이 과정

소득양극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 제 8차, 제 9차, 제 10차, 제 11차의 추이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소득양극집단의 주의력 집행기능의 추이과정

소득양극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은 생애초기부터 발달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소득양극집단 주의력 집행기능의 예측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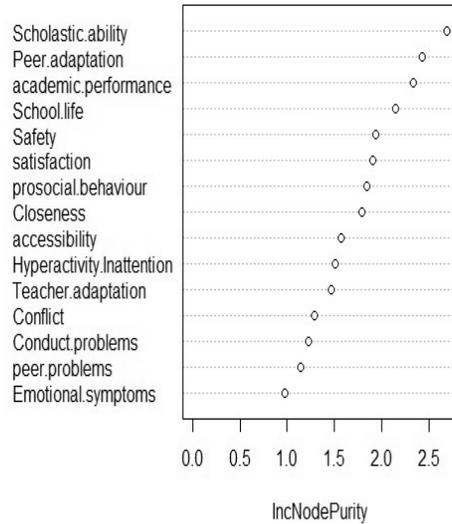
가. 소득양극집단 주의력 집행기능 예측분석

소득양극집단의 연구변수의 중요도 분석을 위하여 randomforest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드 순도개선에 기여하는 값 MeanDecreaseGini는 변수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 이는 숫자가 클수록 해당변수의 투입으로 인한 분류불순도가 제거된다.

〈표 4〉의 저소득 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은 학업성적, 또래적응, 학업수행적응, 학교생활적응 등으로 분류되었다.

〈표 4〉 저소득집단의 중요도 예측변수(library('randomForest'), randomFo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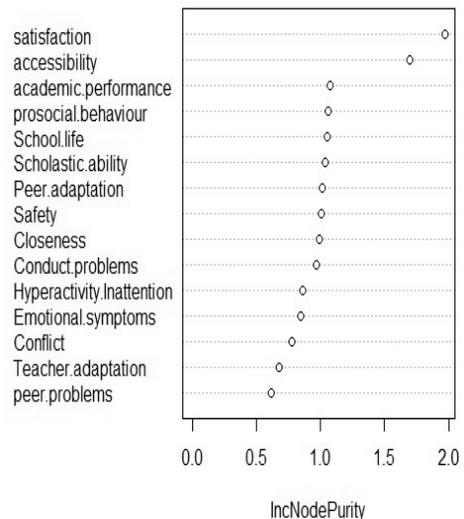
변수	MeanDecreaseGini	순위
prosocial behaviour	1.8445261	7
emotional stmpmts	0.9706686	15
peer problems	1.1393655	14
conduct problems	1.2228415	13
hyperractivity,Instntention	1.5119379	10
scholastic ability	2.692397	1
school life	2.1526908	4
academic performance	2.3377529	3
peer adaptation	2.4320246	2
teacher adaptation	1.4710513	11
closeness	1.7913723	8
conflict	1.2871563	12
safety	1.9371557	5
accessibility	1.5763350	9
satisfaction	1.9050051	6
Gini index: Gini-impurity		



반면 〈표 5〉의 고소득 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은 지역시설만족도, 지역기관접근성, 학업수행적응, 친사회적행동 등의 순으로 분류되었다.

〈표 5〉 고소득집단의 중요도 예측변수(library('randomForest'), randomForest)

변수	MeanDecreaseGini	순위
prosocial behaviour	1.0622753	4
emotional stmpmts	0.8420924	12
peer problems	0.6165461	15
conduct problems	0.9654664	10
hyperractivity,Instntention	0.8621880	11
scholastic ability	1.0368879	6
school life	1.0539661	5
academic performance	1.0709115	3
peer adaptation	1.0139603	7
teacher adaptation	0.6726712	14
closeness	0.9916250	9
conflict	0.7727719	13
safety	1.0047333	8
accessibility	1.6996980	2
satisfaction	1.9719028	1
Gini index: Gini-impurity		



나. 소득양극집단 주의력 집행기능 예측모형 분석

소득양극집단으로 나누어 주의력집행기능 예측 분석을 위하여 svm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type'의 경우, 수행 방법의 유형으로서 분류, 회귀 혹은 비정상 데이터를 구분하는 novelty detection이 있으며, 이 중 본 분석에서는 분류를 선택하였다. 'kernel'의 경우, 예측에 사용되는 커널로, 본 분석에서는 가우시안 RBF를 의미하는 'radial'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고소득 attention(low)의 정분류는 46명, attention(high) 70명, 저소득의 attention(low)의 정분류는 69명, attention(high) 정분류는 73명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예측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 < 1.009e-25$), 모형의 정확도를 의미하는 Kappa는 .964로서 우수한 정도로 분석되었다. 저소득 예측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 < 1.793e-31$), 모형의 정확도를 의미하는 Kappa는 .972로서 우수한 정도로 분석되었다.

〈표 6〉 소득양극집단의 중요도 예측변수(library('e1071'), svm)

구분	고소득		저소득	
	attention(low)	attention(high)	attention(low)	attention(high)
attention(low)	46	0	69	2
attention(high)	2	70	0	73
type = "C-classification", kernel = "radial", cost = 10, gamma = 0.1				
p-value	<1.009e-25		<1.793e-31	
kappa ²³⁾	0.964		0.972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주요 발달적 요소 중 하나인 주의력 집행기능의 예측변수와 예측모형을 소득양극집단별 비교분석하고 주의력 집행기능의 추이과정을 분석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의의를 두고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소득양극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의 추이과정은 상이한 발달과정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저소득 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 예측변수는 학업성적, 또래적응, 학업수행적응, 학교생활적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 예측변수는 지역시설만족도, 지역기관접근성, 학업수행적응, 학교생활적응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 발달에는 아동변인과 학교변인으로 주의력집행기능 발달에

23) kappa가 .6이상이면 우수, .4이상이면 양호를 의미한다(나중화, 2017).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 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 발달에는 지역변인인 지역시설만족도, 지역기관접근성 등 지역 환경에 의해 주의력 집행기능이 발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집행기능의 발현에는 적절한 환경적 제공이 필요하다고(Glaser, 2000) 제시한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적절한 학습기회와 자극, 안락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 받는 것은 아동에게 주어진 일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충동을 자제하는 연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을 함의한다. 저소득 가족의 경우 불량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고(간호옥·박완재, 2005), 고소득집단 아동의 인지기능과 정서 및 행동통제 기능, 주의력기능 발달에 보다 유리한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김현옥·박정하·김경호, 2019). 이는 저소득 집단 아동이 경험하는 공간적 박탈이나 지역사회 불리에 대한 인식이 취약지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불공평의 일부를 반영이라고 보는 것파(Ridge, 2013),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어진다. 즉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지역 수준의 편의시설이 적고, 지역박탈지수가 높아 아동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고소득 집단 아동보다 불리하다고 여겨진다. 곽현근(2008)이 제시한 ‘동네효과(neighborhood effect)’는 빈곤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환경이 그러한 의식형성에 장애가 된다는 연구를 지지하며, 공간적 차원에서 특정한 지역에 사회적 약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사회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환경적 특성을 개선 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다고 시사되어진다.

부주의하다는 것은 아동의 주의력을 유지하는 능력이나 과제에 대한 반응 능력 및 지시를 따르는 능력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이은수(2019)가 제시한 부주의로 인하여 주위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반복해서 받으면서 자기개념이 손상되고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부주의의 문제와 발달불리는 저소득 집단 아동에서 더욱 비중 있게 나타났다. 주의력문제를 호소하는 아동은 작업 기억, 처리속도 및 전체지능 결과가 주의력 집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권애란·홍창희, 2015). WISC-III에서도 지능 검사를 요인 분석한 결과 주의집중 요인과 처리속도 요인이 ADHD아동을 변별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되었다(최원선, 2002; Snow & Sapp, 2000).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집단에 주의력집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학업성적이 분석되었다. 저소득집단의 경우 사교육비의 증가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고소득집단의 경우 사교육비 증가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이봉주·임세희·좌현숙, 2011). 고소득집단 가족의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가 적으며, 아동의 두뇌 역량이 뛰어나며, 그들은 보다 안전하고 접근성 있는 시설을 누리며 만족스러운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김현옥·박정하·김경호, 2019). 즉 고소득집단 아동은 성장과 발달에 보다 유리한 공간과 장소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집단 아동

의 주의력 집행기능 발달에 주요한 변수인 학업성취에서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 함의하는 것은 빈곤할수록 지역공동체 의식이 낮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환경으로 인하여 지역공동체의식이 더욱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에서 물리적 환경과 지역적 환경이 그것을 더 고착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셋째, 소득양극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에 대한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과 저소득의 예측모형 값은 타당한 값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해보면 주의력문제를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과잉행동-충동성 문제는 특정 연령부터는 서서히 감소한다는 선행연구(August, Braswell, & Thura, 1998; Langberg et al., 2008; Larsson et al., 2006)와 반면 부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감소(August et al., 1998; Langberg et al., 2008) 또는 유지된다(Larsson et al., 2006)는 다소 불일치되는 보고 결과를 기반으로 부주의 문제의 발달양상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소득양극집단별 주의력 집행기능의 발달 예측변수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집단과 고소득집단의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에 상이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주의력문제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측변인에 의해 주의력 집행기능이 발달되어 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상적으로 아동의 주의력은 학교생활, 교사와 또래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왔다(장원석·홍성도·정유숙, 2006; Salgado et al., 2009). 그러나 이수진·오경자(2014)에 의하면, 아동의 주의력은 아동의 기질과 상황적 특성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주의력에 선행연구들이 아동의 환경이나 관찰자와 아동의 관계를 배제한 채 심리적 기질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이수진·오경자, 2012, 장원석·홍성도·정유숙, 2006, Salgado et al., 2009). 아동의 주의력은 신체생물학적인 요소로서 아동의 상황과 능력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Jones et al., 2017), 다양한 사회관계적으로 사회상황적으로 구성되는 측면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Barkley, 1997). 따라서 성인 관찰자에 의해 아동의 부주의를 평가할 때에는 아동의 기질적 특징으로서 부주의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아동과 성인의 수용적 관계의 정도를 감안해야 하며, 성인의 평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순환적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Salgado et al., 2009).

특히 저소득집단 아동은 인지기능을 포함한 아동의 두뇌 역량인 집행 기능 전반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고, 고소득집단 아동은 인지기능과 정서 및 행동 통제 기능, 주의력 발달에 보다 유리한 환경적 요소에 도움을 받고 있다. 아동의 주의력은 아동의 기질과 상황적 특성에 영향을 받기도 하다는 선행연구(이수진·오경자, 2014)와 같이 관련 변인들은 상호 순환적이고 구성적으로 형성되므로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파악하기 보다는 동시

이환(comorbidity)적인 특성으로 분류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Salgado et al., 2009). 또한 주의력 집행기능의 중요변수에서 저소득집단 아동은 개인의 노력이나 극복에 의해 향상되지만 고소득집단 아동은 지역적 환경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특정한 지역에 사회적 약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사회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동네에 대해서는 환경적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며 계층 간의 사회적 혼합(social mix)²⁴⁾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간호옥·박완재(2005). 학교부적응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가정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2(3), 5-23
- 김현옥·박해선(2018). 빈곤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가족요인에 관한 지역사회 지지요인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27(3), 31-54
- 김현옥·박정하·김경호(201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역사회요인 조절효과의 소득 양극집단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21, 91-124
- 곽현근(2008).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 권석만(2013). *현대 이상 심리학*. 서울: 학지사.
- 나종화(2017). R데이터마닝. 자유아카데미
- 설현수(2019.) jamovi 통계프로그램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 신민섭·오경자·홍강의(1995).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장애 아동에서 약물 단독 치료와 부모 훈련 병합치료의 효과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6(1), 65-73
- 송현주(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33(1), 121-137
- 이봉주·임세희·좌현숙(2011). 사교육과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진·오경자(2012). 아동의 기질과 부모 양육이 부주의와 과잉행동-충동성 문제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4), 45-969
- 이수진·오경자(2014). 부주의 및 과잉행동 문제의 하위집단 형성에 미치는 아동 기질과 양육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33(2), 279-298
- 이은수(2019). 부모-자녀 관계문제를 가진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7(1).
- 이예진·전은옥(2019).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탐색: 어머니의 취업, 가정환경,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3(1), 101-121

24) 미국 Chicago시의 경우 1976년부터 1998년까지 Gautreaux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빈곤 흑인 거주자들로 하여금 대부분 백인들이 살고 있는 교외나 도시의 중산층 주거지의 민영 아파트로 이사를 유도해왔다.(Rosenbaum, 1995; Sampson et al., 2002)

- 연은모·최효식(2019). 초등학교의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어머니와 담임교사 평정에 따른 잠재집단 탐색 및 학교적응, 학업수행 차이 검증. *한국산학기술학회*.
- 장원석·홍성도·정유숙(2006).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환아들의 기질 및 성격 특성. *신경정신의학*, 45(1), 77-82
- 황성동(2019). R과 jamovi로하는 통계분석. 학지사
- 최원선(2002). K-WISC_III에 나타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인지기능 특성.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최윤영·김지혜·조선미·홍성도·오은영(2002).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우울감,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 관련 태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3(1), 153-162
- August, G. J., Braswell, L., & Thuras, P. (1998). Diagnostic stability of ADHD in a community sample of school-aged children screened for disruptive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5), 345-356.
- Barkley, R. A. (1997). Behavioral inhibition, sustained attention, and executive functions: Constructing a unifying theory of ADHD. *Psychological Bulletin*, 121, 65-94.
- Barkley, R. A. (2003).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In E. J Mash & R. A. Barkley(Eds.). *Child psychopathology* 2nd ed., 75-143. New York: Guilford Press.
- C. Blalt, C. C. Raver. (2012). Individual development and evolution: Experiential canalization of self-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8(3), 647-657
- Espy, K. A., McDiarmid, M. F., Stalets, M. m., Hamby, A., & Senn, T. E. (2004). The contribution of executive functions to emergent mathematic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6, 465-486.
- Gathercole, S. E., Brown, L., & Pickering, S. J. (2003). Working Memory assessments at school entry as longitudinal predictors of National Curriculum attainment levels. *Educational and Child Psychology*, 20(3), 109-122.
- Glaser, D. (2000).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 brain—a review.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1(1), 97-116.
- Jones, R. M., Walden, T. A., Conture, E. G., Erdemir, A., Lambert, W. E., & Porges, S. W. (2017). Executive Functions Impact the Relation Between Respiratory Sinus Arrhythmia and Frequency of Stuttering in Young Children Who Do and Do Not Stutter.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60, 2133-2150
- Langberg, J. M., Epstein, J. N., Altaye, M., Molina, B. S., Arnold, L. E., & Vitiello, B. (2008).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is associated with changes i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DHD symptomatology in young adolescents with

- ADHD.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7(3), 651-663.
- Larsson, H., Lichtenstein, P., & Larsson, J. O. (2006). Genetic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ADHD subtype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5(8), 973-981.
- Park, G. M., & Bae, Y. C. (2019), Performance comparison of machine learning in the various kind of predi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14(1): 169-178.
- P. T. Cirino, Y. Ahmed. j. Miciak, W. P. Taylor, E. H. Gerst, M. A. Barnes. (2018). A framework for executive function in the late elementary years. *Neuropsychology*, 132(2), 176-189
- Ridge, T. (2013). We are all in this together? The hidden costs of poverty, recession and austerity policies on Britain's poorest children. *Children and Society*, 27(5), 406-417.
- Rosenbaum, J. E. (1995). Changing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by Expanding Residential Choice: Lessons from the Gautreaux Program. *Housing Policy Debate*, 6(1), 231-269
- Salgado, C. A., Bau, C. H., Grevet, E. H., Fischer, A. G., Victor, M. M., & Kalil, K. L. (2009). Inattention and hyperactivity dimensions of ADHD are associated with different personality profiles. *Psychopathology*, 42(2), 108-112
- Sellström, E., & Bremberg, S. (2006). The significance of neighborhood context to child and adolescent health and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of multilevel studies.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4, 544-554
- Snow, J. B., & Sapp G. L. (2000). WISC-III subtest patterns of ADHD and normal samples. *Psychological Reports*, 87(3), 759-765
- 교신저자: 김현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hyunki@gntech.ac.kr

Abstract

machine learning analysis for predicting an attention executive function of children between the property bipolar

Park, Jung-Ha and Kim, Hyun-Ok

This study analyzes the time series of attention executive function and compares predictive model of attention executive function between property bipolar. For the time series analysis, data from the 8th to 11th data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were used, and the 11th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s Panel were used for predictors and predictive models. As results, first, the time series analysis of the attention executive function between two groups showed different development processes. Second, the predictive variables of attention execution function of children in low-property were in order of academic performance, peer adaptation, academic performance adapt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Predictive variables of attention executive function of high-property children children were in the order of community satisfaction, community accessibility academic performance,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Third, the predictive model was analyzed as a reasonable valu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discussions and suggestions were made.

- Key words: property bipolar, attention executive function, comorbidity, randomforest, Support Vector Machine

“소득양극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 예측에 관한 머신러닝분석” 토론문

오미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며, 더 나은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대규모로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자가 진화를 통한 알고리즘 성능의 지속적인 강화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은 AI의 한 분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이며, 이미지 처리, 영상인식, 음성인식, 인터넷 검색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핵심 기술로 예측(Prediction)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다.

이 논문에서는 소득양극집단 아동의 주의력 집행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도출과 예측모형을 구축할 때 기계학습 모형인 랜덤포레스트와 SVM을 활용하였다.

랜덤 포레스트의 장점은 매우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고, 독립변수의 수가 많을 때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상치에 둔감하며 독립변수의 변환에 invariant하다. Interaction terms를 반영하여 비선형 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 반면에, 랜덤 포레스트는 이론적 설명이 부족하며 최종 결과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Support Vector Machine은 다차원 공간을 초평면으로 경계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예측력이 좋아 기업체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모형이다. 분류 및 회귀 문제에서 적용 가능하며, 데이터에 잡음(noise)이 있어도 크게 영향받지 않고 과적합(overfitting)되지 않는다. 그리고 높은 예측력도 SVM의 장점 중 하나이다. SVM의 단점으로는 모형구축을 위한 데이터셋(training data)의 샘플 수와 차원(dimension)이 크다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그리고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커널과 모형에서의 Tuning parameter 설정이 중요하다. 또한, 모형에 대한 해석도 쉽지 않다. 기계학습 기법의 장단점도 함께 논문에 기술해 준다면 독자들의 분석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양극집단의 주의력 집행기능 예측모형으로 SVM을 썼는데, 랜덤포레스트의 예측 결과도 함께 제시해준다면 두 기법간의 예측력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형을 평가할 때 예측력, 해석력, 효율성, 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하는데, 예측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예측력이다. 따라서, 예측 모형의 평가는 데이터셋을 훈련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로 랜덤하게 나눈 뒤 10fold CV로 결과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형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결과는 training error 임을 표기해주는 것이 독자들의 혼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아동의 주의력 집행기능의 예측변수와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계학습 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예측력이 좋은 방법으로, 이를 활용한 연구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 오미애 외 (2017) 기계학습 기반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미애 외 (2018) 기계학습 기반 이상탐지 기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11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세션3 양육



세션3 양육

양육 1

좌장: 이희선(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1. 아동 물질주의에 대한 종단연구: 행복과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부모 요인
연구진: 임남연(경성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토론자: 상경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2.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반영한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집단 간 차이
연구진: 이지원(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최지은(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토론자: 김지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3.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그림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진: 임민영(서울대학교 유아교육협동과정 박사과정)
김민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신유림(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아동 물질주의에 대한 종단연구: 행복과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부모 요인

임남연²⁵⁾

요약

이 연구는 만 8세부터 10세 아동의 물질주의가 10세 때 행복과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 물질주의를 예측하는 부모 요인에 대하여 한국아동패널 종단 자료를 이용해 탐구하였다. 그 결과, 만 8~10세에 물질주의적인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10세 때 행복 수준이 낮고 또래애착 형성이 부정적이었으며, 공동체의식 수준이 낮았다. 10세의 물질주의는 아버지가 물질주의적이었을수록 많이 나타났다. 또한 가정 경제 수준을 통제해도 아동의 경제적 불안정 지각은 이후 아동 물질주의를 예측했으며, 물질주의와 경제적 불안정 지각은 양방향적 관계였다.

▮ 주제어: 물질주의, 행복, 한국아동패널, 종단연구

1. 서론

1. 물질주의의 폐해

물질주의는 다른 가치보다 물질이나 재화를 중시하고 이를 추구하며 획득하려는 전반적인 태도 및 가치관이다(Richins & Dawson, 1992). 물질주의자는 재화를 소유하는 것을 성공의 지표이자 삶의 중심으로 여기거나,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다. 이러한 물질주의는 개인의 행복과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예, Belk, 1984; Christopher, Saliba, Deadmarsh, 2009; Diener & Seligman, 2004; Kasser & Ahuvia, 2002; Sirgy, 1998; Wright & Larsen, 1993). Kasser(2003)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객관적 소득 수준이나 문화, 나이 등에 상관없이 행복 수준과 자존감이 낮고,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며, 애착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또한 중국에서 이루어진 종단연구에 의하면 물질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소속 집단의 문화와 상관없이 행복 수준이 낮았다(Jiang, Song, Ke, Wang, & Liu, 2016). Dittmar,

25)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Bond, Hurst와 Kasser(2014)는 물질주의와 안녕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259개 샘플에서 753개의 효과크기를 분석하여 물질주의 또는 물질주의와 관련된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 행복, 자기에 대한 평가, 건강 행동 및 소비 행동 등의 광범위한 삶의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복 연구의 대가인 Diener와 동료들은 비교적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에 대하여 한국인의 높은 물질주의 수준을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하였다(Diener, Suh, Kim-Prieto, Biswas-Diener, & Tay, 2010).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문헌에서는 행복을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Tov, 2018). 그런데 물질주의는 정서적 안녕과 인지적 안녕을 모두 저하시킨다. 먼저, 물질주의적 개인은 정서적 안녕감이 낮다(Christopher & Schlenker, 2004; Richins, McKeage, & Najjar, 1992). 물질주의 수준이 높으면 긍정 정서는 적게, 부정 정서는 더 많이 경험하며, 불안과 우울 등의 증상 또한 더 많이 나타난다(Kasser & Ryan, 1993). 다음으로, 물질주의는 인지적 안녕감, 즉 삶 전반 및 구체적 영역에 대한 만족을 모두 저해한다(Roberts & Clement, 2007). 물질 획득을 최우선시 하는 사람들은 삶의 기준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 삶의 조건이 동일한 두 사람 중 물질주의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삶에 한 만족감을 낮게 느낀다(Sirgy, 1998).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한 Ryan과 Dziurawiec(2001)의 연구에서 물질주의자는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뿐 아니라 가정생활이나 삶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삶의 영역별 만족도 또한 낮았다.

물질주의는 행복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Kasser, 2016). 물질주의는 관계적 가치를 포함한 다른 가치보다 물질 획득을 지속적으로 우선시 하므로 물질주의가 사회적 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Kasser와 Ryan(2001)은 물질적 성공이라는 외재적 보상을 목표로 갖는 사람들은 친구 및 연인과의 관계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고했다. 또한 여러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덜 협조적이고 더 경쟁적이며(Sheldon, Sheldon, & Osbaldiston, 2000), 사회불안을 더 많이 경험한다(Schroeder & Dugal, 1995).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와 외로움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적 관계라는 점이 중단연구 및 실험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김가영, 임남연, 서은국, 2016; Pieters, 2013).

이처럼 물질주의가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Vohs와 동료들은 돈이 일으키는 심리적 변화를 제시했다(Vohs, Mead, & Goode, 2006; Vohs et al., 2008). 연구자들은 실험적 접화를 통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돈에 대한 개념이 활성화 된 참가자들이 도움 행동을 덜 하고, 함께하는 활동보다는 혼자 하는 활동을 선호하며, 타인과의 신체적인 친밀감 또한 덜 추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돈에 대한 생각만

으로도 사회적 상호작용 및 대인관계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질주의의 영향은 비단 일대 일의 대인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사회와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소속감, 책임감 및 다른 구성원들과 갖는 친밀감 등을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라 한다(McMillan & Chavis, 1986).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나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먼저 따뜻하게 대해주는 태도 등이 공동체 의식을 반영한다. 그런데 이러한 친사회적 행위에 대한 헌신과 추구는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배치되므로(Kasser, 2016; Kasser & Ryan, 1993) 물질주의는 공동체 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다. 실제로 물질주의적인 개인은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안녕에 관심이 적을 뿐 아니라(Richins & Dawson, 1992; Sheldon & Kasser, 1995), 더 나아가 자신의 물질적 욕구를 채울 수 있다면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인간 경시 경향을 갖는다(전귀연, 1998). 심지어 물질주의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나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Chowdhury & Fernando, 2012; Cohen & Cohen 1996; Kasser & Ryan 1993). 이와 같은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성 간의 강한 상관관계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반복검증 되어 왔다(Eastman, Fredenberger, Campbell, & Calvert, 1997; Twenge & Campbell, 2010; Twenge et al., 2010).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이 비윤리적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보고되었다(송인숙, 제미경, 2006; Jae & Weagly, 2007).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타인과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Arli & Tjiptono, 2014; Kasser, 2002b),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Sheldon & Kasser, 1995). 신뢰하지 않는 불특정한 상대방의 공감하기 어려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선행을 베풀기는 쉽지 않다.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적인 비용을 사용해야 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재화의 획득이라는 물질주의자의 목표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물질주의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동료 직장인들을 배려하고 돕는 행위인 직장 내 시민 의식 행동을 더 적게 하였다(Deckop, Giacalone, & Jurkiewicz, 2015).

2. 아동의 물질주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물질주의 가치관의 폐해에 관한 방대한 연구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Chaplin & John, 2005).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 중심적인 문화가 꾸준히 팽배해짐에 따라 점차 아동과 청소년의 물질주의도 점차 연구되고 있다. 예

를 들어 미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물질주의 수준이 1970년대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현대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Pryor, Hurtado, Saenz, Santos, & Korn, 2007; Twenge & Campbell, 2010; Twenge et al., 2010).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 및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물질주의 수준이 높을 경우 행복과 사회적 적응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먼저 행복 측면에서, 물질주의적인 10세 아동들은 개인적인 안녕감이 저하된다(Kasser, 2005). 특히 재화의 소유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행복추구적 물질주의’를 가진 아동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Piko, 2006). 또한 물질주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서 모두 자존감과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Chaplin & John, 2005, 2007). 물질주의적인 청소년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함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가정 내에서 가족 관계의 문제를 겪을 때에 청소년의 물질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경험한다(Roberts, Tanner, & Manolis, 2005).

아동과 청소년의 물질주의는 사회적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물질주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또래들에 비해 더 반사회적으로 행동한다(Cohen & Cohen 1996; Kasser & Ryan, 1993). 또한 물질 획득을 추구하는 청소년은 지역사회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교류하려는 공동체의식을 덜 드러냈다(Froh et al., 2010). 한국에서도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지위에 맞지 않는 일탈 행위, 약물 흡입이나 돈을 훔치는 행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학교 규범을 위반하고 학교생활에 태만한 행위 등 전반적인 비행을 더 많이 저질렀다(전귀연, 1998).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물질주의는 전반적인 친사회적 가치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아동일수록 환경, 공동체, 인권 등을 생각하며 소비활동을 하는 행위인 윤리적 소비 행위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복미정, 서정희, 2018).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가지는 폐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물질주의와 전반적 행복 및 사회관계적 측면의 부정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불과하며, 종단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이후의 아동의 행복과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3. 아동의 물질주의 선행요인(antecedents)

가정 내에서의 사회화 과정은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ilby,

1993; Larsen, Sirgy, & Wright, 1999). 아동은 부모의 행동을 모델삼아 관찰하고 학습하며, 부모의 가치관을 모방하고 동일시하여 자신의 가치관으로 내면화시킨다(Whitbeck & Gecas, 1988). 따라서 부모가 돈을 대하는 태도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Kasser, 2005). 즉, 물질의 소유가 성공이자 행복의 길이라 믿는 부모의 자녀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물질주의적인 아동들은 부모 또한 물질과 소유를 다른 가치보다 중요시하는 태도를 지닌다(Goldbert et al., 2003). 10대 후반 청소년들 중, 물질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자식이 특히 물질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어머니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았다(Kasser, Ryan, Zax, & Sameroff, 1995). 다른 예로,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나 성취에 대한 보상으로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는 등의 행위인 물질적 양육방식도 자녀의 물질주의 성향을 높인다(Richins & Chaplin, 2015). 즉, 부모가 물질적 양육방식을 사용하면 자녀는 물질에 점차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물질주의적인 성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에서 실시된 연구들도 부모와 자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관계를 추측케 한다. 백지숙, 박선영(2004)은 어머니의 물질주의가 고등학생 딸의 물질주의와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물질주의가 어머니에게서 딸로 대물림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가치관이 고등학생 자녀의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알아보지 않았다. 또한 손순과 신현실(2002)은 부모의 물질주의와 경쟁적 성취압력 수준이 대학생 자녀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부모의 가치관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대학생 자녀의 '지각된 부모 가치관'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물질주의를 직접 측정하여 부모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아동의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의 물질주의적 가치관 외에도 아동의 물질주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불안정이다. Inglehart(1990)는 아동 청소년기에 경험한 경제적 불안정이 성인기의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아동기에 경제적 결핍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물질주의적인 성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Manchiraju & Son, 2014).

그러나 절대적인 빈곤이나 극단적인 경제적 결핍을 겪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동이 경제적 불안정을 느끼는 데에는 가정의 객관적 소득 수준 보다는 가정 내 분위기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아직 경제적인 관념이 확립되거나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아동기에는 객관적 가정 소득 수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가 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인식하여 경제적 결핍감이

나 불안정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느낄 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의 과정에서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게 된다(Chang & Arkin, 2002). 따라서 객관적 가정 경제수준의 효과보다는 부모가 가정 내에서 돈 문제에 대한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고, 아동이 이를 얼마나 지각하는지가 아동의 물질주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삶의 기준을 높게 설정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의 삶의 조건, 예를 들면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느끼고 덜 만족스럽게 여기게 된다(Sirgy, 1998). 따라서 부모가 돈 걱정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이 이로 인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면, 다시 이러한 물질주의의 결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지각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단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4. 연구문제

정리하면,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를 통해 초등학생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행복과 사회 관계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또한 만 10세 아동이 물질주의를 가지게 된 데에 부모의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돈 문제에 대한 걱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볼 것이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질수록 사람들은 따뜻한 사회적 관계를 덜 중요시 하므로 (Richins & Dawson, 1992), 물질주의 가치관에 대비하여 관계중심적 가치관, 즉 공동체적 감정, 유친(affiliation), 가족 등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함께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도 물질주의 가치관과 관계중심 가치관의 효과를 대비하여 두 가치관이 아동의 행복과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물질주의는 관계중심 가치관과 대비하여 이후 아동의 행복 및 사회 관계적 적응을 저하시키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물질주의는 부모가 자녀의 물질적 성공에 대하여 갖는 기대는 아동의 물질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돈 문제에 대하여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형성하며, 물질주의적 아동이 가정의 경제 수준을 불안정하다고 지각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연구는 2008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 2150명을 대상으로 층화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2008년부터 매년 아동과 부모, 보육 및 교육 담당자 등의 응답을 수집하는 포괄적인 패널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9차(2016년)부터 11차 년도(2018년)의 아동 응답 자료를, 1차부터 4차와 6차 년도(2008~2011년, 2013년)의 부모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의 한 일반적 정보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포함된 자료들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연구에 사용된 척도들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동과 부모의 물질주의 및 관계중심 가치

다른 가치보다 물질적인 성공을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중요한 측면이다(Richins & Dawson,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혹은 아동)가 자녀(혹은 자신)의 장래에 물질적 성공을 기대하는 경향을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선행 연구들에서도 타당하게 사용되고 검증된 바 있다(예, Kasser et al., 1995).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9차 년도 (2016년)	10차 년도 (2017년)	11차 년도 (2018년)	
아동	대상 인원	1496명(100%)	1480명(100%)	1428명(100%)	
	성별	남	769명(51.4%)	752명(50.8%)	727명(50.9%)
		여	727명(48.6%)	728명(49.2%)	701명(49.1%)
	학년	초2(만 8세)	초3(만 9세)	초4(만 10세)	
구분	내용	11차 년도 (2018년)			
어머니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76		
		전문대학교 졸업	407		
		대학교 졸업	535		
		대학원 졸업	90		
	만 연령	$M = 41.07$ 세 ($SD = 3.60$)			

아버지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85
		전문대학교 졸업	292
		대학교 졸업	579
		대학원 졸업	161
만 연령		$M = 43.51$ 세 ($SD = 3.91$)	
월 평균 가구 소득		$M = 565.25$ 만원 ($SD = 525.43$)	

먼저 부모의 물질주의 및 관계중심 가치관 측정을 위해 1차부터 4차, 그리고 6차 년도에 측정된 자녀의 미래 기대(Expectations for a child's future) 척도(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2007)에 대한 부모 응답을 이용하였다. 자녀의 장래에 대하여 부모로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묻고, 여섯 가지 서로 다른 가치관을 반영하는 문항에 대하여 각각 4점 평가 척도(1 = 전혀 개의치 않는다, 4 = 매우 원한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 중, 금전적 성공을 원하는 “우리 아이는 장래에 돈을 잘 번다”에 대한 응답 점수를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는 장래에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에 대한 응답 점수를 관계중심 가치관으로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아동의 물질주의 및 관계중심 가치관은 9차부터 11차 년도까지 측정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에게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묻고 여섯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지는 부모에게 제시된 자녀의 미래 기대 척도의 여섯 문항과 동일한 항목이다. 아동의 응답은 평정이 아닌 강제 선택(forced choice) 방식이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선택을 한 것은 다른 측면보다 물질적 성공에 대한 기대를 중요시 하고 우선시 한다는 의미이므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한다(Kasser & Ryan, 1993). 따라서 장래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응답한 아동은 1, 나머지 다섯 가지 선택지 중에서 택한 아동은 0으로 더미코딩한 변수를 “아동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정의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여섯 가지 선택지 중 장래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응답한 아동은 1로, 나머지를 0으로 더미코딩하여, 이 변수를 “아동 관계중심 가치관”으로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나. 아동의 행복 및 정신건강

아동의 행복과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11차 년도 아동 응답 자료의 전반적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 그리고 스트레스 문항을 이용했다. 먼저 전반적 행복감 척도(MCS, 2008)는 아동의 일상에서 중요한 여섯 가지 영역(학교 공부, 외모, 가족, 친구, 다니고 있는 학교 및 하루하루)에 대해 생각할 때 각각 얼마나 행복한지 묻고 4점 평가척도(1 = 전혀 행복하지 않다, 4 = 매우 행복하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긍정 정서를 빈번하게 경험하고, 부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지 않으며, 삶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고 인지하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Diener, 1984). 따라서 긍정 정서의 경험, 부정 정서의 부재와 행복에 대한 인지의 세 측면을 측정하여 주관적 안녕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Tov, 2018). 이를 위해 11차 년도 아동용 질문지의 “사는게 즐겁니?”와 “걱정거리가 별로 없니?” 문항에 대한 Likert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 응답을 각각 긍정 정서의 경험과 부정 정서의 부재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문항을 응답을 삶 전반의 행복 인지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아동들은 학교 성적, 숙제와 시험, 공부가 지겨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각각 5점 평가척도(1 = 그런적 없다, 5 = 항상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다. 아동의 사회적 관계

11차 년도 아동 응답 자료 중, 사회적 관계의 양적 측면은 친구의 수를 측정하여 알아보았다. 아동이 스스로 친하게 지내는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의 수를 보고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관계의 질적 측면은 또래애착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이 개발한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일부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또래애착은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3개 하위 영역을 각각 3문항에 대해 Likert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내적 일치도는 .419에서 .713 사이였고, 각 하위 영역 평균을 각 변수의 점수로 사용하였다.

라. 아동의 공동체의식

아동의 공동체의식은 11차 년도에 측정된 공동체의식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교육종단연구 2014년의 2번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것으로, 문항의 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니?”,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니?” 등이다. 총 6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 아동의 경제적 불안정 지각

가족이 돈 문제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한다는 아동의 지각을 통해 아동의 경제적 불안정 지각 정도를 알아보았다. “가족들은 돈 문제로 얼마나 자주 걱정을 하니?”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동들이 4점 척도(1 = 전혀 걱정하지 않음, 4 = 항상 걱정함)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가정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았다.

3. 분석 방법

SPSS 21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과 주요 변수의 일반적 특성 및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동의 물질주의 및 관계중심 가치관이 이후 행복, 사회적 관계, 공동체적 의식과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변량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아동의 성별, 부모 학력, 가정 경제수준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11차년도 아동 물질주의 가치관을 종속변수로 하고 부모의 가치관 또는 가족의 돈 문제 걱정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독립변수에 포함시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물질주의 및 행복추구 가치관

〈표 2〉 물질주의 및 관계중심 가치관을 보고한 아동의 빈도와 비율

	2016년 (9차 년도)	2017년 (10차 년도)	2018년 (11차 년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응답한 아동(물질주의)	287명(19.2%)	216명(14.6%)	230명(16.1%)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응답한 아동(관계중심)	279명(18.6%)	446명(30.1%)	451명(31.6%)
총 유효빈도(%)	1496명(100%)	1480명(100%)	1428명(100%)

먼저 9~11차 년도에 물질주의 가치관을 형성한 아동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표 2〉와 같이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진 아동은 전체의 14.6%에서 19.2% 사이였다.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진 아동의 비율은 증가 또는 감소의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관계중심 가치관을 가진 아동은 해당 기간 동안 18.6%에서 31.6%로 점차 많아졌다.

〈표 3〉 아동의 물질주의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물질주의 가치관 빈도	χ^2	df	N	
2016년(9차 년도)	남	186명(12.4%)	25.545***	1	1496
	여	101명(6.8%)			
2017년(10차 년도)	남	134명(9.1%)	12.753***	1	1480
	여	82명(5.5%)			
2018년(11차 년도)	남	148명(10.4%)	19.808***	1	1428
	여	82명(5.7%)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진 아동의 비율에 성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물질주의 가치관의 성차가 유의미했다. 3개 년도에서 일관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물질주의 가치관을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동 물질주의 및 관계중심 가치관과 2018년 행복 변수들 간 상관관계

	2018년(11차 년도) 전반적 행복감							
	학교 공부	외모	가족	친구	다니는 학교	하루하루	평균	
2016년(9차 년도) 아동								
물질주의	-.065* (-.072)	-.035 (-.063)	-.101*** (-.109***)	-.038 (-.047)	-.076** (-.077**)	-.068* (-.086**)	-.090*** (-.107***)	
관계중심	.028 (.018)	.034 (.040)	.055* (.058*)	.043 (.035)	.082** (.064)	.045° (.037)	.069* (.059)	
2017년(10차 년도) 아동								
물질주의	-.131*** (-.147***)	-.073** (-.079**)	-.086** (-.099***)	-.075** (-.090**)	-.140*** (-.133***)	-.103*** (-.123***)	-.150*** (-.164***)	
관계중심	.104*** (.098**)	.087** (.103**)	.069** (.077**)	.080** (.071*)	.103*** (.081**)	.068* (.073)	.126*** (.122**)	
2018년(11차 년도) 아동								
물질주의	-.176*** (-.179**)	-.077** (-.069*)	-.085** (-.077**)	-.078** (-.091**)	-.150*** (-.131**)	-.123*** (-.118**)	-.171*** (-.164**)	
관계중심	.069** (.065*)	.042 (.046°)	.084** (.082*)	.068* (.059)	.079** (.058)	.079** (.075**)	.101*** (.091**)	
평균	2.860	3.100	3.750	3.550	3.270	3.310	3.307	
표준편차	0.754	0.717	0.495	0.627	0.752	0.678	0.462	
	2018년(11차 년도) 주관적 안녕감				2018년(11차 년도) 스트레스			
	즐거움	걱정 없음	행복 인지	평균	학교 성적	숙제와 시험	공부의 지겨움	평균
2016년(9차 년도) 아동								
물질주의	-.069* (-.095*)	.027 (-.001)	-.059* (-.076**)	-.033 (-.068)	.075** (.066)	.062* (.082**)	.066* (.074)	.080** (.088**)
관계중심	.032 (.025)	.018 (.014)	.048° (.040)	.037 (.031)	-.073** (-.074*)	-.074** (-.077**)	-.077** (-.076**)	-.089** (-.090**)
2017년(10차 년도) 아동								
물질주의	-.101*** (-.112)	-.032 (-.040)	-.070** (-.073*)	-.078** (-.087**)	.029 (.025)	.056* (.061)	.075** (.076**)	.065* (.066*)
관계중심	.073** (.073)	.046° (.044)	.066* (.065)	.073** (.072)	-.045° (-.040)	-.060* (-.072)	-.060* (-.057)	-.066* (-.068)
2018년(11차 년도) 아동								
물질주의	-.102*** (-.105**)	-.079** (-.092**)	-.115*** (-.109**)	-.118*** (-.123**)	.078** (.070)	.128*** (.134**)	.173*** (.169**)	.152*** (.151**)
관계중심	.068** (.055°)	.031 (.034)	.054* (.050°)	.060* (.055°)	-.065* (-.055°)	-.071** (-.066*)	-.062* (-.055°)	-.079** (-.070*)
평균	3.670	3.180	3.700	3.518	1.790	2.190	2.150	2.044
표준편차	0.539	0.735	0.531	0.492	0.939	1.076	1.079	0.86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괄호 안은 2018년 가정 월평균 소득, 아동 성별, 부모 최종학력을 통제한 편상관계수

2. 아동의 물질주의 및 관계중심 가치관과 행복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측정한 아동의 물질주의 및 관계중심 가치관은 2018년에 측정한 아동의 행복 변수들과 일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2018년 전반적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과 일관적인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관계중심 가치관은 일관적인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2~4학년 때 물질주의적인 아동은 4학년에 전반적으로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는 많이 경험했다. 또한 물질주의와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아동의 성별, 2018년 가정 월 평균 소득, 부모의 최종 학력(전귀연, 1998)을 통제해도 결과도 여전히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5> 아동 물질주의 및 관계중심 가치관과 2018년 아동의 사회관계적 측면 간 상관관계

	남자 친구 수	여자 친구 수	총 친구 수	또래애착: 의사소통	또래애착: 신뢰	또래애착: 소외
2016년(9차년도) 아동						
물질주의	.024 (-.021)	-.070* (-.015)	-.023 (-.020)	-.080** (-.086**)	-.089** (-.087**)	.083** (.103**)
관계중심	-.020 (.010)	.052 (.030)	.016 (.022)	.041 (.035)	.032 (.026)	-.042 (-.057)
2017년(10차년도) 아동						
물질주의	.006 (-.020)	-.078** (-.038)	-.039 (-.032)	-.050° (-.030)	-.098*** (-.100**)	.059* (.065)
관계중심	.018 (.049°)	.091*** (.064*)	.062* (.063*)	.047° .028	.076** (.066*)	-.067* (-.086**)
2018년(11차년도) 아동						
물질주의	.002 (-.032)	-.107*** (-.062*)	-.058* (-.052°)	-.082** (-.068*)	-.110*** (-.115**)	.055* (.065)
관계중심	-.060* (-.023)	.054* (.014)	-.010 (-.007)	.035 (.015)	.071** (.053°)	-.010 (-.016)
평균	9.670	8.060	17.730	3.110	3.220	1.900
표준편차	11.394	9.628	17.249	0.565	0.608	0.594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괄호 안은 2018년 월평균 가정 소득, 아동 성별, 부모 최종학력을 통제한 편상관계수

다음으로 2018년 아동의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이 물질주의 및 관계중심 가치관과 가지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이변량 상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아동 물질주의는 2018년 아동의 사회관계적 측면과 대체로 부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3개 년도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일관적으로 여자 친구의 수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관련 변수를 통제한 편상관분석에서는 2018년의 물질주의를 제외하고 더 이상 유의

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물질주의 수준은 남자 친구의 수와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표 6〉 아동 물질주의 및 관계중심 가치관과 2018년 아동의 공동체의식 변수들 간 상관관계

	문제 해결	시민의 노력	타인 배려	도움 행동	따뜻한 대우	양보	평균
2016년(9차 년도) 아동							
물질주의	-0.079** (-0.087**)	-0.090*** (-0.087**)	-0.058* (-0.045)	-0.094*** (-0.092**)	-0.099*** (-0.098**)	-0.042 (-0.056°)	-0.105*** (-0.105**)
관계중심	-0.014 (.002)	.031 (.019)	.040 (.044)	.009 (.014)	.022 (.007)	-0.037 (-0.024)	.010 (.012)
2017년(10차 년도) 아동							
물질주의	-0.056* (-0.044)	-0.049° (-0.052°)	-0.060* (-0.072*)	-0.048° (-0.062*)	-0.056* (-0.050°)	-0.019 (-0.037)	-0.065* (-0.070*)
관계중심	.019 (.014)	.036 (.024)	-0.011 (-0.011)	-0.003 (-0.006)	.049° (.033)	-0.007 (.010)	.020 (.015)
2018년(11차 년도) 아동							
물질주의	-0.146*** (-0.145**)	-0.107*** (-0.120**)	-0.050° (-0.045)	-0.073** (-0.070*)	-0.079** (-0.072*)	-0.046° (-0.053°)	-0.115*** (-0.111**)
관계중심	.046° (.034)	.045° (.034)	.003 (-0.015)	-0.016 (-0.032)	-0.009 (-0.038)	-0.002 (.001)	.016 (-0.003)
평균	3.730	4.080	3.670	3.900	3.860	3.900	3.856
표준편차	0.923	0.872	0.769	0.829	0.899	0.900	0.634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괄호 안은 2018년 월평균 가정 소득, 아동 성별, 부모 최종학력을 통제한 편상관계수

문제 해결(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시민의 노력(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함), 타인 배려(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함), 도움 행동(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줌), 따뜻한 대우(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먼저 따뜻하게 대해줌), 양보(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에 타면 자리를 양보함)

관계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인 또래애착이 물질주의 가치관과 뚜렷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9차부터 11차 년도 아동 물질주의 가치관은 11차 년도 또래애착의 의사소통 및 신뢰와는 부적 상관을, 소외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성별, 부모 학력과 가정 소득 수준을 통제해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초2~초4 때 물질주의적인 아동은 초4 때에 또래들과 의사소통을 잘 못 하고, 친구들을 신뢰하지 않으며 소외감은 더 느꼈다. 한편 관계중심 가치관은 또래애착과 물질주의만큼 전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관계중심 가치관과 또래 애착 간에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8년 아동의 공동체의식과 물질주의 및 관계중심 가치관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표 6〉 참고). 9차~11차 년도 아동 물질주의는 전반적으로 아동의 공동체의식과 부적 상관의 양상을 보였다. 반면 관계중심 가치관은 공동체의식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관련 변수들을 통제해도 여전히 물질주의와 공동체의식 간의 부적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3. 아동의 물질주의 가치관의 예측요인

다음으로 연구문제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의 물질주의가 부모의 물질주의 및 가정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지각에 의해 예측되는지 검토해 보았다.

가. 자녀의 장래에 대한 부모의 기대: 물질주의 vs. 행복추구 가치관

아동이 만 1~4세, 그리고 6세 때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경제적 성공을 기대하는 정도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기대하는 정도, 즉 물질주의와 관계중심 가치관이 만 10세 아동 물질주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18년 아동 물질주의 가치관을 종속변수로, 한 해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물질주의 및 관계중심 가치관을 독립변수로 동시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가치관 변수는 1차~4차 년도 및 6차 년도, 총 5회 측정하였으므로 예측 변수의 측정 연도만 바꾸어 동일한 분석을 총 5회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5개년도 중, 아동이 만 1, 2, 5세일 때 측정한 부모의 가치관이 만 10세 아동 물질주의를 유의미 또는 경계수준에서 예측했고, 만 0세와 3세 때 부모가 가진 가치관은 10세 아동 물질주의 가치관을 예측하는 유의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부모의 가치관이 아동의 물질주의를 유의미 또는 경계 수준으로 예측한 3개년도의 분석 결과는 일관적으로 아버지의 가치관만이 10세 아동 물질주의 가치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어머니의 가치관은 영향이 없었다(〈표 7〉 참고). 모든 경우에서 아동 물질주의에 대해 아버지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정적 영향을, 관계중심 가치관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이 장래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자녀는 5년~9년 후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7〉 2018년 아동 물질주의에 대한 부모 가치관(물질주의 및 관계중심)의 효과

		<i>B</i>	<i>SE</i>	β	<i>t</i>
2009년(2차 년도) 부모 응답					
어머니	돈을 많이 버는 사람	0.019	0.019	.030	1.039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	0.042	0.029	.041	1.432
아버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0.037	0.017	.063	2.153*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	-0.073	0.026	-.078	-2.776**
$R^2 = .012, F(4,1288) = 3.903, p < .01$					
2010년(3차 년도) 부모 응답					
어머니	돈을 많이 버는 사람	0.012	0.019	.018	0.621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	-0.036	0.030	-.033	-1.168
아버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0.039	0.017	.066	2.274*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	-0.015	0.025	-.017	-0.601
$R^2 = .006, F(4,1283) = 2.026, p < .10$					
2013년(6차 년도) 부모 응답					
어머니	돈을 많이 버는 사람	0.012	0.019	.018	0.614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	0.015	0.028	.015	0.527
아버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0.036	0.017	.062	2.108*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	-0.088	0.027	-.095	-3.290***
$R^2 = .011, F(4,1292) = 3.676, p < .01$					

* $p < .05$, ** $p < .01$, *** $p < .001$

나. 경제적 불안정 경험: 가족들의 돈에 대한 걱정 지각

아동의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인 아동의 경제적 불안정 지각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수인 11차 년도 아동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객관적 가정 소득과, 10차 년도 아동 물질주의 가치관을 통제해도 여전히 10차 년도 아동의 경제적 불안정 지각이 11차 년도 아동 물질주의를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종속변수로 11차 년도 아동 물질주의를 투입하고, 1단계에서 통제를 위해 11차 년도 객관적 가정 소득 수준을 입력하였다. 2단계에서 10차 년도 아동 물질주의 가치관을 입력하고, 3단계에서 10차 년도 아동의 경제적 불안정 지각을 입력하였다.

분석 결과, 〈표 8〉과 같이 모형은 2018년 아동의 물질주의를 7.6% 설명했다, $R^2 = .076, F(3,1244) = 33.921, p < .001$. 1단계에서 객관적 가정 소득은 아동의 물질주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B = .000, SE = .000, CI_{95} = [.000, .000]$. 2단계에서 2017년 아동 물질주의를 투입했을 때 2018년 아동 물질주의는 7.2% 추가로 설명되었

다, $B = .278$, $SE = .028$, $p < .001$, $CI_{95} = [.222, .333]$. 3단계에서 2017년 아동의 경제적 불안정 지각을 추가했을 때 종속변수 변량의 0.4%가 추가로 설명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였다, $B = .029$, $SE = .013$, $p < .05$, $CI_{95} = [.004, .055]$. 즉, 가정의 객관적 소득 수준은 2018년 아동 물질주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2017년 아동 물질주의는 물론 1년 뒤 자신의 물질주의를 강하게 예측하였으나, 이를 통제하고도 여전히 가족들이 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고 지각했던 아동일수록 1년 후에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2017년(10차년도) 아동의 가정 경제적 불안정 지각이 2018년(11차년도) 아동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

예측 변인	B	SE	β	
1단계				
11차 가정 소득	0.000	0.000	.002	$R^2 = .000$, $\Delta R^2 = .000$, ns
2단계				
11차 가정 소득	0.000	0.000	.009	$R^2 = .072$, $\Delta R^2 = .072^{***}$
10차 아동 물질주의	0.278	0.028	.268 ^{***}	
3단계				
11차 가정 소득	0.000	0.000	.011	$R^2 = .076$, $\Delta R^2 = .004^*$
10차 아동 물질주의	0.275	0.028	.266 ^{***}	
10차 아동 경제적 불안정 지각	0.029	0.013	.062 [*]	

종속 변인: 2018년(11차년도) 아동의 물질주의

* $p < .05$, ** $p < .01$, *** $p < .001$

이처럼 가정의 실제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가족들이 돈 걱정을 많이 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 지각한 아동이 이후 물질주의 가치관을 더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진 아동은 물질적 삶의 조건에 대한 기준이 점차 높아지므로 자신의 삶의 물질적 조건에 대하여 점차 불만족하게 된다(Sirgy, 1998). 따라서 ‘가족의 돈 걱정 지각 → 물질주의’와 반대 방향의 선후관계, 즉 ‘물질주의 → 가족의 돈 걱정 지각’ 또한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즉, 아동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다시 이후의 아동의 경제적 불안정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부모의 돈에 대한 걱정이 아동의 물질주의를 형성케 하고, 이렇게 형성된 아동의 물질주의가 다시 아동에게 가정의 경제가 불안정하다고 지각하도록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 2017년 아동 물질주의가 2018년 아동의 경제적 불안정 지각을 예측하는지 알아보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이 종속변수인 2018년 아동의 경제적 불안정 지각을 5.7% 설

명하였다, $R^2 = .057$, $F(3,1244) = 24.878$, $p < .001$. 1단계에서 2018년 객관적 가정 소득은 아동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지각하는지를 예측하지 못했다, $B = -.000$, $SE = .000$, $CI_{95} = [.000, .000]$. 통제를 위해 2단계에서 투입한 2017년 아동의 경제적 불안정 지각을 추가했을 때 종속변수의 4.6%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B = .199$, $SE = .026$, $p < .001$, $CI_{95} = [.148, .249]$.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주요 요인인 2017년 아동 물질주의를 추가했을 때 0.8%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B = .185$, $SE = .055$, $p < .001$, $CI_{95} = [.077, .294]$.

〈표 9〉 2017년(10차 년도) 아동 물질주의 가치관이 2018년(11차 년도) 아동의 경제적 불안정 지각에 미치는 영향

예측 변인	<i>B</i>	<i>SE</i>	<i>β</i>	
1단계				
11차 가정 소득	-0.000	0.000	-.046	$R^2 = .002$, $\Delta R^2 = .002$, <i>ns</i>
2단계				
11차 가정 소득	-0.000	0.000	-.037	$R^2 = .048$, $\Delta R^2 = .046^{***}$
10차 아동 경제적 불안정 지각	0.199	0.026	.215 ^{***}	
3단계				
11차 가정 소득	-0.000	0.000	-.035	$R^2 = .057$, $\Delta R^2 = .008^{***}$
10차 아동 경제적 불안정 지각	0.195	0.026	.211 ^{***}	
10차 아동 물질주의	0.185	0.055	.092 ^{***}	

종속 변인: 2018년(11차 년도) 아동의 경제적 불안정 지각

* $p < .05$, ** $p < .01$, *** $p < .001$

즉, 앞선 분석에서 객관적 가정 소득이 아동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경제적 불안정 지각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종속변수를 측정할 때 2018년보다 한 해 전에 가족들이 돈 걱정을 많이 한다고 지각했던 아동은 1년 뒤에도 동일하게 가족들이 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이 효과를 통제하고서도 여전히 2017년에 물질주의적이었던 아동은 1년 후에 가정 경제가 더 불안정하다고 지각하였다. 다시 말해, 객관적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부모의 돈 걱정으로 인해 가정 경제가 불안정하다 지각한 아동은 물질주의 가치관을 갖게 되고,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진 아동은 경제적인 불안정을 더 심하게 지각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물질주의 가치관을 형성한 아동의 빈도 및

성차를 알아보았다. 또한 아동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가지는 심리적, 사회적 결과와 아동의 물질주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래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응답한, 즉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진 아동은 만 8세 때 전체의 19.2%로, 관계중심 가치관을 형성한 아동인 18.6%보다 많았다. 그러나 9세와 10세에 물질주의 가치관을 보인 아동의 비율을 줄여든 반면, 관계중심적 가치관을 보고한 아동의 비율은 늘어, 물질주의가 관계중심 가치관의 약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더라도 성장하면서 가치관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17, 2018년에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진 아동이 선택지의 6가지 장래 희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확률적 비율인 16.7%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한국 아동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현주소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고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를 발견하였다.

주목할 점 중 한 가지는 아동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성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3개 년도에서 일관적으로 물질주의적인 남아가 여아의 2배에 근접하는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남성의 물질주의 수준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예, Ryan & Dziurawiec, 2001). 또한 진화심리적 관점에서도 물질적 자원을 증시하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적응적이다(Miller, 1998).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물질주의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본 연구에서는 만 8세에서부터 이러한 성차의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만 8~10세의 물질주의 가치관의 결과로 10세 때 전반적 행복감과 주관적 안녕감이 일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학교 관련 스트레스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관계중심적인 가치관을 보고했던 아동들은 그 반대였다. 특히 물질주의적인 아동들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낮은 행복감과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물질주의 수준이 높은 직장인이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낮은 안녕감을 보고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Deckop, Jurkiewicz, & Giacalone, 2010). 즉, 물질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진 아동은 이로 인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행복 수준 저하라는 비용을 치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도 물질주의에 부적 영향을 받았으나, '걱정 없음', 즉 부정 정서의 부재는 물질주의 가치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적일수록 부정적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긍정 정서는 적게, 부정 정서는 많이 경험한다는 기존 연구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Christopher & Schlenker, 2004).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부정 정서의 부재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문항이 일반적으로 부정 정서 측정 시 묻는 분노나 슬픔, 두려움, 분노 등(Diener et al., 2009)과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질주의가 이후의 행복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행복한 청소년이 이후 돈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된다는 한국에서 실시된 종단연구(신지은 등, 2013)와 반대 방향의 선후관계도 성립됨을 보여준다. 즉, 관계보다 돈을 더 중요시 하는 아동들이 이후 덜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함께 고려해보면 불행한 아이들이 관계보다 돈을 중요시 하게 되고, 이처럼 관계보다 돈을 우선시 하는 아이들이 다시 더 불행해지는 행복과 물질주의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다.

아동의 물질주의는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만8~10세에 물질 획득을 중시하는 아동은 10세 때 친구, 특히 여자 친구가 적었다. 그러나 이는 아동의 성별을 포함한 몇몇 변인을 통제하자 그 효과가 대부분 사라져, 물질주의가 친구의 수 측면에서는 미미한 영향만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4학년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응답한 아동들이 4학년 때 또래 친구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친구들을 잘 신뢰하지 못하며, 소외감을 뚜렷이 더 많이 느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물질주의와 사회적 관계의 부정적 상관에 대하여 다른 기존의 연구들도 관계의 양보다는 관계 만족이나 외로움 등, 관계의 질적 측면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예, Kasser & Ryan, 2001).

연구문제 2에 관하여, 부모의 물질주의와 관계중심 가치관이 2018년 아동의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유의미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치관은 아동의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아버지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아동 물질주의에 대해 정적 영향을, 아버지의 관계중심 가치관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물질적 성공을 바라는 어머니가 자녀를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다는 선행 연구(Kasser et al., 1995)를 부분적으로 재검증한다. 더 나아가 Kasser 등(199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후기 자녀의 물질주의에 대한 어머니 가치관의 영향만을 알아본 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더 어린 나이인 10대 초반 아동의 물질주의에 대한 부모 모두의 가치관의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중, 특히 자녀가 만 1세일 때인 2차 년도에 측정한 아버지의 가치관이 9년 후, 만 10세가 된 아동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예측한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가치관만이 아동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부모 중,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어 자녀의 가치관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사람은 어머니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예, 백지숙, 박선영, 2004). 그런데 기존에 알려진 바와 반대로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가치관이 자녀의 물질주의 가치관 형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 점은 이례적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이 현상이 반복 검증 되는지 확인하고 그 원인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Kasser, 2002a; Stewart & Healy, 1989)과 달리 가정의 객관적인 소득 수준은 아동 물질주의와 상관이 없었다. 객관적 경제적 지위보다는 돈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의 행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진 아동은 이후에 가정의 경제를 더 불안정하다고 지각하는 악순환적인 관계도 발견하였다. 이는 부모가 아동이 듣는 곳에서 돈에 대한 걱정을 하는 등의 단순한 행위도 자녀의 물질주의 가치관 형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증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학령 초기 아동의 물질주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에 대하여 종단적으로 알아보고, 아동이 물질주의를 가지는 데에 객관적 경제 수준보다는 부모의 돈에 대한 가치관 및 행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대규모 표본을 통해 아동의 물질주의 가치관의 현주소에 대하여 알아보고, 물질주의가 아동의 행복을 저해하고 사회적 적응을 해칠 수 있음에 대하여 종단적으로 알아본 첫 연구이다. 성인뿐 아니라 아동들에게서도 물질주의의 폐해는 명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물질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들이 추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 김가영·임남연·서은국(2016). 외로움과 돈에 대한 왜곡된 믿음: 행복추구 수단으로써의 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1), 1-21.
- 백지숙·박선영(2004). 어머니의 물질주의 가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7), 119-129.
- 복미정·서정희(2018). 아동소비자의 자기조절능력, 물질주의 및 이타주의가 윤리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3(4), 167-173.
- 송인숙·제미경(2006). 기혼 여성의 물질주의 성향과 비윤리적 상거래행동. *소비문화연구*, 9(3), 185-206.
- 신지은·최혜원·서은국·구재선(2013). 행복한 청소년은 좋은 시민이 되는가? 긍정 정서와 친사회적 가치관 및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3), 1-21.
- 전귀연(1998). 가족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87-101.
- Arli, D., & Tjiptono, F. (2014). The end of religion? Examining the role of religiousness, materialism, and long-term orientation on consumer ethics in

- Indonesia.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3(3), 385-400.
- Armsden, G C., & Greeh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elk, R. W. (1984). Three scales to measures constructs related to materialism: Reliability, validity, and relationships to other measures of happiness. In T. Kinnear (Ed.),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11, pp. 291-297). Provo, UT: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 Busseri, M. A., & Sadava, S. W. (2011). A review of the tripartite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Implications for conceptualization, operationalization, analysis, and syn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5(3), 290-314.
- Chang, L. C., & Arkin, R. M. (2002). Materialism as an attempt to cope with uncertainty. *Psychology and Marketing*, 19(5), 389-406.
- Chaplin, L. N., & John, D. R. (2005). Materialis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role of the developing self-concept. in G. Menon, A. R. Rao, & M. N. Duluth (Ed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32, pp. 219-220)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 Chaplin, L. N., & John, D. R. (2007). Growing up in a material world: Age differences in materialis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4, 480-493.
- Chowdhury, R. M. M. I., & Fernando, M. (2012). The role of spiritual well-being and materialism in determining consumers' ethical beliefs: An empirical study with Australian Consumer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3(1), 61-79.
- Christopher, A. N., & Schlenker, B. R. (2004). Materialism and affect: The role of self-presentational concer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2), 260-272.
- Christopher, A. N., Saliba, L., & Deadmarsh, E. J. (2009). Materialism and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 of locus of contro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 682-686.
- Cohen, P., & Cohen, J. (1996). *Life value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Mahwah, NJ: Erlbaum.
- Deckop, J. R., Giacalone, R. A., & Jurkiewicz, C. L. (2015). Materialism and workplace behaviors: Does wanting more results in l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1, 787-803.
- Deckop, J. R., Jurkiewicz, C. L., & Giacalone, R. A. (2010). Effects of materialism on work-related personal well-being. *Human Relations*, 63(7), 1007-1030.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 Seligman, M. E. P. (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5, 1-31.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 1-23.
- Diener, E., Wirtz, D., Biswas-Diener, R., Tov, W., Kim-Prieto, C., Choi, D., & Oishi, S. (2009). New Measures of Well-Being In E. Diener (Ed.), *Assessing Well-Being: The Collected Works of Ed Diener* (pp. 247-266). New York, NY: Springer.
- Dittmar, H., Bond, R., Megan, H.,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 Eastman, J. K., Fredenberger, B., Campbell, D., & Calvert, S.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us consumption and materialism: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Chinese, Mexican, and American Studen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5(1), 52-66.
- Froh, J. J., Kashdan, T. B., Yurkewicz, C., Fan, J., Allen, J., & Glowacki, J. (2010). The benefits of passion and absorption in activities: Engaged living in adolescents and its role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5(4), 311-332.
- Inglehart, R. (1990). Values, ideology, and cognitive mobilization in new social movements. in R. J. Dalton, & M. Kuechler (Eds.)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pp. 23-4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ae, M. K., & Weagley, R. O. (2007). Cross-cultural comparison of undergraduate students from Korea and United States regarding of consumer ethics and related variable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3(2), 83-99.
- Jiang, J., Song, Y., Ke, Y., Wang, R., & Liu, H. (2016). Is disciplinary culture a moderator between materialism and subjective well-being?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4), 1391-1408.
- Kasser, T. (2002a). Sketches for a self-determination theory of values.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123-140).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Kasser, T. (2002b). *The high price of materialism*. Cambridge, NY: MIT Press.
- Kasser, T. (2005). Frugality, generosity, and materialis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 A. Moore & L. H. Lippman (Eds.), *What do children need to flourish?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indicators of positive development* (pp. 357-

- 373). New York, NY: Springer.
- Kasser, T. (2016). Materialistic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7*, 489-514.
- Kasser, T., & Ahuvia, A. (2002). Materialistic values and well-being in business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2*, 137-146.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2), 410-422.
- Kasser, T., & Ryan, R. M. (2001).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Optimal functioning and the relative attainment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In P. Schmuck & K. M. Sheldon (Eds.), *Life goals and well-being: Towards a positive psychology of human striving* (p. 116-131). Goettingen, Germany: Hogrefe & Huber Publishers.
- Kasser, T., Ryan, R. M., Zax, M., & Sameroff, A. J. (1995). The relations of maternal and social environments to late adolescents' materialistic and prosocial values. *Developmental Psychology*, *31*, 907-914.
- Kilby, R. W. (1993). *The study of human values*.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Larsen, V., Sirgy, J. M., & Wright, N. D. (1999). Materialism: The construct, measure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Academy of Marketing Studies Journal*, *3*, 75-107.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anchiraju, S., & Son, J. (2014). Materialistic (and unhappy?) adult now, economically deprived child then: How are felt formative economic deprivation, materialism, and well-being measures related?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5*, 125-127.
- MCS (2008, Jan 21). *Millennium Cohort Study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Center for Longitudinal Studies.
<http://www.cls.ioe.ac.uk/page.aspx?&sitesectionid=957&sitesectiontitle=Surveys+and+documentation>.
- Miller, G. F. (1998). How mate choice shaped human nature: A review of sexual selection and human evolution. In C. Crawford & D. Krebs (Eds.), *Handbook of evolutionary psychology: Ideas, issues, and applications* (pp. 87-130). Lawrence Erlbaum.
-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Survey on children and the family life*.

Saitama, Japan.

- Pieters, R. (2013). Bidirectional dynamics of materialism and loneliness: Not just a vicious cycl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0(4), 615-631.
- Piko, B. F. (2006). Satisfaction with life, psychosocial health and materialism among Hungarian youth. *Journal of Happiness Psychology*, 11(6), 827-831.
- Pryor, J. H., Hurtado, B., Saenz, V. B., Santos, J. L., & Korn, W. S. (2007). *The American Freshman: Forty-Year Trends, 1966-2006*. Los Angeles, CA: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Richins, M. L., & Chaplin, L. N. (2015). Material parenting: How the use of goods in parenting fosters materialism in the next gener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 1333-1357.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303-316.
- Roberts, J. A., & Clement, A. (2007). Materialism and satisfaction with over-all quality of life and eight life domai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 79-92.
- Roberts, J. A., Tanner, J. F., & Manolis, C. (2005). Materialism and the family structure-stress relation.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5(2), 183-190.
- Ryan, L., & Dziurawiec, S. (2001). Materialism and its relationship to life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 185-197.
- Schroeder, J. E., & Dugal, S. S. (1995). Psychological correlates of the materialism construct.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0(1), 243-253.
- Sheldon, K. M., & Kasser, T. (1995). Coherence and congruence: Two aspects of personality integ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31-543.
- Sheldon, K. M., Sheldon, M. S., & Osbaldiston, R. (2000). Prosocial values and group assortment in an N-person prisoner's dilemma. *Human Nature*, 11, 387-404.
- Sirgy, M. J. (1998). Materialism and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3(3), 227-260.
- Stewart, A. J., & Healy, J. M. (1989). Linking individu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s. *American Psychologist*, 44(1), 30-42.
- Tov, W. (2018). Well-being concepts and components. In E. Diener, S. Oishi, & L. Tay (Eds.), *Handbook of well-being*. Salt Lake City, UT: DEF Publishers. DOI:nobascholar.com
- Twenge, J. M., & Campbell, W. K. (2010). Birth cohort differences in the Monitoring the Future dataset and elsewhere: Further evidence for Generation Me. *Perspectives in Psychological Science*, 5(1), 81-88.

- Twenge, J. M., Gentile, B., DeWall, C. N., Ma, D., Lacefield, K., & Schurtz, D. R. (2010). Birth cohort increases in psychopathology among young Americans, 1938-2007: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of the MMPI.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145-154.
- Vohs, K. D., Mead, N. L., & Goode, M. R. (2006).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money. *Science, 314*, 1154-1156.
- Vohs, K. D., Mead, N. L., & Goode, M. R. (2008). Merely activating the concept of money changes personal and interpersonal behavio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3), 208-212.
- Whitbeck, L. B., & Gecas, V. (1988). Value attributions and value transmiss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829-840.
- Wright, N. D., & Larsen, V. (1993). Materialism and life satisfac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Consume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and Complaining Behavior, 6*, 158-165.

• 교신저자: 임남연,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nylim@ks.ac.kr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 materialism: Parental causes and consequences for happiness and social adjustment

Nangyeon Lim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consequences of child materialism on 10-year-old children's happiness and social adjustment, as well as the influence of the parents' values and behaviors on child materialism. More specifically the effect of the materialism of children between 8- to 10-year old on general happiness, subjective well-being, school-related stress experience, number of friends, peer attachment, and sense of community of 10-year old children were examined. Furthermore, the influence of anterior materialism and money-related behaviors of father and mother on posterior child materialism was also tested. Data collected for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ere us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discovered. First,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 materialism and 10-year olds' happiness and social adjustment variables were significant. This was also true even after child sex, family SES, and parents' education level were controlled. Second, the materialism of fathers, but not of mothers when the child was 1-, 2-, and 5-year old influenced child materialism of 10-year-olds. If a father expected his child to become a rich person as an adult, the child became materialistic when reached the age of 10. Third, objective family income did not predict child materialism. Rather children's subjective perception of family financial insecurity depicted from parents' worries about money influenced child materialism one year later. Moreover, child materialism also predicted later child perception of family financial insecurity after controlling for objective family income. was also significant when the direction was inverted. The above findings suggest that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financial insecurity and child materialism can form downward spirals.

• Key words: Materialism, Happines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Longitudinal Study

아동 물질주의에 대한 종단연구: 행복과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부모 요인

상경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만 8세~10세)들에게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학생의 행복과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3개년에 걸쳐 반복 측정된 학생의 가치관, 행복도, 주관적 안녕감, 스트레스, 아동의 가정 경제적 불안정 지각과 같은 변인을 사용해 이들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가치관 유형이나 행복, 사회적 적응과 같은 심리적 구인이나 이론에 대해서 토론자가 이해하는 범위는 제한적이므로, 연구 문제와 관련한 변인의 측정과 분석 모형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점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의 적절성이나 신뢰도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은 대부분 1개~6개 정도로 적은 수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매우 어린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라는 점에서 학생에게 질문할 수 있는 문항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변인의 적절성이나 신뢰도는 연구 결과를 의미 있게 해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연구 변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변인의 적절성 대한 검토와 논의가 더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측정 변인의 적절성이나 신뢰도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를 연구의 제한점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에 사용된 변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크게 다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 스트레스 등 3개~6개 정도의 문항으로 측정되는 심리적 구인들의 경우 측정 변인의 신뢰도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개의 문항만으로 측정하는 아동의 물질주의 가치관, 가정의 경제적 불안정 지각 변인의 경우 측정 변인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변인의 신뢰도 정보를 산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동의 물질주의 가치관 변인은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아동이 여섯 개의 선택지 중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의해 측정됩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는 응답을 선택한 경우 물질주의 가치관을 갖은 것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응답지를 선택한 경우 관계중심 가치관을 갖은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가 과연 적절한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은 사람’,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는 사람’이라는 응답지를 선택한 학생들은 위 두 가지 선택지를 선택한 학생과 현저히 다른 가치 유형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가 등의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연구에서 사용된 가치 유형 구분 변인의 적절성에 대한 논리나 설명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된 아동 가치관의 신뢰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동의 가치 유형은 얼마나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표 2>에 제시된 아동의 가치 유형별 빈도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물질주의 가치관을 보인 학생수와 비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만 8세에서 10세 아동의 가치 유형이 얼마나 견고하고 안정성이 있는지, 안정성이 높지 않다면 물질주의 가치관이 아동의 행복이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통계분석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종단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해 시간에 따른 학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 2>에서 연도별로 물질주의 가치관과 관계중심 가치관을 갖은 학생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3개 년도에 걸친 집단별 비율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만 8세에서 10세까지 3년간 일관되게 물질주의 가치관을 보이는 학생, 가치관에 변화를 보이는 학생 등을 구분해 비율을 제시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표 4>, <표 5>, <표 6>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의 가치 유형과 행복감, 또래 애착, 공동체의식 변인 간의 상관 분석에서도, 3개 연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일 시점의 분석 결과만 제시하는 것에 비해 어떤 추가적인 정보나 이점이 있는지 보다 잘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8>과 <표 9>에서 아동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가정 경제적 불안정 지각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는 부분에서도 변인들 간의 종단적 관계를 모형화할 수 있는 통계모형(구조방정식 모형이나 반복 측정 시점이 개인에 내재된 다층모형)의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기타 연구 결과 및 제시 방식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표 2>에서 전체 학생 중 ‘돈을 많이 버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에 응답한 학생 수와 비율만 제시하여, 해당 표에서 항목별 빈도 및 비율의 합과 총 유효빈도 및 비율이 불일치하고 독자에게 혼선을 줍니다. 표에 ‘기타 응답’ 항목을 추가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 3〉에서도 물질주의 가치관을 나타낸 남/여 학생 빈도와 전체 사례 수(N)가 일치하지 않으며, 이 표에 제시된 카이제곱 검증은 6개 가치 유형 전체와 학생 성별의 관련성을 분석한 통계치인지 해당 표에 제시된 물질주의 가치관을 보인 집단 내에서의 성별 비율을 검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표 4〉에서 아동의 가치관과 행복감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을 제시한 다음에 별도의 설명 없이 행복감 관련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어서 독자에게 혼란을 줍니다. 행복감 등 변수의 기술 통계치는 별도의 표로 분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보다 명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표 5〉, 〈표 6〉에서도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가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음).

〈표 5〉에서 물질주의 가치관과 학생의 사회관계의 관련성을 보는 부분에서 물질주의 가치관과 여자 친구 수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나는 것은 단지 남학생에게서 물질주의 가치관을 보이는 학생 비율이 더 높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물질주의 가치관과 관계 중심 가치관을 보이는 학생 비율이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면, 역시 학생 성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여자 친구 수, 남자 친구 수를 사회관계적 측면을 보기 위한 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반영한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집단 간 차이

이지원²⁶⁾ 최지은²⁷⁾

요약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만6세 두 부모의 공동양육 양과 질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고(N=1,039), 양과 질 모두 높은 집단(18.40%), 양과 질 모두 낮은 집단(19.75%), 양 높고 질 낮은 집단(16.76%), 양 낮고 질 높은 집단(45.9%)이 구분되었다. 집단 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가 발견되었고, 공동양육 질이 높은 두 집단은 이후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공동양육의 질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개입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공동양육, 아버지 양육, 정서조절, 잠재프로파일분석

1. 서론

아동발달과 양육에 관한 연구는 오랜 시간 어머니만을 양육자로 고려해 왔다. 이는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생계부양자로 가족 내 양육자로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양이 적고, 어머니를 유일한 주양육자로 보았기 때문이지만, 최근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하면 양육에 관한 연구의 초점을 어머니로 한정하는 것은 현대 가족의 구조와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Cabrera, Volling, & Bar, 2018).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한 초기 애착이론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연구자들은 아동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Lamb, 2000). 양육자로서 아버지의 존재를 상기한 아버지 양육 초기 연구에 이어 연구자들이 관심을 둔 것은 “아버지 양육참여의 양”이다. 국내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는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 등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ubowitz et al., 2001; Nord & West, 2001; Stolz, Barber, & Olsen, 2005).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에 따라 아동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발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26)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사통합과정

27)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수 있는 스트레스 조절, 상황에 대한 적응력, 통제 능력 등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Easterbrooks, Raskin, & McBrain, 2014; Boyce et al., 2006). 국내에서도 2006년 이후 정책적으로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고, 회사의 가족 친화적인 제도가 확산되면서(유해미, 김아름, & 김진미, 2015) 사회적 분위기 역시 아버지 양육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은 지난 15년 간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지은, 김현경, 2019). 그러나 아버지 양육참여의 증가를 위한 노력들은 양적인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두 양육자의 “공동양육”이라는 측면에서의 논의나 개입 노력이 부족했으며, 특히 공동양육의 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그간의 노력이 실제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효성이 있었는지 역시 미지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나타내는 다양한 하위영역들을 이용하여 6세 시기 한국 부모의 공동양육의 이질적인 유형을 구분하고, 이러한 집단 간에 사회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이후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의 한계는 양육을 아버지라는 한 명의 부모와 자녀 간 이자 관계(dyadic relationship)를 중심으로 파악하려 한다는 것이다(Margolin, Gordis, & John, 2001). 즉, 전통적으로 양육을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 중심으로 보았던 시각에서 어머니를 아버지로 대체한 것이다. 그러나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과 서로 연계되어있는 하나의 체계(system)이며, 구성원 간에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Minuchin, 1974). 어머니와 아버지는 양육행동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순간에도 서로의 양육에 영향을 준다(서석원, 이대균, 2014). 두 부모 가정에서 양육환경은 두 명의 양육자가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양육실태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출된 개념이 “공동양육(Coparenting)”이다(Van Egeren & Hawkins, 2004).

공동양육은 두 명의 부모가 함께 아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양육과정에 협력하고 조율해나가는 것을 말한다(Feinberg, 2003).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의 양육에 대해 지지하거나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갈등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다. Feinberg(2003)는 공동양육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1) 실제 양육 분담 정도와 평등함 정도, (2) 양육상황에서 의견의 일치 혹은 불일치 정도, (3) 서로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지 혹은 비난 정도, 그리고 (4) 가족 내 상호작용 태도와 같은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공동양육은 단순히 양육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부모의 태도의 조화, 가족 전체의 특성 즉 공동양육의 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양육의 양은 다양한 양육상황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자 어떤 양육분담

영역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 Lamb(1986)은 양육활동의 영역을 접근성, 직접참여, 책임성의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접근성은 자녀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대응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서 하는 양육활동(예, 자녀 곁에 있어 주기), 직접참여는 직접적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적극적 돌봄(예, 놀아주기), 책임성은 자녀의 돌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양육활동(예, 어린이집이나 병원 일정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는 어머니와 달리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즉 직접참여 중심으로 한정된 측면이 있다(Pleck & Stueve, 2001). 실증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세 하위영역 중 '책임성' 영역이 아버지의 참여 수준이 가장 낮았고,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절대적 양은 증가할지라도) 분담률의 차이가 없었다(Lamb, 2000). 최근 국내에서도 아버지 양육참여의 양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으나, 연구 결과 자녀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어린이집이나 기타 교육 일정을 관리하거나 돌봄 공백에 있을 시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 등의 책임성 영역이나 직접 아동을 훈육하는 것은 여전히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지영, 2014; 안수영, 이명신, 2020).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낮으나 아버지 경제활동참여율은 높고 근무시간이 긴 것을 고려하면, 접근성 영역도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영역이다(안수영, 이명신, 2020). 이는 공동양육의 양을 단순히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자 여러 양육행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 총량을 비교하는 것보다 부모가 여러 양육영역을 각각 어떻게 분담하여 공동양육을 이루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Feinberg(2003)의 개념화 한 공동양육의 구성요소에 따르면, 공동양육의 질은 양육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 간 합의 정도, 서로의 양육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족에 닥친 변화의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정도로 구성된다. 공동양육의 방향성과 공동양육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육의 심리적인 측면, 즉 부부가 자녀 양육 시 배우자의 관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양육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등 부모의 양육일치도와 조화수준을(Feinberg, 2003)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체적인 가족 상호작용에서 배우자 간 균형을 유지하며 유연한 관계를 가지는지도 포함된다. 이는 배우자 간에 양육에 대한 서로의 역할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며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Belsky(1984)가 고안한 공동양육의 생태학적 모델에 따르면 공동양육 관계를 나타내는 하위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ensemble)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공동양육의 운영형태를 파악할 수 있고, 공동양육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차원, 가족 차원, 가족 외의 차원의 요인이나 공동양육이 이후 부모의 양육 행동이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Feinberg, 2003).

그러나 지금까지 공동양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동양육의 단일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뤄왔다.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해 공동양육의 양

이 늘어날수록 아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박익새, 남은영, 2015), 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정미라, 이방실, & 박수경, 2013; 이영환, 2008)가 다수를 차지한다. 즉, 두 부모의 양육참여 정도로 파악하는 공동양육의 양에 집중한 연구는 양육상황에서 부모가 서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또는 양육에 대해 얼마나 합의가 되었으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등 양육의 질적인 측면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동양육의 질을 고려한 경우에도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포함해 다면적인 특성을 반영하기보다 단순히 서로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나 만족도만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한지현, 2018) 실제 두 부모의 공동양육 수행 실태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공동양육 맥락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의 태도와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부모의 응답만 사용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예: 조운진, 2017; 강수경, 김해미, & 정미라, 2019). 응답자의 편향을 줄이고 보다 신뢰롭게 공동양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부모 모두의 응답값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공동양육의 실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하위영역 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공동양육의 양), 그리고 공동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태도(합의, 비난, 갈등) 뿐 아니라 가족 내 상호작용이 유연한지(공동양육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양육은 부모의 사회정서적 상태, 부부 관계, 배우자의 양육행동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맥락(경제적 수준, 학력 등)과 별개로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행동은 다측면적(multifaceted)이다(Power, 2013). 그렇기 때문에 공동양육을 비롯한 양육행동은 보편적 법칙을 정립하고자 하는 인과분석적 접근 보다는 개별적(idiographic) 접근으로 다차원적인 맥락과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양육의 보편적인 법칙을 정립하기 위해 변인 중심의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을 주로 적용하여 양육행동과 아동발달 간의 선형적인 관계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 중심 접근은 양육행동의 다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Power, 2013). 이러한 한계점의 대안으로 개인중심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과 같은 개인중심접근은 대상자가 응답하는 관찰 변수의 다양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적 유형을 분류한다. 이후 분류된 집단의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요구를 파악하여 특정 집단에 맞는 맞춤형 개입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양육행동의 조합 패턴이 아동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differential effects)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andara, 2003).

많은 연구를 통해 공동양육이 아동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양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아동이 이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생애 발달에서 종단적인 합의를 가지는 중요한 발달지표인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동양

육의 다면적 차원 간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은 또래 관계나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대처반응에 영향을 주어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성연, 강지훈, 2015; Boyce et al., 2006). 국내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고(Sarkadi et al., 2008)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학령기 아동에게 중요한 사회정서발달과 내적인 통제, 즉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Karreman et al., 2008).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양과 질에 대한 구분이 없어 공동양육의 긍정적 효과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이 늘어나서인지, 혹은 공동양육의 질이 높았기 때문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동양육의 맥락이 아동의 발달시기별로 다른 데에 반해 주로 영아기와 아동기에 중점을 둔 연구로 한정적이며(최미경 외, 2013; 박재진, 2015) 종단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상황에서의 관계가 서로 지지적이면서 공동양육의 양이 높으면 아동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과정을 모델링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다(Chang, Halpern, & Kaufman, 2007). 이는 부모의 공동양육 관계(Coparenting relationship)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맥락이기 때문이다(Crockenberg & Leerkes, 2003). 반면 공동양육의 양이 많더라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태도가 서로 불일치하거나, 상대방의 양육에 대해 부정적일 경우, 즉 공동양육의 질이 낮을 경우에는 부부 간 갈등이 아동의 정서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은혜, 2009). 특히 부부의 양육태도가 불일치할 경우, 자녀의 입장에서 비일관적인 양육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Duncombe et al., 2012).

종합하자면, 공동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제 공동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국 부모들의 공동양육 유형이 어느 정도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만 6세)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반영한 공동양육 실태에 따른 하위집단을 유형화하여, 각 집단 고유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 학령기 아동(만 7 ~ 9세)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부모교육 등 다양한 실천 현장에서 공동양육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 좋은 공동양육을 장려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공동양육 유형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여 각 유형에 맞게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연구문제 1. 공동양육의 양(접근성, 직접참여, 책임성, 훈육 양육분담)과 질(가족통합, 비난, 갈등, 가족 유연성)에 따라 만 6세 시기 부모의 공동양육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2. 공동양육 잠재집단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자녀 특성, 부모 근로 특성, 기타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공동양육 잠재집단별로 이후 학령기 아동(만 7 ~ 9세)의 정서조절 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의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통해 공동양육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7차년도(2014년, 만 6세) 자료를 활용하였고, 학령기 이후 아동의 정서조절을 종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8차-10차년도(2015 ~ 2017년, 초등학교 1 ~ 3학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부모의 공동양육 실태를 보다 타당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7차년도에 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은 경우(3.2%), 제 3의 공동양육자가 되기 쉬운 조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8.6%),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0.6%)를 제외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아동의 발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파악하고자 1차년도에 아동 발달검사 결과 의심스러운 발달로 구분된 경우(8.9%)를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양육 하위영역 응답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29 케이스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1,038 가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측정도구

가. 공동양육의 양과 질

1) 공동양육의 양

공동양육의 양은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만 6세)에 측정된 접근성, 직접참여, 책임성, 훈육 영역의 부부간 양육분담 정도로 파악하였다. 이 중 접근성, 직접참여, 책임성 양육분담은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NICHHD)에서 개발한 양육분담척도(My time spent as a parent: Child care activities)(SECCYD, 2007)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양육분담척도는 아이를 돌보는 총 16가지의 일상적인 활동 목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 아이를 목욕시킨다,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 활동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5점 척도로 '배우자가 함(1점)'부터 '응답자 본인이 함(5점)'으로 응답할 수 있고 3점이 부부간에 동등하게 분담함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양육 활동에 더 많이 관여함을 뜻한다. 본 연

구에서는 부부간 양육분담 실태를 보다 신뢰롭게 파악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자 보고한 결과를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방향으로 코딩을 통일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 응답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r = .11 \sim .57$, $ps < .05$) 어머니와 아버지 응답의 평균을 구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16개의 문항으로 Lamb (1986)의 양육참여 하위요인에 따라 본 연구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접근성 4문항(예, 아이의 아침 식사를 차려준다), 직접참여 7문항(예, 아이를 목욕시킨다), 책임성 5문항(예,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보모에게 데려다 준다)이 구분되었다²⁸).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접근성 .81, 직접참여 .84, 책임성 .72로 나타났고, 분석에는 접근성 4문항의 평균값, 직접참여 7문항의 평균값, 책임성 5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훈육 상황에서의 양육분담은 McHale(1997)이 개발한 공동양육척도(Coparenting Scale)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한 척도의 훈육(Reprimand) 하위영역 4문항 중 2문항(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훈육할 때 배우자보다는 내가 한다, 아이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훈육해야 할 때 배우자가 하도록 요청한다)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나머지 2문항은 훈육 상황에 관련한 것이 아니거나 부부간의 평상시 양육분담 정도를 파악하기 부적절한 것이었다(아이에게 부모에 대해 함께 짝을 지어 말하거나, 하나의 가족단위로 합쳐 말한다; 배우자가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육할 때, 나서지 않는다). 문항 간 상관분석에서도 선별된 2문항과 다른 문항과의 상관관계가 절대값 .1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하위영역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도 문항 간 신뢰도가 낮아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이 선별된 바 있다(한지현, 2018).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답결과를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코딩을 일치시킨 뒤 다른 공동양육 하위요인과의 척도의 범위를 맞추기 위하여 자료의 분산을 훼손하지 않고 척도를 변환하는 Percentage or proportion of Maximum Scoring(POMS)방법을 사용해 5점 척도로 변환하였다(Little, 2013). 두 문항 모두 어머니와 아버지 응답 간의 상관성이 유의하게 나타나($r = .34, .28$, $ps < .05$)어머니와 아버지 응답의 평균을 낸 뒤, 2문항의 평균값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r = .84$, $p < .01$).

2) 공동양육의 질

공동양육의 질은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만 6세)에 측정된 가족통합, 비난, 갈등, 가족 유연성으로 파악하였다. 이 중 가족통합, 비난, 갈등은 McHale(1997)이 개발한 공동양육 척도(Coparenting Scale)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한 척도의 가족통합(Family

28) 모델핏은 $X^2(95) = 628.64$, $p < .001$, RMSE = 0.07, CFI = 0.92, TLI = 0.90, 표준화 요인계수는 접근성 4문항 .56 ~ .72, 직접참여 7문항 .55 ~ .70, 책임성 5문항 .34 ~ .68으로 양호하였다.

Integrity) 7문항, 비난(Disparagement) 3문항, 갈등(Conflict) 2문항의 세 하위영역을 사용하였다. 가족통합은 가족 내에서 배우자 간, 부모 자녀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예, 배우자에게 아이에 대해 긍정적인 말, 아이에게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말), 비난은 배우자의 양육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예, 배우자가 아이를 훈육할 때 처벌을 못하게 하거나 반대하거나, 배우자의 훈육을 제한한다), 그리고 갈등은 가족 내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이는 것(예, 배우자와 언쟁을 한다)을 가리킨다. 7차년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의 태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이를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통합 수준이 높고, 비난과 갈등은 적은 것으로 코딩하여 모든 하위요인이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양육의 질이 좋은 방향으로 코딩을 통일하였다. 또한, 자료의 분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른 공동양육 하위요인과의 척도의 범위를 맞추기 위하여 POMS방법을 사용해 5점 척도로 변환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답의 상관관계가 가족통합 .12 ~ .80, 비난 .11 ~ .36, 갈등 .36 ~ .65 ($p < .05$)로 유의했으므로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평균 낸 가족통합 7문항의 신뢰도는 .88, 비난 3문항의 신뢰도는 .54, 그리고 갈등 2문항의 상관은 .47 ($p < .01$)로 높았으므로 평균내어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공동양육의 질 중 가족 유연성은 한국아동패널에서 번역한 Olson(2010)의 가족 상호작용(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V, FACES IV) 척도 중 유연성(Balanced Flexibility)영역 7문항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답값을 사용하였다. 가족 유연성은 가족 내에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이 유연한지 정도(예, 우리 부부는 동등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족은 필요할 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를 묻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코딩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답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여($r=.22 \sim .61$ ($p < .01$)) 어머니와 아버지 응답을 평균낸 뒤 7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한 후 평균을 내어 분석에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8$).

나. 사회인구학적 특성

공동양육 잠재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7차년도에 측정된 자녀의 성별과 자녀 수, 그리고 맞벌이 여부와 어머니의 월 근로 소득, 어머니의 주당 근로 시간, 아버지의 직업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밖에 결혼 유지기간, 월 가구소득, 부모의 연령과 학력을 살펴보았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를 0, 여아를 1로 코딩하였고 조사 가구 아동 중 여아는 506명(47.4%)이다. 자녀 수는 연구대상 아동의 출생순위(예, 1남 1녀)를 통해 전체 자녀의 수

를 계산하여 1~6명의 연속변수를 사용하였고 전체 평균 2.16(SD = 0.64)명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근로 특성으로, 맞벌이 여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취업 또는 학업 중인 경우 1로, 한 명이라도 취업 또는 학업 중이 아닌 경우 0으로 코딩하였고 전체 가구의 42.10%가 맞벌이 가구였다. 근로 소득은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에 어머니 응답 값만 존재하였는데, 미취업자에게는 0의 값을 부여하여 연속변수로 어머니의 월 근로 소득을 파악하였고 전체 가구의 평균은 78.25 (SD = 117.54)만원이었다. 근로 시간 역시 어머니의 데이터만 존재하였는데, 취업자의 경우 1일 근로 시간과 근로 일수를 곱하여 주당 근로 시간을 계산하였고 미취업자의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고, 평균 15.95(SD = 20.50)시간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95.69%가 취업 중이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이 생산직, 기능직, 서비스직일 경우 0,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일 경우 1로 코딩하였다. 전체의 51.4%가 생산, 기능, 서비스직 그리고 48.6%가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에 종사하였다. 부모의 결혼 유지 기간(단위: 개월)과 월 가구소득(단위: 만원), 어머니와 아버지 연령은 연속변수로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기간이 길고, 가구 소득이 높고, 나이가 많은 것을 나타낸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은 ‘무학(1)’부터 ‘고졸(5)’ 그리고 ‘대학원졸(7)’ 까지 7개 구간으로 코딩하였다. 부모의 결혼 유지 기간은 평균 120.01(SD = 38.76 개월), 월 가구 소득 평균은 446.65(SD = 199.79)만원,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 평균은 각각 5.19, 5.36(SD = 0.94, 0.99)로 평균 고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7세)부터 10차년도(9세)까지 어머니가 평정한 송현주(2014)의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척도 중 정서통제 곤란(emotional control difficulty) 8문항을 사용하였다(예,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하지 않다). ‘전혀 아니다(1점)’부터 ‘자주 그렇다(3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8차~10차 차수별 신뢰도(Cronbach's α)는 .89 ~ .91.로 나타났다. 최종 분석에서는 8차~10차 평균값을 평균내어 ($r = .58 \sim .60, ps < .01$) 학령전기 공동양육의 유형이 아동의 학령기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분석방법

데이터의 전처리와 변수 간 상관관계 파악에는 SPSS 25를 활용하였다. 부모의 공동양육의 양과 질이라는 공동양육의 다면적인 특성을 반영한 총 8가지 하위요인으로 잠재집단을 분류하기 위하여(연구문제 1) Mplus 8.3(Muthén & Muthén, 1998-2019)을 사

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LPA는 개인-중심접근방법(person oriented approach)으로 개인이 가진 다양한 변수들의 수준을 조합하여 통계적인 기준을 통해 구분되는 이질적인 잠재적 하위집단을 밝혀내는 방법이다(Muthén & Muthén, 2000). 이는 다차원적인 양육의 맥락과 수준을 잠재적 유형화에 포함시켜 실제 이루어지는 양육의 복잡성을 반영하고 자연적으로 유도된 양육의 유형을 발견하는 데에 용이한 분석방법이다(Power, 2013).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집단 수를 늘려가며 Akaike Information Criteria (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BIC)를 비교하였고 지수의 값이 작아지는 것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Lo-Mendell-Rubin (LMR), Vuong-Lo-Mendell-Rubin (VLMR),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BLRT)를 통해 집단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형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Entropy 지수를 통해 잠재계층 분류의 질을 평가하였는데, 이는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분류를, 0.7 이상일 경우 모형의 분류가 적합하고 오류가 적음을 의미한다(Tein, Coxe, & Cham, 2013). 마지막으로 집단 간 사례 수의 비율과 해석상의 분류 정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였다.

공동양육의 잠재집단의 수를 확정된 뒤, BCH 보조변수(auxiliary variable)을 사용하여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연구문제 2), 그리고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의 차이(연구문제 3)를 분석하였다. BCH 보조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잠재집단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류오류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으로, 잠재집단을 절대적인 관측집단으로 간주한 뒤에 집단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확률과 오차를 반영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다(Asparouhov & Muthén, 2014).

잠재프로파일분석에 사용한 8개 하위요인의 결측률은 2.79~2.99%로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일부 변수에 결측이 있더라도 모든 케이스를 분석에 포함하였다(Enders & Bandalos, 2001). 이후 보조변수를 활용한 잠재집단 간 차이분석 시에는 Mplus의 기본방식인 목록삭제(listwise deletion)가 사용되었는데, 차이분석에 사용된 변수별 결측률은 0.39 ~ 8.48%로 미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특성

〈표 1〉은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나타내는 8개 변수와 사회인구학적 변수, 그리고 아동

정서조절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결과이다. 공동양육 양은 1~5점 범위로 5에 가까울수록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고, 3은 부부가 동등하게 분담, 1에 가까울수록 주로 아버지가 담당함을 의미하는데, 4개 변수 모두 평균값이 3 이상이었다. 즉, 평균적으로 접근성, 직접참여, 책임성, 훈육 모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담당하였다. 특히 책임성과 접근성 영역이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는 정도가 심하여, 공동양육 양이 적었고, 그 다음은 직접참여, 훈육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 질 하위영역은 모두 유사하게 1~5점 범위 중 평균 3점 후반대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공동양육 양에 해당하는 접근성, 직접참여, 책임성, 훈육은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공동양육 질에 해당하는 가족통합, 비난 적음, 갈등 적음, 가족 유연성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공동양육 양과 질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공동양육 양이 적을수록 (주로 어머니가 많이 할수록) 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접근성, 직접참여, 책임성을 주로 어머니가 담당할수록 가족통합 수준이 낮았고, 접근성, 직접참여, 책임성, 훈육을 주로 어머니가 담당할수록 가족 유연성 수준이 낮았다. 공동양육 질 영역인 비난과 갈등은 공동양육의 양적 영역에서 직접참여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주로 직접참여를 담당할수록 공동양육 맥락에서의 두 부모 간 비난과 갈등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 하위요인들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근로여부는 공동양육의 양의 모든 영역에서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외벌이일수록,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낮거나 무소득에 가까울수록, 어머니의 주당 근무시간이 적거나 미취업에 가까울수록 어머니가 주로 양육분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공동양육 양이 적은 것과도 연결되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공동양육 질 영역에서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 근무시간이 길수록 가족의 유연성이 높았다.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사무직일 때 생산/기능/서비스직에 비해 공동양육의 질(가족통합, 비난)이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나이가 많을수록 어머니가 주로 직접참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직접참여 영역에서 부부간 양육분담이 평등할 가능성이 높았고, 공동양육 질의 영역들이 대체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 하위요인들과 아동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동양육의 양적 영역보다는 질적 영역이 정서조절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였으며, 공동양육의 질이 좋을수록 아동이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의 양적 영역 중에서는 접근성만이 아동의 정서조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아버지는 접근성이 낮고 어머니만 접근성이 높을 경우 아동의 정서조절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표 1〉 연구변수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결과 (N=1,038)

	공동양육 양				공동양육 질				사회인구학적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접근성	-																					
2. 직접참여	.60**	-																				
3. 책임성	.64**	.61**	-																			
4. 훈육	.17**	.18**	.19**	-																		
5. 가족통합	-.09**	-.20**	-.12**	-.05	-																	
6. 비난적응	.01	-.09**	-.02	.04	.23**	-																
7. 갈등적응	.00	-.09**	-.03	-.06	.42**	.52**	-															
8. 가족유연성	-.23**	-.31**	-.24**	-.11**	.61**	.27**	.45**	-														
9. 아동성별	-.02	.05	-.02	.07*	.02	-.02	.00	.04	-													
10. 자녀수	.01	-.01	-.04	-.06	.00	-.08*	.03	.01	.02	-												
11. 맞벌이여부	-.27**	-.18**	-.22**	-.09**	-.02	-.05	-.02	.09**	.00	.00	-											
12. 모 근로소득	-.30**	-.21**	-.24**	-.10**	.00	-.04	-.02	.10**	.05	-.08*	.77**	-										
13. 모 주당근무시간	-.32**	-.21**	-.27**	-.09**	-.04	-.06*	-.02	.07*	.02	-.01	.91**	.80**	-									
14. 부 직업	.04	-.06	.03	-.01	.09**	.12**	.04	.05	-.02	-.04	.04	.04	-.05	-								
15. 부모결혼기간	.03	.10**	.02	.02	-.01	-.06*	.00	-.01	-.03	.33**	.07*	.00	.07*	.04	-							
16. 월가소득	-.12**	-.11**	-.10**	-.03	.10**	.05	.03	.12**	.02	-.05	.25**	.44**	.26**	.18**	.07*	-						
17. 모 나이	.02	.07*	.04	.04	.00	.03	.05	.00	-.03	.08**	.00	.04	.00	.07*	.54**	.09**	-					
18. 부 나이	.02	.07*	.04	.07*	-.02	-.03	.03	-.01	-.03	.12**	-.01	.03	.02	.04	.52**	.09**	.72**	-				
19. 모 학력	-.03	-.10**	-.06	-.04	.14**	.13**	.08**	.15**	.03	-.09**	.12**	.22**	.05	.29**	-.10**	.32**	.07*	.02	1.00			
20. 부 학력	-.01	-.10**	-.04	-.03	.13**	.10**	.03	.14**	.02	-.11**	.04	.14**	.01	.37**	-.03	.30**	.12**	.07*	.62**	1.00		
21. 아동 정서조절	-.07*	-.05	-.04	.04	.25**	.08**	.16**	.23**	.09**	-.03	-.01	-.02	-.02	.02	.11**	.07*	.08*	.07*	.08*	.08*	1.00	
M	4.24	3.71	3.96	3.31	3.85	3.63	3.75	3.63	0.48	2.16	0.42	78.25	15.95	0.49	120.01	445.65	36.89	39.26	5.19	5.36	2.57	
SD	0.52	0.54	0.52	0.67	0.54	0.55	0.77	0.50	0.50	0.64	0.50	117.54	20.50	0.50	38.99	199.79	3.64	3.97	0.94	0.99	0.38	

주: 공동양육 양은 1~5점 범위로, 5에 가까울수록 주로 어머니가 담당, 3은 부부가 동등하게 분담, 1에 가까울수록 주로 아버지가 담당함을 의미함. 공동양육 질은 나타내는 4개의 변수는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질이 높음을 의미함. 자녀 성별은 남아 = 0, 여아 = 1로,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 아님 = 0, 맞벌이 = 1로, 부 직업은 생산/기능/서비스 직 = 0, 관리/전문/사무직 = 1로 코딩됨.

* $p < .05$, ** $p < .01$.

2. 공동양육 특성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화

가. 공동양육의 잠재집단 수 결정

공동양육의 양과 질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무조건 모형에 잠재집단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2>에 제시된 바와 같이 AIC, BIC, aBIC 정보지수는 잠재집단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고, 모형비교검증을 위한 BLRT는 잠재집단이 5개일 때까지 계속해서 유의하였으나 VLMR, LMR는 모든 잠재집단 수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집단 수가 4개일 때 .77로 가장 높아 집단 분류의 정확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었다(Masyn, 2013). 이와 더불어 각 잠재집단의 사례 수 분포 비율과 해석상의 분류 명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집단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표 2> 부모 공동양육의 잠재집단 수에 따른 모형적합도 (N=1,038)

	잠재집단 수				
	1	2	3	4	5
AIC	14276.61	13406.97	12901.19	12579.42	12411.87
BIC	14355.73	13530.59	13069.32	12732.06	12669.01
aBIC	14304.99	13451.19	12961.33	12655.49	12503.86
VLMR		.06	.02	.08	.16
LMR		.06	.02	.08	.16
BLRT		.00	.00	.00	.00
Entropy		.70	.73	.77	.76
	1038(100.00)	424(40.85)	233(22.45)	191(18.40)	262(25.24)
잠재집단 사례 수		614(59.15)	331(31.89)	174(16.76)	147(14.16)
n(%)			474(45.67)	205(19.75)	81(7.80)
				468(45.09)	197(18.98)
					351(33.82)

나. 잠재집단별 공동양육의 특징

본 연구에서 공동양육의 양을 접근성, 직접참여, 책임성, 훈육 양육분담으로, 공동양육의 질을 가족통합, 비난, 갈등, 가족 유연성으로 조작화하여 잠재집단을 조사한 결과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4집단의 각 하위요인 특성은 <표 3>과 <그림 1>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전체 1038가구 중 191(18.40%) 가구로, 공동양육 양의 영역이 모두 3(부부가 동등하게 분담함을 의미)에 가깝고 공동양육 질의 영역들 모두 전체 평균 이상으로 공동양육의 양도 많고 질 좋은 “양과 질 모두 높은 집단(집단 1)”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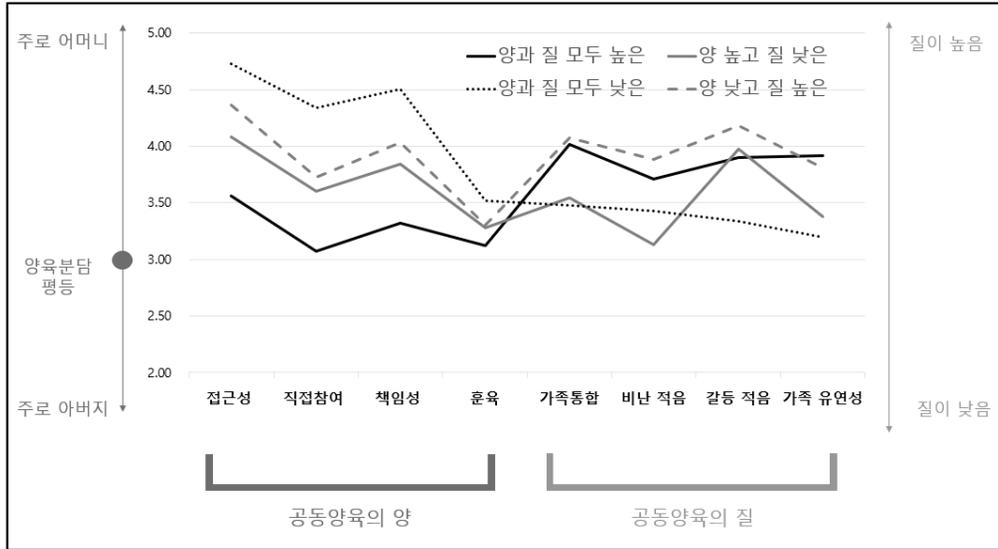
174(16.76%)가구로, 공동양육 양은 하위영역별 평균값이 3.28 ~ 4.08로 어머니가 아버지 비해 주로 양육을 담당하는 상황이지만 전체 집단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았고, 공동양육의 질 중에서 특히 가족통합과 가족 유연성이 낮고 비난이 많은 편으로, 공동양육의 양은 많고 질이 나쁜 “양 높고 질 낮은 집단(집단 2)”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205(19.75%) 가구로, 공동양육 양의 영역 중 집단 간 변량이 적은 훈육을 제외하고, 모두 평균 4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양육을 어머니가 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동양육 질의 영역 역시 점수가 모두 낮아 공동양육의 양이 적고 질도 나쁜 “양과 질 모두 낮은 집단(집단 3)”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집단은 468(45.09%)명으로 전체 집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이 집단은 공동양육의 양의 영역은 훈육을 제외하고 전체 집단 중 두 번째로 높아 양육분담에서 어머니의 수행 비율이 높으나, 공동양육의 질은 가장 좋은 편으로 나타나 공동양육의 양이 적으나 질이 좋은 “양 낮고 질 높은 집단(집단 4)”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잠재집단별 공동양육 하위요인의 기술통계 (N=1,038)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M	(SD)	M	(SD)	M	(SD)	M	(SD)
공동 양육 양	1	접근성	3.56	0.08	4.08	0.11	4.73	0.03	4.37	0.06
	2	직접참여	3.07	0.07	3.61	0.11	4.34	0.05	3.72	0.07
	3	책임성	3.32	0.09	3.84	0.10	4.51	0.04	4.04	0.06
	4	훈육	3.12	0.06	3.28	0.05	3.52	0.06	3.30	0.04
공동 양육 질	5	가족통합	4.02	0.10	3.55	0.06	3.48	0.07	4.07	0.05
	6	비난 적음	3.71	0.09	3.13	0.07	3.43	0.09	3.88	0.03
	7	갈등 적음	3.90	0.15	3.97	0.09	3.34	0.16	4.18	0.06
	8	가족 유연성	3.92	0.07	3.38	0.06	3.20	0.08	3.81	0.05
n			191		174		205		468	
%			18.40		16.76		19.75		45.09	

주: 공동양육 양은 1~5점 범위로, 5에 가까울수록 주로 어머니가 담당, 3은 부부가 동등하게 분담, 1에 가까울수록 주로 아버지가 담당함을 의미함. 공동양육 질을 나타내는 4개의 변수는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질이 좋음을 의미함.

집단 1은 양과 질 모두 높은 집단, 집단 2는 양 높고 질 낮은 집단, 집단 3은 양과 질 모두 낮은 집단, 집단 4는 양 낮고 질 높은 집단을 의미함.



주: 공동양육의 양(접근성, 직접참여, 책임성, 훈육)은 1~5점 범위로 5에 가까울수록 주로 어머니가 담당, 3은 부부가 동등하게 분담, 1에 가까울수록 주로 아버지가 담당함을 의미함. 공동양육의 질(가족통합, 비난 적용, 갈등 적용, 가족 유연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질이 좋음을 의미함.

[그림 1] 잠재집단별 공동양육의 특징

3. 공동양육 잠재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공동양육의 잠재집단별 자녀 성별과 자녀 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자녀의 성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녀 수는 양과 질 모두 낮은 집단(2.09명)이 양 낮고 질 높은 집단(2.22명)보다 유의하게 적었다. 어머니의 근로와 관련된 맞벌이 비율, 어머니의 월 근로소득, 어머니의 주당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양과 질 모두 높은 집단이 가장 높고, 양 높고 질 낮은 집단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양과 질 모두 낮은 집단과 양 낮고 질 높은 집단이 가장 낮았다. 특히 양과 질 모두 높은 집단은 68%가 맞벌이였고, 공동양육 양이 낮은 집단들에 비해 어머니의 근로소득과 근무시간이 매우 높았다.

추가로, 어머니는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시간제) 근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잠재 집단 별로 파트타임(주 30시간 이하), 풀타임(주 31 ~ 40시간), 초과근무(법정 근로시간 인 주 40시간 초과) 비율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어머니 중 11.3%가 파트타임, 20.9%가 풀타임, 10.6%가 초과근무였는데, 양이 높은 (질과 관계 없이) 두 집단은 풀타임이 30% 이상으로 많았고, 양과 질 모두 높은 집단은 초과근무도 26.8%로 많았으며, 양과 질이 불일치하는 집단 (양 높고 질 낮은 집단과 양 낮고 질 높은 집단)은 파트타임이 12% 이상으로 많았다. 초과근무의 경우 나머지 집단은 모두 10% 미만이었지만, 양과 질 모두 높은 집단은 27%로 초과근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양과 질이 불일치하는

집단은 어머니의 파트타임 비율이 높고, 양과 질 모두 좋은 집단은 어머니의 풀타임 혹은 초과근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양과 질 모두 낮은 집단 아버지가 양 낮고 질 높은 집단보다 생산/기능/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밖에, 부모의 결혼 유지 기간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월 가구소득은 양과 질 모두 높은 집단이 가장 높고, 양 낮고 질 높은 집단, 양과 질 모두 낮은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 많고 질 낮은 집단은 양과 질 모두 낮은 집단에 비해 월 가구소득이 유의하게 높았다. 어머니의 연령과 아버지의 연령은 양 적고 질 높은 집단이 가장 높고, 양과 질 모두 높은 집단이 가장 낮았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은 양과 질 모두 낮은 집단이 나머지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았다. 종합해 보면, 양과 질 모두 높은 집단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이 낮으며, 월 가구소득이 높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것으로 반대로 양과 질 모두 낮은 집단은 아버지의 연령이 높고, 월 가구소득이 낮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공동양육의 잠재집단 분류의 차이(N=1,038)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차이
	M	(SD)	M	(SD)	M	(SD)	M	(SD)	
자녀 특성									
자녀 성별	0.50	(0.04)	0.46	(0.05)	0.53	(0.04)	0.46	(0.03)	N.S.
자녀 수(명)	2.13	(0.05)	2.15	(0.06)	2.09	(0.05)	2.22	(0.04)	3<4
부모 근로 특성									
맞벌이 여부	0.68	(0.04)	0.52	(0.05)	0.27	(0.04)	0.35	(0.03)	3,4<2<1
모 월 근로소득(만원)	149.47	(11.35)	99.67	(11.41)	41.87	(7.40)	57.45	(5.83)	3,4<2<1
모 주당 근무시간	29.69	(1.91)	19.65	(1.94)	9.79	(1.43)	11.62	(1.00)	3,4<2<1
부 직업	0.49	(0.04)	0.46	(0.05)	0.40	(0.04)	0.53	(0.03)	3<4
기타 특성									
결혼유지기간(개월)	115.64	(3.38)	117.52	(3.45)	123.12	(3.44)	121.41	(1.96)	N.S.
월 가구소득(만원)	493.12	(19.61)	453.76	(20.28)	392.38	(13.21)	446.90	(9.93)	3<4<1, 3<2
모 연령	36.21	(0.31)	36.70	(0.33)	37.02	(0.33)	37.17	(0.18)	1<4
부 연령	38.50	(0.35)	39.43	(0.38)	39.57	(0.34)	39.35	(0.19)	1<3,4
모 학력(1-7)	5.24	(0.07)	5.21	(0.09)	4.88	(0.08)	5.30	(0.05)	3<1,2,4
부 학력(1-7)	5.41	(0.08)	5.40	(0.09)	5.07	(0.08)	5.45	(0.05)	3<1,2,4

주: 집단 1은 양과 질 모두 높은 집단, 집단 2는 양 높고 질 낮은 집단, 집단 3은 양과 질 모두 낮은 집단, 집단 4는 양 낮고 질 높은 집단을 의미함.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경우 부등호로 표기하였고, N.S.는 non significant를 의미함. 자녀 성별은 남아 = 0, 여아 = 1로,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 아님 = 0, 맞벌이 = 1로, 부 직업은 생산/기능/서비스직 = 0, 관리/전문/사무직 = 1로 코딩됨.

4. 공동양육 유형 별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차이

아동 만 6세 시기의 공동양육의 양과 질에 따라 공동양육의 잠재집단이 이후 학령기(만 7 ~ 9세)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집단별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평균은 2.57(SD = 0.38)점으로 나타났으며 양과 질 모두 높은 집단과 양 낮고 질 높은 집단이 양 높고 질 낮은 집단, 양과 질 모두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양육의 양과 관계없이 공동양육의 질이 나쁜 집단(집단 2와 3)의 아동이 질이 좋은(집단1과 4) 집단의 아동보다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부모공동양육의 잠재프로파일별 아동 정서조절 차이 (N=1,038)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전체		집단 차이
	M	(SD)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2.64	(0.03)	2.47	(0.03)	2.49	(0.04)	2.64	(0.02)	2.57	(0.38)	2,3<1,4

주: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부등호로 표기함. 집단 1은 양과 질 모두 높은 집단, 집단 2는 양 높고 질 낮은 집단, 집단 3은 양과 질 모두 낮은 집단, 집단 4는 양 낮고 질 높은 집단을 의미함.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경우 부등호로 표기하였음.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아버지 양육참여 혹은 공동양육 연구가 양육의 다면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제 공동양육의 다양한 수준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는 한계점에서 출발하였다. 국내 아동기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대표성 있는 종단조사인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하여, 만 6세 시기 두 부모의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나타내는 다양한 요인으로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집단 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공동양육의 양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양적 증가에 초점을 두었던 연구나 정책 흐름에 대안을 제시하고, 아동발달에 효과적인 공동양육을 독려함에 있어서 양과 질 모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이질적인 공동양육 유형에 따라 각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전체의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나타내는 하위영역별 실태는 다음과 같다. 공동양육의 양은 전반적으로 적었으며 (즉,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주로 양육행동을 수행), 하위영역 중 직접참여와 훈육은 공동양육의 양(아버지의 양육참여가)이 비교적 높았으나, 접근성과 책임성 영역에서는 공동양육의 양이 특히 낮았다. 본 연구대상 전체 중 절반에 가까운 42.10%의 가구가 맞벌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책임성 영역은 어머니가 주로 수행하고, 아버지의 참여는 놀이와 훈육에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을 책임성과 비책임성 항목으로 나누어 참여정도를 비교했을 때, 책임성 항목의 참여가 확연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유지영, 2017). 책임성 영역은 그동안 아버지 연구에서 간과되어왔으나, 단순히 양육을 “도와주는 것” 혹은 “베이비시팅(baby-sitting)” 이상의 개념으로, 양육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평가된다(Lamb, 2000). 이는 직접참여, 훈육, 접근성 등과 달리 자녀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양육행동이면서 부모가 스스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궁극적인 책임의식을 갖는 “양육자”라는 적극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행동을 총괄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데(Salonen et al., 2009), 최근 연구에서 자녀와의 놀이 참여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높이지 않았으나, 사회화 지원, 교육 지원, 공동양육 책임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지식 습득 노력 등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국, 이정화, & 오영은, 2020).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이후 양육참여 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양육에 대한 태도나, 가족 유연성과 같은 공동양육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황선실, 황희숙, 2014; 송민영, 2018), 책임성 영역에 대한 아버지 참여 증진 노력이 특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공동양육의 양과 질의 수준에 따라 이질적인 4개의 잠재 집단이 도출되었다. 이중 2개의 집단은 양과 질 수준이 일치하였고(양과 질이 모두 높은 집단, 양과 질 모두 낮은 집단), 나머지 2개의 집단은 양과 질 수준이 불일치하였다(양 높고 질 낮은 집단, 양 낮고 질 높은 집단). 각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근로조건과 소득, 학력에서 주요한 집단차이를 발견하였다. 우선, 양과 질 모두 높은 집단은 전체의 18.4%에 불과했다. 이 집단은 공동양육 양의 영역 가운데 접근성과 책임성에서 어머니의 수행 정도가 아버지보다 약간 높았으나, 4가지 영역 모두 3점대로 부부간에 비교적 평등하게 분담하고 있었고, 공동양육의 질은 5점 만점에 3점 후반 ~ 4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들은 맞벌이 비율, 어머니 근로소득, 어머니 근무시간, 월 가구 소득이 가장 높았고, 어머니와 아버지 연령이 가장 어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도 높은 편이었다. 어머니 근로시간을 범주화한 결과, 이 집단은 어머니의 풀타임 혹은 초과근무 비율이 특히 높았다.

반면 공동양육의 양과 질이 모두 낮은 집단은 공동양육 양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을 뿐만 아니라, 하위영역별 부부간 평등함의 차이가 가장 컸다. 즉 접근성, 직접참여, 책임성의 경우 어머니가 거의 전담하는 것에 비해 훈육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비교적 동등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양육의 질도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아버지가 양육 영역에 고르게 참여하지 않고 훈육에만 참여하는 이 집단은, 최근 미

취학자녀 아버지들이 권위 있고 단호한 아버지(0.1%)보다 친구같은/친한, 자상한/인자한, 혹은 잘 놀아주는 아버지(65.1%)가 되기를 바란다는 조사결과(인구보건복지협회, 2019)와 상반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양과 질이 모두 높은 집단과 반대 양상을 보였다. 즉, 맞벌이 비율, 어머니 근로소득, 어머니 근무시간, 가구소득,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가장 낮았고, 또한, 아버지 직업이 관리/전문/사무직에 비해 생산/기능/서비스직인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공동양육의 양과 질의 수준이 불일치하는 집단이 전체 중 60% 이상을 차지하여 상당히 많았다. 양 높고 질 낮은 집단은 네 집단 중 공동양육 양이 두 번째로 높았으나, 접근성과 책임성은 엄마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의 질적 영역 중 특히 두 부모 간 비난 수준이 높고 가족 유연성 수준이 낮았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보았을 때, 맞벌이 비율, 어머니 근로소득, 어머니 근무시간이 네 집단 중 두 번째로 높고, 어머니와 아버지 학력도 높은 편이었다. 연구대상 전체적으로는 양과 질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음에도 이 집단이 양이 높음에도 질이 낮은 이유는 맞벌이, 어머니 근로소득, 어머니 근무시간이 높은 편이라는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맞벌이와 외벌이 가족과 외벌이 가족의 공동양육 양의 수요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집단이 전체 중에서는 공동양육의 양이 높은 편일지라도 이들 고유의 맥락에서는 충분히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공동양육의 질, 특히 부모 간 비난 수준이 높고 가족 유연성 낮은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반대로 양 낮고 질 높은 집단의 경우 공동양육의 양이 4집단 중 2번째로 적었고, 특히 접근성과 책임성의 아버지 담당 비율이 낮았다. 하지만 이들은 공동양육의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족통합수준이 높고 비난이나 갈등이 적으며 가족의 유연성이 높아 공동양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외벌이가 많고, 어머니의 근로소득과 근무시간이 적었으며, 가구소득은 양과 질 모두 높은 집단에 비해서는 적었고, 양과 질 모두 낮은 집단에 비해서는 많았다. 양과 질 모두 높은 집단에 비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이 높았고, 학력도 높은 편이었다. 이 집단이 양과 질 수준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외벌이가 많고 부모의 학력이 높다는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외벌이는 맞벌이에 비해 양육분담이 어머니 위주였고, 학력이 높을수록 공동양육의 질이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도 맞벌이가 외벌이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 분담률이 높고(김소영, 2016)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예: 온정적 양육태도)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길혜지, 황정원, 2017)

공동양육 양과 질 수준이 불일치하는 위의 두 집단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는, 어머니 근무시간을 범주화한 결과 이들 집단의 어머니들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는 것이다. 파트타임 근무는 표준적인 근무시간대를 가지는

맞벌이 혹은 외벌이 가족에 비해 각 가정의 상황이나 근무일에 따라 특화된 유연하고 유동적인 양육분담 전략을 필요로 한다(Tammelin et al., 2019). 이러한 상황적 요구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가족은 공동양육 양이 낮음에도 질이 높을 수 있고, 이에 어려움을 겪으면 양이 높음에도 질이 낮을 수 있을 것이다.

공동양육 양과 질 간의 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대상 전체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공동양육 양과 질은 하나가 높을수록 다른 하나도 높은 관계가 나타났다. 즉, 양육을 어머니가 전담하여 공동양육의 양이 낮을수록 질이 낮은 것이다. 공동양육의 양이 낮은 것은 질적 영역 중 낮은 가족통합, 가족 유연성과 상관관계가 컸는데, 이는 공동양육 양이 적은 경우 아동에게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며 가족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적으로 어머니가 양육을 주로 담당할 때에 가족통합 수준이 낮고, 특히 가족 유연성이 낮다는 것은 함의하는 바가 크다. 가족체계이론에 의하면 가족은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하면(input) 가족도 따라서 변화하여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output), 이를 위해서는 다양성(variety), 즉 “새로운 환경적 요구를 충족하거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원(p. 150)”이 확보되어야 한다(White et al., 2015), 다시 말해,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변화에 적응할 유연성이 부족한 가족은 환경 변화에 의한 가족 시스템의 불화 혹은 갈등을 경험하기 쉬운 것이다. 그런데 공동양육의 양과 질이 전반적으로는 정적 상관이었지만, 잠재집단 분석 결과 절반 이상의 가구가 상대적인 양과 질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기존 연구의 공동양육, 혹은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제한적인 시각에서 나아가 본 연구와 같이 양육의 양과 질을 포함한 다면적 특성을 동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다면적 특성을 반영하여 각 가구를 실질적인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의 차별적 특성과 요구를 밝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마지막 주요 연구결과는 공동양육 잠재집단과 아동 정서조절 능력 간의 관계이다.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공동양육 질이 낮은 두 집단에 비해 질이 높은 두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즉,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공동양육의 양 보다는 질과 관련이 크다는 것이다.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공동양육 양의 영역에서는 접근성만 유의한 상관이 있었던 데 반해, 공동양육 질의 영역은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양이 높아도 질이 낮은 경우, 양 낮고 질 높은 집단에 비해서도 아동의 정서조절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공동양육(아버지 양육참여) 양과 아동발달 간의 일관된 정적인 영향관계가 나타난 선행연구들(Sarkadi et al., 2008)과 다른 결과로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Rothenberg et al., 2019) 이는 공동양육의 질이 좋은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같이 있지 않을 때에도 자녀가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이는 그 부모가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다른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절대적인 양이 적더라도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 아동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동양육의 질이 좋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합의를 이룬 일관된 양육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동양육의 질이 낮을 경우 부모는 서로에 대해 비난하거나 갈등하는 과정, 혹은 양육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패턴을 노출시키고 이는 자녀에게 비밀관적인 신호로 느껴져 아동이 일관된 규칙을 내면화하기 어렵도록 만든다(Karreman, Van Aken, & Dekovic, 2008). 부모 간 의견이 충돌하고, 비난과 갈등 등의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공동양육이 이루어질 경우 아동은 불확실성을 경험하는데, 정서적 안정 가설(Emotional Security Hypothesis)에 따르면 부모 간 의견 대립이나 갈등이 아동에게 노출되면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각성시켜 정서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아동은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Davis et al., 2002). 따라서 공동양육 질이 낮을 경우 이후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서조절능력은 성공적인 학교적응과 또래관계에서의 유능성을 예측하고 더 나아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주어 환경의 변화를 겪는 학령기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다(박성연, 강지훈, 2005). 이때 공동양육의 질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가족 내로 한정된 상호작용과 관계의 질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줌으로써 아동이 이후 맺게 되는 확장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Morris et al., 2017).

그런데 본 연구에서 공동양육 양에 따른 정서조절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공동양육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기는 어렵다. Fabricius 등(2012)의 모델에서는 양육참여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인과관계 고리(causal chain)에서 ‘양(parenting time)’은 가장 왼쪽 끝에 위치하며, 양을 통해 질(부모의 반응성, 부모-자녀 관계의 정서적 안정성 등)이 높아지고, 이것이 아동발달로 이어지는 관계를 설명하였다. 특히 절대적인 양이 적을 경우, 양과 질의 상관관계가 더욱 커졌으며(Fabricius et al., 2012) 이것이 아동발달로 이어진다. 이는 양육의 질에 대한 중요성은 절대적인 양이 어느정도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양과 질의 선후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 맥락에서의 Fabricius 등(2012)의 이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공동양육의 양과 질의 수준이 다른 네 잠재집단별 특성의 차이는

집단별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개입이 상이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때 집단 간 나타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다면 더욱 현실적이며 집단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개입(differential intervention)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양은 높지만 질이 낮은 집단의 경우 이들의 높은 맞벌이 비율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양적 참여 증진을 일차적인 목표 삼고 이를 통해 공동양육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단계적 개입이 유효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 정서조절 능력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양과 질이 모두 낮은 집단의 경우 양과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의 연령이 높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부모교육이 시급하게 필요한 집단이며, 특히 접근성 영역이 낮았으므로 이에 대한 세분화된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양육기술과 지식에 치중된 아버지 교육보다는 공동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부와 가족 전체의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부부간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태도 측면에서 조율하는 과정과 기술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양과 질이 모두 높은 집단은 아동 정서조절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접근성 영역에서는 아버지의 참여가 부족했는데, 이는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일-가족 양립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동양육의 이질적 하위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국가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한국 가구에 대한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사용한 변수들이 일부 차수에만 수집되어 있어 다양한 시점의 공동양육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아버지 근로 특성과 관련된 많은 변수들(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이 수집되지 않아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동양육이 지금까지 영유아기를 위주로 연구된 점을 미루어볼 때 학령기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학령기 직전 시기의 공동양육을 고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맞벌이와 외벌이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부모의 근로조건에 따라 가정마다 공동양육 맥락이 상당히 상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동양육과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특히 큰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위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포함해 양육의 다면적인 특성을 반영해 아동기 자녀를 키우는 한국 부모의 공동양육의 실재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연구를 확장하고 실천적, 정책적 개입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공동양육의 양과 질에 있어서 가족 내 어머니, 아버지, 자녀의 삼자관계(triadic)를 반영한 잠재집단을 구분하였고, 이때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의 응답을 모두 포함하여 편향이 적은 신뢰로운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최근 아버지 양육을 강조하는 미디어나 가족친화적 제도, 그리고 평등한 성역할인식의 확산 등으로 인해

아버지 양육이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증가하였고(최지은, 김현경, 2019). 아버지 양육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아버지 양육참여 증가를 위한 노력들은 양적인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두 양육자의 “공동양육”이라는 측면에서의 논의나 개입 노력이 부족했으며 특히 공동양육의 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전체의 시스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등 가족 내의 하위시스템은 서로 복잡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Margolin, Gordis, & John, 2001). 특히 공동양육은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관계가 부모 자녀관계 하위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은 부모-자녀 이차관계에서 나아가 공동양육 관계, 양육참여의 양적인 측면에서 나아가 질적인 측면까지 확장된 관점의 연구와 제도적 개입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 강수경, 김해미, & 정미라. (2019).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양육과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9(4), 175-194.
- 고정국, 이정화, & 오영은. (2020).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1), 25-50.
- 길혜지, & 황정원. (201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차이 분석. *육아정책연구*, 11(1), 127-154.
- 김소영. (2016). 미취학자녀를 둔 부부의 무급노동시간 변화와 관련요인: 1999 년-2014 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은혜. (2009). 부부갈등 및 부부공동양육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성연, & 강지훈. (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박익새, & 남은영. (2015).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135-153.
- 박재진. (2015). 부모공동양육 (coparenting) 과 유아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현주. (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1), 121-137.
- 서석원, & 이대균. (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2), 135-158.
- 송민영. (2018).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상호작용, 자녀의 사회적유

- 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0(1), 139-161.
- 안수영, & 이명신. (2020).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정책연구*, 14(1), 3-25.
- 유해미, 김아름, & 김진미. (2015).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영환. (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부모 공동양육의 관점에서. *아동과 권리*, 12(2), 189-210.
- 인구보건복지협회 (2019). 「아빠들이 말하는 육아경험과 의미」 조사 결과 발표. 서울: 인구보건복지협회.
- 유지영. (2014). 아버지 자녀양육의 책임성 (responsibility) 에 관한 연구: 개념, 특성, 항목 구성. *사회복지정책*, 41(4), 19-37.
- 정미라, 이방실, & 박수경. (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 변인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7(2), 449-469.
- 조운진. (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부모역할신념과 어머니 문지기역할, 부부 공동양육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미경, 도현심, 김민정, & 신나나. (2013). 부모공동양육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불안 및 과잉행동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25-39.
- 최지은, & 김현경. (2019).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버지의 신체적·정신적 적응: 생활시간조사와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한 시대, 연령, 코호트 간 차이 분석. *한국사회학*, 53(3), 1-41.
- 한지현. (2018).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부모공동양육 유형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육아정책연구*, 12(2), 83-105.
- 황선실, & 황희숙. (2014).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참여도와의 관계. *인지발달중재학회지*, 5(1), 71-93.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Boyce, W. T., Essex, M. J., Alkon, A., Goldsmith, H. H., Kraemer, H. C., & Kupfer, D. J. (2006). Early father involvement moderates biobehavioral susceptibility to mental health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5(12), 1510-1520.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Cabrera, N. J., Volling, B. L., & Barr, R. (2018). Fathers are parents, too! Widening the lens on parenting for children's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3), 152-157.
- Chang, J. J., Halpern, C. T., & Kaufman, J. S. (2007).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father's involvement, and the trajectories of child problem behaviors in a US national sample.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1(7),

697-703.

- Crockenberg, S. C., & Leerkes, E. M. (2003). Parental acceptance, postpartum depression, and maternal sensitivity: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1), 80.
- Davies, P. T., Harold, G. T., Goeke-Morey, M. C., Cummings, E. M., Shelton, K., Rasi, J. A., & Jenkins, J. M. (2002). Child emotional security and interparental confli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7*(3), 27-41.
- Dubowitz, H., Black, M. M., Cox, C. E., Kerr, M. A., Litrownik, A. J., Radhakrishna, A., ... & Runyan, D. K. (2001). Father involvement and children's functioning at age 6 years: A multisite study. *Child Maltreatment, 6*(4), 300-309.
- Duncombe, M. E., Havighurst, S. S., Holland, K. A., & Frankling, E. J. (2012). The contribution of parenting practices and parent emotion factors in children at risk for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3*(5), 715-733.
- Easterbrooks, M., Raskin, M., & McBrian, S. F. (2014). Father Involvement and Toddlers' Behavior Regulation: Evidence from a High Social Risk Sample. *Fathering: A Journal of Theory, Research & Practice about Men as Fathers, 12*(1).
- Enders, C. K., & Bandalos, D. L. (2001). The relative performance of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missing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8*(3), 430-457.
- Fabricius, W. V., Sokol, K. R., Diaz, Priscila & Braver, S. L. (2012). Parenting time, parent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physical health. *Parenting Plan Evaluations: Applied Research for the Family Court, 188-21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2), 95-131.
- HICHD(2007).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SECCYD) Phase II Data Collection Instruments: 54 months - First Grade. <https://www.nichd.nih.gov> 에서 2020년 7월에 인출.
- Karreman, A., Van Tuijl, C., Van Aken, M. A., & Deković, M. (2008). Parenting, coparenting, and effortful control in preschool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30.
- Lamb, M. E. (1986). *The Changing Roles of Fathers.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NY: Wiley.

- Lamb, M. E. (2000). The history of research on father involvement: An overview. *Marriage & Family Review, 29*(2-3), 23-42.
- Little, T. D. (2013). *Longitud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ress.
- Mandara, J. (2003). The typological approach in child and family psychology: A review of theory, methods, and research.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6*(2), 129-146.
- Margolin, G., Gordis, E. B., & John, R. S. (2001). Coparenting: a link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in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1), 3.
- Masyn, K., Nathan, P., & Little, T. (2013). *The Oxfor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s*. In: Little, T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cHale, J. P. (1997).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36*(2), 183-201.
- Muthén, L. K. & Muthén, B. (1998-2019). *Mplus User's Guide*.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 Morris, A. S., Criss, M. M., Silk, J. S., & Houtberg, B. J. (2017). The impact of parenting on emotion regulation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1*(4), 233-238.
- Nord, C. W., & West, J. (2001). *Fathers' and Mothers'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Schools by Family Type and Resident Status* (NCES 2001-032).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Olson, D. H. (2010). *FACES IV Manual*. Minneapolis: Life Innovations.
- Power, T. G. (2013). Parenting dimensions and styles: a brief history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Childhood Obesity, 9*(s1), S-14.
- Pleck, J. H., & Stueve, J. L. (2001). Time and paternal involvement. In K. Daly (Ed.), *Minding the Time in Family Experience: Emerging Perspectives and Issues* (pp. 205-226). Oxford, UK: Elsevier Science.
- Rothenberg, W. A., Weinstein, A., Dandes, E. A., & Jent, J. F. (2019). Improving child

- emotion regulation: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therapy and emotion socialization strategi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8(3), 720-731.
- Salonen, A. H., Kaunonen, M., Åstedt-Kurki, P., Järvenpää, A. L., Isoaho, H., & Tarkka, M. T. (2009). Parenting self-efficacy after childbirt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11), 2324-2336.
- Sarkadi, A., Kristiansson, R., Oberklaid, F., & Bremberg, S. (2008).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Acta Paediatrica*, 97(2), 153-158.
- Stolz, H. E., Barber, B. K., & Olsen, J. A. (2005). Toward disentangling fathering and mothering: An assessment of relative importa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4), 1076-1092.
- Tammelin, M., Mykkänen, J., Sevón, E., Murtorinne-Lahtinen, M., & Rönkä, A. (2019). Family time negotiations in the context of non-standard work schedules. *Families, Relationships and Societies*, 8(1), 121-136.
- Tein, J. Y., Coxe, S., & Cham, H. (2013). Statistical power to detect the correct number of classes in latent profile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4), 640-657.
- Van Egeren, L. A., & Hawkins, D. P. (2004). Coming to terms with coparenting: Implications of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3), 165-178.
- White, J. M., Klein, D. M., & Martin, T. F. (2015). *Family Theories: An Introduction* (4th ed.). Los Angeles, CA: Sage.

• 교신저자: 최지은,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jieunchoi1123@gmail.com

Characterizing Multidimensional Coparenting Types: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Emotion Regulation Skills of the School-age Children

Jiwon Lee and Jieun Choi

The present study aimed at characterizing multidimensional coparenting profiles based on both quantity (i.e., the division of parenting involvement in terms of accessibility, engagement, responsibility, and discipline), and quality (i.e., the degree of family integrity, disparagement, conflict, and family flexibility) of coparenting. We also examined whether these latent profiles of coparenting differed in terms of socioeconomic factors (i.e., child factors, dual versus single-earner family, parents' working conditions, other parental factors). We further examined whether different coparenting profiles led to variations in emotion regulation skills of school-aged children (age 7-9). Fathers and mothers from 1,038 families from waves 7 to 10 of the Panel Study on Korea Children (PSKC) were analyzed using latent profiles analysis and BCH method in the three-step approach. The results identified four distinctive subgroups of coparenting; the "High quantity-quality group" (n = 191, 18.40%), the "High quantity-Low quality group" (n = 174, 16.76%), the "Low quantity-quality group" (n = 205, 19.75%), and the "Low quantity-High quality group" (n = 468, 45.09%). The "High quantity-quality group" had higher proportions of dual earners, higher levels of mother salaries, and longer mother working hours, while the "Low quantity-quality group" showed lower levels of parental education and household income. The "High quantity-Low quality group" had longer mother working hours, while the "Low quantity-High quality group" had higher proportions of single-earner families. Additionally, children of the two groups with low levels of coparenting quality (i.e., high quantity-low quality and low quantity-low quality) show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emotion regulation skills during

the early years in grade school. By consider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coparenting, this study highlighted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and unique needs of subgroups with distinctive coparenting profile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need to develop support systems that are specific to each subgroup with distinctive coparenting profiles.

- Key words: Coparenting, Father Involvement, Latent Profile Analysis, Emotion Regulation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반영한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집단 간 차이” 토론문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7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동이 만 6세에 부모가 보여준 공동양육의 유형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분석해보고, 이 시기의 공동양육의 유형에 따라 초등 1-3학년 (8-10차 데이터 사용) 시기의 정서조절 능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양육을 단순히 양육 참여의 양으로만 보지 않고 양육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많은 연구에서 연구된 바, 사회성 발달 및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등 (Sarason, 1984) 유아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또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정서조절능력과 관련성 있는 변수로서 공동양육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어,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공동양육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공동양육의 유형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의 목적과 의의에 동의하면서, 연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구체화되어야 하거나, 수정 보완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세분화하여 나타내고, 이를 프로파일화 하는 작업이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프로파일을 통해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의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해석하고, 그룹의 특징이 <그림 1>에서도 잘 표현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측정할 척도 변환 방법에 있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고, 이해가능하나, 공동양육의 양과 질의 점수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양육의 양을 부, 모가 각각 응답한 것을 종합하여, 5점에 가까울수록 어머니가 양육을 더 많이 한 것으로, 1점에 가까울수록 어머니가 양육을 더 많이 한 방향으로 재코딩하였고, 공동양육의 질의 경우, 높은 점수가 5점, 낮은 점수가 1점으로 코딩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경우 어머니의 양

육의 양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버지가 양육을 더 많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림 1> 그래프를 통해 각 집단의 공동양육의 하위 분야들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 있어, 공동양육의 양과 질이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달라, 표 간격 및 의미 해석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그래프에 표현할 때는, 공동양육의 양 또한 공동양육을 많이 할수록 5점, 적을 경우 1점으로 변환하여 보여준다면, 양과 질의 많고 적음의 방향과 정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존에는 공동양육의 양만으로 공동양육을 분석한 연구가 지배적이었지만, 공동양육의 질을 함께 고려하고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유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프로파일 분석으로 나누어진 집단으로 이후 분석이 이루어지고 해석되므로, 각 집단의 특징이 정확히 나타나도록 명명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파일을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각각 높고 낮음으로 하여 네 그룹으로 나누어 ‘공동양육의 양과 질이 모두 높음’, ‘양과 질이 모두 낮음’, ‘양은 높고 질은 낮음’, ‘질은 높고 양은 낮음’으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특히 공동양육의 질과 양의 정도가 집단마다 달라, ‘높음’ ‘낮음’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각각의 그룹의 특징을 담아 명명한다면, 그룹에 대한 이해와 결과 분석에도 용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공동양육의 양을 ‘높고/낮음’으로 표현하는 데에 있어, 그래프 상에서 집단 2와 집단 4는 공동양육의 양의 정도에서 각각 ‘공동양육 양이 높은 집단’, ‘공동양육 양이 낮은 집단’으로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집단 모두 ‘공동양육의 양’이 중간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여지는 특성 그대로 집단 1의 경우 공동양육의 양과 질이 골고루 높고, 집단 3의 경우 양과 질이 골고루 낮지만, 집단 2는 공동양육의 양은 보통이나 공동양육의 질이 높은 집단 등의 특징을 살린다면, 정서조절 능력 결과 해석에서도 집단 2가 높은 정서조절 능력을 보인 결과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공동양육의 잠재집단 분류의 차이, 아동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집단 차이를 검증할 때, 차이 검증의 결과 (F값 등)를 함께 제시하면서, 사후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통계적 결과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공동양육의 유형에 따라 비교하였는데, 공동양육 및 부모행동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의미를 살펴본다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양육에 있어 어머니들의 역할이 여전히 높고, 어머니가 더 큰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질 높은 공동양육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등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직장의 육아지원 제도 개선 등 정부와 많은 기업에서 아버지의 양육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동참하는 가족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에 발맞추어 양육에 있어서, 부모 교육 등에 있어 공동양육의 양 뿐만 아니라 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지원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공동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본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 부모 가정 및 조손 가정 등 양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아 일반적인 공동양육이 어려운 가정의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대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임민영²⁹⁾ 김민정³⁰⁾

요약

본 연구는 유아기 어머니의 허용적, 통제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아동의 그릿(꾸준한 노력, 지속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완전 매개하여 아동의 꾸준한 노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그릿 중 꾸준한 노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부분 매개하여 아동의 지속적 관심에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지속적 관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가 다르며, 아동의 그릿을 발달시키는데 있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그릿,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양육행동, 경로분석

1. 서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학습할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부, 2016). 최근 교육학계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관리 역량과 관련하여 ‘그릿’이라는 성격 특성에 주목하며, 아울러 이를 길러줄 수 있는 학부모의 역할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릿’이란 장기 목표달성에 대한 끈기와 열정(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을 의미한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즉 역경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걸쳐서라도 노력을 지속하는 투지 혹은 끈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릿은 학교 및 직장에서의 성공을 예측하는 결정적 요인이자, 결혼 생활, 삶의 만족감과 같은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Duckworth

29) 서울대학교 유아교육협동과정 박사과정

30)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 Eskreis-Winkler, Duckworth, Shulman, & Beal, 2014; Rojas, 2015; Strayhorn, 2014; Li, Fang, Wang, Sun, & Cheng, 2018). 특히 관련 연구에서 그릿이 학업 성취에서 중요한 성격 특성이자, 지적 재능인 IQ보다 성공을 더 크게 예측하는 변인임이 나타났다(Duckworth et al., 2007). 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 맥락에서도 그릿이 온라인 학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통해(Aparicio, Bacao, & Oliveria, 2017), COVID-19 이후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전례 없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그릿이 성공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릿은 자기 조절(self regulation)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자기조절은 일상생활에서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임에 반해, 그릿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개인의 성격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릿은 크게 꾸준한 노력(perseverance of effort)과 지속적 관심(consistency of interest)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꾸준한 노력은 실패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을 지속하는 회복탄력성 개념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 또한 지속적 관심이란 목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내재적인 동기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장기간 동안 열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Duckworth & Quinn, 2009). 그릿에서 의미하는 지속적 관심은 내재적 동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꾸준하게 노력하는 행동의 동기가 보상과 벌과 같이 외부에 있거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 혹은 대안적 선택에 대한 무지로 인해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와 구분된다(Duckworth et al., 2007). 즉 그릿은 성취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끈기가 내재적인 동기와 결합되어 장기간 동안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그릿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왔으며, 아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취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령기에는 학교생활을 통하여 학업 기술을 포함한 기본적인 문화 및 규범을 습득하며 근면성을 발달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Erikson, 1982), 이 시기의 그릿을 살펴보는 것은 전생애적 발달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그릿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하는 성격 특성임에도 불구하고(Duckworth et al., 2007),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그릿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초·중학생 시기에는 그릿이 증가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학업량과 난이도, 입시 위주의 교육문화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며 점차 그릿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김미숙, 이성희, 백선희, 최예솔, 2015). 즉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학업에 대한 성취, 학업 스트레스 등과 같은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하는 시기이자, 이러한 환경적 변화와 노력에 대한 가치를 습득하는 발달적 요구가 맞물리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

기의 아동에게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일 수 있는 성격 특성의 함양이 요구된다. 따라서 인간 생애에서 그릇의 기초를 수립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그릇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동이 그릇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성격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그릇과 관련된 여러 문헌에서 마인드셋 혹은 목표의식과 같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성격 특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와 교사의 역할 및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며 그릇과 부모 역할의 관계에 대해 간접적으로 설명하였다(Fink, 2013; Goodwin, & Miller, 2013; Olszewski-Kubilius, 2012).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그릇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게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그릇과 관련된 개념인 자기조절, 성취 동기, 회복탄력성 등의 개념들을 통해 그릇에도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서로 신뢰하며 개방적인 가정 분위기와 양육자의 온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이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이 밝혀졌다(정희선, 박성연, 2010; 김영옥, 홍지명, 김세루, 김권일, 2008; 채경진, 유연옥, 2015; Kochanska & Aksan, 1995). 성취동기와 관련된 이론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자기결정성(Deci & Ryan, 1985), 기대-가치(Eccles et al., 1983) 및 목표 지향성(Dweck & Elliott, 1983)이 달라지며, 부모의 권위 있는 양육행동이 자녀의 회복탄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Eisenberg, Chang, Ma, & Huang, 2009)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주양육자의 양육행동이 그릇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그릇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릇과 양육행동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결과가 일부 보고되었다.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릇과 양육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해주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대학생이 된 자녀의 그릇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ward, Nicholosl, & Chesnut, 2019). 또한 자녀의 심리적, 행동적 통제를 하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율성과 자기조절력, 유능성, 학업통제 소재 등 자녀가 스스로 내적인 역량을 갖추어나가는 과정을 제한하여 그릇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war et al., 2019; Shaw, 2017). 반면 중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이 그릇과 정적 상관을 보여(Ma, Ma, & Lan, 2020),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에 대해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소수로 이루어졌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환경과 그릿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또한 제시되었다. 라틴계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이 그릿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권위 있는 양육행동은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용적인 양육행동 및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은 그릿을 설명하지 못했다(Guerrero, Dudovitz, Chung, Dosanjh, & Wong, 2016). 한편 국내 연구 중,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 내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권장하는 환경은 그릿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제적인 가정 분위기는 그릿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미숙 외, 2015). 이렇듯 아직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온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그릿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반면, 통제적 양육 행동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소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Baumrind(1966)의 양육행동 분류에 따른 권위 있는 부모(authoritative parent)란 자녀와 높은 의사소통 수준 및 온정적 양육특성을 보임과 동시에 행동기준 및 규칙에 근거한 통제 및 요구수준 또한 높은 특성을 가진다.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모두 긍정적인 양육의 척도로 간주되지만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소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그릿의 관계에 있어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Maslow(1943)의 욕구의 위계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욕구의 위계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위계를 이루고 있으며,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상위 욕구가 발현될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욕구로, 1단계는 생리적 욕구이며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이다. 3단계인 소속 및 애정의 욕구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욕구로, 특히 어린 시기 일 때는 가정에서부터, 즉 주양육자의 관계에서 충족될 수 있다. 4단계는 존중의 욕구로 자신의 내외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이 욕구가 충족될 때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느낀다. 다시 말하면, 소속 및 애정의 욕구의 충족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및 자아 존중의 경험을 제공한다. 반면,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욕구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여 결핍을 겪으면, 열등감과 무력감과 같은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하위의 욕구들이 충족될 경우, 자기 스스로를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현되는데, 그릿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발현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이 증명되었으며(Pinquart & Gerke, 2019; Singh, 2017),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

과 자아존중감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9; Li et al., 2018).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도 그릿과 유사한 개념인 자기 조절 및 성취동기가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유종남, 오인수, 2015; 정희선, 박성연, 2010; 정희욱, 2003). 따라서 각각의 욕구가 위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그릿이 인과적 경로를 따를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인과적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경로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4년 후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릿은 초등학교 입학 후, 초등학교 4학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중학교 입학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므로(김미숙 외, 2015), 그릿이 상승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시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유아기에서 아동기를 거치면서도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김수정, 광금주, 2013; 황성온, 황지온, 2015), 학령 전기의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가 이후 양육태도의 변화보다 자녀의 학업수행 및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김충일, 권윤정, 2018), 취학 직전의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중요성과 이후 변화의 안정성을 근거로 유아기 어머니 양육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매슬로우의 욕구의 위계이론에 기반을 두고 그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이전 시기이자, 취학 전 연령 이후 시기인 초등학교 2학년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 연구문제1.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적, 통제적)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그릿(꾸준한 노력, 지속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가?
 - 1-1.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적, 통제적)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꾸준한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가?
 - 1-2.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적, 통제적)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지속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가?

II.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가.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조사의 7차(2014년), 9차(2016년), 11차(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시작한 이후

매 해 아동의 성장 발달 과정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7차, 9차, 11차 자료는 만6세,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동에 해당한다. 7차년도(2014년)에 조사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9차년도(2016년)에 조사된 아동의 자아존중감, 11차년도(2018년)에 조사된 아동의 그릿 및 통제변수로 사용된 월평균 가구소득에 모두 응답한 가구 중 어머니와 동거하지 않는 아동을 제외한 1,133 가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아동의 월령,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 및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을 11차년도(2018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133)

대상	내용	구분	N	비율(%)
	성별	남	578	51.0
		여	555	49.0
아동	출생월	4	263	23.2
		5	410	36.2
		6	329	29.0
		7	131	11.6
		출생순위	첫째아	528
		둘째아	477	42.1
		셋째아	118	10.4
		넷째아	008	0.7
		다섯째아	002	0.2
	연령	30세 미만	001	0.1
		30-39세	382	33.7
		40-49세	735	64.9
		50세 이상	015	1.3
어머니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005	0.5
		고등학교 졸업	299	26.4
		2-3년제 대학 졸업	331	29.2
		4년제 대학 졸업	424	37.4
		대학원 졸업	074	6.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33	2.9
		201-400만원	363	32.0
		401-600만원	468	41.3
		601-800만원	184	16.2
		801-1000만원	58	5.1
		1000만원 초과	27	2.4

나.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동한 자료는 조복희와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의 연구(1999)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6문항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온정적 양육행동의 대표문항으로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통제적 양육행동의 대표문항으로는 ‘나는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등이 있다. 어머니는 각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어머니가 문항에 직접 응답하였다.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각 양육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e)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온정적 양육 행동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2이었으며, 통제적 양육 행동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33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2)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동한 자료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아동의 연령에 맞게 5문항으로 축소한 MCS(2008)를 변안한 척도이다. 대표 문항으로는 ‘00(이)는 자신에 대해 만족하니?’, ‘00(이)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등이 있다. 아동은 각 문항을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으며, 면접자의 질문에 아동이 응답하였다.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e)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는 Cronbach's α =.740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3) 아동의 그릿

아동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개발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아동이 학업에 대한 평소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그릿은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 관심 2가지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4문항씩 총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꾸준한 노력에는 ‘00(이)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나니?’ 등이, 지속적 관심에는 ‘00(이)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니?’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면접자의 질문에 아동이 응답하였다. 부정적 문항은 역산 채점하였으며, 총합 점수가 높을

수록 아동의 그림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11차(2018년)의 그림 측정 결과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e)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꾸준한 노력은 Cronbach's α =.613, 지속적 관심은 Cronbach's α =.642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다.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SPSS 22.0(IBM Co., Armonk, NY) 프로그램과 AMOS 20.0(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 등을 산출하였고 연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의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적 양육, 통제적 양육)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그림(꾸준한 노력, 지속적 관심)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와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적 양육, 통제적 양육)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그림(꾸준한 노력, 지속적 관심)의 경로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 모형평가를 위한 적합도 지수로 χ^2 값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χ^2 검증은 검증 모형이 변수 간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기 쉽고, 그 값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유의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송태민, 김계수, 2012), 절대적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상대적합지수인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의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넷째, 경로 간 간접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가.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경로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그림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모두 왜도의 절댓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8 미만으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Kline, 2016).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그림인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 관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유아기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r =.152, p <.0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가 온

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통제적 양육행동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둘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r=.073, p<.05$),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아동의 그릿의 꾸준한 노력($r=.075, p<.05$)과 지속적 관심($r=.092,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유아기에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초등학교 2학년 시기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며,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 관심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유아기의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아동의 그릿 중 꾸준한 노력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077, p<.01$), 아동기 자아존중감 및 그릿 중 지속적 관심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유아기에 어머니가 통제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그릿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넷째,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아동의 그릿 중 꾸준한 노력($r=.175, p<.001$) 및 지속적 관심($r=.177,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꾸준한 노력 및 지속적 관심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그릿은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 관심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169, p<.001$). 즉, 꾸준한 노력 점수가 높은 아동이 지속적 관심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그릿의 상관관계

(N=1,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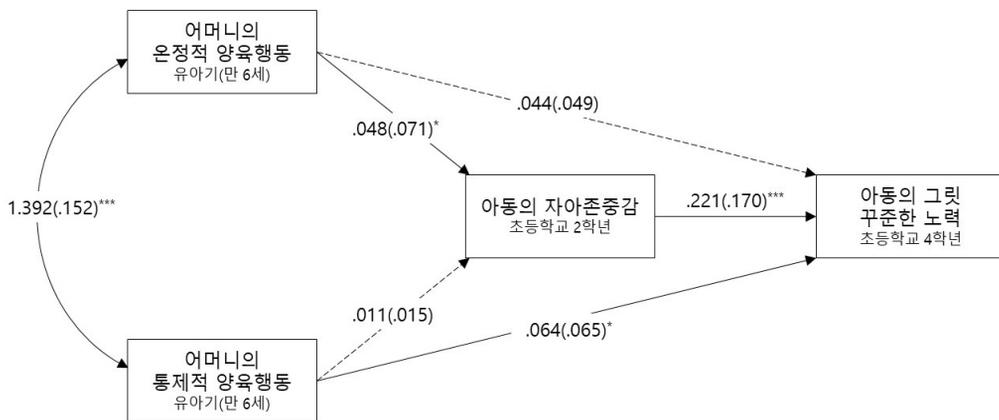
	1	2	3	4	5
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1
2.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152***	1	.	.	.
3. 아동의 자아존중감	.073*	.026	1	.	.
4. 아동의 그릿-꾸준한노력	.075*	.077**	.175***	1	.
5. 아동의 그릿-지속적관심	.092**	.036	.177***	.169***	1
평균	21.777	20.736	17.330	13.713	13.489
표준편차	3.208	2.860	2.173	2.835	2.993
왜도	-.229	-.361	-.906	-.060	-.048
첨도	.695	1.190	.939	.299	-.163

* $p<.05$, ** $p<.01$, *** $p<.001$

나.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그릿 중 꾸준한 노력의 경로모형

아동의 그릿 중 꾸준한 노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095(df=1, p=.758)$, CFI=1.000, TLI=1.119, RMSEA=.000(90% C.I.

=.000~.054)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유아기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아동의 자아존중감($B=.048,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꾸준한 노력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꾸준한 노력에 정적인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B=.221, p<.00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꾸준한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아기의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아동의 꾸준한 노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064, p<.05$). 즉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꾸준한 노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p<.05$, *** $p<.001$

[그림 1] 경로모형(꾸준한 노력)

<표 3> 꾸준한 노력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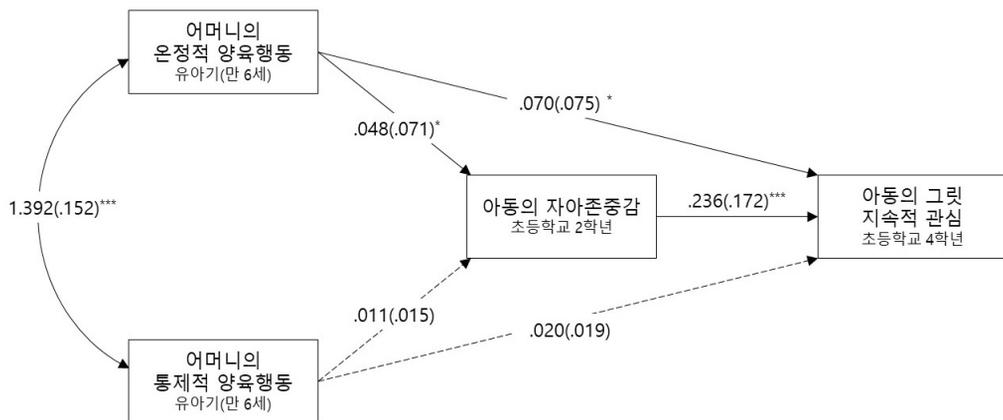
(N=1,133)

경로	B	β	S.E.	C.R.
온정적 양육행동 → 자아존중감	.048*	.071	.020	2.367
통제적 양육행동 → 자아존중감	.011	.015	.023	.497
온정적 양육행동 → 꾸준한 노력	.044	.049	.026	1.662
통제적 양육행동 → 꾸준한 노력	.064*	.065	.029	2.199
자아존중감 → 꾸준한 노력	.221***	.170	.038	5.815

* $p<.05$, *** $p<.001$

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그릿 중 지속적 관심의 경로모형

아동의 그릿 중 지속적 관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095(df=1, p=.758)$, CFI=1.000, TLI=1.011, RMSEA=.000(90% C.I.=.000~.054)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4>과 같다. 만 6세 시기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만 8세 시기의 아동의 자아존중감($B=.048, p<.05$)과 만 10세 시기의 지속적 관심($B=.070, p<.05$)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만 8세 시기의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만 10세 시기의 꾸준한 노력에 정적인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B=.236, p<.00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지속적 관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침이 드러났다. 한편, 만 6세 시기의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만 8세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만 10세 시기 아동의 지속적 관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p<.05$, *** $p<.001$

[그림 2] 경로 모형(지속적 관심)

<표 4> 지속적 관심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N=1,133)

경로	B	β	S.E.	C.R.
온정적 양육행동 → 자아존중감	.048*	.071	.020	2.367
통제적 양육행동 → 자아존중감	.011	.015	.023	.497
온정적 양육행동 → 지속적 관심	.070*	.075	.028	2.531
통제적 양육행동 → 지속적 관심	.020	.019	.031	.659
자아존중감 → 지속적 관심	.236***	.172	.040	5.870

* $p<.05$, *** $p<.001$

라. 부트스트래핑

본 연구결과 중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꾸준한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이 0.002, 상한값은 0.024이고,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지속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이 0.002, 상한값은 0.023으로,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부트스트래핑 추정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온정적 양육행동 →자아존중감→꾸준한 노력	0.002	0.024
온정적 양육행동 →자아존중감→지속적 관심	0.002	0.023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7, 9, 11차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유아기 어머니 양육행동, 초등학교 2학년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아동의 그릿인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 관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아동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와 관련하여, 유아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지속적 관심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유아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꾸준한 노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유아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그릿 중 지속적 관심에 영향을 미친 직접 경로는 가족 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자율성을 지지해주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Howard et al., 2019; 김미숙 외, 2015). 어머니의 지지적인 의사소통은 자녀가 상이나 벌과 같은 외재적 동기가 아닌 내재적 동기를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학습 과정 속에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한다(Froiland,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하나의 목표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하는 능력은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길러질 수 있으며, 유아기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이후 학령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

을 미침이 밝혀졌다.

한편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서 유아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그릿 중 꾸준한 노력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꾸준한 노력이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양육자의 온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 및 개방적 의사소통이 꾸준한 노력과 비슷한 속성인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정희선, 박성연, 2010; 김영옥 외, 2008; 채경진, 유연옥, 2015; Kochanska & Aksan, 199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로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꾸준한 노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그릿 중 꾸준한 노력이 하위목표에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상위목표를 성취하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특징(Duckworth & Gross, 2014)이라는 점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을 꾸준히 계획하고 실천하는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제한적이지만, 자신의 성취에 있어서 역경을 극복하는 태도에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그릿 중 꾸준한 노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직접 경로는 학업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부모가 학업에 대한 기대와 학습에 대한 비계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이 꾸준히 학습을 지속하고 목표를 완수하는 학습 습관을 기르려는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와 학업에 대하여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중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그릿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Ma et al., 2020). 또한 유아의 높은 수준의 규칙을 준수하고 주의집중이 필요한 학습 준비도에 있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민미희, 2017). 즉 학업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에게 규칙을 제공하며 한계를 설정해준다는 관점에서의 부모의 통제가 자녀에게 타율적인 동기로 작용하고, 이를 아동이 내재화할 때, 그릿 중 꾸준한 노력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Baumrind, 1967; Ryan & Deci, 2000). 그러나 부모의 지나친 통제는 오히려 아동의 성취를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Aunola & Kurmi, 2004) 및 엄격하고 지시적인 가정 분위기는 그릿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늘어나는 학업량으로 인하여 그릿이 감소하는 현상 등을 고려하여(김미숙 외, 2015),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아동의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을 기반으로 이후 존중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

고 발현시킬 수 있다는 Maslow(1943)의 욕구의 위계이론 관점을 지지한다. 즉 부모가 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지 않을 경우, 자아존중감과 같은 아동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릇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동은 자녀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율적으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내적 동기를 기를 수 있게 한다(이선형, 최자은, 2019). 다시 말하면, 아동은 가정에서 소속 및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 자신의 내면적 가치에 대한 존중의 욕구를 채워나가며, 최종적으로 자아실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그릇과 같은 성격 특성을 발달시켜갈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그릇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꾸준한 노력에는 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그릇 중 지속적 관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는 어머니의 통제가 노력하는 행동적 자세를 길러줄 수는 있지만,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욕구와 내적 동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서로 다른 기제를 통해 아동의 그릇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년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유아기 어머니 양육행동,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그릇 변수를 활용하여 각 변수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개인 내적 요인들의 종단적 변화 및 변수 간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환경과 개인적 요인이 그릇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부터 아동 초기까지 아동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주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살펴보았으나,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아버지와 형제 같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및 학습 환경에서의 주요 관계적 대상인 또래와 교사의 영향력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환경적 요인을 다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보다 실천적인 어머니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열, 부모의 관심, 학부모 참여, 사교육과 같은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 등을 살펴보면 더욱 구체적인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기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그릇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 특성 상, 아직 학업 성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양육행동 및 그릿이 학업 성취로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자료가 더욱 축적된 이후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이 아동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역할을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기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세 변인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그릿의 서로 다른 속성인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 관심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그릿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침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학습 습관, 생활 습관 등 자기관리 역량을 길러나가고 그릿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세종: 교육부.
- 김미숙, 이성희, 백선희, 최예솔. (2015). 초·중·고 학생의 그릿 (GRIT)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및 성별·학년별 특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 297-322.
- 김수정, 박금주 (2013). 3세부터 7세까지 어머니의 애정/온정적 양육태도의 변화가 아동의 학교 적응에 주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1-19.
- 김영옥, 홍지명, 김세루, 김권일. (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205-228.
- 김충일, 권윤정. (2018).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 변화궤적이 학령전기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학업수행능력,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7(3), 207-221.
- 김희명, 황태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 (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 63-74.
- 민미희. (2017).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및 통제적 양육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4), 97-117.
- 송태민, 김계수. (2012). 보건복지연구를 위한 구조방정식모형.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유종남, 오인수. (201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6(2), 79-103.
- 이선형, 최자은. (2019). 학령기 아동의 그릿, 성장 마인드셋, 기본심리욕구,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3), 155-168.
- 정희선, 박성연. (2010).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 31(1).
- 정희옥. (2003). 초·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와의 관계: 전남지역을

-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0(4), 443-458.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10), 123-133.
- 채경진, 유연옥. (2015). 유아의 활동성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7(1), 19-34.
- 황성온, 황지은. (2015).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 간의 인과적 종단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6(4), 163-176.
- Aparicio, M., Bacao, F., & Oliveira, T. (2017). GRIT in the path to e-learning succ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6, 388-399.
- Aunola, K., & Nurmi, J. (2004). Maternal affection moderates the impact of psychological control on a child's mathematical perform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0, 965-978.
- Baumrind, D. (1966).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887-907.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uckworth, A., & Gross, J. J. (2014). Self-control and GRIT: Related but separable determinants of succ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19-325.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Eccles, J. S., Adler, T. F., Futterman, R., Goff, S. B., Kaczala, C. M., Meece, J. L., & Midgley, C. (1983). Expectancies, values, and academic behaviors. in jt spence (ed.), *Achievement and achievement motivation* (pp. 75-146).
- Eisenberg, N., Chang, L., Ma, Y., & Huang, X. (2009). Relations of parenting style to Chinese children's effortful control, ego resilience, and mal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2), 455-477.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 W.
- Eskreis-Winkler, L., Duckworth, A. L., Shulman, E. P., & Beal, S. (2014). The GRIT effect: Predicting retention in the military, the workplace, school and marriage. *Frontiers in psychology*, 5, 36.
- Fink, J. L. (2013). True GRIT: 10 tips for promoting strength, resilience, and perseverance among your students. *Scholastic Instructor*, 26-31.

- Froiland, J. M. (2011).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student learning goals: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an intrinsic motivation intervention. *Child & youth care forum, 40*(2), 135-149.
- Goodwin, B., & Miller, K. (2013). GRIT+talent= student success. *Educational Leadership, 71*(1), 74-76.
- Guerrero, L. R., Dudovitz, R., Chung, P. J., Dosanjh, K. K., & Wong, M. D. (2016). GRIT: A potential protective factor against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behaviors among Latino adolescents. *Academic pediatrics, 16*(3), 275-281.
- Howard, J. M., Nicholson, B. C., & Chesnut, S. R. (2019). Relationships between positive parenting, overparenting, GRIT, and academic succ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60*(2), 189-202.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n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1), 236-254.
- Lee, C. S., Park, J. Y., Raj, P. P., Gautam, U., Denis, N. M., & Adhikari, S. (2019). Human Rights Damage and Self-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and GRI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6), 51-57.
- Li, J., Fang, M., Wang, W., Sun, G., & Cheng, Z. (2018). The influence of GRIT on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s a mediator. *Psychologica Belgica, 58*(1), 51.
- Ma, C., Ma, Y., & Lan, X. (2020).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Identity and GRIT i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in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Frontiers in Psychology, 11*.
- Maslow, A. H. (1943). Preface to motivation theory. *Psychosomatic medicine*.
- MCS (2008).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https://cls.ucl.ac.uk/wp-content/uploads/2018/08/Guide-to-Psychological-Inventories-in-MCS3.pdf>에서 2020년 7월 27일 인출
- Olszewski-Kubilius, P. (2012). True GRIT: Some new perspectives on motivation and persistence. *Parenting for High Potential, 2*(1), 2.
- Pinquart, M., & Gerke, D. C. (2019). Associations of parenting styles with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19*.
- Rojas, J. P. (2015). The relationships among creativity, GRIT, academic motivation, and academic success in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entucky.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52), 18.

Shaw, K. (2017). *Hovering or Supporting: Do Parenting Behaviors Affect Their College-Offspring's Perseverance?*(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ami University.

Singh, S. (2017). Parenting style in relation to children's mental health and self-esteem: A review of literature. *Indian Journal Of Health & Wellbeing*, 8(12).

Strayhorn, T. L. (2014). What role does GRIT play in the academic success of black male collegians at predominantly White institutions?. *Journal of African American Studies*, 18(1), 1-10.

- 교신저자: 김민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mjkk6074@naver.com

Abstract

Longitudinal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on the GRIT of School-age Children :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Self-esteem

Min Yeong Lim and Min Jeong Kim

This study conducted a path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ther's warmth/control parenting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on the child's GRIT (perseverance of effort, consistency of interest) in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by mediating the child's self-esteem in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ternal warmth influenced the child's perseverance of efforts by fully mediating the child's self-esteem, and maternal control directly affected the child's perseverance of effort. Second, maternal warmth partially mediated the child's self-esteem, affecting the child's consistency of interest, and the maternal control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child's consistency of interest. This study has been discovered that mother's warmth and control parenting behaviors have different mechanisms that affect the child's GRIT.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parents in improving children's GRIT.

• Key words: GRIT, Self-esteem, Parenting behaviors, Path analysis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그림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유림(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연구자께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초등학교 아동의 그림 발달에 대한 경로에 대한 명쾌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측정시기의 시차를 두고 유아기,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시기를 구분하여 경로에 대한 인과관계의 정보를 제공한 점은 연구의 강점으로 볼 수 있다.

더 발전된 논문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변인 중심접근법을 적용하였는데, 구체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상중심접근법을 적용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온정만 높고 집단, 온정과 통제 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 통제만 높은 집단과 온정과 통제 모두 높은 집단을 구분하여 네 집단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및 그림의 초기값뿐만 아니라 변화량을 함께 고려한다면 종단 자료가 주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그림의 꾸준한 노력 및 지속적 관심은 mindset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꾸준한 노력을 하는 아동은 고정된 자아관 보다는 성장하는 자아관을 갖고 있는 아동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결과를 보다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그림의 두 가지 하위영역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꾸준한 노력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지속적 관심에는 이러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않는 점은 흥미로운 연구결과이다. 즉 아동의 노력은 어머니의 통제적 힘이 작용할 수 있으나 아동의 지속적 관심은 외부의 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추기적인 논의를 제안해본다.

다섯째, 연구자가 제시한대로 그림은 자기조절, 회복탄력성 등과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이다. 그림이라는 심리적 개념이 이러한 변인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포함한 보다 분명한 개념이 정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연구결과를 보면 문화 맥락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서양과

다르게 중국과 한국과 같은 동양문화에서는 부모의 양육 개입을 당연히 여기고 학업성취를 중요시 여기며, 노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노력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릿에 대한 연구는 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그릿은 서양에서 연구된 심리적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어떻게 접목되고 이해될 수 있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세션3 양육

양육 2

좌장: 박주희(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1. 잠재전이모형을 적용한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 및 영향요인 검증

연구진: 홍예지(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

토론자: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2. 맞벌이 가구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와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연구진: 강미선(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정인혜(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송시영(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토론자: 배윤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3.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의 전이와 부모, 교사의 예측요인 검증

연구진: 장희선(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토론자: 도미향(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잠재전이모형을 적용한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 및 영향요인 검증

홍예지³¹⁾

요약

이 연구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기일 때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을 구분하고, 두 시점 및 전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8차와 11차 데이터에서 취업중임을 보고한 400명의 어머니의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은 '혼재형'과 '균형형'으로, 4학년 시기에는 '갈등형', '혼재형', '고균형형', '저균형형'과 '균형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유형의 전이 양상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혼재형'의 55.2%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저균형형'으로 가장 많이 전이되었고, '균형형'의 48.7%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고균형형'으로 가장 많이 전이되었다. 셋째,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주관적 행복감과 부부 갈등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부부 갈등과 사회적 지원이 유형 구분에 영향을 미쳤고, 전이에는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원이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언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취업모, 일-가정 이점과 갈등, 잠재전이분석

1.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전국의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전년대비 1.7% 상승해 2018년 기준 46.3%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19).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기혼 취업여성의 직장상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역할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38.2%는 육아 38.2%, 결혼 30.7%, 임신 및 출산 22.6% 등으로 경력단절의 경험이 있으며(통계청, 2019), 이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다중역할의 요구에 따른 부담이 기혼 취업여성의 적극적인 노동 시장의 참여를 방해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 42.1%보다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여긴다는 응답이 44.2%로 더 높았다(통계

3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

청, 2019).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평균 1.68명은 물론 초저출산 기준인 1.3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20). 저출산의 문제는 자녀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의 출산 기피에 기인한 것으로 일과 가정에서의 양립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Greenhaus & Beutell, 1985). 이에 기혼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현상과 출산기피현상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에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work-family balance)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균형있게 수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갈등이 최소한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Marks & MacDermind, 1996). 보육서비스 제공,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유연 근무제, 가족돌봄 휴직 제도와 같은 취업모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에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들이 이러한 정책을 각 가정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균형있게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자녀를 둔 기혼 취업여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일과 가정은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점차 일과 가정이 상호작용하여 개인과 조직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Michel et al., 2011). 관련하여 전이이론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상호 유기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한 영역의 참여로 인한 경험이나 활동이 다른 영역으로 전이(spill over)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다고 하였다(Michel et al., 2011). 특히 두 영역에서의 역할이 상충될 때 일과 가정에서의 갈등이 발생하는 데(Greenhaus & Beutell, 1985), 이는 개인이 다중 역할의 수행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또는 시간적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필연적인 과부하, 긴장 및 갈등을 유발한다는 자원소모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Edwards & Rothbard, 2000).

대부분의 연구가 개인이 다중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과 가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갈등을 중심으로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횡단적 연구방법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한계가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장기적 경향성을 파악한 연구로는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가 급감소집단, 하위유지집단 및 완만한 증가집단으로 구분되며, 양육스트레스, 우울, 부부갈등이 이들의 잠재집단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홍예지와 이강이(2020)의 연구, 미취학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소효종(2019)의 연구가 있다. 이처럼 종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소수 존재하지만 일-가정 갈등의 단일 차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가족의 생활패턴과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가족 생활 사건이다(정정화, 홍예지, 이강이, 2019). 자녀 양육과 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이 가정 내 어머니에게 집중된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이미경, 2002), 자녀의 본격적인 학령기 진입 이후, 어머니가 경험하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직무불만족 또는 생산성 저하 등 소속 조직 내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준기, 양지숙, 2012). 그러나 학령초기 자녀를 둔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확인한 연구(장윤옥, 정서린, 2014; 정선이 외, 2019; Brisbois, 2002; Grzywacz, Almedia, & McDonald, 2005)는 대부분 아동의 발달에 초점을 두거나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배우자와의 가정생활 또는 관계적 측면을 살펴보았다는 데 한계가 있다.

자녀의 학령초기를 경험하는 취업모는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을 느끼고, 학교생활이나 학업지도에 대한 정보의 요구 등 추가적으로 부가된 주 양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역할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시기는 기혼 취업여성에게 일-가정 양립을 유지하기에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기와 고학년으로 접어들기 전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형화 되는지 각 시기별로 확인하고, 전이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 및 갈등의 시기별 유형과 전이에 미치는 다양한 주변의 맥락적 요인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과 가정에서의 양립의 어려움은 그들이 처한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개인, 가정 및 사회적 맥락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인이 이들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점과 4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브론펜브레너의 생물생태학적 체계 이론(bioecological systems theory)(Bronfenbrenner & Morris, 2006)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각 시기별 유형과 전이에 미치는 개인 요인은 심리정서적 건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울, 역할의 질,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행복감 등으로 구성되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긍정적일수록 이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병행에 따른 어려움과 갈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이 되고, 반대로 부정적일 경우에는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되는 역할 간 어려움과 갈등을 높이는 추가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홍예지, 이강이, 2020). 따라서 다양한 요인 중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개인요인으로 상정하여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점의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과 시점 간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로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부분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자아의 표상이다(Blascovich & Tomaka, 1991). 개인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수용가능하며, 스스로 가치 있음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Rosenberg, 1989). 선행연구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불만족과 관련이 있으며(Culp & Beach, 1993), 직무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Lee, Joo, & Choi, 2013). 이처럼 자아존중감이 취업모가 경험하는 직장과 가정 영역에서의 다양한 문제적, 스트레스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의 갈등의 변화 유형에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 연구(홍예지, 이강이, 2020) 등 혼재된 결과가 존재한다.

또한 행복감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며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주관적인 문제로서 정서적, 인지적 활동의 산물이다(고은현, 이성, 2014). 즉, 행복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으로 주관적 평가라 할 수 있다(김경미, 계선자, 2018). 이에 취업모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행복감은 직장과 가정의 두 영역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야 도달 가능할 것으로 일-가정 양립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라 볼 수 있다. 관련하여 선행연구(박은희 외, 2019; Greenhaus, Collins, Shaw, 2003; Lee & Lee, 2010)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이 주관적 행복감과 부적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의 균형적인 상태에 이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나아가 취업모의 직장과 가정에서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는 가장 일차적인 집단인 가정에서의 배려와 지지가 필수적일 것이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가정 내에서 지각하는 심리적 상태는 가족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Kanner et al., 1981). 가정 내 지원과 지지가 낮다고 인식할 때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의 수준이 높고, 직무 만족도 역시 낮음을 알 수 있다(Abendroth & den Dulk, 2011; 손영빈, 최은영, 2009).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정에서 배우자의 지지는 취업모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을 완화해줌으로써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Michel et al., 2011), 배우자의 만족스러운 가사 도움은 취업 여성의 일-가정 갈등을 낮춘다(장영은 외, 2011). 또한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부부 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이 하위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집단보다 완만히 증가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홍예지, 이강이, 2020). 이에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가정 내에서 지각하는 부부 갈등이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은 기혼 취업여성이 직장과 가정 영역에서 조화롭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물질적, 정신적, 인적 자원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며(김준기, 양지숙, 2012), 지역사회 내 양육환경 적절성, 교육서비스

제공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 역시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 갈등을 낮춘다(김소영, 2017, 김준기, 양지숙, 2012; 소효종, 2019; 송다영, 장수정, 김은지, 2010). 그러나 사회적 지원이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변화의 잠재집단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홍예지와 이강이(2020)의 연구도 존재한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 내 자녀의 연령과 취업모가 지각하는 사회 환경의 범위에 따른 지원과 지지가 이들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으므로 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서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사회적 지원과 지역 양육환경의 적절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Hong과 Lee(2019)는 취업모가 지각하는 지역사회 내 적절한 시설 제공 및 양육환경 적절성은 취업모의 긍정적인 가족 기능과 유의한 관련이 없지만 사회적지지 즉,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및 정보적 지지는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이를 확장하여 지역 양육환경 적절성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병행하는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역할 갈등에서 오는 심리적 역기능을 보호하는 완충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종합하자면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의 시점과 이후 3년의 시간이 흘러 취업모가 직장과 가정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예상되는 시점에 이들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을 확인하고, 시점 간 전이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각 시기 별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각 유형 및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은 각각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에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으로 전이 양상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각 유형 및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8차 년도(2015년)와 11차 년도(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아동 및 가족의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매년 추적 조사하고 있다. 이 연구

에서는 8차 년도부터 11차 년도까지 계속 취업 중이라고 응답하고, 결혼 상태를 사별(1명), 이혼(11명) 및 별거(1명)로 보고한 14명을 제외하여 초혼 또는 재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어머니 400명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8차 년도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5-92개월에 해당하는 학령기 자녀의 평균 월령은 87.99($SD = 1.53$)개월이며 성별은 남아가 197(49.3%)명, 여아가 203(50.7%)명이었다. 출생 순위는 둘째가 4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첫째 42.1%, 셋째 이후 10.6%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8.28($SD = 3.50$)세이며, 교육수준은 대졸이 43.3%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이 28.0%, 고졸 19.0%, 대학원졸 9.0%, 중졸 이하 .8% 순이다. 어머니의 결혼 상태는 초혼이 99.0%, 재혼이 1.0%에 해당한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원 이하 7.0%,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51.6%, 5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27.8%, 7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1.8%, 1000만원 초과 1.7%에 해당하였다.

2. 주요 변인

가. 일-가정 이점과 갈등

어머니가 지각한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은 Marshall과 Barnett(1993)의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일-가족 이점, 일-양육 이점, 일-가족 갈등 및 일-양육 갈등의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측정되었다. 일-가족 이점은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등 7문항, 일-양육 이점은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등 4문항, 일-가족 갈등은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9문항으로 구성되며, 일-양육 갈등은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된다.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일과 가정생활 및 양육을 양립하는데서 느끼는 이점과 갈등이 각각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차 년도 .83, 11차 년도 .82다.

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89)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

항은 역채점한 후,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짐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차 년도 .90, 11차 년도 .88이다.

다. 주관적 행복감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며,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7점 Likert 척도(아주 불행한 사람이다/매우행복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1점~아주 행복함 사람이다/매우 행복하다/매우 그렇다:7점)로 측정되었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채점한 후,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차 년도 .88, 11차 년도 .91이다.

라. 부부갈등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의 부부갈등 척도를 정현숙(2004)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등의 총 8문항으로 구성되며,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차 년도 .92, 11차 년도 .93이다.

마. 사회적 지원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원은 이재림(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사교적지지 및 정보적 지지의 4개 하위요인, 총 13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요인 별 문항의 예시는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와 같다.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차 년도 .93, 11차 년도 .95다.

바. 지역 양육환경의 적절성

어머니가 지각하는 지역 양육환경의 적절성은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문항 개발 후 전문가 검토를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다', '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며,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거주하는 해당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적절함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차 년도 .71, 11차 년도 .74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을 확인하고, 각 시점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 및 전이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전이분석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두 시점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분석된 잠재계층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둔 분석 방법이다(Collins & Lanza, 2010).

잠재전이분석에서는 시점에 따라 개인이 속하는 잠재계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t 시점에서 특정 잠재계층에 속한 개인이 $t+1$ 시점에는 다른 잠재계층으로 전이될 확률을 추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법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공변인(covariates)을 포함한 혼합모형(mixture model)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3단계 추정방법(three-step approach)을 사용하였다. 이는 모든 시점의 측정 변수와 공변인을 포함하여 잠재전이분석을 한 번에 실시할 경우, 공변인에 따라 잠재계층이 변화하여 측정변수의 응답으로부터 잠재계층이 적절히 도출되지 못하는 1단계 추정방법(one-step approach)을 보완한 것이다(Asparouhov & Muthén, 2014). 잠재전이분석의 3단계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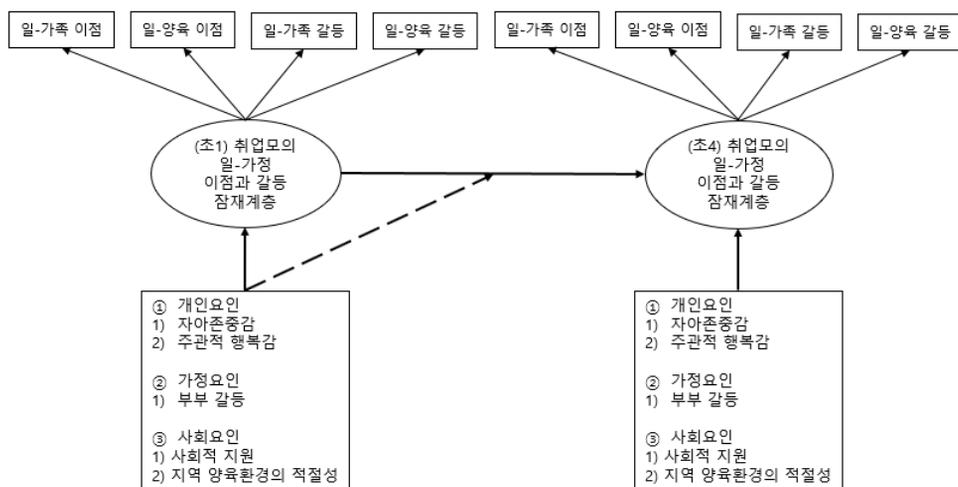
1단계에서는 잠재계층분석을 적용하여 각 시점에 가장 적절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한다. 2단계에서는 계산된 사후확률에 따라 개인에게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 잠재계층을 할당하도록 하며 이때 할당된 잠재계층은 명목형 변수로 일종의 확률 값이다. 즉, 개인이 실제 할당된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분류에 따른 오류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의 잠재계층 분류 시 생기는 오류를 고정한 상태에서 할당된 명목변수를 잠재계층에 대한 측정변수로 사용해 두 시점에서의 잠재계층분석을 결합하여 최종모형을 분석하게 된다. 나아가 공변인을 포함하는 잠재전이분석의 경우, 3단계의 결합된 모형에 공변인을 투입하여 효과를 검증한다. 이때 각 잠재계층과 잠재계층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은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한다.

각 시점에서 최적의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준거지수, 분류의 질 및 모형 비교 검증의 통계적 기준과 더불어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정보준거지수는 AIC, BIC, sABIC를 이용하였으며, 세 개의 정보지수 모두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 분류의 질은 Entropy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하나의 잠재 집단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고, 다른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값이 증가하는데 대략 0.8이상이면 분류의 질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Muthén, 2004). 다음으로 경쟁모형과 상대적 적합을 통계적 검증으로 확인하는 조정된 χ^2 차이검증 즉, LMR(Lo, Mendell, & Rubin, 2001)과 BLRT(McLachlan & Peel, 2000)을 살펴보았다. 두 검증 모두 잠재계층이 k개인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잠재계층이 k-1개인 모형이 기각되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p값의 유의도를 통해 확인하는데, p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k-1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하다면 k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한다(Lo, Mendell, & Rubin, 2001).

또한 공변인을 포함한 혼합모형분석에서는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분석에 포함되지 못하고 제거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변인에 존재하는 결측치를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이는 원자료의 분포를 대표할 수 있는 분포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값을 산출하여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인데 하나의 값으로 대체했을 때 생기는 분산의 과소추정 문제를 보완하고, 추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장점이 있다(Schafer, 1997).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기일 때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을 구분하고, 두 시점 간 전이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각 시점에서 구분된 유형에 대한 취업모의 개인, 가정 및 사회요인의 영향(실선)과 시점 간 전이에 영향(점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분석을 위해 Mplus 8.0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보다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은 높았고, 갈등은 낮았으며 이 밖에 영향 요인으로 상정한 취업모의 개인, 가정 및 사회요인 중 사회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8차의 평균이 11차보다 높았다. 연구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적절한 값을 보여(왜도<2, 첨도<4), 본 자료가 다변량정규성을 충족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유형화를 위해 사용한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화 지표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은 8차와 11차 간에 8차 일-가족 이점과 11차 일-가족 갈등 및 일-양육 갈등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r = -.38 \sim .80, p < .05, p < .001$).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변인	N	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일-가족 이점 8차	400	1.86-5.00	3.78	.55	-.37	1.06
일-양육 이점 8차	400	1.50-5.00	3.48	.62	-.30	.27
일-가족 갈등 8차	400	1.00-4.78	2.69	.70	-.07	-.28
일-양육 갈등 8차	400	1.00-5.00	2.78	.69	-.07	-.13
일-가족 이점 11차	400	1.86-5.00	3.81	.61	-.41	.41
일-양육 이점 11차	400	1.75-5.00	3.65	.63	-.31	.30
일-가족 갈등 11차	400	1.00-4.22	2.36	.73	.31	-.44
일-양육 갈등 11차	400	1.00-4.50	2.51	.75	.15	-.51
자아존중감 8차	394	1.60-5.00	3.89	.57	-.40	.13
자아존중감 11차	391	2.20-5.00	3.85	.56	-.36	-.06
행복감 8차	394	1.50-7.00	5.92	1.03	-.43	-.11
행복감 11차	392	2.00-7.00	5.81	.97	-.44	-.06
부부갈등 8차	394	1.00-4.88	2.09	.83	.75	.11
부부갈등 11차	391	1.00-4.88	2.06	.83	.83	.51
사회적 지원 8차	400	1.85-5.00	3.91	.56	-.13	.35
사회적 지원 11차	400	1.00-5.00	3.94	.62	-.84	2.10
지역 양육환경의 적절성 8차	394	1.00-4.50	3.17	.52	-.33	1.44
지역 양육환경의 적절성 11차	400	1.00-4.75	3.41	.55	-.21	.62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1							
2	.50***	1						
3	-.31***	-.26***	1					
4	-.26***	-.21***	.75***	1				
5	.30***	.24***	-.18***	-.11*	1			
6	.23***	.26***	-.24***	-.20***	.58***	1		
7	-.09	-.12*	.34***	.22***	-.38***	-.36***	1	
8	-.07	-.12*	.29	.30***	-.33***	-.35***	.80***	1

주. 1 = 일-가족 이점 8차, 2 = 일-양육 이점 8차, 3 = 일-가족 갈등 8차, 4 = 일-양육 갈등 8차, 5 = 일-가족 이점 11차, 6 = 일-양육 이점 11차, 7 = 일-가족 갈등 11차, 8 = 일-양육 갈등 11차

* $p < .05$, *** $p < .001$

2. 시점별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을 유형화하기 위해 시점별 잠재계층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잠재계층의 수가 2개에서 3개로 증가할 때 정보지수 즉, AIC, BIC 및 sABIC값이 감소하였다. 잠재계층의 수가 2개일 때보다 3개일 때 Entropy값이 조금 더 높았고, 모형 간 비교검증 결과인 LMR과 BLRT는 잠재집단의 수를 3개까지 증가시켜도 계속 유의하였다. 이에 잠재계층의 수가 2개와 3개가 모두 가능하지만 3개일 때에는 이후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할 경우 추정에 실패하였고, 2개일 때 계층별 이질성을 더 잘 설명한다고 판단하여 잠재계층의 수는 2개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즉, 제시된 통계적 기준만으로 잠재계층 구분의 정확성을 판단하기에 모호하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해석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를 선택해야할 필요(McCrae, Chapman, & Christ, 2006)에 따라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일 때 잠재계층의 수는 2개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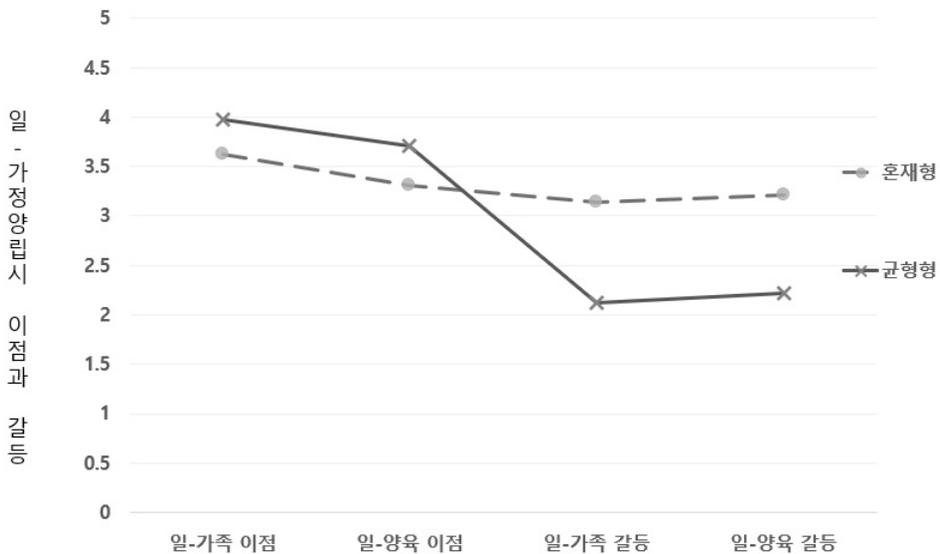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잠재계층의 수가 2개일 때부터 하나씩 증가할 때 정보지수 즉, AIC, BIC 및 sABIC값이 감소하였고, Entropy 값은 모든 잠재계층의 수가 4개 이후부터 양호한 분류의 질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BLRT는 잠재계층의 수를 6개까지 증가시켜도 계속 유의하였으며, LMR은 4개일 경우부터는 유의하지 않았다. 통계적 기준에 더불어 각 잠재계층을 구성하는 개인의 수가 전체 표본 수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잠재계층 분류율 기준(Jung & Wickrama, 2008)에 따라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일 때 잠재계층의 수는 5개가 가장 적절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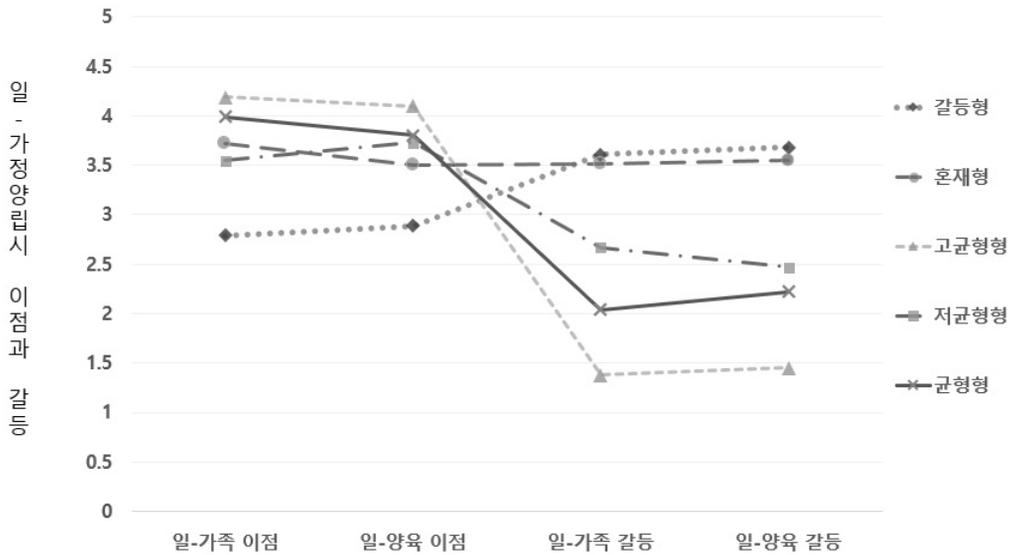
〈표 3〉 잠재계층별 모형적합도 지수

잠재계층 수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 간 비교검증	
	AIC	BIC	sABIC	Entropy	LMR	BLRT
1학년						
2	2859.846	2911.735	2870.485	.813	$p < .001$	$p < .001$
3	2749.973	2821.820	2764.704	.817	$p < .05$	$p < .001$
4학년						
2	2870.898	2891.573	2856.689	.785	$p < .001$	$p < .001$
3	2815.672	2887.519	2830.404	.777	$p < .05$	$p < .001$
4	2781.856	2873.660	2800.679	.805	$p > .05$	$p < .001$
5	2673.677	2805.438	2746.592	.810	$p > .05$	$p < .001$
6	2664.486	2796.204	2691.493	.804	$p > .05$	$p < .001$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유형별 형태는 [그림 2],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의 유형별 형태는 [그림 3]과 같으며, 각각 분류된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별 특성은 〈표 4〉와 같다.



[그림 2]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



[그림 2]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일 때 첫 번째 유형은 일-가족 이점과 일-양육 이점이 높고,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이 낮아 ‘균형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43.8%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일-가족 이점과 일-양육 이점이 높고,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도 높아 ‘혼재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56.2%를 차지하였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일 때 첫 번째 유형은 일-가족 이점과 일-양육 이점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고,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아 ‘갈등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6.5%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일-가족 이점과 일-양육 이점이 높고,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이 낮아 ‘균형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39.1%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세 번째 유형은 일-가족 이점과 일-양육 이점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고,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아 ‘고균형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15.6%를 차지하였다. 네 번째 유형은 일-가족 이점과 일-양육 이점이 높고,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도 높아 ‘혼재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9.6%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형은 일-가족 이점과 일-양육 이점이 높지만 다른 집단의 중간 수준이며,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도 낮지만 다른 집단의 중간 수준으로 이를 ‘저균형형’이라 명명하였고, 이는 전체의 29.1%를 차지하였다.

〈표 4〉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별 특성

(N=400)

유형화 지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혼재형 (56.2%)	균형형 (43.8%)	갈등형 (6.5%)	혼재형 (9.6%)	고균형형 (15.6%)	저균형형 (29.1%)	균형형 (39.1%)
	M(SE)	M(SE)	M(SE)	M(SE)	M(SE)	M(SE)	M(SE)
일-가족 이점	3.62(.04)	3.98(.07)	2.79(.23)	3.72(.18)	4.19(.10)	3.55(.08)	3.99(.06)
일-양육 이점	3.31(.04)	3.71(.10)	2.89(.14)	3.50(.18)	4.10(.13)	3.73(.08)	3.80(.07)
일-가족 갈등	3.14(.07)	2.12(.08)	3.61(.08)	3.51(.23)	1.38(.04)	2.67(.08)	2.04(.05)
일-양육 갈등	3.21(.08)	2.22(.06)	3.68(.11)	3.55(.13)	1.45(.08)	2.87(.10)	2.22(.04)

3.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전이 양상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일 경우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유형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혼재형’의 55.2%가 ‘저균형형’으로 가장 많이 전이되었다. 다음으로 25.9%가 ‘균형형’으로, 15.3%가 ‘갈등형’으로, 2.3%가 ‘고균형형’으로 전이되었으며,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도 ‘혼재형’에 머무를 확률은 1.4%였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균형형’의 48.7%가 ‘고균형형’으로 가장 많이 전이되었다. 다음으로 38.5%가 ‘저균형형’으로, 8.4%가 ‘갈등형’, 3.3%가 ‘혼재형’으로 전이되었으며,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도 ‘균형형’에 머무를 확률은 0.9%였다.

〈표 5〉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유형의 전이 양상 (단위: %)

		4학년				
		갈등형	혼재형	고균형형	저균형형	균형형
1학년	혼재형	15.3%	1.4%	2.3%	55.2%	25.9%
	균형형	8.4%	3.3%	48.7%	38.6%	0.9%

4. 시점별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 및 전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2개 유형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5개의 유형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았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기에 분류된 유형에 미치는 개인, 가정 및 사회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각 시점에서 모두 ‘균형형’을 준거집단으로 해석하였다.

〈표 6〉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시기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

변인	초 1 시기		초 4 시기			
	혼재형	갈등형	혼재형	고균형형	저균형형	
	(준거집단: 균형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개인	자아존중감	-.12(.26)	-.25(.61)	-.19(.28)	.44(.19)	-.32(.90)
	주관적 행복감	-.51(.33)*	-.05(.36)	-.08(.17)	.04(.33)	-.55(.46)
가정	부부 갈등	.36(.16)*	.26(.37)	.43(.28)**	-.12(.33)	-.33(.54)
	사회적 지원	-.22(.21)	-.45(.88)*	-.29(.11)	.87(.73)**	-.38(.59)
사회	지역 양육환경 적절성	-.33(.22)	-.48(.45)	-.27(.22)	.18(.09)	-.50(.41)

* $p < .05$, ** $p < .01$.

먼저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 구분의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개인 요인인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갈등형'보다 '균형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가정 요인 중 취업모의 부부 갈등이 높을수록 '균형형'보다 '혼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사회 요인 중 지역 양육환경 적절성과 사회적 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 구분의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개인 요인 중 취업모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 요인 중 취업모의 부부 갈등이 높을수록 '균형형'보다 '혼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회 요인 중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갈등형'보다 '균형형'에, '균형형'보다 '고균형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4학년 시점으로의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의 전이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요인

초 1 시기	영향요인	초 4 시기				
		갈등형	혼재형	고균형형	저균형형	
		(준거집단: 균형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혼재형	개인	자아존중감	-.06(.11)	.02(.04)	.11(.13)	.16(.18)
		주관적 행복감	-.03(.19)	.06(.26)	.19(.35)	.11(.28)
	가정	부부 갈등	.50(1.06)*	.38(.30)	-.40(.24)	.29(.23)
		사회적 지원	.19(.37)	.17(.28)	.34(.33)	.37(.61)
사회	지역 양육환경 적절성	-.13(.21)	.04(.08)	.38(.31)	.06(.05)	
균형형	개인	자아존중감	-.16(.07)	-.23(.24)	.51(.44)	.26(.24)
		주관적 행복감	-.05(.12)	-.14(.17)	.27(.24)	.17(.12)
	가정	부부 갈등	.47(.79)	.37(.22)*	-.42(.32)	.26(.19)
		사회적 지원	-.46(.61)	-.18(.13)	1.85(1.65)***	-1.01(1.65)***
사회	지역 양육환경 적절성	-.06(.33)	-.13(.20)	.73(.73)	-.37(.20)	

* $p < .05$, ** $p < .01$, *** $p < .001$.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이 '혼재형'일 경우에는 부부 갈등이 높을수록 '균형형'보다 '갈등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이 '균형형'일 경우, 부부 갈등이 높을수록 '균형형'보다 '혼재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균형형'보다 '고균형형'으로 '저균형형'보다 '균형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았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은 각각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시점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 및 전이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은 '혼재형'과 '균형형'으로, 4학년 시기에는 '갈등형', '혼재형', '고균형형', '저균형형' 및 '균형형'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은 '균형형'(43.8%)보다 '혼재형'(56.2%)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수

행에 있어 부담은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소속 조직 내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김준기와 양지숙(2012)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가족의 생활패턴과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가족 생활 사건(정정화, 홍예지, 이강이, 2019)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다. 그러나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이 '균형형'(39.2%), '저균형형'(29.1%), '고균형형'(15.6%)순으로 상당수의 취업모가 일과 가정에서 균형적인 역할 수행을 보이며, '혼재형'(9.6%), '갈등형'(6.5%)의 비율이 1학년 시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와 더불어 시간이 흐른 후 4학년 시기의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의 시점 간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의 전이 양상은 같은 유형에 머무를 확률보다 다른 유형으로 이동할 확률이 더 높았다.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경우, '혼재형'이 '저균형형'(55.2%)으로 가장 많이 전이되었으며, '균형형', '갈등형', '고균형형'순이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균형형'이 '고균형형'(48.7%)으로 가장 많이 전이되었으며, '저균형형', '갈등형', '혼재형'순이다.

이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두 유형에 속하는 취업모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모두 일과 가정의 역할 간 혼재나 갈등보다 균형을 이루는 유형으로 상당수 전이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 갈등의 지각 수준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소효중(2019)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즉,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취업모에게 아동의 학교적응을 보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교육기부,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활동 등 새롭게 부가된 학부모로서의 역할에 따른 참여가 요구된다(권소영, 이재림, 2019). 특히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학교 활동은 주로 평일 낮시간에 운영되고, 이에 유동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취업모에게 이러한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1학년 시기에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불안과 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권소영과 이재림(2019)을 근거로 학교 활동의 비참여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감 또는 죄책감을 느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가 취업모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며, 이 시기를 넘어서 자녀가 고학년으로 접어들면서는 현 상황에 점차 적응하게 되면서 직장과 가정에서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보여 일-가정 갈등이 완화되어, 균형의 상태가 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 구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관적 행복감과 부부 갈등이며,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부부 갈등과 사회적 지원이었다. 즉,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갈등형'보다 '균형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부부 갈등이 높을수록 '균형형'보다 '혼재'

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부부 갈등이 높을수록 '균형형'보다 '혼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갈등형'보다 '균형형'에, '균형형'보다 '고균형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취업모의 개인 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두 시점 및 시점 간 전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홍예지와 이강이(2020)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이 주관적 행복감과 부적 관련이 있다고 한 선행연구(박은희 외, 2019; Greenhaus, Collins, Shaw, 2003; Lee & Lee, 2010)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다. 즉,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후 취업모에게 새롭게 부가된 학부모로서의 역할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수록 일-가정 갈등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한 결과다. 이는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행복감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인 주관적 평가인 반면,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행복감보다 더 객관적인 자아의 표상이기 때문이라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취업모가 전업모보다 뚜렷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는 이미경(2002)의 논의에 근거하여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을 하여 직장 생활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취업모에게 자아존중감의 영향은 미미하였을 수 있다.

나아가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시기에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의 구분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부부 갈등이었다. 이는 가정 내 지원과 지지가 낮다고 인식될 때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Aabendroth & den Dulk, 2011; 손영빈, 최은영, 2009)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에서 배우자의 지지는 취업모의 직장 생활과 가정에서의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을 완화해줌으로써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Michel et al., 2011)와 일치하는 결과다. 이로써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 구분이 개인 수준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적 상황보다 가정환경 내 배우자 또는 가용 자원의 활용 등 타인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에 따라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남(홍예지, 이강이, 2020)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균형을 위해서 자녀양육분담, 가사활동 지원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전반적인 가족의 기능적 역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서 4학년 시기로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의 전이에 부부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이 '균형형'일 경우,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균형형'보다 '고균형형'으로 '저균형형'보다 '균형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및 정보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취업모의 긍정적인 가족 기능과 관련이 있지만 지역사회 내 적절한 시설 제공 및 양육환경 적절성은

취업모의 긍정적인 가족 기능과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Hong과 Lee(2019)를 지지하는 것으로 취업모가 지각하는 어려움과 갈등을 완화하고 직장和家庭에서의 양립의 균형을 높이는 데 사회적 지지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이 ‘균형형’일 경우에만 4학년 시기의 유형으로 전이 될 가능성에 미치는 사회적 지원의 영향이 유의하였고, ‘혼재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균형형’보다 직장和家庭에서 역할 간 갈등에 취약한 ‘혼재형’ 취업모에게는 사회적 지원이 이들을 일-가정 양립의 균형으로 이끄는 데 충분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반면, 이미 균형을 이루고 있는 유형에서는 일-가정의 균형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추론해 볼 수 있다. 관련하여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의 전이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더 축적되어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규직 여부, 직장 유형, 직업 유형과 같은 근로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취업모를 둘러싼 개인, 가정 및 사회 요인과 관련된 설문 항목을 보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관찰이나 면담 등의 질적 자료를 추가한다면 취업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풍부한 논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취업모의 특성만을 고려하여 이들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을 살펴보았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특성과 이를 확장하여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현, 이성(2014). 성인의 평생학습을 통한 행복과 행복요인의 관계 분석. *교육방법연구*, 26(4), 851-870.
- 권소영, 이재림(2019). 초등학교 1-2학년 시기 어머니의 교육참여 유형과 종단적 변화: 잠재전이 모형 분석. *인간발달연구*, 26(4), 1-25.
- 김경미, 계선자(2018).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4), 103-119.
- 김소영(2017). 지역사회 가족친화성과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 양립 갈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4), 157-172.
- 김준기, 양지숙(2012).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0(4), 251-280.

- 박은희, 장지혜, 신성영, 김민영 (2019). 부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제 73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76.
- 소효중(2019).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손영빈, 최은영(2009). 맞벌이 부부의 가정과 직장 간 역할갈등이 결혼만족도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개인특성 및 가족과 직장지원의 조절효과 중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29-60.
- 송다영, 장수정, 김은지(2010). 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직장내 지원과 가족 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27-52.
- 육아정책연구소(2015, 2018). 한국아동패널연구 8, 11차년도 데이터 도구 프로파일.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경(2002).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우울경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재림(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장영은, 박정윤, 이승미, 권보라(2011). 유자녀 취업여성이 경험하는 일-가정 균형에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63-72.
- 장윤옥, 정서린(2014). 유자녀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전이과정과 전이발생영역.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5), 145-161.
- 정선이, 차승은, 김순덕, 박미희(2019).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부정적 전이와 결혼의 질 그리고 부부갈등의 역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4), 3-20.
- 정정화, 홍예지, 이강이 (2019). 초등학교 전이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 변화에 따른 잠재 집단 추정과 영향요인 및 결과요인 검증. 인간발달연구, 26(4), 115-138.
- 정현숙(2004). 결혼 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통계청(2019). 2019 일-가정 양립 지표. <http://kostat.go.kr>에서 2020년 7월 29일 인출
- 통계청(2020). 2020년 6월 인구동향. <http://kostat.go.kr>에서 2020년 7월 29일 인출
- 현경자(2005). 결혼의 질과 안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 영역.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1, 158-193.
- 홍예지, 이강이(2020).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과 결과요인 검증. *육아정책연구*, 14(1), 97-120.
- Abendroth, A. K., & den Dulk, L. (2011). Support for the work-family balance in Europe: The impact of state, workplace and family support on work-life balance satisfactio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5(2), 234-256.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Blascovich, J., & Tomaka, J. (1991). Measures of self-esteem. In: Robinson, J. Shaver, P., Wrightsman, L.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 attitudes (pp. 115-16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risbois, R. M. (2002).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work family spillover
Unpublished dissertation. Carleton University, Ottawa, CA.
- Bronfenbrenner, U., Morris, P. A. (2006).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In R. M. Lerner (Ed.), *Handbook of child development: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pp. 793-828).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Hoboken, NJ: Wiley.
- Culp, L. N., & Beach, S. R. H. (1993). Marital discord, dysphoria, and thoughts of divorce: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Paper presented at the 27th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 Edwards, J. R., & Rothbard, N. P. (2000). Mechanisms linking work and family: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family construc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178-199.
-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 Greenhaus, J. H., Collins, K. M., & Shaw, J. D. (2003). The rela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510-531.
- Grzywacz, J. G., Almeida, D. M., McDonald, D. A. (2005). Work-family spillover and daily reports of work and family stress in the adult labor force. *Family Relations*, 51(1), 28-36.
- Hong, S., Malik, M. L., & Lee, M.-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Hong, Y.-J., & Lee, K. (2019).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social interactive parenting with a focus on Korean employed mothers' parenting support from ecological contex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96, 308-315.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 of two model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1-39.
- Lee, J. S., Joo, E. J., & Choi, K. S. (2013). Perceived stress and self-esteem mediate

- the effects of work-related stress on depression. *Stress & Health: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Investigation of Stress*, 29(1), 75-81.
- Lee, S. M., & Lee, S. H. (2010). The quality of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health of employed mother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3), 67-90.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s. *Biometrika*, 88(3), 767-778.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Markman, H. J., Stanley, S., & Blumberg, S. L.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arks, S. R., & MacDermid, s. M. (1996). Multiple roles and the self: A theory of role bala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2), 417-432.
- Marshall, M. L., & Barnett, R. C. (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1), 64-78.
- McCrae, J. S., Champman, M. V., & Christ, S. L. (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468-481.
- McLachlan, G., & Peel, D. (2000). *The EM algorithm for parameter estimations*. John Wileyand Sons, New York: USA.
- Michel, J., Koraba, L., Mitchelson, J., Clark, M., & Baltes, B. (2011). Antecedents of work-family conflic: A meta analytic review.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2(5), 689-725.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ition.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Schafer, J. L. (1997). *Analysis of incomplete multivariate data*. Chapman & Hall/CRC press. New York: USA.

Abstract

Analyzing The Typology and Determinants of Working Mothers' Work-Family Gains and Conflicts: An Application of Latent Transition Analysis

Yea-Ji Hong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typology and determinants of working mothers' work-family gains and conflicts using the Latent Transition Analysis. Data from 400 working mothers who participated in eighth and eleven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working mothers whose children in first grade, their work-family gains and conflicts were grouped into two types: 'confused' and 'balanced', and for those whose children in fourth grade, they were grouped into five types: 'conflicted', 'confused', 'high balanced', 'low balanced' and 'balanced'. Second, working mothers who belong to 'confused' in first grade was transferred mostly to 'low balanced' in fourth grade(55.2%), and those who belong to 'balanced' in first grade was transferred mostly to 'high balanced' in fourth grade(48.7%). Third, subjective happiness and marital conflicts in first grade, and marital conflicts and social support in fourth grade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working mothers' work-family gains and conflicts types, respectively. Moreover, marital conflicts and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 in the transition of typ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or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also discussed.

- Key word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orking mothers, work-family gains and conflicts, latent transition analysis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가정 균형

토론논문: "잠재전이모형을 적용한 취업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의 유형 및 영향요인 검증"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는 일·가정 균형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혹은 의견)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서두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통계청(2019)³²⁾의 「2019 일·가정양립 지표」³³⁾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가정'보다는 '일'을 생활의 우선으로 두었던 사회에서 이들 둘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³⁴⁾.

- ▶ 「일을 우선시」 : ('15) 53.7% → ('17) 43.1% → ('19) 42.1%
- ▶ 「둘 다 비슷」 : ('15) 34.4% → ('17) 42.9% → ('19) 44.2%
- ▶ 「가정생활 우선시」 : ('15) 11.9% → ('17) 13.9% → ('19) 13.7%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9. 12. 18), 「2019 일가정양립 지표」, 27쪽.

특히, 과거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을 전담하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다양한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초등(7~12세) 자녀를 둔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52.7%에 이른다. 이렇듯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은 증가하였지만 동시에 기혼여성의 20.7%가 경력단절 상태이다. 그 원인으로 임신·출산·육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육아'가 3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결혼(30.7%)', '임신·출산(22.6%)' 로 나타나 여전히 육아가 일·가정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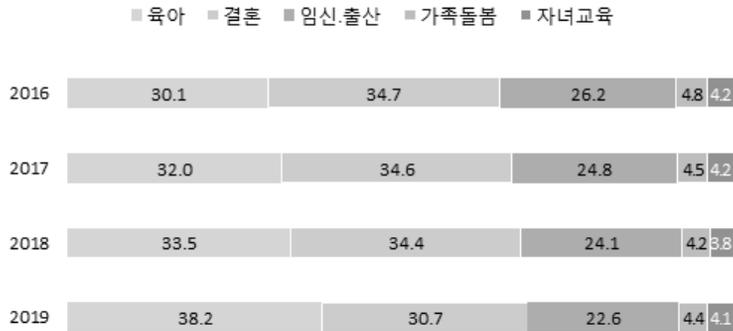
32) 통계청(2019). 2019 일가정 양립 지표.

33)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36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0. 9. 9 인출)

34) 성별로 보면 남성만 경우 '일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48.2%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 생활을 비슷' 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신·출산’ 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여성 경력단절 이유(%)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9. 12. 18), 「2019 일·가정양립 지표」, p.2.

일·가정균형에 어려움을 주는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 본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 횡단적 자료를 사용한 연구였기 때문에 아동패널을 사용한 본 연구의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기여가 크다 하겠다. 특히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영유아기와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보육 및 교육 이슈에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초등 1학년 시기와 그 이후 시기(4학년)를 비교함으로써 시기의 차이에 따른 일·가정균형의 이점과 갈등의 양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이른 하교로 인하여 방과 후 돌봄 공백 발생이 발생한다. 조사자료³⁵⁾에 따르면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08시간인데 비하여 초등학교 이용시간 5.54시간으로 크게 줄어들어 방과 후에 긴 돌봄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자녀의 이른 하교에 따른 돌봄 공백의 발생으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여성 3만 1,789명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각종 학교행사나 학부모 모임 등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비롯하여 준비물 및 숙제 관리 등 취학 전과는 다른 추가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이러한 역할은 주로 자녀의 주로 어머니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교육과정에 있어 학부모를 적극적인 참여자로 요구하기 때문에 초등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35) 육아정책연구소 Brief 제66호,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취업모 지원 방안은?, 재인용.

직무만족 또는 직무부담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무만족도란³⁶⁾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이며 조직구성원들이 자기 직무와 연관하여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강도와 일관성의 정도가 변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조직구성원 개인의 태도와 가치, 신념, 욕구 등의 수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느끼는 감정적, 긍정적인 만족상태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직무만족도는 근로자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곧 근로자 개인의 일·가정균형에 대한 이점과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정규직 여부, 직업종류 및 직장유형, 근로소득과 평균 근로시간 등의 근로특성은 직업안정성(job security)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러한 직업안정성 정도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자신의 일·가정균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³⁷⁾. 관련 연구를 보면,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비정규직의 증가, 이로 인한 고용 불안은 일·가정 갈등의 원인이 된다(Zhang and Liu, 2011; 임효창 외, 2005). 또한 직업유형에 따라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며, 특히 전문가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이 존재한다(Michel et al., 2011; Zhang and Liu, 2011) 직업종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관리자 및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책임감이 요구되고 업무의 강도가 높아 일과 가정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³⁸⁾. 이는 결국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돌봄공백의 해소를 위한 대안 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는 있지만 높은 소득이 결국 과중한 업무 혹은 장시간 근로와 연계된 것이라면 일·가정 갈등은 높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하여 초등 1학년 시기에서 초등 4학년 시기로 이동하게 되면서 일·가정 역할 간 ‘갈등’유형에서 ‘균형’유형으로 전이됨을 보여 주었다. 이는 상이한 시점 간의 분석을 통하여 선행연구들 보다 더 분명하게 취업모에게는 자녀의 초등 1학년 시기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임을 강조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활용도를 높여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균형을 달성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발달 단계상 자녀 어머니의 전일적 돌봄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영아기에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의 초등 1학년 시기에는 자녀 아버지의

36) 김경미, 계선자 (2018).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4), 103-119.

37) 김준기, 양지숙 (0212).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0(4), 251~280.

38) 김준기, 양지숙 (0212).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0(4), 251~280. (재인용)

육아휴직 사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혹은 초등돌봄교실 등을 활용하되, 초등 1학년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을 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맞벌이 가구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와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강미선³⁹⁾ 정인혜⁴⁰⁾ 송시영⁴¹⁾

요약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구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을 탐색하고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와 온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2014), 8차(2015)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두 차 년도에 부부 모두 응답하였고 학령 초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부부 417쌍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을 탐색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매개모형 Model 4를 이용하여 간접효과와 직접 효과, 총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남편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2개의 잠재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정제된 양육자와 변화한 양육자형으로 명명하였다.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와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연구 모형들에서도 양육참여 빈도와 온정적 양육행동이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과 부인의 결혼만족도 간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역할 태도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가구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가족 정책 및 남편의 육아참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성역할 태도, 잠재프로파일분석, 결혼만족도, 남편양육참여, 맞벌이 가구

1. 서론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가정주부와 산업 노동자의 경계에 서서” 이중 노동을 경험한다

39)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사통합과정

40)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사통합과정

41)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윤은주, 2016). 더욱이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그가 경험하는 역할 과중 및 노동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는 배가된다. 이렇게 2인 생계부양자 모델에서도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치우치는 현상은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하락시켜 전반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 배우자, 즉 남편의 돌봄 노동 참여는 부인의 노동부담을 덜어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혜성·그레이스정, 2019; 손영빈·윤기영, 2011; 장재홍·김태성, 2002).

결혼만족도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본인의 기대 수준을 배우자가 충족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높은 결혼만족도가 부부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부인의 코르티솔 수준을 조절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Karney & Bradury, 1995; Saxby, Repetti & Nishina, 2008). 더욱이 자녀가 있는 경우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문제행동 및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성,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수준 등 자녀의 발달 및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김현령·류수민, 2015; 이경희·김영희·신성일, 2012; Belsky & Yongblade, 1991). 성장기에 경험한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았던 경우는 이후 자녀의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보고된다(하상희, 2008).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본인의 건강과 부부관계 뿐 아니라 자녀의 발달,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개념인 것이다.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자녀 수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김미령, 2009; 김효민·박정윤, 2013; 문지선, 2019; Jeong, E., 2008), 자아존중감이나 자기노출, 부모효능감, 원가족 건강성 등의 개인 심리적 요인(김효민·박정윤, 2013; 이정은·이윤형, 2012) 등이 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라는 개념이 부부 관계 안에서의 역동을 바탕으로 측정되는 만큼 당사자의 변인 외에 배우자 관련 변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배우자 변인의 영향과 관련한 고찰은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효민·박정윤, 2013).

남편의 성역할 태도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요인 중 하나다(김태현·박주희, 2005; 김혜성·그레이스정, 2019). 성역할이란 어떤 문화권 안에서 공유되는, 생물학적, 사회적 성에 기초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행동양식이며, 성역할 태도는 그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 혹은 고정관념을 말한다(박하영·전혜정·주수산나, 2020; 이정윤·김주현, 2020; Stickney & Konrad, 2007). 사회 및 가족체계에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별 간 노동 분담에 대한 태도(이미숙, 2000; Scanzoni & Scanzoni, 1976), 남성과 여성의 일을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일로 구분하는 성별 역할의 분리에 대한 주관적인 지지 정도로도 정의된다(김주현·문영주, 2010).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양식과 성별 역할 분리에 대한 주관적인 지지 정도가 높은 경우 ‘전통적’, 주관적인 지지 정도

가 낮은 경우에는 ‘평등적(민주적, 양성적, 근대적 등)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며, 이를 양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측정되어 왔다(김태현·박주희, 2005).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성역할 태도의 측정방법에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문항들의 점수 합이나 평균값을 이용하여 전통적 또는 평등적 태도와 같이 임의로 이분화하거나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성역할 태도를 다루는 것은 그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박하영·전혜정·주수산나, 2020). 성역할 태도를 연속 또는 이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응답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자녀 양육, 가사 분담, 여성의 취업활동 등에 다양한 영역의 질문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즉 전통과 평등의 연속선상, 혹은 이분화된 논의는 성역할 태도라는 개념의 차원과 그 개념의 내용을 다 담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고려하여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2~5가지 유형으로 성역할 태도를 군집화하거나 유형 분석 결과를 도출하며 성역할 태도의 복합성과 다차원성이 반영된 결과와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문지선, 2019; 박하영·전혜정·주수산나, 2018; 박하영·전혜정·주수산나, 2020; 정운태·서재욱, 2016; Grunow, Begall & Buchler, 2018; Knight & Brinton,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를 유형화하여 맞벌이 부부의 남편들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성역할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는 성역할 태도에 대한 기존 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또는 부부관계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다(박하영·전혜정·주수산나, 2018).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성역할 태도가 평등할수록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중년기 남녀, 20대~50대의 부부, 맞벌이 여성, 임신기 부부, 기혼 남성 등 다양한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아우르며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되었다(강수경·김해미·정미라, 2018; 김주현·문영주, 2010; 김태현·박주희, 2005; 이정은·이윤형, 2012; 전혜성·서미아, 2012).

맞벌이 부부 혹은 맞벌이 가구에 속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강수경·김해미·정미라, 2018; 김주현·문영주, 2010; 이미숙, 1996; 이미숙, 2000; 이은희, 2002). 이들은 기존 성별분업의 효율성이 적용되지 않는, 즉 경제활동과 돌봄노동을 모두 부부가 함께 맡아야 하는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바탕으로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중 본인의 성역할 태도가 본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이미숙, 1996; 2000)에서는, 남편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남편과 부인 각각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보고하며, 남편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성역할 태도에 부응하고 가사노동에 참여함으로써 부부 간 갈등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자신보다 남편의 성역할 태도 등 배우자 요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는데(김향란·고재홍, 2007; 문지선, 2019; 이영미·김정희, 1997; Hiller & Philiber, 1986), 그 이유로 부부관계 내 권력의 균형을 들 수 있다. 권력 구조 상 남성 중심적 역할 협상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는(문지선, 2019) 가부장적 분위기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강력히 작동해왔던 한국 사회 특성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결혼생활 안에서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부인은 역할 긴장 또는 갈등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박하영·전혜정·주수산나, 2020; 윤경자, 1997). 즉 성역할 태도의 경우에는 권력 관계의 작용으로 부인의 인식보다는 남편의 인식이 부부관계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박하영·전혜정·주수산나, 2018). 이에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배우자 요인으로서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 사이의 메커니즘에 주목한 연구들은 직장과 가정이 부인과 남편 모두에게 공존하는 영역이라는 맞벌이 가구 특성을 기반으로 두 변수 간 메커니즘을 일-가정 관련 변수를 통해 설명한다(강수경·김해미·정미라, 2018; 김주현·문영주, 2010). 두 연구는 모두 임신기 맞벌이 부부, 맞벌이 여성이라는 연구대상으로부터 본인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낮은 일-가정 갈등으로 이어지고, 낮은 일-가정 갈등이 높은 결혼만족도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상기한 연구들에서는 개인은 각자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 일-가정 갈등이나 강화, 일-가정 양립으로 인한 역할 과중 등을 달리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성역할 태도가 일-가정의 양립 역동을 인식하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인데(Minnotte, K., Minotte, M., & Pederson, 2013), 이러한 의견은 일-가정 양립 뿐 아니라 양육 참여를 인식하는 측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성역할 태도가 젠더 이데올로기 작동에 대한 의식적 측면이라면, 자녀 돌봄과 양육은 그 의식이 실천으로 드러나는 측면이다. 즉 남편의 양육참여 행동에는 성역할 태도라는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반영된다(박선주·강민주, 2017; 유지영, 2018). 성역할 태도는 개인의 역사적·구조적·문화적 이데올로기의 결과물로 남성 혹은 여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남성 양육참여의 정도와 질에 영향을 준다(Kim, 2005).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양육참여 간의 관계를 파악한 선행연구에서는 본인이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함을 보고하였다(이정순, 2003). 아울러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남편의 양육참여도가 증가하고 그 관계를 부인의 문지기역할이

매개하며(박선주강민주, 2017), 남편의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양육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부모역할 갈등이 매개한다는 연구결과 또한 제시된 바 있다(이형민·신나리, 2019). 그리고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는 외벌이 가정에 비해 남편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성역할 태도의 영향을 더욱 크게 경험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이형민·신나리, 2019; Barnett & Baruch, 1987; Kuo, Volling & Gonzalez, 2018).

본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남편의 양육 관련 변수를 통해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부인의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설명한 경우로 김혜성과 그레이스정(2019)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어떠한 역할에 대한 의식은 개인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역할관념가설(Kalin & Tilby, 1978)을 바탕으로 남편의 성역할 태도라는 의식이 양육분담이라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이어진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런데 문항의 평균값으로 성역할 태도를 변인화하여 성역할 태도의 다차원성을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며, 남편의 양육을 양육분담이라는 단일 영역으로만 측정하여 기존 논의의 틀 안에서 수행된 연구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남편의 양육참여는 ‘양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와 자녀 간 상호작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슬기, 2019). 남편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양육 및 발달(Lamb, 1975)과 원만한 가족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녀의 사회·정서·인지적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부의 관계 및 배우자의 결혼만족도, 부모와 자녀의 행복감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이 보고되고 있다(김혜성·그레이스정, 2019; 설경옥·문혁준, 2006; 최지은·김현경, 2019; Marchand, 2004). 남편의 양육참여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되는 양육행동을 양적으로 측정하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이슬기, 2019). 그러나 최근에는 남편의 양육참여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녀에 대한 온정적이거나 정서적인 지지 등의 표현적 양육행동이 질적인 측면의 예가 될 수 있다(이슬기, 2019; Finley & Schwartz, 2004). 본 연구에서는 ‘양육참여 빈도’가 남편의 양육참여의 양적인 측면, ‘온정적 양육행동’이 양육참여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한다고 간주하고 남편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였다. 양육참여 빈도는 남편의 양육참여 횟수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양육참여의 양적 측면을, 온정적 양육행동은 남편이 ‘자녀와 어떤 태도로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참여의 질적 측면을 반영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를 아동패널에서 조사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도에 포함된 자녀와의 활동 빈도로, 온정적 양육행동을 ‘자녀의 필요 및 요구에 민감히 반응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애정과 지지를 제공하는 부모의 반응성(Baumrind, 1991)’으로 정의한다.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인의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의 다수는 남편의 양육참여도 및 양육분담 증가에 따른 부인의 결혼만족도 상승을 보고하고 있다(김혜성·그레이스정, 2019; 손영빈·윤기영,

2011; 윤기봉·지연경, 2017; 장재홍·김태성, 2002).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능동적 양육참여가 부인이 기대한 배우자 역할에 대한 부응과 연관되어 여성의 배우자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정순, 2003).

지금껏 주류의 사회가 구조적 기능을 유지해 온 것은 성별에 따라 이분화된 성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그러한 성역할에 부합하다고 여겨지는 업에 종사하게 하였던 것을 바탕으로 한다(김태현·박주희, 2005; Lorber, 1994; West & Zimmerman, 1987). 이러한 전통적 성별분업의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 가사와 자녀 양육 등 돌봄은 철저히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어 온 영역이며, 남편의 양육 수행은 부인의 일에 조력한다는 측면에서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사회는 남편들에게 '조력'을 넘어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아버지상을 요구하고 있다. 남성 양육자 상과 성역할 태도의 변화는 20세기 말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구조적 측면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이는 자녀 양육참여에 있어 남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나 사회적 통념을 바꿔놓았다. 젠더 규범의 변화는 남편들에게 아버지로서 더 개입할 것에 대한 기대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Kuo, Volling, & Gonzalez, 2018).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하며 타국과 비교불가하게 빠른 사회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날 기혼 유자녀 남성들이 어떤 특성의 성역할 태도를 갖는가, 그리고 그것이 행동이라는 실천적 측면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보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가 남편들에게 남성양육자로서의 의식과 실천에 미친 영향,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맞벌이 가구 부인의 결혼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는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추리면, 성역할 태도라는 남편의 자녀 돌봄에 대한 의식적 측면, 양육참여로 보여주는 실천적 측면 이 둘은 각각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남편의 자녀 돌봄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에는 성역할 태도와 같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의식, 심리적 믿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선주·강민주, 2017). 성역할 태도는 양육참여에 선행할 수 있고, 자녀 돌봄의 의식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은 이러한 경로를 거쳐 배우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변인 간 관계를 통해 미루어 볼 때,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의 자녀 돌봄의 실천적 측면인 양육 참여 빈도와 온정적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남편들이 새로운 아버지상을 의식적 측면 및 실천적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맞벌이 가구 남편의 성역할 태도 잠재 프로파일 유형과 각 유형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맞벌이 가구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부인의 결혼만족도 관계를 남편의 양육참여(양육참여 빈도, 온정적 양육행동)가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7차와 8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7월 중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성년이 되기까지 20년간 그들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국가 수준의 패널자료이다. 아동의 성장 및 발달 특성과 함께 양육자, 교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양육실태,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등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의 영향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 제공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n.d.). 단일 연령 집단 아동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한다는 점, 아동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1차부터 20차까지 동일한 영역과 문항이 조사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 특징에 맞추어 차수별로 조사내용이 다소 다르게 구성된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자녀가 유아기인 경우 부부는 ‘부모’라는 역할에 적응하고자 하며 양육에 많은 관심을 쏟는데, 이러한 자녀의 성장 및 변화는 부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윤기봉·지연경,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학령 초기의 자녀를 둔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자녀들은 유아기에서 학령초기의 연령대로, 부모들은 학령기로의 전이에 대한 적응이라는 이슈와 함께 양육자의 역할에 몰입하고 있어 양육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성역할 태도는 7차,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부모-자녀 상호작용)는 8차에서만 조사된 점 또한 차수 선정 이유로 작용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대상은 가구 단위로 조사된 한국아동패널의 특징에 따라, 한국아동패널 7차와 8차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응답했으며 학령 초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부부 417쌍이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변수	남편 (n=417)		부인 (n=417)		
	7차	8차	7차	8차	
연령	39.35(4.01)	40.39(4.01)	36.94(3.38)	38.00(3.47)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85(20.4)	85(20.4)	82(19.7)	81(19.4)
	전문대 졸업	90(21.6)	90(21.6)	114(27.3)	115(27.6)
	4년제 졸업	194(46.5)	193(46.3)	181(43.4)	181(43.4)
	대학원 졸업	48(11.5)	49(11.8)	40(9.6)	40(9.6)
결혼기간(년)	M(SD)	10.18(3.26)	-	10.18(3.26)	-
자녀 수		7차		8차	
	M(SD)	2.16(.63)		2.18(.62)	
	1명	45(10.8)		42(10.1)	
	2명	268(64.3)		269(64.5)	
	3명	95(22.8)		97(23.3)	
가구소득(월)					
	300만원 미만	22(5.3)		20(4.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8(11.5)		53(12.7)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03(24.7)		78(18.7)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03(24.7)		112(26.9)	
	600만원 이상	141(33.8)		154(36.9)	

2. 변인 설명

가. 독립변인

잠재 프로파일의 지표이기도 한 독립변인으로는 7차에 수집된 남편의 성역할 태도를 이용하였다. 성역할 태도의 척도는 김은설과 최혜선(2008)의 연구에서 사용되어 성역할 가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7차에 포함되었으며, 연구대상자들은 총 6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아무래도 자녀가 어릴 때(학령 전)는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모의 영유아기 양육)’,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 본연의 모습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여성 영역으로서 자녀양육)’, ‘취업을 한 어머니도 전업 주부 어머니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취업모와 자녀관계)’, ‘여성이 취업할 경우 남성과 여성은 가사와 양육에 대해 동등한 정

도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아버지도 전업주부 어머니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아버지와 자녀관계)', '여성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은 가사와 양육에 대해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외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여성의 돌봄 정체성을 지지하는 '모의 영유아기 양육'과 '여성 영역으로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두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포함되었다.

나.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8차에 수집된 부인의 결혼만족도로, 기존 Schumm과 동료들(1983)이 개발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한국 부부커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Chung(2004)이 수정한 척도(RMKSS)에 의해 측정되었다. '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는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예로는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이 있다.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8이다.

다. 매개변인

매개변인인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는 한국아동패널 8차의 설문에서 수집된 남편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도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였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척도는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 중 부모와 자녀의 공동 활동에 대하여 질문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http://nces.ed.gov/ecls/kindergarten.asp>). 남편은 지난 일주일 동안 자녀와 얼마나 자주 활동하고 상호작용하였는지에 대한 10가지 문항에 '전혀 하지 않음(1점)', '1~2번(2점)', '3~6번(3점)', '매일 함(4점)'의 4점 범위 안에서 응답하였다. 문항 내용의 예시로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 '요리, 청소, 상차리기, 애완동물 돌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아이와 함께 한다.' 등이 있다. 열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이 자녀와 여러 활동을 자주 하고 양육참여가 활발함을 의미한다(최지은·김현경, 2019).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6이다.

또 다른 매개변인인 남편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에서 수집된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문항에 대한 답변을 사용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의 측정도구는 조복희 외(1999)의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6문항을 측정한다. 응답들의 평균값으로 생성한 연속변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행동에서 온정적 태도의 반영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가족 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등이 있다.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9이다.

라. 통제변인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부인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김미령, 2011; 김효민·박정윤, 2013; 김혜성·그레이스정, 2019)를 바탕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자녀 수, 부인의 주관적 건강, 결혼기간을 통제하였다. 8차에 조사되지 않은 결혼기간은 7차의 자료를, 그 외 변인들은 8차 자료를 투입하였다. 학력의 경우 무학~전문대졸(0)과 4년제 대학 졸업 이상(1)으로 나누어 생성한 이분변수를, 가구소득의 경우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녀 수는 연구대상자들이 응답한 값을 연속변수로 간주하고 분석에 투입하였다. 부인의 주관적 건강은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전혀 건강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건강함(5점)'까지의 5점 범위에서 응답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연구문제 1로 제시된 남편의 성역할 태도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Muthén과 Muthén(2014)의 Mplus 7.3을 사용,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LPA)은 대상 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로, 유사한 특성들을 가진, 다른 그룹의 이들과는 구분되는 개인들의 그룹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분석방법이다(Orpinas, Raczynski, Peters et al., 2014; Magidson & Vermunt, 2002; Muthén & Muthén, 2007). LPA는 관측된 반응을 바탕으로 군집 간 차이는 최대화하고 군집 내 개인 간의 차이는 최소화하는 군집분석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며, 우도에 기반하여 개인들을 유형화하고, 개인과 각 그룹에 대한 확률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Orpinas, Raczynski, Peters et al., 2014). 적절한 잠재유형 개수를 가진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BIC(sample-size adjusted BIC), LM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VLMR(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등의 적합도 지수와 잠재 유형 간 분류의 명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엔트로피 지수(Jedidi, Ramaswamy, & Desarbo, 1993)를 함께 확인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IBM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t-test를 실시하여 확인된 성역할 태도 유형들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여 연구문제 1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25.0를 사용하여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와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PROCESS Macro의 매개모형 Model 4를 이용하여 추정된 간접효과와, 직접 효과, 총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사전분석으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상관분석 실시의 의미는 연구문제 2를 진행하기 전 매개효과 분석의 전제 조건을 검토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매개효과 분석에 대한 전제조건은 분석 방법을 제안하는 학자마다 다양한데, 현재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그리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박선마박병기, 2014; Gelfand, Mensinger & Tenhave, 2009; Hayes, 2009). 이에 따라 IBM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해 남편의 성역할 태도,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와 온정적 양육행동, 부인의 결혼만족도의 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PROCESS Macro에서는 재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을 수천 번 이상 거치는 부트스트랩(Bootstrap)을 기반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모델이나 Sobel test의 한계점을 보완한 대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허원무, 2013). 또한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들과 달리 연구변수를 입력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강점이다(감정가박미희, 2014). 부트스트래핑은 5000번 실시하였으며,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성역할 태도의 잠재 프로파일 유형

맞벌이 가구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행하였다. 다섯 가지의 적합도 지수(AIC, BIC, sBIC, LMRT, VLMR)와 엔트로피 지수를 기준으로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잠재유형 개수별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 지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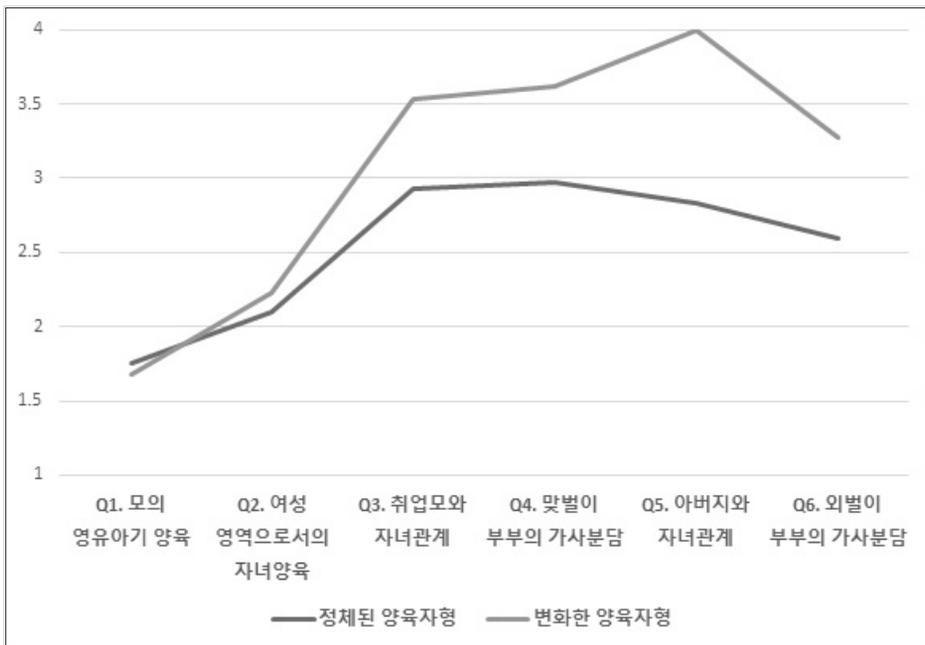
<표 2> 잠재유형 개수별(1-3개) 전반적 모형 적합도 지수

유형	AIC	BIC	sBIC	LMR (p-value)	VLMR (p-value)	Entropy
1	5401.053	5449.508	5411.428	-	-	-
2	5049.546	5126.265	5065.973	357.059***	365.508***	0.973
3	4116.384	4221.368	4138.863	947.162*	925.270*	1

* $p<.05$, ** $p<.01$, *** $p<.001$

단일모형과 잠재유형이 2개인 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잠재유형이 2개인 모형의 상대적 합도 지수는 AIC=5049.546, BIC=5126.265, sBIC=5065.973으로 단일유형 모형보다 낮은 지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IC=5401.053, BIC=5449.508, sBIC=5411.428). 잠재유형이 2개인 모형의 엔트로피 지수는 0.973으로 그 수준이 양호하고 LMR, VLMR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단일 유형보다는 잠재 유형이 2개인 모형이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를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잠재 유형이 2개인 유형과 3개인 모형을 비교했을 경우, 잠재 유형이 3개인 모형은 상대적합도 지수가 각각 AIC=4116.384, BIC=4221.368, sBIC=4138.863로 잠재 유형이 2개인 모형보다 그 값이 낮았다. 그러나 절대적합지수인 LMR과 VLMR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잠재유형이 3개인 모델은 기각되고, 잠재 유형이 2개인 모형이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최적의 모형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2개의 잠재 유형으로 구성된, 연구 대상자들의 성역할 태도 유형은 [그림 1]에, 맞벌이 가구 남편들의 유형별 성역할 태도 문항의 평균값은 <표 3>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남편의 성역할 태도 잠재 유형 패턴

〈표 3〉 성역할 태도 문항에 대한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N=417)

문항	M(SD)		t
	정체된 양육자형 (n=254, 60.9%)	변화한 양육자형 (n=163, 39.1%)	
Q1. 모의 영유아기 양육	1.75(.66)	1.67(.81)	1.018
Q2. 여성 영역으로서의 자녀양육	2.10(.70)	2.23(.89)	-1.513
Q3. 취업모와 자녀관계	2.93(.60)	3.54(.61)	-9.995***
Q4.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2.97(.59)	3.61(.57)	-10.914***
Q5. 아버지와 자녀관계	2.83(.39)	4.00(.00)	-48.263***
Q6. 외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2.60(.65)	3.27(.74)	-9.705***

* $p < .05$, ** $p < .01$, *** $p < .001$

잠재프로파일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돌봄 정체성을 지지하는 문항인 ‘모의 영유아기 양육($t=1.018$, $n.s.$)’과 ‘여성 영역으로서 자녀양육($t=-1.513$, $n.s.$)’에 대해서는 두 유형이 비슷한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t -test 결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여성의 일 정체성과 남성의 돌봄 정체성을 지지하는 ‘취업모와 자녀관계($t=-9.995$, $p < .00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t=-10.914$, $p < .001$)’, ‘아버지와 자녀관계($t=-48.263$, $p < .001$)’, ‘외벌이 부부의 가사분담($t=-9.705$, $p < .001$)’의 네 문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른 양상을 보이며, 평균점수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별히 ‘아버지도 전업주부 어머니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즉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대한 문항은 두 유형이 1점 이상의 평균점수 차이를 보이며 문항 중 가장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주목하여 잠재유형 1은 ‘정체된 양육자형’, 잠재유형 2는 ‘변화한 양육자형’으로 명명하였다. ‘정체된 양육자형’에는 전체 연구대상자 중 60.9%가, ‘변화한 양육자형’에는 39.1%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른 집단별 일반적 특성

변수	정체된 양육자형 (n=254, 60.9%)		변화한 양육자형 (n=163, 39.1%)		
	7차	8차	7차	8차	
연령	39.31(4.05)	40.36(4.05)	39.41(3.96)	40.44(3.97)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57(22.4)	57(22.4)	28(17.2)	28(17.2)
	전문대 졸업	58(22.8)	58(22.8)	32(19.6)	32(19.6)
	4년제 졸업	108(42.5)	107(42.1)	86(52.8)	86(52.8)
	대학원 졸업	31(12.2)	32(12.6)	17(10.4)	17(10.4)
	M(SD)	2.19(.58)	2.20(.58)	2.12(.70)	2.14(.68)
자녀 수	1명	20(7.9)	20(7.9)	25(15.3)	22(13.5)
	2명	168(66.1)	167(65.7)	100(61.3)	102(62.6)
	3명	63(24.8)	64(25.2)	32(19.6)	33(20.2)
	4명	3(1.2)	3(1.2)	6(3.7)	6(3.7)
결혼기간(년)	M(SD)	10.50(3.53)	-	9.68(2.73)	-
가구소득(월)	300만원 미만	13(5.1)	9(3.5)	9(5.5)	11(6.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3(13.0)	32(12.5)	15(9.2)	21(12.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71(28.0)	49(19.3)	32(19.6)	29(17.8)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59(23.2)	71(28.0)	44(27.0)	41(25.2)
	600만원 이상	78(30.7)	93(36.6)	63(38.7)	61(37.4)

7차를 기준으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해보면, 평균 연령은 정체된 양육자형이 39.31세, 변화한 양육자형이 39.41세로 정체된 양육자형이 근소하게 높았다. 교육수준은 정체된 양육자형과 변화한 양육자형 모두 4년제 졸업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변화한 양육자형에서는 그 비중이 52.8%로 반절 이상을 차지하였다. 대학원 졸업은 두 유형 모두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녀 수의 경우 두 유형에서 모두 2명인 경우가 많았다. 그 뒤로는 3명, 1명, 4명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자녀 수가 4명인 경우는 정체된 양육자형의 1.2%, 변화한 양육자형의 3.7%를 차지하였으며 절대적인 수 또한 변화한 양육자형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결혼기간의 경우 변화한 양육자형이 정체된 양육자형에 비하여 약 1년 이하 적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두 유형 모두 월 기준 6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그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체된 양육자형의 경우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그룹이, 변화한 양육자형의 경우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의 그룹이 그 뒤를 따랐다. 정체된 양육자형의 경우 7차보다 8차에서 300만원 미만-500만원 미만의 세 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감소하고 500만원 이상의 두 그룹에 속하는 경우

가 증가하였다. 이와 달리 변화한 양육자형의 경우에는 7차에 비해 8차에서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의 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소폭 증가하고 400만원 이상의 세 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편의 양육참여(양육참여 빈도,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편의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양육참여 빈도와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두 가지의 단순매개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매개효과 분석의 전제조건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성 확인과 투입 변수 간 관계 확인을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부인의 결혼만족도, 독립변수인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 매개변수인 남편의 양육참여도와 온정적 양육행동은 모두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의 전제조건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상관성을 확인해보면,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과 매개변수인 양육참여 빈도($r=.136, p<.01$), 온정적 양육행동($r=.270, p<.01$)는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매개효과 검증의 또 다른 전제조건인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즉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와 부인의 결혼만족도($r=.224, p<.01$), 남편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인의 결혼만족도($r=.394, p<.01$) 또한 약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변수 간 상관계수는 .8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주요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변수	1	2	3	4
1. 부인 결혼만족도	1			
2. 남편 성역할태도 유형	.249**	1		
3. 남편 양육참여 빈도	.224**	.136**	1	
4. 남편 온정적 양육행동	.394**	.270**	.504**	1

* $p<.05$, ** $p<.01$

가. 양육참여 빈도의 매개효과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본인의 양육참여 빈도를 통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매개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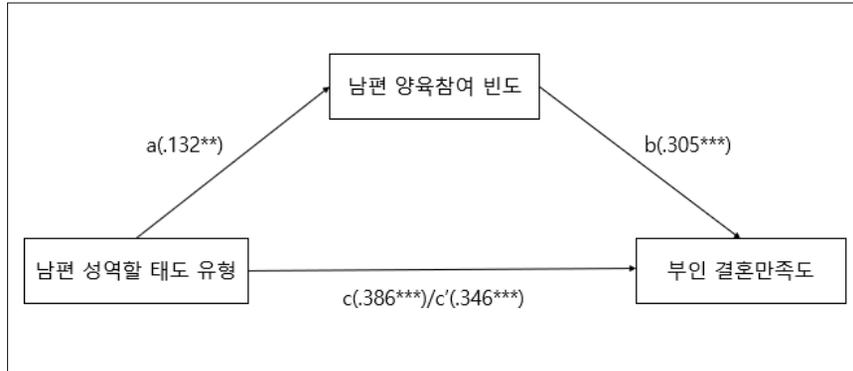
경로	양육참여 빈도			
	B	S.E.	t	p
성역할 태도 → 양육참여 빈도 a	.132**	.050	2.647	.008
양육참여 빈도 → 결혼만족도 b	.305***	.732	4.173	.000
성역할 태도 → 결혼만족도 c	.386***	.075	5.129	.000
성역할 태도 → 결혼만족도 c'	.346***	.074	4.645	.000
매개효과 추정 Bootstrap	추정값	SE	95% 신뢰구간	
	.040	.018	LLCI	ULCI
			.010	.080

* $p < .05$, ** $p < .01$, *** $p < .001$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총 효과(c)의 계수는 .386($p < .00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변화한 양육자 상' 남편의 부인은 '정체된 양육자형' 남편의 부인보다 더 높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총 효과 모형에서는 가구소득($B = .337$, $p < .01$)과 부인의 주관적 건강($B = .275$, $p < .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독립변인인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매개변인인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에 미치는 경로(a)는 유의하였으며($B = .132$, $p < .01$), '변화한 양육자 상'의 남편들은 '정체된 양육자형'에 비해 더 자주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계에서 통제변수 중 유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b)의 계수는 .305($p < .00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때 역시 통제변수 중에서는 가구소득($B = .355$, $p < .01$)과 부인의 주관적 건강($B = .272$, $p < .001$)만이 유의하였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인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종속변인인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즉 직접효과(c')는 .346($p < .001$)로 총 효과($c = .386$)에 비해 계수 값이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매개변인인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가 독립변인인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계수 값인 .040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를 통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재추출 표본 수는 5,000개로, 매개 효과 계수의 상하한 값은 95% 신뢰구간 내에서 구하였다. 〈표 6〉의 매개효과 추정 칸을 보면 하한값은 .010, 상한값은 .080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즉, '정체된 양육자형'에 비해 '변화한 양육자 상' 남편들은 양육 참여 빈도가 높고, 높은 양육참여 빈도는 부인의 결혼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를 모형으로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의 매개효과의 연구모형

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이러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본인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편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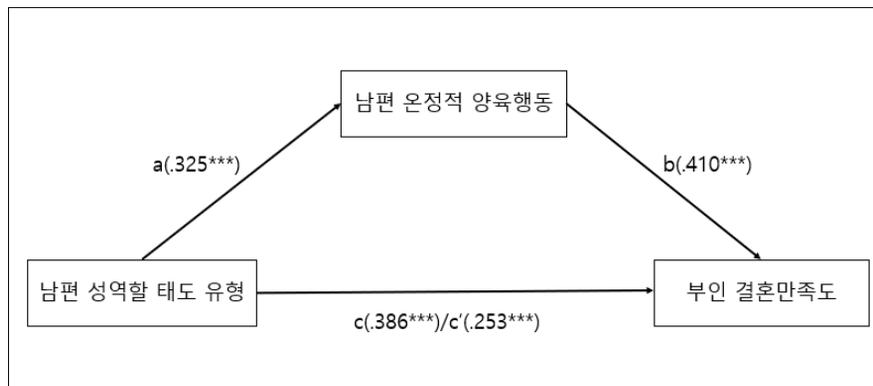
경로	온정적 양육행동			
	B	S.E.	t	p
성역할 태도 → 온정적 양육행동 a	.325***	.059	5.557	.000
온정적 양육행동 → 결혼만족도 b	.410***	.061	6.770	.000
성역할 태도 → 결혼만족도 c	.386***	.075	5.129	.000
성역할 태도 → 결혼만족도 c'	.253**	.074	3.413	.001
매개효과 추정 Bootstrap	추정값	SE	95% 신뢰구간	
	.133	.034	LLCI	ULCI
			.074	.205

* $p < .05$, ** $p < .01$, *** $p < .001$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총 효과(c)의 계수는 이전 모형과 동일하게 .386($p < .00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변화한 양육자형'

남편의 부인들은 ‘정체된 양육자형’의 부인들보다 더 높은 결혼만족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가구소득($B=.337, p<.01$)과 부인의 주관적 건강($B=.275, p<.001$)만이 유의하였다. 독립변인인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매개변인인 남편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경로(a)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325, p<.001$). ‘변화한 양육자 상’의 남편들이 ‘정체된 양육자형’의 남편들에 비해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단계에서 유의한 통제변수는 없었다. 이어, 독립변인인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남편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b)의 계수는 .410($p<.00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가구소득($B=.269, p<.01$)과 부인의 주관적 건강($B=.246, p<.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 즉 매개변인의 효과를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인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종속변인인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c')은 .253($p<.01$)로 총 효과($c=.386$)에 비해 계수 값이 감소하였다. 독립변인인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개변인인 남편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부분매개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계수 값인 .133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를 통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역시 재추출 표본 수는 5,000개로, 매개 효과 계수의 상·하한 값은 95% 신뢰구간 내에서 구하였다. <표 7>의 매개효과 추정 칸을 보면 하한값은 .074, 상한값은 .205로 나타났으며 0의 값을 포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남편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정체된 양육자형’ 남편들에 비해 ‘변화한 양육자 상’ 남편들은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도가 높고, 높은 수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인의 높은 결혼만족도로 이어진다. 결과를 정리하여 [그림 3]의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편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의 연구모형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학령 초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417쌍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와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 성역할 태도의 잠재 프로파일 유형과 일반적 특성

성역할 태도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남편들은 '정체된 양육자형'과 '변화한 양육자형'으로 구분되었다. 문항별로 결과를 해석하면, 먼저 두 유형의 남편들은 여성의 돌봄 정체성을 지지하는 '모의 영유아기 양육(문항 1)'과 '여성 영역으로서 자녀양육(문항 2)'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이가 없었으며, 두 유형 모두 각 문항의 평균값이 높은 경우에도 2점(그렇다)을 약간 웃도는 비교적 낮은 값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자녀가 어릴 때(학령 전)는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문항 1에 대해 남편들은 대체로 '매우 그렇다~그렇다'라고 응답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 본연의 모습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라는 문항 2에 대해서도 대체로 '그렇다'라고 답했다 볼 수 있다. 부인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아기 자녀가 있음을 배경으로 도출된 이 결과는, 남편들이 '출산과 양육이 여성이 가진 본질적 정체성(원숙연·김예슬, 2017)'이라고 보는 여성의 돌봄 정체성과 관련한 모성 이데올로기적 신념을 성역할 태도 유형과 관계없이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별 간 수행하는 역할의 영역이 구분되는 것이 기능적이라 보는 '성역할의 전문화'(문지선, 2019)에 대한 찬성으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남성과 여성의 '전형적인 속성'이라고 여겨지는, 예컨대 여성은 돌봄에 선천적으로 능하고 남성은 그렇지 않다는 믿음이 1970년대 이래로 변하지 않고 공유되고 있다는 Ridgeway와 Corell(2004)의 의견이 데이터가 수집된 2010년대 중반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문항 3~6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일 정체성과 남성의 돌봄 정체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두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 '취업모와 자녀관계(문항 3)',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문항 4)', '아버지와 자녀관계(문항 5)', '외벌이 부부의 가사분담(문항 6)'에서 변화한 양육자형의 남편들은 정체된 양육자형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들은 '취업을 한 어머니도 전업주부 어머니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문항 3)', 즉 취업모와 자녀관계에 대해서도 정체된 양육자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맞벌이·외벌이에 관계없이 정체

된 양육자형에 비해 분담의 부담을 적게 인식하고 있다(문항 4, 6). 주목할 것은 변화한 양육자형의 경우 ‘아버지도 전업주부 어머니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문항 5)’라는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4점(매우 그렇다)이라는 것인데, 이는 변화한 양육자형 집단의 남편 전체가 자녀의 관계에 있어 친밀함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도출된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 유형화 결과는, 여성의 돌봄 역할에 대한 인식은 유형 관계없이 동일하게 ‘전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성의 일 역할이나 남성의 돌봄 역할에 대해서는 ‘평등적’인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어 기존 ‘전통’과 ‘평등’으로 나뉘었던 이분화되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는 앞서 언급한 돌봄 역할, 일 역할과 같이 성역할 태도가 다차원적인 개념들을 포괄하며, 이를 단순 연속선상에서 해석하기에는 논의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역할 태도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체된 양육자형 남편들의 경우, 경제활동은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도 가사 및 양육 등 가족 돌봄의 영역에 대한 남성의 참여는 저조한 모순적인 상황, 소위 ‘지체된 혁명(stalled revolution)’(Hochschild, 2012)으로 그들의 인식과 행동을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성의 그것과 동일선 상에서 평가되지 않고, 가족 돌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까지만 진행되어야만(강이수, 2009) 그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경향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참여가 활발해졌어도 가족을 돌보는 역할은 여전히 여성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가족돌봄기능에 대한 역할규범의 변화속도가 느린 ‘문화지체현상(남정은, 2013)’, ‘신전통적 성별분업 태도(강이수, 2011)’, ‘도구적으로 변용된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문지선, 2019)’ 등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해석 및 정의되고 있다. 이들 집단은 취업모와 자녀관계(문항 3),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문항 4)에 대해 3점(그렇다)을 약간 밑도는 평균응답값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전통적 성역할 태도보다는 다소 평등 지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돌봄 정체성 측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통적이며, 변화한 양육자형 남편들에 비해 변화한 역할 규범에 대한 수용의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체된 양육자형’으로 명명하였다.

과거의 이상적인 아버지는 훈육과 교육 감독을 담당하는(김영옥백혜리, 2000) 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직장생활에만 매진했던 이들이 겪는 소원한 가족관계에 대한 문제인식,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 변화한 자녀교육 환경 등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안에서 변화들이 일어났다(조형숙김지혜김태인, 2008). 이에 양육적(nurturing)이고, 지지적(supportive)이고, 동료적(companionate)인 ‘새로운 아버지(Harris & Morgan, 1991)’, ‘떠오르는 아버지(Emergent Father)(함인희, 1997)’ 등이 새로운 이상적인 아버지 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변화한 양육자형’의 남편들은

가사와 자녀 양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아버지 상에 근접하기 위한 본인의 의지를 5번 문항의 응답에 반영하였다. 정체된 양육자형의 남편들과 가장 비교되는, 양육자(carer)로서의 정체성(나성은, 2014)을 높이 인식한 특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화한 양육자형'이라는 집단명은 이러한 배경에서 결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성역할 태도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들과 비교해보면, 두 유형의 남편들은 모두 Knight와 Brinton(2017)의 연구에서의 평등 가족주의형(egalitarian familism) 집단, 즉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여성의 일 가치를 모두 지지하며 부인이 갖는 노동자와 어머니로서의 이중 책임을 강조하는 성향과 가장 비슷한 특성을 보였다. Grunow와 Begall 그리고 Buchler(2018)가 도출한 성역할 태도 유형 중에서는 여성의 가사 및 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지지하는 평등 본질주의형(egalitarian essentialism)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변화한 양육자형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있어 본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집중적 육아형(intensive parenting)의 특성 또한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4~5개의 유형을 도출한 선행연구(Knight & Brinton, 2017; Grunow, Begall & Buchler, 2018)와는 달리 두 개의 잠재 프로파일 유형만이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가 여러 유럽국가의 청중장년을 포함하여 천~만 명 단위의 사례 수로 진행된 반면 본 연구는 비슷한 생애주기에 있는 백 명 단위로 진행되어 표본의 다양성과 크기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두 유형 중 변화한 양육자형 남편들은 모성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면서도 자녀 양육에 있어 본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대상에 속하는 남편들의 세대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 남편들의 평균 나이는 성역할 태도 응답이 수집된 7차 기준 39.35세로, X세대가 이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수정과 조효진(2016)에 따르면 이들은 소비 지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탈권위적, 양성평등적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탈권위적이고 양성평등적일 수 있더라도 도출된 성역할 태도 유형들은 '부분적으로' 탈권위적이고 양성평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현대 남성들의 성역할 태도가 과도기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 유형은 '정체된 양육자형'과 '변화한 양육자형'의 두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들은 돌봄이 본질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는 모성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공통으로 공유하지만, 변화한 양육자형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본인의 참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며 자녀와 보다 친밀한 '새로운 아버지상'을 수용하는 남편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부모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 사일런트 세대가 지니고 있는 가구 내 성별 분업적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즉 산업화 이후 남성은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집에서 양육을 전담하는 성별화된 노동의 양상이 나타나면서, 남편들은 사회화된 모성 이데올로기를 학

습했고, 그것이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실제 성장과정에서도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아버지, 양육에 전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돌봄노동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변화한 양육자형 남편들의 경우 새로운 아버지 상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기에, 그 의지를 실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치와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손영빈과 윤기영(2011)의 연구에서는 남편들이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니는 경향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천적인 부분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남편들은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이를 실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연구대상자들의 다수인 X세대 맞벌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한 김수정과 조효진(2016)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이를 수행하기를 원함에도 직장에서의 배려 부족으로 이를 실천하지 못함을 보고하고 있다. 변화한 양육자형 남편들의 실천이 정체된 양육자형의 남편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기에,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남성의 돌봄 역할 수행권을 국가적,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할 것이 요구된다.

2.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편의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편의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양육참여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제언에 따라 양육참여의 양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양육참여 빈도와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온정적 양육행동, 총 2개의 매개변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양육참여 빈도를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연구 모형에서는 양육참여 빈도가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즉 독립변인인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남편의 양육참여 빈도가 매개하였으며,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변화한 양육자형인 경우 정체된 양육자형에 비해 더 자주 양육에 참여하고, 남편이 더 자주 양육에 참여할수록 부인은 높은 수준의 결혼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연구 모형에서도 독립변인인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과 종속변인인 부인의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남편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매개하였으며,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 또한 미치면

서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변화한 양육자형인 경우 정체된 양육자형에 비해 자녀에게 보이는 온정적 양육행동의 정도가 높고, 높은 남편의 온정적 양육행동 정도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역할 태도, 즉 가사 및 양육의 가족 돌봄에 대한 의식과 그를 실천하는 것은 개별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리고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주고 남편의 실천적 양육(해당 연구에서는 양육 분담)이 그 관계를 매개한다는 김혜성과 그레이스정(2019)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변수 간 관계를 참고한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본인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는 선행연구(박선주·강민주, 2017; 이형민·신나리, 2019)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또한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김혜성·그레이스정, 2019; 박민자, 1994; 정승혜, 1987)의 연구와 그 흐름을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상승한다는 두 변수의 관계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김혜성·그레이스정, 2019; 손영반·윤기영, 2011; 장재홍·김태성, 2002)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맞벌이 가구 부인의 결혼만족도 향상과 그를 통한 가족생활, 삶의 질의 전반적 향상을 위해서는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과 양육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역할 태도 유형 중 '변화한 양육자형'에 속한, 부인에게 보다 많은 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며 본인 또한 가사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유형의 남편들은 '정체된 양육자형'보다 양육에도 많이 참여하고 높은 수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부인의 결혼만족도에도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의 관계 사이에서 남편의 양육행동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함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등한 성역할 태도 및 올바른 젠더 규범, 부부 역할 분담 등과 관련한 사회화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남편 혹은 아내 각각의 개인적 변화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사결정을 하며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정책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덧붙여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편이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갖거나 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할수록 본인 스스로의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태현·박주희, 2005; 윤기봉·지연경, 2017),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도 맞벌이 가족 내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편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3. 종합적 제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한계점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성역할 태도라는 변인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 기존의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성역할 태도는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차원에 대해 전통적(또는 평등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다른 차원들을 모두 전통적(또는 평등적)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모성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해서는 유형 관계없이 비교적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남성의 양육 참여 도모 및 돌봄 역할 재정립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한 남편의 성역할 태도 유형과 부인의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이에서 작용하는 변인을 파악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남편의 성역할 태도의 영향은 사회구조상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권력을 가져 두 변인의 관계에 남성의 권력이 작용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문지선, 2019; 박하영·전혜정·주수산나, 2018; 전현진·박성연, 1999), 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충분치 않고(김혜성·그레이스정, 2019), 두 변인 간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 또한 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의 성역할 태도 유형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남편의 양육참여가 갖는 효과를 파악하여 의미 있는 학술적 결과를 축적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남성들의 양육참여를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숙현·권영인, 2009)는 선행연구의 제언을 참고하여 남편의 양육참여의 양적 측면, 질적 측면을 고려하고 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남성들 또한 돌봄 능력이 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는 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양육참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실천을 목표로 하는 아버지 육아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된 의의와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과 관련된 한계로는, 다양한 모형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최종 모형 선정 및 판단에 있어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성이 더 많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모형 적합도 지수가 잠재 프로파일 유형 결정 시 적절한한지에 대해서는 학제 내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사안으로(박하영·전혜정·주수산나, 2020), 모든 잠재 프로파일 분석 방법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에 관한 한계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Jung & Wickrama, 2008).

본 연구는 동일한 연령의 자녀를 가진 한국 부부를 대상으로 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기에, 유아기-학령 초기의 자녀를 둔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특정하여 양육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로 집단 간 크게 이질적이지 않은 두 성역할 태도 유형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 범위 등을 고려한, 보다 이질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결과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도출된 결과를 통해 성역할 태도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위와 같은 의의와 한계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성역할 태도의 유사성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등 결혼만족도라는 변인이 갖는 관계적 특성을 좀 더 주의 깊게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상대의 지각(perception)이 본인의 응답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김혜성·그레이스정, 2019), 부부관계 자체의 특성 또한 고려한 연구 계획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양육의 측면을 질적, 양적으로 구분한 것을 넘어서 다양하게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여 남편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예로 이숙현과 권영인(2009)는 Lamb(1986)이 제시한 ‘자녀에 대한 직접적 돌봄’, ‘사회화 책임 수행’, ‘양육 의사결정’의 세 영역으로 남편들의 양육참여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와 더불어, 이와 같은 남편들의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 논의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학문적 노력은 남편들의 돌봄 정체성의 실천을 도모하여, 맞벌이 가구 여성들의 이중노동 부담을 덜고 그 가족들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경·김해미·정미라(2018). 임신기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일-가정갈등을 통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3(3), 441-462.
- 강이수(2009). 여성의 일-가족에 대한 태도와 ‘선택’의 문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5, 237-272.
- 강이수(2011). 취업 여성의 ‘남편’과 일-가족 문제. *젠더와 문화*, 4(1), 43-87.
- 감정기·박미희(2014). 지속적 사회봉사 예측요인으로서 참여 동기의 작용기제 연구: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관리 상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5, 7-50.
- 김미령(2009).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6, 35-61.
- 김미령(2011).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여성연구*, 81(2), 69-101.
- 김수정·조효진(2016). 미취학 자녀를 둔 X세대 남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지역과 세계*, 40(1), 185-213.
- 김영옥·백혜리(2000). 조선 시대 아동 양육 방법에 관한 문헌적 탐구. *유아교육학논집*, 4(1), 5-24.

- 김은설·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은희(200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99-119.
- 김주현·문영주(2010). 맞벌이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생활 만족과 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강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09-126.
- 김태현·박주희(2005).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관계 향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79-106.
- 김향련·고재홍. (2007).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89-105.
- 김현령·류수민. (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방식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9(2), 193-209.
- 김효민·박정윤(2013).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본인 및 배우자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3), 125-140.
- 김혜성·그레이스정(2019). 행복한 대한민국의 '김지영'을 위하여-남편의 성역할 태도, 양육 분담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9(1), 35-64.
- 나성은(2014). 남성의 양육 참여와 평등한 부모 역할의 의미 구성: 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4(2), 71-112.
- 남정은(2013). 젊은 세대의 양육과 관련된 가치관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2), 441-460.
- 문지선(2019). 다중평형 상태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부부관계 만족도의 학력별 차이. 한국여성학, 35(1), 183-242.
- 박민자(1994). 부부관계의 평등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71-109.
- 박선미·박병기(2014). 매개효과 연구의 동향분석과 새로운 방향 탐색. 교육심리연구, 28(1), 41-70.
- 박선주·강민주(2017).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1(3), 87-111.
- 박하영·전혜정·주수산나(2018). 남녀노인의 성역할 태도 유형이 부부관계 만족도와 부부갈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1), 21-47.
- 박하영·전혜정·주수산나(2020). 중년부부의 성역할 태도 유사성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부부갈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1), 127-141.
- 설경옥·문혁준(200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7), 1-9.
- 손영빈·윤기영(2011). 아버지의 역할지각,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05-126.
- 유지영(2018). 근로 변인과 성역할 변인이 남성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 재직 30-40 대

- 남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1), 301-322.
- 윤기봉·지연경(2017). 유아기 자녀를 둔 남편의 양육참여 및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단적 자기-상대방 효과. 인간발달연구, 24, 133-153.
- 윤경자(1997).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21-235.
- 육아정책연구소(n.d.). 한국아동패널 소개. 한국아동패널 웹사이트 <https://panel.kicce.re.kr/panel/index.do>에서 2020년 7월 30일 인출.
- 윤은주(2016). 가정주부와 산업노동자의 경계에 선 여성: 재생산 노동과 노동의 유연화.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83-96.
- 이경희·김영화·신성일(2012).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1), 125-152.
- 이미숙(1996).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16(1), 153-173.
- 이미숙(2000).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부인의 가정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45-161.
- 이숙현·권영인(2009).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일-가족 갈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1-28.
- 이슬기(2019). 남성규범과 새로운 아버지 신념에 따른 아버지 유형과 공동양육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여봉(2010).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연령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 33(1), 103-131.
- 이영미·김정희(1997). 성역할정체감, 사회적 지지 및 일상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51-365.
- 김은희(200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99-119.
- 이정순(2003).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역할관과 아동관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7(4), 53-67.
- 이정은·이윤희(2012). 성역할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노출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3(6), 2543-2555.
- 이정운·김주현(2020). 한국 기혼 여성의 세대별 성역할 태도 차이에 대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여성가족패널 (KLoWF) 자료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29-62.
- 이형민·신나리(2019). 학령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수용 경험, 성역할 고정관념, 부모역할 갈등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취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8(3), 201-216.
- 원숙연·김예슬(2017). 성역할 인식의 영향요인과 정책적 함의: 모성 및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7(2), 269-311.
- 장재홍·김태성(2002).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자녀양육태도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지, 10(2), 123-139.

- 전현진·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 회지*, 20(3), 153-169.
- 전혜성·서미아(2012). 중년기 부부의 부부권력 및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12(4), 349-357.
- 정승혜(1987).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운태·서재욱(2016). 성역할 태도와 맞벌이 태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기혼, 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한 유형화.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143-160.
-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10), 123-133.
- 조형숙·김지혜·김태인(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아버지상에 대한 연구. *유아 교육학논집*, 12, 239-264.
- 최지은·김현경(2019).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3(2), 145-169.
- 하상희(2008).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6(2), 129-141.
- 함인희(1997). 현대사회 아버지상의 재발견. *가족과 문화*, 2, 1-24.
- 허원무(2013). 매개효과 분석 방법의 최근 트렌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단순, 다중, 이중매개 효과 분석 방법. *기업과 혁신연구*, 6(3), 43-59.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arnett, R. C., & Baruch, G. K.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1), 29-40.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 Belsky, J., & Yongblade, L. M. (1991). From family to friend: predicting positive dyadic interaction with a close friend at 5 years of age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 *Human Development*, 7, 35-62.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Program. Retrieved June 23, 2020, from <http://nces.ed.gov/ecls/kindergarten.asp>.
- Finley, G. E., & Schwartz, S. J. (2004). The father involvement and nurturant fathering scales: Retrospective measures for adolescent and adult childre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4(1), 143-164.
- Gelfand, L. A., Mensinger, J. L., & Tenhave, T. (2009). Mediation analysis: A retrospective snapshot of practice and more recent directions.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36(2), 153-178.

- Grunow, D., Begall, K., & Buchler, S. (2018). Gender ideologies in Europe: A multidimensional fram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0(1), 42-60.
- Harris, K. M., & Morgan, S. P. (1991). Fathers, sons, and daughters: Differential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544.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NY: The Guilford Press.
- Hiller, D. V., & Philliber, W. W. (1986). The division of labor in contemporary marriage: Expectations, perceptions, and performance. *Social Problems*, 33(3), 191-201.
- Hochschild, A. (2012). *The Second Shift (Revised Version)*. New York: Penguin Books.
- Jedidi, K., Ramaswamy, V., & DeSarbo, W. S. (1993). A maximum likelihood method for latent class regression involving a censored dependent variable. *Psychometrika*, 58(3), 375-394.
- Jeong, E. A.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al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number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 Jung, T., & Wickrama, K. 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alin, R., & Tilby, P. J. (197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x-role ideolog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42(3), 731-738.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im, Y. R. (2005). *Fathers of offspring with severe mental illness: Key factors related to fathers' participation in caregiving*.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exas.
- Knight, C. R., & Brinton, M. C. (2017). One egalitarianism or several? Two decades of gender-role attitude change in Europ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2(5), 1485-1532.
- Kuo, P. X., Volling, B. L., & Gonzalez, R. (2018). Gender role beliefs, work-family conflict, and father involvement after the birth of a second child.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9(2), 243-256.

- Lamb, M. E. (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4), 245-266.
- Lamb, M. E. (Ed.). (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Hoboken, NJ: Wiley-Interscience.
- Lorber, J. (1994). *Paradoxes of Gend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archand, J. F. (2004). Husbands' and wives' marital quality: The role of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depressive symptoms, and conflict resolution behavior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4*(1), 99-112.
- Magidson, J., & Vermunt, J. K. (2002). A nontechnical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models. *Statistical Innovations White Paper, 1*, 1-15.
- Minnotte, K. L., Minnotte, M. C., & Pedersen, D. E. (2013). Marital Satisfaction among dual-earner couples: Gender ideologies and family-to-work conflict. *Family Relations, 62*(4), 686-698.
- Muthén, L. K., & Muthén, Bengt, O. (2007). *Mplus user's guide*. Los Angeles, CA: Authors.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4). *Mplus*(Version 7.3) [Computer software]. Los Angeles, CA: Authors.
- Orpinas, P., Raczynski, K., Peters, J. W., Colman, L., & Bandalos, D. (2015). Latent profile analysis of sixth graders based on teacher ratings: Association with school dropout. *School Psychology Quarterly, 30*(4), 577-592.
- Ridgeway, C. L., & Correll, S. J. (2004). Unpacking the gender system: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gender beliefs and social relations. *Gender & society, 18*(4), 510-531.
- Saxbe, D. E., Repetti, R. L., & Nishina, A. (2008). Marital satisfaction, recovery from work, and diurnal cortisol among men and women. *Health Psychology, 27*(1), 15.
- Scanzoni, L., & Scanzoni, J. (1976). *Men, women and change: A sociology of marriage and family*. NY: McGraw-Hill Book Co.
- Schumm, W. R., Webb, F. J., & Bollman, S. R. (1998). Gender and marital satisfaction: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Psychological Reports, 83*(1), 319-327.
- Stickney, L. T., & Konrad, A. M. (2007). Gender-role attitudes and earnings: A multinational study of married women and men. *Sex Roles, 57*(11-12), 801-811.
- West, C. & Zimmerman, D. H. (1987). Doing gender. *Gender & society, 1*(2), 125-151.

• 교신저자: 정인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inhye.jung@yonsei.ac.kr

Abstract

The Effect of Typology of Husbands' Gender Role Attitude on Wives' Marital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 of Husbands'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Miseon Kang, Inhye Jung and Si Young Song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patterns of the gender role attitude among husbands in dual-income households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atterns of husbands' gender role attitude on wives' marital satisfaction through husbands' frequency of child-rearing participation and warm parenting. 7th (2014) and 8th (2015) data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The samples included 417 dual-income married couples who responded to both 7th and 8th surveys. Using Mplus 7.3, a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patterns of husbands' gender role attitudes. And model 4 of SPSS PROCESS macro was used to examine indirect effects, 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As a result of a latent profile analysis, husbands' gender role attitudes were classified with two groups. These groups were named "Stalled fathers" and "Evolving fathers," respectively. And husbands' frequency of child-rearing participation and warm parenting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sbands' gender role attitude pattern and wives' marital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1) suggest the gender role attitude should be discussed as a multidimensional concept, 2) propose a new approach and interpretation about fathers' gender role attitude and 3) explain the mechanism between husbands' gender role attitude pattern and wives' marital satisfaction which is mediated by husbands' frequency of child-rearing participation and warm parenting. These results can provide key data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family policies and programs related to the marriage of dual-income households. These also imply the importance of equal gender role attitudes, proper gender norms, and dual-income couples' role assignments based on sufficient

communication and joint decision making. It is needed to develop programs that can promote male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and help them to redefine their identity as primary caregivers.

- Key words: Gender role attitude, Latent profile analysis, Marital satisfaction, Husbands'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Dual-income households

맞벌이 가구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양육참여에 대한 고찰

배윤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9월 1일에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⁴²⁾에 따르면, 2019년 여성 고용률은 51.6%로 2009년에 비해 3.8%p 상승하였고, 남성 고용률은 70.7%로 2009년 대비 0.5%p 상승하였다. 2019년 경력단절여성은 169만 9천 명으로 이는 2014년(216만 4천 명) 대비 46만 5천 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이로써 남녀 고용률의 차이는 점차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⁴³⁾

역시 여성가족부(2020)의 발표에 따르면,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에서 '둘 다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49.5%, 남성 40.3%로, 남녀 모두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를 알 수 있다⁴⁴⁾. 하지만 2019년 맞벌이 가구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시간은 남성보다 2시간 13분이 더 많아서 여전히 가사일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자녀돌봄 현황을 조사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일하는 부모의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과 육아시간지원, 가족돌봄휴가 이용 등에서 부에 비해 모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최윤경, 2020.4.14.).⁴⁵⁾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구 아내와 남편의 성역할 태도나 양육참여를 모두 다루지 않고 남편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갖는 의미가 큰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남편의 성역할 태도에 대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여 정제된 양육자와 변화한 양육자로 구분하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첫째, 성역할 태도 문항 중 '모의 영유

42)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9.3.).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43) 2019년 남녀 고용률의 차이는 19.1%p로 2009년 대비 3.3%p 감소함.

44)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가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2011년도 여성 41.2%, 남성 29.3% → 2019년도 여성 49.5%, 남성 40.3%이었음.

45) 자료: 최윤경(2020.4.14.).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brief 81호.

아기 양육'과 '여성 영역으로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다. 즉, 변화한 양육자라고 할지라도 자녀양육 특히 영유아기의 자녀 돌봄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남편일지라도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아내의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한다는 경향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의 약 60%가 정체된 양육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정체된 양육자는 왜 정체될 수밖에 없었으며,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자녀양육의 책임이 부와 모에게 동시에 있다는 양육자로서의 인식과 실제적 역할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 등 사회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결혼만족도 등 가족의 삶의 질을 대표하는 특성에 대해서도 재고해볼 수 있었다. 결혼만족도는 부부 개인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끼치기에 가족의 삶의 질에 중요한 변인이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의 다양한 측면이 관련되어 있으며,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은 결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에 귀결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추후연구를 제안하자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와 학령 초기의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에는 다른 시기의 자녀를 둔 부부와 비교하거나 자녀연령별로 경향을 나타내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양육참여, 그리고 아내의 결혼만족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가족구성원 간에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므로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의 성역할 태도나 양육분담도 다루는 등 남편(부)과 아내(모)의 변인을 함께 주제로 삼아 그 매커니즘을 밝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바란다.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의 전이와 부모, 교사의 예측요인 검증

장희선⁴⁶⁾

요약

본 연구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학교적응의 잠재집단프로파일과 변화양상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교사변인의 예측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자료 2008년의 초등학교 1학년(8차), 초등학교 4학년(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 잠재프로파일, 잠재전이분석 및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 결과,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은 '낮은 적응형', '중간 적응형', '높은 적응형', '낮은 교사적응형'의 4개 유형으로 4학년은 '낮은 적응형', '중간 적응형', '높은 적응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잠재전이분석에서 초 1의 학교적응은 초 4가 되면서 잠재집단을 유지하거나 학교적응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전이되고 있지만, 낮은 적응과 높은 적응의 간격은 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높은 적응형으로 전이를 높이는 가장 큰 예측요인은 초1 초2, 초3, 초4때의 부모의 학업적 관심이었으며, 초3, 초4때의 교사 갈등은 부적인 예측요인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으로 성장변화하는 학생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잠재집단에 따른 차별적 부모의 학업적 관심과 교사-아동의 상호작용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분석, 잠재전이분석, 부모, 교사-아동 관계,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

1. 서론

초등학교 시기는 사회에서 처음 접하는 공교육 기관으로 학교라는 환경속에서 자신이 속하는 사회에서 허용되는 기본적인 행동 양식과 가치관을 습득하는 시기이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가정이라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교사 및 친구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고 학습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받는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적응하는 것은 공교육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유아기에서 아동기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발달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이다. 초등학교 시기는 새로운 사회를 학업과 같은 교육적 활동이나 교사

46) 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및 학교에서 지켜야할 규율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이 주어진다. 학교는 아동의 이러한 새롭고 다양한 과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사회적 맥락이 된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에서부터 매 학년이 변함에 따라 주어지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통한 학습에 대한 성취와 흥미 및, 또래와의 활동과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규칙에 대한 적응 등의 학교 적응은 이후의 학교생활 뿐 아니라, 학업성취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민진, 2008; 김수정, 박금주, 2012; Ladd & Troop-Gordon, 2003; Simons-Morton & Crump, 2003; La Paro, Pianta, Cox, 2000; Parker et al., 2006; Roeser & Eccles, 1998). 따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과 초등학교에서 학교 적응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아동은 입학에서부터 교육과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동안 수업을 듣고, 규칙과 질서를 지켜야하며, 학업성취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곳이다. 저학년 시기에는 유아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의 아동은 변화된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 적응에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하다(최지영, 양현주, 2012). 뿐만 아니라 이후 고학년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4학년은 학업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권혜진, 성미영, 2013). 즉, 이러한 시기의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와는 달리 점차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학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의 프로파일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초등학교 4학년의 학교적응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학교적응은 개인에게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학교의 요구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와 개인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Bierman, 1994). 학교적응은 학업성취 외에도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학교생활만족도’, ‘학업태도’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학교적응은 학자에 따라 하위요인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민병수(1991)는 학업성취,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기도 하였다. 아동의 학교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학업태도에 속하는 학업열의와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업만족 및 학교생활 만족을 살펴보기도 하였다(권미나, 이진숙, 2020). 지성애, 정대현(2006)은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학교적응’, ‘학업수행 적응’, ‘또래 적응’, ‘교사적응’ 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초등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교적응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성애, 정대현(2006)의 학교적응 척도가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아동의 언어이해를 고려한 적합한

척도라 하겠다.

본 연구는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의 변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학교적응의 변화양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초등학교 집단 내의 이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대상자 중심의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분류된 집단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되어 집단에 따라 변수들의 영향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다(Magidson, J., & Vermunt, J., 2002). 또한,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점검하여 분류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성에서 배제되어 분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의 프로파일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군집분석을 활용하여가 잠재프로파일로 집단을 분류하기도 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을 프로파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거나(권재기, 정미경, 2012; 정경용, 송종원, 2012),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기도 하였다(성미영 외, 2016). 선행연구의 결과, 유형의 명칭만 다르고 학교적응의 형태적 측면에서 유사한 유형인 '적응형', '적응 미비 또는 중간 적응', '부적응 또는 부적응 심각'의 세 유형으로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적응형'(권재기, 정미경, 2012; 정경용, 송종원, 2012), '적응우수 또는 적응근접, 미미한 적응'(성미영 외, 2012; 정경용, 송종원, 2012) 등이 분류되었으며, 부적응 위험 및 부적응(성미영 외, 2012), '부적응 심각 및 부적응'(정경용, 송종원, 2012) 등의 잠재집단으로 도출되었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특정 요인에서 차이를 보여 특이 적응유형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령기 후기 학생은 '적응집단', '교우관계 부적응 집단', '학업부진 집단', '학교 및 교사관계 불만 집단'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된 결과(권재기, 정미경, 2012)와,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점진적 적응감소군', '점진적 적응증가군', '고적응 유지군', '저적응 유지군', '점진적 미세 감소군'의 5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되었다(남지영, 김재철, 2017). 또한 초등학교 6학년은 '적응형', '부적응형', '학교친화형'의 3개 유형으로 도출되었다(박상현, 2019).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으로 즉,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변화함에 따른 학교적응의 전이 변화를 확인한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의 학교적응의 전이양상의 특성과 예측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지속적인 학교적응에 시사하는 바를 제공할 것이다.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학업적 관심과 지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김미진, 홍세영, 2019; 김은설, 2018)가 수행되었다. 또한 아동의 학교적응은 이들이 속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금지현, 손찬희, 채은수, 강성국, 2013; Josefsson et al., 2013). 예를 들어 금지현 등(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일수록 자녀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만, 거부적이고 강압

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모감독은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는 결과도 나타났지만(권재기, 정미경, 2012), 대체로 부모통제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김은주, 2007; 조은정, 2012). 따라서 부모의 학업적 관심과 감독적 양육방식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성장함에 따라 학교적응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사회적인 생활이 시작되는 학교에서의 교육경험이 수업과정과 학교생활지도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에게 미치는 교사의 영향력은 매우 중대하다. 특히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아동의 관계는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예측요인이라 하겠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아동의 내적 동기 및 학업태도,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gault, Green-Demers, & Pelletier, 2006; Ford & Roby, 2013). 국내연구에서도 아동의 학업적응이 개인이나 가정 요인보다는 학교생활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강유경, 한유경, 2015). 또한 아동의 교사 선호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함을 밝혔다(김은설, 2018).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교사-아동의 관계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학교적응의 변화에 어떠한 예측을 하는 요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8차; 1차 시점)과 초등학교 4학년(11차 ; 2차 시점)의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학교적응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초1에서 초4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적응의 전이과정을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나타나는 잠재집단 간의 전이 확률과 내용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전이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교사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교변화에 부조화 없이 적응하고, 학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적응 프로파일 전이 양상에 따른 부모와 교사의 교육적 방안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의 학교적응 잠재집단의 구성과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의 학교적응 잠재집단의 전이 양상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3.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의 학교적응 잠재집단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교사 관련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nel Study of Korea Children) 참여한 아동 1, 777명의 자료이다. 한국아동패널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전국규모(제주도 제외)의 종단연구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령기인 8차 년도(2015년) 자료와 9차, 10차, 1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 아동패의 자료는 아동이 출생한 2008년부터 수집된 자료를 연속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8차)에서 초등학교 4학년(11차) 학생의 학교적응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해당 변인에 모두 응답한 자료를 중심으로 종단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모집단은 2015년(8차)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2018년(11차)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다. 먼저, 2015년(8차)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서 응답한 자료는 2,050명의 자료였다. 자료에서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에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 응답한 초등학교 1학년 자료는 1,031명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서 문항에 응답한 자료는 1,119명이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초1자료와 초4 자료의 종단 잠재전이분석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자료 뿐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자료를 종합하여 두 시점 모두에 응답하지 못한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 545명의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학교적응과 부모관련 변인(부모관심, 부모감독), 교사와 관계(교사친밀, 교사갈등)문항에서 발생한 결측치를 모두 제외하고, 8차, 9차, 10차 11차 조사에 연속적으로 참여하여 모두 응답한 총 474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의 성별분포는 남학생 245명(51.7%), 여학생 229명(48.3%)이었다.

〈표 1〉 일반적 특성

	특성	N(%)	M(SD)
성별	남학생	245 (51.7)	
	여학생	229 (48.3)	
교육수준	모 (초대졸 이상)	338(71.3)	
	부 (초대졸 이상)	340(71.7)	
취업여부	모 (취업/학업 병행)	205(43.2)	
	부 (취업/학업 병행)	448(94.4)	
가정	월수입(2015년)		452.23(186.70)

2. 측정도구

가. 학교적응

한국아동패널에서 활용한 학교적응 문항은 지성애, 정대현(2006)에 개발한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로 초등학교 일학년 학생용으로 타당화하여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생활적응은 유아교육기관에서와는 다른 책상에서 앉아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적응, 보다 심해진, 질서 및 규칙에 대한 적응, 정해진 일과에 대한 적응, 교사의 지시나 요구에 대한 적응 등 학교에서의 생활과 관계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업수행적응은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발표력 등 의사표현이나 활동의 의욕성, 수업시간에서의 활동과 모둠별 활동,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과제나 준비물의 준비를 잘 하는 등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학업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또래적응은 친구들과의 놀이에 관한 문항, 갈등해결의 형태, 그리고 또래와 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사적응은 선생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함,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함, 선생님께 인사를 잘함, 선생님께 도움을 잘 청함 등 교사와의 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한국아동패널자료에 포함된 설문지에는 하위 척도 별로 학교생활적응 11문항, 학업수행적응 11문항, 또래적응 8문항, 교사적응 5문항, 총 35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방식(‘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1>과 같이 문항은 하위 척도별 Cronbach α 신뢰도는 .806~.955로 좋은 편이라 하겠다.

<표 1> 학교적응 하위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N=474)

하위 척도	문항수	내용(예시)	Cronbach α	
			초1	초4
학교생활 적응	11	-수업 중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앉아 있기 힘들어한다(-) -학교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 -주어진 상황에 참을성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한다. -등교시간, 수업시간 쉬는 시간 등을 잘 지켜서 행동한다.	.955	.950
학업수행 적응	11	-매사에 의욕적이다. -자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발표한다. -모둠별 활동이나 전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	.944	.947
또래 적응	8	-장난감을 친구들과 나누어 가지고 논다. -친구를 잘 도와 준다.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다.	.941	.940
교사 적응	5	-선생님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선생님께 인사를 잘 한다. -필요로 할 때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833	.806

나. 예측요인 : 부모관련과 교사관계 변인

학교적응의 예측요인으로 부모관련 변인과 교사관계 변인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관련 변인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연속적인 문항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8차에서 11차에 걸친 설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적 관심도’와 ‘부모감독’ 변인을 활용하였다. ‘부모의 학업적 관심도’는 아동이 지각한 자녀의 학습과 정보제공 및 조언 등에 해당하는 총체적인 학업에 대한 관심도를 의미한다. 문항 응답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1점’에서 ‘항상 관심을 보인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부모 감독’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과 사회관계를 감독 통제하는 형태의 양육방식을 의미한다. 문항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부모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2>와 같이 부모관련 예측요인 별 Cronbach α 신뢰도는 부모감독이 .739이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하겠다.

<표 2> 부모관련 변인 예측요인 문항구성과 신뢰도(N=474)

요인	문항수	내용(예시)	Cronbach α			
			초1	초2	초3	초4
부모 학업 관심도	1	-부모님께서 ○○(이)의 학교 공부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시니?	-	-	-	-
부모 감독	4	-○○이(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다.	.739	.803	.767	.809
		-○○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다.				
		-○○이(가) 어른없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이(가) 어른없이 있을 때 연락을 주고받는다.				

다. 예측요인 : 교사-아동 관계 변인

교사-아동 관계 변인은 Pianta(2001)의 교사-학생 관계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아동패널연구 설문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교사-학생 관계 척도문항은 초등학교 2학년 부터 3학년, 4학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수집되어 종단적 영향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다. 이 문항은 교사가 지각한 아동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사-아동의 친밀(Closeness) 7문항과 갈등(Conflict) 8문항의 두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총 15문항을 활용하였다. ‘친밀관계’ 영역의 문항은 교사가 지각한 교사-아동의 따뜻한 관계, 의사소통, 공감 등의 정서적인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갈등관계’ 영역의 문항은 교사가 지각한 교사-아동의 의견충돌, 정서적 교류의 불일치, 관계의 소진, 불투명성 등으로 나타나는 교사와 아동의 불편하게 부딪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설문에서는 Pianta(2001)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short form’을 활용하였다. 문

항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교사-아동 관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3>과 같이 교사-아동관계 예측요인별 Cronbach α 신뢰도는 친밀관계가 .847, .887, .879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갈등관계도 .845, .813, .821 로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표 3> 교사-아동 관계 변인 예측요인 문항 구성과 신뢰도(N=474)

요인	문항수	내용(예시)	Cronbach α		
			초2	초3	초4
친밀 관계	7	-나는 OO(이)와 다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847	.887	.879
		-OO(이)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위안을 받으려 할 것이다.			
		-OO(이)는 나와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OO(이)는 자발적으로 나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갈등 관계	8	-OO(이)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와 솔직하게 나눈다.	.845	.813	.821
		-OO(이)와 나는 항상 의견이 부딪히는 것 같다.			
		-OO(이)는 훈육을 받으면 계속 화를 내거나 반항한다.			
		-나에 대한 OO(이)의 감정은 예측할 수 없거나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다.			
		-OO(이)는 나를 영악하게 조종하려고 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Mplus 7.0과 SPSS 25를 활용해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시점의 학교적응 잠재집단의 구성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1차 시점에서 2차 시점으로 이동하면서 전이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 변인과 교사-아동 변인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전이집단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자료의 기술통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SPSS 25를 활용하였으며, 초1 시점과 초3 시점의 학교적응의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잠재전이분석을 위해 Mplus 7.0을 활용하였다. 잠재전이분석에는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두 시점의 잠재전이분석의 혼합모형을 사용하였다. 먼저,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적합도 지수로 BIC, AIC, Adjusted BIC 지표를 활용하였는데, 이 지표는 낮을수록 잠재유형의 수가 적합함을 보여준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그리고 분류된 잠재집단의 수에 따른 분류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엔트로피(Entropy) 값을 활용하였으며, 이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적절하게 분류된 것을 의미한다. 즉, 잠재유형의 결정을 위한 적합도 지수인 BIC, AIC 값이 작고, 엔트로피

(Entropy) 값이 1에 가까워질 때 좋은 적합도를 보이며(Reinecke, 2006), 잠재집단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LMR-LRT 등의 다른 적합도지수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러한 지수는 하나씩 집단수를 늘려가면서 이전의 모형과 비교하여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유의값을 토대로 k개 유형의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준다(Lo, Mendell & Rubin, 2001).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부모변인과 교사-아동관계 변인이 고등학생 진로역량의 전이집단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승산비를 통해 확인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의 잠재프로파일과 예측요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결과는 <표 4>과 같다. 먼저, 학교적응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시기보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모든 학교적응의 하위 영역에서 높은 평균결과로 나타났다. 초1(8차) 시점과 초4(11차) 시점의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들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부모 관련 변수들도 학교적응 유형에 따라 정적 또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교사-아동관계 변수는 친밀관계는 학교적응에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지만, 갈등관계는 부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 모든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도 절대값이 모두 10이하로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T1(초1 시점)				T2(초4 시점)				부모관심				교사전담				교사일등			
	1	2	3	4	1	2	3	4	초1	초2	초3	초4	초1	초2	초3	초4	초1	초2	초3	초4
T1	1																			
	2	.550**																		
	3	.588**	.681**	1																
	4	.197**	.450**	.437**	1															
T2	1	.376**	.215**	.297**	.026	1														
	2	.229**	.355**	.330**	.102	.702**	1													
	3	.277**	.245**	.373**	.089	.729**	.797**	1												
	4	.039	.166**	.149**	.109	.453**	.669**	.596**	1											
부모 감독	초1	.098	.075	.070	.022	.044	.029	.033	.012	1										
	초2	.080	.055	.071	.019	.103	.109	.099	.102	.357**	1									
	초3	.097	.061	.119**	-.034*	.036	.065	.066	.041	.106	.215**	1								
	초4	.052	.085	.144**	.007	.135	.140**	.110	.089	.130	.187**	.401**	1							
부모 관심	초1	.089	.062	.060	.034	.006	.031	.051	-.027	.065	.066	-.002	-.003	1						
	초2	.118**	.089	.097	.122**	.131**	.129**	.136**	.105	.035	.046	.029	.079	.097	1					
	초3	.068	.185**	.141**	.077	.107	.173**	.106	.080	.072	.077	.039	.117**	.183**	.126**	1				
	초4	.059	.057	.055	.009	-.005	.045	.026	.032	.009	.115**	.065	.110	.090	.108	.423**	1			
교사 전담	초1	.197**	.203**	.239**	.186**	.277**	.209**	.226**	.200	.020	.068	.076	.100	.047	.201**	.085	.085	1		
	초2	.171**	.175**	.193**	.153**	.191**	.192**	.224**	.242**	.130	.027	.017	.086	.029	.091	.010	.010	.163**	1	
	초3	.107	.204**	.217**	.208**	.401**	.543**	.517**	.673**	.027	.110	.044	.095	-.011	.136**	.021	.021	.240**	.218**	1
	초4	-.312**	-.130**	-.274**	-.071	-.347**	-.155**	-.233**	-.076	-.042	-.044	-.043	-.028	.040	-.107	-.020	-.020	-.373**	-.101	-.136**
교사 일등	초1	-.261**	-.132**	-.196**	-.046	-.289**	-.132**	-.262**	-.097	-.051	.003	-.003	-.045	.018	-.073	-.059	-.175**	-.549**	-.100	.307**
	초2	-.267**	-.161**	-.271**	-.089	-.561**	-.376**	-.494**	-.296**	.013	-.095	-.069	-.096	.058	-.086	.062	.062	-.201**	-.195**	-.450**
	초3	4.10	3.85	3.99	4.02	4.31	4.02	4.09	4.07	4.84	4.85	4.78	4.66	3.43	3.42	3.01	2.81	4.07	4.1	4.08
	초4	.92	.85	.79	.75	.79	.83	.78	.71	.35	.34	.54	.45	.76	.76	.82	.77	.61	.66	.62
왜도	초1	-1.08	-.63	-.71	-.83	-1.42	-.89	-1.08	-.78	-3.25	-4.06	1.72	-.97	-.92	-1.20	-.25	-.02	-.44	-.90	-39
	초2	.38	-.02	.22	.53	1.65	.43	1.53	.59	14.26	24.02	16.71	.61	-.31	.79	-.91	-.66	.25	1.26	-.48
	초3																			
	초4																			

1=학교생활적응, 2=학습수행적응, 3=포래적응, 4=교사적응

2. 학교적응의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가. 측정시기별 잠재프로파일분석

각 시점별로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탐색적으로 2개의 잠재프로파일부터 집단 수를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6개의 프로파일까지 분석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5>와 같다.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BIC적합도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 값만으로는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AIC, BIC, SSA-BIC, LMRT 지수뿐만 아니라, Entropy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 수를 정하였다.

초 1(8차)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 모형 적합도(초1(N=474))

집단 수	AIC	BIC	SSA-BIC	LMRT	Entropy	집단간 분류비율(%)				
						1	2	3	4	5
2	4797.454	4853.412	4812.144	537.852***	.803	35.61	64.39			
3	4658.637	4736.117	4678.978	44.241	.804	9.87	38.4	51.19		
4	4543.639	4642.641	4569.630	107.634*	.860	10.12	39.07	48.79	2.02	
5	4482.366	4602.890	4514.007	68.082	.804	7.13	4.57	18.46	31.99	37.84

* $p < .05$, *** $p < .001$

<표 5> 측정시기별 잠재프로파일 모형적합도와 분류비율

초 4(11차)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 모형 적합도(초4(N=474))

집단 수	AIC	BIC	SSA-BIC	LMRT	Entropy	집단간 분류비율(%)				
						1	2	3	4	5
2	4287.477	4343.435	4302.168	805.938*	.858	39.07	70.93			
3	3855.547	3933.027	3875.888	428.342**	.883	7.08	56.88	36.03		
4	3723.879	3822.881	3749.870	137.312	.856	4.94	17.73	43.69	33.64	
5	3733.879	3854.403	3765.520	0.000	.840	4.94	17.73	33.64	43.69	0.00

* $p < .05$, ** $p < .01$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모형 비교검증, 정보준거지수, 분류의 질의 순서를 따랐다(정송 외, 2014). 초등학교 1학년(1차 시점)의 학교적응 계층의 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LMRT 지수도 모든 계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으며, AIC, BIC, SSA-BIC의 정보준거에 의한 적합도지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4개 이후로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Entropy 값은 5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6개부터 감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1차 시점의 학교적응의 잠재계층은 분류 사례수가 적절히 분포된 4개 잠재계층이라고 판단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2차 시점)의 학교적응의 계층수를 결정하는 데에도 같은 순서를 따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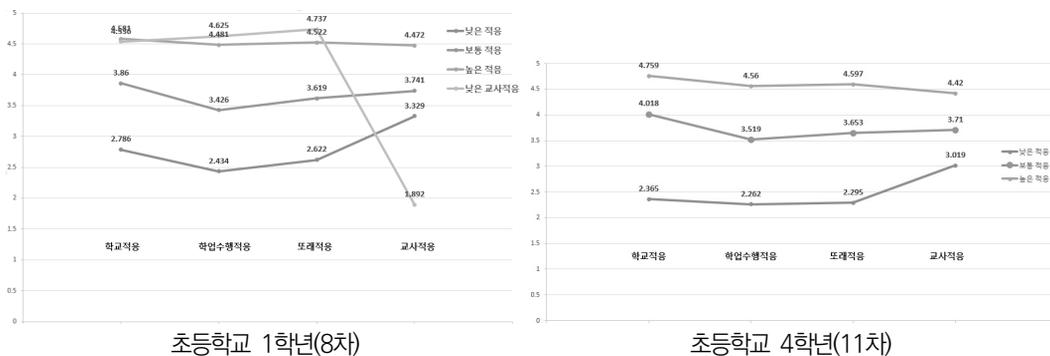
다. 모형 비교검증에서 LMRT 지수가 3개 계층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1$)을 보였으며, 4개 계층부터는 유의수준($p < .05$)이 줄어들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AIC, BIC, SSA-BIC의 정보준거에 의한 적합도지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3개 이후로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었다. Entropy값도 3개 까지 증가하다가 4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2차 시점의 학교적응의 잠재계층은 LMRT 모형 비교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며, 정보준거 적합도 지수가 낮고, 분류의 질이 어느 정도 우수한 계층은 3개 계층이 적합하고, 각 분류의 사례수도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AIC, BIC, SSA-BIC 정보준거에 의한 적합도 지수, 분류된 사례수의 적절성, 해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시점(초1)의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은 4개 계층, 2차 시점(초4)의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은 3개 계층 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나. 학교적응 프로파일의 특성

분류된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 4계층과 초등학교 4학년의 학교적응 3개 계층의 잠재프로파일별 특성과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적응의 하위척도 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학교적응의 잠재프로파일 평균(표준편차)(N=474)

비율	T1				T2									
	낮은 적응	중간 적응	높은 적응	낮은 교사적응	낮은 적응	중간 적응	높은 적응							
	10.51	39.07	48.79	2.02	7.09	36.03	56.88							
학교적응	2.79	.36	3.86	.16	4.58	.06	4.54	.31	2.37	.22	4.02	.11	4.76	.03
학업수행적응	2.43	.31	3.43	.15	4.48	.06	4.63	.18	2.26	.13	3.52	.11	4.56	.06
도래적응	2.62	.26	3.62	.14	4.52	.06	4.74	.11	2.30	.24	3.65	.08	4.60	.05
교사적응	3.33	.2	3.74	.11	4.47	.05	1.89	.07	3.02	.16	3.71	.08	4.42	.05



[그림 1] 초등학교 1학년(8차)과 초등학교 4학년(11차) 잠재집단별 학교적응 하위요인 잠재집단 프로파일10.51

분류된 <표 6>의 특성과 [그림 1]의 학교적응 프로파일의 특성을 분석하여 각 프로파일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잠재계층의 명칭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1차 시점)의 학교적응 프로파일의 특성에 따른 명칭은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잠재집단 유형은 전체 대상의 10.51%를 차지하며,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낮은 적응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학업수행적응에서 가장 낮았고, 교사 적응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두 번째 잠재집단 유형은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39.07%를 차지하는 유형이었다. 이 유형은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의 적응도를 보여주어 '중간 적응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잠재집단 유형은 전체 대상의 48.69%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 '높은 적응형'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잠재집단 유형은 전체 대상의 2.02%를 차지하며, 학교적응의 하위 영역 중 학교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교사적응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낮은 교사적응'으로 명명하였다. '낮은 적응형', '중간 적응형', '높은 적응형', '낮은 교사적응형' 네 잠재집단은 학교적응의 하위척도별로 격차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학업수행적응 영역은 '낮은 적응형', '중간 적응형', '높은 적응형'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교사적응 영역은 '낮은 적응형'과 '높은 적응형'의 격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적응 영역은 '낮은 교사적응형'이 '높은 적응형'과 가장 큰 격차를 보여주며 초등학교 1학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2차)의 학교적응의 프로파일의 특성에 따른 명칭을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재집단 유형은 전체 초등학교 4학년 약 7.08%가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적응 하위영역에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낮은 적응형'이라 하였다. 두 번째 잠재집단 유형은 전체 대상 36.03%를 차지하고, 학교적응의 하위영역별로 모두 중간 정도의 적응 수준을 보여 '중간 적응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잠재집단 유형은 전체 대상 56.8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으로 다른 잠재집단유형의 특성보다 학교적응 하위척도 요인에서 어느 요인으로 치우치지 않은 고르게 높은 평균분포를 보여 '높은 적응형'으로 명명하였다. 학교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

초등학교 4학년의 학교적응 프로파일의 특성은 학교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의 프로파일이 초등학교 1학년보다 격차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적응형', '중간 적응형', '높은 적응형'의 학교적응 하위요인의 프로파일에서 교사적응 프로파일의 평균 격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고, 나머지 학교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에서는 프로파일의 격차가 각 유형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정리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학교적응의 프로파일이 ‘낮은 적응형’, ‘중간 적응형’, ‘높은 적응형’으로 보다 더 명확하게 그 격차를 벌이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초1에서 ‘낮은 적응형’은 초4에서는 더 낮은 적응의 평균수준의 ‘낮은 적응형’으로 나타났고, 초1에서 ‘중간 적응형’과 ‘높은 적응형’은 초4에서 보다 높은 평균점수 분포가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적응 잠재집단이 공고화되는 프로파일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즉, 초1에서 초4로 변화하면서 초1에 나타났던 ‘낮은 교사적응형’이 사라지고, 초4에서는 ‘낮은 적응형’, ‘중간 적응형’, ‘높은 적응형’으로 형태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낮은 교사적응형’을 제외하고,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의 구성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3. 초등학생 학교적응의 잠재전이분석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의 4계층 잠재집단과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성장한 시점에서의 3계층 잠재집단의 최종모형을 각각 확정하였다. 이후 두 시점에 따른 모형을 결합하여 시점의 변화에 따른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시점의 잠재집단 계층의 조합에 따른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면서 가능한 잠재전이모형을 탐색하였다. 적합도 지수결과 지수의 조합을 높이면서 AIC, BIC, SSA-BIC 정보준거를 확인한 결과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Entropy 값이 .857 이고, 모형 비교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4×3의 잠재집단 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적응의 잠재집단유형별로 초등학교 1학년(1차)집단에서 초등학교 4학년(2차) 잠재집단으로 이동할 때 잠재프로파일의 전이확률을 산출하여 <표 7>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1차(초1)에서 ‘낮은 적응형’에 속한 학생들 중 2차(초4)에는 ‘중간 적응형’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4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높은 적응형’으로도 26%가 전이하는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적응형’에 남아있는 경우도 30%로 높았다. 즉, ‘낮은 적응형’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낮은 적응형’에 남아있는 30%를 제외하고 학교적응이 점차 향상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초1에서 ‘중간 적응형’ 학생들은 대부분 ‘중간 적응형’(48.19%)으로 남아있거나, ‘높은 적응형’으로 46.63% 전이하며, ‘낮은 적응형’으로 전이하는 확률은 4.15%로 나타나 매우 낮았다. 즉, 초4가 되면서 ‘중간 적응형’의 학생들은 그대로 중간수준의 학교적응이나 보다 높은 수준의 적응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셋째, 초1에서 ‘높은 적응형’ 학생들은 ‘높은 적응형’(70.13%)으로 대부분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중간 적응형’으로 전이하는 패턴도 25.73%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록 낮은 확률이지만, ‘낮은 적응형’으로도 4.15%로 전이하기도 하였다. 즉, 초1에서는 학교적응

에서 '높은 적응형'으로 나타났던 학생들은 대체로 초4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학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겠다.

넷째, '낮은 교사적응형'은 초등학교 1학년에 나타나는 독특한 잠재집단으로 학교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교사적응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형태이다. 초1에서 '낮은 교사적응형' 학생들은 초4가 되면서 90%로 '높은 학교적응형'으로 전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학교적응형'으로 10%로 전이하였으며, '낮은 학교적응형'으로는 거의 전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1학년 때 교사에 대한 적응에서만 매우 낮았던 '낮은 교사적응형' 학생들은 학교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이 높았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교사와의 관계도 좋아져서 '높은 적응형'으로 전이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7〉 초1-초4 학교적응 잠재집단 간 전이 확률(%) 및 전이 패턴(N=494)

학교적응(초1) 프로파일(%)	학교적응(초4) 프로파일(%)			전체 %(N)
	낮은 적응	중간 적응	높은 적응	
낮은 적응	3.04 (30)	4.45 (44)	2.63 (26)	10.12(50)
중간 적응	2.02 (5.18)	18.83 (48.19)	18.22 (46.63)	39.07(193)
높은 적응	2.02 (4.15)	12.55 (25.73)	34.21 (70.13)	48.79(241)
낮은 교사적응	0 (0)	.2 (10)	1.82 (90)	2.02(10)
전체%(N)	7.08(35)	36.03(178)	56.88(281)	100(494명)

주: 괄호 안의 비율()은 1차년도 잠재집단 중 해당 전이패턴이 차지하는 비율임

전이패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집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전이 패턴은 '높은 적응형 → 높은 적응형'(34.21%)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중간 적응형 → 중간 적응형'(18.83%), '중간 적응형 → 높은 적응형'(18.22%)순이었다. 즉, 초등학교 1학년때 '높은 적응형' 학생은 초4에서도 '높은 적응형'으로 남아있는 전이 패턴의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간 적응형'이 여전히 '중간 적응형'으로 남아있는 전이패턴의 비율도 높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이 이후의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초1에서 '중간 적응형'이 초4에서 18.22%정도 '높은 적응형'으로 전이하는 패턴이 많이 보이는 등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즉, 시간에 따라 학교적응을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으로 성장하면서 학교적응은 잠재집단을 유지하거나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시간에 따라 학교적응을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1차에서 ‘높은 적응형’이었던 학생이 2차에서 ‘낮은 학교적응형’(4.15%)이나 ‘중간 적응형’으로 전이되는 패턴(25.73%)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학생들은 1차(초1)에서는 학습의 내용과 양이 작고, 학습방법에서도 흥미로운 활동중심이며,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보호적이고 관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2차(초4)로 변화되면서 학습내용의 양이 방대해지고, 깊고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됨에 따라 점차 흥미와 놀이중심의 학습에서 복잡하고 이론중심의 학습방법이 변화되었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중학년으로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4. 초등학생 학교적응 잠재집단 간 전이에 미치는 부모와 교사변인 예측효과 검증

학교적응의 초1에서 초4로 성장하는 잠재집단 간 잠재전이 패턴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 변인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1서 초4로 잠재전이패턴을 분석한 결과 총 12개의 전이 패턴을 도출하였다. 예측 변인으로는 부모 관련변인으로 부모의 학업적 관심, 부모감독의 2개 변인을 8차(초1), 9차(초2), 10차(초3), 11차(초4)에 걸쳐 반복적이고 일관적으로 수집한 항목을 투입하였다. 또한 교사 변인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측정한 아동-교사의 관계 문항을 활용하여, 교사친밀과 교사갈등의 2개 변인을 투입하였다. 9차(초2), 10차(초3), 11차(초4)에 걸쳐 반복적이고 일관적으로 수집한 항목을 투입하였다. 즉,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으로 학교적응의 잠재전이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2개의 부모 예측변인의 초1, 초2, 초3, 초4에서 측정한 변인과 2개의 교사 예측변인의 초2, 초3, 초4에서 측정한 변인을 적용하였다. 먼저, 초1에서 초4로 ‘낮은 적응형’에서 ‘낮은 적응형’ 유지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 다른 전이패턴과 비교하며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잠재집단 간 전이의 예측요인

		초1에서 초4로 낮은 학교적응 유지 집단(참조 집단) vs					
초1	초4	Effect	Logit	SE	logist/SE	p value	OR
낮은적응	중간적응	교사갈등(초4)	-2.75 ^{***}	.71	-3.90	.000	.06
	높은적응	부모감독(초3)	-1.73 [*]	.78	-2.22	.026	.18
		교사갈등(초4)	-2.78 ^{**}	.90	-3.10	.002	.06
		부모관심(초2)	0.85 [*]	.36	2.36	.018	2.33
중간적응	중간적응	부모감독(초3)	-1.33 [*]	.52	-2.53	.011	.27
		교사친밀(초4)	-1.07 [*]	.51	-2.09	.037	.34
	높은적응	교사갈등(초4)	-2.33 ^{***}	.49	-4.72	.000	.10
		부모관심(초2)	0.90 [*]	.36	2.46	.014	2.45
		교사갈등(초4)	-2.31 ^{***}	.51	-4.53	.000	.10

낮은적응	부모관심(초2)	-1.35*	.66	-2.06	.04	3.85	
	교사갈등(초4)	2.33**	.81	2.89	.004	.10	
중간적응	부모관심(초2)	-0.99**	.37	-2.64	.008	2.69	
	교사친밀(초4)	-1.08*	.53	-2.04	.042	.34	
높은적응	교사갈등(초4)	2.66***	.53	4.50	.000	.07	
	부모관심(초2)	1.05**	.36	2.93	.003	2.85	
높은적응	부모감독(초3)	-1.24*	.50	-2.47	.013	.29	
	부모관심(초3)	1.91**	.68	2.81	.005	6.76	
	교사갈등(초4)	-1.89***	.48	-3.95	.000	.15	
낮은 교사적응	높은적응	교사갈등(초4)	-1.81*	.74	-2.43	.015	.16
		부모관심(초4)	2.05*	1.04	1.97	.049	7.78

* $p < .05$, ** $p < .01$, *** $p < .001$

주. 잠재전이확률에 대해 유의미한 예측효과가 나타난 집단의 결과만 제시함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부모의 학업적 관심과 부모감독 및 교사친밀과 교사갈등은 초1에서 초4로 학교적응유형에 따라 다른유형으로 전이 패턴에 속할 확률에서 부분적인 예측효과가 유의한 통계적인 결과가 타났다. 전이패턴별로 예측요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 때 '낮은 적응형'의 경우, 초1에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낮은 학교적응형' 유지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면, '낮은 적응형' 학생은 초4때 교사갈등이 없을수록 '중간 적응형'으로 전이하고($OR=.06$, $p < .001$), 초4때 교사갈등 뿐 ($OR=.18$, $p < .05$)아니라 초3때 부모감독이 없을수록($OR=.06$, $p < .01$) '높은 적응형'으로 전이할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

'중간 적응형'의 경우, 초2때 부모관심이 높을수록 '중간 적응형'에 남아있거나 ($OR=2.33$, $p < .05$), '높은 적응형'($OR=2.45$, $p < .05$)으로 전이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초3때 부모감독이 없을수록 '중간 적응형'을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OR=.27$, $p < .05$), 교사변인에 있어서는 초4때 교사친밀이 없거나($OR=.34$, $p < .05$), 또는 교사갈등이 없으면 ($OR=.10$, $p < .001$) '중간 적응형'으로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중간 적응형'에서 '높은 적응형'으로 전이할 확률을 높이는 예측요인은 초2때 부모관심이 높고($OR=2.45$, $p < .05$), 초4때 교사갈등이 낮은 수준을 보일수록($OR=.10$, $p < .001$) 그러한 전이패턴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적응형'의 경우, 초 2때 부모관심이 낮거나($OR=3.85$, $p < .05$), 초4때 교사갈등이 높을수록($OR=.10$, $p < .01$) '낮은 적응형'의 전이패턴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초2 때 부모관심이 낮거나($OR=2.69$, $p < .01$), 초4때 교사친밀이 낮으며($OR=.34$, $p < .05$), 교사갈등이 높을수록($OR=.07$, $p < .001$) '중간 적응형'으로 전이하는 패턴에 속할 확률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높은 적응형’ 유지하는 패턴에 속할 확률은 초2때 부모관심이 높거나($OR=2.85, p<.01$), 초3때 부모감독이 낮으며($OR=.29, p<.05$), 부모관심이 높고($OR=6.79, p<.01$), 초4때 교사갈등이 낮을수록($OR=.15, p<.001$) ‘높은 적응형’을 유지하는 전이패턴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교사적응형’에서 ‘높은 적응형’으로 전이에 있어서는 초4때 교사갈등이 낮고($OR=.16, p<.05$) 부모관심이 높을수록($OR=7.78, p<.05$) 이러한 전이패턴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낮은 적응형’의 학생을 ‘높은 적응형’, ‘중간 적응형’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이패턴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유의한 가장 큰 예측요인은 초 2, 3, 4때의 지속적인 ‘부모의 학업적 관심’이었다. 그러나 초 3때 ‘부모감독’이 없을수록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이패턴 확률을 높이는 예측요인이었다.

다음으로 교사-아동관계 변인의 예측효과에 있어서 초 3과 4때의 ‘교사갈등’요인이 없을수록 ‘낮은 적응형’이나 ‘보통 적응형’, ‘낮은 교사적응형’ 학생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높은 적응형’으로 보다 높은 긍정적인 전이패턴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예측요인이었다. 이렇게 부모 학업적 관심과 감독 및 교사-아동의 관계는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잠재집단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학교적응을 향상 또는 감소시키는 데 차별적인 예측효과를 보여주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8차; 1차 시점)의 종단적으로 수집된 4학년 학생(11차; 2차 시점)의 자료를 대상으로 두 시점에서 측정된 학교적응의 잠재집단프로파일을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잠재집단 유형간 전이확률과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교사변인의 예측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자료 2008년의 8차(2015년), 9차(2016년), 10차(2017년)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2015년)과 초등학교 4학년(2018년) 두 시점의 잠재집단의 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두 시점의 잠재집단 전이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교사관련 변인의 예측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 결과,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의 잠재프로파일 결과 잠재집단은 1차(초1)와 2차(초4)에서 각각 4개와 3개의 학교적응 잠재집단유형으로 분류되었다. 1차 잠재집단은 집단유형이 ‘낮은 적응형’, ‘중간 적응형’, ‘높은 적응형’, ‘낮

은 교사적응형'으로 구분되었다. 2차 잠재집단은 집단유형이 비교적 뚜렷하게 '낮은 적응형', '중간 적응형', '높은 적응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잠재집단 유형간 뚜렷한 차이는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적응의 잠재집단을 형태 측면에서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학령기 후기 학생은 '적응집단', '교우관계 부적응 집단', '학업부진 집단', '학교 및 교사관계 불만 집단'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된 결과(권재기, 정미경, 2012)와,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점진적 적응감소군', '점진적 적응증가군', '고적응 유지군', '저적응 유지군', '점진적 미세 감소군'의 5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되었다(남지영, 김재철, 2017). 또한 초등학교 6학년은 적응형, 부적응형, 학교친화형의 3개 유형으로 도출된 선행연구와도 차이를 보였다(박상현, 2019)

초1에서 학교적응의 '낮은 교사적응형'을 제외한 3개의 잠재집단 성격이 초4에서와 각각 유사한 양상으로 두 시점의 프로파일의 형태에 있어서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잠재집단을 질적 측면에서도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 즉, 학교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의 잠재집단의 유형에 강도에 의한 구분에서도 유형별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어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낮은 교사적응형'에서는 매우 독특한 학교적응 하위요인의 구성을 보여준다. 즉, 이들은 학교적응의 다른 요인인 학교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교사적응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질적인 학교적응 프로파일 구성에 독특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학교적응과 학교수행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잘 적응하여 높은 성취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경직되고 두려움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초1에서 초4로 학교적응의 잠재전이분석 결과,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잠재집단을 유지하거나 학교적응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전이되고 있지만, 낮은 적응과 높은 적응의 간격은 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때 '높은 적응형' 학생은 초4에서도 '높은 적응형'으로 남아있거나, '중간 적응형'이 여전히 '중간 적응형'으로 남아있는 전이패턴의 비율도 높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이 이후의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으로 이동할 때 학교적응 프로파일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학교적응의 자기회귀계수가 .60 이상(성경주, 김재철, 2017)을 보여 대체로 초기에 학교적응을 잘 한 학생이 이후의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에서 '낮은 교사적응'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잠재집단은 유사하며, 하위요인의 평균이 잠재집단에 따라 격차만 다소 커지는 양상으로 질적 변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보였다. 이 결과는 초등학생에서 중학교로의 전이기의 학교적응에서는 '학교친화형'

에서 ‘적응형’으로 60%가 전이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성을 보인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한편, 1차에서 ‘높은 적응형’이었던 학생이 2차에서 ‘낮은 학교적응형’이나 ‘중간 적응형’으로 전이되는 패턴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학생들은 1차(초1)에서는 학습의 내용과 양이 작고, 학습방법에서도 흥미로운 활동중심이며,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보호적이고 관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2차(초4)로 변화되면서 학습내용의 양이 방대해지고, 깊고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됨에 따라 점차 흥미와 놀이중심의 학습에서 복잡하고 이론중심의 학습방법이 변화되었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중학년으로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환경에서 자유롭고 탐색적이며, 활동적인 수업환경에서는 학교, 학습수행, 교사, 또래에 대한 흥미를 느꼈으나, 초등학교 중학년으로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는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습에 대한 의욕을 잃거나 교사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있겠다. 이렇게 변화된 학교환경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보다 자율적인 학교생활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학교적응을 질적으로 낮추게 된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여 이들이 학교적응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으로 학교적응의 잠재집단전이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으로 부모의 학업적 관심이 가장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교사갈등, 교사친밀의 교사-아동관계 변인이 잠재전이 확률에 차별적 예측요인이었다. 부모감독, 부모의 학업적 관심은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학교적응의 질을 향상 또는 감소시키는 데 차별적인 예측효과를 보여주었다. 초등학교 1, 2, 3, 4학년 때 지속적인 부모의 학업적 관심은 ‘낮은 적응형’에서 ‘중간 적응형’, ‘높은 적응형’으로 전이하거나 ‘높은 적응형’을 유지할 확률을 높이는 예측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학업적 관심과 지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는 결과였다(김미진, 홍세영, 2019; 김은설, 2018) 그런데, 초 3때 ‘부모감독’이 이러한 전이패턴에 부적인 예측요인이었다. 이 결과는 자녀가 인식한 부모감독 수준을 높게 유지한다면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발견한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이지만(권재기, 정미경, 2012) 부모통제는 자녀의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이 나타난 결과(김은주, 2007; 조은정, 2012)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즉, 부모감독과 같이 학업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같은 형태는 자녀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킨 결과(한정욱, 2017)로 볼 수도 있다.

한편, 교사-아동의 관계에 있어서 초 3과 4때의 ‘교사갈등’요인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낮은 적응형’이나 ‘중간 적응형’에서 ‘높은 적응형’으로 보다 높은 긍정적인 전이패턴에

속할 확률에서 부적인 예측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였다(권재기, 정미경, 2012; 김은설, 2018; 손진영, 2016). 이렇게 부모 학업적 관심과 감독 및 교사-아동의 관계는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잠재집단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학교적응을 향상 또는 감소시키는 데 차별적인 예측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추후 초등학교 1학년에서 ‘낮은 적응형’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높은 적응형’형으로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학교적응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부모변인과 교사-아동관계변인은 그 질적 수준과 형태에 있어서 학교적응유형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부모의 학업적 관심, 부모감독과 교사친밀, 교사갈등이 없는 상황 등의 역동적 조합에 따른 적절한 부모와 교사 변인의 처치가 필요하다.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의 변화는 부모와 교사변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학교적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녀의 학교적응유형별 부모의 적절한 학업적 관심, 순기능적 부모 양육방식, 아동-교사의 관계 증진시킬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08년 층화표집된 전국 영아를 대상으로 종단적으로 수집된 자료로 2015년의 초등학교 1학년 자료(8차)에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 설문조사의 종단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두 시점에서 동시에 응답한 자료를 토대로 2학년(9차), 3학년(10차), 4학년(11차)의 부모변인과 교사-아동 관계변인에 모두 응답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료의 훼손과 손실이 많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성장에 따른 코호트 집단을 전체 초등학생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다 초등학교 학생의 대상과 범위의 수집과 분석 자료를 확대하여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의 변화를 확인하고 일반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의 전환에 따른 학교적응의 변화 프로파일을 지속적으로 밝혀 보다 폭넓은 학령기에 따른 학교적응 프로파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변인(부모의 학업적 관심, 부모감독)은 한국아동패널조사에 활용한 문항으로 부모의 학업적 관심은 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모감독 문항도 학생의 관리 및 통제에 해당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체계적인 부모의 학업적 관심과 양육방식에 관한 문항 구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 두 가지 부모변인을 활용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제시된 부모 양육방식관련 문항

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물질적, 정서적 지원 문항이 생략되어 있거나, 자율성 지지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모감독에서도 부모의 타율적 통제 등의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측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부모관련 변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개발 측정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아동관계 변인은 Pianta(2001)가 개발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를 한국아동 패널에서 활용한 것으로 친밀, 갈등의 두 개 영역별 총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보다 폭넓은 교사-아동의 관계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덧붙여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된 측정변수이기 때문에 학교적응, 부모, 교사변인의 측정 자료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초등학생의 학년변화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층면담이나 참여관찰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후속연구로 부모 변인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년으로 성장 변화하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전이 패턴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인 변인, 학교, 사회적 변인들의 보다 다층적이고 구조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더욱 폭넓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보이는 종단적 전이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교사 변인시간에 따른 예측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학교적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의 양육방식 및 교사-아동의 상호작용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강유경, 한유경 (2015). 초등학생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연구. *교육 학연구*, 53, 61-88.
- 권미나, 이진숙(2020).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화와 아동의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 비교, *아동과 권리* 24(2).179-195
- 권재기, 정미경 (2012) 학령후기 학교적응 프로파일과 관련된 개인·가정환경 변인의 단기 종단적 분석 :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하여. *아동교육* 21(3). 147-167.
- 권혜진, 성미영 (2013).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2 (4), 395-403.
- 권혜진, 정혜옥 (2015).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지원연구*, 10(4), 79-96.
- 금지현, 손찬희, 채수은, 강성국 (2013).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정 및 개인 관련 변인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 (2), 119-143.
- 김미진 (2016).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의 유형 차이분석: 분노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 (2), 239-262.

- 김미진, 홍세영(2019). 초등학교의 학교적응 영향요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 19(6), 659-719.
- 김민진 (2008). 초등학교 1 학년 아동의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교육 과학연구, 39(1), 181-210.
- 김수정, 박금주 (2012).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1, 2 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변인 간 관련성에서 차이: 양육효능감, 자아개념 그리고 친사회성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 85-105.
- 김용래, 허남진 (2003). 학습동기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20, 5-24.
- 김은설(2018).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연구, 발달지원연구, 7(1), 19-34.
- 김은주 (2007). 부모자녀관계와 자기결정성 요인들이 대학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3), 539-555.
- 남지영, 김재철(2017). 방과 후 부모부재 유형과 학교적응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4(6), 281-306.
-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현(2019). 초, 중 전환기 학생의 학교적응 프로파일의 종단적 변화 및 예측요인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1), 821-841.
- 박성혜, 윤종희 (2013).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청소년 연구, 24(3), 147-169.
- 박영숙, 유순화, 한귀녀, 정애리 (2007).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학생의 교사태도에 대한 지각이 초등학교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0(3), 449-467.
- 박은영 (2011).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6), 1-27.
- 박정주 (2011). 교사애착이 학생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분석. 한국교육연구, 28(3), 333-352.
- 손진영(2016). 부모감독과 교사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연 (2007). 학습자가 인지한 사회심리적 환경, 학습동기, 학습전략과 학업부정행위 및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귀옥, 이미리 (2013).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 변인 탐색. 생애학회지, 3(1), 13-28.
- 이재민, 김춘경, 한은수 (2014). 초등학교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자기효능감, 학교적응 간의 관계 구조분석. 초등교육연구, 27(4), 345-367.
- 이진숙 (2004). 취학 전 시기의 모-자녀관계, 교사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기종단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333-357.
- 장혜진, 김은설, 송신영 (2014). 아동 개인 및 가정환경에 따른 초등학교 1 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 차이 연구. 초등교육연구, 27(2), 95-122.

- 조은정(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1), 35-50.
- 지성애, 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최지영, 양현주 (2012). 취학 전 교육기관 유형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초기 적응 비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2), 265-286.
- 한정옥, 박선미(2018).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 지지와 학업성취압력이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18(20), 165-182.
- Bierman, K. L. (1994). School adjustment. In R. J. Corsini (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John Wiley & Sons.
- Lo, Y., Mendell, N., & Rubin, D.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 767-778.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Pianta, R. C. (2001). *The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Odessa, FL: Personality Assessment Research.
- Reinecke, J. (2006). Longitudinal analysis of adolescents' deviant and delinquent behavior. *Methodology*, 2(3): 100-112.
- Magidson, J., & Vermunt, J. (2002). Latent class models for clustering: A comparison with K-means. *Canadia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 37-44.
- Legault, L., Green-Demers, I., & Pelletier, L. (2006). Why do high school students lack motivation in the classroom? Toward an understanding of academic a motivation and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 y chology*, 9 8(3), 567-582.
- 교신저자: 장희선, 해전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chhs@hj.ac.kr

Abstract

The Longitudinal Transi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Adaptation Profiles transitional students from 1st to 4th and its Predicted Effect of Parent and Teacher Factors.

Heesun Chang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chool adaption profiles of transitional students from 1st to 4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PSKC(Pannel Study of Korea Children) data, as well as the transition process of student groups and the predicted effect of parent and teacher factors. Correlation analysis, latent profile, latent transition,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data from 474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responded to both the first and second surveys in 2015 and 2018.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atent groups for the school adaption of the 1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the four group types each with 'Low Adaptation', 'Middle Adaptation', 'High Adaptation', 'Low Teacher Adaptation' respectively. But, the latent groups of the 4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the three group types each with 'Low Adaptation', 'Middle Adaptation', 'High Adaptation'. Second, the gap between low and high adaptation type appears to be greater, although the school adaptation of the 1st elementary school is maintained or the quality level of the school adaptation is shifting to a higher level as it reaches the 4th grade. Third, parents' academic concerns for high adaptive type were the biggest predictor that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transition to autonomous motivation type. and teacher conflict in 3rd and 4th grade was the negative predictor.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parental academic concerns, and interaction with teacher for each latent group to enhance school adaption of transitional students a the grade of elementary school goes up.

- Key words: School Adaptation, Latent profile, Latent transition, Parent Factors, Teacher Factors, Elementary Student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의 전이와 부모, 교사의 예측요인 검증

도미향(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의 잠재집단프로파일과 변화양상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교사변인의 예측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으로 성장 변화하는 학생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잠재집단에 따른 차별적 부모의 학업적 관심과 교사-아동의 상호작용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전반적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종단 분석한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아동의 변화과정을 확인하고 예측요인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 결과,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은 ‘낮은 적응형’, ‘중간 적응형’, ‘높은 적응형’, ‘낮은 교사적응형’의 4개 유형으로 4학년은 ‘낮은 적응형’, ‘중간 적응형’, ‘높은 적응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잠재 집단간에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낮은 교사 적응형은 2차집단인 초4는 그러한 구분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하고, 또한 낮은 교사적응형의 경우 다른 요인인 학교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은 매우 높은 수준인데 반해 교사적응에서는 지나치게 낮게 나타난 원인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잠재전이분석에서 초 1의 학교적응은 초 4가 되면서 잠재집단을 유지하거나 학교적응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전이되고 있지만, 낮은 적응과 높은 적응의 간격은 보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1학년 때의 학교적응이 이후의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질적인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결국 초등학교 입학한 후의 학교적응은 중학년과 고학년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더불어 부모와 교사는 특히 초 1때의 학교적응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차에서 높은 적응형 학생이 2차에서 낮은 학교적응형이나 중간적응형으로 전

이되는 패턴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이에 관해 1차(초1)에서 2차는 학습 분량의 변화, 학습방법, 교사의 태도 등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 일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어 이에 동의하면서 그 외에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근거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통해 1차의 높은 적응이 2차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높은 적응형으로 전이를 높이는 가장 큰 예측요인은 초1 초2, 초3, 초4때의 부모의 학업적 관심이었으며, 초3, 초4때의 교사 갈등은 부적인 예측요인이었다.

- 즉, 초등학교 때 지속적인 부모의 학업적 관심은 ‘낮은 적응형’에서 ‘높은 적응형’으로 전이하거나 ‘높은 적응형’을 유지할 확률을 높이는 예측요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학업적 관심과 지원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는 결과였다(김미진, 홍세영, 2019; 김은설, 2018)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부모감독’이 전이패턴에 부적인 예측요인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부모는 아동에게 학업에 대한 관심은 가지지만 감독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두 용어에 관한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여 부모가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한 태도를 갖추는데 방향을 제공해 준다면 더욱 본 연구의 의의가 클 것이다.

한편, 교사-아동의 관계에 있어서 ‘교사갈등’요인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보다 높은 긍정적인 전이패턴에 속할 확률에서 부적인 예측요인이라는 연구결과는 또한 시사성이 높다. 교사-아동과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더 큰 성과를 위해 몇 가지 이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집단과 잠재전이, 잠재 프로파일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 등이 제시되면 연구의 가독성이 더 높을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에서 1,777명의 자료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2,050명으로 자료가 정확하지 않게 표기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표 1>에서는 ‘취업여부 모, 부(취업/학업병행)’ 이 부분은 취업을 말하는지, 학업을 말하는지 혹은 두가지 다를 병행한다는 것인지 표현의 명확한 구분과 가정 월수입에는 단위 표기가 필요하다.

셋째, 측정도구에서 볼 때 학교적응 부분에서는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어 1학년 대상에게는 이 척도가 적절하겠지만 4학년은 저학년용 척도이기엔 모호함이 따른다.

그리고 예측요인에서 부모관련과 교사관계변인은 <표 2>에서 부모관련요인만을 설명하고 있어 제목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표 2>에서 초2, 초3의 각 척도가 일관성을

좀 더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척도는 초1과 초 4만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일부 척도는 초1~초 4까지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또 교사~아동관계변인은 초 2~초4로 각 척도의 신뢰도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특히 교사-아동관계변인 예측요인에서 초 1이 주요대상이 없는 부분과 연구대상에는 없는 초2와 초3이 제시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교사-아동관계변인은 <표 3>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제목 등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분석방법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고등학생 진로역량의 전이집단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 이 부분은 본 연구의 대상과 일치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

아무튼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이 초등학교 4학년에 보이는 종단적 전이 양상을 파악하고, 부모 및 교사 변인시간에 따른 예측효과를 확인하여 학교적응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부모의 관심과 태도, 교사-아동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이 이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볼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본다면 초등 입학 전인 유아기의 적응 또한 중요할 것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적응과 초등교육과정의 연계 또한 긴밀히 필요하다.

제 11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세션4 인지 및 적응

세션4 인지 및 적응

아동집행기능

좌장: 조성연(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 잠재 궤적 추적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예측 및 분별모델 개발

연구진: 전효정(동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고은경(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조교수)

김동진(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엄성혜(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이근애(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이난희(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토론자: 박진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 유아기 사회적 지지와 모의 양육이 아동의 집행기능과 불안을 통해 아동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적용한 종단연구

연구진: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교수)

위현아(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이정희(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졸업)

토론자: 김정숙(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3.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효과 검증

연구진: 김동진(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토론자: 박경호(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잠재 궤적 추적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예측 및 분별모델 개발

전효정⁴⁷⁾ 고은경⁴⁸⁾ 김동진⁴⁹⁾ 엄성혜⁵⁰⁾ 이근애⁵¹⁾ 이난희⁵²⁾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1~4학년 동안 집행기능 곤란의 발달 유형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아동패널 5, 7, 8, 9, 10, 11차 조사의 1,068명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집행기능 곤란의 발달 궤적 유형은 잠재계층성장분석(LCGA)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머신러닝 모델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 라쏘 로지스틱 회귀 모델, 랜덤포레스트 모델, 그레디언트-부스티드 의사결정나무 모델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모델의 성능평가는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AUC, ROC curve, decision curve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아동의 초등 4년간 집행기능 곤란의 발달 궤적은 3가지 유형이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각각 저수준(50.00%), 중수준(41.57%), 고수준(8.43%)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머신러닝에 의한 분별모델은 집행기능 곤란이 중수준 이상으로 높은 집단과 저수준 집단을 분류하는 모델로 개발되었으며, 모델의 예측력은 4가지 모델 중 라쏘 로지스틱 회귀모델의 정확도가 .75, AUC가 .83으로 가장 양호하였다. 셋째, 집행기능 곤란을 예측하는 변수로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아기 주의집중 문제, 성별(남아)이 가장 중요하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발달 유형을 분별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주제어: 집행기능 곤란, 잠재계층성장분석, 머신러닝, 분별모델

1. 서론

학령기에 접어든 아동은 유아기보다 학업성취에 압력이 커지고 사회적 규범 준수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그러나 아동의 조절력을 넘어서는 성취와 조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

47)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48) 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조교수

49) 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50) 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51) 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52) 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아동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집행기능은 이러한 상황적 요구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세스로서(Conway & Stifter, 2012), 구체적으로 계획 및 조직화, 주의, 정서 및 행동의 통제로 규정된다(송현주, 2014). 집행기능의 발달은 생후 2세 이후부터 발달이 시작되지만(Rothbart & Posner, 2001) 학령기에도 집행기능의 다양한 하위영역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나 지속적인 발달이 이루어므로(이명주·홍창희, 2006), 집행기능은 전 생애를 걸쳐 다양한 발달 궤적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Grissom & Reyes, 2019). 집행기능이 잘 작동되면 아동은 주의집중, 적절한 반응의 제어, 규칙 등을 준수할 수 있어 학업 수행이나 학교적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집행기능에 어려움이 있다면 학령기 부적응이 청소년기까지 이어져 청소년기의 일탈과 사회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 가족과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미시체계(Bronfenbrenner, 1979)로서, 생애 초기 아동의 발달은 부모와 가정 환경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받는다(김원경·권희경, 2019; 박영진, 2019). 특히, 고등인지기능은 환경적 지원에 의해서 발달적 잠재력이 확장될 수 있는데(Vygotsky, 1981), 집행기능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인지처리기능으로서 생애초기부터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달할 수 있다(Lewis & Carpendale, 2009). 그러나 집행기능 발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대부분 아동의 개인차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부모와 가정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탐구할 필요가 있다(Hughes & Ensor, 2009).

집행기능의 발달과 관련된 대표적인 개인적 요인으로는 아동의 기질과 행동문제, 그리고 성차를 들 수 있다. 기질은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유전적 성격특성(Buss & Plomin, 2014)으로서, 특히 까다로운 기질 특성을 지닌 아동이 집행기능 결함과 유사한 행동프로파일을 나타낸다(Giancola, 1995; McManis, et al., 2002). 기질은 일부 하위영역에서 실행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새로운 자극과 변화에 적응성이 높고, 생리적 규칙성이 높으며, 자극에 대한 민감성과 반응의 강도가 높고, 활동성이 낮을수록 집행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영숙·임지영, 2012; 차미숙·김광웅, 2018).

한편, 유아기의 주의력 유지 어려움(Mischel, Cantor, & Feldman, 1996; Peake, Hebl, & Mischel, 2002)은 억제 지연과 같은 집행기능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통제, 반응 억제, 행동조절과 같은 집행기능이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면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공영숙·임지영, 2012), 또래관계 문제(노민정·박혜원, 2011), 대인관계 문제(이정림·강경숙, 2012), 인터넷 중독문제(전혜연·현명호·전영민, 2011)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행동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ADHD와 같은 정신장애 진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김용희, 2006; 송찬원, 2010; 안정광·신민섭, 2010; 윤주연·이효신, 2011; Barkley, 1997; Clarke, Barry, McCarthy,

et al., 2001). 특히, 성차와 관련하여 주의력에 있어서는 성차가 없다거나(Hasson & Fine, 2012), 8-10세 시기의 주의력 문제는 남아에게 더 많이 나타나지만(Barnett, et al., 2007), 청소년기에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다(Lange, et al., 2014)는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또한, 집행기능 곤란에 대한 리뷰에서도 성별 차이를 지지하기 어렵다는 보고(Grissom & Reyes, 2019)가 있어 성차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집행기능의 어려움으로 인한 다양한 행동 및 적응상의 문제는 아동의 행복도 저해한다.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거절에 민감하고 실패에 대해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방어적 특성을 유발하여 집행기능의 작동을 더 어렵게 한다(민미희, 2019; Bajaj, Gupta, & Pande, 2016; Li, et al., 2018). 반면,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기 확신 및 긍정적인 특성을 유발한다(Harter, 1999; Palermi, et al., 2017). 결과적으로 집행기능의 곤란은 아동의 적응적인 삶과 행복감을 감소시키게 되므로(김유리, 2018; 최지수·최나야, 2019), 생애 초기부터 집행기능 발달의 기제를 탐구하고 이를 근거로 아동의 발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정환경의 다양한 요인도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가정의 낮은 소득과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자들이 양육에 몰입하는 것을 제한한다(Conger, et al., 2002). 이로 인한 낮은 양육환경의 질은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양한 연령대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쳤다(Last, et al., 2018). 또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한 전 지구적 조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기 집행기능 사이에는 강한 상관성이 있었다(Fernald, Weber, Galasso, & Ratsifandrihamanana, 2011). 나아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풍요로운 가정환경, 예를 들어 책과 같은 학습자극이 풍부한 환경은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Dilworth-Bart, Khurshid, & Vandell, 2007; Sarsour, et al., 2011). 가정에서의 풍부한 자극은 아동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김지현 외, 2012). 그러나 가정환경의 질은 자극으로만 측정할 수 없다. 가정환경은 부모의 양육행동 특성과 환경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지적 경험과 정서적반응성, 학습환경 등을 포함하므로(이지연·곽금주, 2008) 초기 아동기나 학령기 이전시기의 가정환경의 질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가정환경의 질과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HOME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이 개발되었고(Bradley & Caldwell, 1979), 이를 활용하여 가정환경의 구조, 인지적 자극, 정서적 지지, 부모의 민감한 양육행동이 자녀의 언어능력과 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정·곽금주, 2015; Cole, 2005; Jaffee, 2007). 따라서 가정환경의 다양한 측면이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파악한다면 아동을 위한 구체적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아동의 집행기능과 관련해 부모의 영향력이 대두되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모 관련 변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특성, 부부특성, 양육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보고되고 있다(Baker & Kuhn, 2018). 먼저, 부모의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 행복감, 자아존중감 등이 자녀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희경·김원경, 2020; 제희선·차혜경, 2019). 부모의 우울과 일상적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부정적이었다(권희경·김원경, 2020; Hughes, et al., 2013). 반면,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자녀의 집행기능을 높이는 요인이었다(권희경·김원경, 2020; 제희선·차혜경, 2019). 따라서 자녀의 집행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 안녕과 긍정적인 정서를 향상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부부특성으로서 부부갈등은 자녀의 집행기능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권희경·김원경, 2020; 김미정, 2010; 홍길희·문소라, 2019),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도 자녀의 정서조절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쳤다(임지윤·문동규·김영희, 2009; De Cock, et al., 2017). 부모의 양육행동도 자녀의 집행기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권희경·김원경, 2020; 유란희·김선희, 2017; Spruijt, et al., 2018), 어머니의 주의지향적인 양육행동은 유아기 자녀의 집행기능 발달에 긍정적이었다(Conway & Cynthia, 2012). 또한, 양육행동이 온정적이고 긍정적일수록(김은향, 2020; 김형연·김민주, 2020; 민미희, 2018; 장문영, 신나나, 2018; 황혜련·송현주, 2013; Meuwissen & Englund, 2016), 그리고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이 이루어질수록(이윤정·공영숙·임지영, 2014; 장문영·신나나, 2018; 차미숙·김광웅, 2018; 황혜련·송현주, 2013; Bernier, et al., 2012)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긍정적이었다. 나아가 아동이 유아기일 때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이 아동기일 때의 집행기능 수준을 예측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집행기능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Bernier, Carlson, & Whipple, 2010; Meuwissen & Englund, 2016). 또한, 자녀가 영아기일 때부터 시작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가 걸음마기일 때 집행기능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것이 종단연구(De Cock, et al., 2017)를 통해 밝혀졌다. 유사하게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집행기능 발달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현옥, 박정하, 김경호, 2020; 홍길희, 문소라, 2019). 그러나 집행기능과 부모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이 유아기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령기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이윤정, 공영숙, 임지영, 2014; 장문영, 신나나, 2018; 차기주, 2015; 황혜련·송현주, 2013), 나아가 다양한 요인의 상대적 영향을 종단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인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개인차, 가정환경 질, 부모 변인 등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영향도 집단별로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다. 개별 변수들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변수중심적 접근(variable-oriented approach)과 달리 사람중심적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은 특정 집단을 분류하고 유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Berman & Magnusson, 1997). 사람중심적 접근의 분석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맞춤형 지원에 유리하다. 대표적으로 잠재계층성장분석은 이질적인 시기의 발달 양상을 집단별로 규명하는 대표적인 사람중심적 접근의 분석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기존의 변수중심 연구에서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은 주로 회귀분석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면 예측변수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집단의 아동을 분별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계층성장분석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잠재집단의 분류와 이들 집단을 분별할 수 있는 예측요인을 도출하는 것은 초등학생의 집행기능 발달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아동패널 8~11차에 조사한 집행기능곤란의 종단자료로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실시하여 집행기능 곤란의 종단적인 궤적을 추적하여 잠재집단별 유형을 규명하고, 한국아동패널의 5~11차 조사자료에서 아동, 가정환경, 부모 변인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로지스틱 회귀, 라쏘 로지스틱회귀, 랜덤포레스트, 그레디언트-부스팅의 사결정나무)을 적용하여 집행기능 곤란의 잠재성장 궤적 유형을 예측하고 분별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사람중심적으로 지원하는 실증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4차에 걸친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수와 특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머신러닝 모델별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성장 유형에 대한 예측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머신러닝 모델별로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아동은 2008년에 출생하여 2015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동이다. 분석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2년에 실시된 한국아동패널 5차 조사 자료부터 2018년 11차 자료까지 활용하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1,068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 아동의 성별은 여아가 503명, 남아가 533명으로 여아가 전체의 47.1%로 남아보다 적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변수	m	sd	문항수	신뢰도	
집행기능 곤란	8차	1.44	0.30	40	.94	
	9차	1.47	0.31	40	.94	
	10차	1.48	0.33	40	.95	
	11차	1.44	0.32	40	.95	
5차 기질	활동성	3.78	0.61	5	.78	
	부정적 정서성	2.81	0.64	5	.75	
	사회성	3.47	0.53	10	.82	
아동	정서적 반응성	53.5	5.43	9	.74	
	불안/우울	53.9	5.66	8	.72	
	신체증상	53.6	5.44	11	.51	
	위축	54.0	5.61	8	.64	
	수면문제	53.1	5.47	7	.64	
	5차 문제행동	주의집중문제	53.2	4.69	5	.56
		공격행동	53.8	5.55	19	.88
		기타문제	53.6	5.39	33	.79
		DSM 정서문제	53.3	5.34	10	
		DSM 불안문제	53.1	5.16	10	
		DSM 전반적발달문제	53.7	5.75	13	
		DSM ADHD	53.9	5.21	6	
	DSM 반항행동문제	53.7	5.51	6		
	8차 긍정적 정서	자아존중감	3.45	0.48	5	.75
전반적 행복감		3.25	0.47	6	.67	
7차 월수입	가구 소득(월 평균 만원)	441.00	180.00			
7차 상호작용	부모 가족상호작용	3.81	0.44	14	.91	
	부 가족상호작용	3.83	0.49	14	.88	
	모 가족상호작용	3.78	0.51	14	.88	
8차 주관적 ses	주관적사회경제적지위	5.03	1.23			
가정 환경 배경	반응성	0.94	0.12	10	.68	
	성숙장려	0.89	0.16	7	.58	
	정서적 환경	0.71	0.20	8	.59	
	학습자료와 기회	0.63	0.20	8	.52	
	8차 가정환경 질	강화	0.74	0.22	8	.63
		가족공동체	0.84	0.20	6	.54
		가족통합	0.84	0.23	4	.48
		물리적 환경	0.89	0.15	8	.64

부모	8차 최종학력	모	5.20	0.92		
		부	5.35	0.99		
	8차 부정적 정서	모 우울	1.82	0.72	6	.92
	8차 일상적 스트레스	모	2.94	0.63	1	
		부	3.02	0.61	1	
	8차 양육 스트레스	모	2.40	0.68	11	.90
		부	2.19	0.60	11	.88
	8차 부부갈등	모	2.05	0.81	8	.92
		부	2.04	0.71	8	.91
	8차 양육행동	모_통제적	3.57	0.50	6	.75
		모_온정적	3.71	0.55	6	.87
		부_통제적	3.41	0.56	6	.78
		부_온정적	3.59	0.59	6	.88
		모_가족통합	5.37	0.90	7	.83
		부_가족통합	5.15	1.00	7	.89
		모_훈육	4.89	0.75	4	.07
	8차 부모 공동양육	부_훈육	4.52	0.73	4	.07
		모_비난	2.99	1.07	3	.47
		부_비난	3.06	0.93	3	.41
		모_갈등	2.66	1.36	2	.81
		부_갈등	2.76	1.27	2	.77
	8차 부모-자녀 상호작용	모	2.18	0.49	10	.84
		부	1.85	0.47	10	.87

2. 연구도구

가. 아동 도구

집행기능 곤란

집행기능 곤란은 송현주(2014)의 척도를 사용한 한국아동패널 8차~11차 조사에서 어머니가 응답한 자료이다. 하위영역은 계획-조직화 곤란(11문항), 행동통제 곤란(11문항), 정서 통제 곤란(8문항), 부주의(10문항)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집행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기질(EAS)

기질은 EAS(The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Buss & Plomin, 1984;

Mathiesen & Tambs, 1999). 세 가지 하위영역(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로, 어머니가 응답한 자료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하위 영역의 특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제행동(CBCL)

아동의 문제행동은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표준화한 CBCL 1.5-5에서 행동평가척도 부분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8개의 하위 척도(증후군 척도 7개, 기타 척도 1개)로 구성되어 있다. DSM 진단기준에 따라 문제행동을 5개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DSM 정서문제, DSM 불안문제, DSM 전반적 발달문제, DSM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DSM 반항행동문제로 구분된다. 척도는 0-2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합산 점수를 토대로 정도를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의 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MCS(2008)에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아동의 연령에 맞게 5문항으로 축소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은 MCS(2008)의 전반적 행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학교 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일상에 대한 행복감에 대해 질문하는 총 6문항의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나. 가정환경 도구

가족상호작용

David와 Olson (2010)이 개발한 FACES IV manual 중 가족원들 간의 감정적 결합을 나타내는 균형 있는 응집성과 가족리더십 및 역할 관계 속에서 변화를 알아보는 균형 있는 유연성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응집성 및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환경의 질

Caldwell과 Bradley (2003)가 개발한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유아용 가정환경자극검사(Early Childhood HOME, EC-HOME)와 아동용 가정환경자극검사(Middle Childhood HOME, MC-HOME)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EC-HOME은 총 55문항으로 학습자료(11문항), 언어자극(7문항),

물리적 환경(7문항), 반응성(7문항), 학습자극(5문항), 모방학습(5문항), 다양성(9문항), 수용성(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C-HOME은 총 59문항으로 반응성(10문항), 성숙장려(7문항), 정서적 환경(8문항), 학습자료와 기회(8문항), 강화(8문항), 가족 공동체(6문항), 가족 통합(4문항), 물리적 환경(8문항)으로 되어 있다. 이분형 척도(0, 1)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이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다. 부모 도구

우울

우울은 Kessler et al.(2002)의 Kessler 우울 척도(K6)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부모가 각각 보고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척도의 하위변인 중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부모가 각각 보고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Markman, Stanley 그리고 Blumberg(2001)의 부부갈등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8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부모가 각각 보고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가 지각하는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조복희 외(1999)가 개발한 척도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온정적 양육(6문항)과 통제적 양육(6문항)의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6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부모가 각각 보고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행동의 각각의 하위요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 공동양육

부모 공동양육은 Mchale(1997)이 개발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통합(7문항), 비난(3문항), 갈등(2문항), 훈육(4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6문항의 7점 Likert 척도로 부모가 각각 보고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하위요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 중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질문하는 일부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총 9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부모가 각각 보고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가. 잠재계층성장분석

본 연구에서 1학년부터 4학년에 걸친 집행기능 곤란의 종단적 발달의 잠재집단을 도출하기 위해서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을 실시하였으며, 세 가지 준거를 사용하였다. 잠재계층성장분석은 종단적 자료의 추적에 있어 특정 잠재집단 내 개별자료들의 동질성을 가정하고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하는 모델(fixed effect model)을 개발하여 분석하는 것이다(Wardenaar, 2020). 적합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거를 사용하였다. 첫째, 정보적합도 중에서 아카이케 정보기준지수(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베이저언 정보기준지수(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BIC]), 표본크기보정 베이저언 정보기준지수(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SABIC]), 엔트로피 지수를 이용하여 적합한 잠재계층의 수를 확인하였다. 둘째, 분류된 집단크기가 전체 표본에서 1.0% 이상이 되는 모델만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잠재프로파일분석은 'lcm'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나. 머신러닝 모델 구축과 성능 평가

머신러닝 모델 구축 및 성능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머신러닝 모델의 결과변수와 예측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과변수는 잠재계층성장분석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집행기능 곤란의 이질적인 발달 양상을 보여주는 잠재집단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잠재집단은 고수준, 중수준, 저수준의 3개의 집단으로 존재했는데, 고수준의 비율이 너무 낮아 중수준 이상과 저수준을 분별하는 모델을 도출하였다. 즉, 집행기능 곤란의 중수준 이상의 집단은 초등학교 1-4학년 까지 집행기능의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집단으로서, 이러한 위험에 속할 가능성을 1로, 나머지 집단을 0으로 수치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수준 이상의 잠재집단 출현율(prevalence)은 50%이다. 이러한 잠재집단의 분류를 예측하는 변수(predictor)로는 아동 변수, 가정환경 변수, 부모변수로 선정하였다(표 1).

둘째, 머신러닝 모델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참조모델로 하여, 라쏘 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 그래디언트-부스팅 의사결정나무의 4개 모델로 구축하였다. 머신러닝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서 과적합(overfitting)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이퍼-파라미터 제어를 통한 정규화(regularization)가 필요하다. 최적화된 하이퍼-파라미터는 R 패키지를 활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먼저, 라쏘(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lasso]) 회귀 모델은 로지스틱 회귀에서 가중치(회귀계수)의 절대값 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약하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 예측력이 낮거나 상관성이 높은 변수의 계수는 0이 되어 모델을 단순화시킨다. 본 연구에서 최소 가중치 람다는 ‘glmnet’ 패키지에서 10-fold cross-validation로 산출하였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무수히 많은 의사결정나무를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생성시키는 모델이다. 의사결정나무의 수와 깊이를 결정하여 하이퍼-파라미터를 제어한다. 그래디언트-부스팅 의사결정나무 모델은 너무 깊지 않은 나무를 오차를 줄이면서 생성시키는 모델이다. 나무의 수와 학습률을 결정하여 하이퍼-파라미터를 제어할 수 있다. 빠른 구동을 위해 ‘xgboost’ 패키지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가지 의사결정나무 기반 모델의 최적의 하이퍼-파라미터는 ‘caret’ 패키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평가는 교차검증으로 생성된 혼동행렬을 활용하여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AUC 수치를 산출하고, 추가로 ROC curve와 decision curve를 시각화하여 성능평가에 활용하였다. 교차검증은 훈련용(train set)과 테스트용(test set)을 각각 70%, 30% 임의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민감도(sensitivity)는 전체 아동 중에서 중수준 이상의 집행기능 곤란의 위험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다. 반면 특이도(specificity)는 전체 아동 중에서 저수준의 집행기능 곤란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다. 정확도는 전체 아동 중에서 각각의 집단에 정확하게 포함될 확률이다. AUC 통계치는 민감도를 종축, ‘1 - 특이도’를 종축으로 하는 ROC curve 아래 면적이다. 일반적으로 AUC가 .80 이상이면 ‘양호한(good)’ 수준으로 평가한다. 또한 모델 간 AUC 값의 차이는 DeLong’s test로 검정할 수 있다(DeLong, DeLong, & Clarke-Pearson, 1988). 성능평가에서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AUC, ROC curve 시각화는 ‘epiR’, ‘pROC’ 패키지를 활용하였고, decision curve 분석은 Vickers와 Elkin (2006)의 R code를 사용하였다.

다.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요성

머신러닝 모델에서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모델과 라쏘 로지스틱 회귀모델의 회귀계수를 비교하였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과 그래디언트 부스팅 의사결정나무 모델에서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 기반 모델에서는 예측변수를 표준화 값으로 변환해서 투입하여 회귀계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의사결정나무 기반 머신러닝 모델은 가장 중요한 변수의 중요도를 100으로 수치화하고 나머지 변수의 중요도를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중요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R statistical software version 3.6.1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III. 연구결과

1. 집행기능 곤란 잠재성장계층 잠재집단의 유형과 특성

가. 집행기능 곤란 궤적의 잠재집단 유형

집행기능 곤란의 잠재집단 유형을 표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집행기능 곤란의 잠재집단 유형

Number of class	Log Likelihood	AIC	BIC	SABIC	entropy	Latent class distribution rate (%)			
						1	2	3	4
1	-1147.68	2301.35	2316.27	2306.74	1.00	100.00			
2	-258.48	528.96	558.80	539.74	.85	64.98	35.02		
3	177.16	-336.32	-291.56	-320.14	.89	50.00	41.57	8.43	
4	273.73	-523.46	-463.77	-501.89	.82	41.95	33.15	18.91	5.99

주. $N = 1,068$. SABIC = 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표 2에서, 4가지 모델은 모두 최소계층이 표본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분류인데, 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할 때 .88로 1개의 집단 분류 모델보다는 작지만, 2개 또는 4개 잠재집단으로 분류할 때보다는 크다. Log Likelihood, AIC, BIC, SABIC과 같은 정보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적합한데, 3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하는 모델에서 가장 0에 가깝다. 따라서 집행기능 곤란에 대한 최적의 잠재성장계층분석 모델은 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는 모델로 선택하였다.

나. 집행기능 곤란의 집단별 발달 특성

집행기능 곤란의 잠재성장집단 유형별 발달 특성을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면 표 3, 그림 1과 같다.

〈표 3〉집행기능 곤란의 잠재성장계층집단별 발달 특성

time	class	<i>n</i>	<i>M</i>	<i>sd</i>	<i>F</i>	Scheffé
8차	1	534	1.22	0.15	860.34***	1 < 2 < 3
	2	444	1.58	0.21		
	3	90	1.99	0.26		
9차	1	534	1.24	0.14	1150.41***	1 < 2 < 3
	2	444	1.63	0.31		
	3	90	2.05	0.23		
10차	1	534	1.25	0.16	1120.25***	1 < 2 < 3
	2	444	1.62	0.19		
	3	90	2.15	0.27		
11차	1	534	1.22	0.16	924.51***	1 < 2 < 3
	2	444	1.57	0.22		
	3	90	2.07	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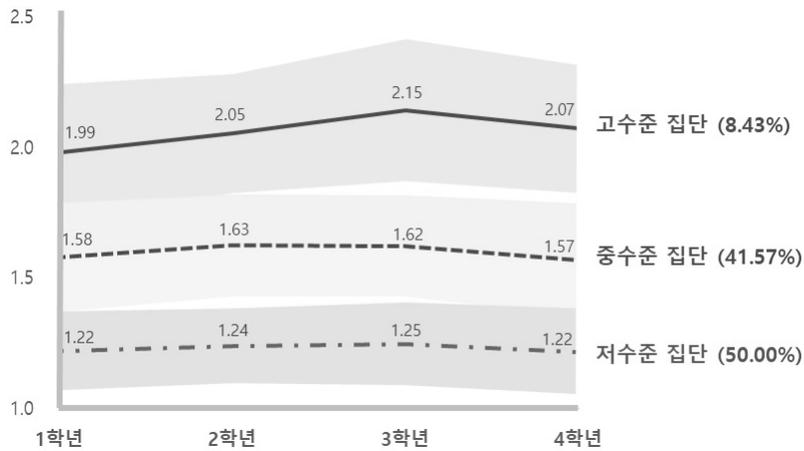
주. *N* = 1,068. 1 = Low level; 2 = Middle level; 3 = High level.

*** $p < .001$.

먼저, 잠재집단 1은 1학년-4학년(8차-11차 조사)에 걸쳐 집행기능 곤란 점수가 잠재집단 2, 3보다 유의하게 낮다. 따라서 잠재집단 1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집행기능 곤란이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낮은 수준의 집행기능 곤란'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전체 아동의 50.00%(표 2)를 차지하여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다음으로, 잠재집단 2는 1학년에서 4학년 동안 집행기능 곤란 점수가 잠재집단 1보다 높고, 3보다 유의하게 낮다. 따라서 잠재집단 2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집행기능 곤란이 지속적으로 중간 수준을 보여 '중간 수준의 집행기능 곤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전체 아동의 41.57%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잠재집단 3은 1학년에서 4학년 동안 집행기능 곤란 점수가 잠재집단 a, b보다 유의하게 높다. 따라서 잠재집단 3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집행기능 곤란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높은 수준의 집행기능 곤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전체 아동의 8.43%를 차지하여 가장 작은 비율을 보인다.



[그림 1] 집행기능 곤란의 잠재성장계층집단별 발달

2. 머신러닝 적용 ‘집행기능 곤란 중수준 이상’ 분별모델의 예측력

저수준 집단의 아동(50%)은 집행기능 곤란을 거의 혹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는데 비해, 중수준 이상에 포함된 아동(50%)은 집행기능 곤란의 어려움을 경험하여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전체 아동에서 집행기능 곤란을 경험하는 집단을 분별하기 위해 예측변수를 4개의 머신러닝 모델에 투입하고 머신러닝 모델별 성능을 비교하였다(표 4).

<표 4>머신러닝 모델별 성능비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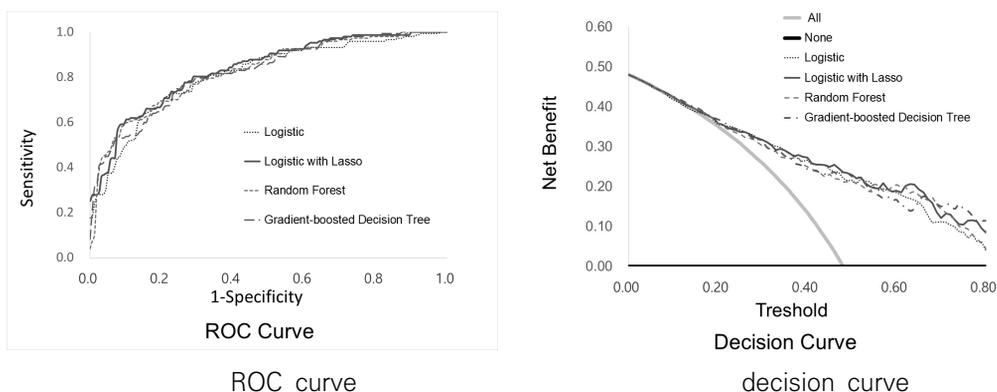
model	accuracy (95CI)	sensitivity (95CI)	specificity (95CI)	AUC (95CI)	p^a
logistic	.74 (.68-.78)	.73 (.66-.80)	.74 (.66-.80)	.81 (.76-.86)	reference
logistic with lasso	.75 (.70-.80)	.72 (.64-.79)	.77 (.70-.84)	.83 (.79-.88)	.022
random forest	.73 (.68-.78)	.78 (.71-.85)	.69 (.61-.76)	.82 (.77-.87)	.410
gradient-boosted	.75 (.69-.79)	.76 (.68-.83)	.73 (.65-.80)	.82 (.77-.87)	.457

주. AUC = area under the ROC curve; p^a = Delong's test.

로지스틱 회귀 모델, 라쏘 로지스틱 회귀 모델, 랜덤 포레스트 모델, 그래디언트-부스티드 의사결정나무 모델 순서로 집행기능 곤란에 어려움이 있는 집단(중수준과 고수준)을 전체집단에서 구분하는 민감도는 각각 .73, .72, .78, .76이며, 저수준집단을 전체집단에서 구분하는 특이도는 각각 .74, .77, .69, .73이다. 중수준 이상의 집단을 분별하는 민

감도는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성능이 가장 뛰어나지만, 저수준 집단을 분별하는 특이도는 라쏘 로지스틱 모델의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 전체 정확도는 머신러닝 모델별로 각각 .74, .75, .73, .75로 라쏘 로지스틱 모델과 그레디언트-부스티드 의사결정나무 모델의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 그러나 민감도와 특이도를 모두 고려한 AUC 값은 라쏘 로지스틱 모델이 .83으로 가장 양호하여 참조모델인 로지스틱 모델보다 유의하게 크다($p^a = .022$).

Figure 2는 전체 아동에서 집행기능 곤란을 경험하는 아동(중수준 이상 집단)을 분별할 때, 네 가지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 능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왼쪽 그림은 ROC curve로, 참조모델인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비해 라쏘 로지스틱 모델의 면적이 가장 크다. 오른쪽 그림은 decision curve로 모델을 선택하는 이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집행기능 곤란을 경험하는 아동(중수준 이상) 집단의 출현율(prevalence)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50% 부근을 가리킨다. 4가지 머신러닝 모델의 순편익(net benefit)은 목표집단(저수준 이상 집단)에 모든 아동이 속한다는 가정(세로선)과 모든 아동이 속하지 않는다는 가정(가로선)보다 모두 높으며, 특히 50%의 출현율에서 라쏘 로지스틱 모델의 이점이 가장 높다. 4가지 머신러닝 모델의 이점은 임계값 .80까지 유지된다.



[그림 2] 머신러닝 모델별 성능평가 시각화

3. 머신러닝 적용 ‘집행기능 곤란 중수준 이상’ 분별모델 예측변수의 중요도

표 5는 본 연구의 분별모델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예측변수 계수와 라쏘 로지스틱 회귀 모델 예측변수 계수를 나타낸다.

〈표 5〉회귀모델에서 예측변수의 회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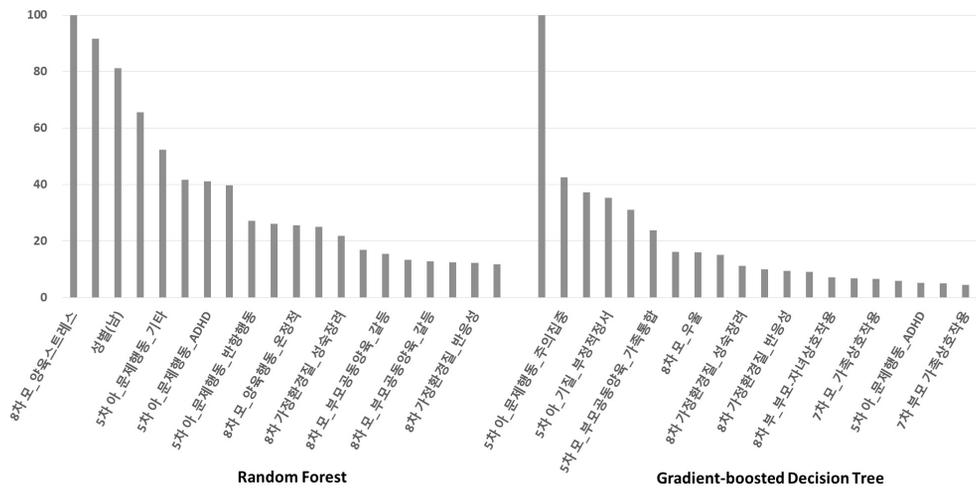
Logistic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with lasso		
Predictor	coef	OR	p	Predictor	coef
5차 아_문제행동_주의집중	0.65	1.919	< .001	8차 모_양육스트레스	0.41
성별(남)	0.47	1.607	< .001	성별(남)	0.33
8차 모_양육스트레스	0.47	1.595	.001	5차 아_문제행동_주의집중	0.32
8차 모_부모공동양육_갈등	0.35	1.422	.009	5차 아_기질_부정적정서	0.23
5 차 아_기질_부정적정서	0.35	1.416	.002	5차 아_문제행동_공격행동	0.17
8차 모_우울	0.35	1.412	.005	8차 가정환경질_성숙장려	-0.17
8차 가정환경질_성숙장려	-0.29	0.745	.019	8차 모_우울	0.15
				5차 아_문제행동_기타	0.10
				8차 아_전반적 행복감	-0.09
				8차 모_양육행동_온정적	-0.09
				8차 모_부모공동양육_갈등	0.08
				8차 아_자아존중감	-0.02

표 5에서 회귀계수는 투입변수의 단위가 Z score로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표준화회귀 계수처럼 상대적인 크기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참조모델인 로지스틱 회귀모델에서 집행기능 곤란 중수준 이상의 집단에 포함될 위험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는 모두 7개이다. 회귀계수 크기가 큰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3세 시기 주의집중 문제가 클수록(coef = 0.65, $p < .001$), 남아일수록(coef = 0.47, $p < .001$),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클수록(coef = 0.47, $p = .001$), 모의 공동양육 갈등이 클수록(coef = 0.35, $p = .009$), 3세 시기 아동 기질의 부정적 정서가 클수록(coef = 0.35, $p = .002$),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어머니의 우울이 클수록(coef = 0.35, $p = .005$), 아동이 집행기능 곤란 중수준 이상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반면, 가정의 성숙장려 환경의 특징이 클수록(coef = -0.29, $p = .019$) 중수준 이상의 집행기능 곤란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감소한다.

다음으로, 라쏘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4가지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양호한 분별모델인데, 최소 가중치 램다(coef = 0.019) 이상의 크기를 갖는 변수는 모두 12개이다. 로지스틱 모델과 달리 가장 회귀계수가 가장 컸던 변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이다(coef = 0.41). 아동의 성별(coef = 0.33), 3세 시기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coef = 0.32), 기질의 부정적 정서(coef = .23) 뿐만 아니라 아동의 공격행동 문제(coef = 0.17), 기타 문제행동(coef = 0.10)도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위험 확률을 증가시킨다. 반면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coef = -0.09)과 자아존중감(coef = -0.02)은 위험 확률을 감소시킨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공동양육에서의 갈등(coef = 0.08) 뿐만 아니라 어머

니의 우울(coef = 0.15) 도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반면, 가정의 성숙장려 환경(coef = -0.17)과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coef = -0.09)은 위험을 감소시킨다.

그림 3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과 그래디언트 부스티드 의사결정나무 모델에서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시각화한 것이다. 두 모델에서 대부분의 투입변수가 예측변수로 이바지하여,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큰 순서대로 20개씩 제시하였다. 두 모델에서 기여도가 가장 큰 3가지 예측변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3세 시기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 그리고 성별(남아)이다.



[그림 3]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요도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5~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집행기능 곤란의 발달 유형을 잠재계층성장분석으로 분류하고, 머신러닝 기법 중 로지스틱 회귀, 라쏘 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 그래디언트-부스티드 의사결정나무 모델을 적용하여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발달 유형을 예측하고 분별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집행기능 곤란 잠재계층성장분석에서, 잠재집단은 집행기능 곤란이 ‘높은 수준’(50.00%), ‘중간 수준’(41.57%), ‘낮은 수준’(8.43%)으로 명명된 3개의 발달 궤적 유형이 나타났다. 발달 궤적 유형별로 학년마다 실시한 차이검정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차이

는 유의하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집행기능의 수준은 유형별로 큰 변동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집행기능은 3~5세의 유아기에 급격하게 향상된 이후 청소년기까지 완만하고 선형적으로 향상된다는 보고(Best & Miller, 2010; De Luca & Leventer, 2008)가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수준은 2학년과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증가하다가 4학년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저수준 집단에 비해 고수준에서 더 두드러진다. 이는 연령별로 집행기능의 향상을 보고한 이명주와 홍창희(2006)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명주와 홍창희(2006)의 연구는 인지적 과제 실험을 통해 집행기능을 측정하였지만, 한국아동패널의 집행기능 곤란 도구는 아동의 집행기능을 부모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측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아동의 인지적 기능과 관련된 집행기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가질 수 있으나, 환경적인 변화와 학부모의 기대가 증가한다면 오히려 아동의 행동적 조절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시기는 통합적인 교과로 운영되던 교육과정이 개별적인 교과 중심으로 변화되고 본격적인 학습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권혜진·성미영, 2013; 성미영·장영은·서병태, 2016; 양명희, 2004)라는 점에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나 반항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 아동의 이러한 행동적 변화는 어머니의 시각에서 주의나 조절의 어려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추후 이러한 행동변화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학년별, 특히 3학년 시기의 행동 조절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4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로지스틱 회귀, 라쏘 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부스팅 의사결정나무)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입학 후 4년간 집행기능 곤란이 중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집단과 저수준으로 유지되는 집단을 분별하는 모델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별모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양호한 모델은 라쏘 로지스틱 모델이었고, 라쏘 로지스틱 모델의 정확도는 .75이었다. 즉, 머신러닝 기법과 한국아동패널의 유아기 및 초등 1학년의 자료로 이후 4년간의 집행기능 곤란 유형(중수준 이상 유지 vs 저수준 유지)을 75%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아동패널자료와 머신러닝 기법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미리 예측하고 분류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유형을 예측하는 변수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4가지 머신러닝 기법 모두 공통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성별(남아), 3세 시기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가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가 성장하면서 집행기능 곤란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Rothbart & Posner, 2001)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아동기에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주의력 문제(Barnett et al., 2007)나 ADHD 진단 비율이 더 높다(Hasson & Fine,

2012)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집행기능은 평생 동안 환경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발달 궤적을 가지며 성인기에는 성차도 뚜렷해지지 않는다(Grissom & Reyes, 2019)는 점에서 이러한 성차가 아동기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지 다양한 종단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성별이나 주의력과 같은 개인차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집행기능이 예측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현옥·박정하·김경호, 2020; 홍길희·문소라, 2019; De Cock et al., 2017)를 지지한다. 따라서 아동의 성별이 남아이거나 유아기부터 주의력 문제가 있는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머신러닝의 성능이 가장 양호하였던 라쏘 로지스틱 회귀모델에서 위 3가지 예측 변수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질(Giancola, 1995; McManis, et al., 2002)과 행동문제(공영숙·임지영, 2012), 자아존중감(민미희, 2018; Bajaj, Gupta, & Pande, 2016; Li, et al., 2018), 전반적 행복감(김유리, 2018; 최지수·최나야, 2019)과 같은 아동의 긍정적 심리, 어머니의 우울(권희경·김원경, 2020; 제희선·차혜경, 2019) 같은 부정적 심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김은향, 2020; 김형연·김민주, 2020; 민미희, 2018; 장문영·신나나, 2018; 황혜련·송현주, 2013; Meuwissen & Englund, 2016), 부모공동양육에서의 갈등, 가정환경의 질도 학령기 집행기능의 발달 유형을 예측하며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부모의 갈등이 아동의 집행기능의 발달을 저해한다(권희경·김원경, 2020; 김미정, 2010; 홍길희·문소라, 2019)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지만, 본 연구결과는 공동양육에서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부모가 서로 갈등을 경험할 때 자녀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의 풍부한 환경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긍정적이었다(Dilworth-Bart, Khurshid, & Vandell, 2007; Sarsour et al., 2011)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와 기본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의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자극보다는 성숙을 장려하는 가정환경의 질이 집행기능의 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집행기능 발달에 있어 유아기 개인차가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개인차뿐만 아니라 가정환경과 부모의 양육 변수가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행기능이 사회화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아 다양한 발달 궤적을 가질 수 있다는 접근(Conway & Cynthia, 2012; Hughes & Ensor, 2009; Lange, et al., 2014; Lewis & Carpendale, 2009; Vygotsky, 1981)을 지지한다. 앞으로 이러한 예측변수의 영향을 근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생애 초기부터 성인기까지 개인과 환경적 특성을 함께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집행기능이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집행기능 곤란에 대한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실시하여 집행기능 곤란의 발달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잠재집단을 규명하였으며,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회귀분석 연구가 보여주었던 예측뿐 아니라 개별 아동을 분류하는 유용성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은 아동의 집행기능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사람 중심적 접근에서 아동 개개인의 선별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학령기 집행기능 발달에 아동의 유아기 주의집중과 어머니의 양육 변수가 집행기능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점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 지원에 있어 사회화 과정과 양육 특성의 중요성을 밝힌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기와 학령기 초기(1학년) 시기의 개인, 부모, 가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이후 4년간의 집행기능 발달 유형을 75% 가까이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아동패널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종단자료를 활용한 이점과 머신러닝 기법의 유용성을 밝힌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에도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집행기능 곤란은 어머니가 측정한 자료만을 활용한 한계가 있다. 한국아동패널자료에서 집행기능 곤란은 1학년 시기에 어머니가 측정한 자료와 교사가 측정한 자료가 함께 있는데, 이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한 예측변수의 영향력이 달라지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발달 궤적은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이뤄져 있어, 집행기능 곤란의 발달 궤적이 수준별로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실제로 집행기능 곤란이 일관성 있게 아니면 다양하게 전이되는지,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다양한 전이 집단을 전제로 하고 있어 대규모의 추가 자료수집이 불가피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위험이 가장 컸던 '고수준' 유지 집단도 빈도가 매우 낮아, 이 집단만을 분별하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분별한다면 가장 위급한 아동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대규모 자료수집이 불가피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모델 예측변수들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뿐, 변수들 간의 구조적인 관련성을 검증하지는 못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예측변수들 간의 구조분석을 통해 집행기능 발달에 미치는 인과적인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공영숙·임지영(2012). 유아의 기질, 어머니 양육태도, 유아의 정의적 실행기능, 문제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교육*, 21(4), 135-152.
- 권혜진·성미영(2013). 초등학생의자아존중감이학교생활적응에미치는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52(4), 395-403.
- 권희경·김원경(2020). 아동의 심리적 요인, 부모의 양육 행동, 부모의 심리적 요인과 아동집행기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4(1), 143-162.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학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정(2010).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김수정·곽금주(2015). 7세 아동 지능발달에 대한 예언 변인 탐색: 3세 가정환경과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2(2), 75-91.
- 김용희(2006). ADHD 아동의 하위 유형에 따른 전두엽 집행기능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01-314.
- 김원경·권희경(2019). 한국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4), 1-19.
- 김유리(2018). 중학생이 지각한 관계지향 학급풍토가 학업적정서조절과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5(10), 1-26.
- 김은향(2020).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 스마트미디어기기 의존, 집행기능 곤란, 화용언어 능력의 구조적 관계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1037-1059.
- 김지현·정현심·김정민·이순형(2012). 유아용가정환경척도개발연구. *아동교육*, 21(1), 77-92.
- 김현옥·박정하·김경호(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역사회요인 조절효과의 소득 양극집단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121, 91-124.
- 김현영·김민주(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및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1), 105-121.
- 노민정·박혜원(2011). 주의문제 유아와 일반유아의 실행기능에 따른 유아교육 기관 적응. *인지발달중재학회지*, 2(2), 17-42.
- 민미희(2018).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및 통제적 양육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4), 7-117.
- 민미희(2019).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및 통제적 양육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91-121.
- 박영진(2019). 개인, 가족, 사회변인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설명력. *아도교육*, 28(1), 39-57.
- 송찬원(2010). ADHD의 실행기능에 관한 고찰: 이론적 접근 및 국내 연구의 최근 동향. *학습장애연구*, 7(1), 177-196.
- 송현주(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121-137.

- 성미명·장영은·서병태(2016).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유형을 예측하는 학습 습관과 정서 행동 문제의 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6), 79-102. doi.10.14698/jkccce.2016.12.06.079
- 안정광·신민섭(2010). ADHD 하위유형에 따른 실행기능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959-973.
- 양명희(2004).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대한 몇 가지 고찰: 개념, 평가 및 활용방법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17(2), 253-267.
- 오경자·김영아(2009). CBCL 1.5-5 매뉴얼 부모용 매뉴얼. 서울: 휴노컨설팅.
- 유란희·김선희(2017).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 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38(2), 67-79.
- 윤주연·이효신(2011).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실행기능 향상 프로그램 적용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4), 143-170.
- 이명주·홍창희(2006). 실행기능의 차원과 영역별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 587-602.
- 이윤정·공영숙·임지영(2014).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3-26.
- 이정림·강경숙(2012). ADHD의 특성, 정의의 변화 및 생활에의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7(1), 115-137.
- 이지연·곽금주(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 임지윤·문동규·김영희(2009). 아버지의 직장생활 만족도에 따른 부부갈등 및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2), 93-118.
- 장문영·신나나(201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마음이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9(1), 103-117.
- 전혜연·현명호·전영민(2011). 인터넷 중독 성향자의 전두엽 실행기능의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215-229.
- 제희선·차혜경(2019). 유아기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와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매개효과. 육아정책연구, 13(1), 123-146.
-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차기주(2015).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과 모의 상호작용 양상 및 특성 간 관계. 유아교육연구, 35(2), 117-141.
- 차미숙·김광웅(2018).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0 (1), 115-138.
- 최지수·최나야(2019). 초등 3학년생의 디지털미디어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집행기능곤란, 화용능력, 행복감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3), 629-651.
- 홍길희·문소라(2019). 부모의 심리적 변인과 아동의 문제행동 및 집행기능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3(3), 497-519.
- 황혜련·송현주(2013). 아동기 실행기능과 부모양육태도. 재활심리연구, 20(2), 149-167.

- Bajaj, B., Gupta, R., & Pande, N. (2016). Self-estee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fulness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4*, 96-100.
- Baker, C., & Kuhn, L. (2018). Mediated pathways from maternal depression and early parenting to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and externalizing behaviour problem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7*(1), 1522-7227.
- Barkley, R. A. (1997). Behavioral inhibition, sustained attention, and executive functions: Constructing a unifying theory of ADHD. *Psychological Bulletin, 121*(1), 65-94.
- Bernir, A., Carlson, S. M., Deschênes, M., & Matte-Gagné, C. (2012). Soci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early executive functioning: A closer look at the caregiving environment. *Developmental Science, 15*(1), 12-24.
- Bernier, A., Carlson, S. M., & Whipple, N. (2010). From external regulation to self-regulation: Early parenting precursors of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81*(1), 326-339.
- Barnett, J. H., Heron, J., Ring, S. M., Golding, J., Goldman, D., Xu, K., et al. (2007). Gender-specific effects of the Catechol-O-Methyltransferase Val Met Polymorphism on Cognitive Function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4*, 142-149.
- Best, J. R., & Miller, P. H. (2010).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executive function. *Child Development, 81*(6), 1641-1660.
- Bradley, R. H., & Caldwell, B. M. (1979).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a revision of the preschool scale.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4*, 235-244.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Harvard University Press.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University of Arkansas for Medical Sciences.
- Clarke, A. R., Barry, R. J., McCarthy, R., & Selikowitz, M. (2001). Electroencephalogram differences in two subtypes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Psychophysiology, 38*(2), 212-221.
- Cole, S. A. (2005). Foster care giver motivation and infant attachment: How do reasons for fostering affect relationship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2*(5-6), 441-457.
- Conger, R. D.,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McLoyd, V. C., & Brody, G. H.

-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179-193.
- Conway, A., & Cynthia, A. S. (2012). Longitudinal antecedents of executive function in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83*(3), 1022-1036.
- De Cock, E. S. A., Henrichs, J., Klimstra, T. A., et al. (2017).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bonding, parenting stress, and executive functioning in toddlerhoo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6), 1723-1733. doi:10.1007/s10826-017-0679-7
- DeLong, E. R., DeLong, D. M., Clarke-Pearson, D. L. (1988). Comparing the areas under two or more correlated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 A nonparametric approach. *Biometrics*, *44*(3), 837-845. doi:10.2307/2531595
- De Luca, C. R., & Leventer, R. J. (2008).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xecutive functions across the lifespan. In V. Anderson, R. Jacobs, & P.J. Anderson (Eds.), *Neuropsychology, neurology, and cognition. Executive functions and the frontal lobes: A lifespan perspective* (p. 23-56). Taylor & Francis.
- Dilworth-Bart, J. E., Khurshid, A., & Vandell, D. L. (2007). Do maternal stress and home environment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early income-to-need and 54-months attentional abilitie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6*(5), 525-552.
- Fernald, L. C., Weber, A., Galasso, E., & Ratsifandrihamanana, L. (2011). Socioeconomic gradients and child development in a very low income population: evidence from Madagascar. *Developmental science*, *14*(4), 832-847.
- Giancola, P. R. (1995). Evidence for dorsolateral and orbital prefrontal cortical involvement in the expression of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21*(6), 431-450.
- Grissom, N. M., & Reyes, T. M. (2019).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evaluating gender and sex differences in executive function *Neuropsychopharmacology*, *44*, 86-96.
- Hasson R, Fine J. G. (2012). Gender differences among children with ADHD on continuous performance test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16*, 190-198.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ughes, C., Roman, G., Hart, M. J., & Ensor, R. (2013). Does maternal depression predict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A 4-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54*(2),

169-177.

- Hughes, C. H., & Ensor, R. A. (2009). How do families help or hinder the emergence of early executive function?.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9*(123), 35-50.
- Jaffee, S. R. (2007). Sensitive, stimulating caregiving predicts cognitive and behavioral resilience in neuro developmentally at-risk infa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3), 631-647.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et al.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Last, B. S., Lawson, G. M., Breiner, K., Steinberg, L., & Farah, M. J. (2018). Childhood socioeconomic status and executive function in childhood and beyond. *PLoS One, 13*(8):e0202964. doi:10.1371/journal.pone.0202964
- Lange, K., Thamocharan, S., Sferra, M., Ramos, A., & Fields, S. (2014). Effects of weight and gender on a task of inattention. *Eating Behaviors, 15*, 574-577.
- Lewis, C., & Carpendale, J. (2009). Introduction: Links between social interaction and executive function. In C. Lewis & J. I. M. Carpendale (Eds.), *Social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23*, 1-15.
- Li, J., Han, X., Wang, W., Sun, G., & Cheng, Z. (2018). How social support influences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emotional exhausti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 61*, 145-148.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athiesen, K. S., & Tambs, K. (1999). The EAS Temperament Questionnaire—Factor structure, age trends, reliability, and stability in a Norwegian sampl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3), 431-439.
- Mchale, J. P. (1997).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36*(2), 183-201.
- McManis, M. H., Kagan, J., Snidman, N. C., & Woodward, S. A. (2002). EEG asymmetry, power, and temperament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biology, 41*(2), 169-177.
- MCS (2008).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 Meuwissen, A. S., & Englund, M. M. (2016). Executive function in at-risk children:

Importance of father-figure support and mother parenting.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44, 72-80.

- Mischel, W., Cantor, N., & Feldman, S. (1996). Principles of self-regulation: The nature of willpower and self-control. In E. T. Higgins &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329-360). New York: Guilford.
- Palermi, A. L., Servidio, R., Bartolo, M. G., & Costabile, A. (2017). Cyber bullying and self-esteem: An Italian stud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9, 136-141.
- Peake, P., Hebl, M., & Mischel, W. (2002). Strategic attention deployment for delay of gratification in working and waiting situ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8, 313-326.
- Pears, K. C., Kim, H. K., Capaldi, D., Kerr, D. C., & Fisher, P. A. (2013). Father-child transmission of school adjustment: A prospective intergeneratio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49(4), 792-80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hbart, M. K., & Posner, M. I. (2001). Mechanism and variation in the development of attention networks. In C. Nelson & M. Luciana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 (pp. 353-363). Cambridge, MA: MIT Press.
- Sarsour, K., Sheridan, M., Jutte, D., Nuru-Jeter, A., Hinshaw, S., & Boyce, W. T. (2011). Family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executive functions: The roles of language, home environment, and single parenthood.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 JINS*, 17(1), 120.
- Spruijt, A. M., Dekker, M. C., Ziermans, T. B., & Swaab, H. (2018). Attention control and executive functioning in school-aged children: Linking self-regulation and parenting strategi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66, 340-359.
- Vickers, A. J., Elkin, E. B. (2006). Decision curve analysis: A novel method for evaluating prediction models. *Medical Decision Making*, 26(6), 565-74. <http://www.decisioncurveanalysis.org>
- Vygotsky, L. S. (1981). The genesis of higher mental functions. In J.V. Wertsch (Ed.), *The concept of activity in Soviet psychology* (pp. 144- 188). New York: Sharpe.
- Wardenaar, K. J. (2020, April 7).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using R: A tutorial for two R-packages and a comparison with Mplus. doi.10.31234/osf.io/m58wx

• 교신저자: 고은경, 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ekgoh72@dau.ac.kr

Abstract

Developing Discriminative Model of Difficulty in Executive Function using Latent Trajectories Approaches with Machine Learning Analyses

Hyo Jeong Jeon, Eunkyong Goh, Dongjin Kim, Sunghye Eom, Geunae Lee, and Nanhee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developmental patterns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from the first to four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us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Data of 1,068 persons from the 5th, 7, 8, 9, 10, and 11th surveys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were used for analysis.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type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was analyzed using the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 method. The machine learning model utilized the algorithms of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logistic regression with Lasso model, the random forest model, and the gradient-boosted decision tree model.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accuracy, sensitivity, specificity, AUC, ROC curve, and decision curve were us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rajectory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ppeared in 3 types showing thre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each grade. Therefore, they were named as low level (50.00%), medium level (41.57%), and high level (8.43%), respectively. Second, the discriminative model by machine learning was developed as a model that classifies groups with medium or higher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and low-level groups. Among the 4 machine learning models, the accuracy of the logistic with Lasso model was .75 and the AUC was .83, which was the best. Third, as variables predicting difficulty in executive function,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when the child was in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 attention problem of the child during early childhood, and gender (boys) contributed most importantly.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using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s Panel is useful in discriminating the type of developmental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 Key word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Machine Learning, Discriminative Model

잠재 궤적 추적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예측 및 분별모델 개발

박진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발달 유형 예측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5~11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집단을 분류하고 이들 집단을 분별할 수 있는 예측요인 도출을 위해 다양한 통계 기법을 적용하여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 여겨집니다.

2008년 신생아 패널을 구축하여 올해로 13년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아동패널 데이터를 종단으로 활용하여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유형을 분류하고 예측요인을 찾아보는 본 연구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연구를 읽으면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그간의 연구와는 약간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이 아동패널의 아동과 가족, 사회 변수의 인과관계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기 위한 예측 기법에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대용량의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 통계 분석 기법 또한 이에 맞춰 발달해왔고 정해진 시간안에 예측력 높은 분석을 위해 현대의 통계학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또한 예측력 높은 종단분석을 위해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였고 이를 연구문제2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개년의 패널데이터를 종단으로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기법을 활용한 것은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매우 반갑고 연구진께서 분석을 위해 매우 애를 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것은 아동패널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 입장에서 매우 감사하며 본 연구가 향후 학술 논문으로 발전하는데 약간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 2의 결과로서 얻고 싶으셨던 것은 아동패널 데이터에 높은 예측력을 갖는 모델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석에 활용하고 계신 기법은 이미 통계학에서 분석기법으로서 증빙이 끝난 방법들로 연구진이 새롭게 개발한 방법이 아니고 활용한 데이터의 예측력을 높이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논문을 읽다보면 새로운 머신러닝 분석 기법을 제안하고 있는 듯한 문구들이 있어 이 부분의 수정이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단계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분석인 잠재계층성장분석과 2단계의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분류 모델의 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가 서로 다릅니다. 제목부터 전체적으로 내용은 하나의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연구 절차 및 자료분석에서 서로 다른 통계패키지 사용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 방법을 현재보다 명료화하고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통계전공자로서 본 논문에서 적용한 분석 기법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만 연구문제 1-3이 함께 묶이기에는 다소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력이 높은 분석방법의 제안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특징, 학교적응 유형은 분리하여 결과를 논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안해주신 연구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많이 수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기 사회적 지지와 모의 양육이 아동의 집행기능과 불안을 통해 아동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적용한 종단연구

한세영⁵³⁾ 위현아⁵⁴⁾ 이정희⁵⁵⁾

요약

본 연구는 7세 시기의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초등학교 2, 3, 4학년 시기의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불안의 상호교류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의 7~1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유아와 어머니 2150쌍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포함한 구조모형을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다음 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불안에 영향을 미쳤고, 아동의 2, 3학년 때 집행기능 곤란은 각각 3, 4학년 때 불안에 영향을 미쳐 학교적응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고 불안은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과 불안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매개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경로를 다양한 수준의 생태학적 체계를 포함하여 탐색하였으며, 집행기능과 불안 사이의 종단적 관계에서 그 영향력의 방향성을 밝혀 아동의 학교적응에 기여하는 개인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발달경로 폭넓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집행기능, 불안, 학교적응, 양육, 사회적 지지

1. 서론

초등학교는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최초의 교육기관으로 유아기에서 아동기로의 발달적 변화를 겪는 아동이 적응해나가야 할 중요한 환경이다. 학교적응이란 아동이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인식, 참여, 수행과 같은 전반적인 학교생활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Ladd,

53)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교수

54)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55)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졸업

Kochenderfer, & Coleman, 1996).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적응은 이후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이영애, 정현희, 2016; 좌현숙, 변귀연, 2010)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 뿐 아니라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심희옥, 1997; 이경남, 2006; 이지연, 정익중, 백종립 등, 2014; 정익중, 2007; 정현희, 2003; 최태산, 김자경, 2015) 전반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을 지니는 중요한 발달적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2019)에서 발표된 교육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7,797명으로 2018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0.1%(1,37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폭넓게 탐색하여 아동의 건강한 학교적응을 도울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는 학업 뿐 아니라 또래관계와 교사관계를 포함한 사회적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으로써,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모든 발달영역에 걸친 능력의 발휘를 요한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적응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탐색할 때, 단일한 발달영역이 아닌 여러 발달영역에 속한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지적 변인과 정서적 변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며 두 변인 사이의 상호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학교적응에 영향 미치는 여러 가지 인지적 요인들 중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인지적 요인인 집행기능은 생각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다(Friedman et al., 2008). 즉 유연하게 사고하고, 정보를 정신적으로 갱신 및 조작하며, 목표와 관련 없는 행동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모니터링하며, 현재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계획하고 적용시키는 인지적 작용을 뜻한다(Jurado & Rosselli,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집행기능은 학교 성취, 또래 관계,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민미희, 2018; 전숙영, 2018; Masten et al., 2012; Neuenschwander, Röthlisberger, Cimeli et al., 2012), 어머니의 양육, 스마트폰 중독, 미디어 중독,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으로 인한 행동문제 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김형연, 김민주, 2020; 박보경, 노지운, 2020; 전숙영, 2018; 최진오, 2014), 아동의 학교적응을 직간접으로 예측하는 강력한 인지적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불안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앞으로 닥칠 불행을 예측하면서 부정적인 정서나 신체적 긴장을 느끼는 기분상태로(Barlow, 1988),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이다(김수정, 정윤경, 박현식, 2018; 김자경, 김주영, 김남진, 2007; Newbegin & Owens, 1996). 부정적 정서나 긴장상태는 학교에서 수행하는 과업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불안은 학교적응과 같은 사회적 과업이 수행 뿐 아니라, 주의, 기억, 집행기능과

같은 인지적 기능의 발휘와도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tts & Weems, 2006). 불안과 집행기능 사이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두 변인 사이 영향의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다. Eysenck와 Derakshan (2011)는 주의통제이론(attentional control theory)과 신경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불안과 집행기능의 관계를 설명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불안과 집행기능은 동일한 뇌의 영역을 활성화시키며, 이로 인하여 불안이 활성화되었을 때 집행기능의 발휘에 투입 가능한 심리적 자원이 감소하고 집행기능의 효율성을 저하된다는 것이다. 한편 Hirsch와 Mathews (2012)는 불안한 개인은 불안을 유발하는 환경적 단서가 없을 때에도 더 낮은 실행기능을 나타냄을 지적하며, 위협적인 단서에 대한 주의편향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 걱정을 유발하는 동시에 주의통제를 방해하여 높은 수준의 불안과 걱정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불안과 집행기능 상호관계에서 영향력의 방향성에 대해 각기 다른 경로가 제안되고 있으나, 이를 검증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며, 불안이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혹은 집행기능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Affrunti & Woodruff-Borden, 2015; Billingsley-Marshall et al., 2013; Shields, Moons, Tewell et al., 2016; Zainal & Newman, 2018). 따라서 불안과 집행기능 사이의 영향력의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아가 몇몇 선행연구에서 불안과 집행기능 사이의 종단적 관계가 보고되고 있으나(Han et al., 2015; Zainal & Newman, 2018), 아직까지 불안과 집행기능 사이의 종단적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특히 국내에서는 아동의 불안과 집행기능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더욱 찾기 어렵다. 하지만 아동의 발달과 학교적응을 지원하고 예방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불안, 집행기능과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과 집행기능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한편 아동의 학교적응에는 아동의 인지적·정서적 요인과 같은 개인내적 요인 뿐 아니라 부모, 학교, 문화적 특성과 같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므로, 불안과 집행기능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행동과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같은 여러 수준의 환경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ronfenbrenner(Bronfenbrenner & Morris, 2007)가 '생물생태학적 모델'에서 제시한 여러 수준의 환경체계 중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과 관계들로 이루어진 미시체계에는 부모의 양육이 포함되며, 양육과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다른 개인내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부모의 양육은 아동의 학업동기, 심리적 안녕감, 집행기능, 자아정체감, 불안 등 아동의 개

인내적 요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김형연, 김민주, 2020; 민하영, 권기남, 2004; 송희원, 최성열, 2012; 전숙영, 2018; Herbers et al., 2011; Silva, Dorso, Azhar et al., 2007).

양육은 아동의 불안과 집행기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수용적인 양육을 할 때 아동의 사회불안도는 낮았고(정문자, 여종일, 2010) 불안한 아동의 어머니는 덜 온정적이었으며(Moore, Whaley, & Sigman, 2004),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은 아동의 불안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van Gastel, Legerstee, & Ferdinand, 2009). 그리고 양육은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부모의 양육, 부모의 심리적 요인, 아동의 심리적 요인 중 부모의 양육은 아동의 집행기능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된바 있으며(권희경, 김원경, 2020), 여러 종단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양육은 아동 집행기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lair et al., 2011; Hackman, 2012;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5). Hackman (2012)은 작업기억, 주의 혹은 충동성과 같은 다른 인지적 기능에 비하여 집행기능의 발달에서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이 고유한 영향력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은 아동의 불안과 집행기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환경으로써, 불안과 집행기능을 통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외체계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영역은 아니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체계로(Siegler, Saffran, Gershoff et al., 2017/2019), 부모가 직장이나 다른 성인과의 관계에서 얻는 지지와 같은 환경요인이 외체계에 해당한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부모가 사회적 관계망에서 제공받는 도움을 의미하며(이재림, 2001), 생물생태학적 모델의 외체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아동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은 아니지만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헌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과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심리적 특성, 애착 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고 있어(김중환, 2012; 서석원, 이대균, 2014; Green, Furrer, & McAllister, 2007) 양육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알 수 있다. 반면 아동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쳤고(권정윤, 조혜영, 2016; 김민경, 김경은, 2009) 아동의 개인내적 요인인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문명화, 문은식, 2020). 따라서 부모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불안과 집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불안, 집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은 아동 뿐 아니라 가족의 양적, 질적 변화를 야기하는 사건으로(Ki,

2020) 학교라는 큰 환경의 전환을 맞이하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박효정,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입학 앞두고 있는 7세 때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입학 후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2, 3, 4학년 시기 아동의 불안과 집행기능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학교적응에는 아동의 정서와 인지를 포함하는 모든 영역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인내적 능력의 발달은 영유아기부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적응에는 아동의 현재 상태 뿐 아니라 취학 이전에 경험한 환경과 누적되어 온 아동의 발달적 상태가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련된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동시에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증재 및 사회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 아동의 불안과 집행기능, 학교적응과 같이 여러 생태학적 수준을 동시에 한 모델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고, 불안과 집행기능 사이의 종단적 발달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매우 드문 실정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불안과 집행기능이 상호영향을 주며 발달하는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아동의 개인 내적 발달에 내포된 정서와 인지 간의 상호성과 발달적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더불어 불안과 집행기능에 대한 양육의 영향을 통해 아동의 개인 내적 발달에 대한 미시체계 환경의 직접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동시에, 사회적 지지와 양육이 아동의 불안 및 집행기능을 통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아동 발달에 대한 외체계 및 미시체계 환경의 간접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대한 다체계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양육과 아동의 학교적응의 관계에 대한 불안과 집행기능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을 사용하여 검증할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의 종단적 상호관계와 그 방향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불안 및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an [PSKC])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는 2008년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1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매해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7-11세 자료인 7차-11차년도(2014-2018년) 자료의 2150개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는 7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8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아동의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은 9-11차년도(2016-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아동의 학교적응은 11차년도(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은 7차년도 남아 1091(50.7%)명, 여아 1059(49.3%)명, 8차년도 남아 817(51.1%)명, 여아 781(48.9%)명, 9차년도 남아 783(51.3%)명, 여아 742(48.7%)명, 10차년도 남아 757(51.0%)명, 여아 727(49.0%)명, 11차년도 남아 730(50.9%)명, 여아 704(49.1%)명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7차년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473(22.0%)명, 전문대 졸업 438(20.4%)명, 대학교 졸업 608(28.3%)명, 대학원 졸업 90(4.2%)명, 8차년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463(21.5%)명, 전문대 졸업 435(20.2%)명, 대학교 졸업 599(27.9%)명, 대학원 졸업 93(4.3%)명, 9차년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429(20.0%)명, 전문대 졸업 434(20.2%)명, 대학교 졸업 559(26.0%)명, 대학원 졸업 90(4.2%)명, 10차년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1(18.7%)명, 전문대 졸업 418(19.4%)명, 대학교 졸업 557(25.9%)명, 대학원 졸업 91(4.2%)명, 11차년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377(17.5%)명, 전문대 졸업 410(19.1%)명, 대학교 졸업 537(25.0%)명, 대학원 졸업 91(4.2%)명이었다. 가정의 가구소득은 7차년도에 400만원 이하 876(40.7%)가구, 401~800만원 666(31.0%)가구, 801만원 이상 71(3.3%)가구, 8차년도 400만원 이하 792(36.8%)가구, 401~800만원 714(33.2%)가구, 801만원 이상 73(3.4%)가구, 9차년도 400만원 이하 671(31.2%)가구, 401~800만원 750(34.9%)가구, 801만원 이상 98(4.6%)가구, 10차년도 400만원 이하 531(24.7%)가구, 401~800만원 697(32.4%)가구, 801만원 이상 107(5.0%)가구, 11차년도 400만원 이하 446(20.7%)가구, 401~800만원 737(34.3%)가구, 801만원 이상 110(5.1%)가구였다. 교사의 성별은 9차년도에 남성 142(6.6%)명, 여성 787(36.6%)명, 10차년도에 남성 115(5.3%)명, 여성 518(24.1%)명, 11차년도에 남성 187(8.7%)명, 여성 522(24.3%)명이었다.

2. 연구도구

가. 사회적 지지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에 사용한, 이재림(2001)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적 지지(2문항), 도구적 지지(3문항), 사교적 지지(4문항), 정보적 지지(4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총 13문항), 친가 식구, 외가 식구, 친구 및 동료, 이웃에게 받는 지원 정도를 각각 측정하였다(총 52문항). 사회적 지지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한다’ 등이 있다.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총 사회적 지지 .95, 친가 지지 .94, 외가 지지 .93, 친구 및 동료 지지 .93, 이웃 지지 .97이었다.

나.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은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에 사용한,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등(1999)이 개발한 양육행동 척도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온정적 양육(6문항)과 통제적 양육(6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총 12문항), 통제적 양육은 역채점하였다. 하위요인 별 문항의 예는 각각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나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이다.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양육행동 .63, 온정적 양육 .87, 통제적 양육 .76이었다.

다. 아동의 불안

아동의 불안은 한국아동패널 9, 10, 11차년도에 사용한, Goodman (1997)이 개발한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SDQ)의 한국어 번역판(www.sdqinfo.com)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증상(5문항), 또래문제(5문항), 행동문제(5문항), 과잉행동/부주의(5문항), 친사회적 행동(5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총 25문항).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정서증상 하위요인 문항 중 ‘걱정이 많고, 종종 근심스러워 보인다’, ‘낯선 상황에서는 불안해하거나 안 떨어지려고 하고, 쉽사리 자신감을 잃는다’,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탄다’의 세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SDQ 중 정서증상은 CBCL 중 불안/우울과 높은 상관관을 보였고, 아동의 불안을 측

정하는 RCMAS(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SCAS(Spence Children's Anxiety Scale) 및 PAS-R(Revised Preschool Anxiety Scale)과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Di Riso, Bobbio, Chessa et al., 2014; Edwards, Rapee, Kennedy et al., 2010; Muris, Meesters, & van den Berg, 2003). 또한, SDQ의 정서증상을 불안/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한 선행연구도 존재한다(Blom, Serlachius, Larsson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DQ의 정서증상 문항 중 세 문항을 사용하여 아동의 불안을 측정하였다. 학급 담임교사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3점)까지의 3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차년도 불안 .67, 10차년도 불안 .67, 11차년도 불안 .66이었다.

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한국아동패널 9, 10, 11차년도에 사용한, 송현주(2004)가 개발한 집행기능 곤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계획-조직화(11문항), 행동통제 곤란(11문항), 정서통제 곤란(8문항), 부주의(10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총 40문항). 하위요인 별 문항의 예로는 각각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를 힘들어 한다',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낸다', '해야 할 일을 잘 잊는다'가 있다. 어머니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전혀 아니다(1점)부터 자주 그렇다(3점)까지의 3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경험하는 집행기능 곤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차년도의 집행기능 곤란 .94, 계획-조직화 곤란 .89, 행동통제 곤란 .85, 정서통제 곤란 .91, 부주의 .90, 10차년도의 집행기능 곤란 .95, 계획-조직화 곤란 .89, 행동통제 곤란 .85, 정서통제 곤란 .92, 부주의 .92, 11차년도의 집행기능 곤란 .95, 계획-조직화 곤란 .90, 행동통제 곤란 .86, 정서통제 곤란 .90, 부주의 .92였다.

마.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은 한국아동패널 11차년도 아동 11세 때 사용한,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개발한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교생활 적응(11문항), 학교수행 적응(11문항), 또래 적응(8문항), 교사 적응(5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총 35문항). 하위요인 별 문항의 예로는 각각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과제를 잘해 오며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친구를 잘 도와준다', '필요로 할 때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가 있다. 문항 중 '수업 중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앉아 있기 힘들어한다', '나이에 비해 어렵게 행동한다', '선생님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역채점하였다. 학급 담임교사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학교적응 .97, 학교생활 적응 .96, 학업수행 적응 .95, 또래 적응 .94, 교사 적응 .81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자료의 무응답은 EM(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EM 알고리즘은 결측치를 회귀방정식에 의해 예측된 점수로 대체한 후, 대체된 자료를 기반으로 최대우도추정을 반복하여 추정하는 기법이다(Kline, 2015). 또한,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변인들의 정규성과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아동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 간의 중단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ARCLM)을 사용하였으며,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하므로(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본 연구에서는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동일성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주요변인 중 불안은 세 문항을 묶은 측정변인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측정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측정동일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측정한 변인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경로동일성은 한 시점의 잠재변인이 이후 시점의 잠재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한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같은 개념을 측정한 잠재변인 간의 자기회귀계수동일성 검증과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한 잠재변인 간의 교차회귀계수동일성 검증으로 구성된다. 오차공분산동일성은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된 잠재변인의 오차항 사이의 공분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다(김주환 등, 2009; 박수원, 김셋별, 2016). 다섯째,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행동, 아동 불안,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적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평가하였다.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홍세희, 2000) 사용하지 않았다. 적합도 지수 중 TLI, CFI의 값은 .90 이상일 때 적합하며(홍세희, 2000), RMSEA 값은 .05 이상일 때 적합하고 .08 이하일 때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Browne & Cudeck, 1992). 또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

가.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왜도의 절댓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10미만이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는데(Kline, 2010), 모든 변인의 왜도가 절댓값 2.01, 첨도가 절댓값 5.44 이하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의 점수분포가 정규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 (N = 2150)

변인			M	SD	왜도	첨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친가 지지	7차	3.41	.71	-.62	1.09
	외가 지지	7차	4.02	.55	-.87	2.51
	친구 및 동료 지지	7차	3.51	.58	-.43	1.88
	이웃 지지	7차	2.94	.85	-.44	.24
어머니의 양육행동	온정적 양육	8차	3.70	.49	-.49	2.71
	통제적 양육	8차	2.43	.45	.46	2.95
아동의 불안		9차	1.34	.32	1.36	3.35
		10차	1.31	.31	1.09	2.95
		11차	1.27	.27	1.49	4.46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9차	1.64	.36	.60	.80
	계획-조직화 곤란	10차	1.65	.36	.73	1.03
		11차	1.59	.37	.78	.97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		9차	1.28	.26	1.65	4.02
	행동통제 곤란	10차	1.27	.26	1.85	5.16
		11차	1.23	.25	2.01	5.44
아동의 부주의		9차	1.44	.37	1.24	2.24
	정서통제 곤란	10차	1.45	.38	1.24	2.23
		11차	1.41	.35	1.24	2.24
아동의 학교적응		9차	1.51	.36	.93	1.56
		10차	1.55	.38	.91	1.49
		11차	1.51	.38	.91	1.26
	학교생활 적응	11차	4.27	.60	-1.30	3.14
	학업수행 적응	11차	4.01	.59	-1.03	2.74
	또래 적응	11차	4.09	.56	-1.04	3.54
	교사 적응	11차	4.09	.50	-.83	2.85

나. 상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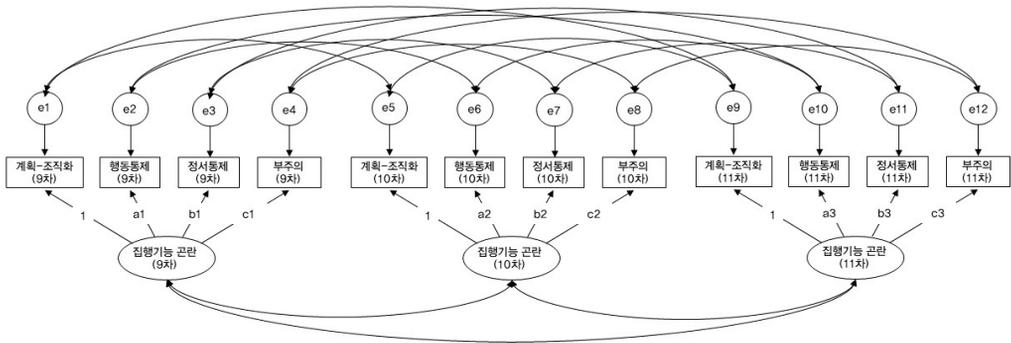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불안, 집행기능 곤란 및 학교 적응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양육행동($r = .09, p < .001$), 학교적응($r = .13, p < .001$)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9-11차년도 불안($r = -.07 \sim -.09, p < .01, p < .001$), 9-11차년도 집행기능 곤란($r = -.16 \sim -.18, p < .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행동은 9-10차년도 불안($r = -.05 \sim -.07, p < .05, p < .01$), 9-11차년도 집행기능 곤란($r = -.17 \sim -.21, p < .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9차년도 불안은 10-11차년도 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여($r = .25, p < .001$) 불안 정도가 큰 아동은 시간이 지나도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9-11차년도 집행기능 곤란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r = .09 \sim .13, p < .001$), 학교적응($r = -.14, p < .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10차년도 불안은 11차년도 불안($r = .21, p < .001$), 9-11차년도 집행기능 곤란($r = .15 \sim .19, p < .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학교적응($r = -.15, p < .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11차년도 불안 또한 9-11차년도 집행기능 곤란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r = .07 \sim .16, p < .01, p < .001$), 학교적응($r = -.38, p < .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9-11차년도 집행기능 곤란은 서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r = .70 \sim .77, p < .001$) 집행기능 곤란 정도가 큰 아동은 시간이 지나도 집행기능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31, p < .001$).

1. 사회적 지지 2. 친구 지지 3. 외가 지지 4. 친구 및 동료 지지 5. 이웃 지지 6. 모 양육행동 7. 온정적 양육 8. 통제적 양육 9. 아동 불안(9차) 10. 아동 불안(10차) 11. 아동 불안(11차)
12. 아동 집행기능 13. 계획-조직화 14. 행동통제 15. 정서통제 16. 부모의(9차) 17. 아동 집행기능 18. 아동 집행기능 19. 아동 집행기능 20. 아동 집행기능 21. 아동 집행기능 22. 아동 집행기능 23. 아동 집행기능 24. 아동 집행기능 25. 아동 집행기능 26. 아동 집행기능 27. 아동 학교적응 28. 학교생활 적응 29. 학업수행 적응 30. 또래 적응 31. 교사 적응

2.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 우선적으로 집행기능 곤란이 종단적 측정동일성을 갖는지 살펴 보았다(그림 1). 횡단자료를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 오차항 간 공분산이 허용되지 않지만, 종단자료의 경우 각 시점 별 동일 측정변인의 오차항 간 공분산이 허용되기 때문에 본 모형에서도 오차 간 상관을 설정하였다(Pitts, West, & Tein, 1996).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계수를 나타내기 위해 표기된 기호들은 동일화 제약을 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a1, a2, a3은 동일한 측정변인(행동통제 곤란)이 각 시점의 잠재변인(집행기능 곤란)에 대해 갖는 요인계수가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함이다(Pitts et al., 1996).

모형의 비교는 TLI, CFI, RMSEA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TLI 값이 .02 이상 작아지지 않았거나 CFI 값이 .01 이상 작아지지 않았거나 RMSEA 값이 .015 이상 커지지 않았을 때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해석하였다(Chen, 2007). χ^2 차이검증은 표본크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았다. 모형 비교 결과, 모형 1과 모형 2의 적합도 지수의 차이가 근소하여 Chen(2007)의 기준을 만족하였다(Δ TLI = .001, Δ CFI = .002, Δ RMSEA = .001). 측정변인의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 2)의 적합도는 TLI = .981, CFI = .987, RMSEA = .051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표 3〉).



[그림 1] 측정모형

〈표 3〉 측정모형 적합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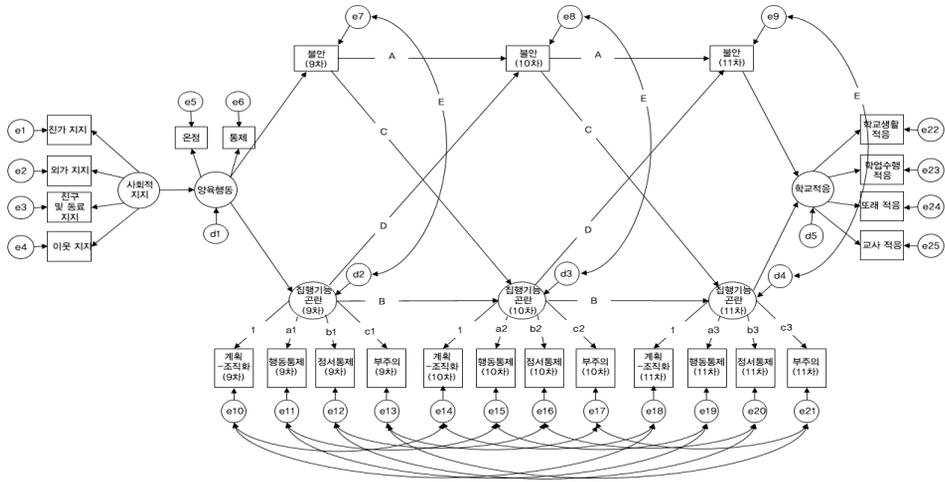
(N = 2150)

모형		TLI	CFI	RMSEA
기저모형	1	.982	.989	.050
측정동일성	2	.981	.987	.051

3. 구조모형 분석

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

아동의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과 상호적 영향 및 두 변인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였고(그림 2), 구조모형에 순차적으로 동일화 제약을 가해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였다(〈표 4〉). 모형의 비교는 측정모형 검증과 마찬가지로 TLI, CFI, RMSEA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TLI 값이 .02 이상 작아지지 않았거나 CFI 값이 .01 이상 작아지지 않았거나 RMSEA 값이 .015 이상 커지지 않았을 때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해석하였다(Chen, 2007). χ^2 차이검증은 표본크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았다.



[그림 2] 구조모형

〈표 4〉 동일성 검증 모형 분석 순서

(N = 2150)

모형	내용
기저모형	1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
측정동일성	2 집행기능 곤란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계수(a1, b1, c1)를 세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경로 동일성	3 모형 2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불안의 자기회귀계수(A)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4 모형 3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집행기능 곤란의 자기회귀계수(B)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5 모형 4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집행기능 곤란에 대한 잠재변인 불안의 교차회귀계수(C)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교차 회귀 계수	6 모형 5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불안에 대한 잠재변인 집행기능 곤란의 교차회귀계수(D)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7 모형 6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불안과 잠재변인 집행기능 곤란 간의 오차공분산 사이(E)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에서 모형 7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3>에서 측정동일성이 충족되었으므로 경로동일성의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3을 분석한 결과, CFI 값과 RMSEA 값은 동일하였고, TLI 값은 근소하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Delta TLI = .001$, $\Delta CFI = .000$, $\Delta RMSEA = .000$). 모형 4는 CFI 값과 RMSEA 값은 동일하였고, TLI 차이값은 .02를 초과하지 않아 시간에 따른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성립되었다($\Delta TLI = .001$, $\Delta CFI = .000$, $\Delta RMSEA = .000$).

또한,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 가정이 성립되는지 확인하게 위하여 모형 5를 분석한 결과, CFI 값과 RMSEA 값은 동일하였고, TLI 값은 근소하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Delta TLI = .001$, $\Delta CFI = .000$, $\Delta RMSEA = .000$). 모형 6은 RMSEA 값은 동일하였고, TLI와 CFI 차이값이 각각 .02, .01을 초과하지 않아 시간에 따른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성립되었다($\Delta TLI = .001$, $\Delta CFI = .001$, $\Delta RMSEA = .000$).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7은 TLI, CFI, RMSEA 값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시간에 따른 오차공분산동일성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모형 7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모형 7의 적합도는 TLI = .911, CFI = .923, RMSEA = .063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5>구조모형의 적합도

(N = 2150)

모형		TLI	CFI	RMSEA
기저모형	1	.911	.926	.063
측정동일성	2	.911	.924	.063
	3	.912	.924	.063
경로동일성	4	.911	.924	.063
	5	.912	.924	.063
	6	.911	.923	.063
오차공분산 동일성	7	.911	.923	.063

나. 구조모형 분석 결과

최종모형으로 결정된 모형 7의 경로계수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에서 양육행동으로 향하는 직접경로는 정적으로 유리하였다($\beta = .35$, $p < .001$). 즉,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였다. 둘째, 양육행동에서 9차년도 불안($\beta = -.11$, $p < .001$), 9차년도 집행기능 곤란($\beta = -.38$, $p < .001$)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의 불안 수준이 낮았고 집행기능 곤란 정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9차년도 불안에서 10차년도 불안으로 향하는 직접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20$, $p < .001$), 10차년도 집행기능 곤란으로 향하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2$, $p > .05$). 즉, 9세일 때 불안 정도가 높은 아동은 10세에도 불안 정도가 높았다. 넷째, 10차년

도 불안에서 11차년도 불안으로 향하는 직접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21, p < .001$), 11차년도 집행기능 곤란으로 향하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2, p > .05$). 즉, 10세일 때 불안 정도가 높은 아동은 11세에도 불안 정도가 높았다. 다섯째, 11차년도 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37, p < .001$). 즉, 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9차년도 집행기능 곤란이 10차년도 불안($\beta = .11, p < .001$)과 10차년도 집행기능($\beta = .81, p < .001$)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9세일 때 높은 정도의 집행기능을 겪는 아동일수록 10세 때 불안을 많이 느끼고 집행기능 곤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10차년도 집행기능 곤란이 11차년도 불안($\beta = .12, p < .001$)과 11차년도 집행기능($\beta = .82, p < .001$)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10세일 때 높은 정도의 집행기능을 겪는 아동일수록 11세 때 불안을 많이 느끼고 집행기능 곤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집행기능 곤란에서 학교적응으로 향하는 직접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31, p < .001$). 즉, 집행기능 곤란 정도가 큰 아동일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회귀계수를 통해 살펴본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은 모두 9차년도가 10차년도에 미치는 영향, 10차년도가 11차년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은 각각 한 시점에서 높을 때 이후 시점에서도 높은 정도를 보였다. 교차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불안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직접경로가 9차년도에서 10차년도에 미치는 영향과 10차년도에서 11차년도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행기능 곤란에서 불안으로 향하는 경로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한 시점에서 집행기능 곤란을 많이 경험하는 아동일수록 이후 시점에서 경험하는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 6〉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 = 2150)

잠재변인 간 경로		B	S.E.	β	C.R.
사회적 지지	→ 양육행동	.29	.03	.35	9.03***
양육행동	→ 불안(9차)	-.10	.03	-.11	-3.54***
	→ 집행기능 곤란(9차)	-.31	.04	-.38	-7.52***
불안(9차)	→ 불안(10차)	.19	.01	.20	13.74***
	→ 집행기능 곤란(10차)	.02	.01	.02	1.92
불안(10차)	→ 불안(11차)	.19	.01	.21	13.74***
	→ 집행기능 곤란(11차)	.02	.01	.02	1.92
불안(11차)	→ 학교적응	-.62	.04	-.37	-17.65***
집행기능 곤란(9차)	→ 불안(10차)	.12	.02	.11	7.15***
	→ 집행기능 곤란(10차)	.82	.01	.81	73.91***
집행기능 곤란(10차)	→ 불안(11차)	.12	.02	.12	7.15***
	→ 집행기능 곤란(11차)	.82	.01	.82	73.91***
집행기능 곤란(11차)	→ 학교적응	-.48	.04	-.31	-13.51***

다음으로, 잠재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가 양육 행동, 불안, 집행기능 곤란을 통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와 총효과를 살펴보았다(〈표 7〉, [그림 3]).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한 결과, 첫째, 사회적 지지가 9-11차년도 불안($\beta = -.02 \sim -.04, p < .01$), 집행기능 곤란($\beta = -.09 \sim -.13, p < .05, p < .01$),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beta = .03, p < .05$)는 유의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10-11차년도 불안($\beta = -.05, \beta = -.06, p < .01$), 집행기능 곤란($\beta = -.25, \beta = -.31, p < .01$), 학교적응($\beta = .03, p < .05$)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즉, 한 시점에서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이후 시점의 아동의 불안, 집행기능 곤란 및 학교적응 정도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적응에 미치는 9-10차 불안($\beta = -.02, \beta = -.09, p < .01$)과 집행기능 곤란($\beta = -.25, \beta = -.30, p < .05, p < .01$)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즉, 한 시점에서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 정도가 큰 아동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는 양육행동을 13% 설명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양육행동은 함께 9차년도 불안과 9차년도 집행기능 곤란을 각각 1%, 14% 설명하였고,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 9차년도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은 함께 10차년도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을 5%, 65% 설명하였으며,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 9-10차년도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은 함께 11차년도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을 각각 7%, 69%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 양육행동, 9-11차년도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은 함께 학교적응을 2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최종 구조모형의 인과적 효과 분석 (N = 2150)

잠재변인 간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SMC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사회적 지지	→	양육행동	.35*	.35*	.13	
사회적 지지	→	불안(9차)	-	-.04**	-.04**	.01
양육행동	→		-.11**	-	-.11**	
사회적 지지	→		-	-.02**	-.02**	.05
양육행동	→		-	-.06**	-.06**	
불안(9차)	→	불안(10차)	.20**	-	.20**	
집행기능 곤란(9차)	→		.11**	-	.11**	
사회적 지지	→		-	-.02**	-.02**	.07
양육행동	→		-	-.05**	-.05**	
불안(9차)	→		-	.04**	.04**	
불안(10차)	→	불안(11차)	.21**	-	.21**	
집행기능 곤란(9차)	→		-	.12*	.12*	
집행기능 곤란(10차)	→		.12*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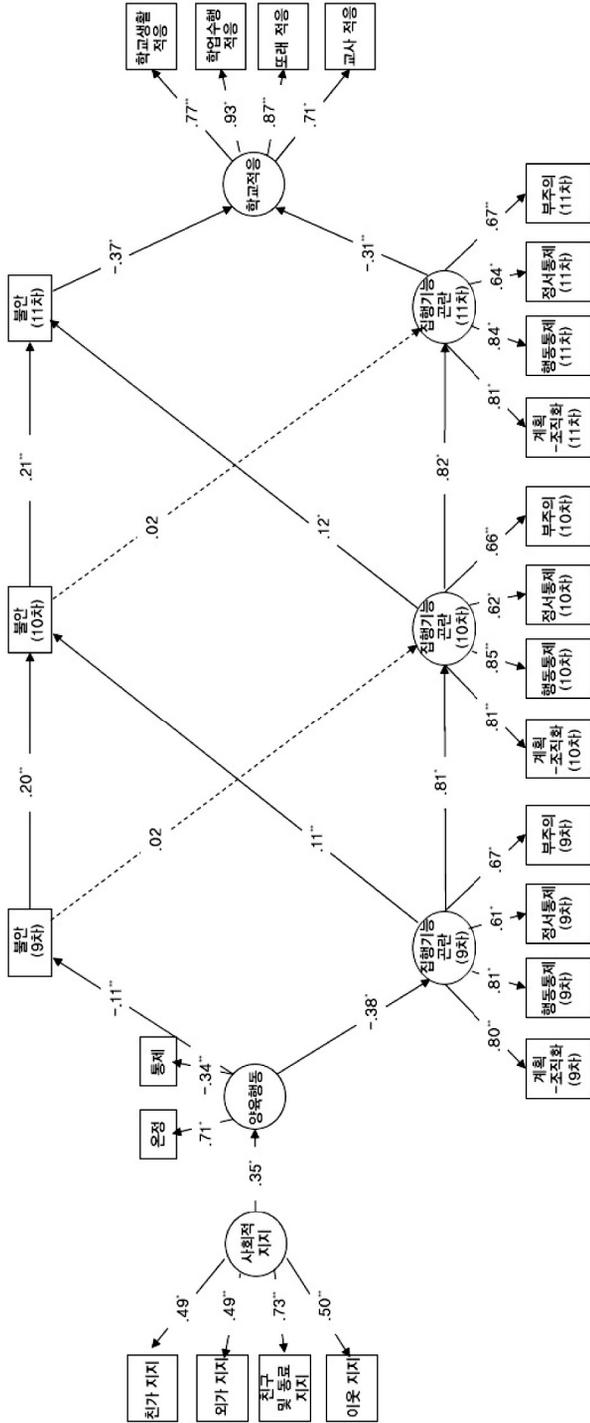
사회적 지지	→	집행기능 곤란	-	-.13*	-.13*	.14
양육행동	→	(9차)	-.38*	-	-.38*	
사회적 지지	→	집행기능 곤란 (10차)	-	-.11*	-.11*	.65
양육행동	→		-	-.31*	-.31*	
불안(9차)	→		.02	-	.02	
집행기능 곤란(9차)	→		.81*	-	.81*	
사회적 지지	→		-	-.09*	-.09*	
양육행동	→	집행기능 곤란 (11차)	-	-.25**	-.25**	.69
불안(9차)	→		-	.02	.02	
불안(10차)	→		.02	-	.02	
집행기능 곤란(9차)	→		-	.67**	.67**	
집행기능 곤란(10차)	→		.82*	-	.82*	
사회적 지지	→	학교적응	-	.03*	.03*	.27
양육행동	→		-	.10**	.10**	
불안(9차)	→		-	-.02**	-.02**	
불안(10차)	→		-	-.09**	-.09**	
불안(11차)	→		-.37*	-	-.37*	
집행기능 곤란(9차)	→		-	-.25*	-.25*	
집행기능 곤란(10차)	→		-	-.30**	-.30**	
집행기능 곤란(11차)	→		-.31**	-	-.31**	

주 1)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추정치임.

2) 유의도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에 의한 결과임.

3)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 다중상관자승

* p < .05. ** p < .01. ***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 불안, 집행가능 곤란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양육행동과 초등학교 2~4학년 시기 아동의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종단적인 매개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7~1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포함하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 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다음 해 아동의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아동의 불안은 다음 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인지적 요인에 의하여 걱정, 불안이 발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Hirsch와 Mathews (2012)의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로, 집행기능이 불안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고 있다(Affrunti & Woodruff-Borden, 2013; Zainal & Newman, 2018). 반면 불안과 집행기능간의 상관을 횡단적으로 살펴보고 불안이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Billingsley-Marshall et al., 2013, Shields et al., 2016). 이는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선행연구들과 같이 횡단적으로 탐색하였는지, 혹은 본 연구와 같이 종단적으로 탐색하였는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Eysenck와 Derakshan (2011)의 주의통제이론에서처럼 동일한 시점에서는 불안이 집행기능의 발휘에 필요한 심리적 자원을 제한하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종단적 관계에서는 집행기능 상의 제약이 부정적 단서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거나, 단서를 여러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게 하거나, 유연하게 사고하거나, 불안을 유발하는 걱정과 같은 사고를 목적에 맞게 중단하고 전환하지 못하게 하여 불안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불안과 집행기능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몇몇 종단연구들은 집행기능의 결함이 이후 불안 문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Han et al., 2015; Zainal & Newman, 2018) 집행기능이 불안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집행기능과 불안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종단연구의 수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하여 이러한 주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시기의 집행기능과 불안의 관계만을 탐색하였으므로, 집행기능의 곤란으로 인해 불안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것인지, 혹은 불안으로 인하여 집행기능의 발달에 제약이 생겨난 것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집행기능이 활발히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만 4세 이전부터(Garon, Bryson, & Smith, 2008)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 간의 발달적 인과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불안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2, 3, 4학년 때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불안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동의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실행기능과(김형연, 김민주, 2020; 전숙영, 2018; Herbers et al., 2011) 불안을 통해(Silva et al., 2007)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과 불안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하며, 이는 이후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인지적·정서적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양육이 3년 후의 학교적응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바,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에 학령기 부모 뿐 아니라 학령기 이전의 자녀를 둔 부모까지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셋째, 양육행동, 집행기능 곤란, 불안을 통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사이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종단적 매개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즉, 7세에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초등학교 2, 3, 4학년 때 아동의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동의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때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등 부모 변인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권정윤, 조혜영, 2016; 김민경, 김경은, 2009), 아동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외체계인 사회적 지지가 미시체계인 양육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나타내어 아동의 발달에 있어 다양한 외체계의 영향력을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유아기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은 양육행동과 아동의 인지·정서적 요인을 통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는 유아기부터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과 지원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동의 발달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장애아동 가정과 같이 다른 가족, 친구, 이웃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의 양육자가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소속되도록 돕는 것이 가정과 아동의 적응 모두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은 사회적 지지, 양육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며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동이 부정적 정서나 신체적 긴장을 경험하지 않으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고 적절히 통제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집행기능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불안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

한 정서적 접근과 함께, 불안과 학교적응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기능의 발달을 촉진하는 인지적 접근을 사용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유아기 어머니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이후 바람직한 양육을 하게 되고, 바람직한 양육은 아동의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을 감소시키며, 아동의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이 낮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높을 경우 다음 해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어, 집행기능이 불안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불안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적응을 위한 집행기능 발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변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Silva, Dorso, Azhar 등(2007)에 따르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불안과 학교적응에 어머니와는 다른 차별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아버지 변인을 포함한 경로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양육행동, 아동의 집행기능, 학교적응을 모두 어머니 보고로 측정함에 따라 변인들 사이의 관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아동의 불안은 교사가 보고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의 집행기능이나 불안을 실험과제를 통해 측정하거나, 학교적응의 측정에 아동, 교사의 보고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법과 보고자를 포함하여 연구변인들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집행기능과 불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Zainal과 Newman (2018)에 따르면 집행기능의 하위요인에 따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불안에 대한 집행기능의 하위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넷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집행기능과 불안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학령초기를 대상으로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집행기능이 활발히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유아기를 포함하여 불안과 집행기능 곤란 간의 발달적 인과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체계와 미시체계의 환경적 요인과 아동의 개인적 요인이 포함된 다양한 생태학적 수준의 변인들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종단적으로 탐색한 생태학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서적 요인인 불안과 인지적 요인인 집행기능 곤란의 종단적 상호성 검증을 통해 집행기능이 불안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 간의 발달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학교적응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적, 개인적 요인을 탐색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한 통합적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교육통계연보 2019. 교육통계서비스 웹 사이트: <https://kess.kedi.re.kr>에서 인출
- 권정윤, 조혜영 (2016).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인식, 부부관계, 자아인식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관계 간 구조적 관계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4), 559-580.
- 권희경, 김원경 (2020). 아동의 심리적 요인, 부모의 양육 행동, 부모의 심리적 요인과 아동 집행기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4(1), 143-162.
- 김민경, 김정은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0(5), 119-135.
- 김수정, 정윤경, 박현식 (2018). 부모갈등 지각이 초등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 사회불안을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4), 21-41.
- 김자경, 김주영, 김남진 (2007). 청각장애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불안, 우울, 그리고 학교적응 간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9(4), 231-247.
- 김종한 (2012). 사회적지원, 부부갈등,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경로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9), 3924-3933.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형연, 김민주 (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및 집행기능곤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1), 105-121.
- 문명화, 문은식 (2020).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교실환경,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학습준비도 간의 구조적 관계. *생태유아교육연구*, 19(2), 23-45.
- 민미희 (2018).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및 통제적 양육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91-121.
- 민하영, 권기남 (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아동학회지*, 25(2), 81-92.
- 박보경, 노지운 (2020). 부모의 양육행동이 학령 초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실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2), 163-179.
- 박수원, 김셋별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5-32.
- 박효정 (2002).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에 대한 담임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석원, 이대균 (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2), 135-158.
- 송현주 (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121-137.
- 송희원, 최성열 (2012). 빈곤 여부,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학업동기, 심리적 안녕감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6(3), 651-672.
- 심희옥 (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이경님 (2006). 아동의 개인, 가족 변인 및 학교적응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31-44.
- 이영애, 정현희 (2016).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7(2), 187-214.
- 이재림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언, 정익중, 백종립, Batzoolboo Byambaakhuu. (2014).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아동복지학*, (47), 125-155.
- 전숙영 (2018). 초등학교 1학년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행기능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3(3), 41-54.
- 정문자, 여종일 (2010). 수용적 부모양육이 아동의 사회불안 및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성별조절효과를 통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8(9), 103-111.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정현희 (2003). 중학교 진학 후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1(2), 36-46.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좌현숙, 변귀연 (2010).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과정에서 내재화 문제의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학교사회복지*, (19), 113-140.
- 지성애, 정대현 (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최진오 (2014).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실행기능 결함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3(4), 391-410.
- 최태산, 김자경 (2015).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양육태도가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12), 595-617.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ffrunti, N. W., & Woodruff-Borden, J. (2015). The associations of executive function and temperament in a model of risk for childhood anxiet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3), 715-724.
- Barlow, D. H. (1988). *Anxiety and its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Billingsley-Marshall, R. L., Basso, M. R., Lund, B. C., Hernandez, E. R., Johnson, C. L., Drevets, W. C., ... Yates, W. R. (2013). Executive function in eating disorders: The role of state anx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6(4), 316-321. doi:10.1002/eat.22086
- Blair, C., Granger, D. A., Willoughby, M., Mills-Koonce, R., Cox, M., Greenberg, M. T., ... Fortunato, C. K. (2011). Salivary Cortisol Mediates Effects of Poverty and Parenting on Executive Function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82(6), 1970-1984. doi:10.1111/j.1467-8624.2011.01643.x

- Blom, E. C. H., Serlachius, E., Larsson, J.-O., Theorell, T., & Ingvar, M. (2010). Low Sense of Coherence (SOC) is a mirror of general anxiety and persistent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 girls—a cross-sectional study of a clinical and a non-clinical cohort.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8*(1), 1-13. doi:10.1186/1477-7525-8-58
-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2007).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In D. William & M. L. Richard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6th ed., Vol. 1).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doi:10.1002/9780470147658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3), 464-504.
- Di Riso, D., Bobbio, A., Chessa, D., Lis, A., & Mazzeschi, C. (2014). Analysis of the interplay between depression, anxiety, and psychological resources in adolescence using self-report meas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18*(2), 103-111.
- Edwards, S. L., Rapee, R. M., Kennedy, S. J., & Spence, S. H. (2010). The assessment of anxiety symptoms in preschool-aged children: The Revised Preschool Anxiety Scale.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9*(3), 400-409.
- Eysenck, M. W., & Derakshan, N. (2011). New perspectives in attentional control the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7), 955-960.
- Friedman, N. P., Miyake, A., Young, S. E., DeFries, J. C., Corley, R. P., & Hewitt, J. K.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executive functions are almost entirely genetic in origi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7*(2), 201-225.
- Garon, N., Bryson, S. E., & Smith, I. M. (2008). Executive function in preschoolers: A review using an integrative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34*(1), 31-60.
- Goodman, R. (1997).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A research not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5), 581-586.
- Green, B. L., Furrer, C., & McAllister, C. (2007). How do relationships support parenting? Effects of attachment style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behavior in an at-risk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0*(1), 96-108.
- Hackman, D. A. (2012).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development of executive*

- function and stress reactivity: The specific roles of parental nurturance and the home environment* (Doctoral dissertation). Available from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database. (UMI No. 3542813)
- Han, G., Helm, J., Iucha, C., Zahn-Waxler, C., Hastings, P. D., & Klimes-Dougan, B. (2016). Are executive functioning deficits concurrently and predic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and anxiety symptoms in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5*(1), 44-58.
- Herbers, J. E., Cutuli, J. J., Lafavor, T. L., Vrieze, D., Leibel, C., Obradović, J., & Masten, A. S. (2011).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arenting on the academic functioning of young homeless children.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22*(1), 77-104.
- Hirsch, C. R., & Mathews, A. (2012). A cognitive model of pathological wor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50*(10), 636-646.
- Jurado, M. B., & Rosselli, M. (2007). The elusive nature of executive functions: A review of our current understanding. *Neuropsychology Review, 17*(3), 213-233.
- Ki, P. (2020).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Influences of the interaction frequency with mothers versus fathers and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behaviou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90*(7), 1123-1135.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Masten, A. S., Herbers, J. E., Desjardins, C. D., Cutuli, J. J., McCormick, C. M., Sapienza, J. K., ... Zelazo, P. D. (2012). Executive function skills and school success in young children experiencing homelessness. *Educational Researcher, 41*(9), 375-384.
- Moore, P. S., Whaley, S. E., & Sigman, M. (2004). Interaction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Impacts of maternal and child anxie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3), 471-476.
- Muris, P., Meesters, C., & van den Berg, F. (2003).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SDQ).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2*(1), 1-8.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5). Predict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ention, memory, and planning in first graders from experiences at home, child care,

- and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99-114.
- Neuenschwander, R., Röthlisberger, M., Cimeli, P., & Roebbers, C. M. (2012). How do different aspects of self-regulation predict successful adaptation to school?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3(3), 353-371.
- Newbegin, I., & Owens, A. (1996). Self-esteem and anxiety in secondary school achievement.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1(3), 521-530.
- Pitts, S. C., West, S. G., & Tein, J.-Y. (1996). Longitudinal measurement models in evaluation research: Examining stability and change.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9(4), 333-350.
- Shields, G. S., Moons, W. G., Tewell, C. A., & Yonelinas, A. P. (2016). The effect of negative affect on cognition: Anxiety, not anger, impairs executive function. *Emotion*, 16(6), 792-797.
- Siegler, R. S., Saffran, J., Gershoff, E., & Graham, S. (2019). 발달심리학(송길연, 장유경, 이지현, 유봉현,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7년 원저 발간).
- Silva, M., Dorso, E., Azhar, A., & Renk, K. (2007).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styles experienced during childhood, anxiety, motivation, and academic succes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9(2), 149-167.
- van Gastel, W., Legerstee, J. S., & Ferdinand, R. F. (2009). The role of perceived parenting in familial aggregation of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1), 46-53.
- Watts, S. E., & Weems, C. F. (2006). Associations among selective attention, memory bias, cognitive errors and symptoms of anxiety in youth.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6), 838-849.
- Zainal, N. H., & Newman, M. G. (2018). Executive function and other cognitive deficits are distal risk factors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9 years later. *Psychological Medicine*, 48(12), 2045-2053.

• 교신저자: 한세영,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venhow@ewha.ac.kr

Abstract

The effect of mother'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behavior on child's school adaptation through executive function and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us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Sae-Young Han, Hyunah We, and Jung-hee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1st grade), child'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anxiety(2, 3, 4th grade) in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7-years-old) and child's school adjustment(4th grade). The longitudinal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executive function and anxiety (2, 3, 4th grade) was also examined.

For the analyses, 2,150 pairs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738 males, 51.3%) who participated in the 7th to 11th year survey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colle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ere use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others in the 7th year(7-years-old), parenting behavior reported by the mother in the 8th year(1st grade),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of children reported by mother and anxiety of children reported by teacher in the 9th to 11th years(2, 3, 4th grade), and school adjustment reported by mother in 11th year(4th grade) were used. Using the collected data, the structural model includ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1.0 and AMOS 21.0 program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between anxiety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the child'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nxiety of the following year, but the anxiety did no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of the following year.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anxiety in second, third and fourth gra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behavior(1st grade) and child's school adjustment(4th grade). Third, the structural model revealed the significant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1st grade),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anxiety(2, 3, 4th gra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7-years-old) and school adjustment(4th grade). This study explored the meaningful longitudinal paths of various ecological factors toward school 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Also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developmental interaction betwee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anxiety in middle childhood. In addition, result of this study may provide a basic information for the childhood school adjustment intervention programs by exploring various environmental and personal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 Key words: executive function, anxiety, school adjustment, parenting, social support

유아기 사회적 지지와 모의 양육이 아동의 집행기능과 불안을 통해 아동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적용한 종단연구

김정숙(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본 연구는 아동기에 중요한 학교적응을 주제로 하여 유아기 모의 사회적지지, 모의 양육,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불안을 변인으로 보고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영향력을 알아본 연구이다. 아직 학계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주제에 대해 종적 영향력을 본 연구로 학문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로 보인다. 어려운 연구를 수행해주신 본 연구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를 살펴보며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목이 본 연구 내용을 포괄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제목을 보면서 유아기 사회적지지? 누구의 사회적 지지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고,, 모의 양육? 어떤 부분? 양육 스트레스? 양육행동? 양육태도?, 집행기능? 정확히는 집행기능 곤란?.. 등,, 연구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연구를 바라보게 하려는 연구자의 의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 제목에 좀 더 명확히 드러났으면 하는 바램이 들었습니다.

둘째, 본 연구의 서론부분에서 연구자료를 ‘모’로만 한정된 부분에 대한 이유가 필요할 듯합니다. 물론 제언부분에 본 연구가 어머니로만 한 것에 대해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가 많아지고, 양육대디도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머니로 한정하여 살펴본 설득력있는 이유(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양육자가 어머니라는 통계 데이터 등)가 서론부분에 기술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연구도구의 사회적 지지에 있어 문장 제시에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척도는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사교적,지지, 정보적 지지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3문항), 친가 식구, 외가식구, 친구 및 동료, 이웃에게 받는 지원 정도를 각각 측정하였다(총 52문항)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p.8). 그리고 연구결과 표 1을 보다 보니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하위변인에 친가지지, 외가지지, 친구 및 동료지지, 이웃지지

로 되어 있어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넷째, 연구도구 중 아동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SDQ 중 정서증상 영역을 선택하였고 이 정서증상 5문항 중 3문항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정서증상 영역이 불안 측정과 여러면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일부 문항만 선택적으로 사용한 이유, 일부 문항을 제외한 이유가 함께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SDQ의 정서증상을 불안/우울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한 해외연구 1편만을 제시하고 있고, 관련성있는 몇 편의 연구도 모두 해외연구물로 추정되는데 이를 근거로 국내연구상황에서 불안 측정을 위한 도구 선정에 정서증상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 본 연구설계 모형과 결과를 보면서 유아기 모의 사회적 지지에 7차년도 자료를 사용, 양육행동에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1년이라는 간격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이에 사회적 지지에 변화는 없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양육행동은 과거보다는 그 시기에 어떠한 지지가 있는가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회적지지와 양육행동을 동일한 시점에 함께 살펴보고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섯째, 논의 및 결론에서 집행기능 곤란은 다음해의 불안에 영향을 주게 되는 반면, 불안은 다음해의 집행기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적응의 정서적 변인과 인지적 변인으로 살펴본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행연구들이 미비한 부분으로(횡적으로만 연구 수행) 제시되어 있는데 불안의 구성요소를 고려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좀 더 논의가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째, 본 연구의 제한점 둘째를 보면(p. 26) 양육행동, 아동의 집행기능, 학교적응을 모두 어머니 보고로 측정했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 학교적응 측정에 아동, 교사의 보고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연구도구 부분에서는 학교적응은 담임교사 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고 제시되어 있어 앞뒤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기술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토론자가 본 연구결과를 보며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적어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신의 국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체계적인 연구설계 모형을 갖고 어렵고 복잡한 연구를 수행해 주시고 학문적, 정책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남긴 본 연구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효과 검증

김동진⁵⁶⁾

요약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종단적 상호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한국어동패널조사의 8차(2015년)부터 11차(2018년)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회귀모델에서,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은 각각 이후 시점의 측정값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교차지연모델에서, 9차의 자아존중감은 다음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10차)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학교적응(10차)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집행기능 곤란(8차, 10차)은 다음 시점의 학교적응(9차, 11차)에 부적 영향을 미쳤지만,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교적응은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곤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종단분석을 통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호인과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과 중재에 대한 논의 및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학교적응, 자기회귀교차지연

1. 서론

학령기에 접어드는 초등학생들은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격한 규칙과 질서를 배우고, 교사와 또래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배려심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등 긍정적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중요한 시기이다(고정근·최태식, 2003; 이영민·여성민·임성택, 2012; 전숙영, 2018; Pears et al., 2016). 하지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거나 심각한 경우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초등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전민희, 2020).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2019)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014년 0.5%에서 2018년 0.7%로 매년 증가하는 추

56) 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세로, 2018학년도 초등학교의 학년별 학업중단율은 1학년이 1.0%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초등학교의 학교적응은 이후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발달적 성장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부각되면서(김수정·곽금주, 2010; 부경희, 2009; 이현정·손수경·홍세희, 2018; 전숙영, 2018; 지성애·정대현, 2006; Pears, Kim & Brown, 2018),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적응이란 아동이 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수행하는 전반적인 학교생활 영역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말한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즉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 규칙과 질서를 잘 준수하고, 학업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사 및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적응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이정운·이경아, 2004).

최근 학교적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교적응을 이해하고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등 다양한 변인들이 밝혀지고 있다. 아동의 개인 관련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민미희, 2018a; 박성혜·윤종희, 2013; 성정혜·김춘경, 2019; 원재순·김진숙, 2016), 집행기능(민미희, 2018b; 연은모·최효식, 2019a; 이예진·전은옥, 2019; 전숙영, 2018), 자아탄력성(정미영·문혁준, 2007, 한신애·문수백, 2011) 등이 있다. 부모 관련 변인으로는 양육행동(김형연·김민주, 2020; 민미희, 2018a, 2018b), 양육효능감(김수정·곽금주, 2010; 연은모·최효식, 2019a), 양육스트레스(민미희, 2018a), 부부갈등(장원호, 2020), 우울(민미희, 2018a) 등이 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변화시킴으로써 개인과 학교환경 간의 상호 균형을 맞추어 가는 과정(곽수란, 2006; Bierman, 1994)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영향력보다 아동 개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연구(박성혜·윤종희, 2013; 임수경·이형실, 2017)를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개인 관련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자신이 얼마나 가치있는지, 긍정적으로 느끼는지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79; Rosenberg et al., 1995; Leary & MacDonald, 2003).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학교생활의 적응력이 높고(강은정, 2010; 민미희, 2018a; 박성혜·윤종희, 2013; 성정혜·김춘경, 2019; 임수경·이형실, 2007),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자신감이 부족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교 부적응이거나 집행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보인다(권희경·김원경, 2020; 민미희, 2018b; McGee & Williams, 2000). 또래관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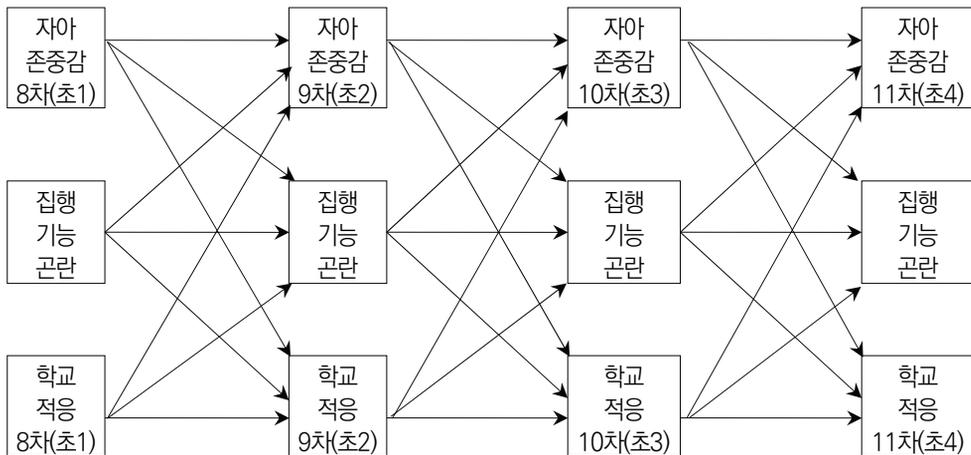
긍정적이거나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김지영·이형실, 2010; 박선희, 2014)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인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의 질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Bukowski & Hoza, 1989; Coopersmith, 1967). 청소년 대상 연구(Trautwein, et al., 2006)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학업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습환경이 부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상호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손한결, 2020; 윤지영·허은정, 2017)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것보다 학교생활적응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학생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윤은영, 2019)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학교생활적응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는 주로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이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밀접한 관련성을 밝혔다. 하지만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관련성을 밝힌 연구가 부족함으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집행기능은 아동이 주요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일부 반응을 억제하며 스스로 욕구를 조절하며 규칙에 따르는 능력으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능력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송현주, 2011; Ready & Reid, 2019). 이러한 능력은 아동이 환경에 맞게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학습 및 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송현주, 2011; Espy et al., 2004; Gathercole, Brown, & Pickering, 2003). Brock et al.(2009)는 집행기능을 정서조절과 인지조절로 구분하여 유치원생 대상으로 학업수행과 교실내 행동을 비교한 연구에서 정서조절 관련 집행기능은 학업수행과 행동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인지조절 관련 집행기능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Graziano et al.(2007)는 초기의 정서조절능력이 이후 학교생활에서의 행동조절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학업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기 차례를 기다릴 수 있고 또래나 교사와의 의견을 나누고 조절할 수 있는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또래관계나 학업수행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송현주, 2011). 아동의 집행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송현주, 2011, 민미희, 2018b, 연은모·최효식, 2019a; 이예진·전숙영, 2018; Rueda, Posner, & Rothbart, 2005), 반면 집행기능 곤란 수준이 높은 경우 정서, 사고, 행동조절이 어려움이 있어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의 질이 악화된다(전숙영, 2018; Riggs, et al., 2006; Rimm-Kaufman, et al., 2009). 따라서 정서, 인지 및 행동조절을 포함하는 집행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집행기능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민미희, 2018b).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집행기능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수준이 높은 아동은 학교적응능력이 높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및 집행기능, 집행기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았을 뿐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힌 연구는 드물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시점의 자료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성장과 발달과정은 시간의 연속선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패널자료를 토대로 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동일 대상에 대해 시차를 두고 반복조사한 패널자료는 변인 간 인과관계의 설명이 용이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과 집단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 변인 간에 상호 역동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하는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추적 조사하는 연구로, 2008년 전국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전국 단위 2,150가구 패널을 구축하여 아동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화할 수 있는 종단 자료이다(이정림 등, 2015).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국아동패널 8차(2015년)부터 11차(2018년)까지 4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시기는 신생아였던 패널이 영유아기를 걸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시기이며,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 등이 이전 영유아기와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다(이정림 등, 2015).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연구변인에 대한 결측치 처리는 완전제거방식(listwise)으로 제거하였고, 4개년도 모두 응답한 228개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은 8차(2015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228)

특성	구분	n (%)	특성	구분	n (%)
아동 성별	남아	116 (50.9)		여아	112 (49.1)
어머니	29세 이하	1 (.4)	아버지	30 ~ 34세	20 (8.8)
연령	30 ~ 34세	39 (17.1)	연령	35 ~ 39세	77 (33.8)
	35 ~ 39세	116 (50.9)		40 ~ 44세	101 (44.3)
	40 ~ 44세	62 (27.2)		45세 이상	27 (11.8)
	45세 이상	10 (4.4)		결측치	3 (1.3)
	<i>M ± SD</i>	<i>38.1 ± 3.73</i>		<i>M ± SD</i>	<i>40.2 ± 3.96</i>
어머니	고졸이하	51 (22.4)	아버지	고졸이하	62 (27.2)
학력	전문대졸	75 (32.9)	학력	전문대졸	44 (19.3)
	대졸	92 (40.4)		대졸	96 (42.1)
	대학원 이상	10 (4.4)		대학원 이상	23 (10.1)
	결측치			결측치	3 (1.3)
가구소득	300 미만	26 (11.4)		501 ~ 600 미만	47 (20.6)
(만원)	301 ~ 400 미만	47 (20.6)		601 ~ 700 미만	26 (11.4)
	401 ~ 500 미만	53 (23.2)		700 이상	29 (12.7)
	<i>M ± SD</i>	<i>471.9 ± 200.3</i>			

아동의 학교적응의 평가자인 담임 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은 매년 평가자가 달라지므로 4개년도 모두 분석하였으며 <표 2>와 같다.

<표 2> 아동의 담임 교사의 인구학적 특성

(N = 228)

특성	8차(2015년)		9차(2016년)		10차(2017년)		11차(2018년)	
	<i>n</i> (%)		<i>n</i> (%)		<i>n</i> (%)		<i>n</i> (%)	
성별	여자	213 (93.4)	193 (84.6)	180 (78.9)	155 (68.0)			
	남자	15 (6.6)	34 (14.9)	48 (21.1)	73 (32.0)			
	결측치		1 (.4)					
연령	29세 이하	39 (17.1)	46 (20.2)	50 (21.9)	44 (19.3)			
	30 ~ 39세	67 (29.4)	62 (27.2)	56 (24.6)	84 (36.8)			
	40 ~ 49세	59 (25.9)	62 (27.2)	82 (36.0)	72 (31.6)			
	50세 이상	63 (27.6)	57 (25.0)	40 (17.5)	28 (12.3)			
	결측치		1 (.4)					
	<i>M ± SD</i>	40.9 ± 10.1	40.6 ± 10.8	39.4 ± 9.6	38.2 ± 8.8			
학력	전문대졸	12 (5.3)	6 (2.6)	2 (.9)	3 (1.3)			
	대졸	137 (60.1)	134 (58.8)	143 (62.7)	141 (61.8)			
	대학원 이상	79 (34.6)	87 (38.2)	83 (36.4)	84 (36.9)			
	결측치		1 (.4)					
경력	9년 이하	62 (27.2)	71 (31.1)	81 (35.5)	81 (35.5)			
	10 ~ 19년	84 (36.8)	72 (31.6)	90 (39.5)	97 (42.5)			
	20 ~ 29년	47 (20.6)	44 (19.3)	35 (15.4)	37 (16.2)			
	30년 이상	35 (15.4)	40 (17.5)	22 (9.6)	13 (5.7)			
	결측치		1 (.4)					
	<i>M ± SD</i>	16.7 ± 10.4	16.4 ± 10.9	14.7 ± 9.7	13.5 ± 8.7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8차(2015년)부터 11차(2018년)까지 4개년도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에 대한 설명 및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도구 변인에 대한 설명 및 신뢰도

변인	측정 및 조작화	Cronbach's α
아동의 자아존중감	8차 MCS(2008)에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아	.75
	9차 동의 연령에 맞게 5문항으로 축소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4	.69
	10차 점 Likert 척도로, 아동이 보고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	.77
	11차 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79
집행기능 곤란	8차 송현주(2014)가 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질문지	.94
	9차 를 성인용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4개의 하위요인으로 계획-	.94
	10차 조직화 곤란(11문항), 행동통제 곤란(11문항), 정서통제 곤란(8문항),	.93
	11차 부주의(10문항)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3점	.94
학교적응	8차 지성대와 정대현(2006)이 개발한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4개 하	.96
	9차 위요인으로 학교생활적응(11문항), 학습수행적응(11문항), 또래적응(8	.96
	10차 문항), 교사적응(5문항)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98
	11차 5점 Likert 척도로, 아동의 담임교사가 보고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	.97
	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 http://panel.kicce.re.kr/panel/board/index.do?menu_idx=42&manage_idx=26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1.0을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연구 변인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을 위해 상관분석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척도를 실시하였다. 둘째, 초등학교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종단적 상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21.0을 활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변인별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학교적응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시점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변화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오차를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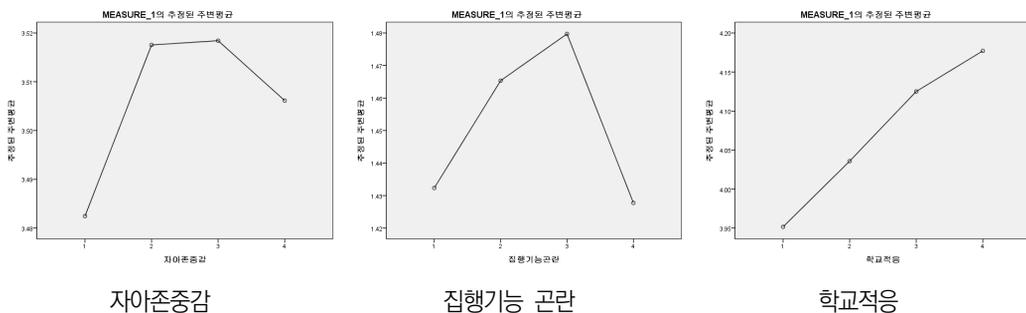
〈표 4〉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 = 228)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아존중감	8차(초1)	3.48	.48	-1.21	2.04
	9차(초2)	3.52	.38	-.82	.63
	10차(초3)	3.52	.42	-1.41	2.60
	11차(초4)	3.51	.43	-.97	.68
집행기능 곤란	8차(초1)	1.43	.29	.67	-.03
	9차(초2)	1.47	.30	.70	.20
	10차(초3)	1.48	.30	.58	-.18
	11차(초4)	1.43	.30	.72	.05
학교적응	8차(초1)	3.95	.70	-.70	.40
	9차(초2)	4.04	.62	-.50	-.33
	10차(초3)	4.13	.73	-1.01	.57
	11차(초4)	4.18	.66	-1.34	2.74

〈표 4〉에서 연구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곤란은 10차(초3)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다소 감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이므로,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하다고 볼 수 있다 (Kline, 2010).

각 연구변인들의 변화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SPSS에서 반복측도를 실시한 결과, 각 변인별 변화패턴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변인별 변화패턴

그림 2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변화패턴은 10차(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2차 부적 선형모델이다. 집행기능 곤란 패턴 역시 10차(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2차 부적 선형모델을 보였다. 학교적응의 변화패턴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선형 변화모델이다.

다음으로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변인 간 상관분석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8차 (초1)	9차 (초2)	10차 (초3)	11차 (초4)	8차 (초1)	9차 (초2)	10차 (초3)	11차 (초4)	8차 (초1)	9차 (초2)	10차 (초3)	11차 (초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1											
②	.49***	1										
③	.35***	.44***	1									
④	.30***	.30***	.51***	1								
⑤	-.11	-.11	-.14*	-.14*	1							
⑥	-.10	-.08	-.14*	-.15*	.76***	1						
⑦	-.16*	-.16*	-.16*	-.17**	.75***	.78***	1					
⑧	-.17**	-.14*	-.18**	-.16**	.67***	.75***	.77***	1				
⑨	.10	.17*	.17*	.09	-.23**	-.20**	-.19**	-.16*	1			
⑩	.10	.16*	.18**	.17**	-.26***	-.35***	-.27***	-.28***	.41***	1		
⑪	.08	.21**	.07	.09	-.15*	-.17**	-.24***	-.27***	.33***	.38***	1	
⑫	.06	.12	.11	.10	-.29***	-.28***	-.29***	-.28***	.30***	.37***	.3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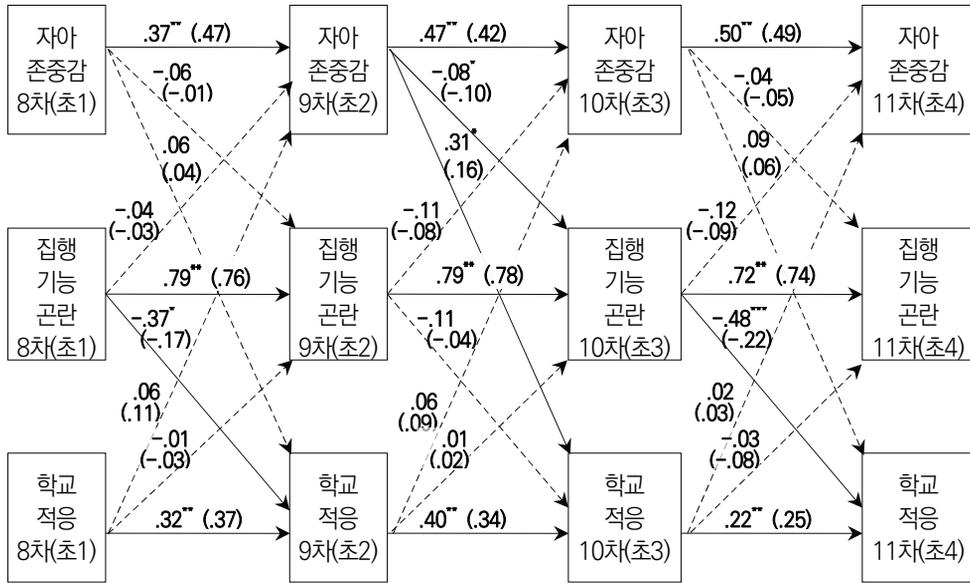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2.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을 경로모델로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자기효과 분석은 [그림 3]과 <표 6>과 같다. 경로모델의 경우 모델부합도 평가는 생략이 가능하므로(문숙백, 2015) 변인 간 직접효과의 계수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자기회귀 계수분석을 살펴보면, 이전 측정 시점의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다음 측정 시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전 측정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이 다음 측정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전 시점의 학교적응이 다음 측정 시점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교차지연계수 분석에서, 이전 측정 시점의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다음 측정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전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이 다음 측정 시점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전 시점의 학교적응이 다음 측정 시점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그림 3, <표 6>).



주: ()값은 표준화 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의 구조계수

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구변인에 대한 안정성

연구문제 1의 초등학생의 자신이 인식한 자아존중감,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의 집행기능 곤란, 그리고 아동의 담임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학교적응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6>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의 구조계수 추정치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β)
자아존중감 8차(초1) → 자아존중감 9차(초2)	.37***	.05	.47
자아존중감 9차(초2) → 자아존중감 10차(초3)	.47***	.07	.42
자아존중감 10차(초3) → 자아존중감 11차(초4)	.50***	.06	.49
집행기능 곤란 8차(초1) → 집행기능 곤란 9차(초2)	.79***	.05	.76
집행기능 곤란 9차(초2) → 집행기능 곤란 10차(초3)	.79***	.04	.78

집행기능 곤란 10차(초3)	→	집행기능 곤란 11차(초4)	.72 ^{***}	.04	.74
학교적응 8차(초1)	→	학교적응 9차(초2)	.32 ^{***}	.05	.37
학교적응 9차(초2)	→	학교적응 10차(초3)	.40 ^{***}	.08	.34
학교적응 10차(초3)	→	학교적응 11차(초4)	.22 ^{***}	.06	.25
자아존중감 8차(초1)	→	집행기능 곤란 9차(초2)	-.06	.03	-.01
자아존중감 9차(초2)	→	집행기능 곤란 10차(초3)	-.08 [*]	.03	-.10
자아존중감 10차(초3)	→	집행기능 곤란 11차(초4)	-.04	.03	-.05
자아존중감 8차(초1)	→	학교적응 9차(초2)	.06	.08	.04
자아존중감 9차(초2)	→	학교적응 10차(초3)	.31 [*]	.12	.16
자아존중감 10차(초3)	→	학교적응 11차(초4)	.09	.10	.06
집행기능 곤란 8차(초1)	→	자아존중감 9차(초2)	-.04	.08	-.03
집행기능 곤란 9차(초2)	→	자아존중감 10차(초3)	-.11	.09	-.08
집행기능 곤란 10차(초3)	→	자아존중감 11차(초4)	-.12	.08	-.09
집행기능 곤란 8차(초1)	→	학교적응 9차(초2)	-.37 ^{**}	.13	-.17
집행기능 곤란 9차(초2)	→	학교적응 10차(초3)	-.11	.16	-.04
집행기능 곤란 10차(초3)	→	학교적응 11차(초4)	-.48 ^{***}	.14	-.22
학교적응 8차(초1)	→	자아존중감 9차(초2)	.06	.03	.11
학교적응 9차(초2)	→	자아존중감 10차(초3)	.06	.04	.09
학교적응 10차(초3)	→	자아존중감 11차(초4)	.02	.04	.03
학교적응 8차(초1)	→	집행기능 곤란 9차(초2)	-.01	.02	-.03
학교적응 9차(초2)	→	집행기능 곤란 10차(초3)	.01	.02	.02
학교적응 10차(초3)	→	집행기능 곤란 11차(초4)	-.03	.02	-.08

주: * $p < .05$. ** $p < .01$. *** $p < .001$.

초등학생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회귀 계수의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이전 측정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측정 시점의 자아존중감($\beta = .47$, $\beta = .42$, $\beta = .49$, $p < .001$)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입학 후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의 집행기능 곤란의 자기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이전 측정 시점의 자녀의 집행기능 곤란이 이후 측정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beta = .76$, $\beta = .78$, $\beta = .74$, $p < .001$)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의 집행기능 곤란은 초등학교 입학 후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담임교사가 지각하는 학생의 학교적응의 자기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이전 측정 시점의 학교적응이 이후 측정 시점의 학교적응($\beta = .37$, $\beta = .34$, $\beta =$

.25, $p < .001$)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의 담임교사가 지각하는 학교적응은 초등학교 입학 후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후 4년 동안 아동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은 각각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에 연차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구변인 간 상호인과관계 검증

연구문제 2의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그림 3], <표 6>).

첫째, 자아존중감의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이전 측정 시점의 아동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이 다음 측정 시점의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차지연계수를 확인한 결과, 9차(초 2) 시점의 아동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beta = -.10, p < .05$)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경로($\beta = -.01, \beta = -.05, p > .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교차지연계수가 부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이 집행기능 곤란을 일관되게 낮추는 영향 관계에 있다고 보여준다. 즉,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에 신뢰할 만한 부정적 영향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전 측정 시점의 아동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이 이후 측정 시점의 아동의 담임교사가 지각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차지연계수를 확인한 결과, 9차(초 2) 시점의 아동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이 이후 측정 시점의 학교적응($\beta = .16, p < .05$)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측정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측정 시점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beta = .04, \beta = .06, p > .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교차지연계수가 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을 일관되게 높여주는 영향 관계에 있다고 보여준다. 즉,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이 이후의 학교적응에 신뢰할 만한 정적 영향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집행기능 곤란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 측정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이 이후 측정 시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차지연계수를 확인한 결과, 모든 경로($\beta = -.03, \beta = -.08, \beta = -.09, p > .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행기능 곤란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직접적인 원인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전 측정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 이후 측정 시점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차지연계수를 확인한 결과, 8차(초 1), 10차(초 3)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이 이후 측정 시점의 학교적응 경로($\beta = -.17, p < .01, \beta = -.22, p < .001$)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측정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이 이후 측정 시점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beta = -.04, p > .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교차지연계수가 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기능 곤란이 학교적응을 일관되게 낮추는 영향 관계에 있다고 보여준다. 즉,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집행기능 곤란이 이후의 학교적응에 신뢰할 만한 부적 영향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교적응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 측정 시점의 학교적응이 이후 측정 시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차지연계수를 확인한 결과, 모든 경로($\beta = .11 = .09, \beta = .03,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적응이 자아존중감의 직접적인 원인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전 측정 시점의 학교적응이 이후 측정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차지연계수를 확인한 결과, 모든 경로($\beta = -.03, \beta = .02, \beta = -.08,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적응이 집행기능 곤란의 직접적인 원인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아동 개인의 영향력 중심으로 세 변인 간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 중 초등학교 1학년인 8차(2015년)부터 11차(2018년)까지 4개년도의 종단자료를 활용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인의 안정성과 상호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결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아동패널의 8차(2015년)부터 11차(2018년)까지 4년 동안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즉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이 각각 다음 측정 시점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4년이라는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한 중단연구(문주희, 2019; 손한결, 2020; 윤지영·허은정, 2017)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어떤 상황에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보다 비교적 지속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Bachman & O'Malley, 1977)와 일치한다. 한편 자아존중감의 성장곡선이 초등 4학년부터 서서히 낮아지다가 6학년 때 가장 낮아지고, 다시 증가하는 U자형의 곡선형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이경아·유성모, 2014)에 따라 초등 저학년부 터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적절한 개입과 증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집행기능의 발달은 만 5세 전후부터 시작하여 아동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Korkman, Kemp, & Kirk, 2001)하기 때문에 집행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기뿐만 아니라 유아기부터 적절한 개입과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부모지원 등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연구결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교차지연모델에서 각 변인 간 상호교차 영향은 서로 다른 패턴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9차)은 집행기능 곤란(10차)과 학교적응(10차), 집행기능 곤란(8차, 10차)은 학교적응(9차, 11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기능 곤란(10차)은 자아존중감(9차), 학교적응(11차) 간의 관계를 종단적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학교적응은 집행기능 곤란과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인식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9차년도 자아존중감이 다음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10차)과 학교적응(10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다른 시점의 자아존중감은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교차지연계수를 살펴보면 집행기능 곤란에 부적,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집행기능 곤란의 수준을 낮추고, 학교적응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자신감이 낮아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취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집행기능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적응 프로파일의 변화와 안정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박상현, 2019)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 부적응형에서 적응유형으로 전이 확률이 높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적응 예측요인에 대한 중단연

구(염동문, 이재경, 2019)에서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의 증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환경의 변화가 많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Brown & Mankowski, 1993).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에게 성공, 격려,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의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의 집행기능 곤란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이전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이 다음 시점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행기능 곤란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원인 변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집행기능 곤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8차와 10차의 집행기능 곤란이 다음 시점의 학교적응(9차, 11차)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민미희, 2018b; 이에진, 전은옥, 2019; 전숙영, 2018)를 일부 지지한다. 아동의 행동특성은 상황 의존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면서(De Los Reyes, 2011), 가정에서는 주로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반면, 학교에서는 또래와 교사와의 상호작용하는 행동특성을 보이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요구되는 아동의 적응이 다를 수 있다(Brand, & Felner, 1996).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집행기능곤란 수준이 2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집행기능곤란 수준은 어머니와 담임교사의 평정자에 따라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은모·최효식, 2019c). 이는 학교적응이 주로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학교적응과 집행기능곤란 간의 상호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집행기능곤란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아동패널의 집행기능곤란은 8차년도만 어머니와 담임교사가 평정하였고, 9차년도 이후부터는 어머니만 평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적절한 개입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담임교사의 중다 평정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이 자신의 인지, 행동 및 정서를 주변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주의집중할 수 있는 능력의 집행기능이 아동의 학업수행,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은 물론 장기적으로 아동의 사회성발달을 위해 집행기능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담임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학교적응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이전 시점의 학교적응이 다음 시점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곤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이 또래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횡단연구 결과(연은모·최효식, 2019b)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횡단연구와 종단연구의 연구설계상

방법의 차이이거나 분석한 모델에 투입된 다른 변인 간의 영향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손한결, 2020; 윤지영·허은정, 2017)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로 영향을 미쳤지만,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윤은영, 2019)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지만,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기도 하지만 차이점도 보였다. 이는 아동·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발달적 특성이나 학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종단적 인과관계를 탐색한 연구로써 아동의 학교적응이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곤란에 직접적인 원인변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다른 변인 간의 영향으로 영향력이 약하거나 다른 변인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 개인적 변인 중심으로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종단연구로 세 변인 간의 상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동은 자신의 개인적 변인에 대한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아직 부모의 보호하에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부모 및 환경과 관련된 변인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더불어 부모 및 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집행기능 곤란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집행기능은 5세 전후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므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발달단계별로 집행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며 다른 변인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의 각 하위변인 간의 관계 및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변인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고 확장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각 하위변인 간의 관계 및 영향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아동, 어머니, 담임교사가 지각하는 보고로 각각 평정함으로써 평정자 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정자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대다수의 연구는 특정한 시점의 횡단자료로 활용하여 변인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로,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한국아동패널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입학 후 4년 동안의 아동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간적 상호영향을 확인하고자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결과를 확장한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아동의 개인적 변인에 대한 시기별 변화와 종단적 상호 인과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 변인 간의 유의미한 변화에 대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초등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에 대한 종단적 영향력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은정(2010).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 관계.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정곤·최태식(2003). 유·초등 연계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양서원
- 곽수란(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SM 2019-05). 한국교육개발원 웹사이트: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2866>
- 권희경·김원경(2020). 아동의 심리적 요인,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심리적 요인과 아동 집행기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4(1), 143-162.
- 김수정·곽금주(2010). 초등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I. 인간발달연구, 17(4), 89-109.
- 김지영·이형실(2010).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1), 21-32.
- 김형연·김민주(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기기 중독 및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1), 105-121.
- 문수백(2015).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활용-워크숍용 자료집. 서울: 학지사.
- 문주희(2019).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구조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민미희(2018a).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긍정적 양육,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성별간 다집단 분석. 육아지원연구, 13(4), 101-126.
- 민미희(2018b).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및 통제적 양육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91-121.
- 박상현(2019). 초, 중 전환기 학생의 학교적응 프로파일의 종단적 변화 및 예측요인 검증. 학습자 중심교과교육학회, 19(21), 821-841.
- 박선희(2014).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지발달중재학회지, 5(1), 17-34.
- 박성혜·윤종희(2013). 초중등 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탐색. 한국청소년학연구, 24(30), 147-169.

- 부경희(2009). 교사용 초등학생 학교적응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초등교육연구*, 22(4), 185-205.
- 성정혜·김춘경(2019).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아동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육아정책연구*, 13(2), 47-71.
- 손한결(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안정성과 상호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현주(2011).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과 학교적응.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2), 31-39.
- 송현주(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121-137.
- 연은모·최효식(2019a).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양육효능감, 자녀의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261-285.
- 연은모·최효식(2019b).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교환경,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 관계: 집행기능 곤란, 성별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7), 121-140.
- 연은모·최효식(2019c).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곤란에 대한 어머니와 담임교사 평정에 따른 잠재집단 탐색 및 학교적응, 학업수행 차이 검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6), 38-47.
- 염동문·이재경(2019).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학교적응 변화유형과 예측요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60, 29-55.
- 원재순·김진숙(2016).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3(9), 177-205.
- 육아정책연구소(2015, 2016, 2017, 2018). *한국아동패널연구* 8, 9, 10, 11차년도 데이터 도구 프로파일.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에서 인출*: http://panel.kicce.re.kr/panel/board/index.do?menu_idx=42&manage_idx=26
- 윤은영(2019).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적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학교적응의 종단적 관계 연구. *다문화와 평화*, 13(2), 1-22.
- 윤지영·허은정(2017). 다문화 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교육문화연구*, 23(6), 775-798.
- 이경아·유성모(201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뇌교육연구*, 9, 1-23.
- 이영민·어성민·임성택(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성. *상담평가연구*, 5(1), 1-12.
- 이예진·전은옥(2019).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어머니의 취업, 가정환경,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3(1), 101-121.
- 이정림·김길숙·송신영·이예진·김진미·김소아·김신경(2015). *한국아동패널 2015(연구보고 2015-33)*.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윤·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16(2), 261-276.
- 이현정·손수경·홍세희(2018).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 학습활동 및 교우관계 간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9 (1), 209-238.
- 임수경·이형실(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

- 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9(3), 169-183.
- 장원호(2020). 취학 전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모-자녀 상호작용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 25-51.
- 전민희(2020). 맞벌이 늘고 '부적응 학생' 증가에 초등학교도 신입생 OT.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677643>에서 2020. 1. 9. 인출.
- 전숙영(2018). 초등학교 1학년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3(3), 41-54.
- 정미영·문혁준(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 지성애·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한신애·문수백(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355-376.
- Bachman, J. G., & O'Malley, P. M. (1977). Self-esteem in young men: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impact of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ttain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6), 365.
- Bierman, K. L. (1994). School adjustment. In R. J. Corsini(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 Brand, S., & Felner, R. D. (1996). Perceived ecological congruence across family/school environments: Impact on the consistency of behavioral patterns and adaptation among children and you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2), 160-174.
- Brock, L., Rimm-Kaufman, S. E., Nathanson, L., & Grimm, K. J. (2009). The contributions of 'hot' and 'cool' executive function to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related behaviors, and engagement in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4, 337-349.
- Brown, J. D., & Mankowski, T. A. (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3), 421-430.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pp. 15-45). New York, NY: Wiley.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De Los Reyes, A. (2011).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More than measurement error: Discovering meaning behind informant discrepancies in clinical assessmen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0(1), 1-9.

- Espy, K. A., McDiarmid, M. M., Cwik, M. F., Stalets, M. M., Hamby, A., & Senn, T. E. (2004). The contribution of executive functions to emergent mathematic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6*, 465-486.
- Gathercole, S. E., Brown, L., & Pickering, S. J. (2003). Working memory assessments at school entry as longitudinal predictors of national curriculum attainment levels. *Educational and Child Psychology, 20*(3), 109-122.
- Graziano, P. A., Reavis, R. D., Keane, S. P., & Calkins, S. D. (2007).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and the student teacher relationship in children's academic succes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5*, 3-19.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rkman, M., Kemp, S. L., Kirk, U. (2001). Effects of age on neurocognitive measures of children ages 5 to 12: A cross-sectional study on 800 children from the United States.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0*(1), 331-354.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eary, M. R., & MacDonald, G.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steem: A review and theoretical integration. In M. R. Leary, &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401-418). New York, NY: Guilford Press.
- McGee, R., & Williams, S. (2000). Does low self-esteem predict health compromising behaviour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3*, 569-582.
- MCS (2008).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http://www.cls.ioe.ac.uk/page.aspx?&sitesectionid=957&sitesectiontitle=Surveys+and+documentation>에서 2015년 1월 21일 인출.
- Pears, K. C., Kim, H. K., & Brown, K. L. (2018). Factors affecting the educational trajectories and outcomes of youth in foster care. In E. Trejos-Castillo & N. Trevino-Schafer (Eds.), *Handbook of foster youth*. New York, NY: Routledge.
- Pears, K. C., Kim, H. K., Fisher, P. A., & Yoerger, K. (2016). Increasing pre-kindergarten early literacy skills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delay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7*, 15-27.
- Ready, D. D., & Reid, J. L. (2019).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evelopment and school socioeconomic and racial/ethnic composi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7*, 457-471.
- Riggs, N. R., Jahromi, L. B., Razza, R. P., Dillworth-Bart, J. E., & Mueller, U. (2006). Executive function and the promotion of social-emotional competen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300-309.

- Rimm-Kaufman, S. E., Curby, T. W., Grimm, K. J., Nathanson, L., & Brock, L. L. (2009). The contribution of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lassroom quality to children's adaptive behaviors in the kindergarten classroom. *Developmental psychology, 45*(4), 95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1), 141-156.
- Rueda, M., Posner, M., & Rothbart, M.(2005). The development of executive attention: Contributions to the emergence of self-regulation.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8*, 573-594.
- Trautwein, U., Ludtke, O., Koller, O., & Baumert, J. (2006). Self-esteem, academic self-concept, and achievement: How the learning environment moderates the dynamics of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2), 334-349.

- 교신저자: 김동진, 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dongjin0412@hanmail.net

Abstract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among Self-Esteem,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Schoo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Dongjin Kim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s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utiliz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For this reason, we used the longitudinal data from the 8th panel survey(2015) to the 11th panel(2018) of Korean childre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an autoregressive model, self-esteem,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school adjustment at previous time poin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measurements at each later time point. Second, in a cross-lagged model, 9th-order self-esteem had a negative effect o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10th) and a positive effect on school adjustment (10th) at the following times. Difficulty in executive function (8th, 10th) had a negative effect on school adjustment (9th, 11th) at the next point, bu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self-esteem, School adaptatio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both self-esteem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clarifying the intercausal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self-esteem,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time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we proposed the discussions on interventions and mediation to support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recommendations for the follow-up research.

- Key words: self-esteem,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hool adjustment,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 효과 검증

박경호(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본 논문을 읽으면서 20살이 된 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한지 5일째 되는 날, 둘째 아이는 3주 정도 만에 학교에 불려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떠올라 잠시 과거로의 여행을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억 여행은 본 연구를 더욱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토론자로서 본 연구에 조금이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읽으면서 궁금하거나 저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서론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기초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집행기능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앞선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집행기능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힌 연구는 드물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본 연구가 여기에 주목하게 된 이유를 추가적으로 기술한다면 연구의 필요성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연구변인에 대한 결측치 처리는 완전제거방식(listwise)으로 제거하였고, 4개년도 모두 응답한 228개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1번에서 3번까지 응답한 패널을 분석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고로, 분석에는 4개년 모두 응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패널만 남게 되어 표집의 대표성 또는 추정치의 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접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당시 2,150가구를 패널로 구축한 것에 기초해 보면, 분석에 활용되는 228 패널은 2008년 표본의 10.6%에 그쳐 분석에 포함되지 못한 약 90%의 표본이 임의적으로 탈락되었다고 가정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변화패턴은 10차(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2차 부적 선형모델이고 집행기능 곤란 패턴 역시 10차(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2차 부적 선형모델을 보였다”고 언급하였는데 그림을 보면 이에 동의할 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치를 보면 자아존중감은 8차에서 11차까지의 값

이 3.48, 3.52, 3.52, 3.51로 10차 대비 11차의 평균값 차이는 0.01에 불과하고 집행기능 곤란의 경우에도 1.43, 1.47, 1.48, 1.43으로 10차 대비 11차의 평균값 차이는 0.05로 작아 이를 2차 부적 선형모델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 5〉 연구변인 간 상관분석에서, 학생 스스로 보고한 자아존중감 상관계수는 8차와 9차는 0.49, 9차와 10차는 0.44, 10차와 11차는 0.51이고, 선생님이 보고한 학교 적응 상관계수는 8차와 9차는 0.41, 9차와 10차는 0.38, 10차와 11차는 0.31인데 비해, 어머니가 보고한 집행기능 곤란은 8차와 9차는 0.76, 9차와 10차는 0.78, 10차와 11차는 0.77로 상당히 일관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자아존중감과 학교 적응의 특징이 초등학교 시절 변동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별 무리가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변인이 안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자아존중감의 경우 학년에 따라 학생이 자신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이 달라졌다면, 학교 적응의 경우 선생님이 매년 바뀌고 선생님 마다 기준이 달랐다면, 이를 연도간에 상호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설문 특성상 이를 사후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고 한계점으로 인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결부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구변인에 대한 안정성을 구조계수 추정치를 통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귀무가설 '계수가 0' 즉, 영향력이 없다'를 검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산출된 통계적 유의성은 상관분석처럼 관련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안정성을 만약, 추정치의 일관성이라고 한다면 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연구변인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상관분석에서 한계점으로 제시한 입장을 바꿔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학교적응이 연도간에 변동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가정하면 이를 통해 안정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패널분석에서는 동일한 사람의 여러 연도의 값을 한꺼번에 분석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에서는 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예를 들어, 패널분석에서는 자아존중감 9차 값을 자아존중감 8차 값으로, 자아존중감 10차 값을 자아존중감 9차 값으로, 즉 전년도의 종속변수 값으로 다음연도 종속변수 값을 추정한다고 할 때, 자아존중감 10차 값을 자아존중감 9차 값으로 추정시, 자아존중감 9차 값을 자아존중감 8차로 추정하고 남은 자아존중감 9차 값(오차항)과 자아존중감 10차 값을 추정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투입된 자아존중감 9차 값 간에 상관이 발생하여 추정치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차(초 2) 시점의 아동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beta = -.10, p < .05$)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경로($\beta = -.01, \beta = -.05, p > .05$)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교차지연계수가 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이 집행기능 곤란을 일관되게 낮추는 영향 관계에 있다고 보여준다. 즉,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집행기능 곤란에 신뢰할 만한 부적 영향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전개는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집행기능 곤란과 학교적응 관계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집행기능 곤란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경로($\beta = -.03, \beta = -.08, \beta = -.09,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행기능 곤란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직접적인 원인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상기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곤란과의 차이는 한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아니냐 이고 모두 부적인 계수를 나타내는 것은 동일한데, 해석을 이리 달리 해도 될지 의문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값을 부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준해 해석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아동 개인의 영향력 중심으로 세 변인 간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것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아동 개인의 영향력 중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라고 하였는데, 인과관계는 통상 1) 두 변인 간에 상관이 있고, 2) 원인에 해당되는 A가 결과인 B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해야하며 3) 두 변인 이외에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 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은 연구자가 밝히고 있듯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즉, 두 변인의 상관성과 시간적 우선성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두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타 변수가 통제되었는지는 모형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 1] 연구모형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과 달리 집행기능곤란에서는 8차(초1)-11차(초4)를 함께 제시하고 있지 않는데 통상 표에서 제시하는 방식처럼 8차(초1)-11차(초4)을 그림 위에 한 번 제시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표 2〉 아동의 담임 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전문대졸이 8차 12명, 9차 6명, 10차 2명, 11차 3명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전문대졸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현재 교원양성체제와는 다른 상황이라 전문대졸 초등학교 교사가 배출 가능한 시기를 확인하고 교사의 연령을 비교해서 이에 대한 검증은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표 4〉를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라고 언급하였는데, 표 내용에는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만 제시되어 상관분석은 제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 〈표 4〉의 집행기능의 평균은 8차에서 11차가 1.43, 1.47, 1.48, 1.43으로 8차와 11차가 1.43 같은 값으로 보고되었는데 [그림 2] 연구변인별 변화패턴에서는 11차 평균값이 8차보다 낮은 것으로 보여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연구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은 직전 연도가 그 다음 연도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8차의 자아존중감이 9차의 자아존중감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10차, 11차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추후 이를 모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끝으로, 흥미로운 논문을 토론으로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션4 인지 및 적응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환경, 양육환경

좌장: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교수)

1.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과 가족공동체 활동 간의 관계: 우울, 부부
공동양육,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연구진: 이운경(이화여자대학교 아동가족연구소 연구교수)

윤기봉(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

토론자: 문영경(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2. PC, 스마트폰 중독 위험 아동 예측: 생태체계 관점의 적용

연구진: 김대웅(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장영은(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3.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의 역할

연구진: 이설아(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윤희진(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김혜영(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김호현(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4. 아동의 창의성 변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잠재계층성장분석의 적용

연구진: 이근애(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토론자: 도남희(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과 가족공동체 활동 간의 관계: 우울, 부부 공동양육,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운경⁵⁷⁾ 윤기봉⁵⁸⁾

요약

본 연구는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과 가족공동체 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양자 간 관계에서 우울, 부부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8차 자료를 이용하여, 총 632명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조절효과의 유의성 범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절변인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취업모의 일-양육갈등은 가족공동체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일-양육 갈등과 가족공동체 활동 간 관계에서 우울 및 부부 공동양육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수준이 평균 또는 평균 보다 높은 경우, 부부 공동양육 수준이 평균 보다 낮은 경우 일-양육 갈등의 가족 공동체 활동에 대한 부적 영향이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아직 부족한 가운데, 일-양육 갈등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일-양육 갈등, 가족공동체 활동, 우울, 부부 공동양육, 사회적 지지

1. 서론

국내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에는 전체 유배우자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46.3%에 도달하였으며, 15세 이상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8년 기준 52.9%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19a, 2019b). 이와 같이 한 가정 내에서 부부 모두 일과 가정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감당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양 영역에서의 책임을 균형있게 수행함을 의미하는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개인의 제한된 자원을 토대로 직장가정에서의 이중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긴장을 의미하는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Frone, Rusell, &

57)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

58)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

Cooper, 1992; Greenhaus & Buetell, 1985),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경험하는 일-가정 갈등에 대한 국내의 학문적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박은희, 장지혜, 신성영, 김민영, 2019; 양소남, 신창식, 2011; 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특히 Marshall과 Barnett (1991; 1993)은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의무와 관련한 일-가정 갈등과 더불어, 부모로서 수행하는 양육에 대한 의무에 보다 초점을 두는 '일-양육 갈등'(work-parenting conflict) 역시 일과 가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할갈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념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개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 중에서도, 일과 양육은 가장 주된 것으로 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과 양육의 의무 사이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관심을 받아 왔다(O'Neil & Greenberger, 1994).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자녀양육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높은 일-양육 갈등 수준을 보고한다는 점(이재희, 김근진, 엄지원, 2017)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단, 현재 일-양육 갈등보다는 보다 광의의 의미에서 일-가정 갈등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훨씬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가정 갈등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포함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선행연구를 고찰하기로 한다.

다양한 국내의 연구들은 어머니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 부모로서의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 및 부모역할 만족도는 낮고(김안나, 2017; Gali Cinamon, Weisel, & Tzuk, 2007) 양육스트레스는 높았다(박주희, 2015; Vieira, Ávila, & Matos, 2012). 또한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애정적, 온정적 양육 행동 수준을 비롯한 긍정적 양육행동의 수준은 낮고(박봉선, 엄명용, 2016; 이운경 등, 2018; Cooklin et al., 2015; Moreira, Fonseca, Caiado, & Canavarro, 2019), 적대적이거나 가혹한 양육행동 등을 비롯한 부정적 양육행동 수준은 높았으며(Cooklin et al., 2015; Hess & Pollmann-Schult, 2020; Vahedi, Krug, & Westrupp, 2019)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 또한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Lau, 2010; Vieira, Matias, Ferreira, Lopez, & Matos, 2016).

한편 몇몇 연구들은 일-가정 갈등과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자녀와의 관계의 질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서 한 층 나아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어려움이 가족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부부 간 갈등은 높고(Vahedi et al., 2019), 어머니의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숙제를 돌보아주거나 자녀가 집안일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가족활동의 빈도는 낮았다(McLoyd et al., 2008). 이와 유사하게, 부모가 규칙적인 업무시간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가족 간 의사소통, 반응성, 문제해결 등을 포함한 전반적 가족기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trazdins, Clements, Korda, Broom, & D'Souza, 2006). 그러나 특히 국내 연구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양육행동을 제외한 가족기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편으로, 탐색적 연구가 다수 요구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하는 가족공동체 활동은 가족 간 상호 즐거움과 동지애를 경험하는 가운데 자녀가 발달적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제공하는 경험을 의미한다(Bradley, Caldwell, Rock, Hamrick, Harris, 1988). 특히 자녀에게 운동을 가르치거나, 함께 여행하거나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하는 등의 가족공동체 활동은 비록 부모에게도 즐거움이 되나, 부모는 이러한 경험이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자녀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서 자신의 시간 및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Bradley & Corwyn, 2004). 이와 같이 부모가 발달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은 자녀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Farah et al., 2008; Tucker-Drob & Harden, 2012),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의 빈도 및 질은 행복감, 학습수행능력 등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sikszentmihalyi & Rathunde, 2014; Lareau, 2003).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일-양육 병행의 어려움이 가족공동체 활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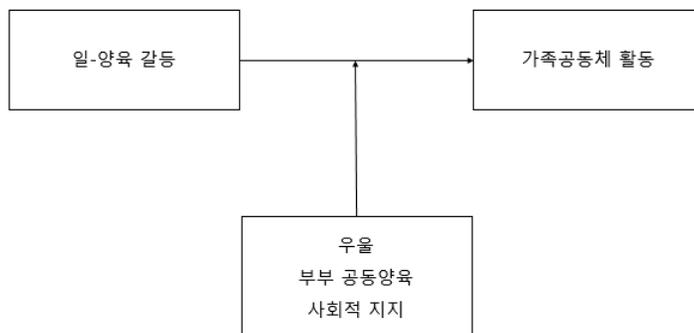
특히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발달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질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고 있다. 부모가 일로 인한 바쁜 일과를 보내면서 피로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정서적 여유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Lareau, 2003; Matias et al., 2017; Offer, 2013). 또한 부모는 일 또는 가정에서의 활동이 동시에 요구될 때 갈등을 경험하고 양쪽에서의 일정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활동을 하지만, 일정 조정이 언제나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Powell & Greenhaus, 2006). 일-가정 갈등 또는 일-양육 갈등과 가족공동체 활동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의 수는 비록 적으나, 실제로 어머니가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주중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적었으며(Johnson, Li, Kendall, Strazdins, & Jacoby, 2013),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거나 함께 레저 활동을 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정도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Senecal, Vallerand, & Guay, 2001). 따라서 일-양육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공동체 활동 수준은 낮을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일-양육 갈등과 가족공동체 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개인적, 환경적 변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선행연구들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에 있어서 부모의 개인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건강 수준 및 정서적 특성에 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Friede & Ryan,

2005; Judge, Ilies, & Scott, 2006). 부모가 바람직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Dinh et al., 2017), 특히 부모의 우울은 자녀를 발달적으로 자극하는 활동 수준을 유의미하게 낮춘다고 알려지고 있다(Yeung, Linver, Brooks-Gunn,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일-양육 갈등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에 있어 우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부부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각각 가족 내, 가족 외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협력 및 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Armstrong, Birnie-Lefcovitch, & Ungar, 2005; Solmeyer & Feinberg, 2011). 그러나 부모 양육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의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는 다수 연구된 바 있고(Fagan, Bernd, & Whiteman, 2007; Richardson, Futris, Mallette, & Campbell, 2018), 부부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가 취업모의 적응 및 양육행동의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들(Graham, Fischer, Crawford, & Fitzoatrick, 2000; Kolak & Vernon-Feagans, 2008) 역시 볼 수 있다.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또는 일-양육 갈등이 가족의 상호작용 및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부부 공동양육 또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것은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간주되어왔음(Greenhaus & Beutell, 1985; Grzywacz & Smith, 2016)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양육 갈등의 영향력에 대한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도출된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 우울, 부부 공동양육, 사회적 지지는 가족공동체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취업모의 우울, 부부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는 일-양육 갈등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 전국을 대상으로 2006년 기준 500건 이상의 출산 의료기관에서 다단계층화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출생한 신생아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8차년도에 취업중이라고 응답한 694명의 어머니 중, 휴직 중인 36명 및 연구변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26명을 제외한 총 63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아동의 평균 월령은 88.04 개월(SD=1.56)이었으며 남아 317명(50.15%), 여아 315명(49.85%)이었다. 취업모의 평균연령은 38.09세(SD=3.65)였고,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250명(39.60%), 3년제 이하 전문대 졸업(27.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516.75만원(SD=201.74) 가량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분석단위	평균(표준편차)/빈도(%)
아동 연령	월령	88.04(1.56)
아동 성별	남아	317(50.15%)
	여아	315(49.85%)
어머니 연령	만 나이	38.09(3.65)
어머니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1(.20%)
	중학교 졸업	3(.50%)
	고등학교 졸업	154(24.40%)
	전문대 졸업(3년제 이하)	172(27.20%)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250(39.60%)
	대학원 졸업	52(8.20%)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516.75(201.74)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이다. 어머니가 보고한 일-양육갈등, 우울, 부부의 공동양육, 사회적 지지 자료 및 조사원의 보호자 면접을 통해 수집한 가족 공동체 활동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 취업모의 일-양육갈등

어머니의 일-양육갈등은 Marshall과 Barnett(1993)의 일-가정양립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 척도의 하위요인인 일-양육갈등 변인(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어,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일과 양육에서 느끼는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등이 있으며,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나. 가족공동체 활동

가족공동체활동은 Caldwell와 Bradley(2003)의 아동용 가정환경자극 검사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원 관찰과 면접조사 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용 가정환경자극 검사의 하위요인인 가족 공동체 변인(총6문항)을 사용하였고, 모두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다. 응답은 이분형 척도(0점 혹은 1점)로 구성되어 있고, 총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사이의 상호 즐거움과 동지애를 제공하는 활동을 많이 한 것을 의미한다.

다.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은 Kessler와 동료들(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응답은 '전혀 안 느낌(1점)'부터 '항상 느낌(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어,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느끼는 우울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십니까?",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가 있으며,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라. 부부 공동양육

부부의 공동양육은 Mchale(1997)이 개발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사용한 척도 총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가족통합(7문항), 비난(3문항), 갈등(2문항), 훈육(4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우자와 아동이 함께 있는 상황(11문항)과 배우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아동과 함께 있는 상황(5문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비난, 갈등, 훈육의 문항들을 역채점하였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부 공동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나와 배우자, 아이가 함께 있을 때 아이에게 배우자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나는 배우자 없이 아이가 함께 있을 때 아이가 배우자에 대한 부

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 이야기를 한다. 문항의 예로는 “그거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가 있으며, 전체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마.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이재림(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 총 13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정서적지지(2문항), 도구적지지(3문항), 사교적지지(4문항), 정보적지지(4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어,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자녀 양육 또는 돌봄 등과 같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가 있으며, 전체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다.

3. 자료 분석

먼저 SPSS 21.0(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주요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변인들 간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 부부 공동양육,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Model 1을 활용하여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아동의 성별(남 = 0, 여 = 1) 및 가구 월 평균 소득의 로그 변환값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으며, 본 연구가 선행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탐색적 연구임을 고려하여 $p < .10$ 수준에서 유의성을 보고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변인들의 전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연구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 및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의 평균은 2.81(SD=.71), 가족공동체 활동의 평균은 4.93(SD=1.25), 우울의 평균은 1.85(SD=.72), 부부 공동양육의 평균은 5.13(SD=.75), 사회적 지지는 3.90(SD=.56)을 나타냄으로써, 우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위값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변인의 왜도의 값은 -1.28~.75, 첨도의 값은 -.10~1.38로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5).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은 가족공동체 활동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고, 우울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부부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와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가족공동체 활동은 우울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부부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와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2〉 기술통계 및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 (N=632)

	1	2	3	4	5
1. 일-양육 갈등	-				
2. 가족공동체 활동	-.09*	-			
3. 우울	.19**	-.13**	-		
4. 부부 공동양육	-.17**	.17**	-.43**	-	
5. 사회적 지지	-.12**	.09**	-.13**	.21**	-
평균	2.81	4.93	1.85	5.13	3.90
표준편차	.71	1.25	.72	.75	.56
범위	1.00~5.00	.00~6.00	1.00~4.70	2.63~7.00	1.85~5.00
왜도	.07	-1.28	.75	-.34	-.09
첨도	-.02	1.38	.38	-.10	.26

*p < .05. **p < .01.

2.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 부부 공동양육,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공차한계 값은 .963.~986로 .01보다 크며 Durbin-Watson 값은 2.016~2.036으로, 정상분포곡선을 나타내는 2에 가까워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청소년의 성별 및 가족의 월평균소득(log)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취업모의 일-양육갈등을 투입하는 한편 우울, 부부, 공동양육, 사회적 지지를 개별적으로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취업모의 일-양육갈등과 우울, 부부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이 때,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

회귀우울, 부부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를 각각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세 가지 회귀모형의 분석결과를 〈표 2〉, 〈표 3〉, 〈표 4〉와 같다. 모든 회귀모형에서 통제변인만을 투입한 Model 1은 유의하였고($F = 13.92, p < .001$) 통제변인인 아동 성별($\beta = .08, p < .05$)과 월소득($\beta = .19, p < .001$) 모두 가족공동체활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인 학령초기 자녀를 둘수록, 월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공동체 활동

수준이 높았다.

통제변인과 주요변인을 함께 투입한 Model 2에서, 통제변인인 성별과 월소득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유의하였으나, 주요 변인들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우울 모형(표 2)에서 우울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적으로 유의한 반면($\beta = -.10, p < .05$), 일-양육갈등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beta = -.06, ns$), 부부 공동양육 모형(표 3)에서도 부부 공동양육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적으로 유의한 반면($\beta = .19, p < .001$) 일-양육 갈등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6, ns$). 그러나 사회적 지지 모형(표 4)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beta = .07, ns$), 가족공동체 활동이 일-양육 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적으로 유의한 경향성($\beta = -.07, p < .10$)을 나타내었다.

우울, 부부 공동양육,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Model 3에서는 각각 일-양육 갈등과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서 투입하였다. 우울 모형에서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 = -.13, p < .01$), 상호작용항을 제외한 변인들이 투입된 Model 2에 비해 추가적으로 2%를 더 설명하였고,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전체변인들은 가족공동체 활동 변량의 7%를 설명하였다(표 3). 부부 공동양육 모형에서도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13, p < .01$), 상호작용항을 제외한 변인들이 투입된 Model 2에 비해 추가적으로 2%를 더 설명하였으며,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전체변인들은 가족공동체 활동 변량의 7%를 설명하였다(표 4). 그러나 사회적 지지 모형에서는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6, ns$),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Model 3은 통제변인과 주요변인들만 포함된 Model 2와 마찬가지로 가족공동체 활동 변량의 총 5%를 설명하였다(표 5)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일-양육 갈등과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우울 및 부부 공동양육의 평균(M), 고수준(M+1SD), 저수준(M-1SD)을 구분하여 가족공동체 활동에 대한 일-양육 갈등의 조건부 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으로 검증하였다(표 6). 우울 조절변수와 관련해서는 우울이 평균($B = -.09, p < .10$) 또는 고수준($B = -.24, p < .001$)인 경우에만 일-양육 갈등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부부 공동양육 조절변수와 관련해서는 부부 공동양육이 저수준($B = -.20, p < .01$)인 경우에만 일-양육 갈등과 가족공동체 활동 간 부적관계가 유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래프를 도출한 결과는 [그림 2] 및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3〉 취업모의 일-양육갈등과 가족공동체 활동 간 관계에서 우울의 조절효과 (N=632)

	Model 1			Model 2			Model 3		
	<i>B</i>	β	<i>t</i>	<i>B</i>	β	<i>t</i>	<i>B</i>	β	<i>t</i>
성별	.20	.08*	1.03	.20	.08*	2.03	.20	.08*	2.07
월소득	1.36	.19***	4.77	1.24	.17***	4.33	1.24	.17***	4.36
일-양육 갈등(A)				-.08	-.06	-1.52	-.09	-.07†	-1.83
우울(B)				-.12	-.10*	-2.47	-.09	-.07†	-1.81
A X B							-.15	-.13**	-3.31
<i>F</i>		13.92***			9.69***			9.98***	
<i>R</i> ²		.04			.06			.07	
ΔR ²					.02			.02	

†p < .10. *p < .05. **p < .01. ***p < .001.

〈표 4〉 취업모의 일-양육갈등과 가족공동체 활동 간 관계에서 부부 공동양육의 조절효과 (N=632)

	Model 1			Model 2			Model 3		
	<i>B</i>	β	<i>t</i>	<i>B</i>	β	<i>t</i>	<i>B</i>	β	<i>t</i>
성별	.20	.08*	2.03	.21	.08*	2.03	.23	.09*	2.33
월소득	1.36	.19***	4.77	1.19	.16***	4.15	1.17	.16***	4.11
일-양육 갈등(A)				-.07	-.06	-1.41	-.07	-.06	-1.52
부부 공동양육(B)				.18	.14***	3.52	.16	.13**	3.27
A X B							.12	.10**	2.66
<i>F</i>		13.92***			9.60***			9.98***	
<i>R</i> ²		.04			.05			.07	
ΔR ²					.02			.02	

†p < .10. *p < .05. **p < .01. ***p < .001.

〈표 5〉 취업모의 일-양육갈등과 가족공동체 활동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N=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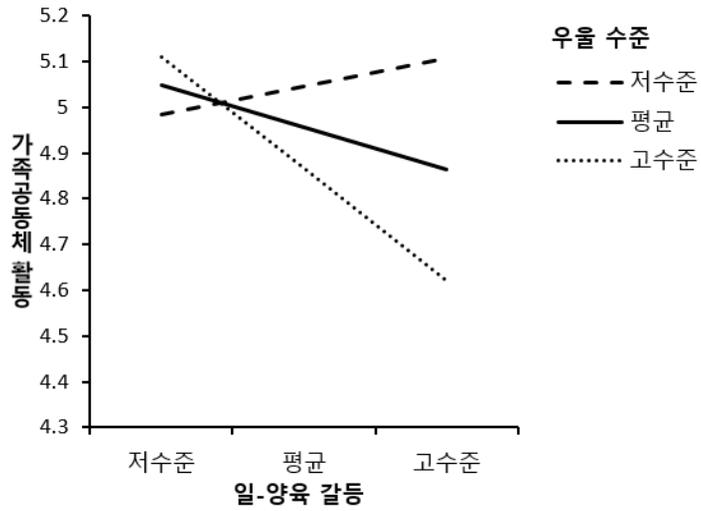
	Model 1			Model 2			Model 3		
	<i>B</i>	β	<i>t</i>	<i>B</i>	β	<i>t</i>	<i>B</i>	β	<i>t</i>
성별	.20	.08*	2.03	.19	.08*	1.98	.19	.08*	1.98
월소득	1.36	.19***	4.77	1.31	.18***	4.59	1.31	.18***	4.59
일-양육 갈등(A)				-.09	-.07†	-1.81	-.12	-.09	-.35
사회적 지지(B)				.08	.07	1.65	.08	.06	1.64
A X B							.01	.02	.09
<i>F</i>		13.92***			8.71***			6.96***	
<i>R</i> ²		.04			.05			.05	
ΔR ²					.01			.00	

†p < .10.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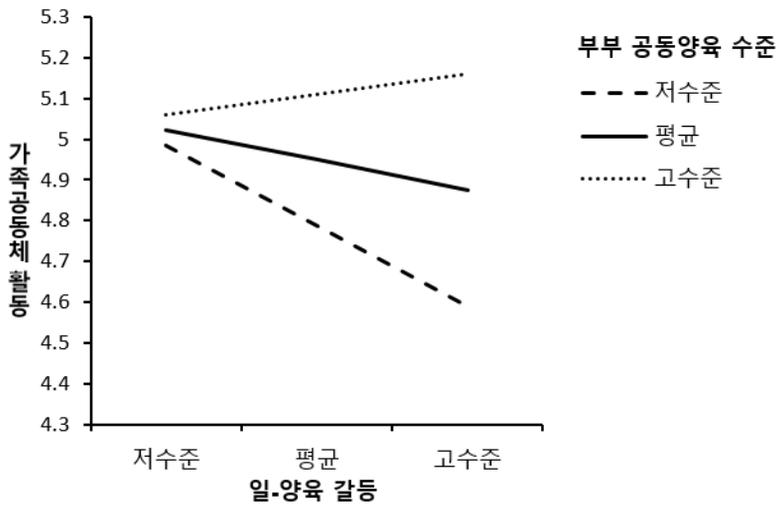
〈표 6〉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일-양육 갈등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 (N=632)

	<i>B</i>	<i>SE</i>	<i>t</i>	95% CI	
				LL	UL
우울					
M-1SD	.06	.06	.97	-.06	.19
M	-.09	.05	-1.82†	-.19	.01
M+1SD	-.24	.07	-3.44***	-.38	-.10
부부 공동양육					
M-1SD	-.20	.07	-2.88**	-.33	-.06
M	-.07	.05	-1.52	-.17	.02
M+1SD	.05	.07	.75	-.08	.18

†p < .10. *p < .05. **p < .01. ***p < .001.



[그림 1] 일-양육 갈등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조절효과



[그림 2] 일-양육 갈등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 공동양육의 조절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족의 가족공동체 활동 수준에 주목하여, 독립변인인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 및 조절변인인 우울, 부부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가 가족공동체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취업모의 우울, 부부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가 일-가정 갈등과 가족공동체 활동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 우울, 부부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가 가족공동체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일-양육 갈등은 우울, 부부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와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가족 공동체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p < .10$ 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상관관계 분석에서 일-양육 갈등과 가족공동체 활동은 $p < .05$ 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공동체 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통제변수 및 각각의 조절 변수와 함께 투입되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가운데 탐색적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일부 모델에서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이 $p < .10$ 수준에서 가족공동체 활동에 부적 영향력을 나타낸 것에 주목하여, 후속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일-양육 갈등 수준과 가족 공동체 활동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절 변수 중, 사회적 지지를 제외하고 우울과 부부 공동양육은 모두 가족공동체 활동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자녀를 발달적으로 자극하는 활동 수준을 낮추며 (Yeung et al., 2002), 부부 공동양육은 자녀 양육참여 수준 및 놀이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Carlson & McLanahan, 2006; Jia & Shoppe-Sullivan, 2011)과 일관적인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지지는 가족 공동체 활동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보다 밀접한 환경에 위치하여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간 발달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태학적 관점(Bronfenbrenner & Morris, 2006)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 시 사회적 지지와 가족 공동체 활동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함께 투입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영향력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수준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또한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모의 우울, 부부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가 일-가정 갈등과 가족공동체 활동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본 결과, 우울과 부부 공동양육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Johnson-Neyman 방법을 적용하여 조절효과가 유의한 범위를 확인한 결과 특히 우울이 고수준인 경우 및 부부 공동양육이 저수준인 경우 가족공동

체 활동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와 함께 투입하였을 때 일-양육 갈등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에서 이와 같은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일-양육 갈등 수준은 특히 취업모의 우울 수준이 평균 또는 평균보다 높을 때, 그리고 부부 공동양육 수준은 평균 보다 높을 때 가족공동체 활동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모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개인 대상 개입 및 부부 간 협조 및 긍정적 상호작용을 돕기 위한 가족대상 개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부모의 소득수준 및 아동의 성별을 포함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기타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육 조력자 여부, 어머니의 직장 만족도,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도입여부 및 만족도,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모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자료의 8차년도 자료만을 사용하여 일-양육 갈등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분석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령 초기에 어머니가 경험한 일-양육 갈등이 가족공동체 활동을 통해 학령 중기 및 후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에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도 등을 포함한 가족친화제도는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 및 가사 참여율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비록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서의 공동양육을 살펴보는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일-양육 갈등을 비롯한 아버지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자기상대방 분석모형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설계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취업모가 일과 양육의 책임을 동시에 감당하는 어려움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시점에서, 일-양육 갈등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위험 또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취업모의 개인변인 및 환경변인들의 영향력 또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비록 국내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어오고 있으나, 다양한 측면의 가족체계의 기능에 미치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발달에 미치는 가족공동체 활동의 중요성(Lareau, 2003)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과 우울 및 부부

공동양육 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은 탐색적 연구로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결과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양육 갈등의 영향력을 부모 개인 요인 및 가족 체계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며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권연희(2013). 유아의 행복에 대한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2(4), 525-537.
- 김안나(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일-가정 양립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2(5), 209-231.
- 도남희(2015). 유아기 행복감 수준과 증진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봉선, 엄명용(2016). 취업모의 직장-가정 역할갈등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54, 7-39.
- 박은희, 장지혜, 신성영, 김민영(2019). 부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8, 276.
- 양소남, 신창식(2011).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양립 고충. 보건사회연구, 31(3), 70-103.
- 여성가족부(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연은모, 최효식(2019).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양육효능감, 자녀의 집행기능곤란, 학교적응 간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261-285.
- 이운경, 김민주, 윤기봉(2018).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및 학령초기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9(3), 141-156.
- 이운경, 이선희, 김민정, 김수지(2020).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이 학령 초기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양육행동의 순차적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2), 147-161.
- 이재림.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재희, 김근진, 엄지원(2017).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재희, 김대옥(2020). 어머니의 취업과 일-양육 갈등이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4(3), 263-283.
- 이주리, 송지원(2020). 아버지의 성역할가치감과 우울이 일-양육 갈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1(3), 1-12.
- 하문선(2018). 아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학업성적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8(19), 127-147.
- 통계청(2019a). 맞벌이 가구 비율.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7에서 인출

- 통계청(2019b).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2에서 인출
- 하문선(2018).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8(21), 529-559.
- Armstrong, M. I., Birnie-Lefcovitch, S., & Ungar, M. T. (2005). Pathways between social support, family well being, quality of parenting, and child resilience: What we know.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4(2), 269-281.
- Bodovski, K., & Youn, M. J. (2010). Love, discipline and elementary school achievement: The role of family emotional climate. *Social Science Research*, 39(4), 585-595.
- Bradley, R. H., Caldwell, B. M., Rock, S. L., Hamrick, H. M., & Harris, P. (1988).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Development of a home inventory for use with families having children 6 to 10 years old.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3(1), 58-71.
- Bradley, R. H., & Corwyn, R. F. (2004). "Family Process" investments that matter for child wellbeing. In A. Kalil & T. DeLeire (Eds.), *Family investments in children: Resources and parenting behaviors that promote success* (pp. 1-32). Mahwah, NJ: Erlbaum.
-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2006).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In W. Damon (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pp. 793-828). New York, NY: Wiley.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University of Arkansas for Medical Sciences.
- Carlson, M. J., & McLanahan S. S. (2006). Strengthening unmarried families: Could enhancing couple relationships also improve parenting? *Social Service Review*, 80, 297-321.
- Gali Cinamon, R., Weisel, A., & Tzuk, K. (2007). Work-family conflict within the family: Crossover effects, perceived parent-child interaction quality, parental self-efficacy, and life role attribution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4(1), 79-100.
- Cooklin, A. R., Westrupp, E., Strazdins, L., Giallo, R., Martin, A., & Nicholson, J. M. (2015). Mothers' work-family conflict and enrichment: Associations with parenting quality and couple relationship.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41(2), 266-277.
- Dinh, H., Cooklin, A. R., Leach, L. S., Westrupp, E. M., Nicholson, J. M., & Strazdins, L. (2017). Parents' transitions into and out of work-family conflict and children's

- mental health: Longitudinal influence via family functioning. *Social Science & Medicine*, 194, 42-50.
- Fagan, J., Bernd, E., & Whiteman, V. (2007). Adolescent fathers'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involvement with infa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1), 1-22.
- Farah, M. J., Betancourt, L., Shera, D. M., Savage, J. H., Giannetta, J. M., Brodsky, N. L., ... & Hurt, H. (2008). Environmental stimulation, parental nurturance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humans. *Developmental Science*, 11(5), 793-801.
- Friede, A., & Ryan, A. M. (2005). The importance of the individual: How self-evaluations influence the work-family interface. In E. E. Kossek, S. J. Lambert (Eds.), *Work and life integration: Organizational, cultural, and individual perspectives* (pp. 193-209). Mahwah, NJ : Erlbaum.
-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1), 65-78.
- Graham, C. W., Fischer, J. L., Crawford, D., Fitzpatrick, J., & Bina, K. (2000). Parental status, social support,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1(7), 888-905.
-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 Greenhaus, J. H., & Powell, G. N. (2003). When work and family collide: Deciding between role demand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90(2), 291-303.
- Grzywacz, J. G., & Smith, A. M. (2016). Work-family conflict and health among working parents: Potential linkages for family science and social neuroscience. *Family Relations*, 65(1), 176-190.
- Hess, S., & Pollmann-Schult, M. (2020). Associations between mothers' work-family conflict and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6), 1561-1571.
- Jia, R., & Schoppe-Sullivan, S. J. (2011). Relations between coparenting and father involvement in families with preschool-ag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7(1), 106-118.
- Johnson, P. O., & Neyman, J. (1936). Tests of certain linear hypotheses and their application to some educational problems. *Statistical Research Memoirs*, 1, 57-93.
- Johnson, S., Li, J., Kendall, G., Strazdins, L., & Jacoby, P. (2013). Mothers' and

- fathers' work hours, child gender, and behavior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1), 56-74.
- Judge, T. A., Ilies, R., & Scott, B. A. (2006). Work-family conflict and emotions: Effects at work and at home. *Personnel Psychology*, 59(4), 779-814.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et al.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olak, A. M., & Vernon-Feagans, L. (2008). Family-level coparenting processes and child gender as moderators of family stress and toddler adjust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7(6), 617-638.
- Lareau, A. (2003).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u, Y. K. (2010). The impact of fathers' work and family conflicts on children's self esteem: the Hong Kong case. *Social Indicators Research*, 95, 363-376.
- Marshall, N. L., & Barnett, R. C. (1991). Race, class and multiple role strains and gains among women employed in the service sector. *Women & Health*, 17(4), 1-19.
- Marshall, N. L., & Barnett, R. C. (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1), 64-78.
- Magnuson, K., Duncan, G. J., Lee, K. T., & Metzger, M. W. (2016). Early school adjust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53(4), 1198-1228.
- Matias, M., Ferreira, T., Vieira, J., Cadima, J., Leal, T., & M. MATOS, P. A. U. L. A. (2017). Work-family conflict, psychological availability, and child emotion regulation: Spillover and crossover in dual-earner families. *Personal Relationships*, 24(3), 623-639.
- McHale, J. P. (1997).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36(2), 183-201.
- McLoyd, V. C., Toyokawa, T., & Kaplan, R. (2008). Work demands, work-family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The mediating role of family routines. *Journal of Family Issues*, 29(10), 1247-1267.
- Moreira, H., Fonseca, A., Caiado, B., & Canavarro, M. C. (2019). Work-family conflict and mindful parenting: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parenting stress in a sample of Portuguese employed parents. *Frontiers in Psychology*, 10, 1-17.

- O'Neil, R., & Greenberger, E. (1994). Patterns of commitment to work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role strai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1), 101-112.
- Powell, G. N., & Greenhaus, J. H. (2006). Managing incidents of work-family conflict: A decision-making perspective. *Human Relations, 59*(9), 1179-1212.
- Richardson, E. W., Futris, T. G., Mallette, J. K., & Campbell, A. (2018). Foster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oparenting quality: An examination of the moderating role of suppor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89*, 77-82.
- Senécal, C., Vallerand, R. J., & Guay, F. (2001).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oward a motivational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2), 176-186.
- Solmeyer, A. R., & Feinberg, M. E. (2011). Mother and father adjustment during early parenthood: The roles of infant temperament and coparenting relationship quality.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4*(4), 504-514.
- Strazdins, L., Clements, M. S., Korda, R. J., Broom, D. H., & D'Souza, R. M. (2006). Unsociable work? nonstandard work schedules, 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ren's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2), 394-410.
- Tucker-Drob, E. M., & Harden, K. P. (2012). Early childhood cognitive development and parental cognitive stimulation: Evidence for reciprocal gene-environment transactions. *Developmental Science, 15*(2), 250-259.
- Vahedi, A., Krug, I., & Westrupp, E. M. (2019). Crossover of parents' work-family conflict to family functioning and child mental healt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38-49.
- Vieira, J. M., Ávila, M., & Matos, P. M. (2012). Attachment and parenting: The mediating role of work-family balance in Portuguese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Family Relations, 61*(1), 31-50.
- Vieira, J. M., Matias, M., Ferreira, T., Lopez, F. G., and Matos, P. M. (2016). Parents' work-family experience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the mediating role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0*, 419-430.
- Yeung, W. J., Linver, M. R., & Brooks-Gunn, J. (2002). How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es. *Child Development, 73*(6), 1861-1879.

- 교신저자: 윤기봉,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 ykbong0323@naver.com

Abstract

Effects of employed mothers' work-parenting conflict on family companionship: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co-parenting, and social support

Woon Kyung Lee and Kibong Yu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employed mothers' work-parenting conflict on family companionship and to determine whether mothers' depression, co-parenting and social support play significant moderating ro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arenting conflict and family companionship. Using the data from 8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a total of 632 employed mothers were examin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 SPSS program and Model 1 of PROCESS macro program. Employed mothers' work-parenting conflict showed no significant or marginally negative effect on family companionship, and depression and co-parenting showe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Specifically, the negative effect of work-parenting effect was significant when the level of depression was mean score or higher than mean score and the co-parenting was lower than mean score. With the limited numbers of empirical studies that explored how the difficulties of balancing work and family may influence family functioning, this study showed the need to consider employed mothers' individual and family characteristics in understanding of work-parenting conflict's effect on family companionship.

- Key words: work-parenting conflict, family companionship, depression, co-parenting, social support

취업모의 일-양육 갈등과 가족공동체 활동 간의 관계: 우울, 부부 공동양육,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문영경(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먼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개최와 진행, 준비에 힘써 주신 한국아동패널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외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매진하신 연구자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이 유지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을 보면 인간의 적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제가 토론을 할 연구는 취업모의 일-양육의 갈등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나 가족 내 외의 자원이 조절적 효과를 지니는 지 탐색하는 연구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처음 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연구자가 혹, 최근의 사회 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아닐까? 최근에 일어나는 사회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가정 내에서 일을 해야 하는 어머니들이 느낄 수 있는 일과 가정일의 혼재에서 오는 어려움과 가정 내에서 가족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데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면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가족 함께 활동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과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갈등을 느끼는 어머니들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힘쓰도록 하는 조절해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자들이 아등패널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의 결과가 현 시대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처음 연구를 읽으면서 고민해 본 것은 일과 양육에서 갈등을 겪는 어머니들의 경우 부모로서의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일과 가정의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가족활동의 빈도가 낮다고 선행연구에서 기술하고 있어, 연구자가 언급하신 것 처럼 “일-양육의 갈등이 높을수록 가족 공동체 활동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처음 혼란스러웠던 것은 일하는데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하고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고 응답

하는 어머니들이 과연 집에 있을 때 아이와 가족과 보내는 활동을 줄이고자 할까요? 저라면 더 늘릴 것 같은데요. 선행연구와 다른 측면을 측정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질문지에서 측정하는 일-양육갈등의 문항들은 일과 양육의 양육에서 오는 갈등이라기 보다는 일 때문에 양육을 더 잘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으로 읽혔습니다. 그렇다면 부적인 관계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들을 개인적, 환경적 변인에서 찾고 있으며, 어머니의 우울, 부부 공동양육과 사회적 지지를 조절 변인으로 선택하여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울이 평균과 높은 수준에서만 일-양육 갈등을 겪는 어머니들이 가족공동체 활동이 적었으며, 부부 공동양육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일-양육 갈등을 겪는 어머니들이 가족 공동체 활동이 적었다고 하였습니다. 우울한 어머니는 일하는 동안 아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지만 본인의 우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라 할지라도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지만 자녀의 양육을 남편과 함께 하지 않는 어머니의 경우 가족공동체 활동이 적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의 해석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연구자들께서 ‘현대 사회에서 부모가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질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서적 여유 부족’ ‘일정 조정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여 저는 연구자들께서 해석한 어머니가 일과 양육의 갈등을 겪는 것이 물리적 시간의 부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양육 및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각각 가족 내, 가족 외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협력 및 지원체계’라고 소개하셨고, 게다가 연구자들께서 추후 제언에 양육조력자 여부, 어머니의 직장 만족도,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아버지 양육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시하셔서 연구자들께서는 어머니의 일 양육 갈등을 도와주는 여러 사회적 지지체계에 관심을 가지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측정도구에서 부부의 공동양육은 물리적 시간을 함께 하는 공동양육 보다는 양육의 책임을 같이 지는 관계적 측면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자들께서 측정한 사회적지지 역시 정서적으로 정서, 도구, 정보 등의 지지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동체 활동에 도움을 주는 물리적 시간과 관련된 도움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과연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갈등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공간의 협소함으로 오는 불편함으로 인한 갈등 폭발이라는 인간 본성에 의존한 해석 밖에 가능한 것이 없을까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그래프 상으로 보았을 때 우울 정도가 낮은 어머니가 일-양육갈등이 높았던 경우, 가족공동체 활동이 오히려 높아진 것, 부부 공동양육수준이 높았을 경우 일-양육갈등이 높

있던 어머니가 가족공동체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분명 이 어머니들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는 가족 공동체 활동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추후 연구에 일과 양육의 갈등이 가족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과정에 연구자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지지체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특성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의 의미나 결혼관계의 가치, 자아실현의 욕구 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러한 변인들이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가치를 유지하고 가족공동체를 단단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좋은 주제를 연구하여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준 연구자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제를 발전시켜 가족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C, 스마트폰 중독 위험 아동 예측 : 생태체계 관점의 적용

김대웅⁵⁹⁾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생태체계 관점을 기반으로 PC, 스마트폰 중독 아동을 예측하는 모형을 구성하고, 각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1차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계학습 중 지도학습 방법의 한 종류인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 관련 변수를 투입한 모형 1, 아동 관련 변수와 학교 관련 변수를 투입한 모형 2, 아동 관련 변수와 가구 및 지역사회 관련 변수를 투입한 모형 4는 PC, 스마트폰 중독 아동을 잘 예측하지 못하였다. 반면, 아동 관련 변수와 모 관련 변수를 투입한 모형 3 중 radial basis function(RBF) kernel의 accuracy는 약 74.0%였다. 둘째, 모든 관련 변수를 투입한 모형 5의 accuracy는 약 74.4%~74.8%였다. 일반 아동의 경우 RBF kernel의 accuracy가 95.2%로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 아동의 경우 linear와 polynomial kernel의 accuracy가 48.4%였다. 모든 kernel에서 잠재적 위험 아동은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계학습 분야에서 PC, 스마트폰 중독 위험 아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아동 관련 변수와 모 관련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생태체계관점, 컴퓨터 중독, 스마트폰 중독, 기계학습, 서포트 벡터 머신

1. 서론

2000년대 이후 컴퓨터 기술 및 인터넷 등의 발달과 함께, 아동의 지나친 컴퓨터 사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아동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중독 등이 건강한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일부 아동에 국한된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최명애, 2009). 청소년 보호법 제 26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등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법까지 제정되었다. 2010년대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컴퓨터 사용 중독 문제는 휴대전화 사용 중독 문제로 확대되었다. 스마트폰의 휴대성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은 언

59)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선행연구는 다양한 요인이 아동·청소년의 PC,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의 PC, 스마트폰 사용시간뿐만 아니라, 성별 등 사회 인구학적 특성 혹은 삶의 만족도 등 심리적 변인과 이와 관련된 행동이 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효미, 유미숙, 조유진, 2007; 주석진, 조성심, 2015; 홍연란, 도은영, 2014). 또한, 아동 관련 변인과 더불어 학교, 부모, 가구 특성 등 생태체계 맥락이 아동의 PC,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 있었다(김대웅, 김창숙, 박윤현, 2019; 주석진, 조성심, 2015; 황재원, 2011).

학교는 학령기 아동의 주요한 환경 맥락이다. 선행연구는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 PC,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한다. 다만, 두 변인 간 인과관계의 방향성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동의 PC,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가 있으나(변희숙, 권순용, 2014; 신성철, 신연희, 송희원, 2018; 양난미, 이지연, 2007), 일부 연구는 아동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PC,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증가한다고 제시한다(유숙경, 김진숙, 박영진, 2018). 인과관계의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는 아동의 PC,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의 PC,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 있는 부모 변인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주로 양육 태도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 아동의 긍정적 양육 태도 점수와 인터넷 중독 집단 아동의 긍정적 양육 태도 점수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양명숙, 조은주, 2011).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 정도의 증가와 부정적 양육 태도 정도의 감소가 아동의 PC,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감소시켰다(김나영, 심혜원, 2012; 이미라, 박세정, 2020; 임정아, 김명식, 2018; 장미경, 이은경, 2007). 양육 태도와 함께 선행연구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모의 스트레스나 행복감 등 심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고효정, 권윤희, 김민영, 2009; 박은미, 이석순, 2016), 부모의 행복감이나 스트레스는 자녀의 PC,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박정아, 현은자, 2018). 이러한 선행 연구는 아동의 PC, 스마트폰 중독이 부모 관련 변인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의 PC, 스마트폰 중독은 아동과 양육자뿐만 아니라 가구와 가구가 속한 지역사회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지역사회와 가구 특성은 부모의 양육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와 아동의 일상생활시간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가구가 위치한 주변 환경의 건전성이나 시설 이용 편리성 등에 따라 아동의 PC,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달라지고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김대웅 외, 2019; 황재원, 2011). 이러한 선행연구는 아동의 PC, 스마트폰 중독이 가구 및 거주지역 관련 변인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는 아동의 PC, 스마트폰 중독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생태체계의 고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각 환경 요소와 아동 혹은 요소 간 관계의 따라 아동의 발달 환경의 맥락이 달라진다는 점, 따라서 아동의 생태체계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동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Bronfenbrenner, 2005). 아동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환경요인이 아동의 PC, 스마트폰 중독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과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는 환경요인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의 PC,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태체계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이론적 측면에서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중독 관련 요인을 살펴봄에 있어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각각의 생태체계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며, 그러한 현상은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혹은 오차항 간 독립성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Crawley, 2005).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태체계 요인을 고려한 아동의 PC,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SVM은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의 한 방법으로서, 주어진 자료가 사상(mapping)된 공간을 초평면(hyperplane)으로 구분하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방법이다(Vapnik, 2000). SVM은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보다 과적합 정도가 덜하고, 예측의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 관련 요인, 학교 관련 요인, 모 관련 요인, 가구 관련 변인을 활용하여 각각의 모형을 구성하고, 각 모형의 분류 성능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하나의 요인을 투입하였을 때보다 전체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의 분류 성능이 더 좋은지 확인하고, 아동의 PC, 스마트폰 중독 정도별 분류 예측 성능이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 학교, 모, 가구 특성을 고려한 각 모형의 분류 성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모든 생태체계 요인을 고려한 모형의 분류 성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1,237명이다. 한국아동패널 11차 조사(2018

년)에서 어머니, 아동 설문지에 모두 응답한 사례 1,395개 중, 이 연구의 연구 도구에 응답하지 않은 158명을 제외하였다.

2. 연구 도구

가. PC, 스마트폰 중독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iapc.or.kr)에서 제공하는 K-척도 청소년 관찰자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설문을 활용하였다. 전체 문항 수는 15개이다. 세 개의 하위 요인 문항 수는 각각 5문항, 4문항, 4문항이며, 하위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2개의 문항이 있다. 문항의 예시는 1 요인 “PC, 스마트폰 사용하느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 3 요인 “PC,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건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낸다.”, 4 요인 “점점 더 많은 시간 동안 PC,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기타 요인 “PC,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무관심하다.”이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이다.

일반 아동은 총점과 각 요인의 점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잠재적 위험 아동은 총점과 각 요인의 점수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는 경우, 고위험 아동은 총점 기준에 해당하거나 각 요인의 점수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다.

〈표 1〉 PC, 스마트폰 중독 위험 구분 기준

	총점(15문항)	1 요인(5문항)	3 요인(4문항)	4 요인(4문항)
일반	27점 이하	12점 이하	10점 이하	9점 이하
잠재적 위험	28점 이상, 29점 이하	13점 이상	11점 이상	10점 이상
고 위험	30점 이상	14점 이상	12점 이상	11점 이상

나. 아동 관련 변수

아동 관련 변수로 PC, 스마트폰 이용시간, 본인 스마트폰 소유 여부, 성별, 아동의 행복감을 이용하였다. 아동의 행복감은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s questionnaire를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설문을 활용하였다. 전체 문항 수는 6개이다. 문항의 예시는 “OO(이)는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이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다.

다. 학교 관련 변수

학교 관련 변수는 김미숙(2012)의 학교 환경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설문을

활용하였다. 전체 문항 수는 10개이다. 세 개의 하위 요인 문항수는 각각 교우 관계 3문항, 교사 관계 3 문항, 학교 규칙 4문항이다. 문항의 예시는 교우 관계 “00(이) 친구(들)는 00(이)가 힘들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니?”, 교사 관계 “선생님은 00(이)를 믿어주시니?”, 학교 규칙 “00(이) 반에는 지켜야할 규칙이 많이 있니?”이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다.

라. 모 관련 변수

모 관련 변수로, 모 일상적 스트레스, 모 행복감, 모 양육 행동을 이용하였다. 모 일상적 스트레스는 1문항이며,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이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이다.

모 행복감은 Lyubomirsky & Lepper(1999)의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설문을 활용하였다. 전체 문항 수는 4개이다. 문항의 예시는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이다. 이 척도는 7점 Likert 척도이다.

모 양육 행동은 Robinson, Mandleco, Olsen, & Hart (1995)의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 및 수정한 설문을 활용하였다. 모 양육 행동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첫 번째 차원인 권위적 양육 행동 전체 문항 수는 27문항이다. 네 개의 하위 요인 문항 수는 각각 애정, 관여 11문항, 이성/유도 7문항, 민주적 관계 5문항, 친절/편안함 4문항이다. 두 번째 차원인 권위주의적 양육 행동 전체 문항 수는 20문항이다. 네 개의 하위 요인 문항 수는 화내기 4문항, 처벌 6문항, 비이성적 벌주기 전략 6문항, 지시 4문항이다. 세 번째 차원인 허용적 양육 행동 전체 문항 수는 15개이다. 세 개의 하위 요인 문항 수는 일관성의 부족 6문항, 방관 4문항, 확신 5문항이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다.

마. 가구 관련 변수

가구 관련 변수로, 가구 소득, 순위 형제 유무, 거주 지역 규모, 공공 문화시설 및 여가 시설 이용 편리성을 이용하였다. 가구 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활용하였다. 거주 지역의 규모는 한국아동패널의 거주 지역 규모 구분을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패널 거주 지역 규모를 대도시, 읍/면, 중소도시로 구분한다.

공공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 이용 편리성은 한국아동패널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놀이터, 공원, 산책로, 영화관, 관람 및 체육시설, 공연시설, 놀이공원, 도서관, 실내 체육시설 및 여가시설, 실외 체육시설의 이용 편리성을 조사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PC, 스마트폰 중독 아동을 분류하는 모형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SVM을 이용하였다. SVM은 범주를 분류하는 기계학습 방식 중 하나로서,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의 범주를 구분하는 최적의 경계를 만들어서 분류한다. 이 경계를 hyperplane, 이와 가장 가까운 벡터를 support vector라 한다(Hastie, Tibshirani, & Friedman, 2009).

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자료는 kernel trick을 통해 고차원으로 사상(mapping)하여 분류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하나의 모형에 대해 linear kernel, radial basis function kernel(RBF kernel), polynomial kernel을 적용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text{Linear: } K(x_1, x_2) = x_1^T x_2$$

$$\text{Radial Basis Function: } K(x_1, x_2) = \exp - \frac{\|x_1 - x_2\|^2}{2\sigma^2}, \sigma \neq 0$$

$$\text{Polynomial: } K(x_1, x_2) = (x_1^T x_2 + c)^d, c > 0$$

σ 는 매개 변수(parameter)이며, σ 가 작을수록 결정 경계(decision boundary)가 더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모양을 가진다(Scholkopf, Tsuda, & Vert, 2004). d 는 다항식의 차수, c 는 상수다.

PC, 스마트폰 중독 아동을 분류하는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모형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첫째, 아동 관련 변수를 이용하여 PC, 스마트폰 중독 아동을 예측하는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모형 1). 둘째, 아동 관련 변수에 학교 관련 변수, 모 관련 변수, 가구 관련 변수를 각각 추가한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모형 2, 모형 3, 모형 4). 이후, 모형 2, 모형 3, 모형 4가 모형 1보다 PC, 스마트폰 중독 아동을 더 잘 예측하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형의 성능을 확인하였다(모형 5).

〈표 2〉 각 모형 포함 변수

	아동 관련 변수	학교 관련 변수	모 관련 변수	가구 관련 변수
모형 1	0			
모형 2	0	0		
모형 3	0		0	
모형 4	0			0
모형 5	0	0	0	0

이 연구는 표본을 8:2로 나눈 뒤, 80%를 활용하여 모형을 학습시키고(train 집단), 그 모형을 활용하여 나머지 20%의 결과를 예측하였다(test 집단). 80%를 활용하여 모형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K-fold cross validation을 이용하였다. 이는 80%를 K개로 나누어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K값은 10이며, 반복횟수는 3이었다.

〈표 3〉 train 집단, test 집단 비율

	train 집단	test 집단
일반 아동	672 (67.8%)	168 (68.3%)
잠재적 위험 아동	67 (6.8%)	16 (6.5%)
고위험 아동	252 (25.4%)	62 (25.2%)
합계	991 (100%)	246 (100%)

마지막으로, 예측 결과가 실제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accuracy, no information rate(NIR), kappa 값을 이용하였다. Accuracy는 전체 예측 결과 중에서 실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의 비율이다. NIR이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주로 모든 결과를 예측할 경우의 accuracy를 의미한다.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주로 모든 결과를 예측하는 것보다 모형의 성능이 더 뛰어나면, 모형의 accuracy가 NIR보다 클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연구의 test 집단 246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주는 일반 아동 168명이다. 246명을 모두 일반 아동이라고 분류할 경우의 정확도는 68.3%가 된다. 따라서 모형의 분류 정확도가 68.3%보다 높아야 학습의 실익이 있다. 이 연구는 accuracy가 NIR보다 큰지 확인하여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kappa는 0인 경우 우연한 결과와 기댓값이 같은 것을 의미하며, 1인 경우 실제 결과와 예측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III. 연구결과

1. 기술 통계량

PC, 스마트폰 중독 아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한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 1,237명 중 840명은 일반 아동, 83명은 PC, 스마트폰 중독 잠재적 위험 아동, 314명은 PC,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 아동이었다. 아동의 일 평균 PC,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었다. 1,002명은 본인의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35명은 본인의 스마트폰이 없었다. 아동의 행복감 평균은 3.3점으로 중간 점수(3점)

보다 다소 높았다.

아동의 교우 관계, 교사 관계, 학교 규칙 평균 점수는 각각 3.90, 2.32, 3.90이었다. 아동의 교우 관계는 중간 점수(3점)보다 높았으며, 교사 관계는 중간 점수보다 낮았고, 학교 규칙의 엄격한 정도와 지시적 분위기는 중간 점수보다 높았다.

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평균은 2.94점으로 중간 점수(2.5점)보다 다소 높았다. 모의 행복감 평균은 5.18점으로 중간 점수(4점)보다 다소 높았다. 모의 양육 행동 평균은 권위적 양육 행동 3.79점, 권위주의적 양육 행동 2.43점, 허용적 양육 행동 2.36점으로, 권위적 양육 행동은 중간 점수(3점)보다 다소 높았으며, 권위주의적 양육 행동과 허용적 양육 행동은 중간 점수보다 다소 낮았다.

연구 대상의 균등화 개인소득 평균은 약 269만 원이며, 표준편차는 247.65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1,237명 중 순위 형제가 있는 아동은 582명, 없는 아동은 655명이었다. 연구 대상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는 대도시 494명, 중소도시 666명, 읍면 지역 77명이었다. 공공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 이용 편리성은 각 시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모든 시설의 이용 편리성 평균은 중간 점수(2.5점)와 같거나 높았다. 이용 편리성 평균이 가장 높은 시설은 놀이터였으며(3.76), 가장 낮은 시설은 놀이공원이었다(2.51점).

2. 모형 1, 2, 3, 4의 성능 평가

아동 관련 변수를 포함한 모형 1, 아동 관련 변수와 학교 관련 변수를 포함한 모형 2, 아동 관련 변수와 모 관련 변수를 포함한 모형 3, 아동 관련 변수와 가구 관련 변수를 포함한 모형 4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각 모형의 accuracy가 NIR 값보다 큰지 살펴보면, 모형 1, 모형 2, 모형 4는 모두 유의 확률(p-value)이 .05보다 컸다. 이는 test 집단 아동 246명의 PC, 스마트폰 중독을 분류할 때, 모두 일반 아동이라고 분류할 경우의 정확도 .6829보다 모형을 활용하여 분류했을 때의 정확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모형 3의 경우 RBF kernel을 사용했을 때 유의 확률이 .05보다 작았으며, linear 및 polynomial kernel을 사용했을 때의 유의 확률은 .056 이었다. 모형 3의 kappa 값을 살펴보면, linear kernel .3282, RBF kernel .2961, polynomial kernel .3038 이었다.

〈표 4〉 기술 통계량

		빈도 (백분율) 혹은 평균 (표준편차)
PC, 스마트폰 중독	일반	840 (67.9%)
	잠재적 위험	83 (6.7%)
	고위험	314 (25.4%)
PC, 스마트폰 이용시간		1.507 (.97)
본인 스마트폰 소유 여부	있음	1,002 (81.0%)
	없음	235 (19.0%)
성별	남	637 (51.5%)
	여	500 (48.5%)
아동 행복감		3.30 (.46)
학교 환경	교우 관계	3.90 (.79)
	교사 관계	2.32 (.70)
	학교 규칙	3.90 (.87)
모 일상적 스트레스		2.94 (.65)
모 행복감		5.18 (1.01)
모 양육 행동	권위적	3.79 (.39)
	권위주의적	2.43 (.47)
	허용적	2.36 (.36)
가구 소득 (균등화 개인소득)		269.88 (247.65)
손위 형제 유무	있음	582 (47.0%)
	없음	655 (53.0%)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494 (39.9%)
	중소도시	666 (53.8%)
	읍, 면	77 (6.2%)
이용 편리성	놀이터	3.76 (1.04)
	공원	3.65 (1.04)
	산책로	3.70 (.98)
	영화관	3.39 (1.10)
	관람 및 체육시설	2.84 (1.10)
	공연시설	2.81 (1.07)
	놀이공원	2.51 (1.13)
	도서관	3.70 (.97)
	실내 체육시설 및 여가시설	3.34 (1.06)
	실외 체육시설	3.19 (1.05)

〈표 5〉 모형 1, 2, 3, 4의 성능

		accuracy	유의 확률 (accuracy)NIR)	kappa
모형 1	linear	.6829	.5306	0
	RBF	.6789	.5845	.1591
	polynomial	.6789	.5845	.0144
모형 2	linear	.6829	.5306	0
	RBF	.6911	.4217	.0669
	polynomial	.6829	.5306	.0321
모형 3	linear	.7317	.0560	.3283
	RBF	.7398	.0306	.2961
	polynomial	.7317	.0560	.3038
모형 4	linear	.6829	.5306	0
	RBF	.6829	.5306	0
	polynomial	.6789	.5845	-.0073

분석 결과 중에서 유일하게 유의 확률이 .05보다 작았던 RBF kernel을 이용한 모형 3의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결과는 sigma 값을 0.0253으로 했을 때의 결과이다. 일반 아동의 경우 예측 결과가 실제 결과와 95.8% 일치하였으며, 고위험 아동의 경우 33.9% 일치하였다. SVM을 활용하여 예측하였을 때, 이 모형이 잠재적 위험 아동으로 예측한 사례는 0명이었다.

〈표 6〉 모형 3 RBF kernel 분류 결과

		실제		
		일반	잠재적 위험	고위험
예측	일반	161	14	41
	잠재적 위험	0	0	0
	고위험	7	2	21

이 연구는 모형 1~4의 성능을 확인한 뒤, 모 관련 변수만 포함한 모형 3.1을 설정하고, 이 모형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이는 모형 3의 성능이 아동 관련 변수와 모 관련 변수를 함께 고려했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인지, 혹은 모 관련 변수만 고려하여도 위와 유사한 분류 성능이 도출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분석 결과 모형 3.1의 세 개 모형 모두 accuracy가 NIR보다 크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p > .05$). 이는 모 관련 변수만을 고려한 모형은 PC, 스마트폰 중독 아동을 제대로 분류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모형 3.1의 성능

		accuracy	유의확률 (accuracy > NIR)	kappa
모형 3.1	linear	.7276	.0737	.2561
	RBF	.7317	.0560	.2672
	polynomial	.7276	.0737	.2561

3. 모형 5의 성능 평가

아동 관련 변수, 학교 관련 변수, 모 관련 변수, 가구 관련 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형 5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 개 kernel 모형의 결과 모두 accuracy가 NIR보다 큰 결과가 도출되었으며($p < .05$), kappa 값은 약 .34 ~ .37로 나타났다. 세 kernel 모형의 accuracy는 유사하였으며, 약 74%였다.

〈표 8〉 모형 5의 성능

		accuracy	p-value (accuracy > NIR)	kappa
모형 5	linear	.7439	.0220	.3698
	RBF	.7480	.0155	.3370
	polynomial	.7439	.0220	.3698

모형 5의 kernel 별 하위 범주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inear kernel과 polynomial kernel의 경우, 일반 아동 168명 중 153명(91.1%), 잠재적 위험 아동 16명 중 0명(0.0%), 고위험 아동 62명 중 30명(48.4%)을 예측하여 평균 약 74.4% 정확도를 나타냈다.

〈표 9〉 모형 5(linear kernel, polynomial kernel) 분류 결과

		실제		
		일반	잠재적 위험	고위험
예측	일반	153	10	32
	잠재적 위험	0	0	0
	고위험	15	6	30

모형 5 RBF kernel의 경우, 일반 아동 168명 중 160명(95.2%), 잠재적 위험 아동 16명 중 0명(0.0%), 고위험 아동 62명 중 24명(38.7%)을 예측하여 평균 약 74.8%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Kernel 함수에 따라 모형별 하위 범주 예측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모형이 잠재적 위험 아동을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모형 5(RBF kernel) 분류 결과

		실제		
		일반	잠재적 위험	고위험
예측	일반	160	12	38
	잠재적 위험	0	0	0
	고위험	8	4	24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SVM을 이용하여 PC, 스마트폰 중독 위험 아동을 분류하는 모형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모형을 구축할 때, Bronfenbrenner(2005)의 생태체계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 학교, 모, 가구 관련 변수를 고려하였다. 이를 위하여 11차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초등학교 4학년 1,237명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관련 변수와 모 관련 변수를 고려한 모형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 아동 관련 변수와 모 관련 변수를 이용하여 학습한 모형으로 PC, 스마트폰 중독 위험 아동을 예측할 때의 정확도는 74%이다. 이 모형은 일반 아동의 약 96%, 고위험군 아동의 약 34%를 실제와 일치하도록 분류한다. 그러나 이 모형이 잠재적 위험군 아동으로 분류한 사례는 없다.

아동 관련 변수를 고려한 모형 1, 아동 관련 변수와 학교 관련 변수를 고려한 모형 2, 아동 관련 변수와 가구 관련 변수를 고려한 모형 4, 모 관련 변수를 고려한 모형 3.1의 경우, 모형의 정확도가 NIR보다 크지 않다. 이는 train 집단을 활용하여 학습한 모형을 이용하여 test 집단을 예측했을 때의 성능이 별도의 기계학습 없이 모든 test 집단 아동을 일반 아동이라고 예측할 때의 성능보다 우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관련 변인이나 학교 관련 변인이 아동의 PC,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는 PC, 스마

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주석진, 조성심, 2015),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유숙경 외, 2018), 아동이 PC,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연구에서 관련 변인을 이용한 SVM 모형으로 중독 위험군을 분류 예측하는 것의 성능은 좋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할 점은 이 연구의 결과가 관련 변수의 아동 PC,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계학습을 활용한 분류는 예측을 위하여 관련 변인을 고려하는 것이며,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아동 관련 변인이나 학교 관련 변인이 PC, 스마트폰 중독 아동을 분류하는 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중독 위험 아동과 일반 아동의 관련 변인과 중독 정도 간 관계가 서로 다른 것에 기인했을 가능성 있다. 선행연구는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 간 상관관계가 일반 집단의 경우 양수, 중독 집단의 경우 음수라고 보고한다(홍순표, 2010). 또한, 스마트폰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중독 영향요인과 중독 수준 간 관계가 달라진다고 보고한다(김대웅, 이강이, 2020). 이러한 차이가 SVM 방법이 잘 적용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동의 발달과 관련하여 기계학습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변인을 활용한 후속연구가 더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아동, 학교, 모, 가구 관련 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형의 분류 결과는 실제 결과와 약 74% 일치한다. 중독 수준별로 살펴보면, 일반 아동의 예측 정확도는 linear와 polynomial kernel은 91.1%, RBF kernel은 95.2%였으며, 고위험 아동 예측 정확도는 linear와 polynomial kernel은 48.4%, RBF kernel은 38.7%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모형이 PC,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은 일반 아동은 잘 예측하지만, 위험군 아동이나 고위험 아동은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PC나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아동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상태를 숨기는 경향이 있다(김동만, 이철현, 2016). 아동은 즐거움을 위해 미디어를 이용하지만, 주변의 시선으로 인하여 미디어 사용을 숨기거나, 이에 대한 태도를 감출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태도와 행동이 중독 아동 분류 예측 모형의 accuracy를 낮추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모의 개입에 대하여 아동이 반발심을 가질 수 있으며(김형지, 정세훈, 2015), 이는 아동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부모에게 감추는 것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사용한 kernel에 따라 accuracy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연구의 모든 모형은 잠재적 위험군을 분류하지 못하였다. 모형 5의 세 가지 kernel 모두 잠재적 위험 아동으로 분류한 사례 수는 0이었다. 이는 잠재적 위험군이 일반 아동과 고위험 아동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고려한 변수에서는 잠재적 위험 아동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 위험 아동에 대한 선제적 예방 대처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점(조현섭, 강진구, 강동민, 2019), 많은 아동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일상생활을 보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독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독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의 한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결측 자료(missing data)를 처리하기 위하여, 결측된 응답이 있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는 전체 1,395개 사례 중에서 최소 한 문항 이상에 응답하지 않은 158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SVM 이용 시 결측 자료의 문제는 전통적 결측 자료 논의인 missing at random(MAR) 대 missing not at random(MNAR)과 다른 기제를 갖는다(Rubin, 1976; Steward, Zeng, Wu, 2018). 결측 자료를 다루는 다른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이 연구의 모형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모형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연구의 목적은 생태체계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 간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며, PC, 스마트폰 중독 아동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별도의 결측 자료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전략을 고려하지 않았다. 결측 자료에 따라 모형의 성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에 따라 모형 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이 연구의 중독 수준은 PC, 스마트폰을 함께 고려한 척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PC와 스마트폰은 모두 스마트 기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PC와 구분되는 스마트폰의 특징이 있어서 기존의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중독과는 구분되는 스마트폰 중독의 특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Jeong, Suh, & Gweon, 2020). 아동발달 환경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PC 중독과 구분되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고효정, 권윤희, 김민영 (2009). 초등학생 어머니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 *지역회간호학회지*, 20(2), 215-224.
- 김나영, 심혜원 (201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만족도가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9), 125-147.
- 김대웅, 이강이 (2020). 중학생 또래 관계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목적별 이용 정도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6-27.
- 김대웅, 김창숙, 박윤현 (2019). 공공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 이용 편리성, 양육 스트레스, 유아 미디어 이용시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4(5), 1-18.
- 김동만, 이철현 (2016).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몰입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한국실과교육학*

회, 28(2), 65-90.

- 김미숙 (2012). 창의역량 측정지표 및 도구개발 연구(RR2012-10). 충청북도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김형지, 정세훈 (2015). 초등학교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모중재, 학교교육 및 심리적 반발심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2(1), 87-120.
- 박은미, 이석순 (2016). 유아기 자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2), 239-262.
- 박정아, 현은자 (2018).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의 공격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19(2), 219-248.
- 변희숙, 권순용 (2014). 초등학교생의 외로움과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3(4), 303-317.
- 신성철, 신연희, 송희원 (2018). 초등학교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학교부적응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27(2), 85-97.
- 신효미, 유미숙, 조유진 (2007).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3-247.
- 양난미, 이지연 (2007). 남, 여 초등학교생의 부모 애착, 컴퓨터게임 중독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모형 분석. 상담학연구, 8(2), 639-655.
- 양명숙, 조은주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감독과 통제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0(2), 339-351.
- 유숙경, 김진숙, 박영진 (2018). 부모양육태도,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이 초등학교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7(2), 145-161.
- 이미라, 박세정 (2020). 아동,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강요, 자율성지지, 스마트폰 과의존 및 문제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27(5), 169-191.
- 임정아, 김명식 (2018).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과 충동성의 매개효과 -. 디지털융복합연구, 15(3), 395-405.
- 장미경, 이은경 (2007). 초등학교생의 인터넷 사용욕구와 부모관련변인이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125-1138.
- 조현섭, 강진구, 강동민 (2019).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에게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28(3), 169-182.
- 주석진, 조성심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판별요인에 관한 연구: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충동성, 교우관계, 모의 권위주의형 부모양육태도, 학교부적응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97-118.
- 최명애 (2009). 초, 중, 고생 인터넷 중독 검사 의무화. 경향신문 2009년 6월 16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161806415&code=940401에서 7월 20일 인출.
- 홍순표 (2010). 초등학교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5, 208-236.
- 홍연란, 도은영 (2014). 심리적 변인이 저소득층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 영향. 아동간호학회, 20(2), 67-74.
- 황재원 (2011). 학령기 아동경험과 부모 및 주변환경이 향후 청소년기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5), 1489-1508.
- Bronfenbrenner (2005). *Making human beings human*. Thousand Oaks, CA, USA: Sage Publications.
- Crawley, M. J. (2005). *Statistics*. Chichester, West Sussex, England: Wiley.
- Hastie, T., Tibshirani, R., & Friedman, J. (2009). *The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 Data mining, inference, and prediction*. New York, NY, USA: Springer.
- Jeong, Y. J., Suh, B., & Gweon, G. (2020). Is smartphone addiction different from internet addiction? comparison of addiction-risk factors among adolescents.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39(5), 578-693.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 Research*, 46(2), 137-155.
- Robinson, C. C., Mandleco, B., Olsen, S. F., & Hart, C. H.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77(3), 819-830.
- Rubin, D. B. (1976). Inference and missing data. *Biometrika*, 63(3), 581-592.
- Scholkopf, B., Tsuda, K., & Vert, J.-P. (2004). *Kernel methods in computational biology*. Cambridge, MA, USA: MIT Press.
- Stewart, T. G., Zeng, D., & Wu, M. C. (2018). Constructing support vector machines with missing data.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mputational Statistics*, 10(4), 1-21.
- Vapnik, V. (2000). *The nature of statistical learning theory*. New York NY, USA: Springer.

- 교신저자: 김대웅,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daewoong@snu.ac.kr

Abstract

Prediction of PC, Smartphone Addiction among Children : An Ecological perspective

Daewoong Kim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predict and forecast the computer and smart phone addiction in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using Support Vector Machine(SVM) with ecological perspective. The eleventh wave data from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of the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as us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ing. First, the accuracy of model 3(child and maternal characteristics) is about 74.0% but, the accuracy of model 1(child characteristics), model 2(child and school characteristics), and model 4(household characteristics) are not greater than no-information rate. Second, the accuracy of model 5, using all characteristics, is about 74.4%~74.8%. The model 5 using radial basis function kernel predicts the non-addiction group with 95.2% accuracy and linear or polynomial kernel model can predict high risk children 48.4%. All models of this study can not figure out potential risk children. This study results suggest that child and maternal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for predict high risk children.

- Key words: Ecological Perspective, Computer Addiction, Smart phone Addiction, Machine Learning, Support Vector Machine

PC, 스마트폰 중독 위험 아동 예측

장영은(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아동의 PC와 스마트폰 노출이 점점 일반화되면서 생태적 맥락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아동들의 과의존 또는 중독 성향을 심화시키는지에 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는 스마트폰 중독이 급증하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위험아동 예측 변인을 분석한 것은 시의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동의 PC,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아동, 어머니, 가구, 학교 요인의 생태학적 접근을 관련 변인들의 일괄 투입이라는 분석방식 대신에, 위험군 분류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 가장 중요한 차별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패널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생태 체계적 요인을 선정함에 있어, 공공문화시설이나 여가시설이용 편의성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였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해 비록 주관적인 의견이나 몇 가지 제안하자면, 첫째, 이미 연구자가 언급하였으나, PC,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PC와 스마트폰은 그 접근성에서나 과의존 위험에 있어서 그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더구나 2019년 기준, 인터넷 사용자 중 99.9%가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스마트폰 또는 모바일 기기 중독만을 살펴도 연구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단순한 기기, 즉 매체 자체에 대한 중독 여부가 아닌, 사용 목적 및 사용 내용을 고려한 중독 또는 과의존 위험에 대한 개념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 및 어머니 변인 선정에서 행복감이 선정된 배경, 그리고 어머니의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자녀의 PC, 스마트폰 중독과 연관될 것이라고 가정한 근거 등을 보강한다면 더욱 좋은 연구논문으로 발전하리라 기대된다. 더불어 연구문제의 기술을 분석 방법 중심이 아닌,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진술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본 연구는 PC, 스마트폰의 '중독' 즉, 역기능적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번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경험하였듯이, 이미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아동의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기의 선용(善用)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에 관한 연구도 후속연구로서 제안한다.

끝으로, 패널데이터의 활용과 모바일 기기 사용에 대한 발달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중독 위험성을 예측하는 생태체계적인 요인들의 종단적인 영향력, 즉, 영유아기 및 초기 아동기의 발달에서 누적될 수 있는 아동, 부모,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한 모형을 탐색하여 검증한다면, 학문적, 실증적으로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의 역할

이설아⁶⁰⁾ 윤희진⁶¹⁾ 김혜영⁶²⁾

요약

본 연구는 아동의 만4세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만5세 유아기 또래놀이행동, 만6세 학업수행능력,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적 발달경로와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6차연도 한국아동패널연구에 참여한 가구 중 아버지와 아동 각각 1,526명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 연구모형은 한국아동패널 6~8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Mplus 7.31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수행하여 각 변인 간의 직간접 경로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로 만4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만5세 또래놀이행동의 놀이상호작용 및 놀이단절과 만6세 학교적응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둘째로 만5세 또래놀이행동은 만4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만6세 학업수행능력 및 학교적응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래놀이행동을 통해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학령전기 아동의 사회적·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나아가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양육행동, 또래놀이행동, 학업수행능력, 학교적응, 초등학교 전이

1. 서론

2019년 개정 누리과정 시행과 더불어, 유아기 놀이와 초등학교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유효인, 김희영, 2020; 최은정, 김금주, 2020).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영역 간의 놀이를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놀이 중심의 다양한 발달적 연계를 지원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이번 누리과정 개정은 이전 2015년 교육과정에 비해, 교사 주도의 계획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현장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을 특징으로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중점으로 한다

60)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61)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정 박사과정

62)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정 박사과정

(교육부 보도자료, 2019. 07. 18). 이렇게 최근 놀이가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급속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놀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회복탄력성 등의 경험이 인간의 성장에 중요한 가치임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Pink, 2006).

따라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놀이의 미래적 가치를 주요 논의로 다루며, 몰입과 무한한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놀이의 가치가 필요한 4차 산업 사회로의 변화를 주도할 것임을 나타냈다(Leurent et al., 2019).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에서 놀이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부터, 1960년 이후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유아기의 배움에 있어서 놀이는 유아가 세상을 경험하고 배움을 구현하며 총체적 능력을 획득 가능하다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학문적 동의가 주를 이뤘다(Piaget, 1962; Caillois, 2002; Holt, 2017).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에서 부모들은 놀이의 사회발달적인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놀이의 무상성(無常性)으로 인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놀이보다 학습을 더 가치롭게 여기는 실정이다(김경철, 한유진, 김인애, 2020).

이에 유아의 놀이 지원을 위해 부모의 놀이의 가치 이해와 놀이 참여를 지지하는 가정 연계 방법도 교육과정 내에 함께 포함되고 있다. 또한 놀이에 대한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동시에 개정 누리과정의 중심이 되는 ‘놀이’가 초등학교 학습 준비(ready to learn)에 대해서 어떠한 연계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최미숙, 문인정, 2020). 지금까지 초등학교 전이시기 발달과정에 대한 패널 연구에 의하면, 학교적응은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아동기 시절 지식을 습득해 나가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규범과 기술을 습득해 나가는데 중요한 시기임이 나타났다(김미나, 이완정, 2019; 배구택, 노진형, 2019). 또한, 학교적응은 아동이 사회적 환경인 학교에서 통제력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 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학교에서 접하는 것들을 바르게 수용하고 자신에게 맞게 변화시키며(Juvonen & Wentzel, 1996), 아동기 이후 성인기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인간의 질적 성장에 주요 경험이 되어준다(지성애, 정대련, 2006).

기존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육 실제에서,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 집중 조명되어 왔으나, 사회가 변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였고, 아버지 역할의 질적, 양적인 접촉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연구를 바탕으로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이 조명되고 있다(이현아, 2020; 최지은, 김현경 2019).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주양육자는 어머니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선택적이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인지능력, 언어발달,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정주, 박형신, 2017; 도남희, 2013). 양육행동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수행하는 정신적 지지와 놀

이파트너, 놀이에 대해 격려자로서의 역할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동의 학령기 전이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man et al., 2002). 즉,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나 대인 간 관계 기술을 사용하는 놀이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유아가 놀이에 몰입하게 되면서 긍정적 놀이상호작용이 증가한다(김정주, 박형신, 2017). 아버지가 놀이에서 친밀감을 잘 표현할수록 유아들의 인지적 자발성과 유머감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전홍주 외, 2014; 조인휘, 신나리, 2015),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일환으로 친밀감은 여아의 놀이성의 일부인 유머감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순, 박인전,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유아기 또래 놀이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강훈,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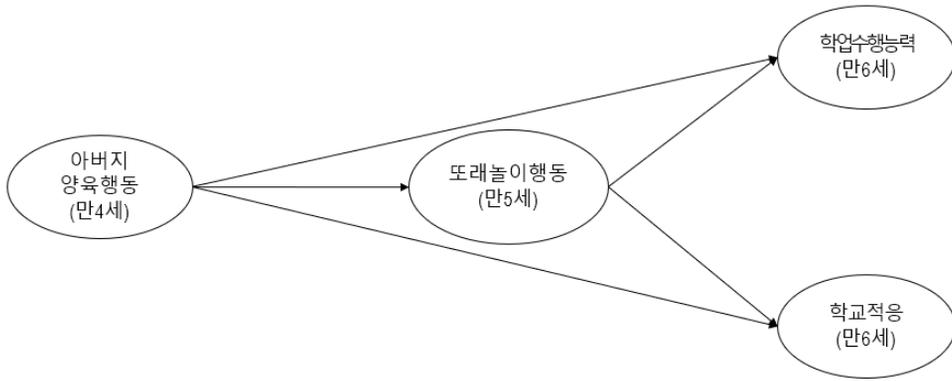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기 또래놀이행동 증진 및 안정적인 학교적응의 요인으로 나타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그 메커니즘을 설명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유아의 '놀이'는 현재 시행되는 누리과정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유아기에 경험하는 놀이는 발달 초기의 사회화 경험이 일어나는 장이 되어준다(Erikson, 1968; Vygotsky 1976). 유아는 놀이를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유아의 개인적, 발달적 특성이 유아의 또래 놀이를 통해 드러난다(강민정 2016). 더욱 유아기의 놀이 중, 또래놀이행동은 이후의 사회적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Howes et al 1992; 이희정, 2018), 유아기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면서 부적응, 낮은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Szewczyk, Bost & Wainwright, 2005). 구체적으로 또래놀이행동은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에서 보여주는 상호작용의 행동 특성으로 친사회적인 특성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을 가진 놀이상호작용(interaction),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표현의 특성을 가진 놀이방해(disruption), 위축되거나 타인에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징인 놀이단절(disconnection)로 나타난다(Fantuzzo et al, 1995).

또래놀이행동이 발달한 유아는 놀이집단에서 의사소통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놀이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원만히 해결하고, 놀이방해는 또래와의 갈등상황을 유발하는 놀이 행동을 보이며, 놀이단절은 유아가 놀이를 시작하기 어려워하거나 금방 중단되는 행동을 나타낸다(Fantuzzo et al, 1998).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우호적이고 원만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이나 중단 등의 상황도 경험하게 된다(Howes & Leslie, 1998; Shaffer, 2000). 그러므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서는 놀이에서 일어나는 원활한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놀이

방해, 단절 행동까지도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존재한다(김효진, 2018). 또래놀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인간발달의 사회적 발달의 토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Bauminger, 2019) 놀이단절 행동은 유아의 학습 행동의 일종인, 동기 부여, 주의 지속 학습 태도와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미현, 이경님, 2019; 최은정, 김은향, 2019). 즉, 놀이에서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면 친사회성과 또래유능감 및 적응력이 높게 나타나며(김기영, 이진희, 2009; 송주연, 이선영, 2017; 이희정, 2018), 또래와 협력하고 자신의 의견을 집단 내에서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학교적응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정대현, 지성애, 2006; 최미숙, 문인정, 2020). 또한 또래와 활발한 놀이상호작용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유아들이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언어 및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업수행능력과 성취를 뒷받침해주는 요인이 된다(김미나, 이완정, 2019; 신은수, 권미경, 정현빈, 2010).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은 학령기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에 관한 사회·인지적 발달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재화와 김현경(2018)은 어머니의 활동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매개하여 학령전기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여, 가족요인과 유아기 사회성 발달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학령기에 관한 선행연구들 또한 학교전이 과정에서 초등학교적응은 학업성취와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미나, 이완정, 2019; 이지영, 이상희, 2019; 최은정, 김은향, 2019).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기 또래놀이행동 증진 및 안정적인 학교적응의 요인으로 나타나는 몇몇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메커니즘을 설명한 연구는 부재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유아의 ‘놀이’는 현재 시행되는 누리과정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사와 부모의 가정연계에서 어머니만큼이나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와 그 방식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또래 놀이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 놀이는 유아기에서 학령기로의 전이기에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취학 후 아동의 학업수행능력 및 학교적응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행 연구에서 주로 중점을 두었던 어머니의 양육행동, 인지적 측면에 집중한 학교적응 관련 연구 및 횡단적 연구설계에 의한 방법론적 한계점을 보완하여, 만4세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가 성장하면서 만5세 또래놀이행동 발달과 만6세 취학 후 학업수행능력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만5세 또래놀이행동 발달이 만4세 유아기 아버지 양육행동을 도와 만6세 학업수행능력 및 학교적응에서 매개하는지 구조 경로모형을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 그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 연구문제 1. 만4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만5세 또래놀이행동과 만6세 학업수행능력 및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만5세 또래놀이행동이 만4세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만6세 학업수행능력 및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KICCE)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의 6-8차연도(2013-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자녀를 출산한 2,15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발달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학교 환경을 대해 추적 조사하고 있으며, 6-8차 자료는 유아기 및 초등학교 전이기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문제의 분석에 적합하다. 6차연도(2013년) 기준 1,662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여 전체 패널 대비 표본유지율은 77.3%였으며, 이 중 6차연도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응답한 아버지와 아동 각각 1,526명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6차연도 기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최종 연구대상 가구의 아동 평균 월령은 범위 60-66개월, 평균 62.6개월(SD =1.3)이었으며, 남아 785명(51.4%), 여아 741명(48.6%)이었다. 아버지 평균 연령은 만 38.54세(SD=4.0),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48명(42.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400만원 이하 772가구(50.6%), 401-600만원 이하 464가구(3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526)

	구분	빈도(%)
유아 성별	남아	785(51.4)
	여아	741(48.6)
유아 월령	60	59(3.9)
	61	265(17.4)
	62	390(25.6)
	63	451(29.6)
	64	234(15.3)
	65	97(6.4)
	66	30(2.0)
	M(SD)	62.6(1.3)
아버지 연령	20-29	8(0.5)
	30-39	922(60.4)
	40-49	584(38.3)
	50-59	12(0.8)
	M(SD)	38.54(4.0)
아버지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8(0.5)
	고등학교 졸업	412(27.0)
	전문대 졸업	299(19.6)
	대학교 졸업	648(42.5)
	대학원 졸업	159(10.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17(7.7)
	201-400만원 이하	772(50.6)
	401-600만원 이하	464(30.4)
	601-800만원 이하	122(8.0)
	801만원 이상-	51(3.3)
	M(SD)	430.85(212.63)

2. 측정도구

가.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조복희 외(1999)의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를 이용해 조사되었다. 2개의 하위영역으로 온정적 양육행동(6문항)과 통제적 양육행동(6문항)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6차연도(2013

년에 아동의 아버지에 의해 응답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주요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기 또래놀이 및 이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보고해 왔기 때문이다(김기순, 박인전, 2002; 이강훈, 2018).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문항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883으로 나타났다.

나. 또래놀이행동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은 또래놀이행동 척도(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이용해 조사되었다. 이는 Fantuzzo et al.(1998)가 개발한 척도를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이다. 본 척도는 본래 놀이상호작용(9 문항), 놀이방해(13문항), 놀이단절(8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항상 그렇다(4)'로 구성된 4점 Likert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연도(2014년)에 아동의 육아지원기관의 담임교사가 평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놀이상호작용 .803과 놀이단절 .888, 놀이방해 .876으로 나타났다.

다. 학업수행능력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은 이은혜 외(2008)가 개발한 학업 수행 능력 척도를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국어(4문항), 수학(5문항), 학업전반(1문항)의 세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20% 이하(1)'부터 '상위 20%이상(5)'으로 측정된 5점 Likert척도이다. 한국아동패널 8차연도(2015년)에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의 담임교사가 평정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문항으로 구성된 학업전반은 문항의 내적합치도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국어와 수학의 문항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각각 .941과 .979로 나타났다.

라.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은 지성애와 정대현(2006)의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다. 이 척도는 국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학교생활 적응(11문항), 학업수행적응(11문항), 또래적응(8문항), 교사적응(5문항)으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항상 그렇다(5)'로 구성된 5점 Likert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8차연도(2015년)에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의 담임교사가 평정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평정자가 교사임을 고려하여 교사와의 1:1 관계 적응에 관한 문항을 포함한 교사적응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하위영역을 최종 모형에 사용하였다. 사용된 하위영역의 문항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학교생활적응 .959, 학업수행적응 .944, 또래적응 .944으로 나타났다.

마. 통제변인

아동 및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아동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배한진, 허청아, 2019; 장혜진, 김은설, 송신영, 2014; 최옥희, 김용미,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특성으로 성별을, 가족특성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한국아동패널 6차연도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은 남아(0), 여아(1)로 코딩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무학(1), 초등학교 졸업(2), 중학교 졸업(3), 고등학교 졸업(4), 전문대 졸업(5), 대학교 졸업(6), 대학원 졸업(7)로 코딩하였다. 가구 월소득은 만원 단위로 응답 되었으며,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2.0과 Mplus 7.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2.0으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관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문항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사전 분석으로는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주요변인의 정규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 값을 분석하였다. 이후에 Mplus 7.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하여 최종 모형을 분석하였고, 연구 자료의 결측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를 통해 처리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CFI, TLI, RMSEA, SRMR 지수를 이용해 판별하였고, 전체 경로와 매개경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결과는 95% 신뢰구간 안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MacKinnon, Lockwood, & Williams, 2004).

III. 연구결과

1. 사전 분석

주요 분석에 앞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및 아동의 또래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단절, 학업수행능력, 학교적응의 기술통계를 통한 일반적 경향과 왜도 및 첨도를 통한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먼저 주요 변인의 왜도 범위는 -1.46~1.16, 첨도 범위는 .02~1.93으로 나타났으며,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8보다 작아 정규성 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5). 다음으로 변

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매개변수인 아동의 또래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과 정적 상관을($r=.07, p<.05$), 놀이단절과 부적상관을 보였다($r=-.08, p<.01$), 놀이방해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종속변수인 학업수행능력의 학업전반($r=.11, p<.01$), 국어($r=.10, p<.01$), 수학($r=.10, p<.01$) 및 학교적응의 학교생활적응($r=.10, p<.01$), 학업수행적응($r=.09, p<.01$), 또래적응($r=.13, p<.01$)과도 각각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또래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은 종속변수인 학업수행능력의 학업전반($r=.18, p<.01$), 국어($r=.20, p<.01$), 수학($r=.16, p<.01$) 및 학교적응의 학교생활적응($r=.21, p<.01$), 학업수행적응($r=.27, p<.01$), 또래적응($r=.25, p<.01$)과 각각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또래놀이행동 놀이단절은 학업수행능력의 학업전반($r=-.20, p<.01$), 국어($r=-.23, p<.01$), 수학($r=-.22, p<.01$) 및 학교적응의 학교생활적응($r=-.17, p<.01$), 학업수행적응($r=-.20, p<.01$), 또래적응($r=-.21, p<.01$)과도 각각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또래놀이행동 놀이방해는 학업수행능력의 학업전반($r=-.18, p<.01$), 국어($r=-.17, p<.01$), 수학($r=-.17, p<.01$) 및 학교적응의 학교생활적응($r=-.35, p<.01$), 학업수행적응($r=-.24, p<.01$), 또래적응($r=-.13, p<.01$)과도 각각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7	8
아버지 양육행동	1.00									
또래놀이 행동	2. 놀이상호작용	.07*	1.00							
	3. 놀이단절	-.08**	-.37**	1.00						
	4. 놀이방해	-.05	-.34**	.59**	1.00					
학업수행 능력	5. 학업전반	.11*	.18**	-.20**	-.18**	1.00				
	6. 국어	.10**	.20**	-.23**	-.17**	.91**	1.00			
	7. 수학	.10**	.16**	-.22**	-.17**	.90**	.88**	1.00		
학교적응	8. 학교생활적응	.10**	.21**	-.17**	-.35**	.47**	.45**	.44**	1.00	
	9. 학업수행적응	.09**	.27**	-.20**	-.24**	.47**	.48**	.43**	.63**	1.00
	10. 또래적응	.13**	.25**	-.21**	-.13**	.60**	.61**	.54**	.59**	.73**
M	3.62	3.08	1.64	1.93	4.17	4.15	4.33	4.08	4.37	3.83
SD	.63	.45	.58	.52	1.02	.97	.88	.94	.91	.85
Skewness	-.21	-.58	1.16	.65	-1.23	-1.14	-1.46	-1.08	-.70	-.63
Kurtosis	.43	.99	1.28	-.04	1.02	.65	1.93	.32	.31	.02

* $p<.05$, ** $p<.01$

2. 주요 분석

가. 모형의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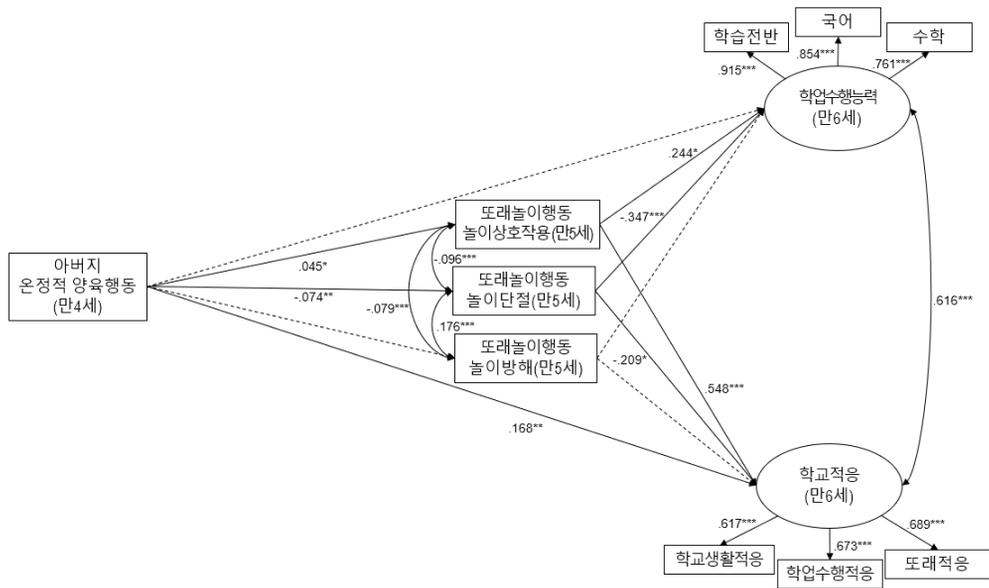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기 또래놀이행동과 학업수행능력 및 학교적응 간의 직간접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수행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 제시되었다. 그 결과 χ^2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외의 모형 적합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Little, 2013). 먼저 CFI와 TLI는 .90이상으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Bentler, 1990), RMSEA는 .08이하로 괜찮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Browne & Cudeck, 1992). SRMR은 .08이하로 나타나(Hu & Bentler, 1999), 전반적으로 최종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연구모형 적합도

	χ^2	df	p	CFI	TLI	RMSEA (90% C.I.)	SRMR
연구모형	413.438	45	.000	.941	.906	.073 (.067-.079)	.044

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또래놀이행동, 학업수행능력 및 학교적응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또래놀이행동, 학업수행능력 및 학교적응 관련 변인의 최종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의 요인 적재치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수행능력의 측정변인인 학업전반($b=.915, p=.001$), 국어($b=.854, p=.001$), 수학($b=.761, p=.001$)은 요인적재치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적응의 학교생활적응($b=.617, p=.001$), 학업수행적응($b=.673, p=.001$), 또래적응($b=.689, p=.001$) 요인적재치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 비표준화 계수임.

〈그림 2〉 최종모형

아버지의 양육행동, 또래놀이행동과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의 최종모형은 〈그림 2〉와 같으며, 변인 간 경로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기 또래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에 정적으로($b=.045, p=.05$), 놀이단절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74, p=.01$),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68, p=.01$). 즉, 아버지 양육행동이 온정적일수록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에서 놀이상호작용을 높이고 놀이단절을 낮추며,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의 놀이방해와 초등학교 1학년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 또래놀이행동, 학업수행능력 및 학교적응 간 경로

	경로	b	95% C.I.	
			하한	상한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	→ 또래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	.045	.002	.088
	→ 또래놀이행동 놀이단절	-.074	-.128	-.019
	→ 또래놀이행동 놀이방해	-.044	-.093	.007
	→ 학업수행능력	.100	-.011	.210
	→ 학교적응	.168	.053	.279
또래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	→ 학업수행능력	.244	.044	.440
	→ 학교적응	.548	.344	.753
또래놀이행동 놀이단절	→ 학업수행능력	-.347	-.517	-.186
	→ 학교적응	-.209	-.392	-.026
또래놀이행동 놀이방해	→ 학업수행능력	.054	-.125	.239
	→ 학교적응	-.127	-.347	.109

주: b는 비표준화 계수임.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이후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먼저 놀이상호작용은 학업수행능력($b=.244, p=.01$)과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548, p=.01$), 놀이단절은 학업수행 능력($b=-.347, p=.01$)과 학교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09, p=.01$). 즉, 유아기 또래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은 이후 초등학교 1학년 학업수행능력 및 학교적응을 높이고, 놀이단절은 학업수행능력 및 학교적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의 놀이방해가 초등학교 1학년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또래놀이행동의 매개효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만6세 또래놀이행동의 매개효과에 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기 또래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b=.011, 95\% C.I.=.001-.031$) 및 학교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4, 95\% C.I.=.002-.054$). 또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기 또래놀이행동 놀이단절을 매개하여 초등학교 학업수행능력($b=.026, 95\% C.I.=.007-.055$) 및 학교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015, 95\% C.I.=.006-.040$). 즉,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일수록 또

래놀이행동에서 놀이상호작용을 높이고 놀이단절을 낮추어, 이후 초등학교 1학년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기 또래놀이행동 놀이방해를 매개하여 초등학교 1학년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변인들 간 매개효과

매개효과 경로	b	95% C.I.	
		하한	상한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 → 또래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 → 학업수행능력	.011	.001	.031
→ 학교적응	.024	.002	.054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 → 또래놀이행동 놀이단절 → 학업수행능력	.026	.007	.055
→ 학교적응	.015	.006	.040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 → 또래놀이행동 놀이방해 → 학업수행능력	-.002	-.018	.004
→ 학교적응	.006	-.003	.025

주: b는 비표준화 계수임.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만4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만5세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을 매개로 만6세 초등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고, 만5세의 또래놀이행동을 매개로 초등학교 입학 후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4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만5세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단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친사회적인 특성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놀이 상호작용의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위축되거나 타인에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놀이단절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아의 만 2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이후 만 4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이다(서고운, 2017). 이를 통해 유아가 아버지와 함께 활동하면서 자극을 받고 반응하는 상호작용의 경험이 또래놀이행동에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김정주, 박형신, 2017). 이외에 국내 연구들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놀이행동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횡단 모형으로 설계되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친밀감이 여아 놀이성의 유머감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기순, 박인전, 2002), 아버

지의 양육행동 전반이 유아의 놀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라, 이방실, 강수경, 2017).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을 보다 폭넓은 측면에서 사회적 발달의 일환으로 살펴본다면, 기존 연구들이 보고한 유아기 아버지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 획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볼 수 있다. 아버지가 만4-5세경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면 인지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나아가 우울이나 불안의 정도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유아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속에서 타인과 협력하는 태도와 행동을 배우고 연습하게 된다(Lipscomb, 2011). 즉,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참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기존의 횡단 및 종단연구 결과에서 모두 보고되고 있다(이강훈, 2018; 이귀애, 김영희, 2016). 따라서 누리과정을 실행하는 기관과 가정연계에 관한 사항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방식 및 기여에 관한 인식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4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만6세 학교적응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수행능력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유아기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이후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이강훈, 2018; Allhusen et al, 2004). 기존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 및 일부 청소년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유아기 가정요인으로써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이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직접적 탐색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선행연구들 또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즉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아버지의 양육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물론(김현정, 이태상, 2019; 현정희, 2019) 이후 고학년 시기(김미인, 장영애, 2007; 박혜원, 진미경, 2015; 이희영, 최태진, 2007)와 청소년기(조용주, 최홍일, 2015)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물론 학령기 전이 및 이후의 아동발달에 따른 전이는 아동뿐만 아니라 양육자인 아버지의 양육행동 변화에 영향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유아기의 아버지 양육행동이 종단적으로 학령기 전이기의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유아기에서 학령기 아버지 양육행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차후에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 및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이 성장하는 전 연령단계의 안정적인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에 관한 교육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만5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은 만4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만6세 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4세 유아기에 아동이 경험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만5세 취학전 아동의 또래놀

이행동의 놀이상호작용 증가와 놀이단절 감소에 영향을 미쳤고, 만6세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을 부분매개하였으며, 학업수행능력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을 촉진함으로써 향후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교적응의 사회적 측면과 학업수행능력의 인지적 측면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을 또래놀이행동이 매개하는 것은 놀이상호작용이 활발하고 놀이단절이 드문 유아는 놀이집단에서 의사소통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발달이 잘 이뤄졌을 확률이 높고, 이는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함께 인지능력 및 언어발달을 향상시켰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누리과정의 중심이 되는 유아기 '놀이'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놀이가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매개체이며, 따라서 놀이를 통해 사회적 경험은 물론 배움이 가능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는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 및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Piaget, 1962; Caillois, 2002; Holt, 2017). 또한, 유아기 가정요인 중 주요요인으로 아버지의 반응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이 놀이를 통해 향후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장단기적 효과성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학령전 유아를 둔 부모들은 놀이보다는 학습을 더 가치롭게 여기는 실정이다(김경철, 한유진, 김인애, 2020).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놀이행동이 학업수행능력(김미나, 이완정, 2019; 최은정, 김은향, 2019)과 학교적응(이지영, 이상희, 2019; 정대현, 지성애, 2006; 최은정, 김금주, 2020; 최은정, 김은향, 2019)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함께, 누리과정의 가정연계를 통하여 부모가 놀이를 지원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는 것이 유아교육 기관과 초등학교 연계성을 가진다. 더불어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온정적 양육행동 증진을 위한 아버지의 놀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가정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이정옥 외 2019).

그러나 본 연구에는 중요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유아기에서 학령기 전이기의 아버지 양육행동 및 아버지-자녀 관계의 변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아동이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횡단연구를 수행하였다(김미인, 장영애, 2007; 김현정, 이태상, 2019; 박혜원, 진미경, 2015; 이희영, 최태진, 2007). 그러나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부모의 역할이 변화되고(Collins, Madsen, & Susman-stillman, 2002), 아버지-자녀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유아기와 학령기에 걸친 아버지의 양육행동 변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의 의의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및 학령기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며, 초등학교적응 및 학업수행능력 이외에도 아동의 집행기능문제 및 내재화·외재화 문제 등을 포함하여 학령기 발달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제한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새로 공개될 한국아동패널 11차연도 자료를 포함하여 학령 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발달 및 이를 둘러싼 아동의 가족 및 학교요인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보다 장기간의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만4세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만5세 또래놀이행동이 발달에 영향을 주어 만6세 초등학교 전이시기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유아기에서 학령 초까지 발달의 연속성에서 설명하며, 유아기의 부모 양육행동과 또래놀이행동이 유아기에 국한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취학 전이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진학 후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종단적인 발달경로를 검증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동의 또래놀이행동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학교적응과 더불어 인지적 측면에서의 언어와 수학 학업성취 발달을 강화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학교적응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사회적·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서 가정연계를 통해 누리과정의 놀이지원을 지속하고, 이를 위하여 향후 정책의 심화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정(2016). 유아교사를 위한 자유선택활동에서의 놀이에 대한 의미 고찰. 한국교원교육연구, 33(3), 189-211.
- 교육부(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 보도자료. <https://www.moe.go.kr> 2019. 07. 18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 김경철, 한유진, 김인애(2020). 유아의 그림을 통해 표현된 부모의 놀이에 대한 신념. 열린유아교육연구, 25(3), 301-331.
- 김기순, 박인전(2002). 아버지 양육행동 및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5(2), 27-43.
- 김기영, 이진희(2009). 유아의 단독놀이, 기질, 또래 유능성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28(1), 243-261.
- 김미나, 이완정(2019). 만5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초등학교 1학년의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아동과권리, 23(1), 111-129.
- 김미인, 장영애(200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3), 379-390.

- 김영숙, 조한익(2015).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도 및 주관적 안녕감의 종단적 인과관계와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교육심리연구*, 29(4), 845-871.
- 김용래(2000). 학교학습동기척도와 학교적응척도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17, 3-37.
- 김원경, 권희경(2019). 한국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32(4), 1-19.
- 김은설(2012). 아버지의 육아참여, 아이를 행복으로 이끄는 조건. *육아정책연구소Brief 4호*.
- 김정주, 박형신(2017).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놀이몰입,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7(3), 29-48.
- 김현정, 이태상(201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행복감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4), 405-419.
- 김효진(2018). 유아의 정서조망수용, 친사회적 거짓말, 사회적 기술,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관계 : 교사와 어머니의 지각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도남희(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필요. *육아정책연구소Brief17호*.
- 박혜원, 진미경(2015).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3(3), 77-95.
- 배구택, 노진형(2019).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 양육행동, 유아 전자미디어 놀이시간, 외현화 문제행동 간 구조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18(1), 69-94.
- 배한진, 허청아(2019). 유아기의 가정환경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1 학년 학교적응의 차이. *육아정책연구*, 13(1), 75-99.
- 서고운(2017).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아동의 또래 놀이 행동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Korean J Child Stud*, 38(6), 79-91.
- 서재화, 김현경(2018). 아동의 초등학교적응 및 집행기능의 종단적 발달경로 어머니의 활동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역할. *유아교육연구*, 38(5), 107-130.
- 송주연, 이선영(2017). 또래놀이 행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역할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7(5), 507-531.
- 신은수, 권미경, 정현빈(2010). 유아의 사회적 기술,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놀이 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83-209.
- 유미현, 이경님(2019).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의 학업능력과 또래놀이 상호작용 및 학교준비도 간의 구조적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2), 1-23.
- 유효인, 김희영(2020). 유아기 또래 놀이행동 및 학업능력이 초등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5), 269-287.
- 이강훈(2018).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3(6), 399-425.
- 이귀애, 김영희(2016). 아버지의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과 부부친밀감 및 역할수행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3), 93-119.
- 이은해, 김명순, 전해정, 이정림, 이윤선, 김주혜, 조수영, 정주희(2008).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

- 육 서비스에 대한 종단적 효과 연구. 미발간.
- 이정옥, 김윤희, 김효진, 김선희, 이정희, 이예린(2019). 놀이 연속성에 기초한 놀이지원.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 이지영, 이상희(2019). 유아개인변인, 또래놀이행동, 사회적유능감, 문제행동이 초등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3(3), 171-199.
- 이현아(20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버지참여 프로그램 효과 분석. 현대사회와다문화, 10(2), 143-175.
- 이희영, 최태진(2007).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역할. 초등교육연구, 20(1), 23-41.
- 이희정(2018). 유아의 또래 놀이상호작용 종단적 변화궤적이 초등학교1학년생의 또래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4(3), 387-408.
- 장혜진, 김은설, 송신영(2014). 아동 개인 및 가정환경에 따른 초등학교 1 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 차이 연구. 초등교육연구, 27(2), 95-122.
- 전흥주, 조수경, 김미정, 최향준(2014).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발달특성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5), 2678-2688.
- 정대현, 지성애(2006).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유아교사관계, 다중지능과 초등학교적응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6(3), 201-221.
- 정미라, 이방실, 강수경(2017).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행동과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7(5), 413-434.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조용주, 최홍일(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의 간접효과. 학교사회복지, 30, 47-70.
- 조인휘, 신나리(2015).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놀이성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9(1), 33-45.
- 지성애, 정대련(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최미숙, 문인정(2020). 유아의 놀이성과 회복탄력성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 한국아동교육학회, 29(2), 231-247.
- 최은정, 김금주(2020).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초등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7(2), 215-234.
- 최은정, 김은향(2019).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특성이 학업능력과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 1333-1353.
- 최지은, 김현경(2019).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3(2), 145-169.
- 최혜영, 신혜영(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 (PIPPS) 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현정희(2019).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인식이 학업수행능력에 미

- 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3(3), 125-146.
- Allhusen, V., Belsky, J., Booth-LaForce, C., Bradley, R., Brownell, C. A., Burchinal, M., ... & Houts, R. (2004). Fathers'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beliefs as predictors of children's social adjustment in the transition to schoo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4), 628-638.
- Bauminger-Zviely, Nirit, Eytan, Dganit, Hoshmand, Sagit, & Rajwan Ben-Shlomo, Ofira. (2019). Preschool peer social intervention (PPSI) to enhance social play, interaction, and conversation: Study outcom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50*(3), 844-863.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owen, G. L. (2009). Preventing school dropout: The eco-Interactional developmental model of school success. *Prevention Researcher, 16*(3), 3-8.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aillois, R.(2002). 놀이와 인간 [Man, Play and Games]. (이상률 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저 1961 출판)
- Collins, W. A., Madsen, S. D., & Susman-Stillman, A. (2005). Parenting during middle childhood. *Handbook of parenting: Children and parenting*. (2nd ed., vol. 1, pp. 73 -10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Erikson, E. H. (1968). Life cycl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9*, 286-292.
- Fantuzzo, J., Sutton-Smith, B., Coolahan, K. C., Manz, P. H., Canning, S., & Debnam, D. (1995). Assessment of preschool play interaction behaviors in young low-income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1), 105-120.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411-431.
- Grossmann, K., Grossmann, K. E., Fremmer-Bombik, E., Kindler, H., Scheuerer-Englisch, H., & Zimmermann, A. P.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3), 301-337.
- Holt, J. (2017). *How children learn*. New York: Hachette UK.
- Howes, C. & Matheson, C. C. (1992). Sequences in the development of competent play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61-974.

- Howes, C. & Phillipsen, L. C. (1998). Continuity in children's relations with peers. *Social Development*, 7, 340-349.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Juvonen, J. & Wentzel, K. (1996). *Social Motivation : Understand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 Edited by Jaana Juvonen, Kathryn R. Wentzel. Cambridge [Cambridgeshir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york: The Guilford Press.
- Leurent, H., Betti, F., Shook, E., Fuchs, R., & Damrath, F. (2019). Leading throug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utting people at the centre. *Chin. Geogra. Sci.*, 27(4), 626-637.
- Lipscomb, R. C. (2011). Strategies to improve fathers' involvement with their children's develop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Race, Gender & Class*, 18(3), 253-267.
- Little, T. D. (2013). *Longitud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MacKinnon, D. P., Lockwood, C. M., & Williams, J. (2004). Confidence limits for the indirect effect: Distribution of the product and resampling method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1), 99-128.
- Piaget, J. (1962).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NY: W. W. Norton & Company, Inc.
- Pink, D. H. (2006).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NY : Riverhead Books,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4th ed)*. Belmont, CA: Wadsworth/Thompson Learning.
- Szewczyk-Sokolowski, M., Bost, K. K., & Wainwright, A. B. (2005). Attachment, temperament, and preschool children's peer acceptance. *Social Development*, 14(3), 379-397.
- Vygotsky, L. S. (1976). Play and its role in the mental development of the child. In J. S. Bruner, A. Jolly, & K. Sylva (Eds.), *Play: Its role in development and evolution* (pp. 537-554). New York: Basic Books.

• 교신저자: 윤희진,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ture112@naver.com

Abstract

The Effects of Father's Behavior and Children's Peer Play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Seolah Lee, Heejin Yun and Haeyoung Kim

This study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father's parenting behavior with preschool children influenced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through children's peer play during the period of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Using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the present study included data on a total of 1,526 children and their father across 2013 (Time 6) through 2015 (Time 8). The hypothesized model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Mplus 7.31. Findings indicated that father's parenting behavior at age 4 positively influenced children's peer play at age 5 and also influence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t age 6.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the effects of the role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were mediated through peer play. Thes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peer play for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These results also support the proposition that targeting fa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peer play in preventive intervention programs would be a fruitful avenue to promote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 Key words: parenting behavior, peer play, school adjustment, academic achievement,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의 역할

김호현(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본문에 앞서 논문의 논리구조나 통계기법에 관한 언급은 이후 투고될 학회지의 심사자에게 맡기고 여기에서는 토론자가 논문을 읽으며 생각하고 느낀 점을 담으려 한다.

우선, 이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첫 번째로 이 연구는 놀이와 학습의 관계를 재확인해주며 개정누리과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는 개정누리과정에서 놀이가 강조된 나머지 학습이 상실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 연구로써 교육의 중심부로 들어서게 된 놀이가 학습을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다 믿는 부모와 유아교사에게 놀이가 오히려 학습을 중심으로 잡아당길 수 있음을 알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연구는 아버지 양육방식에 전환이 필요함을 재확인해준다. 진부하게도 오랫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무뚝뚝하고 엄한 양육자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따뜻하고 온화한 양육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이 연구는 아버지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세 번째로 또래관계와 학업에서 정서발달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주었다. 아버지와의 반응, 공감, 협력적 교류가 또래와의 관계맺기를 수월케 하고, 관계맺기에서 쌓아진 동기, 주의 지속, 학습 태도가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연구에 사용된 학업수행능력 검사지가 정확히 무엇을 측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는 정서가 관계와 학업 모두와 연계되어 있다는 지난 연구를 뒷받침하고, 인지만큼 정서의 역할에 관심이 커져 있는 연구계에도 함의를 준다.

이 세 가지 지점은 현실적으로도 유아교사와 부모에게 개정누리과정의 의도를 이해시키고, 그간의 양육 인식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연구가 학업수행능력이라는 부모들의 주된 관심 변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관심 없는 부모는 없을 테니까. 어찌되었든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가 우리 현실에 도덕적 변화를 가져왔듯(Shermer, 2018) 이 연구결과도 현실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연구팀과 아동패널에게 바라는 몇 가지 점을 언급한다.

첫 번째로 변인들에 이야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결과를 현실에 적용하려면, 즉 부모들이 이 연구결과를 따르려면 온정적인 양육의 실제 사례를 보아야 한다.

따뜻하고 수용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변인이나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는 육아 사례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검사지 문항이 공개된다면 그런 사례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래놀이행동이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검사지 문항도 마찬가지이다. 한발 더 나아가자면 데이터에 이야기를 담아내는 혼합연구(Creswell, 2017)도 고려해볼 만하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넘어 아버지-자녀 관계의 질(FCRQ)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Palkovitz(2019)에 따르면 아버지 양육참여 연구는 많지만,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궤적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지, 정서, 행동을 중심으로 상호작용 맥락 내에서 측정, 관찰, 생각과 느낌에 관한 인터뷰를 동시다발적으로, 종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매우 힘든 일이겠지만 이 방식은 1년마다 이루어진 데이터 수집기간 사이의 공백을 아버지와 자녀, 친구, 학업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아동이 학교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학업에 임했는지 등의 이야기로 풍부하게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아동패널 측에 역량 검사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학업수행능력이 (연구에서는 정확히 어떤 능력을 측정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추론력, 어휘력, 암기력, 수리력 등과 관련 있는바 비판적 사고, 자기인식 등의 역량과는 다른 개념이다(Waters & Waters, 1992). 서론에 4차산업혁명시대와 놀이의 관계를 언급했는데 놀이, 양육행동, 역량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시대적으로 의미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이자 개인적으로 이 연구는 가끔 화를 뿜꼭 참아내야 하는 다섯 살 자녀를 둔 토론자 본인에게도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이 효력이 오랫동안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Creswell, J. W. (2017). 연구방법: 질적, 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 (김영숙 외 공역). 서울: 스그마프레스.

Shermer, M. (2018). 도덕의 궤적 : 과학과 이성은 어떻게 인류를 진리, 정의, 자유로 이끌었는가. (김명주 역). 서울: 바다출판사.

Palkovitz, R. (2019). Expanding our focus from father involvement to fat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1(4), 576-591.

Waters, M. & Waters, A. (1992). Study skills and study competence: Getting the priorities right. *ELT Journal*, 46(3), 264-273.

아동의 창의성 변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잠재계층성장분석의 적용

이근애⁶³⁾

요약

본 연구는 아동의 창의성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차에서 10차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총 1,35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R을 활용하여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창의성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은 3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였으며, 창의성 '유지집단(72.3%)', '감소집단(8.2%)' 그리고 '성장집단(19.4%)'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아동의 창의성 잠재집단의 변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가정환경에서의 자극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서 및 심리적인 측면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창의성, 가정환경, 잠재계층성장분석, R

1. 서론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온라인 개학, 재택근무 등과 같은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었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뉴노멀(New Normal)을 향해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불확실성과 거대한 변화의 물결로 지칭되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막에 이어진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인류는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능력의 핵심은 바로 창의성이다(도남희, 2017).

Guilford(1950)가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 지능보다는 창의성을 강조해야 함을 언급한 이후 창의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창의

63) 동아대학교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특별연구원

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이론들이 정립되었다(Amabile, 1995; Csikszentmihalyi, 1999; Guilford, 1959; Simonton, 1988; Sternberg & Lubart, 1991; Torrance, 1974). 국내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창의성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전경원, 2000; 조석희, 2005; 최인수, 2010). 창의성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창의성이란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방식으로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가치를 향상케 하고 의미 있게 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창의성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와 문화의 성장을 돕는 요소로 인식되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창의성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창의성은 집단이나 국가 등이 직면하는 사회문제의 개선, 새로운 지식의 발견, 예술의 발전 등과 같은 혁신을 가능케 하므로 창의성은 불확실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며 인류 생존을 좌우하는 요인이다(김상림·박창현, 2017).

창의성 연구에 있어 유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유아기는 창의성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이다(김호·유영의, 2011; 전경원, 2000). 유아기는 상상력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상징적 사고가 우세한 시기로, 창의성 발달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라 할 수 있다(변윤희, 2008; 전경원, 2000; Torrance, 1974).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고(미래부·교육부·고용부 합동, 2013). 이러한 변화에 따라 유아기관에서 역시 국가수준인 누리과정을 통해 창의성 교육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이처럼 현대사회의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는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아기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창의적 특성을 지닌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지만, 창의성은 발달은 연령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Torrance(1963)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성은 유아기인 3세경 증가하기 시작하여 4.5세경 최고조를 이루지만 초등학교 3, 4학년이 될 무렵 감소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경직된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사회화를 강조하는 분위기 등의 환경적 요인들 때문이다. 또한, 전경원(2000)은 유아의 창의성을 검사한 결과 유아의 창의성 하위영역 중 상상력은 5세까지 증가하다 6세가 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유아기에 발달하여 최고조를 이루는 창의성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감소하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Urban(1991)은 학령기 아동에게 개인의 특수성보다는 사회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은 자신의 흥미와 욕구, 그리고 호기심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령기에 접

어든 아동은 학교의 규칙과 규율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밖에 없고, 교사가 주도하는 학습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창의성은 감소하게 된다(Meeker, 1978).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창의성과 양육환경에 대한 연구로는 가정환경 요인(부모의 연령, 학력, 수입, 양육행동 등)에 관한 연구(안선희·성은현, 2016; 하주현, 2015), 가족기능에 대한 연구(정선희·이채호·최인수, 2011)들이 있다. 또한 창의성에 대한 교사의 영향에 대한 연구(김상림·박창현, 2017; 박은지, 2020; 이선애·이채호, 2014),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연구(김상림·박창현, 2017; 우수경·김호·박숙희, 2015)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가정의 창의적인 환경, 가족의 기능은 아동의 창의성과 정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 및 부모의 영향을 통해 창의성이 증진될 수 있으며 인지 및 사회성 발달과도 정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동의 창의성을 추적하여 잠재된 계층을 규명하고 창의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특히,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성장하면서 아동의 가정환경,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성 등의 다양한 요인들 중 아동의 창의성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창의성 잠재집단의 유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창의성 잠재집단의 유형을 예측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연구(Pannal Study of Korea Child [PSKC])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2008년도에 시작된 한국아동패널연구는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추적·조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가정환경, 사교육 참여, 미디어 사용, 인지 및 언어발달, 사회성의 요인으로 나누어 1차년도(2008년)부터 10차년도(2017년)까지의 자료에서 관련되는 요인들에 대한 결과를 수집하였다. 아동의 창의성은 5차년도(2012년)와 10차년도(2017년)에 조사된 창의성 검사 결과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2,150명의 대상자 중 5차년도와 10차년도에서 모두 창의성 검사를 실시한 총 1,35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359

변수	구분	명 (%)
성별	남아	681 (50.1)
	여아	678 (49.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30 (31.6)
	301만원 ~ 500만원	644 (47.4)
	501만원 ~ 700만원	186 (13.7)
	701만원 ~ 1,000만원	77 (5.7)
	1,000만원 초과	7 (0.5)
	무응답	15 (1.1)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49~55개월)와 10차년도(초3)에서 각각 측정한 아동의 창의성 검사 결과의 변화양상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환경,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성 등의 다양한 요인을 예측변수로 설정하였다. 예측변수는 1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기에 매우 많은 변수가 투입되었다. 결국 이 5% 이상인 하위변수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이중 경향성을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에 대한 도구만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가. 창의성

아동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5차년도에는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Korean Figural Creativity Test for Young Children [K-FCTYC])를, 10차년도에는 초등 도형 창의성 검사(Korean Figural Creativity Tes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K-FCTES])를 사용하였다. 도형 창의성검사는 아동 수행검사로, 언어보다 도형을 통해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검사이다(전경원, 2001).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K-FCTYC)는 2개의 소검사(으뜸 도형으로 그리기, 자극 도형으로 그리기)로 구성되어 있다. 으뜸 도형으로 그리기 소검사를 통해 유창성과 독창성을, 자극 도형으로 그리기 소검사를 통해서서는 개방성과 민감성을 측정한다. 초등 도형 창의성 검사(K-FCTES) 역시 2개의 소검사(으뜸 도형으로 그리기, 모듬 도형으로 그리기)로 구성되어 있다. 으뜸 도형으로 그리기 소검사는 유창성과 독창성을, 모듬 도형으로 그리기 소검사는 개방성과 민감성을 측정한다. 검사 실시 후 원점수를 T점수와 백분위점수로

변환하여 사용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5차와 10차 각각 .95와 .83이다.

나. 가정환경

가정환경은 Caldwell와 Bradley(2003)의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사용한 유아용 가정환경자극검사(Early Childhood HOME [EC-HOME])와 아동용 가정환경자극검사(Middle Childhood HOME [MC-HOME])를 사용하였다. EC-HOME은 4차년도(2011년)부터 7차년도(2014년)까지 매년 측정하였다. 총 55개의 문항으로 학습자료, 언어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모방학습, 다양성, 수용성의 8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료는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난감, 책, 게임에 대한 아동의 접근 가능성을 의미하며, 학습에 대한 부모 자신의 열의를 질문하는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 언어자극은 부모가 대화, 모델링, 직접적인 지도 등을 통해 자녀의 언어발달을 독려하려는 것을 의미고, 물리적 환경은 물리적 환경이 안전하고 흥미로운지, 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해 질문한다. 반응성은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과 온정적 관계를 의미하고, 학습 자극은 부모가 유아기의 중요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에 대하여 격려하고, 학습에 관여하는지에 대해 면접으로 알아본다. 모방 학습은 바람직하고 수용 가능한 부모 행동의 모델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다양성은 아동에게 풍부한 경험과 다양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족의 생활 방식이며, 수용성은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8차년도(2015년)부터 10차년도(2017년)까지는 MC-HOME을 통해 매년 측정하였다. 이는 총 59개의 문항으로 반응성, 성숙장려, 정서적 환경, 학습 자료와 기회, 강화, 가족공동체, 가족통합, 물리적 환경의 8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성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과 온정적 관계를 의미한다. 성숙 장려는 자녀의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 가족 내 규칙 공유 등을 의미하며, 정서적 환경은 자녀의 부정적인 표현을 부모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학습자료와 기회는 학습을 지지하는 환경 조성, 아동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의미하고, 강화는 학습에 대한 부모의 열의 등을 의미한다. 가족 공동체는 자녀의 발달을 위한 가족/지역 공동체 자원의 의식적 이용을 의미하고, 가족 통합은 자녀가 필요로 할 경우 아버지(혹은 아버지 역할 수행자)가 자녀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는지 등을 의미하며, 물리적 환경은 자택과 주변 환경이 안전하고 흥미로운지, 공간이 충분한지 등의 물리적 환경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면접과 관찰을 통해 평정되므로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여야 하지만 한국 아동패널 조사 시 두 명의 조사원이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관찰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관찰자간 신뢰도는 산출할 수 없다. 또한, 10차년도 결과 중 일부 하위변인들이 결측값이

5%를 넘어갔으며, 이러한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49 ~ .81로 나타났다.

다. 언어발달

언어발달은 김영태 외(2009)의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를 사용하여 4차, 6차(2차 심화), 7차, 8차에서 측정하였다. 이 중 결측치가 5%가 넘는 7차년도와 8차년도의 검사 결과는 삭제하고 4차와 6차년도의 결과값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수용어휘 검사와 표현어휘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어휘 검사는 총 185개의 문항으로, 문항은 품사별로 명사 98개, 동사 68개, 형용사 및 부사 19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현어휘 검사의 총 문항 수는 185개로, 문항은 품사별로 명사 106개, 동사 58개, 형용사 및 부사 21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4차년도와 6차년도에서 각각 .68과 .63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첫째, 본 연구는 아동 창의성에 대한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R version 3.6.1 과 R studio 1.2.5033 환경에서 'lcm' 패키지 v1.8.1.1을 이용하여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성장분석은 사회학, 행동 및 의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계모델로, 동일 계층의 개인들의 동질성을 가정하고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시키는 모델(fixed effect model)을 개발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Wardenaar, 2020). 잠재계층성장분석은 확장된 성장모델로 볼 수 있는데, 성장모델은 종단 데이터의 시간적 추세 또는 성장 패턴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된다. 잠재성장계층분석을 통해 적합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Sample-size Adjusted BIC(SABIC), Entropy 표본분포비율이 사용된다.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적합도 지수인 AIC, BIC, SABIC은 표집의 크기나 추정 모수의 개수를 고려하는데,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모형을 의미한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Entropy는 개별 사례가 집단에 얼마나 정확히 분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값은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도가 높은 것이다(Hix-Small, Duncan, Duncan, & Okut, 2004). 또한, 각 계층의 하위변수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아동의 창의성에 따른 잠재계층성장유형의 분류에 기여하는 예측변수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예측변수를 표준화 값으로 변환하여 회귀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였고, 예측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R 환경에서 'lm.beta' 패키지를 활용하였고 McFadden's R^2 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창의성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의 분류 및 특성

가. 잠재집단의 수

유아기에서 학령기로의 발달에 있어 아동의 창의성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를 확인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아동의 창의성 잠재계층성장분석 모델 적합도

N=1,359

변수	계층 수	Log Likelihood	AIC	BIC	SABIC	Entropy	계층분류비율(%)			
							1	2	3	4
창의성	1	-10988.3	21982.51	21998.15	21988.62	1	100			
	2	-10874.6	21761.25	21792.54	21773.48	0.93	95.58	4.41		
	3	-10802.1	21622.18	21669.12	21640.53	0.72	72.33	8.24	19.42	
	4	-10802.1	21628.18	21690.76	21652.64	0.50	0	8.68	69.68	21.63

아동의 창의성에 대한 잠재계층성장분석에서 정보준거지수인 Log Likelihood (-10802.1), AIC(21622.18), BIC(21669.12), SABIC(21640.53)이 가장 낮고, 계층의 최소 분류 비율이 1% 이상이 되는 분류는 3개의 계층이 존재하는 모델이다. Entropy 지수 역시 계층이 4일 때 .50이므로 낮아지므로 적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아동의 창의성 잠재계층성장 모델의 비교검증에서 정보준거지수가 가장 낮은 3개의 계층 분류가 가장 적합한 모델로 선정되었다.

나. 잠재집단의 특성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이용하여 분류된 집단의 아동 창의성의 하위변수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아동의 창의성 잠재집단별 하위변수 수준의 차이

N=1,359

변수	하위변수	계층	n	M	SD	F (Scheffe)
창의성 5차	유창성	1	983	46.48	30.12	165.13*** (1 < 3 < 2)
		2	112	99.19	1.31	
		3	264	52.99	31.27	
	개방성	1	983	50.34	26.16	192.01*** (1 < 3 < 2)
		2	112	99.81	0.23	
		3	264	56.75	27.48	
	독창성	1	983	56.32	27.99	131.93*** (1 < 3 < 2)
		2	112	99.90	0.00	
		3	264	63.09	28.78	
	민감성	1	983	8.13	12.50	1561.76*** (1 < 3 < 2)
		2	112	80.16	15.57	
		3	264	10.60	13.57	
창의성 10차	유창성	1	983	33.12	24.54	496.12*** (1 < 2 < 3)
		2	112	48.33	31.54	
		3	264	86.30	19.95	
	개방성	1	983	35.32	31.45	16.71*** (1 < 2 = 3)
		2	112	45.36	34.26	
		3	264	47.08	34.05	
	독창성	1	983	53.92	30.06	248.27*** (1 < 2 < 3)
		2	112	69.04	29.52	
		3	264	95.81	9.71	
	민감성	1	983	40.86	31.76	18.31*** (1<3, 1=2, 2=3)
		2	112	47.69	33.45	
		3	264	54.20	34.71	

*** $p < .001$.

먼저, 5차년도 아동의 창의성 잠재집단별 특성을 하위변수의 값으로 살펴보면, 전체 아동의 72.3%를 차지하는 계층 1의 경우 창의성의 4가지 하위변수인 창의성, 개방성, 독창성, 민감성에서 계층 3과 계층 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 전체 아동의 19.4%에 해당하는 계층 3은 전체 아동의 8.2%에 해당하는 계층 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았다. 다음으로, 10차년도 아동의 창의성에서 계층 1은 유창성, 개방성, 독창성에서는 계층 2와 계층 3보다 유의하게 작았고, 민감성에서는 계층 3보다는 유의하게 작았으나 계층 2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전체 아동의 8.2%에 해당하는 계층 2는 유창성, 독창성에서는 계층 3보다 유의하게 작았으나, 개방성과 민감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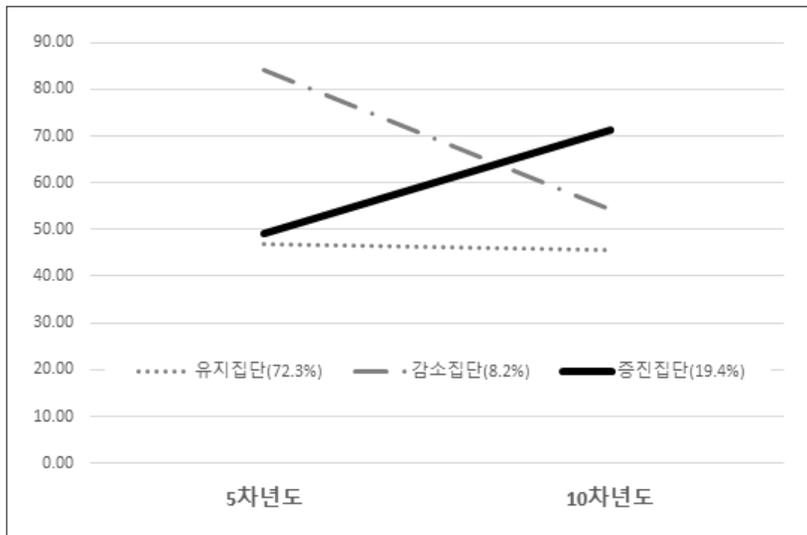
〈표 4〉 잠재집단별 평균 비교

N=1,359

변수	계층	n	M	SD	
창의성	5차(2012년)	1	46.84	9.02	
		2	84.19	12.33	
		3	49.01	9.69	
	10차(2017년)	1	983	45.66	9.24
		2	112	54.17	13.40
		3	264	71.67	7.12

주. 1 = 유지집단, 2 = 감소집단, 3 = 증진집단

〈표 4〉와 [그림 1]에서, 계층 1은 창의성의 수준이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창의성 ‘유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전체 아동의 72.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계층 2는 5차년도 창의성의 평균이 84.19로 가장 높으나 10차년도 측정에서 54.17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아동의 8.2%에 해당하는 계층 2는 창의성 ‘감소집단’으로 명명하였고,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인다. 계층 3은 5차년도 창의성 측정 시 평균이 49.01로 계층 1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10차년도 측정 시 평균이 71.67로 창의성 평균 점수가 증진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층 3은 창의성 ‘증진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아동의 19.4%에 해당한다.



[그림 1] 잠재집단별 평균비교

잠재집단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5차년도에 감소집단의 경우 창의성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감소집단과 유지집단 순이었으나, 두 집단의 평균 점수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10차년도에서는 증진집단의 창의성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감소집단과 유지집단의 순이었다. 즉, 창의성 평균을 비교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창의성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은 유지집단이었다. 감소집단으로 명명하였으나, 감소집단의 10차년도 창의성 평균 점수는 유지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아동의 창의성 잠재집단의 유형 예측 변인

유아기에서 학령기로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아동의 창의성 잠재집단의 유형을 예측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창의성 유지집단과 감소집단을 각각 참조집단으로 하고, 창의성 증진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한 후 분석하였다. 보통 하나의 참조집단을 설정하고 서로 다른 비교집단을 분석에 투입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데 유의한 예측 변수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처럼 설정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하위변수가 47개로 그 수가 상당하여 최종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1 수준에서 유의하여 경향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만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아동의 창의성 증진집단의 예측 변수

창의성		변수	β	OR	ρ	McFadden's R^2	
증진 집단	유지 집단†	성별	.446	1.439	.019	.09	
		EC- HOME	수용성(5W)	.443	1.309		.035
			수용성(6W)	.404	1.315		.072
			학습자극(6W)	.710	1.493		.044
			수용성(7W)	-.349	.781		.085
			반응성(7W)	.955	1.342		.000
		MC- HOME	학습자료와 기회(9W)	.679	1.225		.002
			가족통합(10W)	-.383	.825		.071
			표현어휘력(4W)	-.690	.908		.072
			EC- HOME	언어자극(5W)	-.845		.454
학습자극(6W)	.958			1.961	.040		
수용성(7W)	-.592	.611		.091			
학습자료(7W)	-.633	.766		.087			
증진 집단	감소 집단†	언어자극(7W)	.629	1.593	.090	.23	
		반응성(7W)	.763	1.292	.034		
		다양성(7W)	1.501	1.841	.000		
		MC- HOME	정서적환경(9W)	-.945	.758		.026
			학습자료와 기회(9W)	.975	1.377		.016
			가족통합(9W)	.778	1.522		.047

주. †는 참조집단.

첫째, <표 5>에 창의성 유지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고 창의성 증진집단을 비교집단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창의성 유지집단과 증진집단을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보았다. 무엇보다 가정환경에서의 반응성 수준(HOME, 7차)이 높을수록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확률은 1.342배 증가한다(OR = 1.342, $p < .001$). 학령기에 가정환경에서의 학습자료와 기회(HOME, 9차)가 많을수록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1.225배 증가한다(OR = 1.225, $p < .01$). 아동의 성별이 남아일 때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439배 증가하고(OR = 1.439, $p < .05$), 유아기 아동의 가정환경에서의 수용성(HOME, 5차)이 높을 때 1.309배(OR = 1.309, $p < .05$), 학습자극(HOME, 6차)이 많을 때 1.493배로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OR = 1.493, $p < .05$). 수용성의 경우 6차년도에서는 그 수준이 높을수록 증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315배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OR = 1.315, $p < .1$), 학령기로 전이하기 직전 년도인 7차년도에서는 그 수준이 높을수록 증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781배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OR = .781, $p < .1$). 학령기로 들어선 10차년도에서 가족통합의 경우 역시 그 수준이 높을수록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825배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OR = .825, $p < .1$). 이는 학령기를 준비하는 시기에는 행동에 있어 적절한 통제와 함께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을 바람직한 방식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고, 자녀의 요구를 일정한 규칙이나 상황에 적절하게 수용하는 것은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창의력 증진에 효과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창의성 감소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하고 창의성 증진집단과 구분되어 있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유아기 가정환경에서의 다양성(HOME, 7차) 수준이 높을수록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확률은 1.841배 증가한다(OR = 1.841, $p < .001$). 또한, 학령 초기 아동에게 있어서 학습자료와 기회(HOME, 9차)가 많이 제공될수록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확률이 1.377배 증가하고(OR = 1.377, $p < .05$), 가족통합(HOME, 9차)의 수준이 높을수록 1.522배로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OR = 1.522, $p < .05$). 유아기 아동의 가정환경자극에 있어 반응성(HOME, 7차)이 높을 때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1.292배 증가하고(OR = 1.292, $p < .05$), 학습자극(HOME, 6차)의 수준이 높을수록 1.961배 높아진다(OR = 1.961, $p < .05$). 그리고 학령 초기 아동의 가족통합(HOME, 9차)의 수준이 높을수록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확률은 1.522배 증가한다(OR = 1.522, $p < .05$). 반면, 정서적 환경(HOME, 9차)의 수준이 높을수록 증진집단에 있을 확률은 0.758배 감소한다(OR = .758, $p < .05$). 이는 초등학교 자녀의 부정적인 표현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적절한 규칙과 제한 설정이 오히려 창의력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기의 언어자극(HOME, 5차)이 높을 때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454배 감소하고(OR = .454, $p < .1$),

표현어휘력이 높을수록 0.908배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다(OR = .908, $p < .1$). 그러나 7차년도 언어자극(HOME)은 높을수록 창의력 증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593배 증가하였다(OR = 1.593, $p < .1$). 이러한 결과는 감소집단의 유아기 시절 창의력 측정에 있어 언어적 능력의 효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령기로 전이되는 7차년도에 학습자료의 수준이 높고(OR = .766, $p < .1$), 수용성의 수준이 높을수록(OR = .611, $p < .1$) 창의력 증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아동의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유아와 학령기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관심 역시 높다. 그러나 아동이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성장함에 따른 창의성 변화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창의성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R 환경에서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이용하여 잠재집단을 분류하였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각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창의성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은 창의성 유지집단, 감소집단, 증진집단의 3계층으로 구분되었다. 창의성이 유지되는 집단은 전체 아동의 72.3%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아동의 창의성이 학령기가 되어서 감소하는 집단은 8.2%의 분포를 보였다. 반면, 창의성이 학령기가 되어 증진되는 집단의 아동은 19.4%의 분포를 보였다. 잠재집단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먼저 유아기에 측정한 창의성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감소집단이였다. 증진 및 유지집단의 경우 유아기 창의성 평균 점수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유지집단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10차년도인 학령기에 측정한 창의성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증진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감소집단과 유지집단의 순이었다. 감소집단의 유아기 창의력 점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지만, 유아기에서 이처럼 높았던 창의성 점수는 학령기가 되면서 매우 많은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유지집단의 창의성 평균 역시 소폭이지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창의성이 유아기 시절에 급격히 발달한 후 학령기가 되면서 감소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전경원, 2000; Meeker, 1978; Torrance, 1963; Urban, 1991). 그러나 전체의 19.4%에 해당하는 아동의 창의성이 학령기가 되어서 더 증가한 증진집단을 보면 아동의 창의성은 학령기로 발달함에 따라 함께 증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창의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차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는 시기에 창의성의 측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간의 종단적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아동의 창의성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와 보다 풍부한 논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분류된 아동의 창의성 잠재집단의 변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다양한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가정환경, 인지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등의 데이터 중 각 하위변수들을 투입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1차년도에서부터 10차년도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측이 5% 이상인 하위변수를 제외하고, 상관성이 낮거나 신뢰도가 낮은 변수들을 삭제한 후 최종 47개의 하위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창의성 유지집단과 감소집단을 각각 참조집단으로 설정하고 증진집단을 비교집단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가정환경에서의 자극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정환경은 가정환경자극검사(HOME)을 통해 알아보았고, 각 년도 별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상이하였으나,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하위변수는 반응성과 다양성이었다.

먼저, 창의성 유지집단과 증진집단의 비교에서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전이되기 직전인 7세 무렵 가정환경에서의 반응성 수준이 높을수록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 학령 초기로 들어선 아동에게는 가정에서 학습자료와 기회가 많이 부여될수록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성별에 있어 남아인 경우 증진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고, 유아기 아동에게 가정환경에서의 수용성과 학습자극이 많을수록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가정환경에서의 반응성이란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과 온정적 관계를 의미하고, 수용성은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학습 자극 역시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어머니가 유아기의 중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반응성, 수용성 그리고 학습 자극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관계있다. 따라서 아동의 창의성이 아동의 연령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유아기시기에 있는 아동에 대해 양육자가 정서적, 언어적으로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온정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유아기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을 부모가 적절히 수용해주고, 부모가 유아기의 중요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에 대해 격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학령기 아동에 있어서는 학습자료와 기회가 많은 경우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학습을 지지하는 환경 조성, 아동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학습을 위한 개입보다는 스스로 사고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는 아동의 창의성과 부모의 양육에 관한 선행연구(김은영·임신일, 2016; 도남희, 2017; 이보영, 2012; 하주현·박은희, 2013)에서 양육환경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창의성 감소집단과 증진집단의 비교에서는 더 많은 변인들이 창의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아동기에서 학령기로 전이되는 시점인 7차년도에서 가정환경의 다양성 수준이 높을수록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유아기 아동에게 있어 가정환경자극에서의 반응성과 학습자극 수준이 높을수록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아동이 학령 초기에 접어들어서는 학습자료와 기회 및 가족통합의 수준이 높을수록 창의성 증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 두 집단의 비교에서도 역시 가정환경에서의 다양성과 반응성이 주요 변인으로 예측되었고, 이는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결과이다. 가족통합은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아버지(혹은 아버지 역할 수행자)가 자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의 창의성 증진에 있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행연구(고선옥이영환, 2006; 고영규, 2018; 김형재구성수이경철, 2015)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아동의 창의성이 증진되는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아동에게 풍부한 경험과 다양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족의 생활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반응적이고 온정적인 태도와 유아기에 중요한 기술 습득을 돕고 격려하며, 자녀가 필요로 할 때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창의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반면, 학령기 아동의 경우 가정의 정서적 환경의 수준이 높을수록 증진집단에 있을 확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자극에서 정서적 환경은 초등학생 자녀의 부정적인 표현을 부모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부정적인 표현을 부모가 수용하고 그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 자녀가 바람직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역할이 필요하며, 연령의 증가와 함께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적절한 규칙이나 제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함에 있어 아동의 일차적 환경이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온 가정환경의 영향이 가장 크다 하겠다. 가정환경은 물리적인 여건이나 많은 양의 사교육에의 참여가 아닌 아동의 정서와 심리적 측면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환경이며,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언어자극 및 표현어휘력 등 언어발달과 관련한 요인에서 그 경향성이 나타났는데, 언어발달과 관련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창의성 증진 집단은 5차년도에서 7차년도로 변화하였을 때 언어자극의 평균 역시 증가하였고($t = 2.162, p < .001$), 감소집단은 5차년도에서 7차년도로 시간이 흘렀을 때 언어자극의 평균이 감소하였다($t = -4.051, p < .001$). 이것은 아동의 창의성에 있어 언어자극의 효과로 볼 수 있는데, 유아기 시절 다양한 언어적 자극 등 언어발달 독려를 위한 노력이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지 못한다면 창의성 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

함을 알 수 있다. 영유아기에 시작된 언어자극은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상승된다면 이것은 창의성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므로 언어적 자극이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아동의 언어자극 및 발달을 유아기부터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밝혔듯이, 아동의 창의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그 모든 변인을 다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의 특성과 관련한 변인은 투입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등과 같은 변인 역시 아동의 창의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아동 개인의 심리적 특성도 함께 고려된다면 그 결과는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한 기관 및 사회 제도의 특성 역시 아동의 창의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아동의 창의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투입변인들 중 중요한 변수로 예측되었던 인지 및 언어발달 등과 관련한 측정값에 결측이 많아 분석에서 대부분 제외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언어자극이 창의성 증진에 영향을 주는 효과임이 나타났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 언어자극이 창의성의 하위범주 중 어떠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측으로 인하여 인지 및 언어발달 측정 변수들의 값이 투입되지 못하였다. 특히 2차년도와 6차년도에서 심층면담을 통해 인지 및 언어발달 등이 측정되었는데, 그 결과값의 결측률이 70%를 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추후 아동패널조사에서 결측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아동의 창의성 변화 요인을 예측하는 설명력이 높아질 것이며, 지속적인 종단 데이터 구축과 그와 관련한 연구를 통하여 아동이 성장함과 함께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선옥이영환(2006). 아버지의 창의적 성격특성, 양육신념, 유아의 창의성간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영아보육학, 47, 1-19.
- 고영규(2018).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사회성과 창의성향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학연구, 25(1), 101-129.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1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연

- 수 자료집.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상림·박창현(2017). 유아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과 가정환경 및 유아-교사상호작용이 유아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17(1), 111-128.
-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지침서.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은영·임신일(2016).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과 창의적 인성에서 교사애착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5(3), 5-24.
- 김형재·구성수·이경철(2015). 아버지의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능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3), 1844-1852.
- 김 호·유영의(2011). 유아의 놀이성에 따른 창의성의 변화과정 탐색. 어린이문학교육 연구, 12(1), 333-352.
- 도남희(2017).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환경 조성방안. 육아정책포럼, 52, 6-16.
- 미래창조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 합동(2013).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 (2013. 08. 06).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4313>
- 박은지(2020). 유아교사의 창의적 자기신념 잠재집단에 따른 창의적 교수행동과 유아 창의성의 차이.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혜원·곽금주·박광배(1996). 한국 유아지능검사(K-WPPSI-R) 지침서. 서울: 특수교육.
- 안선화·성은현(2016). 창의성에 대한 부모인식, 가정환경과 유아의 창의적 특성간의 관계. 창의력 교육연구, 16(1), 63-79.
- 우수경·김 호·박숙희(2015).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따른 창의성의 변화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20(1), 487-505.
- 이보영(2012). 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자녀의 창의적 성향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2(4), 115-132.
- 이선애·이채호(2014). 유아의 가정환경, 놀이 및 교사창의성이 유아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4), 253-270.
- 이종구·현성용·최인수(2014). 다요인 지능검사 해석 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이종숙·신은수·박은혜·김영태·곽영숙·유영의(2008). 영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 도구 지침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 기술부.
- 전경원(2000). 창의학. 서울: 학문사.
- 전경원(2001).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전경원·전경남(2008). 초등 도형창의성 검사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정선화·이채호·최인수(2011). 유아 창의성과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및 가족기능 간의 관계. 생활과학, 14, 17-25.
- 조석희(2005). 초등학교 고학년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특성에 대한 경로 분석. 교육심리연구, 19(3), 745-760.
- 최인수(2010). 창의성의 발견. 서울: 쌤앤파커스.
- 하주현(2015).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양육태도가 자녀의 창의성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 탐색.

- 창의력교육연구, 15(2), 83-96.
- 하주현·박은희(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과 창의적 사고 및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 *창의력교육연구*, 13(3), 123-144.
- Amabile, T. M. (1995). Attributions of creativity: what are the consequence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8(4), 423-426.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Arkansas: University of Arkansas for Medical Sciences.
- Csikszentmihalyi, M. (1999). Implications of a systems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creativity. In R. J. Sternberg (Ed.).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ilford, J. P. (1950).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9), 444-454.
- Guilford, J. P. (1959). Three faces of intellect. *American Psychologist*, 14(8), 469-479.
- Hix-Small, H., Duncan, T. E., Duncan, S. C., & Okut, H. (2004). A multivariate associative finite growth mixture modeling approach examining adolescent alcohol and marijuana us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4), 255-270.
- Meeker, M. (1978). Measuring creativity from the child's point of view.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2(1), 52-62.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Simonton, D. K. (1988). Creativity, leadership, and chance. In R. J. Sternberg (Ed.) *The Nature of Crea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nberg, R. J., & Lubart, T. I. (1991). An investment theory of creativity and its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34(1), 1-31.
- Torrance, E. P. (1963). *Education and the creative potential*.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Torrance, E. P. (1974). *The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Norms-technical manual*. Bensenville, Illinois: Scholastic Testing Services, Inc.
- Urban, K. K. (1991). On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in children. *Creativity Research Journal*, 4(2), 177-191.
- Wardennar, K. J. (2020, April 7). Latne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using R: A tutorial for two R-packages and a comparison with Mplus. doi.10.31234/osf.io/m58wx

• 교신저자: 이근애, 동아대학교 영유아학과 박사수료, kaka0282@naver.com

Abstract

Factors affecting the type of creativity change in children: Application of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Geunae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potential classes according to children's creativity change and to identify variables affecting each class. For the analysis, data from the 1st to the 10th of the Panel Study on Korea Children were used, and a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1,359 children.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most appropriate to classify the latent group as a three-tier group according to children's creativity change: maintenance group(72.3%), decrease group(8.2%), increase group(19.4%). Second, the variables affecting the types of change in children's creativity latent group were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imulus in the home environ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order to continually increase creativity as children grow up, they need to be able to support their emotional and psychological aspects. Providing this home environment requires parental attention and effort.

• Key words: creativity, home environment,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R

아동의 창의성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잠재계층성장 분석의 적용

도남희(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창의성이라는 주제는 매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주제임에도 추상적이고 조작적 정의 등의 한계로 연구가 한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본 논문의 저자가 강조하였듯이 뉴노멀 이후,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이전의 지식의 축적과 이를 이용한 문제해결에는 한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전과는 다른 지식의 사용과 이를 통한 창의적인 문제해결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는 바이다. 연구자로서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 그리고 창의성을 발달, 또는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가정, 학교 및 직장 등)과 개인특성 및 사회관계 등에 대한 논의들이 향후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본 논문은 심사 관련 올해 읽은 10여 편의 논문 중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논문 중 하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창의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었고 다른 하나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앞으로의 창의성에 대한 학계와 사회적 담론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논문의 질 제고를 위한 소견

본 논문의 주제가 참신하고 전반적인 논리적인 전개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완결성과 이후 논문 게재를 위한 저자의 노력에 도움을 주고자 주제넘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목에 대한 고민을 더 했으면 한다. 물론 지금의 제목도 나쁘지 않지만, 연구 내용을 알 수 있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목으로 수정하기를 권한다. 특히, 방법론에 대한 부가 내용이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 본 원고는 잠재집단의 유형에 따른 창의성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요약에서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하면 더 좋은 제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창의성을 둘러싼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언급과 문제의식이 서술되었으면 한다. 창의성이라는 참신하고 추상적인 주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결과 및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둘러싼 학계의 구체적인 담론이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유아기와 학령기의 창의성의 변화 특성, 창의성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언급했으나 매우 개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유아기와 학령기에서의 주요 변인들(유아기의 증진집단의 수용성과 학습자극, 학령기의 학습 자료와 기회, 언어 자극)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서로 다른, 또는 일관된 연구결과들이 앞서 제시되었다면 더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그러한 선행연구들이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와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를 논의에서 언급된다면 더 의미있는 논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된 변인 중 가정환경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언어발달과 창의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방법과 결과의 표 제공 시, 연구 내용과 부합되는 표를 제시하고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서 가구소득은 왜 제시되어야 하는지, 언어발달은 측정 도구에 왜 포함되었는지? 검토하여 재배치하였으면 한다. 또한 잠재집단의 모델적합도와 수를 정한 후 잠재집단의 이름을 명명하고 표로 제시를 먼저 했다면 독자의 이해를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

3. 정리하면서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대회와 다른 학회의 논문에서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 때 데이터를 생산했던 연구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아동 패널 데이터는 두 가지의 조사에 의해 데이터가 생산되었음을 알려주고 싶다. 본 논문의 논의에서 저자가 지적한 패널조사의 한계 중 2차년도와 6차년도의 심층면담에 결측률이 70% 이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조사가 아닌 심층조사라 전체 패널 중 자발적 참여로 심층조사를 한 결과이므로 연구비의 한계와 측정의 복잡함으로 전체 패널이 참가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저자가 지적하였듯이 패널조사의 결측치를 줄여서 데이터의 타당성을 높이는 일은 오로지 패널 데이터 생산자의 몫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패널 연구자의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제11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Conferenc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 육아정책연구소
Tel. 02-398-7715 www.kicce.re.kr